

GOVP 19500545 K

- 315.1

E363E

1991~1994

# 통계분석자료모음

(1991~1994)

1994. 11

통 계 청

## 머 리 말

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통계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을뿐 아니라 요구하는 통계자료의 형태도 점차 다양화·세분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구조의 다변화에 따라 경제·사회·문화 등에 관한 기본통계는 물론이거니와, 이러한 통계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통계분석자료도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간 통계청은 이러한 수요에 부응하여 각 분야의 기본통계를 한층 더 개선·발전시키는 노력과 함께 통계분석자료를 확충·보급하는 데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번에 통계청에서는 통계청 발족이후 지금까지 책자나 언론보도를 통하여 발표하였던 통계분석자료들을 모아 단행본으로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소중한 자료들이 오래도록 보존되도록 함은 물론, 업무에도 많이 활용되어지기를 기대합니다.

1994. 11.

통계청장 이 강 우

## 이용자를 위하여

이 책자는 '91년 1월 통계청 발족이후 '94년 10월말 현재까지 사이에 통계청 각 과에서 책자나 언론보도를 통해 발표한 바 있는 통계분석자료들을 모아서 재편집한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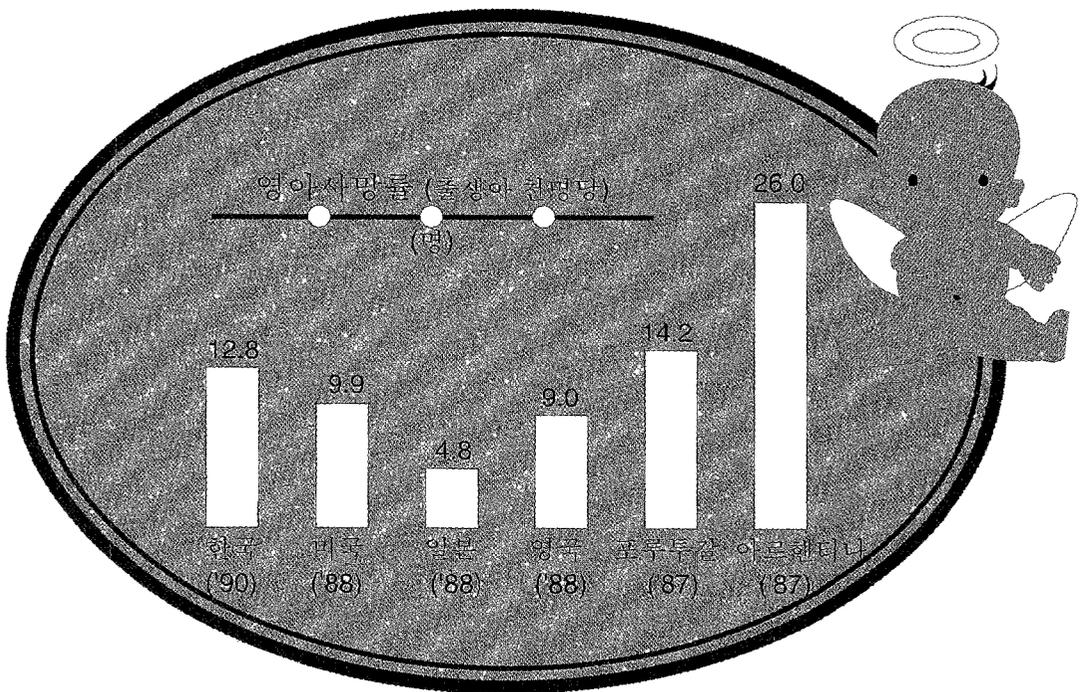
이용시에는 다음 사항에 특히 유의하기 바랍니다.

1. 인용된 수치는 자료작성 당시에는 가장 최근의 것이지만, 그 이후의 정정·보완등으로 인하여 현재의 수치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2. 해설이나 통계표상에 나타나는 순위매김 역시 자료작성 당시에 따른 것으로 현재시점에서 보면 달리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3. 재편집시 매 자료사이에 간지를 넣어 통계도표를 새로 첨가하였으나, 여기에 인용된 수치도 재구성한 것이 아니라 본문에 있는 수치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 목 차

1. 최근 영아사망률 (1991. 2)	1
2. 혼인·이혼통계 작성결과 (1991. 10)	7
3. 통계로 본 세계와 한국 (1992. 1)	87
4. 우리나라 및 세계 인구현황 (1992. 7)	105
5. 통계로 본 한국의 발자취(요약) (1992. 10)	117
6. 『조선통계시보』를 통해 본 1930년대의 사회상 (1992. 11)	155
7. 100세이상 고령인구 현황 (1992. 12)	171
8. 한국의 고령자 실태분석 (1993. 6)	185
9. 한국 및 세계인구 현황 (1993. 7)	223
10. 통계로 본 광복전후의 경제·사회상(요약) (1993. 8)	239
11. 지난 30년간 도시근로자가구의 가계수지변화 (1993. 9)	285
12. 1993년도 한국의 사회지표 (1994. 1)	329
13. 한국통계월보('94년 2월호)에서 본 통계특징(발췌) (1994. 3)	363
14. 북방 교역의 변화 (1994. 4)	375
15. 국민건강수준 얼마나 향상되었나 (1994. 4)	413
16. 우리나라의 가정현황 (1994. 5)	437
17. 여성 사회참여확대의 이모저모 (1994. 5)	475
18. 한국 및 세계 인구 현황 (1994. 7)	517

# 최근 영아사망률



「최근 2년간 영아사망률은 출생아 1,000명당 12.8명 수준으로 이는 미국 등 선진국 수준보다는 높고 아르헨티나 등 남미 제국보다는 낮은 편이다.」

- 자료중에서 -

# 최근 영아사망률

1991. 2

통계조사국 인구통계과

## 1 개념

$$\text{영아사망율 (IMR)} \\ (\text{Infant Mortality Rate}) = \frac{\text{출생후 1년 이내 사망아수}}{\text{연간 총 출생아수}} \times 1000$$

## 2 조사개요

### - 실시배경

국민의료보건수준의 척도인 영아사망율을 파악하기 위하여 인구동태추적 조사를 1989년부터 실시 (표본 조사구내 임신부인 및 신생아가 이사를 가더라도 추적하여 조사)

### - 조사대상

961개 표본조사구내(약32,500가구)의 가입여성 및 1세미만 출생아  
표본조사구역 밖으로 전출한 임신부인 및 1세미만 출생아

### - 조사방법

표본조사구내 대상은 매월 조사  
조사구 밖으로 전출한 대상은 매분기 (1 4, 7, 10월)마다 현지에 방문하여 조사

### - 조사사항

가입여성의 임신여부 상태  
임신부인의 임신결과(유산, 사산, 정상분만)  
출생아의 체중 및 생존여부  
사망아의 사망일 및 사망원인  
관리대상자의 전출지파악등

3. 조사결과

- 최근 2년간 영아사망율은 출생아 1000명당 12.8명 수준을 보임

	1989	1990
출생아수 (A)	1,558	1,638
사망아수 (B)	20	21
영아 사망율 (B/A × 1000)	12.84	12.82
대 상 가 구	32,056	32,741

○ 이는 미국등 선진국 수준보다는 높고 아르헨티나등 남미제국보다는 낮은편임

	미 국 ( '88)	일 본 ( '88)	영 국 ( '88)	서 독 ( '87)	이스라엘 ( '86)
영 아 사 망 율	9.9	4.8	9.0	8.3	11.4

	포르투갈 ( '87)	말레이시아 ( '85)	칠 레 ( '87)	아르헨티나 ( '87)	이 집 트 ( '87)
영 아 사 망 율	14.2	16.5	18.5	26.0	45.1

- '89년의 경우 영아사망율을 총출생아수에 적용해 보면 연간 영아사망수는 약 8600명 수준으로 추정됨

○  $670,543(89 \text{ 총출생아}) \times 0.01284 = 8610 \text{ 명}$

## 주요국별 영아사망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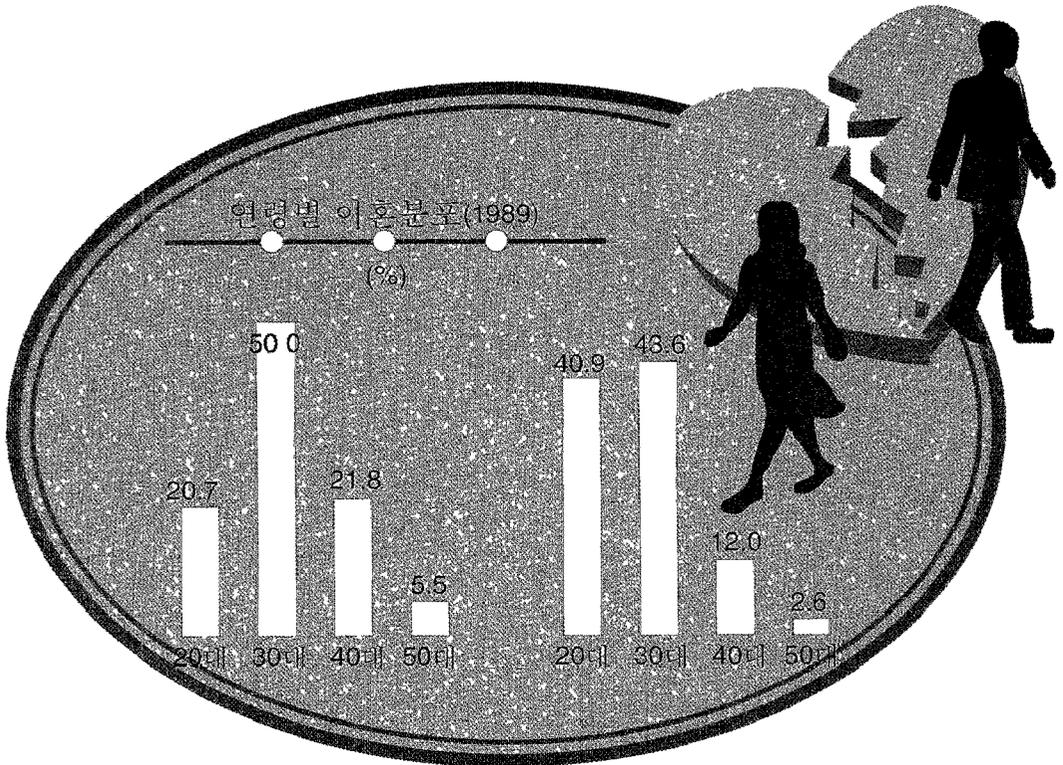
국 명 (연 도)	영아사망율	국 명 (연 도)	영아사망율
이 집 트 (1987)	45.1	헝 가 리 (1988)	* 15.8
푸에도리코 (1987)	14.2	루 마 니 아(1985)	25.6
엘살바도르 (1985)	32.5	덴 마 크 (1987)	8.3
아르헨티나 (1987)	26.0	아 일 랜 드(1987)	7.4
칠 레 (1987)	18.5	스 웨 덴 (1988)	* 5.8
페 루 (1987)	122.0	영 국 (1988)	* 9.0
베네주엘라 (1987)	23.7	이 탈 리 아(1988)	* 9.5
카 나 다 (1987)	7.3	포 르 투 갈(1987)	14.2
미 국 (1988)	* 9.9	스 페 인 (1985)	* 8.5
홍 콩 (1988)	* 7.4	유고슬라비아(1988)	* 24.8
일 본 (1988)	4.8	오스트리아 (1988)	8.1
말레이시아 (1985)	16.5	프 랑 스 (1988)	* 7.7
싱 가 포 르(1988)	* 7.0	서 독 (1987)	8.3
스 리 랑 카(1986)	* 22.5	동 독 (1988)	* 8.1
이 스 라 엘(1986)	11.4	스 위 스 (1988)	6.8
쿠 에 이 트(1986)	15.6	오스트레일리아(1988)	* 9.2
체코슬로바키아(1988)	* 11.9	소 련 (1987)	25.4

자 료 : 최근 인구통계자료집(1989, 일본)

주) \* 는 잠정치임

**여 백**

## 혼인·이혼통계 작성 결과



「혼인건수는 '70년대 초반 연평균 260천쌍에서 '80년대 후반은 392천쌍으로 증가하였으며, 이혼건수는 '70년대 초반 연평균 14천건에서 '80년대 후반 45천건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다.」

- 자료중에서 -

# 婚姻・離婚統計 作成結果

(人口動態申告에 依한 分析)

1991. 10

統計調査局 人口統計課

# I. 統計作成概要

## 1. 婚姻·離婚統計의 作成背景

### 가. 作成目的 및 利用

- 婚姻은 人口數 및 家口數 變動의 直接的인 原因이 되므로 婚姻統計는 住宅 需給, 財貨와 用役의 需給 計劃 等 産業 需要側面의 基礎資料가 됨.
- 婚姻數 및 婚姻年齡은 人口規模 및 構造, 女性勞動力 供給등에 直接影響을 줌
- 離婚統計는 離婚女性의 生活能力, 住居問題 및 子女의 心理的·經濟的 保護등 離婚으로 야기되는 社會問題 對策에 基礎資料가 됨

### 나. 作成背景

- 婚姻 離婚統計의 重要性에도 불구하고 同 統計作成의 基礎資料가 되는 人口 動態申告(戶籍申告)率의 低調로(當年申告率 : 婚姻 '70年 19.5%, '80年 48.2% 離婚 '70年 51.2%, '80年 57.7%) 申告發生件數 中心의 基本集計表만을 '80年 以後 人口動態統計年報에 收錄해 음.
- 最近 利用可能한 婚姻·離婚 時系列 資料가 충분해지고 國民의 申告率이 向上(婚姻 '86年以後와 離婚 '87年以後 當年申告率이 각각 70%以上)됨에 따라 婚姻·離婚 發生件數만을 推定, 지난 '88과 '89년에 出生 死亡統計와 더불어 發表한 바 있으며, 이번에 약 20年間의 時系列 資料를 利用, 우리나라 婚姻·離婚 實態를 分析하게 된 것임.

## 2. 作成沿革

- 1949年以後 戶籍申告制度와 별도로 人口動態申告制度에 의하여 人口動態資料가 蒐集되어 왔으나 國民申告의 不振으로 内部研究資料로만 利用되어옴
- 1970年 戶籍申告 樣式에 人口動態 項目을 追加, 申告書 樣式을 일원화.
- 1980年 以後 過去 10年間의 婚姻 離婚統計를 發生年度 基準으로 作成, 申告 發生件數 中心의 基本統計表를 「人口動態統計年報」에 收錄, 發刊
- 1988年 11月과 1989年 10月에는 過去 10年間의 遲延申告 패턴을 利用하여 推定한 婚姻·離婚 發生件數등을 「最近 人口動態現況 및 新人口推計結果」와 「人口動態申告結果 및 將來人口推移」에 각각 收錄, 公表함.

## 3 基礎資料

- 戶籍法 및 人口動態調查規則에 따라 國民이 提出한 婚姻, 離婚 申告書를 基礎로 하여 作成.

## 4. 婚姻·離婚件數 推定

### 가. 總件數 推定의 必要性

- 婚姻 離婚등 人口動態統計는 國民의 人口動態申告(戶籍申告)에 依據 作成되므로, 申告者인 國民이 遲延申告 또는 人口動態事項을 歪曲申告하는 경우 正確한 婚姻 離婚統計 作成에 제약이 되는데, 申告資料 檢討結果 歪曲申告件數는 微細하나, 遲延申告率(發生年度內 申告基準)은 다소 높은 편임.

遲延申告는 오랜 期間을 통하여 이루어지므로 比較時點에서 期間이 가까운 年度일수록 向後 追加로 申告될 遲延申告分은 늘어나겠으나, '70-'80년 10年間을 보면 婚姻의 경우 遲延申告 比率은 '70年 80%에서 '80年 50%水準으로, 離婚은 '70年 약 50%水準에서 '80年 40%水準으로 크게 낮아졌음.

○ 最近('89)에는 2年以內 申告比率이 婚姻은 94%, 離婚이 82%에 달하고 있음.

- 따라서 婚姻 離婚 推移를 分析하기 위하여는 遲延申告分을 포함, 年間發生件數 推定이 우선되어야 함 또한, 年間 發生件數 推定은 長期間 時系列 資料 比較, 最近 遲延申告의 改善程度 測定 等에도 유용함.

#### 나. 推定方法

##### (1) 推定 및 補正期間

- 遲延申告에 관한 時系列 資料는 '70年 資料부터 利用可能함 '90年 申告資料에는 '70年 發生의 21年째 遲延 申告分이 包含되어 있음.
- 遲延申告는 發生後 年度가 많이 經過 할수록 遲延申告比率이 낮아지는데 '70年 發生 婚姻이 12年次~21年次('81 ~ '90年 申告)에, 離婚이 18年次~21年次('87~'90年 申告)에 申告된 遲延申告 件數는 總 申告件數('70~'90年 申告)의 1%未滿에 불과함.
- 이러한 趨勢로 보아 婚姻 離婚發生 21年이 지난후에 遲延申告 될 件數는 거의 무시할 정도('70年 21年次 遲延申告率 : 婚姻 0.05%, 離婚 0.46%)이므로 21年間に 걸쳐 申告된 總件數(當年申告件數 + 20年間の 遲延申告件數)를 '70年 發生件數로 推定함 또한 모든 年度에 대하여도 21年에 걸쳐 申告되는 追跡件數를 推定件數로 간주함.
- 그러나 '71年 發生分中 '91년에, '72年 發生分中, '91, '92년에 申告될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들이 '90年 申告資料 分析時 推定, 補正되어야 할 부분임. 따라서 '71年發生은 21年째인 1年分만 推定, 補正하면 되나, '81年 發生의 경우에는 向後 11年間に 걸쳐서 申告될 부분을 推定하여 '81年 發生件數를 補正해야 함

(2) 推定方法

- 發生年度 '70年의 申告年度別('70~'90年) 申告件數(累積件數) 및 總件數에 대한 比率(累積比率)을 구함
- 發生年度 '71年의 경우에는 21年次 申告件數('91年申告分)를 推定해야 하는데, 21年次의 遲延申告率은 '70年의 21年次 遲延申告率과 同一하다는 假定하에 '70年度의 21年次 申告比率( 및 累積比率)을 적용함  
 마찬가지로 發生年度 '73年의 경우에는 20年次, 21年次의 申告件數를 前年度數值를 적용하여 추정함.
- 이와 같은 과정을 계속 反復하며 '71~'90年 사이 각 發生年度別 推定發生件數를 算出함
- 具體的으로 例를 들면(婚姻의 경우),

① '70年 發生 婚姻의 경우 '70年에서 '90년까지 21年間 申告件數를 申告年度別로 申告件數 및 累積申告件數를 구한후, 21年次('90年) 累積申告件數를 '70年 推定發生件數로 함  
 申告年次別 累積申告比率은 推定發生件數에 대한 比率로 計算함

申告年次	申告件數	累積申告件數	累積比率
1 年次('70)	58,535	58,535	19642
2 年次('71)	91,428	149,963	.49860
3 年次('72)	38,149	188,112	62544
.	.	.	.
.	.	.	.
18 年次('87)	117	300,354	99863
19 年次('88)	98	300,452	.99895
20 年次('89)	151	300,603	99945
21 年次('90)	164	300,767	1 00000

'70年 推定發生件數 = '70年의 21年次 累積申告件數 = 300,767件

② '71年の 경우 '90년까지 20年間 申告年次別 申告件數 및 累積申告件數를 구함. '71年 推定 發生件數는 20年次('90年) 累積申告件數를 '70年の 20年次 累積申告 比率로 나누어 計算함.

③ 推定發生 件數에 대한 累積件數의 比率를 推定 累積申告率로 計算함. 但, 申告되지 않은 21年次의 累積申告比率는 前年度인 '70年の 21年次 累積 申告比率를 그대로 적용함.

申告年次	申告件數	累積申告件數	累積比率
1 年次('71)	57,663	57,663	.23677
2 年次('72)	73,371	131,034	.53805
3 年次('73)	44,642	175,676	.72136
.	.	.	.
.	.	.	.
.	.	.	.
18 年次('88)	160	243,203	.99863
19 年次('89)	117	243,320	.99911
20 年次('90)	83	243,403	.99945
21 年次('91)	(133)	(243,536)	(1 00000)

※ 괄호안의 숫자는 推定된 數值임

$$\begin{aligned}
 \text{'71 推定發生 件數} &= \frac{\text{'71年 20年次 累積申告件數}}{\text{'70年 20年次 累積申告比率}} \\
 &= \frac{243,403}{.99945} = 243,536
 \end{aligned}$$

④ '72年の 경우 '90년까지 19年 申告年次別 申告件數 및 累積 申告件數를 구함. '72年 推定發生件數는 19年次 累積申告件數를 '71年 19年次 累積 申告比率로 나누어 計算함(以下省略)

⑤ 이와같은 節次를 繼續 反復하여 '70~'90年 사이 各 發生年度別 推定發生 件數, 申告年次別 推定累積件數 및 推定累積比率를 算出함.

○ 婚姻·離婚의 當年 및 遲延申告件數

發生年度	婚 姻		
	申告發生件數(率)	當年申告件數(率)	遲延申告件數(率)
1970	300,767(100)	58,535(19.5)	242,232(80.5)
1971	243,403(100)	57,663(23.7)	185,740(76.3)
1972	247,520(100)	57,119(23.1)	190,401(76.9)
1973	261,608(100)	81,129(31.0)	180,479(69.0)
1974	261,849(100)	79,406(30.3)	182,443(69.7)
1975	285,218(100)	111,256(39.0)	173,962(61.0)
1976	286,934(100)	110,128(38.4)	176,806(61.6)
1977	304,419(100)	138,104(45.4)	166,315(54.6)
1978	344,277(100)	151,600(44.0)	192,677(56.0)
1979	354,400(100)	162,706(45.9)	191,694(54.1)
1980	403,610(100)	195,566(48.5)	208,044(51.5)
1981	364,889(100)	199,763(54.7)	165,126(45.3)
1982	361,909(100)	204,305(56.5)	157,604(43.5)
1983	368,260(100)	228,464(62.0)	139,796(38.0)
1984	359,734(100)	252,407(70.2)	107,327(29.8)
1985	373,680(100)	265,115(70.9)	108,565(29.1)
1986	373,875(100)	272,731(72.9)	101,144(27.1)
1987	370,728(100)	282,060(76.1)	88,668(23.9)
1988	378,106(100)	296,179(78.3)	81,927(21.7)
1989	377,482(100)	309,872(82.1)	67,610(17.9)
1990	312,319(100)	312,319(100)	-

發生年度	離 婚		
	申告發生件數(率)	當年申告件數(率)	遲延申告件數(率)
1970	12,493(100)	6,401(51.2)	6,092(48.8)
1971	11,981(100)	7,360(61.4)	4,621(38.6)
1972	12,735(100)	7,983(62.7)	4,752(37.3)
1973	13,237(100)	8,410(63.5)	4,827(36.5)
1974	14,556(100)	9,568(65.7)	4,988(34.3)
1975	16,972(100)	11,423(67.3)	5,549(32.7)
1976	17,582(100)	11,988(68.2)	5,594(31.8)
1977	20,681(100)	14,318(69.2)	6,363(30.8)
1978	20,035(100)	14,145(70.6)	5,890(29.4)
1979	17,438(100)	10,531(60.4)	6,907(39.6)
1980	23,898(100)	14,195(59.4)	9,703(40.6)
1981	24,543(100)	16,128(65.7)	8,415(34.3)
1982	26,740(100)	17,547(65.6)	9,193(34.4)
1983	29,139(100)	19,085(65.5)	10,054(34.5)
1984	35,214(100)	25,858(73.4)	9,356(26.6)
1985	37,314(100)	27,867(74.7)	9,447(25.3)
1986	37,744(100)	28,678(76.0)	9,066(24.0)
1987	39,501(100)	31,311(79.3)	8,190(20.7)
1988	38,154(100)	31,558(82.7)	6,596(17.3)
1989	37,499(100)	32,474(86.6)	5,025(13.4)
1990	34,331(100)	34,331(100)	-

註) 遲延申告件數는 發生年度以後 '90년까지 申告된 件數의 合計임.

○ 발생년도 및 신고년차별 혼인건수

신고년차	1970	1971	1972	1973	1974	1975	1976	1977	1978	1979
1년차	58535	57663	57119	81129	79406	111256	110128	138104	151600	162706
2년차	91428	73371	99204	92023	113772	101865	113588	112657	126003	134019
3년차	38149	44642	38588	47052	35482	35318	34626	28865	37222	32319
4년차	35611	34338	23576	18585	13034	14966	11865	11388	12986	10375
5년차	34440	13821	12080	7948	7190	7006	6698	5151	5316	6544
6년차	16874	7485	5255	5050	3930	5413	3708	2469	4417	3242
7년차	9928	3506	3688	2783	3096	3322	1859	2294	2303	1646
8년차	4912	2970	2515	2600	2139	1873	1976	1460	1487	1322
9년차	3513	1661	1877	1435	968	1538	1072	768	897	922
10년차	1747	927	878	507	587	669	490	333	782	729
11년차	1600	642	541	554	501	584	294	393	689	357
12년차	1326	519	487	465	463	427	176	236	359	219
13년차	876	427	412	372	391	319	169	141	216	0
14년차	517	389	363	313	313	286	151	160	0	0
15년차	428	273	285	297	276	211	134	0	0	0
16년차	217	212	217	218	201	165	0	0	0	0
17년차	136	197	184	169	100	0	0	0	0	0
18년차	117	160	172	108	0	0	0	0	0	0
19년차	98	117	79	0	0	0	0	0	0	0
20년차	151	83	0	0	0	0	0	0	0	0
21년차	164	0	0	0	0	0	0	0	0	0

신고년차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년차	195566	199763	204305	228464	252407	265115	272731	282060	296179	309872	312319
2년차	140129	122011	121699	109454	81963	83505	80746	73730	71940	67610	0
3년차	34176	25346	20943	17138	13894	14147	13931	11147	9987	0	0
4년차	15741	8168	6234	5119	5045	6186	4412	3791	0	0	0
5년차	6841	3300	2785	3162	3451	2939	2055	0	0	0	0
6년차	3357	1896	2211	2632	1831	1788	0	0	0	0	0
7년차	2399	1704	1992	1280	1143	0	0	0	0	0	0
8년차	2262	1671	1092	1011	0	0	0	0	0	0	0
9년차	1810	666	648	0	0	0	0	0	0	0	0
10년차	750	364	0	0	0	0	0	0	0	0	0
11년차	579	0	0	0	0	0	0	0	0	0	0
12년차	0	0	0	0	0	0	0	0	0	0	0
13년차	0	0	0	0	0	0	0	0	0	0	0
14년차	0	0	0	0	0	0	0	0	0	0	0
15년차	0	0	0	0	0	0	0	0	0	0	0
16년차	0	0	0	0	0	0	0	0	0	0	0
17년차	0	0	0	0	0	0	0	0	0	0	0
18년차	0	0	0	0	0	0	0	0	0	0	0
19년차	0	0	0	0	0	0	0	0	0	0	0
20년차	0	0	0	0	0	0	0	0	0	0	0
21년차	0	0	0	0	0	0	0	0	0	0	0

○ 발생년도 및 신고년차별 이혼건수

신고년차	1970	1971	1972	1973	1974	1975	1976	1977	1978	1979
1년차	6401	7360	7983	8410	9568	11423	11988	14318	14145	10531
2년차	1507	1380	1557	1693	1962	2062	2426	3445	1894	2896
3년차	681	643	620	800	798	822	641	721	974	1074
4년차	627	420	584	574	477	474	508	539	737	721
5년차	477	496	428	272	342	394	451	403	560	801
6년차	874	496	323	232	272	362	362	268	474	464
7년차	504	238	215	192	239	293	273	222	368	348
8년차	255	176	175	187	179	251	217	230	233	221
9년차	166	152	171	147	119	208	188	134	181	178
10년차	123	125	132	112	117	164	123	101	168	144
11년차	199	143	131	119	163	164	161	109	132	151
12년차	126	78	102	109	94	121	87	71	97	109
13년차	101	51	75	73	60	74	57	72	72	0
14년차	77	48	63	40	38	60	56	48	0	0
15년차	94	49	54	66	48	55	44	0	0	0
16년차	77	39	33	29	55	45	0	0	0	0
17년차	44	30	30	45	25	0	0	0	0	0
18년차	49	18	34	37	0	0	0	0	0	0
19년차	36	19	25	0	0	0	0	0	0	0
20년차	30	20	0	0	0	0	0	0	0	0
21년차	45	0	0	0	0	0	0	0	0	0

신고년차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년차	14195	16128	17547	19085	25858	27867	28678	31311	31558	32474	34331
2년차	3901	3881	4401	5399	4620	4849	5157	5093	4921	5025	0
3년차	1599	1338	1673	1639	1709	1924	1776	1879	1675	0	0
4년차	1056	1058	1013	945	1118	1135	1206	1218	0	0	0
5년차	959	676	701	726	787	901	927	0	0	0	0
6년차	630	461	526	548	660	638	0	0	0	0	0
7년차	466	355	353	445	462	0	0	0	0	0	0
8년차	347	276	310	352	0	0	0	0	0	0	0
9년차	281	209	216	0	0	0	0	0	0	0	0
10년차	231	161	0	0	0	0	0	0	0	0	0
11년차	233	0	0	0	0	0	0	0	0	0	0
12년차	0	0	0	0	0	0	0	0	0	0	0
13년차	0	0	0	0	0	0	0	0	0	0	0
14년차	0	0	0	0	0	0	0	0	0	0	0
15년차	0	0	0	0	0	0	0	0	0	0	0
16년차	0	0	0	0	0	0	0	0	0	0	0
17년차	0	0	0	0	0	0	0	0	0	0	0
18년차	0	0	0	0	0	0	0	0	0	0	0
19년차	0	0	0	0	0	0	0	0	0	0	0
20년차	0	0	0	0	0	0	0	0	0	0	0
21년차	0	0	0	0	0	0	0	0	0	0	0

○ 발생년도 및 신고년차별 추정누적건수(혼인)

신고년차	혼 인 발 생 년 도									
	1970	1971	1972	1973	1974	1975	1976	1977	1978	1979
1년차	58535	57663	57119	81129	79406	111256	110128	138104	151600	162706
2년차	149963	131034	156323	173152	193178	213121	223716	250761	277603	296725
3년차	188112	175676	194911	220204	228660	248439	258342	279626	314825	329044
4년차	223723	210014	218487	238789	241694	263405	270207	291014	327811	339419
5년차	258163	223835	230567	246737	248884	270411	276905	296165	333127	345963
6년차	275037	231320	235822	251787	252814	275824	280613	298634	337544	349205
7년차	284965	234826	239510	254570	255910	279146	282472	300928	339847	350851
8년차	289877	237796	242025	257170	258049	281019	284448	302388	341334	352173
9년차	293390	239457	243902	258605	259017	282557	285520	303156	342231	353095
10년차	295137	240384	244780	259112	259604	283226	286010	303489	343013	353824
11년차	296737	241026	245321	259666	260105	283810	286304	303882	343702	354181
12년차	298063	241545	245808	260131	260568	284237	286480	304118	344061	354400
13년차	298939	241972	246220	260503	260959	284556	286649	304259	344277	354622
14년차	299456	242361	246583	260816	261272	284842	286800	304419	344458	354809
15년차	299884	242634	246868	261113	261548	285053	286934	304561	344619	354975
16년차	300101	242846	247085	261331	261749	285218	287100	304737	344818	355180
17년차	300237	243043	247269	261500	261849	285327	287210	304854	344950	355316
18년차	300354	243203	247441	261608	261957	285445	287328	304980	345092	355462
19년차	300452	243320	247520	261691	262041	285536	287420	305077	345202	355576
20년차	300603	243403	247604	261781	262130	285633	287518	305181	345320	355697
21년차	300767	243536	247739	261924	262273	285789	287675	305348	345509	355891

신고년차	혼 인 발 생 년 도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년차	195566	199763	204305	228464	252407	265115	272731	282060	296179	309872	312319
2년차	335695	321774	326004	337918	334370	348620	353477	355790	368119	377482	380463
3년차	369871	347120	346947	355056	348264	362767	367408	366937	378106	387723	390785
4년차	385612	355288	353181	360175	353309	368953	371820	370728	382012	391729	394822
5년차	392453	358588	355966	363337	356760	371892	373875	372777	384124	393894	397004
6년차	395810	360484	358177	365969	358591	373680	375672	374569	385970	395787	398913
7년차	398209	362188	360169	367249	359734	374871	376870	375763	387201	397049	400184
8년차	400471	363859	361261	368260	360724	375903	377907	376797	388266	398142	401286
9년차	402281	364525	361909	368921	361371	376577	378585	377473	388963	398856	402006
10년차	403031	364889	362270	369289	361732	376953	378963	377850	389351	399254	402407
11년차	403610	365413	362791	369819	362252	377495	379507	378393	389910	399828	402985
12년차	403860	365639	363015	370048	362476	377728	379742	378627	390151	400075	403234
13년차	404113	365869	363243	370280	362703	377965	379980	378864	390396	400326	403487
14년차	404325	366061	363434	370475	362894	378164	380180	379064	390602	400536	403699
15년차	404514	366232	363603	370648	363063	378340	380358	379240	390784	400723	403888
16년차	404748	366444	363814	370862	363273	378559	380578	379460	391010	400955	404121
17년차	404903	366584	363953	371004	363412	378704	380723	379605	391159	401108	404276
18년차	405070	366735	364103	371157	363562	378860	380880	379762	391321	401274	404443
19년차	405199	366852	364219	371275	363678	378981	381002	379883	391446	401402	404572
20년차	405337	366977	364343	371402	363802	379110	381132	380012	391579	401539	404710
21년차	405559	367178	364543	371605	364001	379318	381340	380220	391793	401759	404931

○ 발생년도 및 신고년차별 추정누적건수비율(혼인)

신고년차	혼 인 발 생 년 도									
	1970	1971	1972	1973	1974	1975	1976	1977	1978	1979
1년차	0.19462	0.23677	0.23056	0.30974	0.30276	0.38929	0.38282	0.45228	0.43877	0.45718
2년차	0.49860	0.53805	0.63100	0.66108	0.73655	0.74573	0.77767	0.82123	0.80346	0.83375
3년차	0.62544	0.72136	0.78676	0.84072	0.87184	0.86931	0.89803	0.91576	0.91119	0.92456
4년차	0.74384	0.86235	0.88192	0.91167	0.92154	0.92168	0.93928	0.95306	0.94878	0.95372
5년차	0.85835	0.91911	0.93068	0.94202	0.94895	0.94619	0.96256	0.96993	0.96416	0.97210
6년차	0.91445	0.94984	0.95190	0.96130	0.96393	0.96513	0.97545	0.97801	0.97695	0.98121
7년차	0.94746	0.96424	0.96678	0.97192	0.97574	0.97676	0.98191	0.98553	0.98361	0.98584
8년차	0.96379	0.97643	0.97693	0.98185	0.98389	0.98331	0.98878	0.99031	0.98792	0.98955
9년차	0.97547	0.98325	0.98451	0.98733	0.98759	0.98869	0.99251	0.99282	0.99051	0.99214
10년차	0.98128	0.98706	0.98805	0.98927	0.98982	0.99103	0.99421	0.99391	0.99278	0.99419
11년차	0.98660	0.98969	0.99024	0.99138	0.99173	0.99308	0.99523	0.99520	0.99477	0.99519
12년차	0.99101	0.99183	0.99220	0.99316	0.99350	0.99457	0.99585	0.99597	0.99581	0.99581
13년차	0.99392	0.99358	0.99387	0.99458	0.99499	0.99569	0.99643	0.99643	0.99644	0.99643
14년차	0.99564	0.99518	0.99533	0.99577	0.99618	0.99669	0.99696	0.99696	0.99696	0.99696
15년차	0.99706	0.99630	0.99648	0.99691	0.99724	0.99742	0.99742	0.99742	0.99742	0.99742
16년차	0.99779	0.99717	0.99736	0.99774	0.99800	0.99800	0.99800	0.99800	0.99800	0.99800
17년차	0.99824	0.99798	0.99810	0.99838	0.99838	0.99838	0.99838	0.99838	0.99838	0.99838
18년차	0.99863	0.99863	0.99880	0.99880	0.99880	0.99880	0.99880	0.99879	0.99879	0.99879
19년차	0.99895	0.99911	0.99911	0.99911	0.99911	0.99911	0.99911	0.99911	0.99911	0.99911
20년차	0.99945	0.99945	0.99945	0.99945	0.99945	0.99945	0.99945	0.99945	0.99945	0.99945
21년차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신고년차	혼 인 발 생 년 도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년차	0.48221	0.54405	0.56044	0.61480	0.69342	0.69893	0.71519	0.74183	0.75596	0.77129	0.77129
2년차	0.82773	0.87634	0.89428	0.90935	0.91860	0.91907	0.92693	0.93575	0.93957	0.93957	0.93957
3년차	0.91200	0.94537	0.95173	0.95547	0.95677	0.95637	0.96347	0.96506	0.96506	0.96506	0.96506
4년차	0.95082	0.96762	0.96883	0.96924	0.97063	0.97268	0.97504	0.97504	0.97503	0.97503	0.97503
5년차	0.96768	0.97661	0.97647	0.97775	0.98011	0.98042	0.98042	0.98042	0.98042	0.98042	0.98042
6년차	0.97596	0.98177	0.98254	0.98483	0.98514	0.98514	0.98514	0.98514	0.98514	0.98514	0.98314
7년차	0.98188	0.98641	0.98800	0.98828	0.98828	0.98828	0.98828	0.98828	0.98828	0.98828	0.98828
8년차	0.98745	0.99096	0.99100	0.99100	0.99100	0.99100	0.99100	0.99100	0.99100	0.99100	0.99100
9년차	0.99192	0.99278	0.99278	0.99278	0.99278	0.99278	0.99278	0.99278	0.99278	0.99278	0.99277
10년차	0.99377	0.99377	0.99377	0.99377	0.99377	0.99377	0.99377	0.99377	0.99377	0.99377	0.99377
11년차	0.99519	0.99519	0.99519	0.99519	0.99519	0.99519	0.99519	0.99519	0.99519	0.99519	0.99519
12년차	0.99581	0.99581	0.99581	0.99581	0.99581	0.99581	0.99581	0.99581	0.99581	0.99581	0.99581
13년차	0.99643	0.99643	0.99643	0.99643	0.99643	0.99643	0.99643	0.99643	0.99643	0.99643	0.99643
14년차	0.99696	0.99696	0.99696	0.99696	0.99696	0.99696	0.99696	0.99696	0.99696	0.99696	0.99696
15년차	0.99742	0.99742	0.99742	0.99742	0.99742	0.99742	0.99742	0.99742	0.99742	0.99742	0.99742
16년차	0.99800	0.99800	0.99800	0.99800	0.99800	0.99800	0.99800	0.99800	0.99800	0.99800	0.99800
17년차	0.99838	0.99838	0.99838	0.99838	0.99838	0.99838	0.99838	0.99838	0.99838	0.99838	0.99838
18년차	0.99879	0.99879	0.99879	0.99879	0.99879	0.99879	0.99879	0.99879	0.99879	0.99879	0.99879
19년차	0.99911	0.99911	0.99911	0.99911	0.99911	0.99911	0.99911	0.99911	0.99911	0.99911	0.99911
20년차	0.99945	0.99945	0.99945	0.99945	0.99945	0.99945	0.99945	0.99945	0.99945	0.99945	0.99945
21년차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 발생년도 및 신고년차별 추정누적건수(이혼)

신고년차	이 혼 발 생 년 도									
	1970	1971	1972	1973	1974	1975	1976	1977	1978	1979
1년차	6401	7360	7983	8410	9568	11423	11988	14318	14145	10531
2년차	7908	8740	9540	10103	11530	13485	14414	17763	16039	13427
3년차	8589	9383	10160	10903	12328	14307	15055	18484	17013	14501
4년차	9216	9803	10744	11477	12805	14781	15563	19023	17750	15222
5년차	9693	10299	11172	11849	13147	15175	16014	19426	18310	15823
6년차	10567	10795	11495	12081	13419	15537	16376	19694	18784	16287
7년차	11071	11033	11710	12273	13658	15830	16649	19916	19152	16635
8년차	11326	11209	11885	12460	13837	16081	16866	20146	19385	16856
9년차	11492	11361	12056	12607	13956	16289	17054	20280	19566	17034
10년차	11615	11486	12188	12719	14073	16453	17177	20381	19734	17178
11년차	11814	11629	12319	12838	14236	16617	17338	20490	19866	17329
12년차	11940	11707	12421	12947	14330	16738	17425	20561	19963	17438
13년차	12041	11758	12496	13020	14390	16812	17482	20633	20035	17501
14년차	12118	11806	12559	13060	14428	16872	17538	20681	20082	17542
15년차	12212	11855	12613	13126	14476	16927	17582	20733	20132	17586
16년차	12289	11894	12646	13155	14531	16972	17629	20788	20186	17632
17년차	12333	11924	12676	13200	14556	17001	17659	20824	20220	17663
18년차	12382	11942	12710	13237	14597	17049	17709	20882	20277	17712
19년차	12418	11961	12735	13263	14626	17082	17743	20923	20317	17747
20년차	12448	11981	12756	13285	14650	17111	17773	20958	20351	17777
21년차	12493	12024	12802	13333	14703	17173	17837	21034	20424	17841

신고년차	이 혼 발 생 년 도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년차	14195	16128	17547	19085	25858	27867	28678	31311	31558	32474	34331
2년차	18096	20009	21948	24484	30478	32716	33835	36404	36479	37499	39643
3년차	19695	21347	23621	26123	32187	34640	35611	38283	38154	39221	41464
4년차	20751	22405	24634	27068	33305	35775	36817	39501	39368	40469	42783
5년차	21710	23081	25335	27794	34092	36676	37744	40496	40359	41488	43860
6년차	22340	23542	25861	28342	34752	37314	38401	41200	41061	42209	44623
7년차	22806	23897	26214	28787	35214	37810	38911	41748	41607	42770	45216
8년차	23153	24173	26524	29139	35645	38272	39387	42258	42116	43293	45769
9년차	23434	24382	26740	29376	35935	38584	39708	42602	42459	43646	46142
10년차	23665	24543	26917	29570	36172	38839	39970	42884	42739	43934	46447
11년차	23898	24785	27182	29861	36528	39221	40363	43306	43160	44367	46904
12년차	24048	24941	27353	30049	36758	39468	40617	43578	43431	44646	47199
13년차	24135	25030	27451	30158	36891	39610	40764	43735	43588	44807	47369
14년차	24191	25089	27515	30228	36976	39702	40859	43837	43689	44911	47479
15년차	24252	25152	27584	30304	37069	39802	40961	43947	43799	45024	47598
16년차	24316	25219	27657	30384	37168	39908	41070	44064	43915	45143	47725
17년차	24358	25262	27705	30436	37232	39976	41141	44140	43991	45221	47807
18년차	24426	25333	27783	30522	37336	40089	41256	44263	44114	45348	47941
19년차	24474	25383	27837	30582	37409	40167	41337	44351	44201	45437	48035
20년차	24515	25425	27884	30633	37472	40234	41406	44425	44275	45513	48116
21년차	24604	25517	27985	30744	37607	40380	41556	44585	44435	45678	48290

○ 발생년도 및 신고년차별 추정누적건수비율(이혼)

신고년차	이 혼 발 생 년 도									
	1970	1971	1972	1973	1974	1975	1976	1977	1978	1979
1년차	0.51237	0.61209	0.62355	0.63075	0.65076	0.66518	0.67207	0.68071	0.69256	0.59027
2년차	0.63299	0.72686	0.74517	0.75773	0.78420	0.78525	0.80808	0.84449	0.78529	0.75259
3년차	0.68750	0.78034	0.79360	0.81773	0.83847	0.83312	0.84402	0.87877	0.83298	0.81279
4년차	0.73769	0.81527	0.83922	0.86078	0.87092	0.86072	0.87250	0.90440	0.86906	0.85320
5년차	0.77587	0.85651	0.87265	0.88868	0.89418	0.88367	0.89778	0.92355	0.89648	0.88689
6년차	0.84583	0.89776	0.89788	0.90608	0.91268	0.90475	0.91808	0.93630	0.91969	0.91290
7년차	0.88618	0.91756	0.91467	0.92048	0.92893	0.92181	0.93338	0.94685	0.93771	0.93240
8년차	0.90659	0.93219	0.92834	0.93451	0.94111	0.93642	0.94555	0.95779	0.94911	0.94479
9년차	0.91988	0.94484	0.94170	0.94553	0.94920	0.94854	0.95609	0.96416	0.95798	0.95477
10년차	0.92972	0.95523	0.95201	0.95393	0.95716	0.95809	0.96298	0.96896	0.96620	0.96284
11년차	0.94565	0.96712	0.96224	0.96286	0.96824	0.96764	0.97201	0.97414	0.97266	0.97130
12년차	0.95574	0.97361	0.97021	0.97103	0.97464	0.97468	0.97689	0.97752	0.97741	0.97741
13년차	0.96382	0.97785	0.97607	0.97651	0.97872	0.97899	0.98008	0.98094	0.98094	0.98094
14년차	0.96998	0.98184	0.98099	0.97951	0.98130	0.98248	0.98322	0.98322	0.98322	0.98322
15년차	0.97751	0.98592	0.98521	0.98446	0.98457	0.98569	0.98569	0.98569	0.98569	0.98569
16년차	0.98367	0.98916	0.98778	0.98663	0.98831	0.98831	0.98831	0.98831	0.98831	0.98831
17년차	0.98719	0.99166	0.99013	0.99001	0.99001	0.99001	0.99001	0.99001	0.99001	0.99001
18년차	0.99111	0.99315	0.99278	0.99278	0.99278	0.99278	0.99278	0.99278	0.99278	0.99278
19년차	0.99400	0.99473	0.99474	0.99474	0.99473	0.99473	0.99473	0.99473	0.99473	0.99473
20년차	0.99640	0.99640	0.99640	0.99640	0.99640	0.99640	0.99640	0.99640	0.99640	0.99640
21년차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신고년차	이 혼 발 생 년 도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년차	0.57694	0.63205	0.62702	0.62078	0.68758	0.69012	0.69011	0.70227	0.71020	0.71094	0.71094
2년차	0.73549	0.78415	0.78429	0.79639	0.81042	0.81020	0.81421	0.81650	0.82095	0.82095	0.82095
3년차	0.80048	0.83658	0.84407	0.84970	0.85587	0.85785	0.85694	0.85865	0.85865	0.85865	0.85865
4년차	0.84340	0.87805	0.88027	0.88044	0.88560	0.88596	0.88596	0.88596	0.88596	0.88596	0.88596
5년차	0.88238	0.90454	0.90532	0.90406	0.90652	0.90827	0.90827	0.90827	0.90827	0.90827	0.90827
6년차	0.90798	0.92260	0.92411	0.92188	0.92407	0.92407	0.92407	0.92407	0.92407	0.92407	0.92407
7년차	0.92692	0.93652	0.93673	0.93636	0.93636	0.93636	0.93636	0.93636	0.93636	0.93636	0.93636
8년차	0.94102	0.94733	0.94781	0.94781	0.94781	0.94781	0.94781	0.94781	0.94781	0.94781	0.94781
9년차	0.95245	0.95552	0.95552	0.95552	0.95552	0.95552	0.95552	0.95552	0.95552	0.95552	0.95552
10년차	0.96183	0.96183	0.96183	0.96183	0.96183	0.96183	0.96183	0.96183	0.96183	0.96183	0.96183
11년차	0.97130	0.97130	0.97130	0.97130	0.97130	0.97130	0.97130	0.97130	0.97130	0.97130	0.97130
12년차	0.97741	0.97741	0.97741	0.97741	0.97741	0.97741	0.97741	0.97741	0.97741	0.97741	0.97741
13년차	0.98094	0.98094	0.98094	0.98094	0.98094	0.98094	0.98094	0.98094	0.98094	0.98094	0.98094
14년차	0.98322	0.98322	0.98322	0.98322	0.98322	0.98322	0.98322	0.98322	0.98322	0.98322	0.98322
15년차	0.98569	0.98569	0.98569	0.98569	0.98569	0.98569	0.98569	0.98569	0.98569	0.98569	0.98569
16년차	0.98831	0.98831	0.98831	0.98831	0.98831	0.98831	0.98831	0.98831	0.98831	0.98831	0.98831
17년차	0.99001	0.99001	0.99001	0.99001	0.99001	0.99001	0.99001	0.99001	0.99001	0.99001	0.99001
18년차	0.99278	0.99278	0.99278	0.99278	0.99278	0.99278	0.99278	0.99278	0.99278	0.99278	0.99278
19년차	0.99473	0.99473	0.99473	0.99473	0.99473	0.99473	0.99473	0.99473	0.99473	0.99473	0.99473
20년차	0.99640	0.99640	0.99640	0.99640	0.99640	0.99640	0.99640	0.99640	0.99640	0.99640	0.99640
21년차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 婚姻 離婚件數

發生年度	婚姻件數		離婚件數	
	申告發生件數	推定發生件數	申告發生件數	推定發生件數
1970	300,767	300,767	12,493	12,493
1971	243,403	243,536	11,981	12,024
1972	247,520	247,739	12,735	12,802
1973	261,608	261,924	13,237	13,333
1974	261,849	262,273	14,556	14,703
1975	285,218	285,789	16,972	17,173
1976	286,934	287,675	17,582	17,837
1977	304,419	305,348	20,681	21,034
1978	344,277	345,509	20,035	20,424
1979	354,400	355,891	17,438	17,841
1980	403,610	405,559	23,898	24,604
1981	364,889	367,178	24,543	25,517
1982	361,909	364,543	26,740	27,985
1983	368,260	371,605	29,139	30,744
1984	359,734	364,001	35,214	37,607
1985	373,680	379,318	37,314	40,380
1986	373,875	381,340	37,744	41,556
1987	370,728	380,220	39,501	44,585
1988	378,106	391,793	38,154	44,435
1989	377,482	401,759	37,499	45,678
1990	312,319	404,931	34,331	48,290

註) 申告發生件數는 '90年 申告分까지 包含하고 있음  
 婚姻의 境遇 '85年以前 年度의 推定件數는 確定值이며, '86年以後 年度의 推定件數는 暫定值임  
 離婚의 境遇 '80年以前 年度의 推定件數는 確定值이며, '81年以後 年度의 推定件數는 暫定值임

## 다. 推定件數의 確定

### o 婚 姻

- 發生後 21년에 걸친 總 申告件數를 推定發生件數로 보았는데, 申告年度別 實際 申告件數(累積申告件數)의 比率은 發生後 5년까지 累積申告가 總 推定件數의 98%水準이며, 4년까지가 97%水準, 3년까지가 96%水準으로 '80年代 들어 상당히 安定的인 水準을 보이고 있음.
- 즉, 婚姻發生後 5년까지는 總 件數의 98%가 申告를 하며, 이후 16年間に 걸쳐 追加로 申告될 件數는 總 推定發生件數의 2%未滿에 不遇하므로, 資料의 利用性을 고려 發生後 5년이 지난 時點에서 推定된 發生件數를 確定值로 함  
즉, 發生後 5년까지는 暫定值로 使用함.

### o 離 婚

- 離婚의 境遇 發生後 10년까지의 總 遲延申告가 總 推定發生件數의 96%水準이며 以後 10年間に 걸쳐 追加로 申告될 件數는 總 推定 發生件數의 4%未滿에 不遇하므로, 發生後 10년이 지난 時點에서 推定된 發生件數를 確定值로하며, 發生後 10년까지는 暫定值로 使用함.

## 5. 利用時 有意事項

- 婚姻 離婚統計는 戶籍法 및 人口動態調查規則에 따라 國民이 提出한 婚姻, 離婚申告書를 基礎로 하여 作成하였기 때문에, 申告되기전에 解除 또는 取消된 婚姻 또는 離婚은 除外됨.
- '86年 以後 推定婚姻件數와 '81年 以後 推定離婚件數는 暫定值로서, 向後 遲延申告 패턴의 變動으로 인하여 確定時 推定發生件數와 多少 差異가 있을 수 있음.

向後 遲延申告率의 減少(當年申告率의 向上)가 豫想되나, 發生件數 推定에는 過去の 遲延申告 패턴을 그대로 利用하였기 때문에 總推定發生件數는 실제 發生件數보다 多少 많을 수 있음.

總 婚姻數(率), 總 離婚數(率) 및 純婚姻表 作成에는 推定發生件數를 利用하였으며, 婚姻·離婚 特性은 실제 申告發生 結果를 利用하여 分析하였음

'90年 發生分中 '90年에 申告된 婚姻 離婚件數는 推定發生件數의 80%未滿으로 '90年의 전체 婚姻 離婚 特性을 精確히 把握하는데 곤란하므로 總件數(率) 推移分析에만 포함하고, 特性分析에서는 除外하여 '89년까지 特性을 分析.

婚 姻		離 婚	
發生年度	分析對象件數比率(%)	發生年度	分析對象件數比率(%)
1972	99.9	1970	100.0
1975	99.8	1975	98.8
1981	99.4	1980	97.1
1985	98.5	1985	92.4
1988	96.5	1988	85.9
1989	94.0	1989	82.1
1990	77.1	1990	71.1

註) 分析對象件數比率 =  $\frac{\text{실제로 申告된 累積發生件數}}{\text{推定發生件數}} \times 100(\%)$

## II. 婚 姻

### 1. 總婚姻件數 및 婚姻率 推移

#### 가. 年度別 婚姻推移

婚姻年度	婚姻數 <sup>1)</sup>	粗婚姻率 <sup>2)</sup>
1971~75	260,252	7.6
1976~80	339,996	9.2
1981~85	369,329	9.3
1986~90	392,009	9.3
1986	381,340	9.3
1987	380,220	9.2
1988	391,793	9.3
1989	401,759	9.5
1990	404,931	9.5

註) 1) 推定值임

2) 人口 1000名當 婚姻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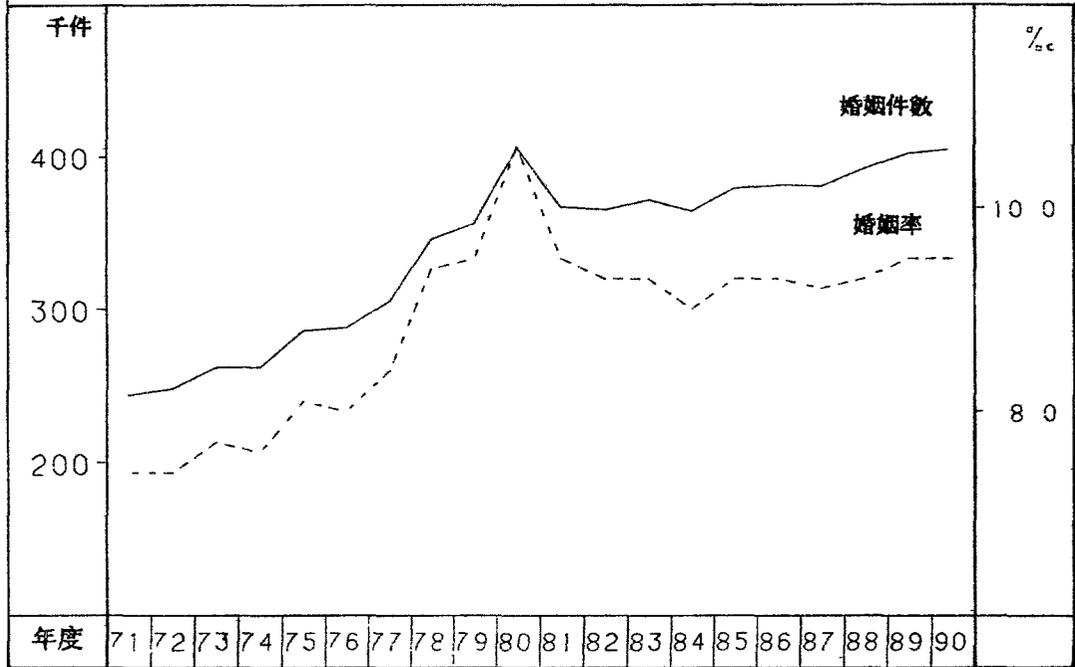
- 婚姻件數는 '70年代初半 年平均 260千쌍에서 '70年代後半 340千쌍, '80年代初半 369千쌍, '80年代後半 392千쌍으로 增加추세임
- 總人口對比 粗婚姻率(人口 1000名當 婚姻數)은 '70年代初半 7.6에서 '70年代後半 9.2, 최근 9.3으로 多少 增加하고 있음. 이는 出生力 低下로 인한 低年齡層 人口의 상대적 減少와 結婚適齡層人口의 增加等에 基因함.
- 우리나라의 粗婚姻率은 日本, 臺灣, 泰國 等보다 높고, 美國, 蘇聯보다는 多少 낮은 水準임.

(單位 : 人口千名當)

國名 (年度)	韓國 (1990)	日本 (1989)	臺灣 (1989)	泰國 (1986)	美國 (1986)	蘇聯 (1987)	싱가포르 (1989)	네덜란드 (1987)
粗婚姻率	9.5	5.8	7.9	6.3	10.0	9.8	8.8	6.0

資料出處 : 日本은 日本總務廳統計局, 日本統計年鑑, 1990  
 臺灣은 臺灣內政部, 1988 臺灣地區人口統計, 1989. 12  
 蘇聯과 네덜란드는 유엔人口年監, 1988  
 싱가포르는 싱가포르統計廳, 1989 婚姻 離婚統計, 1990 10  
 美國은 美國保健統計센터, 人口動態統計月報 38(3), 1989 7

# 婚姻數 以 婚姻率 推移



나. 市部 郡部別 婚姻分布

(單位 %)

住 所 地	婚 姻 年 度					
	1 9 7 2	1 9 7 5	1 9 8 1	1 9 8 5	1 9 8 8	1 9 8 9
<u>男子</u>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市部	37.9	44.2	56.6	63.5	69.4	72.6
郡部	62.1	55.8	43.4	36.5	30.6	27.4
<u>女子</u>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市部	32.8	38.2	51.8	57.0	63.3	65.5
郡部	67.2	61.8	48.2	43.0	36.7	34.5

- 都市化로 인한 都市人口의 增大로, 市部の 婚姻構成比가 크게 增加하고 있음.

- 男子에 비해 女子의 郡部構成比가 높은 것은 農村 女子중 일부는 都市 男子와 婚姻하고 있기 때문인데, 한편 이는 都市의 人口集中을 초래하는 하나의 要因이 되기도 함.

## 2. 婚姻形態別 婚姻推移

### 가. 婚姻形態別 婚姻分布

(單位 : %)

婚姻形態	婚 姻 年 度					
	1972	1975	1981	1985	1988	1989
計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男子      女子						
初婚 - 初婚	94.1	92.6	92.7	91.0	90.6	91.2
再婚 - 初婚	3.0	3.6	3.3	3.6	3.5	3.2
初婚 - 再婚	0.5	0.8	1.1	1.6	1.9	1.8
再婚 - 再婚	2.4	3.0	2.9	3.8	4.0	3.8

- 婚姻形態중 男女모두 初婚인 경우가 全體婚姻의 대부분으로 '72년에는 전체婚姻의 94.1%이었으나 最近에는 비중이 多少 減少하고 있음
- 男子는 再婚, 女子는 初婚인 경우는 전체婚姻에서 차지하는 比率에 큰 變動이 없음.
- 男子는 初婚, 女子는 再婚인 경우는 70年代 1%未滿이었던 것이 最近에는 1.8~1.9% 수준을 보이고 있어 종래 家父長社會에서 볼수 없었던 새로운 結婚形態로 나타나고 있음.
- 男女모두 再婚인 경우(相互 再結合家族形態) '72年 2.4%에서 '88年 4.0%, '89年 3.8%로 增加勢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高年齡層 死別 男女 및 離婚男女의 再結合 形態가 增加하고 있는데 기인함.

나. 市部 郡部別 初婚比率

(單位 : %)

住 所 地	婚 姻 年 度					
	1 9 7 2	1 9 7 5	1 9 8 1	1 9 8 5	1 9 8 8	1 9 8 9
男 子	94.6	93.4	93.8	92.6	92.5	93.0
市 部	92.4	91.6	92.4	91.5	91.8	92.6
郡 部	95.9	94.8	95.6	94.5	94.1	94.2
女 子	97.1	96.2	95.9	94.6	94.1	94.4
市 部	95.7	94.8	94.9	93.5	93.3	93.8
郡 部	97.8	97.0	97.0	96.0	95.4	95.6

주) 再婚比率은 (100 - 初婚比率)임.

- 전체婚姻중 初婚比率은 男子의 경우 '72年 94.6%에서 '89年에 93.0%로, 女子의 경우 97.1%에서 94.4%로 다소 減少 趨勢로 最近 初婚比率의 減少勢는 離婚 死別 人口의 再婚增加에 기인함
- 男女別로 보면, 初婚比率은 女子가 男子보다 높은데, 이는 女子의 平均壽命이 높아 高齡層 男子의 不足으로 女子의 再婚이 상대적으로 어려운데다, 전통적으로 女子의 再婚傾向이 낮기 때문임. 한편, 地域別로 보면 農村地域이 都市地域보다 初婚比率이 높아 전통적 婚姻倫理觀이 農村地域에 비교적 깊게 남아 있음을 알 수 있음.
- 우리나라의 婚姻중 初婚比率은 싱가포르, 臺灣과 비슷한 수준이나, 日本과 美國 및 네덜란드보다 높아 先進國에 비해서는 아직도 離婚 死別의 경우 再婚하는 경향이 낮다고 볼 수 있음.

(單位 . %)

國 名 ( 年 度 )	韓 國 (1989)	日 本 (1989)	臺 灣 (1989)	싱 가 포 르 (1989)	美 國 (1986)	네덜란드 (1987)
男 子	93.0	86.7	93.1	92.4	65.8	82.9
女 子	94.4	88.1	92.9	93.7	65.9	84.2

註) (100 - 初婚比率)은 再婚比率임

다. 年齡別 初婚比率

(單位 : %)

婚姻 年齡	婚 姻 年 度					
	1972	1975	1981	1985	1988	1989
<u>男子</u>	94.6	93.3	93.8	92.6	92.5	93.0
15~19	99.6	99.4	99.6	99.7	99.8	100.0
20~24	99.3	99.1	99.2	99.3	99.3	99.5
25~29	98.5	98.4	98.3	98.1	98.3	98.5
30~34	89.9	88.5	87.1	86.1	87.5	89.1
35~39	59.5	55.5	51.2	44.4	46.7	49.8
40~44	36.5	29.5	27.3	22.1	22.3	22.0
45~49	29.3	18.6	17.0	13.3	11.7	13.4
50+	19.4	12.4	14.1	7.6	7.0	6.8
<u>女子</u>	97.1	96.2	95.9	94.6	94.1	94.4
15~19	99.7	99.6	100.0	99.7	99.8	99.8
20~24	99.4	99.3	99.2	99.1	99.2	99.3
25~29	96.2	95.6	95.2	94.9	95.5	96.1
30~34	74.2	70.9	66.1	66.1	68.3	69.1
35~39	54.7	49.0	44.3	39.2	39.1	41.3
40~44	44.2	38.2	36.2	28.8	26.7	27.1
45~49	37.0	34.1	35.6	27.6	24.6	21.2
50+	32.0	30.9	34.4	24.6	24.4	22.8

註) 再婚比率은 (100 - 初婚比率)임.

- 婚姻 年齡別로 보면 남녀모두 年齡이 높아질수록, 初婚比率은 급격히 減少하고 있음.
- 男子의 경우 30歲以前까지는 初婚이 99%水準으로 再婚은 1%정도에 불과하나 30-34歲 年齡層에서는 婚姻의 10%, 35-39歲에서는 50%가 再婚이며, 40歲以後 부터는 再婚이 初婚보다 더 많음. 女子의 경우에도 24歲以前의 年齡層에서는 거의 모든 婚姻이 初婚이나, 25歲이후 階層에서는 初婚比率이 減少하여 30-34歲에서는 初婚이 70%로 수준이나, 35歲 以上에서는 再婚이 初婚보다 더 많음
- 年度別로 보면 男子는 40歲以上, 女子는 35歲以上 年齡層에서 初婚比率의 減少 폭이 커지고 있는 것은 이 年齡層의 再婚이 늘고 있기 때문임

3. 季節別 婚姻分布

(單位 : %)

婚姻月	婚 姻 年 度					
	1972	1975	1981	1985	1988	1989
全 國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3~5月	26.6	27.7	30.6	31.7	32.3	32.8
6~8月	7.2	9.1	10.0	11.0	10.9	10.3
9~11月	26.5	24.2	25.5	24.2	25.8	27.3
12~2月	39.7	39.0	33.9	33.1	31.0	29.6
市 部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3~5月	31.2	30.5	31.7	32.3	32.5	33.3
6~8月	9.9	11.3	11.5	12.0	11.6	10.7
9~11月	25.0	24.8	27.0	25.7	26.9	28.4
12~2月	33.9	33.4	29.8	30.0	29.0	27.6
郡 部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3~5月	23.8	25.6	29.2	30.5	31.6	31.7
6~8月	5.6	7.5	7.9	9.0	9.3	9.0
9~11月	27.4	23.6	23.7	21.8	23.2	24.4
12~2月	43.2	43.3	39.2	38.7	35.9	34.9

註) 市部 郡部는 男子住所地 基準임

- 전체 婚姻을 季節別로 보면 70年代 初半에는 겨울철에 全體 婚姻의 거의 40% 가까이 행해졌고, 다음이 봄, 가을, 여름철 順으로 나타났으나, 最近에는 봄철이 가장 많고, 다음이 겨울, 가을, 여름 順으로 나타나고 있음.

또한 여름철 結婚이 70年代에는 10%未滿이었으나 80年代에는 10%水準을 나타내고 있는 등 季節別 편차가 크게 줄었음.

- 우리나라는 아직도 婚姻의 60%以上이 봄과 겨울에 集中되고 있는데, 都市에서는 봄철에, 農村에서는 겨울철에 가장 婚姻을 많이 하고 있음.

- 月別로 보면 季節內에서 多少 變動이 있으나, '89年の 경우 市部에서는 4月과 10月이 가장 많고, 郡部에서는 1月과 3月이 가장 많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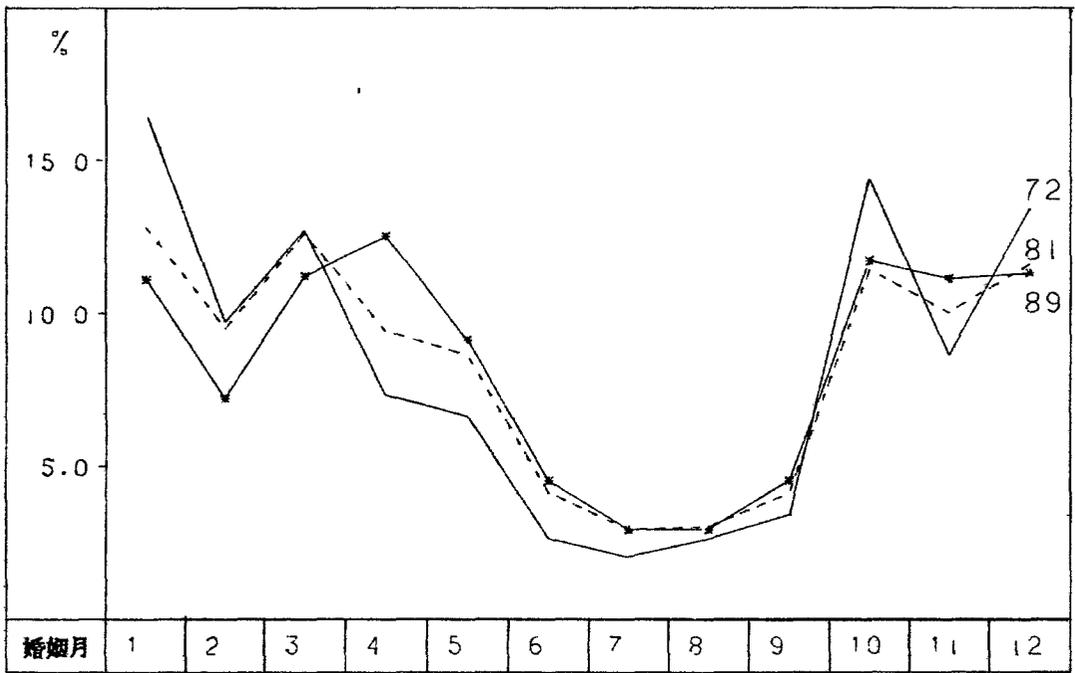
o 月別 婚姻分布

(單位 : %)

婚姻月	婚 姻 年 度					
	1972	1975	1981	1985	1988	1989
<u>全國</u>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月	16.6	15.7	12.8	12.5	11.7	11.1
2月	9.7	10.4	9.5	8.5	7.7	7.2
3月	12.7	12.8	12.6	12.5	11.8	11.2
4月	7.3	8.2	9.4	10.1	10.2	12.5
5月	6.6	6.7	8.6	9.1	10.3	9.1
6月	2.6	3.2	4.1	4.7	4.5	4.5
7月	2.0	2.8	2.9	3.4	3.4	2.9
8月	2.6	3.1	3.0	2.9	3.0	2.9
9月	3.4	3.3	4.1	3.8	3.6	4.5
10月	14.5	12.0	11.4	9.7	10.7	11.7
11月	8.6	8.9	10.0	10.7	11.5	11.1
12月	13.4	12.9	11.6	12.1	11.6	11.3
<u>市部</u>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月	13.8	12.9	10.8	10.7	10.4	10.0
2月	9.2	9.1	8.1	7.5	7.0	6.6
3月	12.7	13.3	11.9	11.7	11.1	10.7
4月	9.2	9.5	10.1	10.5	10.4	12.9
5月	9.3	8.7	9.9	10.1	11.0	9.7
6月	4.0	4.5	4.9	5.4	5.0	4.8
7月	2.8	3.3	3.3	3.6	3.5	3.0
8月	3.1	3.6	3.3	3.0	3.1	2.9
9月	3.8	3.9	4.7	4.1	3.8	4.8
10月	13.1	11.9	11.8	10.3	11.3	12.3
11月	8.1	9.0	10.5	11.3	11.8	11.3
12月	10.9	11.4	10.9	11.8	11.6	11.0
<u>郡部</u>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月	18.1	17.8	15.3	15.6	14.8	14.0
2月	10.1	11.5	11.3	10.3	9.2	8.7
3月	12.7	13.3	13.8	13.8	13.3	12.8
4月	6.1	7.2	8.6	9.4	9.7	11.5
5月	5.0	5.1	6.8	7.3	8.6	7.4
6月	1.8	2.3	2.9	3.5	3.6	3.5
7月	1.6	2.5	2.4	2.9	3.0	2.7
8月	2.2	2.7	2.6	2.6	2.7	2.8
9月	3.2	2.8	3.4	3.2	3.1	3.8
10月	15.2	12.2	10.8	8.8	9.3	10.1
11月	9.0	8.7	9.5	9.8	10.8	10.5
12月	15.0	14.0	12.6	12.8	11.9	12.2

註) 市部 郡部 구별은 男子 住所地 基準임.

# 月別 婚姻分布



4. 教育程度別 婚姻分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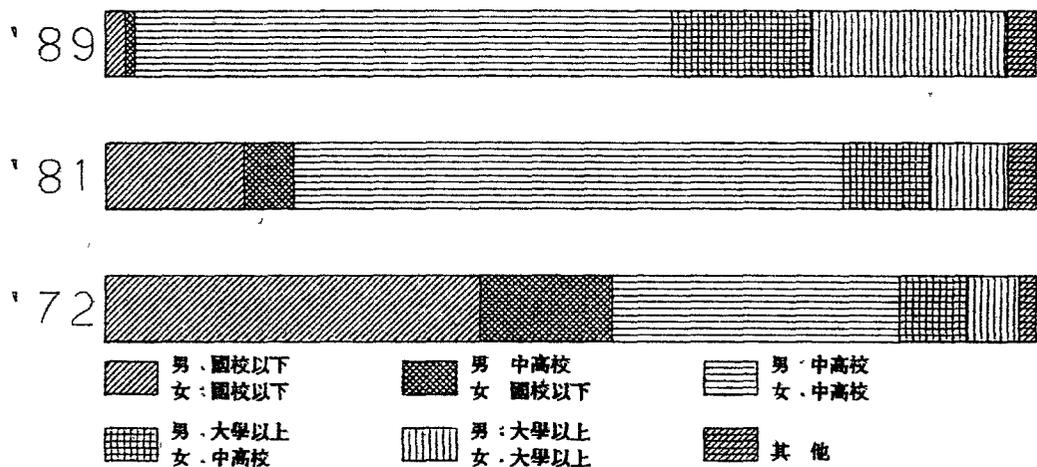
(單位 : %)

教育程度	婚 姻 年 度					
	1972	1975	1981	1985	1988	1989
計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男 子 女 子						
국교이하 - 국교이하	40.4	33.8	15.0	6.2	2.9	2.2
국교이하 - 중 고교	1.3	1.7	2.4	2.3	1.6	1.4
국교이하 - 대학이상	0.0	0.0	0.0	0.0	0.0	0.0
중·고교 - 국교이하	13.9	11.6	5.4	2.6	1.4	1.0
중 고교 - 중 고교	31.1	38.7	58.9	63.1	59.2	57.5
중 고교 - 대학이상	0.3	0.4	0.5	0.9	1.5	1.7
대학이상 - 국교이하	0.2	0.2	0.1	0.1	0.1	0.0
대학이상 - 중 고교	7.3	7.4	9.4	12.1	14.4	15.2
대학이상 - 대학이상	5.5	6.2	8.3	12.7	18.8	21.0

- 婚姻男女의 教育程度別 結合形態에서 男女모두 國校以下인 경우는 '70年代初半 40%水準에서, '80年代初 15%水準 그리고 最近에는 5%未滿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男子는 中·高校 女子는 國校以下인 경우는 '70年代初半 14%水準에서, '80年代初半에는 5%水準 그리고 最近에는 1%水準으로 減少하고 있는데, 이는 全般的인 國民教育 水準이 크게 높아진데에 基因함.

- 반면, 男女 모두 中 高校인 경우는 '70年代初에 30%水準이었던 것이 계속 增加, 80年代에는 60%水準 가까이 접근하고 있으며, 男子는 大學以上 女子는 中 高校인 경우도 '70年代 7%水準에서 最近에는 15%水準으로, 男女모두 大學以上인 경우도 '70年代 10%未滿에서 最近에는 20%以上으로 크게 늘었음.

# 教育程度別 婚姻分布



5. 成婚過程別 婚姻分布

(單位 : %)

成婚過程	婚 姻 年 度			
	1981	1985	1988	1989
<u>全 國</u>	100.0	100.0	100.0	100.0
자 유	36.3	45.5	53.6	54.7
중 매	58.4	48.7	40.6	39.4
결 충	5.3	5.8	5.8	5.9
<u>市 部</u>	100.0	100.0	100.0	100.0
자 유	42.3	50.5	57.9	58.6
중 매	51.1	42.7	35.6	34.9
결 충	6.6	6.8	6.5	6.5
<u>郡 部</u>	100.0	100.0	100.0	100.0
자 유	28.6	36.9	44.0	44.6
중 매	67.9	59.1	51.7	51.1
결 충	3.5	4.0	4.3	4.3

註) 市部 郡部는 男子住所地 기준임

- 중매에 의한 婚姻은 '81年 總婚姻의 58.4%에서 '85年 48.7%, '89年 39.4%로 減少 趨勢인 반면, 자유(연애) 婚姻은 '81年 36.3%에서 '85年 45.5%, '89年 54.7%로 增加 趨勢임. 절충에 의한 婚姻은 계속 5%대의 水準임.

- 農村에 비해 都市地域이 자유 婚姻이 많고 중매에 의한 婚姻 比率이 낮음.

6. 婚姻場所別 婚姻分布

(單位 : %)

婚姻場所	婚 姻 年 度			
	1981	1985	1988	1989
全 國	100.0	100.0	100.0	100.0
자 택	7.4	4.6	3.4	2.8
예 식 장	82.1	82.9	83.7	85.2
기 타	10.5	12.5	12.9	12.0
市 部	100.0	100.0	100.0	100.0
자 택	5.0	3.8	3.1	2.5
예 식 장	82.0	81.6	82.2	84.0
기 타	13.0	14.6	14.7	13.5
郡 部	100.0	100.0	100.0	100.0
자 택	10.6	5.8	4.1	3.5
예 식 장	82.1	85.3	87.0	88.4
기 타	7.3	8.9	8.9	8.1

註) 市部 郡部는 男子住所地 기준임  
其他는 교회, 사찰, 성당, 야외등 포함.

- 예식장에서 결혼식을 올리는 比率은 '81年 82.1%에서 '89년에는 85.2%로 增加 趨勢인 반면, 자택에서의 혼인은 '81年 7.4%에서 '89년에는 2.8%로 감소추세임. 기타(교회, 사찰, 성당, 야외등)는 '81年 10.5%에서 '89년에 12.0%로 다소 증가함.
- 都市 農村 모두 婚姻의 80%以上이 예식장에서 행해지고 있음

7 婚姻形態別 婚姻年齡

(單位：歲)

婚姻種類	婚 姻 年 度					
	1972	1975	1981	1985	1988	1989
男子：初 再婚	27.4	27.7	27.2	27.9	28.4	28.6
初婚	26.7	26.8	26.4	27.0	27.6	27.8
再婚	39.0	39.9	38.9	39.5	39.4	39.5
女子：初·再婚	22.9	23.3	23.6	24.7	25.2	25.3
初婚	22.6	22.8	23.2	24.1	24.7	24.8
再婚	33.7	34.7	33.9	34.7	34.8	34.9
男：初婚	26.7	26.8	26.4	26.9	27.5	27.7
女：初婚	22.4	22.6	23.0	23.9	24.5	24.6
差異(男-女)	(4.3)	(4.2)	(3.4)	(3.0)	(3.0)	(3.1)
男·再婚	36.7	37.4	36.3	36.3	36.3	36.3
女 初婚	27.6	28.9	28.7	29.3	29.8	29.9
差異(男-女)	(9.1)	(8.5)	(7.6)	(7.0)	(6.5)	(6.4)
男：初婚	31.8	32.0	30.9	30.8	31.2	31.8
女：再婚	29.8	29.9	28.9	29.3	29.9	30.3
差異(男-女)	(2.0)	(2.1)	(2.0)	(1.5)	(1.3)	(1.5)
男 再婚	41.7	42.7	41.9	42.6	42.2	42.1
女·再婚	34.6	35.9	35.9	36.9	37.0	37.0
差異(男-女)	(7.1)	(6.8)	(6.1)	(5.7)	(5.1)	(5.1)

註) 괄호안의 숫자는 男女 年齡差異임.

- 男子의 婚姻年齡은 '72年 27.4歲에서 '89년에는 28.6歲로 1.2歲가 增加하였으며 女子의 婚인연령은 22.9歲에서 25.3歲로 2.4歲가 增加, 女子의 增加幅이 男子보다 큼.
- 男女間 婚姻年齡의 差는 '72年 4.5歲에서 '81년에는 3.6歲 그리고 '89년에는 3.3歲로 다소 줄어들고 있음

婚姻形態別 婚姻年齡 및 年齡差異를 보면,

① 男女모두 初婚인 경우

男子 婚姻年齡은 '72年 26.7歲에서 '89年 27.7歲, 女子 初婚年齡은 22.4歲에서 24.6歲로 1.2歲, 2.2歲가 각각 增加하였으며, 이들간 年齡差異는 4.3歲에서 '89年 3.1歲로 1.2歲가 줄어들었음.

② 男子는 再婚, 女子는 初婚인 경우

男子의 再婚年齡은 37歲程度로 큰 變動이 없는 반면 女子의 初婚年齡은 '72年 27.6歲에서 '81年 28.7歲, '89年 29.9歲로 점차 增加하여, 이들의 年齡差異는 9.1歲에서 7.6歲 그리고 6.4歲로 점차 減少하고 있음.

女性の 경우 平均 初婚年齡보다 5歲程度가 더 많아 結婚 適齡期를 지난 女性이 주로 이 婚姻形態에 속한 것으로 풀이됨.

③ 男子는 初婚, 女子는 再婚인 경우

男子의 初婚年齡은 '72年 31.8歲, '81年 30.9歲, '89年 31.8歲로 全體 初婚男性의 平均 初婚年齡보다 4歲 程度 높으며, 女子의 再婚年齡은 '72年 29.8歲, '81年 28.9歲, '89年 30.3歲로 이들의 年齡差異는 婚姻形態中 가장 적은 2歲程度임

④ 男女모두 再婚인 경우

'72年 男子 41.7歲, 女子 34.6歲에서 '89年 42.1歲, 37.0歲로 增加추세임.  
한편 이들의 年齡差異는 '72年 7.1歲에서 '89年 5.1歲로 減少하였음

男女 婚姻年齡 上昇은 教育 및 經濟活動 참여 확대 및 晚婚傾向에 따른 것이며, 再婚年齡 上昇은 初婚年齡 上昇에 주로 基因하고 있음. 男女間 婚姻 年齡差異는 男子 再婚, 女子 初婚인 경우가 가장 크며 이외 再婚-再婚, 初婚-初婚, 初婚-再婚 순임.

8. 初婚年齡

ㄉ 初婚年齡別 初婚分布 及 平均初婚年齡

(單位：%，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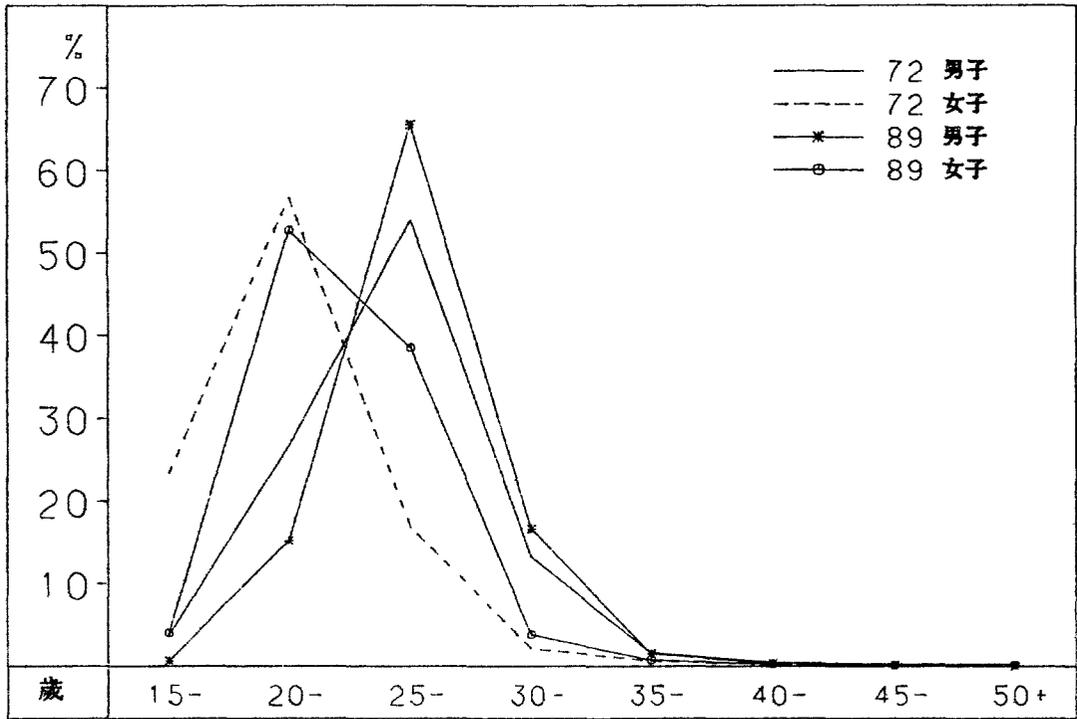
初婚年齡	婚 姻 年 度					
	1972	1975	1981	1985	1988	1989
<u>男 子</u>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5 ~ 19	3.7	3.0	2.2	1.4	0.9	0.6
20 ~ 24	26.7	25.7	25.9	23.2	16.4	15.2
25 ~ 29	54.0	56.6	58.9	62.3	65.9	65.6
30 ~ 34	13.2	12.2	11.1	11.3	14.9	16.6
35 ~ 39	1.6	1.8	1.3	1.3	1.4	1.5
40 ~ 44	0.4	0.4	0.4	0.3	0.3	0.3
45 ~ 49	0.2	0.2	0.1	0.1	0.1	0.1
50+	0.2	0.1	0.1	0.1	0.0	0.1
平均初婚年齡	26.7	26.8	26.4	27.0	27.6	27.8
<u>女 子</u>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5 ~ 19	23.4	20.6	11.4	8.6	5.4	4.0
20 ~ 24	56.7	57.8	61.5	58.6	52.7	52.7
25 ~ 29	16.8	18.1	24.2	29.2	37.1	38.5
30 ~ 34	2.1	2.3	1.9	2.6	3.7	3.8
35 ~ 39	0.6	0.7	0.5	0.5	0.6	0.7
40 ~ 44	0.2	0.3	0.2	0.2	0.2	0.2
45 ~ 49	0.1	0.1	0.2	0.2	0.1	0.1
50+	0.0	0.1	0.1	0.1	0.2	0.0
平均初婚年齡	22.6	22.8	23.2	24.1	24.7	24.8

- 男子의 경우 대부분 25-29歲에서 婚姻(初婚)하고 있는데, 全體 初婚者중 이 年齡層의 構成比는 '72年 54.0%에서 '81年 58.9% 그리고 '89년에는 65.6%로 점차 增加하고 있으며, 30-34歲層도 '72年 13.2%에서 '89年 16.6%로 增加하여 晚婚傾向을 잘 나타내고 있음.
- 반면, 20-24歲 婚姻은 '72年 26.7%에서 '89년에는 15.2%로, 15-19歲 婚姻은 3.7%에서 0.6%로 급격히 減少하였음
- 女子의 경우 初婚의 반이상이 20-24歲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그 構成比는 '72年 56.7%에서 '89年 52.7%로 減少하고 있으며, 15-19歲 혼인은 23.4%에서 4.0%로 급격히 減少하고 있는 반면, 25-29歲 婚姻은 '72年 16.8%에서 '89年 38.5%로, 30-34歲 婚姻은 2.1%에서 3.8%으로 增加하고 있음.
- 男女 15-24歲 低年齡層 婚姻의 減少와 25-34歲 年齡層에서 婚姻의 增加는 教育 및 經濟活動 참여확대 및 晚婚 傾向에 基因하며, 이는 初婚年齡을 男子는 '72年 26.7歲에서 '89年 27.8歲, 女子는 22.6歲에서 24.8歲로 增加시키고 있음
- 우리나라의 男女 平均初婚年齡은 美國, 네덜란드보다 높으나, 日本, 臺灣, 香港, 싱가포르등 보다 낮음.

(單位 歲)

國名 (年度)	韓國 ( '89)	日本 ( '88)	臺灣 ( '89)	싱가포르 ( '89)	美國 ( '86)	네덜란드 ( '87)	덴마크 ( '88)
男子	27.8	28.6	28.8	28.8	26.2	27.2	29.6
女子	24.8	26.0	25.5	26.0	24.3	25.0	27.1

# 年齡別 初婚分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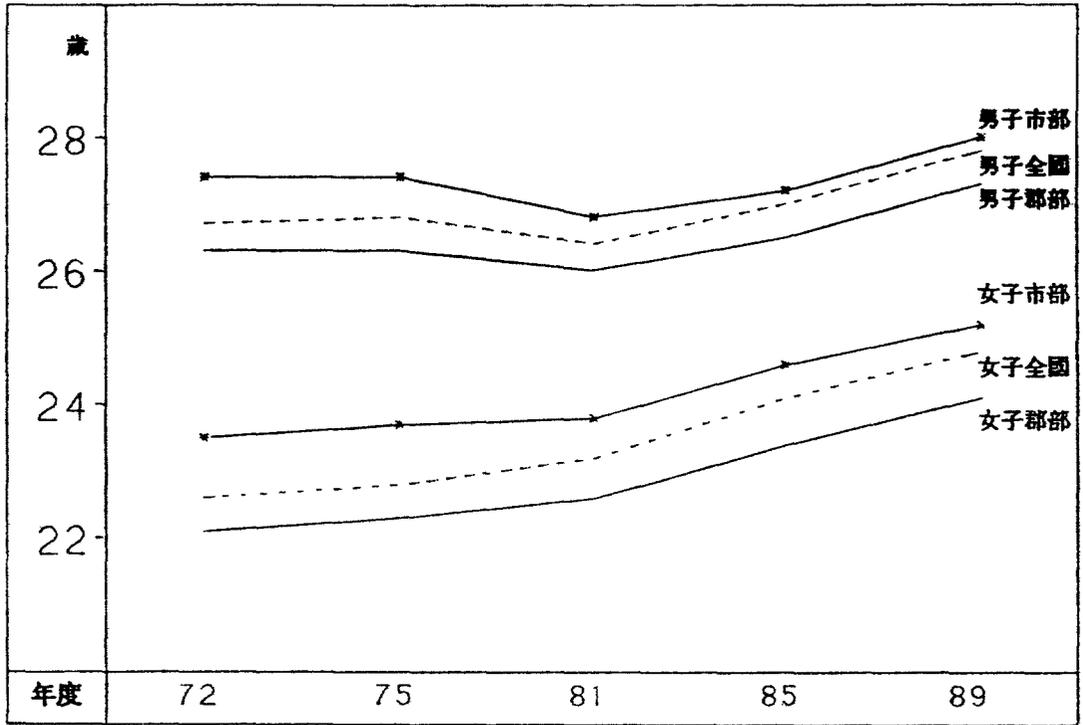
나. 地域別 初婚年齡

(單位 . 歲)

區 分	婚 姻 年 度					
	1 9 7 2	1 9 7 5	1 9 8 1	1 9 8 5	1 9 8 8	1 9 8 9
<u>男 子</u>	26.7	26.8	26.4	27.0	27.6	27.8
市 部(A)	27.4	27.4	26.8	27.2	27.8	28.0
郡 部(B)	26.3	26.3	26.0	26.5	27.1	27.3
( A - B )	(1.1)	(1.1)	(0.8)	(0.7)	(0.7)	(0.7)
<u>女 子</u>	22.6	22.8	23.2	24.1	24.7	24.8
市 部(A)	23.5	23.7	23.8	24.6	25.0	25.2
郡 部(B)	22.1	22.3	22.6	23.4	24.0	24.1
( A - B )	(1.4)	(1.4)	(1.2)	(1.2)	(1.0)	(1.1)

- 男子의 初婚年齡은 都市地域에서는 '72年 27.4歲에서 '89年 28.0歲로 0.6歲가 높아진 반면 農村地域에서는 26.3歲에서 27.3歲로 1.0歲가 높아짐.
- 女子의 경우 都市에서는 '72年 23.5歲에서 '89年 25.2歲로 1.7歲가 높아진 반면 農村地域에서는 22.1歲에서 24.1歲로 2.0歲가 높아짐.
- 都市地域이 農村地域보다 初婚年齡이 높으나 都 農間 初婚年齡 差異가 줄어들고 있는 것은 農村에서 都市 特性의 增加 및 婚姻適齡人口의 地域的 分布의 不均衡으로 인하여 農村 男女의 婚姻이 多少 어려워져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됨.

# 平均初婚年齡



○ 市道別 初婚年齡

(單位 · 歲)

市道	婚 姻 年 度						
	1972	1975	1981	1985	1988	1989	
男 子	26.7	26.8	26.4	27.0	27.6	27.8	
서부대인광역시 울산구천주전	27.7	27.7	27.2	27.6	28.1	28.3	
	27.5	27.3	26.7	27.2	27.7	28.2	
	27.7	28.3	26.4	27.0	27.5	27.7	
	27.4	27.9	26.6	27.1	27.6	28.0	
	-	-	-	-	27.6	28.1	
	-	-	-	-	-	28.0	
	경강충전경남주 기원북남북남주	27.0	27.0	26.3	26.9	27.5	27.9
		26.4	26.2	25.7	26.5	27.3	27.5
26.3		26.1	25.7	26.3	26.9	27.2	
26.4		26.7	26.0	26.5	27.1	27.2	
26.6		26.4	26.4	26.7	27.3	27.6	
26.2		26.6	26.2	26.6	27.1	27.4	
26.2		26.3	26.0	26.4	27.1	27.3	
26.6		26.6	26.2	26.7	27.2	27.5	
26.0	26.5	26.1	26.8	27.7	27.8		
女 子	22.6	22.8	23.2	24.1	24.7	24.8	
서부대인광역시 울산구천주전	24.0	24.1	24.3	25.0	25.5	25.6	
	23.3	23.4	23.6	24.5	24.9	25.1	
	26.3	25.8	23.6	24.3	24.9	25.1	
	24.5	26.1	23.5	24.3	24.9	25.0	
	-	-	-	-	25.0	25.0	
	-	-	-	-	-	25.0	
	경강충전경남주 기원북남북남주	22.8	22.9	23.1	23.8	24.6	24.8
		21.4	21.6	22.4	23.4	24.1	24.4
22.2		22.2	22.6	23.4	24.0	24.2	
22.5		22.7	22.8	23.7	24.2	24.2	
22.3		22.6	22.8	23.7	24.3	24.5	
21.9		22.3	22.6	23.5	24.0	24.2	
22.2		22.5	22.7	23.5	24.1	24.2	
22.2		22.5	22.8	23.7	24.2	24.3	
23.1	23.3	23.4	24.2	25.1	25.1		

다. 教育程度別 初婚年齡

(單位 : 歲)

教育程度	婚 姻 年 度					
	1972	1975	1981	1985	1988	1989
男 子	26.7	26.8	26.4	27.0	27.6	27.8
不 就 學	27.9	28.2	28.6	30.1	30.6	32.0
國 校 卒 業	26.4	26.3	26.1	27.1	28.4	29.1
中 高 校 卒 業	26.5	26.7	26.2	26.7	27.4	27.6
大 學 以 上	28.3	28.3	27.4	27.5	27.9	28.1
女 子	22.6	22.8	23.2	24.1	24.7	24.8
不 就 學	23.4	24.6	25.6	28.3	30.8	31.3
國 校 卒 業	21.9	22.1	22.3	23.6	25.1	25.7
中 · 高 校 卒 業	23.1	23.1	23.2	23.9	24.3	24.5
大 學 以 上	24.8	24.9	24.9	25.3	25.7	25.8

- 不就學 男子의 初婚年齡은 '70年代初 28歲 정도였으나, '89년에는 32歲로, 약 4歲가 증가한 반면, 國校卒業 男子의 初婚年齡은 26.4歲에서 29.1歲로 2.7歲가 그리고 中 高校卒業 男子의 初婚年齡은 26.5歲에서 27.6歲로 1.1歲가 증가하고 있어學歷이 낮을수록 初婚年齡이 높아지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음  
한편, 大學以上 卒業 男子의 初婚年齡은 '70年代初 28.3歲에서 最近 28.0歲로 큰變動이 없음.
- 女子의 경우도 不就學女性의 初婚年齡은 '70年代初 23.4歲에서 최근 31.3歲로, 무려 8歲가 증가하였으며 國校卒業의 경우는 21.9歲에서 25.7歲로 4歲가, 中 · 高校卒業의 경우는 23.1歲에서 24.5歲로 1.4歲가 그리고 大學以上인 경우에는 24.8歲에서 25.8歲로 1歲가 증가하고 있어, 低學歷일수록 初婚年齡이 점점 높아지고 있음.
- 最近 不就學 및 國校卒業 男女의 初婚年齡이 오히려 高學歷 男女의 初婚年齡 보다 높아지는 현상은 低學歷者일수록 配偶者를 찾기 힘들기 때문으로 보임

9 再婚 年齡別 再婚分布

(單位 . %, 歲)

再婚年齡	婚 姻 年 度					
	1 9 7 2	1 9 7 5	1 9 8 1	1 9 8 5	1 9 8 8	1 9 8 9
男 子	100 0	100.0	100.0	100.0	100.0	100.0
15~19	0 3	0.2	0.2	0.1	0 0	0.0
20~24	3.2	3.1	3.0	2.2	1.4	1.1
25~29	14 4	13.3	15.9	15.5	13.9	13.0
30~34	25.7	22.2	25.0	22.9	26.2	27.3
35~39	19.4	20.1	19.5	20.1	20.0	20.1
40~44	13 0	13.3	13.4	13.6	13 6	14.3
45~49	8.9	9.3	8.5	9.4	9 8	9.3
50~54	6.4	7.3	5 4	6.2	6.0	6.3
55~59	4.3	5.1	3 9	4.2	4.0	3.8
60+	4.3	6.1	5.2	5 9	5.0	4.9
平均再婚年齡	39 0	39.9	38 9	39.5	39 4	39.5
女 子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5~19	2.7	2.2	0.9	0.5	0.2	0.1
20~24	12.4	10.6	11 7	9.6	6 4	6.1
25~29	22.4	20.9	28.5	27.5	27.9	26.5
30~34	24.4	23.0	22.2	23.2	27.3	29.0
35~39	16.8	17.7	15.4	14.9	15.4	15.8
40~44	10.3	11.4	9.7	10.1	9.3	9.4
45~49	6.2	7.2	5.4	6.5	6.6	6.6
50~54	2.8	3.9	3.6	3.7	3.7	3.4
55~59	1.3	2.0	1.5	2.4	2.0	1.8
60+	0.7	1.1	1 1	1.6	1.2	1.3
平均再婚年齡	33.7	34.7	33.9	34.7	34.8	34.9

- 男子의 再婚은 30-34歲 年齡層이 가장 많은데, '89年 30-34歲 年齡層의 再婚이 全體의 1/4以上을 차지하고 있으며 35-39歲가 약 20% 그리고 40-44歲가 14%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25-29歲와 45-49歲는 각각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음.
- 女子의 경우에는, 25-29歲와 30-34歲 年齡層의 再婚이 '89年에 全體의 30%, 24%를 각각 차지하고 있으며, 이의 35-39歲와 40-44歲가 15%와 10% 정도를 나타내고 있는 반면, 25歲未滿은 6%에 불과함.
- 男女 25歲未滿 低年齡層에서는 再婚이 減少하고 30歲以上 年齡層에서는 增加함에 따라 平均 再婚年齡이 男子는 '72年 39.0歲에서 '89年 39.5歲로, 그리고 女子는 '72年 33.7歲에서 '89年 34.9歲로 높이는 結果를 가져왔음.
- 男女 50歲以上 高年齡層에서의 再婚 構成比가 多少增加하고 있는데, 이는 死別人口의 再婚增加에 基因하며, 男子가 女子보다 數值가 높은 이유는 平均壽命差異에 따른 高齡層 男性人口의 부족 및 社會的 인식등의 제약으로 女子의 再婚이 상대적으로 어렵기 때문임.
- 우리나라의 男女 平均再婚年齡은 日本, 美國 보다는 낮고 싱가포르, 臺灣 보다는 다소 높음.

(單位 : 歲)

國名 (年度)	韓國 ( '89)	日本 ( '88)	臺灣 ( '89)	싱가포르 ( '89)	美國 ( '86)
男子	39.5	41.3	39.4	40.0	40.1
女子	34.9	37.7	34.2	34.0	36.2

10. 婚姻男女間 婚姻年齡差異

가. 初婚年齡別 男女間 婚姻年齡差異

(單位 : 歲)

初婚年齡	婚 姻 年 度					
	1972	1975	1981	1985	1988	1989
男 子	4.3	4.2	3.4	3.0	3.0	3.1
15~19	-0.3	-0.4	-0.4	-0.7	-0.6	-0.6
20~24	2.1	2.0	1.6	1.2	0.9	0.9
25~29	4.7	4.5	3.7	3.1	3.0	3.0
30~34	7.2	7.0	6.6	5.5	5.0	5.0
35~39	9.2	8.8	8.6	7.6	6.8	6.4
40~44	10.7	10.4	10.1	9.1	8.7	8.1
45~49	12.9	12.5	13.0	11.5	10.9	10.8
50+	15.7	16.8	16.6	15.9	14.0	12.5
女 子	4.5	4.4	3.5	3.2	3.1	3.2
15~19	6.5	6.3	5.5	5.9	5.9	6.1
20~24	4.2	4.2	3.6	3.5	3.9	4.0
25~29	2.7	2.6	2.0	1.8	1.9	2.0
30~34	3.2	3.1	2.2	1.8	1.4	1.2
35~39	4.7	4.3	4.0	3.2	2.2	2.1
40~44	6.5	6.1	4.7	4.5	3.6	3.4
45~49	5.1	6.6	6.7	4.9	5.7	5.2
50+	1.5	4.1	1.7	1.6	5.3	5.8

註) 年齡差異는 男子婚姻年齡 - 女子婚姻年齡

- '89年 男子의 初婚年齡이 20-24歲인 경우 男子가 女子보다 0.9歲 많아 거의 年齡差異가 없으나 25-29歲인 경우에는 3.0歲, 30-34歲인 경우에는 5.0歲, 35-39歲인 경우에는 6.4歲로 初婚年齡의 상승과 함께 男女間 年齡差異도 增加함.
- 女子의 初婚年齡을 기준으로 볼 때에는, 男女間 年齡差異는 25-34歲 年齡에서는 거의 1-2歲정도의 差異를 보이고 있는 반면, 初婚年齡이 25歲미만 또는 40歲이상인 경우에는 年齡差異가 벌어져 20-24歲인 경우 4.0歲, 40-44歲인 경우 3.4歲, 45-49歲에는 5.2歲가 男子가 女子보다 많음
- 年度別 推移를 살펴보면 男女 모든 年齡層에서 男女間 年齡差異가 多少 減少勢를 보이고 있는데, 減少幅은 男子 初婚年齡 20-39歲, 女子 初婚年齡 30-44歲에서 특히 큼.

나. 教育程度別 男女間 婚姻年齡差異

(單位 : 歲)

教育程度	婚 姻 年 度					
	1972	1975	1981	1985	1988	1989
男 子	4.7	4.4	3.6	3.2	3.2	3.3
불 취 학	6.5	6.4	6.2	6.9	6.8	6.4
국 민 학교	4.9	4.8	4.3	4.4	4.6	4.7
중 고 교	4.2	4.2	3.5	3.3	3.3	3.4
대 학 이 상	4.2	4.1	3.2	2.8	2.8	2.8
女 子	4.7	4.4	3.6	3.2	3.2	3.3
불 취 학	6.1	6.2	5.9	6.3	6.1	5.9
국 민 학교	4.8	4.7	4.2	4.4	4.6	4.6
중 고 교	4.2	4.2	3.5	3.2	3.3	3.3
대 학 이 상	3.9	3.8	2.9	2.6	2.6	2.6

註) 婚姻年齡差異는 男子婚姻年齡 - 女子婚姻年齡

- 教育程度가 높을수록 男女間 年齡差異가 적음. '89年 불취학 男子의 경우 男女間 年齡差異는 6.4歲이나 國民學校 學歷의 男子인 경우는 4.7歲, 中 高等學校 學歷 男子인 경우는 3.4歲 및 大學以上인 경우에는 2.8歲 로 나타나고 있음
- 女子의 學歷을 기준으로 볼때 男子의 경우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음. 즉 '89年 불취학인 경우 年齡差異는 5.9歲이며, 國民學校 學歷인 경우는 4.6歲, 中 高와 大學以上 學歷인 경우는 3.3歲 및 2.6歲로 男子의 연령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年度別 推移를 살펴보면 男女의 모든 教育程度에서 男女間 年齡差異는 減少勢로 나타나고 있는데, 減少幅은 高學歷일수록 더 커 大學以上 學歷의 男子의 경우 男女間 年齡差異는 '72年에서 '89年 사이에 1.2歲가, 그리고 女子의 경우에는 1.3歲가 減少함

### Ⅲ. 離 婚

#### 1. 總離婚件數 및 離婚率

離婚年度	離婚數 <sup>1)</sup>	粗離婚率 <sup>2)</sup>
1971~75	14,007	0.41
1976~80	20,348	0.55
1981~85	32,447	0.81
1986~90	44,909	1.07
1986	41,556	1.01
1987	44,585	1.07
1988	44,435	1.06
1989	45,678	1.08
1990	48,290	1.13

註) 1) 推定值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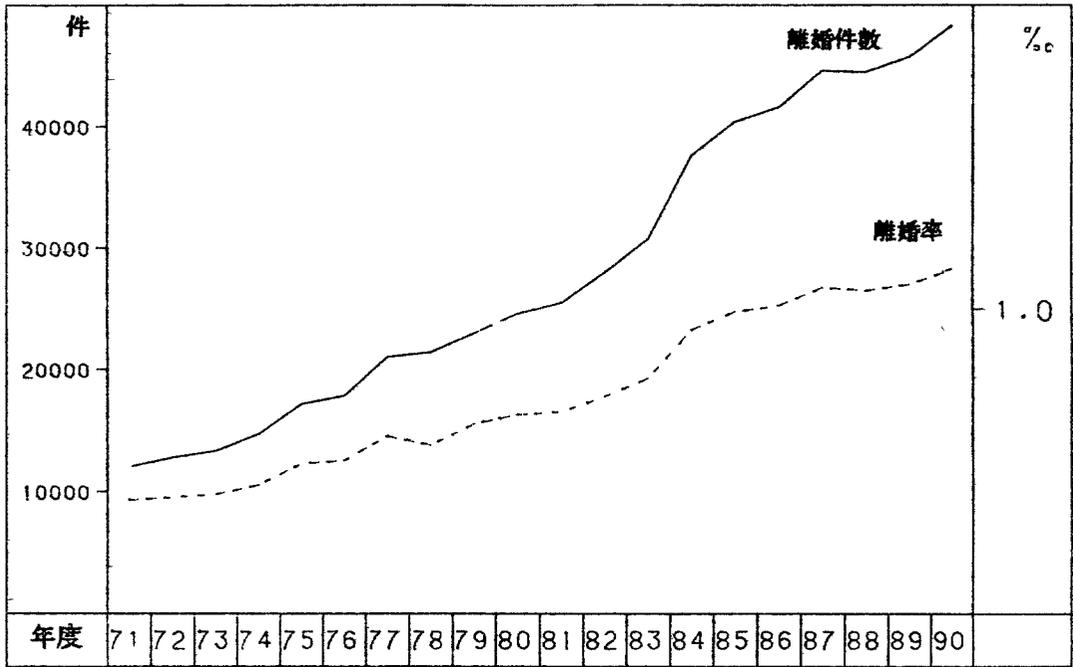
2) 人口1000名當 離婚件數

- 離婚件數는 '70年代初半 年平均 14千件에서 '70年代 後半 20千件, '80年代初半 32千件, '80年代後半 45千件 水準으로 증가추세가 지속되고 있음
- 總人口對比 粗離婚率(人口 1000名當 離婚數)도 '70年代初 0.4에서 '80年代初에 0.8, 최근 1.1 水準으로 증가추세임.
- 이는 産業化에 따른 經濟的 自立力 증가, 전통적 도덕觀의 쇠퇴등으로 인하여 結婚生活의 갈등을 離婚으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됨.
- 우리나라의 粗離婚率은 日本, 臺灣, 英國과 비슷한 반면, 美國, 호주, 蘇聯등 先進國에 비해 아주 낮은 水準임.

(單位 - 人口千名當)

國名 (年度)	韓國 (1990)	日本 (1988)	臺灣 (1989)	泰國 (1986)	싱가포르 (1989)	美國 (1986)	네덜란드 (1987)	덴마크 (1988)	蘇聯 (1987)
粗離婚率	1.13	1.26	1.26	0.69	1.08	4.89	1.89	2.87	3.36

# 離婚數 及 離婚率推移



2. 離婚年齡別 離婚分布

(單位 : %, 歲)

離婚年齡	離婚年 度					
	1970	1975	1980	1985	1988	1989
男 子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5~19	0.2	0.2	0.1	0.1	0.0	0.0
20~24	3.8	3.9	4.0	3.9	2.6	2.4
25~29	21.4	19.4	18.6	21.7	19.1	18.3
30~34	29.6	29.0	27.2	26.5	29.0	29.3
35~39	18.7	21.1	22.3	20.7	20.8	20.7
40~44	11.7	12.2	13.4	13.2	13.1	14.0
45~49	7.3	6.6	7.0	7.2	8.3	7.8
50~54	3.6	4.1	3.5	3.0	3.5	3.7
55~59	1.9	1.8	2.0	1.7	1.6	1.8
60+	1.8	1.7	1.9	2.0	2.0	2.0
平均離婚年齡	36.0	36.2	36.3	36.2	36.7	37.3
女 子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5~19	2.5	3.4	1.3	0.8	0.4	0.4
20~24	17.2	16.4	16.2	15.3	10.9	10.5
25~29	31.6	29.2	29.5	32.4	32.1	30.4
30~34	24.3	24.7	23.8	23.6	27.6	29.0
35~39	13.4	14.0	14.7	13.9	14.3	14.6
40~44	6.2	7.1	8.3	7.8	7.8	8.0
45~49	3.0	3.1	3.5	3.5	4.1	4.0
50~54	1.2	1.3	1.6	1.5	1.6	1.8
55~59	0.4	0.5	0.7	0.7	0.7	0.8
60+	0.2	0.3	0.4	0.5	0.5	0.5
平均離婚年齡	31.0	31.3	31.1	31.9	31.6	33.2

- 男子는 30-34歲 離婚者가 '89年 전체 離婚男子의 29.3%로 가장 많으며, 다음이 35-39歲의 20.7%로, 30代 離婚者가 總 離婚者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음. 25-29歲가 18.3%, 40-44歲가 14%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 年齡層에서의 離婚者數는 낮은 水準임
- 女子의 경우에는 25-29歲, 30-34歲가 각각 30.4%, 29.0%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이 35-39歲(14.6%), 20-24歲(10.5%) 순으로 나타났음.

- 男子 35歲, 女子 30歲를 전후로 볼때 低年齡層의 離婚構成比는, 점차 減少하는 반면, 高年齡層의 離婚構成比는 점차 增加하고 있는데, 이는 初婚年齡의 上昇, 傳統的 倫理觀 衰退 및 經濟自立度 增加등에 기인한 高年齡層 離婚人口의 상대적 增加에 기인함.
- 따라서 平均離婚年齡은 男子의 경우 '70年 36.0歲에서 '89年 37.3歲, 女子의 경우 31.0歲에서 33.2歲로 높아졌음.
- 우리나라의 平均離婚年齡은 臺灣과 비슷하며, 日本, 美國, 네덜란드등 보다는 낮은 수준임

(單位 歲)

國名 (年度)	韓國 ( '89)	日本 ( '88)	臺灣 ( '89)	싱가포르 ( '89)	美國 ( '86)	네덜란드 ( '87)	덴마크 ( '88)
男 子	37.3	39.5	37.0	38.3	36.5	39.8	40.6
女 子	33.2	36.1	32.0	34.8	33.9	37.0	37.8

3. 地域別 離婚率

市 道	離 婚 年 度				
	1 9 7 0	1 9 7 5	1 9 8 0	1 9 8 5	1 9 8 9
全 國	0.39	0.49	0.65	0.99	1.08
서 울	0.57	0.78	0.97	1.28	1.22
부 산	0.52	0.71	0.95	1.33	1.54
대 구	-	-	-	1.06	1.22
인 천	-	-	-	1.25	1.30
광 주	-	-	-	-	0.90
대 전	-	-	-	-	1.13
경 기	0.51	0.55	0.64	1.04	1.12
강 원	0.27	0.33	0.39	0.75	0.87
충 북	0.33	0.31	0.40	0.61	0.76
충 남	0.33	0.33	0.42	0.65	0.60
전 북	0.26	0.31	0.35	0.59	0.67
전 남	0.25	0.30	0.45	0.58	0.57
경 북	0.28	0.34	0.41	0.64	0.79
경 남	0.40	0.42	0.55	0.89	1.04
제 주	0.76	0.57	0.66	0.94	0.95

註) 人口 1000名當 離婚數임.

- 地域別 離婚率을 보면 '70년에는 제주가 가장 높았으나, 最近에는 大都市 地域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89년에는 부산(1.54), 인천(1.30), 서울, 대구(1.22), 대전(1.13) 등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 濟州는 9個道中에서는 비교적 높은 水準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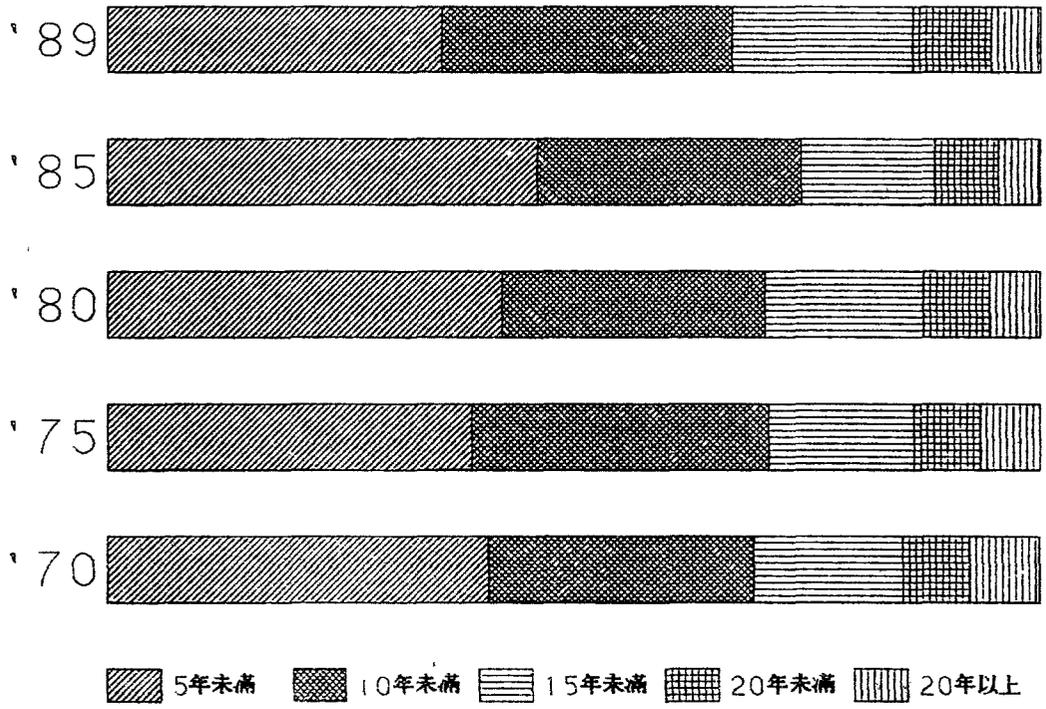
4. 同居期間別 離婚分布

(單位：%)

同居期間	離 婚 年 度					
	1970	1975	1980	1985	1988	1989
計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0~5年未滿	40.9	39.2	42.4	46.3	38.6	36.0
0~2年未滿	16.5	14.7	15.3	21.6	15.1	12.9
2~3年未滿	9.5	9.2	9.9	8.6	8.3	8.4
3~4年未滿	8.0	7.9	9.2	7.7	7.7	7.4
4~5年未滿	6.9	7.4	8.1	8.4	7.5	7.3
5~10年未滿	28.5	31.8	28.2	28.2	31.0	31.1
5~6年未滿	6.8	8.4	7.2	7.0	6.8	6.5
6~7年未滿	5.3	7.4	6.0	6.5	6.3	6.7
7~8年未滿	5.7	6.4	5.5	5.2	6.4	5.8
8~9年未滿	5.9	5.2	4.9	4.7	6.3	5.9
9~10年未滿	4.8	4.5	4.6	4.8	5.2	6.2
10~14年未滿	15.8	15.4	16.8	14.2	17.6	19.1
10~11年未滿	5.1	4.6	4.8	3.6	4.7	5.0
11~12年未滿	3.1	2.5	4.2	3.5	3.8	4.5
12~13年未滿	3.0	2.7	3.4	2.6	3.7	3.6
13~14年未滿	2.5	2.8	2.4	2.3	3.0	3.1
14~15年未滿	2.1	2.7	2.0	2.2	2.4	2.9
15~20年未滿	7.2	7.2	7.2	6.9	8.0	8.5
15~16年未滿	2.1	2.4	1.8	2.3	2.0	2.2
16~17年未滿	1.8	1.4	1.4	1.6	1.7	2.1
17~18年未滿	1.2	1.3	1.4	1.2	1.6	1.5
18~19年未滿	1.1	1.1	1.4	0.9	1.5	1.4
19~20年未滿	1.0	0.9	1.2	0.9	1.3	1.3
20年以上	7.6	6.4	5.4	4.4	4.8	5.3
平均同居期間(年)	8.3	8.1	7.9	7.2	8.0	8.4

- 同居期間別로 보면 '89년에 發生한 離婚의 12.9%가 結婚 2年未滿, 21.3%가 3年未滿에 그리고 36.0%가 結婚 5年이 되기전에 離婚하였으며 結婚 5 - 9年사이에는 31.1%, 結婚生活 10年以上이 32.9%임.
- 結婚 5年以內 離婚은 '70年代 初半 全體離婚의 40% 水準이었던것이 계속 增加 '85년에는 46.2%를 나타냈으나, '80年代 後半에 들어 다소 減少하고 있는데, 이는 同居期間이 긴 高年齡層에서의 離婚의 增加폭이 同居期間이 짧은 低年齡層의 增加폭 보다 더 크기 때문임.
- 한편, 結婚 10年後 離婚構成比도 增加 趨勢를 보이고 있어 자녀에 대한 責任意識 夫婦間 傳統的 倫理觀등이 쇠퇴 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음.

# 同居期間別 離婚分布



5 離婚事由別 離婚分布

(單位 · %)

離婚事由	離婚年度					
	1970	1975	1980	1985	1988	1989
計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夫婦不和	64.5	64.3	74.4	80.9	82.4	83.1
家族間不和	8.0	8.4	5.3	4.2	3.6	3.4
健康問題	5.6	5.1	3.3	1.6	1.5	1.4
經濟問題	4.9	5.2	3.6	2.9	2.1	2.0
其他	17.0	17.0	13.4	10.4	10.4	10.1

- 夫婦不和에 의한 離婚은 '70年 全體離婚의 64.5%에서 계속 增加하여 '89년에는 83.1%가 되고 있음.
- 반면 家族間不和, 健康問題 또는 經濟問題에 의한 離婚은 減少하여 '89年 3.4% 1.4% 및 2.0%로 각각 나타나고 있음
- 都市化 및 核家族化에 따라 家庭生活의 행복이 주로 夫婦關係에 의해 左右됨에 따라 夫婦不和에 의한 離婚이 급속히 增加하고 있음.

6 成婚過程別 平均同居期間

(單位 年)

成婚過程	離 婚 年 度			
	1980	1985	1988	1989
計	7.9	7.2	8.0	8.4
자유(연애)	6.9	6.4	7.4	7.9
중매	8.8	8.2	9.1	9.4
절충	7.9	7.1	8.2	8.6

- '89年 離婚者중 자유(연애)結婚을 한 경우에는 結婚 7.9年만에, 중매에 의한 結婚을 한 경우에는 平均적으로 結婚 9.4年만에 離婚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자유(연애)結婚을 한 사람이 중매結婚을 한 사람에 비해 3年정도 빨리 離婚을 하고 있음. 절충인 경우에는 平均 婚姻 8.6年만에 離婚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Ⅳ. 純婚姻表 · 結婚生命表의 主要結果

### 1. 純婚姻表 結婚生命表의 意義

#### - 純婚姻表

人口動態 申告上에 나타난 年齡別 初婚統計는 상이한 出生集團의 部分的인 婚姻行態로, 同一 出生集團(또는 時代)의 全體的인 婚姻 特성과약은 桴亂함.

- 대부분의 사람은 出生後(未婚人口) 어느 시점에서 婚姻에 의하여 未婚狀態에서 벗어나게 됨.

純婚姻表는 同一 出生集團 未婚人口가 경험하게 될 初婚特性(初婚水準, 初婚패턴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作成됨 (純婚姻表 作成에 관한 구체적인 內容은 附錄1에 收錄)

#### - 結婚生命表

有配偶 人口는 어느 시점에서는 本人 및 配偶者의 死亡 또는 離婚에 의하여 有配偶 狀態에서 벗어나게 됨.

- 結婚生命表는 한 出生集團(Birth cohort)의 有配偶 人口를 대상으로 이들이 離婚 死別등으로 結婚이 解體되어 가는 과정을 파악하기 위해서 작성됨.  
(結婚生命表의 作成에 관한 구체적인 內容은 附錄2에 收錄)

## 2. 純婚姻表의 主要結果

### 가. 初婚 確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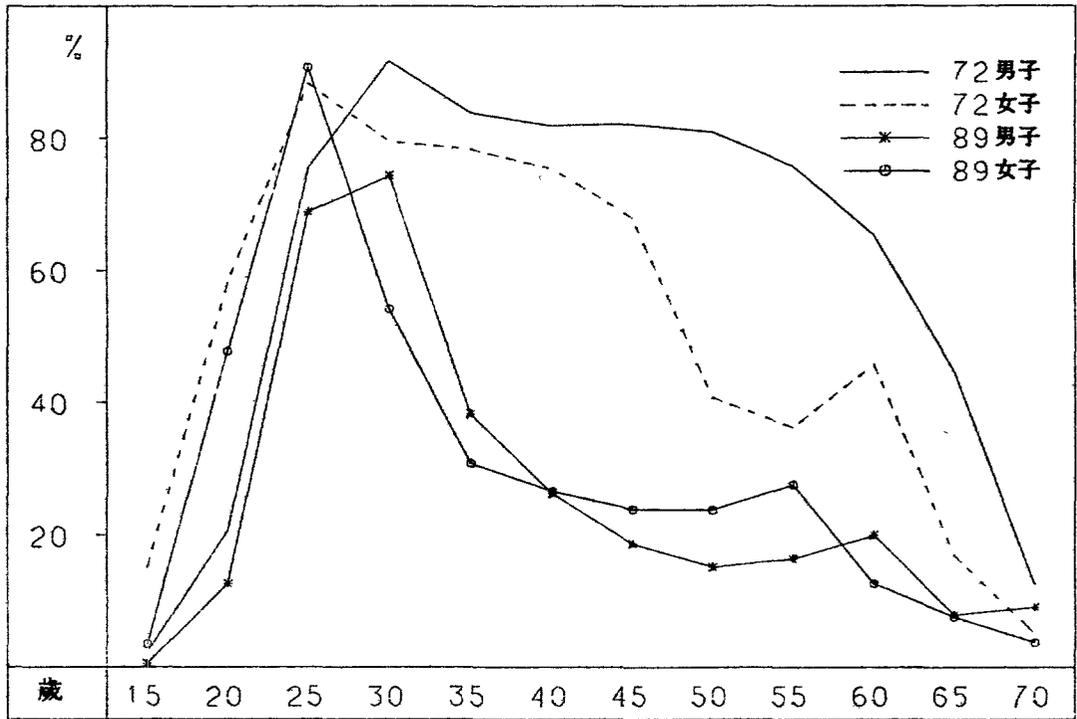
(單位 : %)

年 齡 (x)	男 子				女 子			
	1972	1981	1985	1989	1972	1981	1985	1989
15	2.3	1.7	1.1	0.5	15.0	9.3	7.2	3.5
20	20.6	20.1	17.7	12.6	58.1	56.9	52.3	47.7
25	75.6	78.7	68.7	68.8	88.3	91.7	82.1	90.7
30	91.7	94.1	79.0	74.3	79.5	59.1	52.9	54.1
35	83.8	64.7	48.0	38.2	78.3	51.6	36.5	30.7
40	81.8	56.9	36.1	26.2	75.3	48.2	37.9	26.5
45	82.1	32.2	23.4	18.6	68.0	44.8	34.0	23.1
50	80.9	56.8	23.2	15.1	40.7	54.5	43.4	23.7

註) x歲의 未婚人口가 x ~ (x+5)歲 사이에서 婚姻(初婚)할 確率

- 年 齡 別 初婚 確率은 男子 25歲未滿, 女子 20歲未滿에서는 아주 낮으나, 이후 年 齡 層에서 급격히 增加하고 있는데, 이는 男子는 주로 25歲以後에 女子는 주로 20歲以後에 婚姻을 하고 있음을 나타냄
- '89年 25歲 男子는 30歲以前까지 68.8%가 婚姻(初婚)을 하며, 30歲 男子는 74.3%가 35歲以前까지 婚姻을 할 것으로 推定됨 이는 未婚男子 대부분이 25-29歲에서 婚姻을 하기 때문에 未婚인 30歲 男子는 30-34歲 年 齡 層에서 대부분 婚姻을 할 것으로 期待되기 때문임.
- 女子의 경우 20歲 未婚女子는 25歲까지 47.7%가 婚姻을 하며, 25歲의 未婚女子는 30歲前에 90.7%가 婚姻을 함.
- 男女모두 35歲 以後까지 未婚으로 남아있는 경우에는 다음 5歲 年 齡 層까지에 婚姻할 確率은 年 齡의 增加와 함께 減少하고 있음.
- 年度別 推移를 살펴보면 女子 25歲를 除外한 男女 모든 年 齡에서 初婚 確率은 減少 勢임. 女子 25歲에서 初婚 確率은 높은 水準에서 유지되고 있는데, 이는 30歲以前에 婚姻을 하려는 傾向이 여전히 강하기 때문임.

# 年齡別 初婚確率



나 餘生初婚確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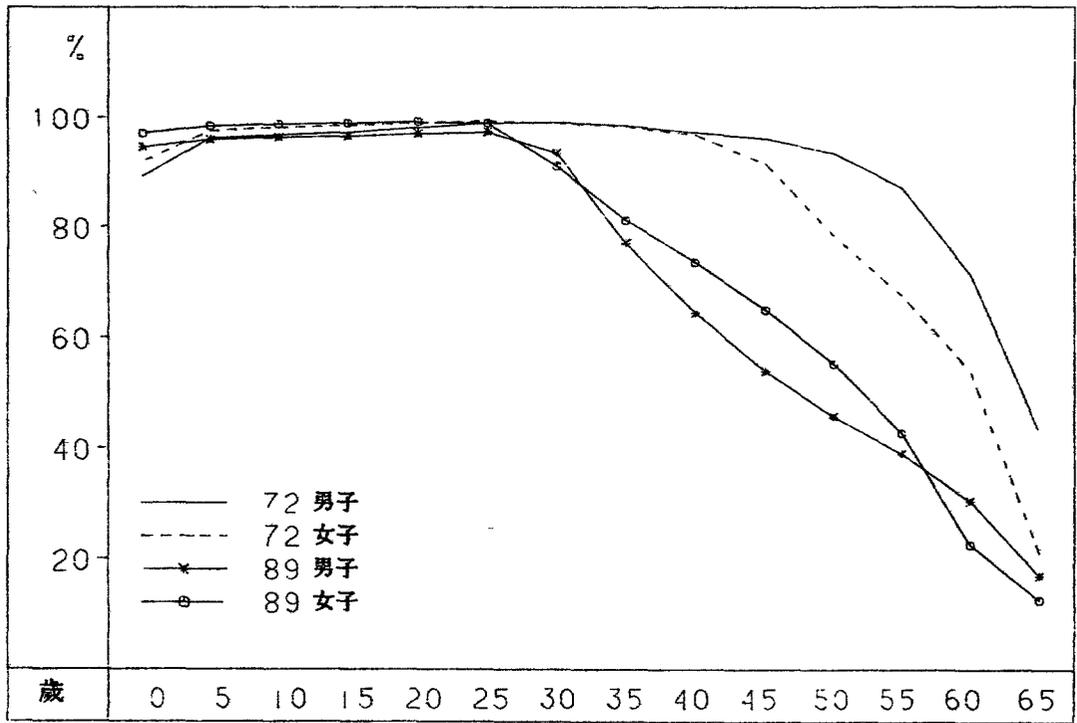
(單位 · %)

年齡 (x)	男 子				女 子			
	1972	1981	1985	1989	1972	1981	1985	1989
0	89.2	92.7	94.3	94.5	91.9	92.8	96.3	97.0
1	94.4	95.8	95.7	95.5	96.1	96.8	97.7	98.0
5	96.1	96.6	96.3	95.9	97.5	98.4	98.3	98.4
10	96.7	97.2	96.7	96.3	98.1	98.8	98.7	98.7
15	97.2	97.6	97.1	96.5	98.5	99.1	98.9	98.9
20	98.1	98.3	97.7	97.0	99.0	99.4	99.3	99.2
25	99.0	99.1	98.2	97.3	99.3	99.6	99.2	98.9
30	99.1	99.1	96.4	93.4	98.9	98.5	97.3	91.0
35	98.5	96.2	86.7	77.1	98.3	97.3	95.3	81.2
40	97.2	92.2	77.0	64.5	96.7	95.7	93.6	73.6
45	96.1	86.6	67.2	53.9	91.4	93.9	91.4	65.0
50	93.4	85.0	60.8	45.7	78.4	91.8	89.3	55.2

註)平生初婚確率 . 年齡X의 未婚人口가 死亡하기전에 궁극적으로 初婚할 確率

- 갓 태어난 出生兒가 평생에 걸쳐 婚姻(初婚)할 確率は '72년에 男子가 89.2%, 女子가 91.9%였으나 그 동안 영유아 死亡率의 減少등으로 인하여 계속 增加하여 '89년에는 男子가 94.5%, 女子가 97.0%로 높아졌음
- 1歲이후 年齡層에서의 餘生初婚 確率は 年齡의 增加에 따른 死亡率 低下로 계속 增加, '89年 男子의 경우 25歲에서 97.3% 그리고 女子의 경우 20歲에서 99.2%로 가장 높고 있음. 이후 年齡層에서는 年齡의 增加와 함께 獨身比率과 死亡率이 높아지기 때문에, 餘生初婚 確率は 오히려 減少를 나타냄.
- 70年代와 80年代初까지는 50歲前까지 餘生初婚 確率は 90%정도 또는 그 이상으로 높았으나, 85年以後 최근에는 高年齡層 未婚人口의 餘生初婚 確률이 급격히 減少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最近 高年齡層 未婚人口의 增加를 반영하고 있음
- 男女別로 보면 餘生初婚 確率は 男 女 死亡力 差異로 인하여 女子가 男子보다 높음.

# 年齡別 餘生初婚確率



다. 期待 未婚年數

(單位 . 歲)

年 齡 (x)	男 子				女 子			
	1972	1981	1985	1989	1972	1981	1985	1989
0	25.1	25.9	27.6	28.6	22.3	22.8	24.6	25.0
1	25.5	25.7	22.0	27.9	22.3	22.8	23.9	24.3
5	21.9	22.0	23.2	24.1	18.6	19.2	20.1	20.3
10	17.1	17.1	18.3	19.1	13.7	14.2	15.1	15.4
15	12.1	12.1	13.3	14.2	8.7	9.2	10.2	10.4
20	7.5	7.4	8.5	9.3	4.9	5.0	5.8	5.7
25	3.8	3.7	4.9	5.3	3.2	3.2	4.5	3.7
30	3.0	3.0	5.1	6.6	3.8	6.5	8.5	10.6
35	3.5	5.8	10.0	13.7	4.0	7.2	10.2	15.2
40	3.6	7.0	12.2	15.8	4.6	7.5	9.8	15.9
45	3.6	8.2	13.2	16.0	6.2	7.4	9.4	16.0
50	3.7	6.3	12.2	14.9	9.3	6.6	8.2	15.5

註) 期待未婚年數 年 齡 x 歲의 未婚人口가 향후 未婚 상태로 살 年數

- 0歲에서 未婚으로 살 年數는 男子의 경우 '72年 25.1歲에서 '89年 28.6歲, 女子의 경우에는 22.3歲에서 25.0歲로 增加趨勢임
- 이는 教育 就業機會擴大와 晚婚傾向 등으로 初婚年齡이 上昇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임. (期待未婚年數와 初婚年齡이 완전히 일치하지 않은 것은 期待未婚年數 算出에는 年齡別 死亡率을 감안하기 때문임)
- 1歲以後 期待未婚年數는 年齡이 높아질수록 減少되어, 男女모두 25歲에서 가장 낮음.
- 그러나 일단 結婚適齡期가 넘으면 期待未婚年數는 年齡의 上昇과 함께 增加하여 男女 40代에서 가장 높아지는데, 이는 婚姻適齡期를 넘어서면 婚姻이 어려워 짐을 나타냄.

### 3. 結婚生命表의 主要結果

#### 가. 有配偶 加入率

(單位 · %)

年齡階級 (x~x+5)	男 子					女 子				
	1970	1975	1980	1985	1990	1970	1975	1980	1985	1990
15-19	6.8	6.6	6.5	5.3	3.3	39.1	34.4	31.8	26.8	18.6
20-24	48.1	45.0	47.0	43.0	38.7	45.6	49.1	50.8	52.8	58.0
25-29	36.0	39.0	36.9	40.2	42.3	6.1	7.5	9.3	12.3	14.8
30-34	4.7	5.1	4.8	5.9	8.7	0.0	0.0	0.0	0.0	0.0
35-39	0.1	0.3	0.5	1.0	1.5	0.0	0.0	0.0	0.0	0.0
40-44	0.0	0.0	0.0	0.1	0.8	0.0	0.0	0.0	0.0	0.0

註) x ~ (x+5)歲 人口가 다음 年齡階級으로 移行될때 有配偶集團으로의 加入率

- 初婚年齡上昇으로 인하여 男子는 25歲未滿, 女子는 20歲未滿의 有配偶 加入率이 '70年以後 계속 減少하고 있으며, 반면 男子는 25歲以上, 女子는 20歲以上의 有配偶 加入率이 점차 증가세임.
- 25-29歲의 未婚 男子가 30-34歲가 되면서 有配偶 集團으로의 加入率은 '90年에 42.3%로서 '70年 36.0%보다 높아진 반면, 20-24歲 未婚男子의 경우는 38.7%로, '70年 48.1%보다 낮아짐.
- 女子의 경우는 20-24歲 未婚女子가 25-29歲가 되면서 有配偶 集團으로의 加入率은 '70年 45.6%에서 58.0%로, 25-29歲에서는 6.1%에서 14.8%로 크게 확대된 반면, 15-19歲에서는 39.1%에서 18.6%로 크게 떨어짐.

나. 有配偶 離脫率

(單位 . %)

年度	年齡 (x~x+5)	男 子			女 子		
		計	本人死亡	離·死別	計	本人死亡	離·死別
1970	45 - 49	7.1	5.9	1.2	16.2	3.2	13.0
	50 - 54	11.1	8.9	2.2	20.5	4.5	16.0
	55 - 59	18.3	14.0	4.3	28.7	6.5	22.2
	60 - 64	28.3	22.2	6.1	35.4	9.9	25.5
	65 - 69	40.4	31.4	9.0	45.4	15.0	30.4
1980	45 - 49	6.5	5.4	1.0	16.6	2.4	14.2
	50 - 54	9.9	8.3	1.6	20.1	3.5	16.6
	55 - 59	16.1	13.4	2.6	26.2	5.4	20.8
	60 - 64	25.7	21.5	4.2	32.2	8.7	23.5
	65 - 69	37.4	30.6	6.8	44.6	14.5	30.1
1990	45 - 49	5.5	5.0	0.5	9.0	1.9	7.1
	50 - 54	7.9	7.0	0.9	16.7	2.7	14.0
	55 - 59	12.5	10.1	2.4	27.7	3.9	23.8
	60 - 64	18.4	15.7	2.7	30.2	6.3	23.9
	65 - 69	28.5	23.1	5.4	41.5	10.5	31.0

註) x ~ (x+5)歲 人口가 다음 年齡階級으로 移行될때 有配偶 集團으로 부터의 離脫率

- 有配偶 상태로부터의 離脫率은 年齡의 上昇과 함께 계속 增加하고 있는데, 이는 年齡이 높아질수록 本人 또는 配偶者의 死亡이 增加하기 때문임
- 離脫率의 내용을 보면 男子의 死亡率이 女子보다 높은 結果를 잘 나타내고 있는데, 男子의 경우에는 주로 本人의 死亡에 의하여, 女子의 경우에는 男便의 死亡에 의하여 有配偶 狀態에서 離脫하고 있음.
- '90年 男子 60-64歲 경우 總 18.4%가 65-69歲 될때까지 有配偶 狀態에서 離脫하고 있는데 이중 15.7%는 本人의 死亡에 의하여, 겨우 2.7%만이 離婚 또는 婦人의 死亡에 의해 有配偶 狀態를 離脫하고 있는 반면, 동일 年齡 女子의 경우에 總 離脫率 30.2%中 6.3%만이 本人의 死亡에 의하여 나머지 23.9%가 離婚 또는 男便의 死亡에 의해 有配偶 狀態에서 離脫하고 있음.
- 年度別 추이를 살펴보면, 男女死亡率의 減少추이 때문에 男女모든 年齡層에서 離脫率(總離脫率, 本人의 死亡 또는 離·死別에 의한 離脫率)은 減少趨勢임.

다. 夫婦期待餘命

(單位：年)

年度	年齡 (x)	男 子			女 子		
		期待壽命	夫婦期待壽命	差異	期待壽命	夫婦期待壽命	差異
1970	20	45.4	43.4	1.9	51.7	37.0	14.8
	25	40.9	39.0	2.0	47.2	32.3	14.9
	30	36.4	34.5	2.0	42.7	27.6	15.1
	35	32.0	29.9	2.0	38.2	23.6	14.6
	40	27.5	25.5	2.1	33.8	20.6	13.2
	45	23.4	21.4	2.0	29.4	17.6	11.9
	50	19.5	17.6	1.9	25.2	15.0	10.2
	55	15.8	14.1	1.7	21.2	12.6	8.6
1980	20	46.2	44.7	1.5	53.9	39.5	14.3
	25	41.7	40.1	1.6	49.2	34.7	14.4
	30	37.2	35.6	1.6	44.4	29.9	14.5
	35	32.6	31.1	1.6	39.7	25.3	14.4
	40	28.1	26.5	1.6	35.0	21.3	13.7
	45	24.0	22.4	1.6	30.6	18.0	12.6
	50	19.9	18.5	1.5	26.2	15.6	10.6
	55	16.2	14.9	1.3	21.9	13.2	8.7
1990	20	48.9	47.5	1.5	56.9	42.6	14.3
	25	44.3	42.8	1.5	52.1	37.7	14.4
	30	39.7	38.2	1.5	47.3	32.8	14.4
	35	35.1	33.6	1.5	42.5	28.1	14.4
	40	30.6	29.0	1.6	37.8	23.7	14.1
	45	26.4	24.8	1.6	33.1	19.8	13.3
	50	22.4	20.8	1.6	28.6	16.3	12.3
	55	18.6	17.1	1.5	24.3	13.6	10.7

註) · 期待壽命：年齡 x 歲의 人口가 향후 살 수 있는 年數.

· 夫婦期待壽命 年齡 x 歲의 人口가 향후 夫婦狀態로서 살 수 있는 年數.

'90年 25歲 有配偶男子의 向後 夫婦生活 期待年數는 42.8年, 20歲 有配偶 女子의 경우에는 42.6年임.

死亡力의 減少로 인하여 男女 모든 年齡層에서 平均 夫婦餘命은 계속 上昇하는 추세나, 死亡力 水準이 높은 男子 死亡力의 減少폭이 死亡力 水準이 상대적으로 낮은 女子 死亡力의 減少폭 보다 크기 때문에 女子의 夫婦餘命의 增加가 더 크게 나타나고 있음.

男子의 夫婦餘命이 女子보다 긴 것은 男子의 死亡率이 女子보다 높아 男子는 餘生의 대부분을 有配偶狀態로 보내는 반면, 女子의 경우에는 女子의 平均壽命이 긴데다가, 女子보다 (婚姻)年齡이 높은 配偶者의 높은 死亡率로 死別狀態로 보내는 期間이 길기 때문임. '90年 25歲 男子의 夫婦餘命은 42.8歲인 반면, 同一年齡女子의 夫婦餘命은 37.7歲로 男子가 女子보다 5.1歲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이에따라 60歲未滿 年齡層에서 보면 男子가 홀로 살게 될 平均年數(期待壽命 - 夫婦期待餘命)는 1-2년에 불과한 반면, 女子의 경우에는 10年以上임.

〈 附 錄 〉

1. 純婚姻表 作成結果
2. 結婚生命表 作成結果

**여 백**

# 1. 純婚姻表 作成結果

## I. 作成概要

### 1. 意義

- 人口動態申告에 나타난 年齡別 初婚패턴은 각기 다른 出生集團(Birth cohort)의 婚姻 패턴중 一部로서, 한 出生集團의 전체적인 婚姻패턴 및 婚姻에 관한 여러가지 特性把握이 困難함.
- 純婚姻表(Nuptiality Table)란 이들 相異なる 出生集團의 初婚패턴과 死亡패턴을 일종의 수리적 모델인 生命表 技法에 適用. 同一한 出生集團(Birth cohort)의 構成員들이 出生하여 모두 死亡에 이르기까지의 期間동안에 經驗하게 될 전체적인 婚姻力을 把握하는 方法임.

### 2 目的

- 目的 : 한 時代 또는 出生集團의 전체적인 初婚力 즉, 初婚水準, 速度, 集中度, 期待未婚年數등을 把握하기 위함.
- 有用性 人口(年齡)構造를 標準化 시킴으로서, 國家(또는 地域)간 또는 時代間 婚姻樣相, 速度, 集中度 等の 比較 및 推移把握에 有用함.

### 3. 作成方法

#### 가. 假定

- 지금 갓 태어난 出生兒는 現在에 나타난 婚姻패턴(年齡別 初婚率)과 死亡패턴(年齡別 死亡率)을 將來에도 똑같이 경험함.
- 死亡패턴(年齡別 死亡率)은 婚姻狀態와 關係없이 同一함.

#### 나. 基礎資料

- 人口動態資料 및 人口住宅 總調查 資料
  - o 人口動態 資料 年齡階級別 婚姻人口
  - o 人口住宅總調查資料 : 年齡階級別 婚姻狀態別 人口
- 韓國人の 標準生命表
- 推計人口

다 作成 節次

(1) 初婚率( $M_x$ )

年齡  $x \sim x+5$  歲의 未婚人口中 初婚者의 比率로 다음과 같이 구함

$$M_x = \frac{X \sim X+5 \text{ 歲의 年間 初婚者數}}{X \sim X+5 \text{ 歲의 年央 未婚人口}}$$

여기에서 初婚者數는 人口動態申告로부터, 年央 未婚人口는 人口住宅總調査에서 나타난 婚姻狀態別 人口構造를 年央推計人口에 반영하여 구함.

(2) 初婚確率( $N_x$ )

年齡  $x$  歲에 도달한 未婚人口가  $x+5$  歲에 이르기전에 初婚할 確率로서 다음과 같이 구함.

$$N_x = \frac{1 \text{ 年間 初婚數 (年齡 } X \sim X+5 \text{ 歲)}}{\text{年初人口 (年齡 } X \sim X+5 \text{ 歲)}} = \frac{5 M_x}{1 + 2 \cdot 5 M_x}$$

(3) 死亡確率( $Q_x$ )

年齡  $x$  的 未婚生存 人口1000名中  $x \sim x+5$  歲 사이 死亡者數로서, 이는 生命表上에서 나타난 死亡確率( $Q_x$ )를 주로 사용함.

(4) 未婚者數( $l'_x$ )

出生兒 100,000名中 年齡  $x$  歲初에 未婚狀態로 生存하고 있는 人口數로서 다음과 같이 구함.

$$l'_x = ( l'_x - V'_x - d'_x )$$

(5) 未婚死亡者數( $d'_x$ )

年齡  $x \sim x+5$  歲사이 未婚 死亡者數로서 다음과 같이 구함.

$$d'_x = Q_x \left( 1 - \frac{N_x}{2} \right) l'_x$$

(6) 初婚者數( $V'_x$ )

年齡  $x \sim x+5$  歲사이 初婚者數로서 다음과 같이 구함.

$$V'_x = N_x \cdot \left( 1 - \frac{Q_x}{2} \right) l'_x$$

(7) 餘生初婚者數( $N'_x$ )

$x$ 歲 또는  $x$ 歲以後 死亡前까지 初婚할 生存 未婚人口數로서 다음과 같이 구함

$$N'_x = \sum_{a=x}^{\infty} N'_x \quad (a \text{는 年齡임})$$

(8) 餘生初婚率( $\%N'_x$ )

年齡  $x$ 歲 및  $x$ 歲以後 死亡前까지 궁극적으로 結婚 未婚人口 比率로서, 다음과 같이 구함

$$\%N'_x = \frac{N'_x}{l'_x}$$

(9) 未婚停止人口( $L'_x$ )

未婚人口가  $x$ 와  $x+5$ 歲사이 사는 總年數로서 다음과 같이 구함.

$$L'_x = \frac{5}{2} (l'_x + l'_{x+5})$$

(10) 總未婚年數( $T'_x$ )

年齡 $x$ 에 도달한 未婚人口가 結婚 또는 死亡하기전에 生存하는 總延年數로서 다음과 같이 구함.

$$T'_x = \sum_{a=x}^{\infty} L'_x \quad (a \text{는 年齡임})$$

(11) 期待未婚年數( $E'_x$ )

未婚人口가 향후 結婚 또는 死亡하기전에 生存하고 있는 平均 未婚年數로서 다음과 같이 구함.

$$E'_x = T'_x / l'_x$$

II. 純婚姻表 作成結果

o 1972年 純婚姻表

年齡	初婚率	初婚確率	死亡確率	未婚者數	未婚死亡者數	初婚者數	餘生初婚者數	餘生初婚率	未婚停止人口	總未婚年數	期待未婚
Age	Mx	nx	qx	l'x	d'x	vx	N'x	*N'x	L'x	T'x	E'x
男 子											
0	0.00000	0.00000	0.05494	100000	5494	0	89244	89.24	95220	2506095	25.06
1	0.00000	0.00000	0.01685	94506	1592	0	89244	94.43	374138	2410875	25.51
5	0.00000	0.00000	0.00690	92914	641	0	89244	96.05	462965	2036737	21.92
10	0.00000	0.00000	0.00527	92272	486	0	89244	96.72	460146	1573772	17.06
15	0.00471	0.02327	0.00894	91786	811	2126	89244	97.23	451587	1113626	12.13
20	0.04601	0.20634	0.01265	88849	1008	18217	87118	98.05	396182	662039	7.45
25	0.24331	0.75644	0.01312	69624	568	52321	68901	98.96	215898	265858	3.82
30	0.33900	0.91745	0.01478	16735	134	15241	16581	99.08	45241	49959	2.99
35	0.28823	0.83760	0.01871	1361	15	1129	1340	98.47	3945	4718	3.47
40	0.27661	0.81763	0.03517	217	5	174	211	97.22	638	773	3.56
45	0.27851	0.82094	0.04811	38	1	31	37	96.05	112	136	3.55
50	0.27144	0.80853	0.07159	7	0	5	6	93.44	19	24	3.68
55	0.24259	0.75698	0.10883	1	0	1	1	87.08	4	5	4.11
60	0.19418	0.65362	0.18182	0	0	0	0	71.60	1	1	4.94
65	0.11468	0.44562	0.28650	0	0	0	0	42.96	0	0	6.10
70	0.02678	0.12552	0.38791	0	0	0	0	12.09	0	0	6.61
75	0.01041	0.05087	0.54802	0	0	0	0	3.69	0	0	5.17
80	0.00000	0.00000	1.00000	0	0	0	0	0.00	0	0	3.72
女 子											
0	0.00000	0.00000	0.04308	100000	4308	0	91937	91.94	96424	2227644	22.28
1	0.00000	0.00000	0.01489	95692	1425	0	91937	96.08	379149	2131220	22.27
5	0.00000	0.00000	0.00572	94267	539	0	91937	97.53	469988	1752072	18.59
10	0.00000	0.00000	0.00441	93728	413	0	91937	98.09	467606	1282085	13.68
15	0.03233	0.14957	0.00708	93315	611	13908	91937	98.52	430275	814480	8.73
20	0.16393	0.58140	0.00936	78795	523	45597	78029	99.03	278677	384205	4.88
25	0.31637	0.88326	0.01097	32675	200	28703	32433	99.26	91120	105528	3.23
30	0.26380	0.79482	0.01310	3773	30	2979	3730	98.87	11341	14408	3.82
35	0.25744	0.78316	0.01590	764	7	594	751	98.32	2317	3067	4.01
40	0.24171	0.75334	0.02035	163	2	122	158	96.66	506	749	4.60
45	0.20614	0.68017	0.02788	39	1	26	36	91.43	129	243	6.17
50	0.10222	0.40707	0.03998	12	0	5	10	78.35	48	114	9.31
55	0.08805	0.36084	0.05801	7	0	2	5	67.57	28	66	9.47
60	0.11853	0.45716	0.08918	4	0	2	2	54.03	16	38	9.07
65	0.03693	0.16906	0.14049	2	0	0	0	20.94	9	22	10.79
70	0.01053	0.05132	0.21882	1	0	0	0	7.31	6	14	9.11
75	0.00912	0.04458	0.34134	1	0	0	0	3.70	4	7	6.42
80	0.00000	0.00000	1.00000	1	1	0	0	0.00	0	0	3.73

o 1981年 純婚姻表

年齡	初婚率	初婚確率	死亡確率	未婚者數	未婚死亡者數	初婚者數	餘生初婚者數	餘生初婚率	未婚停止人口	總未婚年數	期待未婚
Age	Nx	nx	qx	l'x	d'x	vx	N'x	xN'x	L'x	T'x	E'x

男 子

0	0.00000	0.00000	0.03140	100000	3140	0	92744	92.74	97268	2590147	25.90
1	0.00000	0.00000	0.00911	96860	882	0	92744	95.75	385287	2492879	25.74
5	0.00000	0.00000	0.00547	95978	525	0	92744	98.63	478575	2107593	21.98
10	0.00000	0.00000	0.00435	95453	415	0	92744	97.16	476225	1629018	17.07
15	0.00338	0.01674	0.00752	95037	709	1584	92744	97.59	469453	1152794	12.13
20	0.04458	0.20054	0.01080	92744	901	18499	91160	98.29	415220	683341	7.37
25	0.25935	0.78668	0.01211	73344	539	57349	72661	99.07	222000	268121	3.66
30	0.35530	0.94082	0.01339	15456	110	14444	15312	99.07	40896	46122	2.98
35	0.19139	0.64724	0.01809	902	10	579	868	96.20	3039	5226	5.79
40	0.15904	0.56899	0.03122	313	7	175	289	92.17	1110	2187	6.98
45	0.07667	0.32168	0.04349	131	5	41	113	86.61	539	1077	8.23
50	0.15848	0.56753	0.06620	85	4	47	72	84.98	298	538	6.34
55	0.09952	0.39847	0.10310	34	3	13	26	74.55	132	240	7.00
60	0.13520	0.50523	0.17319	18	2	9	13	68.13	65	108	5.83
65	0.11300	0.44055	0.27474	8	2	3	4	53.73	27	43	5.65
70	0.09886	0.39635	0.37398	3	1	1	1	38.76	11	16	5.27
75	0.04592	0.20594	0.52941	1	1	0	0	17.29	4	6	4.83
80	0.02439	0.11496	1.00000	0	0	0	0	5.75	2	2	3.73

女 子

0	0.00000	0.00000	0.04103	100000	4103	0	92790	92.79	96594	2280574	22.81
1	0.00000	0.00000	0.01710	95897	1640	0	92790	96.76	379423	2183980	22.77
5	0.00000	0.00000	0.00354	94257	334	0	92790	98.44	470451	1804558	19.15
10	0.00000	0.00000	0.00259	93923	243	0	92790	98.79	469009	1334107	14.20
15	0.01958	0.09334	0.00429	93680	383	8725	92790	99.05	445630	865098	9.23
20	0.15905	0.56899	0.00571	84572	348	47983	84065	99.40	302036	419469	4.96
25	0.33884	0.91721	0.00585	36243	115	33145	36082	99.56	98064	117433	3.24
30	0.18768	0.59075	0.00595	2983	13	1757	2937	98.46	10491	19369	6.49
35	0.13903	0.51586	0.00937	1213	8	623	1180	97.23	4489	8879	7.32
40	0.12705	0.48211	0.01611	582	7	278	557	95.68	2196	4390	7.54
45	0.11546	0.44799	0.02129	297	5	131	279	93.93	1142	2194	7.40
50	0.14980	0.54494	0.03081	180	4	86	147	91.82	577	1052	6.57
55	0.13564	0.50647	0.04614	71	2	35	61	86.54	260	475	6.72
60	0.14664	0.53651	0.07553	33	2	17	20	78.73	119	215	6.47
65	0.12422	0.47391	0.12387	14	1	6	9	63.25	52	96	6.76
70	0.08362	0.34582	0.22454	7	1	2	3	40.78	25	44	6.74
75	0.04547	0.20414	0.32325	3	1	1	1	19.86	13	20	5.85
80	0.02110	0.10201	1.00000	0	0	0	0	5.10	7	7	3.73

o 1985年 純婚姻表

年齡	初婚率	初婚確率	死亡率	未婚者數	未婚死亡者數	初婚者數	餘生初婚者數	餘生初婚率	未婚停止人口	總未婚年數	期待未婚
Age	Mx	nx	qx	l'x	d'x	vx	N'x	%N'x	L'x	T'x	E'x
男 子											
0	0.00000	0.00000	0.01466	100000	1466	0	94260	94.26	98725	2757975	27.58
1	0.00000	0.00000	0.00653	98534	643	0	94260	95.66	392566	2659251	26.99
5	0.00000	0.00000	0.00464	97891	454	0	94260	96.29	488317	2266666	23.16
10	0.00000	0.00000	0.00334	97436	325	0	94260	96.74	486368	1778369	18.25
15	0.00218	0.01082	0.00643	97111	621	1047	94260	97.06	481384	1292002	13.30
20	0.03884	0.17702	0.00916	95443	797	16818	93213	97.66	433176	810618	8.49
25	0.20927	0.68696	0.01104	77828	564	53169	76395	98.16	254805	377442	4.85
30	0.26091	0.78955	0.01405	24094	205	18890	23226	96.40	72734	122637	5.09
35	0.12621	0.47971	0.02000	4999	76	2374	4336	86.73	18871	49902	9.98
40	0.08822	0.36139	0.03420	2549	71	905	1962	76.96	10303	31031	12.17
45	0.05309	0.23434	0.04816	1572	67	380	1056	67.18	6795	20727	13.18
50	0.05241	0.23189	0.06754	1146	68	257	697	60.80	4917	13932	12.16
55	0.03753	0.17156	0.09872	821	74	134	440	53.62	3585	9015	10.98
60	0.05683	0.24680	0.14823	613	80	141	306	49.97	2513	5431	8.86
65	0.06879	0.29348	0.21973	392	74	102	165	42.10	1521	2918	7.44
70	0.05302	0.23408	0.32035	216	61	43	63	28.98	822	1397	6.46
75	0.05240	0.23163	0.45435	113	45	20	20	17.90	399	575	5.11
80	0.00000	0.00000	1.00000	47	47	0	0	0.00	176	176	3.73
女 子											
0	0.00000	0.00000	0.01435	100000	1435	0	96282	96.28	98809	2458212	24.58
1	0.00000	0.00000	0.00590	98565	582	0	96282	97.68	392783	2359404	23.94
5	0.00000	0.00000	0.00389	97983	381	0	96282	98.26	488964	1966622	20.07
10	0.00000	0.00000	0.00255	97602	249	0	96282	98.65	487389	1477658	15.14
15	0.01488	0.07174	0.00424	97353	398	6970	96282	98.90	468347	990289	10.17
20	0.14145	0.52250	0.00499	89986	332	46900	89313	99.25	331849	521922	5.80
25	0.27882	0.82148	0.00539	42754	136	35027	42413	99.20	125863	190073	4.45
30	0.14381	0.52889	0.00673	7591	38	4001	7386	97.29	27858	64210	8.46
35	0.08932	0.36508	0.00871	3552	25	1291	3384	95.27	14470	36352	10.23
40	0.09359	0.37923	0.01395	2236	25	842	2093	93.62	9011	21882	9.79
45	0.08194	0.34003	0.01946	1368	22	461	1251	91.43	5635	12672	9.41
50	0.11078	0.43376	0.02834	886	20	379	790	89.25	3432	7237	8.17
55	0.10065	0.40208	0.04142	487	16	192	412	84.49	1916	3804	7.81
60	0.13947	0.51705	0.06286	279	13	140	220	78.71	1014	1888	6.76
65	0.14721	0.53803	0.10543	126	10	64	80	63.27	447	874	6.92
70	0.04706	0.21054	0.17168	52	8	10	16	29.77	216	427	8.18
75	0.04105	0.18613	0.27132	34	8	5	5	16.09	136	212	6.19
80	0.00000	0.00000	1.00000	20	20	0	0	0.00	75	75	3.73

o 1989年 純婚姻表

年齡	初婚率	初婚確率	死亡確率	未婚者數	未婚死亡者數	初婚者數	餘生初婚者數	餘生初婚率	未婚停止人口	總未婚年數	期待未婚
Age	Mx	nx	qx	l'x	d'x	vx	N'x	%N'x	L'x	T'x	E'x

男 子

0	0.00000	0.00000	0.01096	100000	1096	0	94445	94.45	99046	2860706	28.61
1	0.00000	0.00000	0.00463	98904	458	0	94445	95.49	394498	2761660	27.92
5	0.00000	0.00000	0.00354	98446	348	0	94445	95.94	491359	2367162	24.05
10	0.00000	0.00000	0.00270	98098	265	0	94445	96.28	489826	1875803	19.12
15	0.00100	0.00498	0.00454	97833	443	486	94445	96.54	486840	1385978	14.17
20	0.02878	0.12550	0.00737	96903	669	12116	93959	96.96	452553	899139	9.28
25	0.20989	0.88829	0.01015	84118	560	57604	81843	97.30	275179	448586	5.31
30	0.23623	0.74259	0.01267	25954	207	19151	24239	93.39	81375	171407	6.60
35	0.09438	0.38182	0.01513	8596	81	2499	5088	77.14	26530	90031	13.65
40	0.06018	0.26154	0.02761	4016	96	1036	2589	64.46	17249	63501	15.81
45	0.04104	0.18612	0.04229	2884	111	525	1553	53.85	12829	46253	16.04
50	0.03274	0.15133	0.06108	2248	127	330	1027	45.71	10097	33424	14.87
55	0.03557	0.16332	0.08443	1791	139	280	698	38.95	7908	23327	13.02
60	0.04412	0.19870	0.12756	1372	158	255	417	30.43	5828	15419	11.24
65	0.01645	0.07900	0.20338	959	187	68	162	16.92	4157	9591	10.00
70	0.01896	0.09053	0.29085	704	195	54	94	13.38	2894	5434	7.72
75	0.02381	0.11234	0.44088	454	189	40	40	8.76	1698	2540	5.60
80	0.00000	0.00000	1.00000	225	225	0	0	0.00	842	842	3.74

女 子

0	0.00000	0.00000	0.01049	100000	1049	0	97003	97.00	99129	2498984	24.99
1	0.00000	0.00000	0.00399	98951	395	0	97003	98.03	394801	2399855	24.25
5	0.00000	0.00000	0.00270	98556	266	0	97003	98.42	492116	2005054	20.34
10	0.00000	0.00000	0.00215	98290	211	0	97003	98.69	490922	1512939	15.39
15	0.00718	0.03527	0.00290	98079	279	3454	97003	98.90	481060	1022018	10.42
20	0.12539	0.47731	0.00369	94345	265	44949	93550	99.16	358693	540957	5.73
25	0.33196	0.90704	0.00459	49132	123	44462	48601	98.92	134195	182285	3.71
30	0.14823	0.54077	0.00509	4546	17	2452	4139	91.03	16559	48070	10.57
35	0.07265	0.30742	0.00762	2077	13	636	1687	81.19	8762	31511	15.17
40	0.06105	0.26482	0.01114	1428	14	376	1050	73.57	6164	22748	15.93
45	0.05414	0.23844	0.01686	1038	15	245	674	64.98	4538	16584	15.98
50	0.05372	0.23679	0.02391	777	16	182	429	55.21	3390	12047	15.50
55	0.06362	0.27446	0.03642	579	18	156	247	42.70	2459	8656	14.95
60	0.02684	0.12575	0.05514	405	21	49	91	22.54	1848	6197	15.31
65	0.01580	0.07800	0.09501	334	31	24	42	12.48	1535	4350	13.01
70	0.00761	0.03732	0.16379	280	45	10	18	6.26	1262	2815	10.07
75	0.00829	0.04062	0.26404	225	58	8	8	3.53	960	1553	6.90
80	0.00000	0.00000	1.00000	159	159	0	0	0.00	597	597	3.73

## 2. 結婚生命表 作成結果

### I. 作成概要

#### 1. 意義

- 人間은 結婚에 의하여 有配偶 集團에 속하고 本人의 死亡이나 配偶者의 死亡 또는 離婚에 의하여 有配偶 集團에서 離脫함
- 結婚生命表는 이러한 結婚現象을 計量的 模型으로서 標準化 시킨 것임

#### 2 目的 및 有用性

- 個人의 年齡을 時間축으로 하여 結婚에 의하여 有配偶集團에 加入하는 率, 또 本人의 死亡과 配偶者의 死亡 또는 離婚에 의하여 有配偶集團에서 離脫하는 率 및 平均 有配偶 餘命등을 구하여, 有配偶 變動力을 파악하기 위함
- 人口(年齡)構造를 標準化시키므로서, 國家(또는 地域)間 또는 時代間 有配偶 變動力 比較 및 推移把握에 유용함

#### 3 作成方法

##### 가 假定

- 年齡別 死亡率(死亡力)은 婚姻狀態와 상관없이 동일함

##### 나 基礎資料

- 人口住宅 總調查(婚姻狀態別 人口)
- 韓國人의 標準生命表

##### 다. 作成 節次

#### (1) 有配偶率( $5M_x$ )

年齡階級別 人口中 結婚한 人口數의 比率로서 다음과 같이 구함

$$5M_x = \frac{P_{mx}}{P_x} \quad (P_{mx}: \text{年齡階級別 結婚한 人口數}, P_x: \text{年齡階級別 人口數})$$

#### (2) 年齡階級別 停止人口( $5L_x$ )

生命表上  $x \sim x+5$  歲 사이 年齡階級에서 生存하고 있는 人口數로서, 韓國人의 生命表서 나타난  $5L_x$ 를 이용함.

(3) 有配偶 停止人口( $5L_{mx}$ )

年齡  $x \sim x+5$  歲 사이 年齡階級에서 生存하고 있는 有配偶 人口數로서 다음과 같이 구함.

$$5L_{mx} = 5M_x \cdot 5L_x$$

(4) 年齡別 生存者( $l_x$ )

生命表上 年齡別 生存者數로서 韓國人의 標準生命表에서 나타난  $l_x$ 를 이용함

(5) 殘存 有配偶力 人口( $l_{mx}$ )

10萬名의 假定的 同一 出生集團에서 시작하여, 該當年齡 階級에 도달 할때 까지 有配偶力(未婚)人口로 殘存하고 있는 數로서, 有配偶率이 最高 水準에 이르기전까지의 年齡에서는 將來 有配偶率이 最高 水準에 도달할 것으로 가정하여 最高 水準의 有配偶率을, 그 以後에는 該當年齡階級の 有配偶率을 곱하여 다음과 같이 구함

$$l_{mx} = l_x \cdot 5M_x$$

(6) 停止人口의 死亡確率( $nQ_x$ )

각 年齡階級  $x \sim x+5$  歲 사이에 死亡할 確率로서 다음과 같이 구함

$$nQ_x = (5L_x - 5L_{x+n}) / 5L_x$$

(7) 有配偶 集團으로의 加入率( $5A_x$ )

특정 年齡階級の 有配偶 停止人口에 加入하는 率로서 다음과 같이 구함.

$$5A_x = (5L_{m_{x+5}} - 5L_{mx} + 5L_{mx} \cdot 5Q_x) / 5L_x$$

(8) 有配偶 集團에서의 離脫率( $5Q'_x$ )

- 全體 離脫率( $5Q_{sx}$ )

1) 有配偶率( $nM_x$ )이 最高水準에 도달하기전에는 死 離別일 경우에 다시 婚姻하므로 離脫은 오직 本人의 死亡에 의해 이루어 짐. 즉,

$$nQ_{sx} = nQ_x \quad (\text{離脫數 } nS_x = nL_{mx} \cdot nQ_x)$$

ii) 有配偶率이 最高水準 以後에 離脫率은 死 離別과 本人의 死亡에 의하여 이루어짐.

$$5Q_{sx} = (5L_{mx} - 5L_{mx+n}) / 5L_{mx}$$

$$\text{여기에서 本人의 死亡에 의한 離脫率 } 5Q_{ds} = \frac{5Q_x (2 - 5Q_{sx})}{(2 - nQ_x)}$$

$$\text{그리고 死 · 離別에 의한 離脫率 } nQ_{rx} = 5Q_{sx} - 5Q_{dx}$$

(9) 平均有配偶 餘命(  $E_{mx}$  )

특정 年齡  $x$ 에서 將來에 有配偶로 살 期待 年數로서 다음과 같이 구함.

$$E_{mx} = \sum_x^{\infty} 5L_{mx} / l_{mx}$$

※  $l_{mx} (= \sum_x^{\infty} 5L_{mx})$  : 어느 年齡階級에 있어서 死亡, 死 離別에 의해 有配偶 集團으로 부터 離脫할 때까지 有配偶力으로 生殘하는 總 延年數

※  $l_{mx}$ 은 有配偶率이 最高水準에 도달하기전 年齡에서 最高有配偶率  $l_x$ 로, 그리고 以後에는  $5M_x \cdot l_x$ 로 구해짐.

## II. 結婚生命表 作成結果

### o 1970年 結婚 生命表

年齡	停止人口	有配偶率	有配偶停止人口	有配偶加入率	有配偶總離脫率	有配偶死亡離脫率	有配偶離.死別離脫率	期待黎明	有配偶黎明	期待黎明-有配偶黎明
Age	nLx	nMx	nLmx	nAx	nQsx	nQdx	nQrx	Ex	Emx	Ex-Emx
男 子										
15	456879	0.00295	1348	0.06862	0.01079	0.01079	0.00000	49.95	48.03	1.92
20	451951	0.07232	32685	0.48130	0.01288	0.01288	0.00000	45.38	43.44	1.93
25	446128	0.55990	249787	0.35025	0.01394	0.01394	0.00000	40.93	38.97	1.96
30	439911	0.92524	407023	0.04734	0.01672	0.01672	0.00000	36.44	34.45	1.98
35	432555	0.97339	421045	0.00151	0.02686	0.02686	0.00000	31.95	29.93	2.01
40	420936	0.97494	410387	0.00000	0.04666	0.04142	0.00524	27.51	25.45	2.05
45	403457	0.96972	391240	0.00000	0.07138	0.05920	0.01218	23.42	21.41	2.01
50	379427	0.95753	363313	0.00000	0.11123	0.08850	0.02273	19.48	17.58	1.89
55	345461	0.93470	322902	0.00000	0.18284	0.14017	0.04267	15.79	14.08	1.70
60	295982	0.89148	263862	0.00000	0.28308	0.22193	0.06115	12.41	11.00	1.40
65	228224	0.82887	189168	0.00000	0.40379	0.31396	0.08983	9.61	8.49	1.12
70	153201	0.73618	112784	0.00000	0.53904	0.42258	0.11646	7.46	6.64	0.83
75	84459	0.61555	51989	0.00000	0.59617	0.41265	0.18353	5.61	5.10	0.51
80	46086	0.45555	20994	0.00000	1.00000	1.00000	0.00000	4.38	4.38	0.00
女 子										
15	464921	0.02838	13194	0.39131	0.00822	0.00822	0.00000	56.33	41.69	14.64
20	461101	0.42293	195013	0.45623	0.01016	0.01016	0.00000	51.72	36.97	14.75
25	456415	0.88384	403398	0.06106	0.01203	0.01203	0.00000	47.18	32.29	14.89
30	450925	0.94564	426413	0.00000	0.04171	0.01429	0.02742	42.68	27.62	15.05
35	444391	0.91952	408626	0.00000	0.09439	0.01741	0.07698	38.21	23.61	14.60
40	436344	0.84808	370055	0.00000	0.11571	0.02296	0.09275	33.79	20.55	13.24
45	425838	0.76845	327235	0.00000	0.16214	0.03164	0.13050	29.44	17.57	11.87
50	411426	0.66641	274178	0.00000	0.20442	0.04492	0.15950	25.21	14.99	10.22
55	391344	0.55739	218131	0.00000	0.28694	0.06502	0.22193	21.15	12.57	8.58
60	362725	0.42881	155540	0.00000	0.35360	0.09918	0.25442	17.30	10.65	6.66
65	321506	0.31272	100541	0.00000	0.45392	0.14983	0.30409	13.75	8.84	4.92
70	264697	0.20742	54903	0.00000	0.55551	0.22791	0.32760	10.59	7.35	3.25
75	192553	0.12674	24404	0.00000	0.53786	0.08075	0.45710	7.86	6.06	1.80
80	172397	0.06542	11278	0.00000	1.00000	1.00000	0.00000	5.64	5.64	0.00

o 1975年 結婚 生命表

年齡	停止人口	有配偶率	有配偶停止人口	有配偶加入率	有配偶總離脫率	有配偶死亡離脫率	有配偶離.死別離脫率	期待	有配偶	期待
Age	nLx	nMx	nLmx	nAx	nQsx	nQdx	nQrx	Ex	Emx	Ex-Emx
男 子										
15	466563	0.00295	1376	0.06669	0.00982	0.00982	0.00000	51.15	49.32	1.82
20	461980	0.07030	32477	0.45016	0.01204	0.01204	0.00000	46.54	44.70	1.84
25	456418	0.52595	240053	0.39015	0.01323	0.01323	0.00000	42.06	40.20	1.86
30	450378	0.92133	414947	0.05101	0.01555	0.01555	0.00000	37.56	35.68	1.88
35	443375	0.97315	431470	0.00358	0.02495	0.02495	0.00000	33.06	31.15	1.91
40	432315	0.97682	422294	0.00000	0.04437	0.03891	0.00546	28.59	26.65	1.94
45	415448	0.97138	403558	0.00000	0.06605	0.05636	0.00968	24.48	22.59	1.88
50	391918	0.96169	376904	0.00000	0.10268	0.08554	0.01714	20.52	18.73	1.79
55	358103	0.94443	338203	0.00000	0.13581	0.10202	0.03379	16.84	15.20	1.64
60	320943	0.91067	292273	0.00000	0.23395	0.18104	0.05290	13.53	12.13	1.40
65	281260	0.85699	223897	0.00000	0.38973	0.30844	0.08129	9.79	8.74	1.05
70	177283	0.77082	136638	0.00000	0.51463	0.41890	0.09574	7.61	6.85	0.77
75	99275	0.66804	66320	0.00000	0.57730	0.38861	0.18869	5.75	5.20	0.54
80	56677	0.49462	28034	0.00000	1.00000	1.00000	0.00000	4.51	4.51	-0.00
女 子										
15	466378	0.02594	12098	0.34411	0.00633	0.00633	0.00000	57.66	43.30	14.36
20	463428	0.37224	172506	0.49191	0.00758	0.00758	0.00000	52.96	38.52	14.44
25	459913	0.86791	399163	0.07578	0.00842	0.00842	0.00000	48.33	33.78	14.55
30	456040	0.94433	430652	0.00000	0.02314	0.01040	0.01275	43.70	29.03	14.66
35	451268	0.93223	420686	0.00000	0.06774	0.01454	0.05320	39.07	24.59	14.48
40	444525	0.88226	392187	0.00000	0.12228	0.01983	0.10245	34.51	20.98	13.53
45	435233	0.79091	344230	0.00000	0.15588	0.02734	0.12855	30.10	18.20	11.89
50	422518	0.68771	290570	0.00000	0.19764	0.03927	0.15837	25.77	15.63	10.15
55	404498	0.57637	233140	0.00000	0.25464	0.05928	0.19538	21.61	13.24	8.37
60	377923	0.45981	173773	0.00000	0.33750	0.09201	0.24549	17.63	11.05	6.58
65	338285	0.34032	115125	0.00000	0.43812	0.14813	0.28999	13.97	9.20	4.77
70	279678	0.23129	64687	0.00000	0.52171	0.23038	0.29133	10.70	7.66	3.03
75	204260	0.15147	30939	0.00000	0.48647	0.05833	0.42814	8.04	6.32	1.72
80	189099	0.08402	15888	0.00000	1.00000	1.00000	0.00000	5.77	5.77	0.00

o 1980年 結婚 生命表

年齡	停止人口	有配偶率	有配偶停止人口	有配偶加入率	有配偶總離脫率	有配偶死亡離脫率	有配偶離.死別離脫率	期待黎明	有配偶黎明	期待黎明-有配偶黎明
Age	nLx	nMx	nLmx	nAx	nQsx	nQdx	nQrx	Ex	Emx	Ex-Emx
男 子										
15	473400	0.00196	928	0.06577	0.00916	0.00916	0.00000	50.85	49.33	1.52
20	469066	0.06834	32056	0.47028	0.01145	0.01145	0.00000	46.21	44.68	1.53
25	463695	0.54407	252283	0.36819	0.01275	0.01275	0.00000	41.69	40.14	1.55
30	457784	0.91803	420259	0.04866	0.01473	0.01473	0.00000	37.17	35.60	1.57
35	451041	0.96742	436346	0.00544	0.02359	0.02359	0.00000	32.64	31.05	1.59
40	440399	0.97299	428504	0.00000	0.04077	0.03719	0.00358	28.13	26.52	1.62
45	423990	0.96944	411033	0.00000	0.06463	0.05431	0.01032	23.96	22.37	1.59
50	400843	0.95915	384469	0.00000	0.09884	0.08337	0.01547	19.94	18.47	1.46
55	367185	0.94363	346468	0.00000	0.16060	0.13446	0.02614	16.17	14.85	1.33
60	317143	0.91702	290826	0.00000	0.25670	0.21453	0.04216	12.74	11.59	1.15
65	247640	0.87293	216172	0.00000	0.37377	0.30568	0.06809	9.89	8.93	0.96
70	169273	0.79973	135373	0.00000	0.50705	0.41354	0.09352	7.69	6.94	0.75
75	95839	0.69629	66732	0.00000	0.56439	0.38746	0.17692	5.79	5.28	0.51
80	55101	0.52756	29069	0.00000	1.00000	1.00000	0.00000	4.49	4.49	0.00
女 子										
15	467396	0.01730	8086	0.31863	0.00500	0.00500	0.00000	58.62	44.35	14.28
20	465059	0.33753	156971	0.50887	0.00578	0.00578	0.00000	53.86	39.53	14.34
25	462371	0.84936	392719	0.09313	0.00590	0.00590	0.00000	49.16	34.74	14.42
30	459643	0.94304	433462	0.00000	0.01691	0.00762	0.00930	44.43	29.93	14.50
35	456125	0.93424	426130	0.00000	0.04831	0.01250	0.03581	39.68	25.33	14.35
40	450321	0.90057	405546	0.00000	0.09441	0.01797	0.07645	35.04	21.31	13.72
45	441909	0.83107	367257	0.00000	0.16558	0.02416	0.14142	30.57	18.01	12.56
50	430420	0.71197	306446	0.00000	0.20050	0.03519	0.16532	26.18	15.58	10.60
55	413911	0.59192	245002	0.00000	0.26175	0.05421	0.20754	21.93	13.23	8.70
60	388874	0.46512	180873	0.00000	0.32230	0.08714	0.23516	17.87	11.13	6.74
65	350472	0.34975	122578	0.00000	0.44630	0.14515	0.30115	14.13	9.09	5.03
70	290583	0.23357	67871	0.00000	0.53391	0.22651	0.30740	10.77	7.52	3.25
75	212808	0.14865	31634	0.00000	0.50847	0.03979	0.46869	8.17	6.25	1.91
80	201750	0.07707	15549	0.00000	1.00000	1.00000	0.00000	5.87	5.87	0.00

o 1985年 結婚 生命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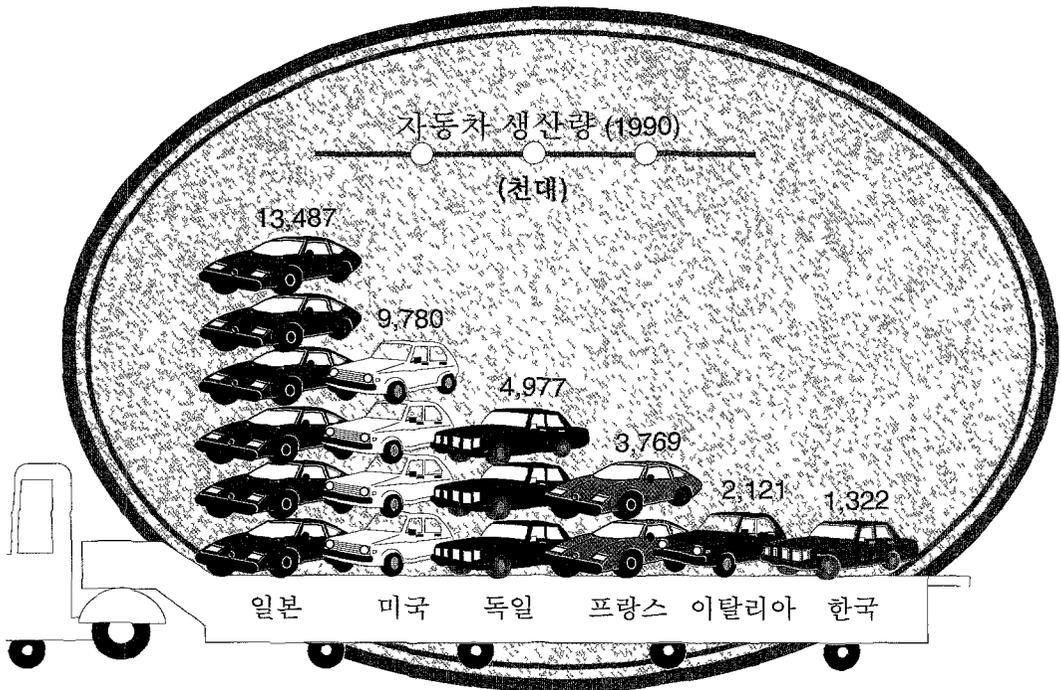
年齡	停止人口	有配偶率	有配偶停止人口	有配偶加入率	有配偶總離脫率	有配偶死亡離脫率	有配偶離脫率	期待黎明	有配偶黎明	期待黎明-有配偶黎明
Age	nLx	nMx	nLmx	nAx	nQsx	nQdx	nQrx	Ex	Emx	Ex-Emx
男 子										
15	483991	0.00127	615	0.05334	0.00779	0.00779	0.00000	51.76	50.35	1.40
20	480221	0.05503	26427	0.43004	0.01009	0.01009	0.00000	47.07	45.66	1.41
25	475374	0.48945	232672	0.40201	0.01254	0.01254	0.00000	42.49	41.06	1.43
30	469414	0.89658	420858	0.05862	0.01700	0.01700	0.00000	37.93	36.49	1.44
35	461433	0.95721	441688	0.01003	0.02703	0.02703	0.00000	33.44	31.97	1.46
40	448960	0.96752	434378	0.00163	0.04106	0.04106	0.00000	29.07	27.58	1.49
45	430525	0.96922	417273	0.00000	0.06181	0.05749	0.00432	25.01	23.46	1.55
50	405722	0.96490	391481	0.00000	0.09433	0.08208	0.01225	21.15	19.61	1.54
55	372215	0.95255	354553	0.00000	0.14429	0.12075	0.02354	17.50	16.06	1.44
60	326733	0.92857	303394	0.00000	0.21309	0.17794	0.03515	14.14	12.87	1.28
65	267555	0.89232	238745	0.00000	0.32016	0.25527	0.06488	11.17	10.06	1.11
70	196965	0.82405	162309	0.00000	0.43800	0.35995	0.07805	8.61	7.79	0.82
75	123188	0.74047	91217	0.00000	0.47942	0.29014	0.18927	6.49	5.88	0.61
80	83710	0.58727	47486	0.00000	1.00000	1.00000	0.00000	4.81	4.81	-0.00
女 子										
15	485738	0.00849	4124	0.25817	0.00461	0.00461	0.00000	60.24	46.28	13.96
20	483497	0.27790	134364	0.52826	0.00519	0.00519	0.00000	55.49	41.47	14.01
25	480989	0.80891	389077	0.12316	0.00605	0.00605	0.00000	50.75	36.67	14.08
30	478077	0.93282	445960	0.00019	0.00772	0.00772	0.00000	46.01	31.85	14.16
35	474388	0.93301	442609	0.00000	0.04185	0.01115	0.03070	41.31	27.05	14.26
40	469018	0.90420	424086	0.00000	0.06596	0.01627	0.04969	36.65	22.98	13.67
45	461192	0.85889	396113	0.00000	0.12574	0.02263	0.10311	32.13	19.23	12.90
50	450189	0.76925	346308	0.00000	0.19673	0.03192	0.16480	27.72	16.26	11.46
55	434528	0.64019	278180	0.00000	0.25515	0.04650	0.20865	23.45	14.01	9.45
60	411969	0.50296	207204	0.00000	0.29096	0.07442	0.21654	19.36	12.10	7.26
65	377588	0.38909	146916	0.00000	0.39650	0.11765	0.27885	15.49	10.01	5.48
70	325967	0.27200	88663	0.00000	0.46764	0.18632	0.28132	12.02	8.43	3.59
75	255291	0.18489	47201	0.00000	0.41250	0.06229	0.47479	9.00	6.86	2.14
80	276143	0.10042	27730	0.00000	1.00000	1.00000	0.00000	6.42	6.42	0.00

o 1990年 結婚 生命表

年齡	停止人口	有配偶率	有配偶停止人口	有配偶加入率	有配偶總離脫率	有配偶死亡離脫率	有配偶死別離脫率	期待	有配偶	期待黎明-有配偶黎明
Age	nLx	nMx	nLmx	nAx	nQsx	nQdx	nQrx	Ex	Emx	Ex-Emx
男 子										
15	488713	0.00085	415	0.03332	0.00561	0.00561	0.00000	53.71	52.23	1.48
20	485969	0.03436	16698	0.38707	0.00829	0.00829	0.00000	48.93	47.45	1.48
25	481940	0.42467	204665	0.42352	0.01084	0.01084	0.00000	44.25	42.76	1.49
30	476717	0.85283	406559	0.08780	0.01320	0.01320	0.00000	39.66	38.15	1.51
35	470423	0.94180	443044	0.01559	0.02037	0.02037	0.00000	35.11	33.59	1.53
40	460839	0.95771	441350	0.00795	0.03352	0.03352	0.00000	30.59	29.04	1.55
45	445390	0.96594	430220	0.00000	0.05471	0.04957	0.00515	26.35	24.76	1.59
50	423257	0.96084	406682	0.00000	0.07928	0.06975	0.00954	22.37	20.82	1.55
55	393595	0.95133	374439	0.00000	0.12452	0.10081	0.02371	18.61	17.14	1.47
60	353442	0.92749	327814	0.00000	0.18406	0.15684	0.02722	15.05	13.79	1.26
65	297244	0.89988	267478	0.00000	0.28547	0.23117	0.05430	11.82	10.70	1.12
70	226613	0.84338	191121	0.00000	0.42068	0.33116	0.08952	9.14	8.26	0.88
75	148051	0.74785	110720	0.00000	0.39878	0.24546	0.15332	6.80	6.28	0.52
80	108693	0.61243	66567	0.00000	1.00000	1.00000	0.00000	5.07	5.07	0.00
女 子										
15	490299	0.00535	2623	0.18654	0.00306	0.00306	0.00000	61.70	47.43	14.27
20	488798	0.19246	94074	0.58094	0.00387	0.00387	0.00000	56.86	42.55	14.31
25	486908	0.77585	377670	0.14860	0.00452	0.00452	0.00000	52.05	37.69	14.36
30	484706	0.92493	448319	0.00000	0.00808	0.00595	0.00213	47.26	32.84	14.42
35	481819	0.92295	444695	0.00000	0.02889	0.00877	0.02013	42.48	28.05	14.43
40	477552	0.90429	431845	0.00000	0.05833	0.01302	0.04531	37.76	23.71	14.05
45	471192	0.86304	406658	0.00000	0.09033	0.01878	0.07155	33.14	19.84	13.30
50	462013	0.80068	369925	0.00000	0.16694	0.02689	0.14006	28.64	16.31	12.34
55	448655	0.68687	308168	0.00000	0.27653	0.03876	0.23778	24.25	13.56	10.70
60	428917	0.51980	222951	0.00000	0.30228	0.06361	0.23867	20.04	11.84	8.21
65	397936	0.39091	155557	0.00000	0.41523	0.10517	0.31006	16.03	9.79	6.24
70	348405	0.26109	90965	0.00000	0.48490	0.17328	0.31163	12.41	8.28	4.13
75	276892	0.16922	46856	0.00000	0.44895	0.09854	0.54549	9.29	6.76	2.53
80	314411	0.08242	25914	0.00000	1.00000	1.00000	0.00000	6.67	6.67	0.00

**여 백**

# 세계와 한국



「우리나라 자동차 생산량은 '90년 현재 1,321,630대로 일본, 미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캐나다, (구)소련, 영국에 이어 세계 10위이며, 자동차 보유수('89년 현재 2,658,598대)로는 세계 25위 수준이다.」

- 자료중에서 -

統計로 본

# 世界와 韓國

1992. 1

統計企劃局 企劃課

## 1. 人口 및 面積

- 1990年 現在 우리나라 人口(推計人口)는 42,869천명으로 全世界人口(5,292,195천명)의 0.8%를 차지하고 人口規模로는 全世界에서 23번째이며, 國土面積은 99천km<sup>2</sup>로 全世界 總面積(135,791,000km<sup>2</sup>)의 0.07%에 該當

○ 人口密度는 일부 都市國家 및 小規模 섬 國家를 除外하면 방글라데시(803名/km<sup>2</sup>), 台灣(553/km<sup>2</sup>)에 이어 3위로서 1km<sup>2</sup>當 432名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年平均 人口增加率('85~'90)은 1.0%로 日本(0.4%), 獨逸(西獨 0.1%), 프랑스(0.4%), 英國(0.2%)등 先進國에 比하여는 높은 편이나, 아시아에서는 日本 다음으로 낮은 水準임

2020年의 우리나라 人口는 50,578천명으로 推計되어 全世界 人口(8,091,628천명)의 0.6% 水準으로 낮아질 것으로 展望되며, 年齡別 人口構造로 보아 65세이상 人口는 '90年 現在 4.7%에서 13.1%로 늘어나 老齡人口 比率이 크게 높아질 展望임.

'90年 現在 우리나라의 都市化率(總人口에 대한 都市人口의 比率)은 74.4%로 世界 平均인 45.2%보다 높으며, 先進國 平均인 72.6%와 비슷한 水準임.

'90年基準 우리나라의 粗出生率은 人口 천명당 15.6명으로 美國의 '88年水準(15.9명)과 비슷하나, 日本(10.1명·'89年), 英國(13.6명·'89年), 프랑스(13.8명·'88年)등 先進國에 比하여는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음.

'90年基準 우리나라의 영아死亡率(1년동안 태어난 출생아 1,000명중, 1년미만에 死亡한 영아수)은 出生兒 1,000名當 12.8名으로 태국(39.9名·85~90年), 인도네시아(84.0名·85~90年, 터키(75.6名·85~90年), 브라질(63.0名·85~90年)등 開發途上國들에 比하여는 매우 낮으나, 先進國인 美國(9.9명·'88年), 獨逸(西獨:7.5명·'88年), 英國(9.0명·'88年), 프랑스(7.7명·'88年)등 보다는 비교적 높은편임.

'90年基準 우리나라의 合計出產率(한 女子가 可任期間(15~49세)동안 平均 몇명의 子女를 낳는가 하는 比率)은 1.6名으로 美國(1.8명), 獨逸(西獨:1.4명), 英國(1.8명), 프랑스(1.8명), 日本(1.7명)등 先進國 水準에 到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2. 産 業

우리나라의 쌀 生産量은 '90年現在 7,786千M/T으로 中國(188,403千M/T), 印度(112,500千M/T), 인도네시아(44,490千M/T), 방글라데시(28,140천M/T) 등에 이어, 世界 10위 水準이며 耕作面積當 生産量은 1헥타아르당 6,259kg으로 世界 7위 수준임

○ 美國 쌀 生産量은 7,027千M/T으로 世界 12위 水準

'88年現在 우리나라 漁獲量은 2,727千M/T으로 日本(11,897千M/T), 蘇聯(11,332千M/T), 中國(10,359千M/T), 美國(5,966千M/T), 등에 이어 世界 7위 水準이며, 1人當 水産物 消費量 ('86~'88년 평균)은 年間 49.6kg으로 日本(71.2kg), 홍콩(50.9kg)에 이어 世界 3위 水準임.

우리나라의 合成纖維生産量은 1989年 現在 1,189.8千M/T으로 全世界 生産量(14,716.6千M/T)의 8.1%를 점하고 있으며, 美國(3,119.4千M/T), 台灣(1,523.1千M/T), 日本(1,377.2千M/T)에 이어 世界 4위 水準

石油化學産業의 基礎原料인 에틸렌 生産量은 '88年 現在 608.9千M/T로 全世界 生産量(47,862.9千M/T)의 1.3%를 점하고 있으며, 美國(35.3%), 日本(10.6%), 蘇聯(6.6%), 獨逸(6.5%)등에 이어 世界 13위 水準

우리나라 시멘트 生産量은 '89年現在 30,474千M/T으로 全世界 生産量(1,138,000千M/T)의 2.7%를 점유하고 있으며, 生産量 水準은 中國(206,000千M/T), 蘇聯(140,300千M/T), 日本(79,478千M/T), 美國(70,026千M/T) 등에 이어 世界 7위 水準이며, 1人當 消費量은 666kg으로 日本(639kg), 美國(331kg), 獨逸(西獨 421kg), 英國(319kg), 프랑스(443kg) 등 先進國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음

우리나라 鐵鋼 生産量은 '90年 現在 23,125千M/T로 全世界 生産量(769,232千 M/T)의 3.0%를 차지하고 있어 蘇聯(154,414千M/T), 日本(110,331千M/T), 美國(88,900千 M/T), 中國(66,349千M/T)등에 이어 世界 7위 水準이며, 1人當 鐵鋼消費量(粗鋼換算基準)은 '89年現在 433kg으로 世界 13위 水準임

우리나라 電子工業 生産額은 '90年 現在 24,103백만\$로 全世界 生産額(637,045백만\$)의 3.8%를 점하고 있으며, 美國(199,111백만\$), 日本(188,942백만\$), 獨逸(西獨: 41,265백만\$), 프랑스(26,097백만\$), 영국(26,082백만\$), 이탈리아(18,765백만\$)에 이어 세계 6위 水準에 있으나, 특히 家庭用器機(6,795백만\$)의 比重(全世界生産額의 9.4%)이 産業用器機(6,758백만\$: 全世界 生産額의 1.6%), 電子部品(10,550백만\$ 全世界 生産額의 6.8%)보다 높은편임.

우리나라 自動車(乘用車, 商用車)生産量은 '90年 現在 1,321,630臺로 日本(13,486,796臺) 美國(9,780,236臺), 獨逸(西獨: 4,976,552臺), 프랑스(3,768,993臺), 이태리, 스페인, 캐나다, 蘇聯, 英國에 이어 세계 10위이며, 自動車 保有數('89年 現在 2,658,598臺)로는 세계 25위 水準

○ 乘用車 生産量('90년 현재 983,029臺) 만으로는 세계 9위, 乘用車 保有數('89년 현재 1,557,660臺) 만으로는 세계 30위 水準

○ 自動車(全車種) 1臺當 人口는 우리나라가 '89年 現在 15.8명으로 美國(1.2명), 캐나다(1.5명), 日本(2.2명) 등등에 이어 세계 50위 水準이며, 乘用車 1臺當 人口 만으로는 '89年 現在 27.0명으로 세계 52위 水準

※ 91年 10月 現在 우리나라 자동차 登錄臺數는 5,638.2千臺로 자동차 1臺當 人口數는 7.7명으로 推算되며, 乘用車 登錄臺數는 2,602.4千臺로 乘用車 1臺當 人口數는 16.7명으로 推算됨 (이 基準으로 보면 全車種으로는 세계 41위 水準, 乘用車 만으로는 세계 48위 水準임)

'89年 現在 우리나라 商業船舶 保有量은 7,832천G/T으로 리베리아(47,892천G/T), 파나마(47,365천G/T), 日本(28,030천G/T) 등등에 이어 세계 12위이며, 商業船舶 建造 實績은 '90年 現在 3,459千G/T으로 日本(6,824천G/T)에 이어 2위이며, 船舶 受注 殘量 역시 8,521천G/T으로 日本(14,651천G/T)에 이어 세계 2위임

우리나라의 發電量은 '88年 現在 85,462GWH(1GW=1백만KW)로 세계 20위(全世界 發電量의 0.8%)이며 이중 原子力 發電量은 40,101GWH(全世界 原子力 發電量의 2.2%)로 美國, 프랑스, 蘇聯, 日本 등등에 이어 세계 11위임.

우리나라의 證券去來所 去來代金は '90年 現在 74,616백만\$로 世界 36個 有名去來所中 9위이며, '90. 12月末 現在 上場株式 時價 總額은 110,301백만\$로 世界 16위 水準임

'89年現在 우리나라 民營保險의 收入保險料는 21,343백만\$로 世界保險市場의 1.7%를 佔하여 世界 9위 水準에 있으며, 國民 1人當 保險料는 503.6\$로 世界 20위 수준임 (1人當 生命保險料는 412.0\$로 世界 14위 水準)

'90年 現在 우리나라의 總輸出額은 650억\$로 世界 12위 水準이며, 總輸入額도 698억\$로 世界 12위 水準임.

○ 1人當 輸出額은 '89年 現在 1,472\$로 世界 37위 水準

### 3. 教育, 保健, 文化

- 우리나라의 初等教育(國民學校) 學生數는 '91年 現在 4,759千名, 教師數는 138千名으로 教師 1人當 學生數는 34.5名이며, 이는 아시아 後進國들인 內蒙(36.9名), 印度(60.3名) 파키스탄(40.9名), 미얀마(43.2名) 등 보다는 낮으나 日本(22.2명), 英國(20.3명), 프랑스(21.0명), 獨逸(西獨: 17.6명) 등 先進國에 比하여는 매우 높은편임.
  - 初等教育教師中 女教師 比率은 '91年 現在 約 52%로서 日本(57%), 캐나다(59%), 英國(78%), 프랑스(67%), 獨逸(西獨: 78%) 등 先進國에 比하여는 낮은 水準임.
- '89年 現在 우리나라의 高等教育(專門大以上) 就學率은 37.7%(男子50.2%, 女子24.2%)로 日本(30.1%), 獨逸(西獨: 31.8%), 英國(22.8%), 프랑스(34.5%) 등 보다는 높고, 美國(59.6%), 캐나다(62.2%) 보다는 낮은 水準임
- '90年 現在 우리나라의 醫師 1人當 人口數는 1,007名으로 日本(609명 '88년), 美國(473명 '84년), 英國(539명: '82년), 프랑스(320名 '86년), 獨逸(西獨: 398명: '84년) 등 先進國에 比하여 매우 높으며, 病床當 人口數는 429名으로 日本(76名 '88년), 美國(171명 '82년), 英國(89명 '81年), 프랑스(170名 '82년), 獨逸(西獨 89명 '82년) 등에 비해 역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 醫療部門은 相對的으로 脆弱性을 나타내고 있음.
- 世界 保健年鑑에 死亡原因別 死亡率이 나타난 36個 國家를 對象으로 보면 '89年 現在 우리나라의 胃癌死亡率은 人口 10萬名當 31.7名으로 日本(39.6명) 다음으로 높으며, 간암(23.8명 1위), 高血압성질환(37.3명 2위), 만성간질환(30.0명 2위), 交通事故(31.8명 1위), 결핵(12.6명)으로 인한 사망률이 매우 높음 先進國의 경우는 허혈성 심질환(급성심근경색증), 뇌혈관질환, 결장암 등에 의한 사망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人口千名當 TV 普及臺數는 '86年 現在 188臺로 日本(585대: '86년), 美國(813대: '86년), 英國(534대: '86년), 프랑스(402대: '86년) 등 先進國에 比하여는 매우 낮으며 人口100名當 電話普及率도 '89年 現在 33.5臺로 日本(55.5대: '85년), 美國(75.9대 '82년), 캐나다(76.9대: '86년), 獨逸(西獨: 64.0대: '86년), 英國(52.4대 '84년), 프랑스(60.8대 '85년) 등에 比하여 크게 뒤떨어진 水準임.

※ '91年 9月 現在 우리나라의 100名當 전화加入率은 39.8%임

○ 人口・面積

( '90 7. 1 기준)

	인 구(천명)		면 적(km <sup>2</sup> )		인구밀도 (명/km <sup>2</sup> )	도시화율 (%)
		구성비		구성비		
전 세 계	5,292,195	100.0	135,791,000	100.0	39	45.2
한 국	42,869	0.81	99,016	0.07	432	74.4
일 본	123,460	2.33	377,801	0.28	327	77.0
중 국	1,139,060	21.52	9,596,961	7.07	119	33.4
인 도	853,094	16.12	3,287,590	2.42	259	27.0
미 국	249,224	4.71	9,372,614	6.90	27	75.0
영 국	57,237	1.08	244,100	0.18	234	89.1
프 랑 스	56,138	1.06	551,500	0.41	102	74.3
소 련 (구)	288,595	5.45	22,402,200	16.50	13	65.8

○ 將來人口

(千名, %)

	2000 년		2010 년		2020 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전 세 계	6,260,800	100.0	7,204,343	100.0	8,091,628	100.0
한 국	46,789	0.75	48,683	0.68	50,578	0.63
일 본	128,470	2.05	131,035	1.82	129,029	1.59
중 국	1,299,180	20.75	1,395,328	19.37	1,476,852	18.25
인 도	1,041,543	16.64	1,223,483	16.98	1,371,767	16.95
미 국	266,096	4.25	280,919	3.90	294,750	3.64
영 국	58,393	0.93	58,973	0.82	59,544	0.74
프 랑 스	58,145	0.93	59,404	0.82	60,169	0.74
소 련 (구)	308,363	4.93	327,059	4.54	343,871	4.25

○ 出生・死亡率

	출 생 률 (千分比)	사 망 률 (千分比)	영 아 사 망 률 (千分比)	합계 출산율 ( '85~'90, 명)
한 국	15.6 ( '90)	5.8 ( '90)	12.8 ( '90)	1.63
일 본	10.1 ( '89)	6.4 ( '89)	---	1.68
중 국	---	---	---	2.45
인도네시아	27.4 ( '85~'90)	11.2 ( '85~'90)	84.0 ( '85~'90)	3.48
미 국	15.9 ( '88)	8.8 ( '88)	9.9 ( '88)	1.83
영 국	13.6 ( '89)	11.5 ( '89)	9.0 ( '88)	1.81
프 랑 스	13.8 ( '88)	9.4 ( '88)	7.7 ( '88)	1.82
소 련 (구)	19.0 ( '88)	10.2 ( '88)	24.9 ( '88)	2.38

○ 쌀생산량(1990), 어획고 (1988)

	쌀				어획고				
	총 생산량		경작면적당 생산		어획량	1인당수산물소비			
	(천M/T)	순위	량(kg/ha)	순위		(천M/T)	순위		(kg/년)
전 세계	518,508	-	3,557	-	한국	2,727	7	49.6	3
한국	7,786	10	6,259	7	인도	3,146	6	3.3	---
북한	5,500	13	8,209	1	일본	11,897	1	71.2	1
중국	188,403	1	5,728	12	중국	10,359	3	8.0	---
인도	112,500	2	2,691	---	미국	5,966	4	20.5	25
인도네시아	44,490	3	4,319	---	칠레	5,210	5	19.9	26
미얀마	13,965	7	2,911	---	소련(구)	11,332	2	28.6	14
방글라데시	28,140	4	2,655	---	인도네시아	2,703	8	14.0	---
일본	13,124	8	6,328	5	필리핀	2,041	9	33.8	9
필리핀	9,319	9	2,808	---	덴마크	1,972	10	19.6	27
태국	19,000	5	1,959	---	노르웨이	1,826	11	44.3	4
베트남	18,400	6	3,119	---	북한	1,700	12	42.4	5
미국	7,027	12	6,173	9	캐나다	1,596	13	26.9	16

○ 합성섬유생산량(1989), 에틸렌 생산량(1988)

	합성섬유 생산량			에틸렌 생산량	
	(천M/T)	순위		(천M/T)	순위
전 세계	14,716.6	-	전 세계	47,862.9	-
미국	3,119.4	1	미국	16,875.6	1
대만	1,523.1	2	일본	5,056.9	2
일본	1,377.2	3	소련	3,174.8	3
한국	1,189.8	4	독일(서독)	3,131.3	4
중국	1,175.0	5	프랑스	2,445.9	5
소련(구)	890.2	6	캐나다	2,345.6	6
독일(서독)	775.0	7	네델란드	---	7
이태리	540.0	8	영국	2,005.2	8
인도	342.5	9	이탈리아	1,472.4	9
인도네시아	342.5	10	중국	1,232.1	10
멕시코	336.2	11	스페인	1,051.0	11
터키	283.0	12	체코	682.8	12
스페인	255.0	13	한국	608.9	13

○ 시멘트생산 및 소비량(1989)

	생산량(천M/T)	1인당소비량 (kg)	
		순 위	순 위
전 세계	1,138,000	-	아랍에미레이트 1,548 1
중국	206,000	1	안도라 1,300 2
소련(구)	140,300	2	바레인 1,182 3
일본	79,478	3	키프러스 1,148 4
미국	70,026	4	룩셈부르크 1,062 5
인도	44,620	5	오만 946 6
이태리	40,552	6	스위스 863 7
한국	30,474	7	쿠웨이트 829 8
스페인	28,217	8	홍콩 826 9
프랑스	26,827	9	대만 810 10
독일(서독)	26,505	10	리비아 746 11
브라질	25,920	11	이태리 735 12
멕시코	23,382	12	한국 666 17

○ 조강생산량(1990) 및 소비량(1989)

	조강생산량 (천 M/T)		1인당 소비량 (kg)	
	순 위	순 위		
전 세계	769,232	-	싱가포르 1,127 1	
소련	154,414	1	일본 754 2	
일본	110,331	2	체코 704 3	
미국	88,900	3	대만 701 4	
중국	66,349	4	소련(구) 582 5	
독일(서독)	38,434	5	독일(서독) 576 6	
이태리	25,510	6	캐나다 529 7	
한국	23,125	7	루마니아 527 8	
브라질	20,569	8	독일(동독) 515 9	
프랑스	18,994	9	이태리 487 10	
영국	17,841	10	스웨덴 459 11	
인도	14,963	11	핀란드 458 12	
체코	14,877	12	한국 433 13	
폴란드	13,633	13	미국 412 14	

○ 전자공업 생산액(1990)

(단위 · 백만\$)

	총 생산액		가정용기기		산업용기기		전자 부품	
		순위		순위		순위		순위
전 세계	637,045	-	71,990	-	410,951	-	154,104	-
미국	199,111	1	6,164	3	151,849	1	41,098	2
일본	188,942	2	32,630	1	97,153	2	59,159	1
독일(서독)	41,265	3	3,858	4	27,852	3	9,555	4
프랑스	26,097	4	1,305	13	20,409	5	4,383	6
영국	26,082	5	1,572	11	20,443	4	4,067	8
한국	24,103	6	6,795	2	6,758	9	10,550	3
이태리	18,765	7	929	14	15,556	6	2,280	11
대만	14,065	8	2,346	6	6,645	10	5,074	5
싱가폴	13,246	9	2,090	8	6,927	7	4,229	7
브라질	10,154	10	2,155	7	6,184	11	1,815	12
홍콩	8,122	11	2,394	5	3,412	15	2,316	10
캐나다	7,842	12	403	17	6,773	8	666	19

○ 자동차생산량(1990) 및 보유량(1989)

	생 산 ( 대 )				보 유 ( 대 )				
	전 차 종	순위	승 용 차	순위	전 차 종	순위	승 용 차	순위	
일본	13,486,796	1	9,947,972	1	미국	188,669,000	1	144,375,000	1
미국	9,780,236	2	6,077,449	2	일본	55,093,128	2	32,621,046	2
독일(서독)	4,976,552	3	4,660,657	3	독일(서독)	32,079,645	3	30,152,399	3
프랑스	3,768,993	4	3,294,815	4	프랑스	27,758,000	4	23,010,000	5
이태리	2,120,850	5	1,874,672	5	이태리	26,382,000	5	24,300,000	4
스페인	2,053,350	6	1,679,301	6	영국	25,737,430	6	22,427,725	6
캐나다	1,922,847	7	1,072,281	8	소련(구)	22,500,000	7	13,500,000	7
소련(구)	1,632,000	8	900,000	10	캐나다	16,395,000	8	12,435,000	8
영국	1,565,744	9	1,295,611	7	스페인	13,675,316	9	11,467,727	9
한국	1,321,630	10	983,029	9	브라질	12,650,000	10	10,250,000	10
브라질	914,586	11	663,098	11	호주	9,489,500	11	7,442,200	11
멕시코	820,558	12	598,093	12	멕시코	7,800,000	12	5,400,000	12
중국('89)	540,876	13	74,313	---	네델란드	5,928,155	13	5,371,366	13
스웨덴	410,268	14	335,853	14	한국	2,658,598	25	1,557,660	30

○ 자동차 1대당 인구(1989)

(단위 명)

승 용 차			전 차 중								
	1대당인구			1대당인구			1대당인구			1대당인구	
	순위			순위			순위			순위	
미 국	1.6	1	노르 웨이	2.6	14	미 국	1.2	1	일 본	2.2	14
아이슬랜드	2.0	2	오스트리아	2.6	15	캐 나 다	1.5	2	핀 랜 드	2.3	15
독일(서독)	2.0	3	벨 기 에	2.7	16	호 주	1.8	3	푸에르토리코	2.3	16
캐 나 다	2.0	4	네델 란드	2.7	18	뉴질 랜드	1.8	4	오스트 리아	2.4	17
룩셈부르크	2.1	5	쿠웨 이트	2.9	19	아이슬랜드	1.8	5	벨 기 에	2.4	18
뉴질 랜드	2.1	6	덴 마 크	3.2	20	룩셈부르크	1.9	6	네 델 란드	2.5	19
호 주	2.2	7	스 페 인	3.4	21	프 랑 스	2.0	7	키프 러 스	2.7	20
스 웨 덴	2.3	8	일 본	3.7	23	쿠웨 이트	2.1	8	덴 마 크	2.7	21
스 위 스	2.4	9	아일 랜드	4.6	27	스 위 스	2.2	9	스 페 인	2.8	22
이 태 리	2.4	10	사우디아랍 아	6.7	33	이 태 리	2.2	10	싱 가 포 르	6.5	38
프 랑 스	2.4	11	싱가포르	9.6	40	스 웨 덴	2.2	11	대 만	9.2	41
영 국	2.5	12	대 만	12.3	44	노르 웨이	2.2	12	말레이 지아	11.0	47
핀 랜 드	2.6	13	한 국	27.0	52	영 국	2.2	13	한 국	15.8	50

○ 선박보유량(1989), 선박건조실적(1990) 및 수주잔량(1990)

(단위 천G/T)

	보유량			건조량			수주잔량	
	순위			순위			순위	
전 세 계	410,480	-	전 세 계	15,885	-	전 세 계	39,789	-
리베 리아	47,892	1	일 본	6,824	1	일 본	14,651	1
파 나 마	47,365	2	한 국	3,459	2	한 국	8,521	2
일 본	28,030	3	독일(동.서독)	856	3	독일(동.서독)	1,982	3
소 련 (구)	25,853	4	대 만	667	4	덴 마 크	1,679	4
그 리 이스	21,324	5	유 고	456	5	유 고	1,537	5
미 국	20,587	6	덴 마 크	394	6	이 태 리	1,294	6
키프 러 스	18,134	7	이 태 리	371	7	스 페 인	1,177	7
노르 웨이	15,596	8	소 련 (구)	367	8	브 라 질	1,165	8
중 국	13,513	9	중 국	366	9	폴 란 드	1,105	9
바 하 마	11,578	10	스 페 인	363	10	중 국	1,079	10
필 리 핀	9,384	11	브 라 질	256	11	대 만	797	11
한 국	7,832	12	핀 랜 드	247	12	투 마 니 아	642	12
영 국	7,645	13	네 델 란드	163	13	영 국	625	13

○ 전력생산량(1988)

(단위 . GWH)

	총발전량			화력			원자력	
		순위			순위			순위
전 세계	11,017,001	-	전 세계	7,040,348	-	전 세계	1,852,151	-
미국	2,856,624	1	미국	2,085,326	1	미국	526,901	1
소련(구)	1,698,400	2	소련(구)	1,253,300	2	프랑스	275,521	2
일본	753,728	3	일본	477,826	3	소련(구)	216,000	3
중국	537,846	4	중국	431,250	4	일본	178,659	4
캐나다	504,285	5	독일(서독)	265,368	5	독일(서독)	145,082	5
독일(서독)	428,856	6	영국	237,808	6	캐나다	82,867	6
프랑스	391,926	7	인도	180,349	7	스웨덴	69,711	7
영국	308,230	8	이태리	156,932	8	영국	63,456	8
인도	237,800	9	남아프리카	153,224	9	스페인	50,379	9
브라질	214,117	10	폴란드	140,168	10	벨기에	43,103	10
이태리	200,690	11	호주	124,193	11	한국	40,101	11
남아프리카	157,902	12	캐나다	114,836	12	체코	23,289	12
한국	85,462	20	한국	41,795	20	스위스	21,502	13

○ 증권거래대금 및 상장주식 시가총액(1990)

(단위 . 백만\$)

	거래대금			상장주식시가총액(연말기준)	
		순위			순위
토쿄(일본)	1,403,887	1	토쿄(일본)	2,821,660	1
뉴욕(미국)	1,325,332	2	뉴욕(미국)	2,692,123	2
대만	787,555	3	오사카(일본)	2,389,006	3
런던(영국)	587,808	4	런던(영국)	858,165	4
독일연합(독일)	554,208	5	독일연합(독일)	355,311	5
추리히(스위스)	400,253	6	파리(프랑스)	304,390	6
오사카(일본)	266,463	7	토론토(캐나다)	241,924	7
파리(프랑스)	127,019	8	몬트리올(캐나다)	217,013	8
한국	74,616	9	추리히(스위스)	163,415	9
비엔나(오스트리아)	59,313	10	제네바(스위스)	159,970	10
토론토(캐나다)	55,166	11	이태리	148,766	11
바젤(스위스)	55,006	12	바젤(스위스)	141,320	12
이태리	44,860	13	요하안네스버그(남아프리카)	136,869	13
암스텔담(네델란드)	44,011	14	한국	110,301	16

○ 수입보험료 및 1인당 보험료(1989)

	수입보험료 (백만\$)			1인당 보험료(\$)			1인당생명 보험료(\$)	
		순위			순위			순위
미 국	453,201	1	스 위 스	2,375.6	1	일 본	1,616.9	1
일 본	264,703	2	일 본	2,149.9	2	스 위 스	1,356.8	2
독일(서독)	76,531	3	미 국	1,817.1	3	핀 란 드	913.1	3
영 국	76,401	4	핀 란 드	1,417.9	4	영 국	850.5	4
프 랑 스	63,271	5	스 웨 덴	1,384.8	5	스 웨 덴	821.6	5
소 련 (구)	29,522	6	영 국	1,335.7	6	미 국	754.9	6
캐 나 다	29,285	7	네 델 란 드	1,281.1	7	아 일 란 드	692.6	7
이 태 리	23,374	8	독 일 (서독)	1,241.7	8	네 델 란 드	604.0	8
한 국	21,343	9	호 주	1,158.3	9	프 랑 스	600.9	9
호 주	19,472	10	노 르 웨 이	1,140.4	10	호 주	578.6	11
네델 란드	18,999	11	프 랑 스	1,126.7	11	캐 나 다	545.8	12
스 위 스	15,798	12	캐 나 다	1,116.9	12	노 르 웨 이	478.8	14
스 페 인	13,174	13	한 국	503.6	20	한 국	412.0	12

○ 수출액(1990), 수입액(1990) 및 1인당 수출액(1989)

	수출액 (억\$)			수입액 (억\$)			1인당 수출액(\$)	
		순위			순위			순위
독일(서독)	4,101	1	미 국	5,170	1	싱 가 포 르	16,666	1
미 국	3,936	2	독일(서독)	3,462	2	홍 콩	12,696	2
일 본	2,876	3	일 본	2,354	3	아랍에미레이트	---	3
프 랑 스	2,166	4	프 랑 스	2,344	4	벨기에-룩셈부르크	9,700	4
영 국	1,852	5	영 국	2,228	5	카 타 르	---	5
이 태 리	1,703	6	이 태 리	1,820	6	브 루 나 이	---	6
네델 란드	1,318	7	네델 란드	1,261	7	스 위 스	7,748	7
캐 나 다	1,317	8	캐 나 다	1,244	8	네 델 란 드	7,272	8
벨 기 에	1,182	9	벨 기 에	1,200	9	노 르 웨 이	6,398	9
홍 콩	822	10	스 페 인	877	10	스 웨 덴	6,064	10
대 만	672	11	홍 콩	825	11	독 일(서독)	5,536	15
한 국	650	12	한 국	698	12	대 만	3,295	21
스 위 스	638	13	스 위 스	697	13	일 본	2,233	31
중 국	609	14	싱가 포르	609	14	한 국	1,472	37

○ 초등교육 현황 및 고등교육(전문대이상)취학률

	조사연도	초 등 교 육				조사연도	고등교육 취학률		
		학생수 (천명)	교사수 (천명)	여교사비율 (%)	교사 1인당 학생수(명)		계	남	여
한 국	91	4,759	138	52	34.5	89	37.7	50.2	24.2
말레이시아	88	2,338	109	55	21.3	88	6.7	7.1	6.2
이스라엘	87	706	38	81	18.6	87	34.2	35.5	32.7
일본	88	9,873	445	57	22.2	88	30.1	36.6	23.3
중국	88	125,356	5,501	42	22.8	88	1.7	2.2	1.2
미국	86	27,117	1,371	---	19.8	86	59.6	55.5	63.7
영국	86	4,370	215	78	20.3	87	22.8	23.9	21.6
프랑스	88	4,176	199	67	21.0	88	34.5	32.1	37.0
독일(서독)	88	2,388	136	78	17.6	88	31.8	36.5	26.9
캐나다	88	2,319	316	59	7.3	88	62.2	56.5	68.1
네델란드	87	1,431	84	63	17.0	87	32.4	36.3	28.4
이태리	88	3,238	259	90	12.5	88	26.3	27.1	25.4
호주	88	1,530	92	72	16.6	87	28.8	28.1	29.6

○ 의료인력 및 의료시설

	의 료 인 력			의 료 시 설			
	조사연도	의사수	의사 1인당 인구수(명)	조사연도	병원수 (개)	병상수 (개)	병상당 인구수(명)
한 국	90	42,554	1,007	90	627	99,843	429
말레이시아	82	4,234	1,514	81	163	32,135	370
일본	88	201,658	609	88	9,841 <sup>1)</sup>	1,611,196	76
미국	84	501,200	473	80	7,051	1,333,360	171
캐나다	84	48,860	514	78	1,226	182,791	129
네델란드	85	32,193	450	82	808	175,260	82
영국	82	78,649	539	81	1,937	351,505	89
프랑스	86	173,166	320	82	961	318,459	170
스위스	85	9,298	696	81	409	67,066	96
벨기에	82	26,593	371	82	531	92,686	106
핀란드	85	11,072	443	81	---	74,441	65
독일(서독)	84	153,859	398	82	3,189	695,603	89
덴마크	84	12,806	399	82	127	39,273	130
호주	86	36,610	438	71	1,142	94,931	157

○ 주요사망원인별 사망률

(십만명당)

	결 핵			위 암			간 암	
		순위			순위			순위
중 국	12.6	1	일 본	39.6	1	한 국	23.8	1
한 국	12.6	1	한 국	31.7	2	중 국	20.4	2
에콰도르	12.3	3	소 련	30.8	3	일 본	13.9	3
소 련	8.0	4	포르투갈	28.8	4	불가리아	9.0	4
스리랑카	7.3	5	헝가리	27.9	5	헝가리	8.6	5
콜롬비아	6.4	6	이태리	25.4	6	폴란드	8.2	6
헝가리	5.7	7	불가리아	24.9	7	이태리	7.4	7
유고	5.5	8	오스트리아	24.3	8	프랑스	5.3	8
아르헨티나	4.4	9	독일(서독)	22.6	9	아르헨티나	5.1	9
폴란드	3.7	10	중 국	21.8	10	콜롬비아	3.7	10
미국	0.8	--	미국	5.6	--	미국	1.4	23
영국	0.9	--	영국	17.9	14	영국	1.4	23
프랑스	1.9	21	프랑스	13.2	24	독일(서독)	3.2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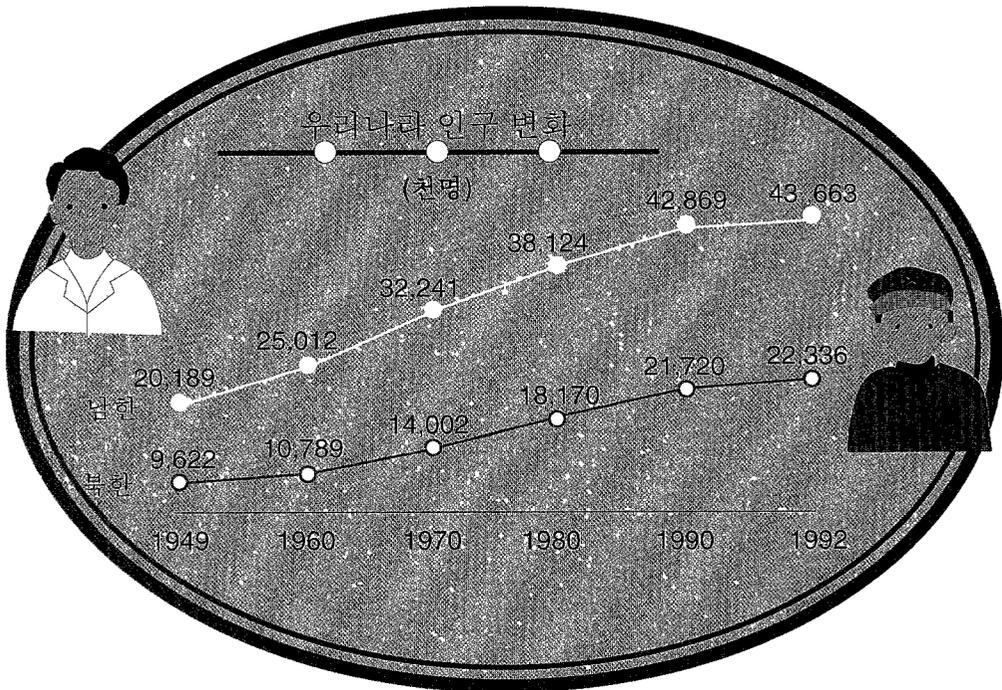
	만성간질환			교통사고			자살	
		순위			순위			순위
헝가리	52.8	1	한 국	31.8	1	헝가리	41.6	1
한 국	30.0	2	포르투갈	30.8	2	스리랑카	35.6	2
이태리	28.8	3	뉴질랜드	28.1	3	핀란드	28.9	3
오스트리아	28.7	4	헝가리	25.5	4	덴마크	26.2	4
포르투갈	24.1	5	베네주엘라	24.6	5	오스트리아	25.4	5
독일(서독)	23.7	6	폴란드	23.4	6	스위스	23.0	6
체코	22.3	7	소련(구)	22.3	7	프랑스	21.0	7
스페인	21.3	8	미국	21.4	8	소련(구)	20.0	8
프랑스	19.9	9	오스트리아	21.1	9	체코	18.0	9
유고	19.4	10	에콰도르	20.8	10	일본	17.3	10
미국	10.9	14	프랑스	19.2	12	중 국	17.2	11
중 국	10.8	15	영국	10.5	--	미국	12.6	18
영국	6.2	--	독일(서독)	13.3	--	한 국	8.7	21

○ T·V, 전화 보급

	T · V			전 화		
	연 도	보유대수 (천대)	천 명 당 보급률(대)	연 도	보유대수 (천대)	백 명 당 보급률(대)
한 국	'86	7,800	188	'89	14,195	33.5
말 레 이 지 아	'86	1,800	113	'86	1,381	8.5
싱 가 포 르	'83	472	188	'86	1,116	42.9
일 본	'86	71,000	585	'85	66,636	55.5
중 국	'86	10,500	10	'86	7,059	0.7
태 국	'86	5,200	100	'86	1,000	1.9
미 국	'86	195,000	813	'82	176,483	75.9
캐 나 다	'86	14,000	546	'86	19,598	76.9
영 국	'86	30,000	534	'84	29,518	52.4
프 랑 스	'86	22,000	402	'85	34,347	60.8
독 일(서독)	'86	23,011	379	'86	39,128	64.0
네 델 란 드	'86	6,800	467	'86	9,080	62.1
호 주	'86	7,500	472	'85	8,727	55.0

**여 백**

# 우리나라 및 세계 인구 현황



「우리나라 인구가 2천만명 수준에 도달한 것은 1949  
년이었는데, 이 인구가 2배인 4천만명이 된 것은  
1984년으로 불과 35년만의 일이다」

- 자료중에서 -

# 우리나라 및 世界 人口現況

—7. 11일 世界人口의 날 관련자료—

1992. 7

유엔은 지난 1987년 7월 11일자로 세계인구가 50억명을 돌파한 날을 기하여 인류가 인구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 노력을 전개할 것을 촉구하고자 7월11일을 “世界 人口의 날(World Population Day)”로 선포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 자료는 世界人口의 날을 앞두고 人口問題의 重要性을 살펴보기 위하여 우리나라와 世界 人口現況에 관한 資料를 作成한 것입니다  
많은 활용 바랍니다

統計調查局 人口統計課

人口現況 및 推移

가 人口現況

- 1992년 7월 11일 현재 우리나라의 인구는 43,674,117명으로 추정
- 1992년 7월 1일 현재 세계인구는 5,488,010천명으로 추정되고 있음
- ※ 1992년 7월 1일 현재 북한의 추정 인구 22,336천명과 우리나라 인구 43,663천 명을 합한 인구는 65,999천명이 됨

나 人口推移

- 우리나라 人口가 2千萬名 水準에 도달한 것은 1949년(20,189천명)이었는데, 이 人口가 2배인 4千萬名이 된 것은 1984년으로 불과 35년만임
- 그러나 人口增加率의 지속적인 감소세로 2021년에 현재보다 6,923천명이 늘어 最大人口인 50,586천명이 될 것으로 전망

	계	韓 國	北 韓	世 界 人 口
1925	19,523	-	-	-
1944	25,900	-	-	-
1949	29,811	20,189	9,622	2,516,443('50)
1960	35,801	25,012	10,789	3,019,653
1970	46,243	32,241	14,002	3,697,849
1980	56,294	38,124	18,170	4,448,037
1990	64,589	42,869	21,720	5,292,195
1991	65,296	43,268	22,028	5,385,334
1992	65,999	43,663	22,336	5,480,010
2000	71,535	46,789	24,746	6,260,800
2010	76,993	49,683	27,310	7,204,343
2020	79,522	50,578	28,944	8,091,628

자료출처 1) 南韓 人口는 統計廳 자료 (1925~49 총조사 인구, 1960년 이후 추계인구)

2) 北韓 人口는 평화통일연구소의 북한개요(1986 11) 및 統一院의 南北韓 社會 文化指標(1991 12)에서 인용

3) 世界人口는 유엔의 1990 세계인구전망(1991)에서 인용

## 2 人口크기 및 人口密度의 比較

- 우리나라의 人口크기는 23번째로 전세계인구중 0.8%를 차지하고 있음
  - o 南·北韓을 합한 인구크기는 전세계 14번째가 되며 전세계인구의 1.2%를 차지함
- 우리나라의 人口密度는 '92년 기준 440명으로서 도시국가 및 소규모 섬국가를 제외하면 방글라데시, 臺灣에 이어 세계 3위가 되는 高密度 國家임

人口規模 ('90년 기준)			人口密度 ('88년 기준)		
순 위	國 名	人口數(천명)	순 위	國 名	人口數(명/㎢)
1	중 국	1,139,060		모나코	28,100
2	인 도	853,094		마카오	27,431
3	소 련	288,595		홍 콩	5,437
4	미 국	249,224		지브라올타	5,013
5	인도네시아	184,283		싱가포르	4,283
6	브라질	150,368		홀리씨(바티칸)	1,741
7	일 본	123,460		몰 타	1,101
8	파키스탄	122,626		버뮤다	1,089
9	방글라데시	115,593	1	방글라데시	726
10	나이지리아	108,542		바레인	710
11	멕시코	88,598		채널섬(영국령)	697
12	독 일	77,563		멜다이브	679
13	베트남	66,693		바베이도스	590
14	필리핀	62,413	2	대 만	565
15	영 국	57,237		모리셔스	528
16	이태리	57,061	3	한 국('88)	423
17	프랑스	56,138		('92)	440
18	터 키	55,868			
19	태 국	55,702		나우루	441
20	이 란	54,607		푸에르토리코	405
21	이집트	52,426	4	네덜란드	361
22	이디오피아	49,240		투발루	346
23	한 국	42,869			
24	미얀마	41,675	5	일 본	325
25	스페인	39,187	6	벨기에	324

자료출처 1) UN, 1990 World Population Prospects, 1991

2) 대만 인구밀도는 1991 대만 통계년감 자료, 한국은 추계인구자료  
다른나라는 1990년 발간 1987 유엔통계년감에서 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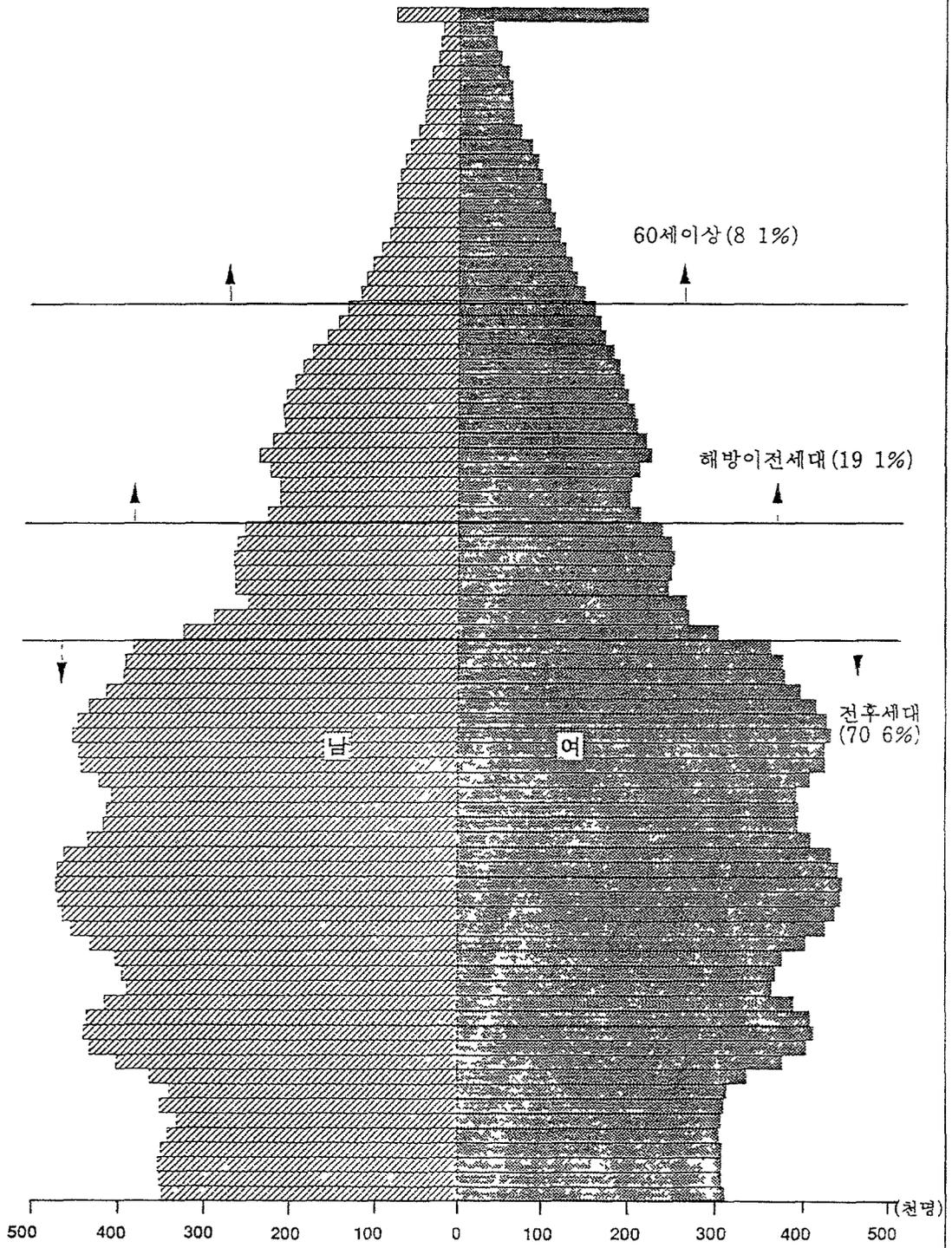
### 3 人口構造

- 1992년 우리나라의 총인구 43,663천명의 연령별 인구구조 특징은 다음과 같음
  - o 戰後世代(1953년 이후 출생)인구 비율(39세 이상)은 70.6%가 됨
  - o 解放이후 세대(1945년 이후 출생)인구 비율(48세 이상)은 80.9%가 됨
  - o 60세 이상 및 65세 이상의 고령인구비율은 각각 8.1%, 5.2%로서 아직까지는 선진국의 평균치인 17.1%, 12.1%보다는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음
  - o 전체 성비는 101.4를 보이고 있으나 0~4세 연령층에서의 성비는 113.2, 5~9세에서는 108.5를 나타내 최근 출산자녀수가 적어지면서 남아선호현상이 더욱 두드러짐을 시사함
  - o 부양비(0~14세 인구와 65세 이상 인구를 15~64세 인구로 나눈 비율)는 43.2%를 나타냄 이는 지난 '60년의 82.6%와 비교하여 볼때 출산률의 저하에 따라 급속한 감소를 나타낸 것으로서, 아직 우리나라의 연령구조가 경제발전에 적합한 구조임을 시사함
- 우리나라의 인구구조는 '60년의 전형적인 후진국형인 피라미드 형태(高出生·高死亡)에서 '92년에는 중형으로, 2020년에는 선진국형인 항아리형태로 전환되고 있음

(천명)

연령	1992 7. 1		
	계	남자	여자
계	43,663	21,979	21,685
0~4	3,292	1,747	1,544
5~9	3,439	1,789	1,649
10~14	4,102	2,117	1,985
15~19	4,167	2,149	2,017
20~24	4,486	2,308	2,178
25~29	4,123	2,102	2,021
30~34	4,296	2,193	2,104
35~39	3,480	1,780	1,700
40~44	2,612	1,339	1,272
45~49	2,202	1,124	1,078
50~54	2,143	1,074	1,069
55~59	1,766	850	916
60~64	1,273	555	718
65~69	935	383	553
70~74	647	254	392
75~79	403	138	265
80+	298	76	222

그림 1 : 연령별 인구구조 (1992. 7. 1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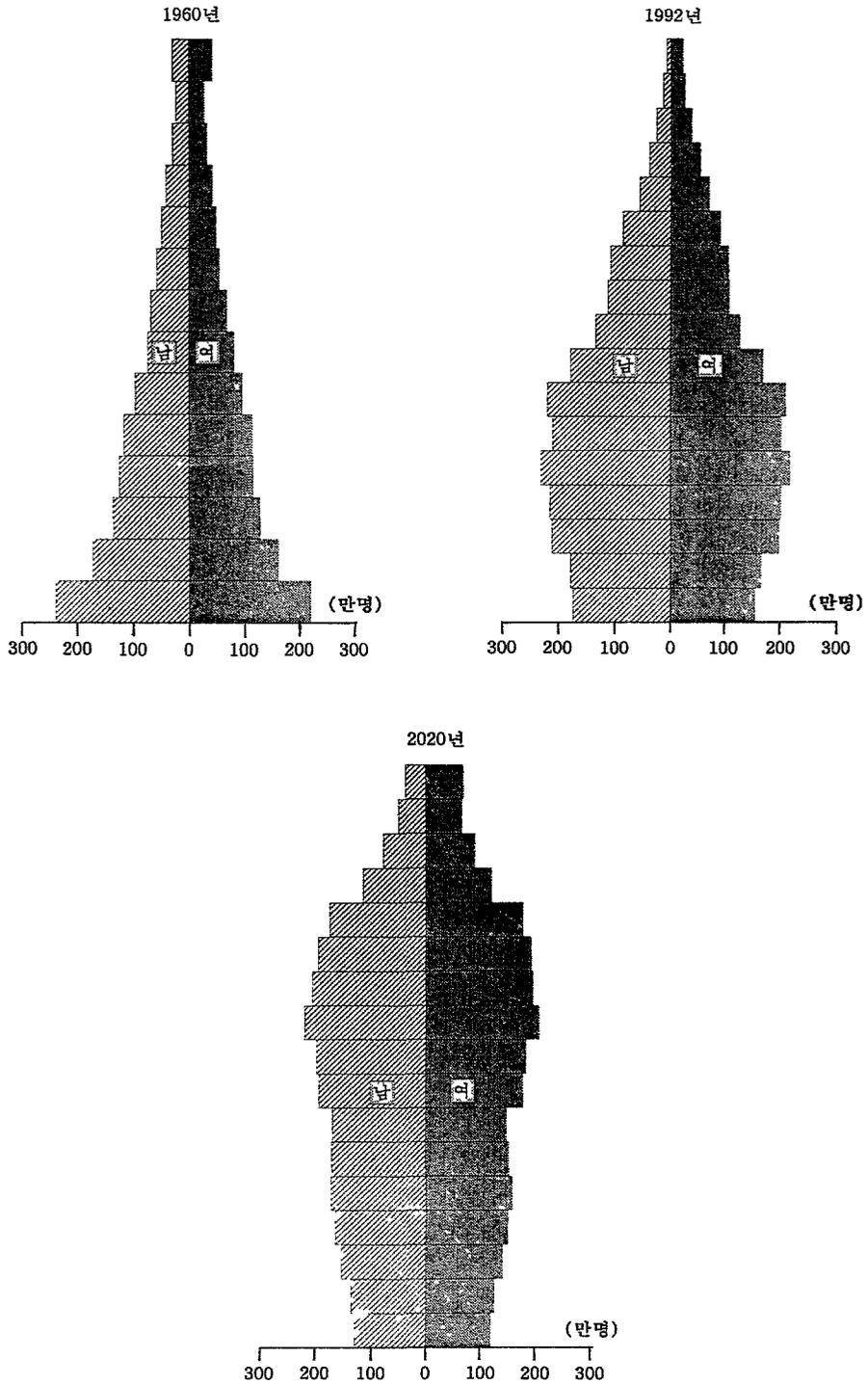


그림 2 연령별 인구구조비교

4 主要國別 總人口 및 年齡別 構成(1990年 基準)

- 우리나라의 0~4세 및 5~14세의 저연령층 인구비율은 日本, 영국 이태리 등 先進國보다는 높으나 다른 개발도상국보다는 낮은 수준임

國 家	總 人 口 (千名)	年 齡 構 造 (%)						
		계	0-4	5-14	15-24	25-59	60-64	65+
전 세계	5,292,195	100.0	11.9	20.4	19.1	39.4	3.0	6.2
선진국	1,206,556	100.0	7.1	14.3	14.3	46.7	5.0	12.1
개발도상국	4,085,638	100.0	13.3	22.3	20.4	37.1	2.4	4.5
방글라데시	115,593	100.0	16.5	27.4	20.6	30.9	1.7	2.9
브라질	150,368	100.0	12.6	22.6	19.1	38.6	2.4	4.7
중국	1,139,060	100.0	9.9	16.6	22.2	42.4	3.1	5.8
이집트	52,426	100.0	14.5	24.9	18.5	35.9	2.3	3.9
인도	839,094	100.0	13.4	23.1	19.4	37.0	2.6	4.5
이태리	57,061	100.0	4.9	11.8	16.0	47.3	5.7	14.3
일본	123,460	100.0	5.5	12.9	15.4	49.0	5.5	11.7
한국	42,869	100.0	7.7	18.2	20.4	46.0	2.7	5.0
멕시코	88,598	100.0	13.1	24.1	22.4	34.6	2.0	3.8
나이지리아	108,542	100.0	19.5	27.9	18.8	29.7	1.6	2.5
태국	55,702	100.0	10.2	22.5	21.8	39.3	2.3	3.9
소련	288,595	100.0	8.8	16.7	14.6	45.2	5.1	9.6
영국	57,237	100.0	6.7	12.3	14.9	45.6	5.1	15.4
미국	249,224	100.0	7.3	14.1	14.5	47.2	4.3	12.6

출처 1) UN, 1990 World Population Prospects, 1991

2) 한국은 통계청의 장래 인구추계 결과임

5 主要國別 人口動態指標 比較

國家名		조출생률	조사망률	자연인구	합계출산률	평균수명(세)	
		(%)	(%)	증가율(%)	(%)	남자	여자
전 세계	'85-'90	2.71	0.98	1.73	3.45	61.8	65.9
선진국	'85-'90	1.45	0.98	0.47	1.89	70.3	77.4
개발도상국	'85-'90	3.10	0.98	2.12	3.94	60.1	62.8
한국	1990	1.56	0.58	0.98	1.63	66.9	75.0('89)
일본	1989	1.02	0.64	0.37	1.57	75.9	81.8
대만	1989	1.57	0.52	1.06	1.68	71.1	76.5
싱가포르	1989	1.78	0.52	1.26	1.79	71.4	76.7
홍콩	1989	1.23	0.51	0.72	1.36('88)	74.2	79.7('87)
미국	1988	1.59	0.88	0.71	1.93	71.5	78.3
영국	1990	1.39	0.86	0.53	1.84('88)	73.0	78.7
네덜란드	1989	1.27	0.87	0.40	1.56('88)	73.7	80.1
이태리	1988	0.99	0.93	0.06	1.43('84)	73.3	79.9
프랑스	1988	1.36	0.90	0.46	1.82('87)	73.1	81.5
서독	1988	1.10	1.12	-0.02	1.39('87)	72.6	79.2
덴마크	1990	1.24	1.19	0.05	1.49('87)	72.2	77.9

- 자료출처
- 1) 한국은 통계청의 장래 인구추계 결과임
  - 2) 일본, 대만, 싱가포르, 홍콩, 미국의 인구동태 지표는 각국 통계연감에서 인용
  - 3) 영국, 네덜란드, 이태리, 프랑스, 서독, 덴마크의 조출생률 및 조사망률은 1992년 3월호 유엔통계월보 자료이며, 합계출산률은 1989년 유엔인구통계연감 자료임
  - 4) 전세계, 선진국 및 후진국 자료는 유엔의 1990 세계인구전망에서 인용
  - 5) 평균 수명 자료는 WHO 보건통계연감에서 인용

6. 우리나라의 主要 人口指標 推移

	단 위	1960	1970	1980	1990	1992	2000	1990		
								세 계	선진국	개도국
<b>[인구규모]</b>										
• 총인구수	천 명	25,012	32,241	38,124	42,869	43,663	46,789	5,292,195	1,206,556	4,085,638
• 인구밀도	명/km <sup>2</sup>	254	328	385	432	440	471	39	21	52
<b>[인구구조]</b>										
• 0~14세	%	42.3	42.5	34.0	25.8	24.8	21.2	32.3	21.4	35.6
• 15~64세	%	54.8	54.4	62.2	69.2	70.2	72.0	61.5	66.6	59.9
• 60세이상	%	2.9	3.1	3.8	5.0	5.2	6.8	6.2	12.1	4.5
• 65세이상	%	5.0	5.1	6.0	7.7	8.1	10.7	9.2	17.1	6.9
• 부 양 비	%	82.6	83.9	60.7	44.5	42.9	33.8	62.6	50.1	66.7
								(’85~’90)	(’85~’90)	(’85~’90)
<b>[인구동태율]</b>										
• 조출생률	%	4.21	2.99	2.34	1.56	1.54	1.42	2.71	1.45	3.10
• 조사망률	%	1.21	0.95	0.67	0.58	0.58	0.61	0.98	0.98	0.98
• 자연인구 증 가 율	%	3.00	2.04	1.67	0.98	0.96	0.81	1.73	0.47	2.12
• 이 민 율	%	—	0.04	0.10	0.05	0.05	0.04	—	—	—
• 인구성장률	%	3.00	2.00	1.57	0.93	0.91	0.77	—	—	—
<b>[연령]</b>										
• 평균연령	세	23.1	23.6	26.0	29.5	30.3	32.9	28.3	35.6	26.1
• 평균초혼연령	세		(’72)	(’81)	(’81)					
┌ 남자		—	26.7	26.4	27.8	—	—	—	—	—
└ 여자		—	22.6	23.2	24.8	—	—	—	—	—
• 평균수명	세			(’78~’79)	(’89)			(’85~’90)	(’85~’90)	(’85~’90)
┌ 남자		—	59.8	62.7	66.9	—	—	61.8	70.3	60.1
└ 여자		—	66.7	69.1	75.0	—	—	65.9	77.4	62.8

주 : 부양비는 14세이하 인구와 65세이상 인구를 15~64세 인구로 나눈 수치임

7 時間으로 본 人口增加 現況

- 1992년 기준 우리나라에서는 47초마다 1명이 태어나고 125초마다 1명이 사망하여 75초마다 1명의 인구가 늘어나는 것으로 추정됨
- 전세계 기준으로는 연간 1억3천8백만명이 태어나는 한편 5천만 정도가 사망하여, 8천8백만명이 늘어나는 것으로 추정됨

	한국(1992년)	전세계(1990~95년)
[出生]		
· 연간 출생수(명)	671,000	137,639,000
· 1일 출생수(명)	1,838	377,093
· 발생간격(초)	47 0	0 23
[死亡]		
· 연간 사망수(명)	253,000	49,659,000
· 1일 사망수(명)	693	136,052
· 발생간격(초)	124 6	0 64
[增加]		
· 연간 증가수(명)	418,000	89,980,000
· 1일 증가수(명)	1 145	241,041
· 발생간격(초)	75 4	0 36

자료 1) 한국은 '91 4월 추정치임

2) 세계자료는 유엔의 1990 World Population Prospects에서 인용

8 將來 人口構造의 變動에 따른 問題

- 新規勞動供給에 險路

- o 人口增加率의 減少勢로 生産可能人口( 15세以上 )도 增加勢가 鈍化
- o 특히 젊은 年齡層( 24세以下 )의 增加率은 마이너스를 나타내어 이 年齡層의 勞動供給의 不足現象 招來

(연평균 증가율 %)

	1970~ 75	1975~ 80	1980~ 85	1985~ 90	1990~ 95	1995~ 2000
총 인 구	1.8	1.6	1.4	1.0	0.9	0.8
15세이상	3.2	3.0	2.5	2.2	1.6	1.4
15~19	5.8	0.8	-0.5	0.3	-2.5	-0.7
20~24	3.7	5.9	0.9	0.07	0.7	-2.4
25~29	1.6	3.9	5.9	0.9	-0.6	1.2
30~34	0.07	2.4	4.1	5.8	1.1	-0.4
35~49	3.3	2.7	2.2	2.2	4.2	3.3
50~59	2.6	3.0	3.7	4.3	2.2	1.6
60+	3.2	3.5	3.7	3.7	4.1	4.3

- 人口의 老齡化

- o 65세 이상 人口比率은 2001년에는 7%수준에 진입하고 2010년에는 9.4%, 2021년에는 13.1%로 높아질 전망이다
- o 따라서 全體扶養比는 변화가 없지만 老齡人口 扶養比는 계속 높아질 展望임  
( 90 7.2% → 2010 13.1% → 2021 1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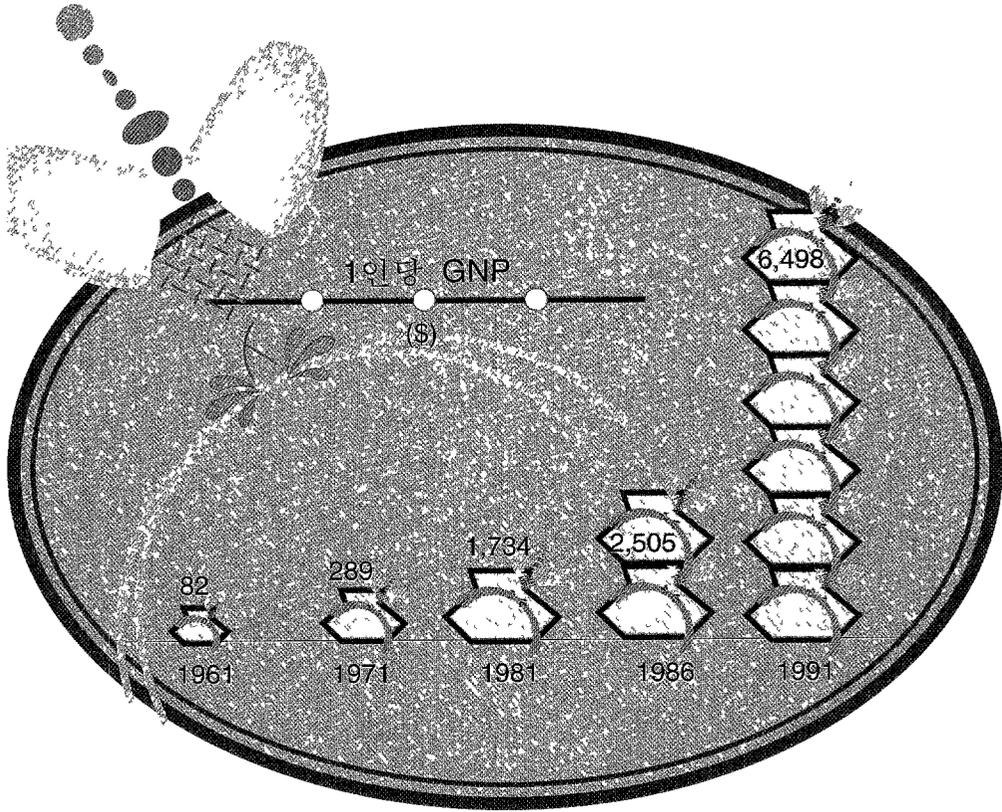
- 結婚適齡人口의 不均衡

- o 최근, 結婚適齡 男女人口의 均衡을 보이고 있으나, 2000년에는 119.4, 2005년에 110.2, 2010년에 128.6으로 結婚適齡 女子人口가 男子人口에 비해 相對的으로 적어짐에 따라 結婚行態에 변화가 예상됨

	1980	1990	2000	2005	2010	2020
성 비	78.6	104.7	119.4	110.2	128.6	106.8

\* 성비 = 결혼적령 여자인구( 20~24세 ) 100명당 남자인구( 25~29세 )비율

# 한국의 발자취



「30년전('61년) 당시 21억\$에 불과하던 국민총생산 (GNP)은 '91년 현재 2,808억\$로 134배 늘어났으며, 국민 1인당 GNP도 82\$에서 6,498\$로 79배 증가하였다」

- 자료중에서 -

통계로 본  
한국의 발자취(요약)

1992. 10

통계기획국 기획과

## 인 구

인구증가 억제 시책이 큰 성과를 이루어 출생률이 30년전에 비해 2배이상 낮아져 인구 증가율이 1% 이하로 떨어지고, 사망률이 낮아짐에 따라 국민의 평균수명이 크게 늘어났으며, 국민소득의 향상과 높은 교육열로 국민의 평균 학력수준도 고졸이상을 나타내는 등 인구규모나 질적 수준으로 보아 큰 발전을 이루었으나, 인구과밀화, 노령인구의 증가, 이혼율의 증가 등이 새로운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음.

- '91. 7 1 현재 총인구는 43,268천명으로 30년전인 '61년의 25,766천명에 비해 67.9% 증가하였고 남자는 68.3%, 여자는 67.5% 증가하였음.
- 인구증가율도 '61년 당시 3%에 달하였으나 '71년 2%, '81년 1.6% 수준을 거쳐 '91년에는 0.9% 수준으로 낮아졌음.
- 조출생률이 크게 낮아지고 조사망률이 상대적으로 완만한 하강곡선을 나타내면서 0~14세의 유년인구는 30년전 총인구의 42.9% 수준에서 '91년 현재 25.3%로 낮아졌고, 15~64세 인구는 54.2%에서 69.6%로 높아졌으며, 65세이상 노령인구도 30년전 2.9%에서 5.1% 수준으로 높아져 인구의 고령화 추이가 두드러지고 있음.
  - 이에 따라 경제활동인구(15~64세 인구)가 부양해야하는 인구 비중을 나타내는 총부양비(0~14세 및 65세이상 인구의 비중)도 30년전 84.7%에서 43.7%로 낮아짐.
- 국민의 학력(6세이상기준)도 국졸이하(6세아동중 미취학자 포함)는 약35년전('55년도)의 남녀 각각 85.8%, 95.8%에서, '90년에는 21.8%, 38.2%로 크게 떨어졌으며 고졸이상 학력자는 '55년 당시 남녀 각각 4.6%, 1.2%에서 '90년에는 61.4%, 42.9%로 커다란 학력 변화를 보였음.
- 남녀평균수명도 '66년당시 각각 59.7세, 64.1세였으나, '90년에는 67.4세, 75.4세로 높아졌음

- 가임여성 1명이 가임기간(15~49세)동안 낳는 자녀수도 '60년 당시 6.0명 이었으나 '90년에는 1.6명선으로 낮아졌고 특히 혼인연령이 높아지고, 조기단산이 늘어남에 따라 15~19세, 30~34세, 35세이상 등 여성의 출산율이 현저히 낮아졌음
- 인구천명당 혼인율(조혼인율)은 '70년이나 '90년 현재나 별반 차이가 없으나 인구천명당 이혼율(조이혼율)은 '70년 당시 0.39명에서 1.13명으로 높아졌음.
- 인구증가율이 크게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한정된 국토면적으로 인해 인구밀도는 30년 전 1㎢당 262명이었으나 '91년 현재는 436명으로 늘어나 인구과밀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
- 우리나라 사람들의 주요 사망원인은 '90년을 기준으로 볼때 남자의 경우 뇌혈관 질환, 교통사고, 만성간질환 및 경변증, 위암, 고혈압성질환, 간암 등이며, 여자의 경우 뇌혈관질환, 고혈압성질환, 위암, 교통사고 등으로 나타나고 있음
- 20년전인 '71년만 해도 인구 100명당 13.5명이 살던 지역을 떠나 이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도시화, 산업화가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 '81년에는 21.4명에 이르렀고 '91년 현재에도 전 인구의 2할 가량이 매년 이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고용·임금·근로

경제발전과 산업근대화에 따라 취업자 증대, 실업자수 감소는 물론, 취업구조의 변화, 여성취업자 증대, 산업재해율의 감소 등 괄목할 성과를 이루어 왔으나, 최근들어 근로시간 감소, 노동쟁의로 인한 노동손실일수 증대, 제조업 이직률 심화를 비롯 임금구조의 불균형 지속, 고령근로자의 증대 등 대처할 현안도 산적해 있음.

- 경제활동가능 인구를 나타내는 15세 이상 인구는 25년전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어났고, 이에 따라 경제활동인구도 2.1배 수준으로 늘어났으며 취업자수는 2.2배로 늘어났음  
실업자수는 '66년 당시 63만명선을 상회하여 실업률이 7.1% 수준이었으나, 높은 경제성장으로 실업자수는 44만명, 실업률은 2.3% 수준으로 낮아졌음.
- 25년전인 '66년 당시만해도 농림어업 종사자수가 전체 취업자의 57.8%에 이르렀으나 '91년 현재 16.7%로 크게 낮아진 반면, 광공업 취업자수는 10.8%에서 26.9%,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 서비스업 종사자수는 31.4%에서 56.4%로 높아져 취업구조상 커다란 변화를 보였음
  - 직업별로도 농림수산 종사자가 25년전 58.1%에서 16.6%로 크게 줄어든 반면 생산관련 종사자가 16.7%에서 34.9%로 2배이상의 비율 증가를 나타낸 것을 비롯, 전문기술직, 사무관련직, 서비스직 종사자들의 비율이 크게 늘어났음.
- 인구의 노령화 현상과 교육수준 향상으로 15~19세의 청소년근로자는 25년전 당시 12.6%에서 3.1% 수준으로 급감한 대신 50~59세 근로자수는 12.0%에서 15.9%, 60세 이상 고령근로자수도 4.0%에서 7.3% 수준으로 높아졌음.
- 여성의 취업기회가 확대되면서 '66년 당시 남녀별 취업자 구성비는 각각 65.2% 대 34.8%였으나 '91년 현재는 59.6% 대 40.4% 수준으로 접근하고 있음.

- 산업근대화가 추진되면서 제조업 입직률이 이직률을 앞서왔으나 최근에 들어 이직률이 입직률보다 높게 나타나 제조업 기피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 가운데 금융, 보험, 사업 서비스, 사회·개인서비스업은 입직률이 이직률을 상회하고 있음.
- 직장을 찾는 구직자수가 기업들의 구인수에 비해 높아왔으나 최근 5년전 부터 구직자수 보다는 구인수가 오히려 늘고 있어 산업현장의 인력난을 반영해 주고 있음
- 5년전까지만해도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전산업 평균52.5시간, 제조업의 경우 54.7시간이었으나, '91년 현재는 전산업 평균 47.9시간, 제조업의 경우는 49.3시간으로 줄어옴.
- 근로자 천명당 산업재해율은 20년전 당시만 해도 전산업 평균 53.5명에 이르렀으나 현재는 16.2명으로 매우 낮아졌으나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광업, 제조업 등에서는 개선되지 않고 있음
- 사무직 임금을 100으로 볼때의 생산직 임금비율은 20년전 당시 51.5%에 불과하였으나, '91년 현재는 84.9%에 이르러 사무직, 생산직간 임금 격차는 많이 개선되었으나, 행정관리직, 전문기술직과의 격차는 더욱 크게 나타나고 있음
- 제조업 평균임금을 100으로 볼때 20년전 당시 전기개스업은 285, 금융·보험·사업서비스업은 266,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은 175, 건설업은 160으로 큰 격차를 보였으나 점차 개선을 보여 '91년 현재 전기·개스업은 163, 금융·보험·사업서비스업은 135,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은 136, 건설업은 128로 나타나고 있음.
- 고졸 학력자의 임금을 100으로 볼때 20년전 당시 대졸자의 임금은 175였으며 이후 점차 확대되는 양상을 보여 220('76~'86년)이상으로 벌어졌으나 최근('91년)에는 179 수준으로 되돌아 와 있음.
- 남녀간 임금격차는 '76년 당시 남자 100 대 여자 44였으나, '91년 현재 100 대 54로 아직도 상당한 격차를 나타내고 있음.
- 최근들어 노동쟁의 참가인원이 늘어나면서 노동손실일수가 급격히 확대되어오고 있음.

## 국민계정 · 금융 · 재정 · 대외거래

국민총생산이 30년전에 비해 134배이상 늘어나고 국민 1인당 GNP 역시 30년전 당시 82\$에서 6,498\$로 크게 확대된 것을 비롯, 총저축률 및 국내총투자율의 향상, 수출·수입액 규모의 큰 폭 증가, 외국인 국내투자 및 내국인의 해외투자증가, 외환보유고 확대 등 국내경제력과 대외거래 규모가 현저히 증가하였음. 반면에 최근에 계속되고 있는 수출여건 악화에 따른 수출저조와 수입급증, 이로 인한 경상수지적자, 저축률의 투자율 하회, 인플레이션상 등 극복해 나아가야할 난제들도 쌓여 있음.

- 30년전('61년) 당시 21억\$에 불과하던 국민총생산(GNP)은 '91년현재 2,808억\$로 134배 늘어났으며 국민 1인당 GNP도 82\$에서 6,498\$로 79배로 증가하였음.
- 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구성비도 '71년 당시만해도 최종소비지출이 85.3%에 이르렀으나 '91년 현재는 63.6%로 줄어든 반면 총자본형성(총고정자본형성+재고증가)은 25.2%에서 39.1%로 확대되었음.
- 국내총생산(GDP)으로 본 산업구조는 '71년 당시 1차산업 27.2%, 2차산업 23.5%, 3차산업 49.3%였으나, '91년 현재는 1차산업 8.1%, 2차산업 27.9%, 3차산업 64.0%로 공업화·서비스업화가 급속히 진행되어왔음
- 30년전 11.7%에 불과하던 총저축률은 현재 36.1%로 확대되었고, 국민총투자율도 12.0%에서 39.3%로 크게 확대되었으나, 최근에는 총저축률이 국내총투자율을 하회하고 있어 국내투자재원 부족이 심화되고 있음.
- 수출증대 정책과 국제화 영향 등으로 수출입의 대GNP비율은 30년전 당시 20.3%에 불과하였으나 10년전('81년)에는 84.9%까지 확대되었고, 이후에는 내수확대 등으로 점차 축소되어 '91년 현재 63.1%를 나타내고 있음.
- 대외지불능력을 나타내는 금·외환 보유고는 '91년현재 137억\$로 30년전 당시에 비해 66배 늘어났고, 국민 1인당 부담능력도 4.8\$에서 317.4\$로 약40배 가까이 늘어났음

- 고도 경제성장과정에서 파생된 인플레이션도 만만치 않아 소비자물가지수로 환산하여 볼때 '65년 당시 1만원으로 살 수 있었던 화폐가치는 '91년 현재 622원어치 물건밖에 살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국민 1인당 저축성예금(예금은행 예금기준)은 30년전 당시 1천원에 불과하였으나 현재는 2,277천원에 이르고 있음
- 우리나라 총재정 규모는 25년전 2,310억원에서 '91년 현재는 59조2,457억원으로 256배 늘어났으며 GNP대비로는 22.3%에서 28.8%로 증가하였음.
- 중앙정부의 세출구성비를 보면 '76년이후 국방비의 비중이 점차 축소('72년 26.0%에서 '91년 22.1%)되고 있는 가운데 보건·사회복지('72년 6.2%에서 '91년 11.1%), 주택·지역개발비의 비중('72년 0.9%에서 '91년 7.7%)이 높아지고 있음
- 재정규모의 확대, 국민경제력의 향상 등으로 국민의 조세부담률도 30년전 당시 GNP대비 9.6%에서 19.4%로 높아졌으며, 1인당 담세액도 '61년 당시 1,100원에서 '90년 현재로는 767,200원(경상가격) 수준으로 높아졌음
- 경상수지는 '86~'89년에 흑자를 나타내었으나, 이후 다시 적자로 반전하였음
- 무역외수지중 그간 흑자를 지속해 오던 여행수지도 최근의 해외여행 자유화 풍조에 따라 '91년에는 358백만\$ 적자를 나타내고 있음
- 국민 1인당 총외채 규모는 '61년당시 83백만\$에서 점차 확대되어 5년전인 '86년만도 445억\$에 이르렀으나, 이후 점차 축소되다가 최근에 다시 늘어나 '91년현재 391억\$에 이르고 있음.(국민 1인당으로는 '61년 3\$에서 '91년 현재 904\$수준), 반면에 우리의 대외자산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관계로 이를 차감한 순외채규모는 '91년 현재 119억\$(국민 1인당 기준으로는 276\$) 수준을 보이고 있음.
-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인 투자도 10년전만해도 153백만\$(총인가기준)이었으나 '91년에는 1,396백만\$로 약9배 늘어났으며, 외국에 대한 우리의 해외투자도 '81년 당시 109백만\$(총허가기준)에서 '91년 현재 1,606백만\$로 약14배이상 늘어났음.

- 30년전만해도 약41백만\$(국민 1인당 1.5\$)에 불과하였던 우리의 수출액은 '91년 현재 71,870백만\$ (국민 1인당 1,660\$)로 무려 1,757배(국민 1인당으로는 1,066배) 늘어났으며, 수입액도 30년전 당시 316백만\$(국민 1인당 12\$)에서 현재에는 81,525백만\$(국민 1인당 1,884\$)로 258배(국민 1인당으로는 157배) 늘어났음.
- 우리나라 수출액중 일본점유비는 30년전 당시 46.3%에서 '91년현재 17.2%로 그 비중이 크게 낮아진 반면 수입액중 일본 점유비는 30년전 당시 21.8%에서 점차 높아져 왔으나 최근에는 다소 낮아져 '91년현재 25.6% 수준에 이르고 있음. 한편 미국으로의 수출액 비중은 '61년 당시 17.0%에서 한때 50% 가까이 크게 높아져 왔으나, 최근에는 급속히 낮아져 현재 25.8%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수입액 비중은 '61년 당시 45.3%에서 '91년 현재 23.2%를 나타내고 있음.
- 지난 2월 결성 합의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지역에 대한 수출·수입액 비중은 '61년 당시 각각 17.0%, 46.1%에서 '91년에는 29.2%, 25.8%를 나타내고 있음.
- 북방교역 증대에 따라 대중국 수출은 '81년 당시 4.6백만\$에서 '91년 현재 1,002.5백만\$, 수입은 '81년 70백만\$에서, '91년 3,440백만\$로 수입초과가 확대되어 오고 있고, 독립국가연합과는 '81년 당시 수출, 수입액은 각각 1.5백만\$, 9.9백만\$ 수준이었으나, '91년에는 각각 623.3백만\$, 577.3백만\$로 최근들어 다소 흑자를 나타내고 있음.

# 산 업

## 1. 농림어업

- 총인구중 농가인구비율이 '61년 당시 56.3%에서 '91년 현재 14.0%로 감소한 가운데 농촌 인구의 노령화 현상이 가속되고 있고, 외국 농림축산물 수입급증으로 농촌의 어려움이 높아지고 있음
- 농가인구 비율은 30년전 총인구의 56.3%에서 계속 감소하여 '91년 현재 14.0%로 낮아졌으며 농촌인구도 점차 노령화 현상을 나타내어 50세이상 인구비율이 '71년 당시 16.3%에서 '91년 현재 39.1%로 높아졌음.
- 농가소득은 '91년 현재 호당평균 연간 13백만원으로 20년전('71년)에 비해 약37배 늘었으나, 이중 농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은 '71년 81.9%에서 '91년 53.7%로 낮아지고, 농외소득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음.
- 농업경영비도 '91년 현재 3,062천원으로 20년전에 비해 47배이상 늘어났으며, 이중 농업용 자재비·비료비·가축 사육비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농가가계비 지출에서도 음식물비의 비중이 '61년 59.7%에서 '91년 22.8%로 크게 낮아진 대신 교육·교양·오락비, 주거비, 잡비의 비중이 크게 늘어나고 있음.
- 30년전에 비해 한·육우 사육마리수는 61.8%, 젖소는 496배, 돼지는 4배, 닭은 약7배 가까이 늘어났으며, 최근에는 일부 농가에서의 사슴사육이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음.
- 농림수산물 수출은 '70년 당시 218백만\$에서 '91년 현재 2,986백만\$로 13.7배 늘어났으나, 농림수산물 수입은 '70년 469백만\$에서 '91년 6,931 백만\$로 14.8배 늘어나 수입 초과에 따른 적자폭이 확대되고 있음.
- 어가수는 '61년 당시 191.9천호에서 '91년 현재 119.8천호로 38% 감소하였고, 어가인구는 '61년 당시 총인구의 3.2% 수준에서 '91년 현재 1.1% 수준으로 낮아졌음.

- 어획량은 '62년 당시 419천M/T에서 '91년에는 2,514천M/T으로 약6배가량 늘어났으며, 이중 원양어업에 의한 어획량은 '62년 7백M/T에서 '91년 874천M/T으로 약1,330배 늘어났고 총어획량중 점유비도 0.2%에서 34.7%로 확대되었음.

## 2. 광업 및 제조업

- 광업은 퇴조한 반면, 제조업은 경제성장의 주축으로 크게 성장하였음. 제조업체수가 30년전에 비해 4.3배, 종업원수가 9.2배 늘어난 것을 비롯, 제조업 각 부문에서의 신장세가 크게 두드러졌으나, 최근들어 자국이익 우선주의의 팽배, 개방화의 급속한 진전, 경제블러화, 무역장벽의 심화 등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에 있음.
- 광산물생산량중 무연탄은 '91년현재 15백만톤으로 30년전에 비해 2.6배 늘어난 수준이나, 채산성 악화와 연료대체 현상으로 폐광이 늘어나면서 '86년이후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철광, 텅스텐광 생산량도 30년전에 비해 각각 55%, 78% 감소하였고, 동광은 생산이 극히 미미한 실정인데 반해 금, 은생산량은 각각 8배, 18.5배 늘어난 수준에 있음.
- 급속한 공업화의 진전에 따라 종업원 5인 이상 제조업 사업체수는 30년전의 15,928개 업체에서 '90년말 현재 68,872업체로 4.3배 늘어났으며, 제조업 종사자수는 327천명에서 3,020천명으로 9.2배 늘어났고, 출하액은 경상가격기준으로 2,577배, 부가가치 역시 3,084배, 1개사업체당 부가가치는 736배 늘어났음. 한편, 5인 이상 제조업체 중 종업원 5~19인 이하의 영세 소규모업체 비율은 '66년 당시 80.1%에서 '90년말 현재 60.6%로 줄어 들었으나 20~49인 이하 업체수는 6.1배, 50~99인 업체수는 6.3배, 100~499인 이하 업체수와 500인 이상 업체수는 각각 5.4배 늘어났음.
- 음식료품 산업중 주류제조업의 추이를 보면 '83년 현재 주류출고량은 2,189천kl로 국민 1인당 소비로 따져 55ℓ 수준이었으나 '91년 현재 2,793천kl로 국민 1인당 65ℓ 수준을 나타내고 있음. 한편 담배생산은 '71년 당시 2,480 백만갑에서 '91년 현재 4,666백만갑으로 20년동안 88.2% 증가하였고, 국민 1인당 흡연량(외산담배 포함)은 '71년 75갑에서 '91년 114갑(18세이상 인구로 보면 147갑에서 165갑)으로 늘어났음.

- 섬유산업중 소모방적제품 수출추이를 보면 20년전에 비해 순소모사는 31배, 모혼방사는 100배, 순모직물은 19배, 모혼방직물은 1,297배, 모·화섬세타류는 22배, 양말은 4,097배 늘어났음. 그러나 10년전과 비교하면 증가율이 크게 떨어지고 있으며, 특히 모·화섬세타류는 오히려 감소하고 있음.
- 가구생산도 20년전에 비해 장롱은 16.8배, 화장대는 10.1배, 식탁은 14.7배 증가하였으나 최근에 들어 증가율이 크게 낮아졌음.
- 종이생산은 '91년현재 4,922천톤으로 '60년에 비해 89.8배 늘어났으며, 국내소비량도 57.8배 늘어났음. 이에 따라 국민 1인당 종이 소비량도 30년전 3.4kg에서 '91년현재 112.5kg으로 33.1배 증가하였으며, 폐지 회수율은 30년전 8.9%에서 43.0%로 높아지긴 하였으나, 아직도 폐지 사용량의 43%를 외국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임.
- 기초 석유화학물인 에틸렌과 프로필렌, 벤젠 생산량은 15년전인 '76년에 비해 각각 16.2배, 14.1배, 10.0배 증가하였으며, 석유화학제품중 합성수지는 10년전에 비해 4.7배, 합성섬유원료는 4.3배, 합성고무는 2.2배 증가하였음. 한편 화학섬유는 폴리에스터 섬유가 20년전에 비해 48.5배 증가한 것을 비롯 아크릴은 10.3배, 나일론은 9.2배, 아세테이트는 5.5배 증가하였음.
- 기타 화학산업중 의약품·의료용품(화장품 포함)산업도 크게 성장하여 30년전에 비해 수출액이 229배 늘어났으나, 이 기간중 수입액은 무려 353배 늘어나 현저한 수입초과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 한편 비누생산은 20년전에 비해 2.8배, 세제생산은 20.6배 늘어났음.
- 석유정제 능력은 '66년에 비해 27.3배 늘어났으며, 석유정제량은 '91년현재 408백만 배럴로 동 기간중 31.6배 늘어났고, 이 중 경유는 33배, 방카C유는 53배, 제트유는 24배, 휘발유는 14배이상 늘어났음
- 시멘트 생산은 '91년현재 38백만톤으로 30년전에 비해 75배 늘어났으며 국민 1인당 소비량은 30년전 22kg에서 '91년 현재 858kg으로 39배 늘어났으며, 레미콘 출하량의 경우 20년전에 비해 257배 늘어났음.

- 철강생산(조강환산기준)은 '91년현재 26백만톤으로 20년전에 비해 48배, 철강소비량은 14배, 1인당 철강소비량은 11배('71년 56kg, '91년 605kg) 늘어났으며, 철강자급도는 거의 100%수준에 이르고 있음. 철강제품의 연속주조비율은 10년전의 44.3%에 비해 96.4%로 2배이상의 비율증가를 나타내고 있음.
- 전자공업 생산액은 '91년현재 331억\$로 20년전에 비해 240배, 국내시판액은 161배, 수출액은 217배 늘어났고, 수입액도 98배 늘어났고, 총수출액에 대한 전자산업제품 수출액 비중은 20년전 8.3%에서 26.9%로 신장하였음.
  - 산업용 전자기기 수출액은 '91년현재 39억\$로 10년전에 비해 26.9배 증가하였고, 이중 컴퓨터 수출액은 무려 207배 증가하였음.
  - 가정용 전자기기 수출액은 '91년현재 61억\$로 10년전에 비해 5.4배 증가하였고, 이중 칼라TV는 8.1배, 전자렌지는 27.8배의 수출증가를 보였으나, 최근들어 수출신장률이 낮아지고 있음.
- 자동차 생산량은 '91년현재 전차종 기준으로 1,498천대로 20년전에 비해 52배 늘어났으며, 이중 승용차는 82배, 버스·트럭등 상용차는 24배 증가하였음.
- 선박수주량은 '91년현재 5,434천G/T으로 10년전에 비해 2.9배, 건조량은 3.8배 늘어났으며 미건조 수주잔량은 2.8배 증가하였음
- 최근 완구산업은 수출부진으로 생산이 크게 위축된 가운데, 수입완구비율이 확대되고 있음.
- 악기류 수출액은 '91년현재 255백만\$로 10년전에 비해 4.8배(이중 피아노는 4.2배) 늘어났으나, 이 기간중 악기류 수입액은 9.1배에 이르고 있어 비록 금액상으로는 수출액의 1/4정도에 그치고 있긴하나, 증가폭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음.

### 3. 전기·가스·건설업

- 30년전 우리나라 발전설비 능력은 367천KW로 수력 39.1%, 화력 60.9%의 구성비를 보였으나, '91년 현재 발전설비능력은 21,111천KW로 수력은 11.6%, 화력은 52.3%로 구성비가 낮아진 대신 원자력은 36.1%로 크게 신장하였음.
- 총발전량은 30년전 1,773GWH에서 118,619GWH로 67배 가량 늘어났고, 이에 따라 국민 1인당 전력소비량도 46KWH에서 2,412KWH로 52배 늘어났음.
  - 전기공급능력은 30년전에 비해 62.6배, 최대전력은 62.5배, 평균전력은 67.0배로 늘어났으나 최근 공급예비율이 급속히 낮아져 '91년 현재 5.4%에 불과한 실정임.
  - 20년전 주택용전력은 전체전력소비량의 10.9% 수준이었으나 현재는 18.7% 수준으로 높아졌으며 상대적으로 생산부문전력은 67.5%에서 62.5%로 다소 낮아졌음.
- 에너지 공급원의 국내생산은 30년전에 비해 2.6배(석유환산 에너지기준) 늘어났으나 수입에너지는 이 기간중 113배로 늘어나 에너지 수입의존도는 30년전 8.6%에서 '91년 현재 80.3%로 크게 높아졌음.
  - 가장 주요한 에너지원인 원유도입액은 '91년현재 7,824백만\$로 25년전('66년)에 비해 263배 늘어났으며 국민 1인당 부담액도 1\$에서 약181\$로 높아졌음.
- 약20년전인 '72년 당시 도시가스 공급 호수는 약7천호, 공급량은 1,539천㎥ 이었으나, '91년 현재 공급호수는 1,579천호, 공급량은 약 1,467백만㎥으로 각각 239배, 953배 늘어났으며, 공급호수당 공급량도 233㎥에서 929㎥으로 약4배 늘어났음.

### 4. 기타산업

- 건설업 사업체수는 20년전에 비해 6.5배 늘어났으며 종사자수도 3.5배 늘어났고, 국내 공사 시공액은 183배, 부가가치는 201배 늘어났음.
  - 해외건설공사 수주액은 10년전의 중동붐 당시에 비해 77.8% 줄어들었으나, 동남아 지역 공사수주액은 2.3배 늘어났음.

- '91년현재 건축허가면적은 105백만㎡로 30년전에 비해 약91배 늘어났고, 이중 주거용 면적은 125배, 공업용은 22배 늘어났음.
- 20년전에 비해 공설시장수는 약20.5% 줄어 들었으나 사설시장수는 3.6배 늘어났으며, 최근 들어 백화점·쇼핑센터·대형점 등이 늘어나고 있음.
- 음식점 및 주점은 '91년현재 276천개소로 30년전에 비해 9.4배 늘어났고, 다방은 13.6배 증가하였으며 호텔은 9.1배, 여관 및 여인숙은 5.0배 늘어났음.
- 국내여객수송 현황을 보면 도로 여객수송은 30년전에 비해 21.9배 도로화물수송은 16.0배 늘어났으며, 철도여객수송은 78.7%, 화물수송은 4.0배 증가하였음. 한편 항공편 국제여객수송은 331배, 항공편 국제화물수송은 262배 늘어났음.
  - 도로길어도 일반도로가 30년전에 비해 2.1배 늘어났고, 일반도로 포장률은 39.6배에 이르고 있으며, 고속도로 길이는 20년전에 비해 2.4배 늘어났음
  - 자동차수의 급증으로 정비기능사 1인당 자동차수는 20년전에 비해 12.5배, 정비공장 당 자동차수는 16.2배, 자동차검사장 1개소당 자동차수는 28.1배로 증가하였음
- 항만하역능력은 30년전에 비해 27.5배 늘어났음.
- 증권업의 성장도 두드러져 주식상장회사수는 20년전에 비해 13.7배, 상장종목수는 16.3배, 주주수는 17.5배, 상장주식수는 30.0배, 상장주식 시가총액은 672.7배, 주식 거래량은 81.0배로 늘어났음.
- 보험업의 신장세도 크게 두드러졌는데 수입보험료는 30년전에 비해 무려 26,786배 (생명보험은 48,443배, 손해보험은 9,460배) 증가하였고, GNP대비 보험료는 37.7배, 국민 1인당 보험료는 18,573배 증가하였음
- 목욕장업은 30년전에 비해 10.6배, 이용업은 2.3배, 미용업은 7.8배 늘어났음.
- 사설강습소도 크게 늘어나 약20년전에 비해 문리강습소는 14.0배, 기술강습소는 16.2배, 예능강습소는 37.8배, 사무강습소는 42.4배 늘어났으며, 수강자수도 크게 늘어났으나 가정부문 강습소는 유일하게 크게 감소(-73.0%)하였음.

## 의료·사회·복지·환경

의료인력, 의료시설의 증가, 전염병 발생률 급감 국민영양공급량 증가 및 질의 향상, 국민체력의 향상등 의료·보건지표면에서도 상당히 개선된 면모를 보이고 있고, 상수도 보급률, 전화보급률, 자동차보급률 등 사회관련지표도 현저히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반면에 범죄율 증가, 마약사범 증가, 교통사고율 증가 등 바람직 하지 못한 현상도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으며, 환경·공해관련 시설업소수도 크게 늘어나고 있어 이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임.

- 의사 1인당 인구수는 30년전 3,066명에서 '91년현재 951명으로 3.2배 가량 줄어들었고, 병·의원 1개소당 인구수도 5,332명에서 3,535명으로 34% 줄어들었으며 1개 병상당 인구수도 2,514명에서 404명으로 6.2배 줄어들어 의료인력이나 시설은 상당폭 개선 되었음
  - 30년전 당시만해도 홍역, 백일해 등 전염병이 극성을 부렸으나, 의료·보건환경의 향상으로 현재는 당시의 1~1.5% 수준으로 급감하였고, 신규 소아마비 환자는 현재 보고되지 않고 있음.
  - 조사망률이 줄어들고, 국민의 평균수명이 늘어났으며, 25년전('66년) 당시만 해도 영아천명당 60명 정도가 사망하던 것이 현재는 13명 수준으로 줄어들었음.
  - 약20년전만해도 5세이상 인구 백명당 결핵유병률이 4.2명이었으나 '90년 현재 1.8명으로 줄어들었음.
- 국민 1인 1일당 영양공급량은 열량기준으로 약30년전 2,218kcal에서 '90년 현재 2,858kcal로 늘어났고, 이중 단백질은 60.8g에서 89.4g으로 늘어났으며, 지방질은 14.8g에서 72.3g으로 늘어났음.
  - 식품별 공급량을 보면 식물성식품은 823.5g에서 1,044.0g으로 증가하였는데 곡류는 감소한 대신 과실류(18.1g에서 79.5g으로 증가) 증가가 현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동물성 식품은 57.8g에서 296.5g으로 증가하였는데 육류는 13.2g에서 64.7g으로 4.1배, 어패류는 37.6g에서 83.7g으로 87% 증가하였음

- 보건지표의 하나인 학생신장 및 체중증가추이를 보면 '62년 당시 11세(국민학교 6학년 적령) 남학생 신장은 130.4cm, 여학생 신장은 128.4cm였으나 '91년 현재 각각 144.4cm 145.9cm를 보여 남녀 각각 14.0cm, 17.5cm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 체중 역시 11세 아동을 기준으로 볼때 남학생은 27.8kg에서 37.6kg으로 9.8kg 증가하였고, 여학생은 27.0kg에서 38.3kg으로 11.3kg 증가하였음
- 도시근로자 가구소득은 '91년현재 월평균 1,159천원으로 20년전에 비해 34.8배 증가하였고, 가계지출은 28.2배 증가하였으며 가계당 흑자는 105배에 이르렀음.
  - 도시기구당 월평균 소비지출 내용을 보면 식료품비는 20년전 당시 47.6%를 차지하였으나 '91년현재는 31.4%로 줄어들었으며, 이중 외식비 비중은 0.9%에서 6.8%로 크게 증가하였음 한편 광열·수도비, 피복·신발비 등의 비중이 낮아진 대신 주거비, 보건의료비, 가구집기비, 교육·교양·오락비, 교통·통신비 및 잡비 등 기타 소비지출의 비중이 높아졌음.
- 주택보급률은 '62년당시 82.4%였으나, 이후 계속적으로 낮아지다가 최근에 들어 개선되는 양상을 나타내어 '91년현재 74.2%를 나타내고 있으며, GNP대비 주택투자비율도 '60년대 1%선, '70~'80년대 4~5%선에서 '90년대에는 9%선에 이르고 있음
- 상수도 보급률은 30년전 당시 17.3%에서 현재 81.2%로 크게 높아졌고 1인 1일당 급수량도 102ℓ에서 372ℓ로 3.6배 늘어났음.
- 국민 100인당 전화보급률은 전화기 기준으로는 30년전 0.5대에서 40.9대로, 가입자 기준으로는 0.4명에서 33.7명으로 늘어났음.
- 인구 1인당 우편물 이용통수는 30년전 6.1통에서 '91년현재 60.4통으로 10배이상 늘어났고, 인구만명당 우체통수는 2.7개에서 12.8개로 늘어났음.
- 인구천명당 자동차 보유대수는 승용차, 상용차를 모두 포함한 전차종으로는 '62년 1.2대에서 '91년현재 98.2대로 늘어났으며, 자가용 승용차만으로 보면 0.1대에서 58.7대로 늘어났음.

- 고속도로 이용차량은 20년전('71년)에 10 5백만대였으나 '91년현재 309 3백만대로 약30배가량 늘어났고, 고속도로 이용차량중 승용차, 승합차 등 소형차의 점유비는 44.8%에서 72.9%로 늘어났음.
- 30년전 당시 내국인 해외출국자는 국민 1만명당 4 4명 수준이었으나 '91년현재 436.6명으로 99배가량 늘어났고 외국인 입국자수도 30년전에 비해 약287배 가량 늘어났음.
- 외국인 1인당 국내체류여행경비는 30년전 149\$에서 현재 1,146\$로 7 7배 늘어난데 비해, 내국인 해외여행경비는 213\$에서 1,701\$로 8.0배 늘어났음.
- 우리나라 사람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국가는 일본, 미국, 홍콩순이며 일본으로의 출국자는 20년전에 비해 16.5배가 늘어나고 있음. 한편 외국인 입국자를 국적 별로 보면 일본, 미국, 대만순이며, 일본인 입국자수는 20년전에 비해 15.8배 늘어났음
- 연간 화재발생건수도 30년전에 비해 7배가량 늘어나고 있고, 이로 인한 재산피해액도 약20배가량 늘어나고 있음
- 30년전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하는 사망자수는 1일평균 3.2명, 인구10만명당 4 5명 수준이었으나, '91년 현재 1일평균 36.8명, 인구10만명당 31.0명으로 증가하였음
- 형법범죄는 '72년에 비해 약26% 늘어났으나 10년전 또는 5년전에 비해서는 각각 21%, 12%씩 줄어들고 있음 그러나 살인, 강도, 강간 등 강력범죄는 약20년전에 비해 61%, 10년전에 비해 26%, 5년전에 비해 약4%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19세이하의 소년범죄 건수도 약20년전('72년)에 비해 2배가량 늘었으나, 최근에는 다소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소년범죄중 취중 또는 우연 등 우발적 동기로 인해 범죄를 일으키는 비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가정·사회 모두 관심을 기울여야 할 문제라 할 것임.

- 아동복지시설 및 소년·소녀 수용시설수는 수용자수가 점차 줄어들음에 따라 감소추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전체로 보면 30년전에 비해 수용자수는 56%가 감소하였고, 시설수는 45% 감소하였음.
- 양로시설수는 30년전에 비해 2.7배 늘어났고 수용인원 역시 3.0배 늘어났음
- 장애인시설수는 20년전에 비해 3.3배 늘어났으며 수용인원은 73.3% 늘어났음.
  - 장애자를 위한 특수학교수도 20년전에 비해 2.8배 늘어났으며, 학생수는 4.3배 증가하였음.
- 전국 소년소녀가장수는 5년전에 비해 14.3% 늘어났으며 소년소녀가장 가구의 가구원수는 5.7% 늘어났음.
- 10년전에 비해 대기배출시설 업소수는 83% 늘어났으며, 소음 및 진동시설 업소수도 5년전에 비해 86% 증가하였음. 한편 폐수를 배출하는 업소수도 약10년전에 비해 5.2배 늘어난 수준에 있어 환경·공해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음.
- 산업용 폐기물을 제외한 일반쓰레기 하루평균 발생량은 5년전에 비해 51% 늘어났는데 '91년 현재 8톤 트럭 기준으로 하루평균 11,530대가 동원되어야 할 분량의 일반쓰레기가 발생하고 있음.
  - 국민 1인 1일당 쓰레기 발생량도 '86년 1.48kg에서 '91년현재 2.13kg으로 약44% 증가하고 있음.

## 교육·문화

- 각급 학교 취학률이 크게 높아지는 등 교육수준이 크게 향상되었고 학급당 학생수, 교사 1인당 학생수 등 교육여건도 상당히 개선되었으나, 아직도 일부 국민학교에서는 과밀 학급과 2부제 수업이 계속되고 있는 등 불균형 상태가 병존하고 있음. 공공도서관 이용, 도서발행 등 독서문화분야도 상당히 향상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30년전에 비해 유치원수는 26배, 유치원 원아수는 29배 늘어나 취원율도 30년전 100명 당 0.8명(4~5세아를 적령으로 봄)에서 33.0명으로 증가하였음.
- 국민학교 학급당 학생수는 30년전 62.9명에서 현재 40.6명으로 줄어들었고, 교사1인당 학생수도 61.2명에서 34.4명으로 크게 개선되었음.
- 그러나 일부지역의 인구편중 현상으로 61명이상을 수용하고 있는 과밀학급수가 아직도 전체학급수의 2%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30명이하 학급수는 전체학급의 21.5%에 이르고 있음. 한편 아직도 2부제 수업을 부분적이거나 하고 있는 학교수는 전체의 16.3%, 학급수로는 6.0%를 점하고 있음
- 중학교 학생 취학률은 30년전 당시 38.1%였으나 '91년 현재 95.8%로 2.5배 늘어났고, 여학생비율도 20년전 39.1%에서 48.4%로 높아졌음.
- 고등학교 학생 취학률은 30년전 당시 19.8%에 불과하였으나 '91년현재 88.4%로 약4.5배 늘어났고 여학생비율도 20년전의 37.8%에서 47.3%로 높아졌음.
- 대학교(전문대학이상) 학생취학률은 30년전 당시 7.3%에서 39.1%로 약5.4배 가량 높아졌고, 이에 따라 인구 천명당 학생수도 5.5명에서 33.0명으로 높아졌으며 여학생비율도 30년전 17.5%에서 31.6%로 높아졌음.
- 당해년도 졸업자중 국민학교에서 중학교로 진학하는 학생비율은 '70년당시 66.1%에서 99.8%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학생비율은 70.1%에서 97.4%, 고등교육(전문대 이상) 진학 학생비율은 26.9%에서 33.2%로 높아졌음.

- 공공도서관수는 약30년전('62년)에 비해 13.4배 늘어났으며, 이에 따라 도서관 1개소 당 인구수는 1,326명에서 161명으로 줄어들었으며, 열람석 1석당 인구수도 6,241명에서 275명으로 크게 줄어들었고, 인구 천명당 공공도서관 장서수도 34.4권에서 205권으로 확충되었음.
- 국내정기간행물은 30년전에 비해 17.3배 늘어났으며, 이중 주간지는 40.5배, 월간지는 15.0배 늘어났음
- 총도서발행 종류수(초판기준)도 20년전에 비해 9.1배 늘어났고, 이중 순수과학, 기술과학도서의 증가율이 매우 높은 것을 비롯 종교도서, 아동도서 등이 크게 늘어났음.
- 전국의 극장수는 소극장을 포함하여 30년전당시 302개소였으나, '91년 현재 762개소로 2.5배 늘어났으나, 1인당 연간 관람회수는 2.3회에서 1.2회로 줄어들었음.
  - 국산영화 수출은 10년전에 비해 2.1배(금액기준) 늘어났으나, 외국영화수입은 6.3배 늘어나 '91년 현재 31,521천\$의 수입초과를 나타내고 있음.
- 체육·취미·여가활용 등에 대한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프로체육인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91년 현재 프로선수수는 2,213명으로 '82년에 비해 37.7% 증가하였으며 이중 야구선수수는 3.3배 축구선수수는 4.8배('83년 대비), 골프선수수는 8.7배 늘어났음. 반면 권투선수수는 55.7% 감소하였음.

## 기술·연구개발

연구기관수와 연구원수가 증가하고 있고, 외국에서의 기술도입도 늘어나는 등 기술·연구개발을 위한 움직임이 다소 두드러져 나타나고 있기는 하나, 아직 매출액대비 연구개발투자비율, 특허권 출원 등이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음.

- 연구기관수는 '65년 105개 기관에서 '90년현재 2,105개 기관으로 20배 늘어났고, 연구원수도 2,765명에서 70,503명으로 25.5배, 인구만명당 연구원수로는 1.0명에서 16.4명으로 늘어났음.
  - 한편 연구개발비(경상금액기준)도 '65년 21억원(GNP대비 0.26%)에서 '90년현재 3조 2,105억원(GNP대비 1.87%)으로 1,529배 높아졌음.
  - 연구원수를 전공별로 보면 10년전에 비해 공학계 연구원이 4.4배 늘어난 것을 비롯, 의학계 2.9배, 이학계 2.8배 등으로 늘어났음.
- 제조업의 매출액대비, 연구개발투자비율은 '83년 당시 0.8%였으나, '90년현재 1.96%로 늘어났고 전기·전자업종과 과학·측정·제어장비 업종의 투자비율이 높은 반면, 철강산업, 음식료품 산업 및 섬유·의복산업 등은 낮게 나타나고 있음
- 기술도입도 크게 늘어나 '76년에 비해 도입건수로는 4.4배, 대가지급액 기준으로는 38.8배가 늘어났음.
  - 기술도입건수나 금액이 가장 많은 업종은 전기·전자업종으로 10년전에 비해 건수로는 5.2배, 대가지급기준으로는 28.2배 늘어났으며, 다음으로는 기계·조선업종으로 건수로는 61.8%, 대가지급기준으로는 10.8배 늘어났음.
  - 기술수출은 아직 미미한 수준이긴하나 '90년현재 21.8백만\$로 '82년에 비해 20% 늘어났음.
- 산업재산권 출원도 크게 늘어나 총출원 건수는 30년전에 비해 25.8배, 이중 특허권은 32.8배 늘어났으며, 특히 총출원건수중 외국인 출원건수가 30년전에 비해 82.4배가 늘어나고 있음.

## 기 타

- 우리나라의 구시군(특별시·직할시가 아닌 시의 구는 제외)수는 '92. 3월현재 260개로 30년전에 비해 48.6% 늘어났으며, 읍면동수는 36.4% 늘어났음.
- 공무원 1인당 대국민수를 보면, 경찰공무원 1인당 대국민수는 20년전 756명에서 509명으로, 소방공무원 1인당 국민수는 33,761명에서 3,224명으로, 체신공무원 1인당 국민수는 1,863명에 1,329명으로 나타나고 있음.
- 정부기관의 민원사무처리건수는 '73년에 비해 약 4.5배 늘어났고, 이중 각종 증명발급·확인건수는 4.3배, 인·허가, 면허, 승인건수는 6.5배, 등록·신고 등 건수는 5.8배 진정·건의·질의 등 건수는 2.1배 늘어났음.
- 30명 이상의 다수인이 관련된 집단 민원 발생건수도 5년전에 비해 77.0% 늘어났으며, 특히 건축·도시계획등 건설분야의 집단민원은 2.2배 늘어났음.
- 최근 이혼건수가 늘어나고 있음에 따라 10년전에 비해 협의이혼 처리건수는 64.1% 늘어났고, 재판에 의한 이혼건수는 2.5배 늘어났음. 한편 이름을 바꾸는 개명처리건수도 10년전에 비해 33.0% 늘어나고 있음

**여 백**

# < 통계 표 >

**여 백**

< 인 구 >

	총 인 구 (천명)		인구증가율 (비전년,%)	인구밀도 (명/k㎡)	조출생률 (천명당)	조사망률 (천명당)	인구이동률(백명 당)			
	남	여					총이동률	시·도내	시 도간	
1961	25,766	12,937	12,829	3.0	262	...	...	...	...	...
1971	32,883	16,649	16,234	2.0	335	29.5	9.8	13.5	9.2	4.3
1981	38,723	19,536	19,187	1.6	391	23.0	6.6	21.4	14.1	7.3
1986	41,184	20,764	20,420	1.0	415	16.5	6.1	21.2	13.8	7.4
1991	43,268	21,775	21,493	0.9	436	15.5	5.8	20.6	13.8	6.8

1) 1970년 자료

	국민의 학력(6세이상 기준)				조혼인율 (천명당)	조이혼율 (천명당)	합 계 출산력	평균 수 명 (세)		40대 사망률 (천명당)		50대 사망률 (천명당)			
	중졸이하(%)		고졸이상(%)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1966	88.3	95.9	11.7	4.1	...	...	4.8	59.7	64.1	5.4	4.3	22.9	9.5		
1970	83.9	93.7	16.1	6.3	9.3	0.39	4.5	59.8	66.7	8.4	4.8	18.5	9.9		
1980	72.1	84.5	27.9	15.5	10.6	0.65	2.7	63.8	72.2	8.9	3.7	18.5	7.7		
1985	62.2	75.9	37.8	24.1	9.3	0.99	1.7	64.9	73.3	8.3	3.4	16.8	7.0		
1990	38.6	57.1	61.4	42.9	9.5	1.13	1.6	67.4	75.4	6.8	2.7	14.2	5.8		

1) 1983년 자료

	인구 10 만 명 당 사 망 률				남 자 10 만 명 당 사 망 률				여 자 10 만 명 당 사 망 률			
	뇌혈관 질 환	고혈압 성질환	위 암	교 통 사 고	뇌혈관 질 환	고혈압 성질환	위 암	교 통 사 고	뇌혈관 질 환	고혈압 성질환	위 암	교 통 사 고
1981	54.0	58.8	25.3	20.5	57.6	64.0	29.7	30.0	51.0	54.2	20.9	10.1
1983	89.8	24.2	28.1	25.0	90.9	25.9	32.6	35.7	91.0	22.9	23.4	12.8
1985	76.1	47.9	32.7	18.3	80.2	56.0	40.2	27.2	72.3	40.0	24.8	9.1
1987	73.5	45.2	32.8	23.7	75.4	50.0	40.5	35.0	72.1	40.4	24.8	11.8
1990	75.7	35.6	31.5	39.7	75.0	36.8	39.1	58.1	77.3	34.7	23.6	20.4

< 고용·임금·근로 >

	경제활동 인구					산업별 취업자 구성 (%)			직업별 취업자 구성 (%) <sup>1)</sup>		연령별 취업자 구성 (%)			
	(천명)	참가율(%)	취업자	실업자	실업률(%)	농림어업	광공업	SOC및 기타	사무직	생산직	15~19세	20~49세	50~59세	60세 이상
1966	8,957	56.9	8,325	632	7.1	57.8	10.8	31.4	4.8	16.7	12.6	71.4	12.0	4.0
1971	10,407	57.4	9,946	461	4.4	48.2	14.2	37.6	6.9	19.6	11.9	70.4	12.5	5.2
1981	14,683	58.5	14,023	660	4.5	34.2	21.3	44.5	9.0	28.2	6.5	74.7	13.3	5.5
1986	16,116	57.1	15,505	611	3.8	23.6	25.9	50.5	11.6	31.6	4.1	76.1	13.7	6.1
1991	19,012	60.6	18,576	436	2.3	16.7	26.9	56.4	13.3	34.9	3.1	73.7	15.9	7.3

1) 농림수산 종사자 제외

	성별취업자구성 (%)		입직률 및 이직률				구인·구직 배율 (%)		주당평균근로시간			산업재해비용 (근로자 천명당)		
	남	여	제조업		사회개인서비스업		구인 배율	구직 배율	전산업	제조업	건설업	전산업	제조업	건설업
			입직률	이직률	입직률	이직률								
1966	65.2	34.8	..	..	.	..	.	.	..	..	...	58.5	..	..
1971	63.4	36.6	4.5	5.4	1.5	2.2	91.6	109.2	50.6	52.0	51.4	53.5	..	..
1981	61.9	38.1	5.5	5.4	2.4	2.0	98.8	101.2	51.9	53.7	50.0	34.1	32.0	33.7
1986	60.2	39.8	4.8	4.2	1.7	1.5	102.1	97.9	52.5	54.7	48.6	29.9	30.3	28.1
1991	59.6	40.4	3.5	3.9	1.9	1.8	121.1	82.6	47.9	49.3	45.6	16.2	17.0	16.1

	직종별임금(사무직=100.0)			산업별 임금(제조업=100.0)				학력별임금(고졸=100.0)			성별 임금 (남자 = 100.0) 여자	노동쟁의	
	전문 기술직	행정 관리직	생산직	전기·가스·수도사업	건설업	금융·보험·협·사업 서비스	사회및 개인 서비스	중졸 이하	초대졸	대졸		건수 (건)	참가 인원 (천명)
1971	118.7	178.7	51.5	284.9	160.2	266.3	174.7	60.9	..	175.2	..	101	115.9
1976	134.0	220.1	48.3	258.0	223.0	237.9	190.3	59.1	145.3	229.7	43.9	110	6.6
1981	142.2	231.5	67.6	202.7	181.5	192.8	194.7	69.0	143.3	225.0	44.5	186	34.6
1986	150.0	219.4	73.0	217.2	141.2	187.3	177.8	77.6	129.0	222.0	48.0	276	46.9
1991	129.1	226.4	84.9	162.7	128.2	134.7	136.1	84.6	117.4	179.2	54.1	234	175.1

< 국민계정·금융·재정·대외거래 >

	국민총생산		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구성비 (%)				산업구조 (%)			총저축률 (%)	국내총투자율 (%)	수출입의GNP비율	
	(억\$)	1인당 (\$)	최종소비지출	가계지출	총자본형성	총고정자본형성	1차산업	2차산업	3차산업			수출	수입
1961	21	82	--	---	--	--	39.1	15.5	45.4	11.7	12.0	6.3	14.9
1971	95	289	85.3	74.7	25.2	22.5	27.2	23.5	49.3	16.0	24.8	16.1	26.5
1981	668	1,734	76.1	63.9	29.5	28.0	15.6	31.3	53.1	22.7	29.9	37.7	47.2
1986	1,028	2,505	66.0	55.1	28.3	27.8	11.5	32.6	27.9	32.8	28.9	40.0	36.9
1991	2,808	6,498	63.6	51.9	39.1	38.0	8.1	27.9	64.0	36.1	39.3	29.9	33.2

	금·외환보유고		65년당시 만원의 현재가치 (소비자물가지준)	국민1인당 저축성예금 (천원)	예금은행의제조업대출금율 (%)	GNP대비 재정총규모 (%)	중앙정부 세출 구성비 (%)					조세 부담	
	(백만\$)	국민 1인당 (\$)					국방	교육	보건·사회복지	경제사업	주택지역개발	총조세부담률 (%)	1인당담세액 (천원)
1961	207	8.0	-	1.0	34.7	---	---	---	---	---	---	9.6	1.1
1971	568	17.3	4,964	29.7	46.5	25.2	26.0	16.1	6.2	24.8	0.9	14.4	15.0
1981	6,891	178.0	1,027	439.9	53.9	28.7	28.0	14.4	5.9	24.7	7.5	18.0	211.0
1986	7,955	193.2	862	872.3	46.0	24.8	27.5	17.0	7.5	18.1	3.9	17.0	374.3
1991	13,733	317.4	622	2,276.7	44.6	28.8	22.1	14.8	11.1	15.5	7.7	19.4	767.2

1) 1963년 자료임      2) 예산규모임      3) 1972년 자료임      4) 1990년 자료임

	경상수지 (백만\$)					외채규모 (백만\$)				의 국내투자 (백만\$)	해외투자 (백만\$)
	무역수지	무역외수지	여행	이거	전래	총외채	국민 1인당 (\$)	순외채	국민 1인당 (\$)		
1961	0.1	-275.2	43.6	-1.0	231.5	---	---	---	---	---	---
1971	-847.5	-1,045.9	27.8	16.4	170.6	2,245	70	1,570	49	---	---
1981	-4,646.0	-3,628.3	-1,518.4	8.6	500.7	32,433	838	24,470	632	153.2	108.9
1986	4,617.0	4,205.9	-627.5	934.5	1,038.6	44,510	1,081	32,502	789	354.7	364.9
1991	-8,727.7	-6,979.8	-1,595.5	-357.9	-152.4	39,135	904	11,949	276	1,396.1	1,605.6

1) 1970년 자료임      2) 인·허가 기준

	수출액 (백만\$)	국 1 인당 (\$)	수입액 (백만\$)	국 1 인당 (\$)	수출입의 일본 미국점유비(%)				NAFTA 지역 수출입 (%)		북방 교역액 (백만\$)			
					일 본		미 국		수출	수입	중 국		독립국가연합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1961	39	2	300	12	46.3	21.8	17.0	45.2	17.0	46.1	--	--	--	--
1971	1,068	32	2,394	73	24.5	39.8	49.8	27.5	52.5	29.1	---	---	---	---
1981	21,254	549	26,131	675	16.3	24.4	26.6	23.2	29.1	25.4	4.6	70.0	1.5	9.9
1986	34,715	843	31,584	767	15.6	34.4	40.0	20.7	44.3	23.5	123.5	620.8	12.5	67.8
1991	71,870	1,660	81,525	1,884	17.2	25.6	25.8	23.2	29.2	25.8	1,002.5	3,440.5	623.3	577.3

< 산 업 >

1 농림어업

	농가인구			농가소득 (호당)		농가차입금(호당)			농가가계비 구성비(%)				
	(천명)	농가 인 구 비율 (%)	20~49 세 비율 (%)	50세 이 상 비율 (%)	(천원)	농업 소 득 구성 비 (%)	(천원)	영농시 설 자재 용 (%)	교 육 비 용 (%)	부 채 상환용 (%)	음식물 비	교육· 교양· 오락비	관 혼 상제비
1961	14,509	56.3	---	---	56.1	72.4	7	---	---	---	59.7	---	---
1971	14,712	44.7	30.7	16.3	356.4	81.9	10	30.0	10.0	10.0	47.4	7.5	7.4
1981	9,999	25.8	33.0	22.2	3,687.9	67.2	437	33.9	6.4	7.3	37.7	9.5	8.8
1986	8,180	19.9	32.8	28.7	5,995.0	61.3	2,192	35.8	4.7	13.6	27.4	12.9	10.3
1991	6,068	14.0	30.9	39.1	13,105.0	53.7	5,192	44.8	4.3	10.9	22.8	11.2	12.8

	가축사육 (천마리)		농·축산물수출입 (백만\$)		임업생산		어가인구		어획량		원양어업	
	한우	돼지	수출	수입	용재 (천㎡)	비섯 (M/T)	(천명)	어가인구 비율 (%)	(천M/T)	어류	어업	구성비 (%)
1961	1,096	1,256	..	---	230	317	192	3.2	419	301	1	0.2
1971	1,247	1,333	25	341	874	389	1,165	3.6	957	727	159	16.7
1981	1,312	1,832	571	3,150	976	1,833	776	2.0	2,368	1,722	542	22.9
1986	2,370	3,347	429	1,795	801	2,090	666	1.6	3,103	2,211	930	30.0
1991	1,773	5,046	756	4,420	680	2,424	470	1.1	2,514	1,550	874	34.7

1) 1970년 자료임 2) 1962년 자료임

2 광업 및 제조업

	광 산 물 생 산 량				5 인 이 상 제 조 업 체			5인이상 제조업체당		
	무연탄 (천 M/T)	철 광 (천 M/T)	중석광 (M/T)	동 광 (M/T)	사업체수	5~19인 구성비(%)	20~99인 구성비(%)	100인이상 구성비(%)	종사자수	부가가치 (백만원)
1961	5,884	489	6,303	5,299	15,928	---	---	---	20	1.4
1971	12,785	504	3,708	11,824	23,412	77.4	16.7	5.9	36	29.5
1981	19,865	594	4,935	3,339	33,431	62.0	27.2	10.8	61	461.0
1986	24,253	582	4,423	813	50,063	56.7	34.2	9.1	55	656.8
1991	15,058	222	1,405	17	68,872	60.6	32.9	6.5	44	1,029.8

1) 1990년 자료임

	주류출고		담배판매			소모방적 제품 수출 (백만\$)		가 구 생 산 ( 천 개 )		종이·필프 폐지		
	(천kg)	국 민 1인당 (ℓ)	(백만갑)	국 민 1인당 (갑)	18세이상 인구 당 (갑)	순모사	순모직물	화장대	식 탁	1인당 종이소비 (kg)	필 프 수입비율 (%)	폐 지 수입비율 (%)
1961	...	...	...	...	...	...	...	...	..	3 4	47 8	11.2
1971	...	...	2,480	75.4	147 2	0 8	3 0	18	29	12 6	71 3	23 4
1981	2,189	55	3,634	93.9	156 6	14 3	32 3	74	117	41 8	66 2	52 0
1986	2,353	57	3,902	94 8	147 7	21 0	34.2	145	508	63 8	68 8	46 4
1991	2,793	65	4,916	113.6	164 9	25 1	57 6	182	427	112 5	79 0	42 5

1) 1983년 자료임      2) 1960년 자료임

	기초화학제품생산(천M/T)			의약품등 수출입		비누생산·수출		석 유 정 제		시멘트 레미콘		1인당 철 소 비 (kg)
	에틸렌	프로 필 렌	벤 젠	수 출 (백만\$)	수 입 (백만\$)	생 산 (천M/T)	수 출 (천M/T)	정제능력 (천BPSD)	생 산 (천Bb1)	시멘트 (kg)	레미콘 (m <sup>2</sup> )	
1961	-	-	-	1 6	2 7	...	..	..	..	22	..	6
1971	-	-	-	6 7	22 1	54 4	.	270	81,537	186	0 01	56
1981	375	217	69	87 9	133 4	196 4	38 9	790	173,793	321	0 18	206
1986	534	305	257	136 1	222 8	249 8	22 5	790	206,750	495	0 67	296
1991	1,567	874	569	366 8	953 8	151 3	14 3	1,090	408,215	858	1 88	605

	전자공업수출액			자동차 생산·수출 (천대)				신 조 선 수 주				악기류 수 출 (백만\$)	
	(백만 \$)	산 업 용 자 기	가 정 용 자 기	승 용 차		상 용 차		수 주		건 조			
				생 산	수 출	생 산	수 출	천 G/T	백만 \$	천 G/T	백만 \$		
1961	1	...	...	-	-	-	-	-	-	-	-	-	...
1971	89	...	...	13.7	-	14 3	-	-	-	-	-	-	...
1981	2,170	145	1,124	66 6	16 2	64 3	9 1	1,853	2,333	1,158	1,061	52 6	
1986	7,249	1,251	3,125	455 3	298 7	144 2	7.5	3,509	1,660	2,715	1,790	128 9	
1991	19,334	3,895	6,054	1,128 8	376 6	339 6	11 8	5,434	5,561	4,430	3,927	254 7	

1) 1970년 자료임.

3 전기·가스·건설업

	발전설비능력			전 력 수 급			도시 가스 공급		건설공사시공액(억원)			건축허가 면적 (천㎡)
	(천KW)	화력 (%)	원자력 (%)	총발전량 (GWH)	1인당소 비(KWH)	공급 예 비율(%)	공급 호수 (천 호)	공급 호 당 (㎡)	국 내	해 외	해외공사 수주(백만\$)	
1961	367	60.9	-	1,773	46	5.2	-	-	..	..	...	1,161
1971	2,628	87.0	-	10,540	270	34.6	6.6	233	1,872	67	...	9,619
1981	9,835	81.8	6.0	40,207	915	23.7	126.4	166	52,559	60,931	13,681	20,846
1986	18,060	61.3	26.4	64,695	1,367	61.2	466.2	270	102,163	50,735	2,239	43,543
1991	21,111	52.3	36.1	118,619	2,412	5.4	1,579.4	929	342,793	20,879	3,038	105,284

1) 1972년 자료임      2) 1970년 자료임

4 기타산업

	공·사 시·장 추 (개소)	음식·숙박업수(개소)				국내 여객 수송		국제 여객 수송		도로길이(km)	
		음식점 및주점	다 방	호텔	여관및 여인숙	도 로 (백만명)	철 도 (백만명)	해 운 (천명)	항 공 (천명)	일 반 도로	고 속 도로
1961		29,337	3,083	82	6,088	587	88	-	31	27,169	-
1971	569	55,522	7,990	183	15,978	3,024	128	38	515	40,635	655
1981	1,201	142,590	19,540	184	26,847	8,683	173	51	3,229	50,337	1,245
1986	1,245 1)	183,043	36,859	406	30,039	10,933	144	73	4,939	53,654	1,415
1991	1,313	276,156	42,027	745	30,711	12,854	158	335	10,271	58,088	1,597

1) 1990년 자료임

	자동차 정비 공장 (개소)		합 출 능 력 (천 M/T)	주 식 거 래				국민 1인당 보험료(천원)			사실강습소(개소)	
	공장당자 동차(대)			상장 회 사 (사)	상장종목 (종목)	주주수 (천명)	주식시가총 액(천억원)	계	생 보	손 보	문 리	예 능
1961	...	.	9,020	-	-	-	-	0.03	0.015	0.015	126	71
1971	633	222	18,781	50	62	81.9	1.1	0.9	0.4	0.5	218	307
1981	830	689	87,423	343	451	696.3	29.6	36.6	23.8	12.8	379	1,985
1986	1,025	1,277	150,676	355	485	1,410.5	119.9	163.9	134.9	29.0	605	5,082
1991	1,178	3,606	248,365	686	1,013	1,431.8	731.2	557.2	447.8	109.3	3,063	11,611

1) 1962년 자료임

< 의료·보건·사회·복지 >

	의료인력		의료시설		주요 전염병 발생 (명)			결핵 발생률 (백명당)	1인1일당 영양공급		1인1일당 식품공급	
	의사1인당 인구 (명)	치과 의사 1인당 인구 (명)	병·의원 1개소당 인구 (명)	병상당 인구수 (명)	총역	백일해	소아마비		에너지 (kcal)	동물성 단백질 (g)	육류 (g)	어패류 (g)
1961	3,066	17,064	5,332	2,514	16,251	16,887	2,003	2)	2,218	7.6	13.2	37.6
1971	2,029	13,411	5,490	1,878	4,192	1,436	61	4.2	2,370	10.7	22.8	40.2
1981	1,631	9,811	5,563	962	2,307	1,622	2	2.5	2,485	20.2	37.9	61.5
1986	1,303	6,870	4,528	515	1,818	188	-	2.2	2,687	28.5	45.2	84.1
1991	951	4,268	3,535	404	258	118	-	1.8	2,858	33.2	64.7	83.7

1) 1962년 자료임      2) 1970년 자료임      3) 1980년 자료임.      4) 1985년 자료임      5) 1990년 자료임

	남학생 신장 (cm)			남학생 체중 (kg)			여학생 신장 (cm)			여학생 체중 (kg)		
	11세	14세	17세	11세	14세	17세	11세	14세	17세	11세	14세	17세
1961	130.4	152.5	166.4	27.8	43.9	56.7	128.4	151.4	157.9	27.0	44.3	52.4
1971	135.3	157.7	167.7	30.1	46.4	58.3	134.2	154.1	157.2	33.8	46.4	52.3
1981	139.9	160.7	169.2	34.5	49.3	60.5	143.7	155.6	157.8	35.3	48.2	53.2
1986	141.9	163.2	170.3	37.6	52.7	61.4	145.9	156.6	158.6	38.3	50.1	54.0

1) 1962년 자료임

	도시근로자가구 소득·지출			도시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 구성 (%)						상수도 보급		주택 보급	
	소득 (천원)	가계지출 (천원)	흑자 (천원)	식료품	의식비	보건·의료	교육·교양 오락	보충교육비	교통 통신	보급률 (%)	1인1일당 급수량 (ℓ)	보급률 (%)	GNP대비 주택투자 (%)
1961	6.0	6.3	-0.3	61.0	1.3	3.0	6.3	...	2.5	17.3	102	82.4	1.3
1971	33.3	30.5	2.8	47.6	0.9	3.1	10.9	0.7	5.0	36.4	173	77.8	4.8
1981	280.9	223.9	57.0	42.9	1.7	6.7	9.4	0.6	6.0	57.0	264	73.7	4.3
1986	473.6	361.9	111.7	36.4	3.2	5.7	11.5	1.3	6.4	68.7	295	69.7	4.4
1991	1,158.6	859.0	299.6	31.4	6.8	5.2	13.3	3.5	8.6	81.2	372	74.2	9.5

1) 1963년 자료임      2) 1962년 자료임

	전화 보급률		우 편		인구천명당자동차보유		고속도로 이용차량		내국인 출국자		해외여행경비(\$)	
	100인당 전화기	100인당 가입자	인 만 명 당 우 편 통 수	1인당 우편물 이 용	전차종 ( 대 )	자가용 승용차 ( 대 )	이 용 차 량 (천대)	소형차 비 율 (%)	총 수 (천명)	국민 1만 명당(명)	내국인 1인당	외국인 1인당
1961	0 5	0 4	2 7	6 1	1 2	0 1	-	-	11	4 4	213	149
1971	2 3	1.7	4 9	17 7	4 3	1 0	10,459	44 8	77	23 3	193	189
1981	10 8	8 4	8 4	29 2	14 8	5 0	51,963	29 0	436	112.6	1,007	476
1986	22 6	18 3	11 4	33.6	31 8	13 2	111,852	46 1	455	110 5	1,347	1,051
1991	40 9	33 7	12 8	60 4	98 2	58.7	309,342	72.9	1,889	436 6	1,701	1,146

1) 1962년 자료임

	화 재 발생		교통사고사망 (명)			범죄 발생 1)		소년 범죄			10~19세 인 구 당 ( 명 )
	건 수 ( 건 )	재산피해 (억원)	계	1 일 평 균	인 구 10만명당	계 (천건)	강력범(%)	계 ( 명 )	취중(%)	우연(%)	
1961	2,355	23	1,169	3 2	4.5	---	---	---	---	---	---
1971	4,412	22	3,420	9 4	10 4	227 6	12 7	51,695	3 5	8 3	0 61
1981	5,851	132	5,804	15 9	15 0	305 1	10 2	88,894	5 0	10 3	0 99
1986	8,453	114	7,702	21 1	18 5	271 6	14 0	106,115	5 9	22 9	1 20
1991	16,487	442	13,429	36 8	31 0	240 1	16 3	105,364	7 3	33 3	1 25

1) 특별법 제외 2) 1972년 자료임 3) 1980년 자료임 4) 1985년 자료임 5) 1990년 자료임

	아동복지시설		양로 시 설		장애인 시설		장애자 특수학교			소년소녀 가 장	대기배출 시설업소	폐수배출 시설업소	1인1일당 쓰 레 기 발 생 량 ( kg )
	시설수 (개소)	수용자 (천명)	시설수 (개소)	수용인 원(명)	시설수 (개소)	수용인 원(명)	학교수 (개소)	학생수 (명)	교사수 (명)				
1961	523	56 8	40	2,255	---	---	---	---	---	---	---	---	---
1971	495	51 3	46	2,529	50	7,578	36	4,668	---	---	---	---	---
1981	302	27 9	49	3,388	97	12,685	61	9,787	---	---	14 3	3,984	---
1986	287	29 1	72	5,387	98	10,127	90	15,664	1,757	6,039	21 5	9,916	1.48
1991	288	25 0	106	6,822	167	13,131	102	20,210	2,848	6,902	26 2	20,731	2 13

1) 1980년 자료임

< 교육·문화 >

	유치원 현황			국민학교 현황					중학교 현황		
	유치원수 (개소)	원아수 (명)	취원율 <sup>1)</sup> (%)	교사 1인 당학생수 (명)	학급당 학생수 (명)	30명이하 학급수 (개)	71명이상 학급수 (개)	2부제 수업 학교 (개교)	여학생 비율 (%)	여교사 비율 (%)	학급당 학생수 (명)
1961	325	14,759	0.8	61.2	62.9	...	...	..	...	.	63.5
1971	512	22,207	1.3	56.0	61.3	1,495	25,557	1,549	39.1	19.1	63.8
1981	2,958	153,823	9.8	45.5	49.8	10,688	2,392	1,012	47.6	33.7	64.9
1986	7,233	354,537	21.2	37.9	43.5	22,438	131	885	48.4	39.4	59.7
1991	8,421	425,535	33.0	34.4	40.6	25,201	63	1,019	48.4	47.6	48.8

1) 「원아수/연앙추계인구 4~5세아」×100

	고등학교 현황				대학교(교) 현황				당해년도 졸업자 진학률(%)		
	여학생 비율(%)	여교사 비율(%)	취학률 (%)	학급당 학 생수(명)	여학생 비율(%)	여교수 비율(%)	취학률 (%)	인구천명 당학생수 (명)	중학교	고등학교	고등교육
1961	...	..	19.8	54.9	17.5	...	7.3	5.5	..	..	..
1971	37.8	9.6	28.4	58.5	25.3	13.3	9.0	6.2	66.1	70.1	26.9
1981	43.1	16.9	70.2	59.0	24.9	16.1	20.5	19.3	96.5	86.5	35.3
1986	47.4	21.2	81.7	56.3	29.3	17.7	36.4	30.2	99.4	91.2	36.4
1991	47.3	23.3	88.4	50.8	31.6	20.0	39.1	33.0	99.8	97.4	33.2

1) 1970년 자료임

	공공도서관			도서 발행 종수(초판·중)					영 화		
	1개소당 인구(명) <sup>1)</sup>	1일평균 이용자 (천명)	인구천명 당장서수 (권) <sup>1)</sup>	계	문 학	참고서	아동도서	기술과학	1인당 관람회수	방화수출 (천 \$)	외화수입 (천 \$)
1961	1,326	...	34.4	...	...	...	...	...	2.3	...	...
1971	506	10.1	36.2	2,516	519	446	295	143	4.6	..	...
1981	380	29.7	73.5	13,618	2,664	2,160	1,484	1,305	1.2	227	5,075
1986	256	39.9	117.5	22,132	4,219	3,807	3,570	1,470	1.1	128	7,736
1991	161	46.8	205.0	22,770	4,373	3,765	3,213	2,208	1.2	473	31,994

1) 1962년 자료임

< 기술·연구개발 >

	연구기관 수(기관)	연구원수 (명)	연구개발비					인구만명 당 (명)	연구개발비		GNP대비 (%)
			이 학	공 학	농 학	의 학	기 타		(억원)	민 간	
1963	72	1,750	---	---	---	---	---	0.6	12	--	0.25
1970	297	5,628	---	---	--	--	---	1.8	105	30	0.39
1980	647	18,434	---	---	---	--	---	4.8	2,117	1,024	0.57
1985	1,291	41,473	6,158	23,878	3,853	5,650	1,934	10.1	11,552	9,303	1.48
1990	2,105	70,503	10,088	45,751	4,663	7,766	2,235	16.4	32,105	26,989	1.87

	제조업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투자 비율 (%)									
	제조업 전 체	음식료	섬유· 의복	산업용 화학물	철강산업	조립금속 제 품	일반기계	전기전자	운수장비	과학·측정 제어장비
1983	0.80	0.70	0.73	0.58	0.28	2.04	2.00	3.01	1.48	1.28
1985	1.51	0.89	0.92	0.96	0.37	1.14	2.26	4.12	2.28	1.90
1987	1.83	0.66	0.79	1.13	0.36	2.89	2.63	3.40	2.53	3.03
1989	2.01	0.52	0.99	1.19	0.26	1.58	2.36	4.80	2.63	4.44
1990	1.96	0.52	0.96	2.05	0.43	2.14	2.00	4.85	2.11	3.52

	기술 도입 (백만\$)										기술수출(백만\$)	
	계		미 국		일 본		기계·조선		전기 전자		계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1967~71	285	16.2	61	7.8	203	5.0	59	1.1	65	2.0	---	--
1972~76	434	96.6	90	21.3	280	58.7	126	18.5	84	10.7	---	---
1981	247	107.1	74	48.0	109	35.4	89	30.0	33	16.7	11	18.2
1986	517	411.0	157	191.6	264	129.5	170	103.3	137	134.2	16	11.7
1991	582	1,183.8	165	621.8	276	375.8	144	323.9	173	471.2	50	21.8

1) 1982년 자료임

2) 1990년 자료임

< 가 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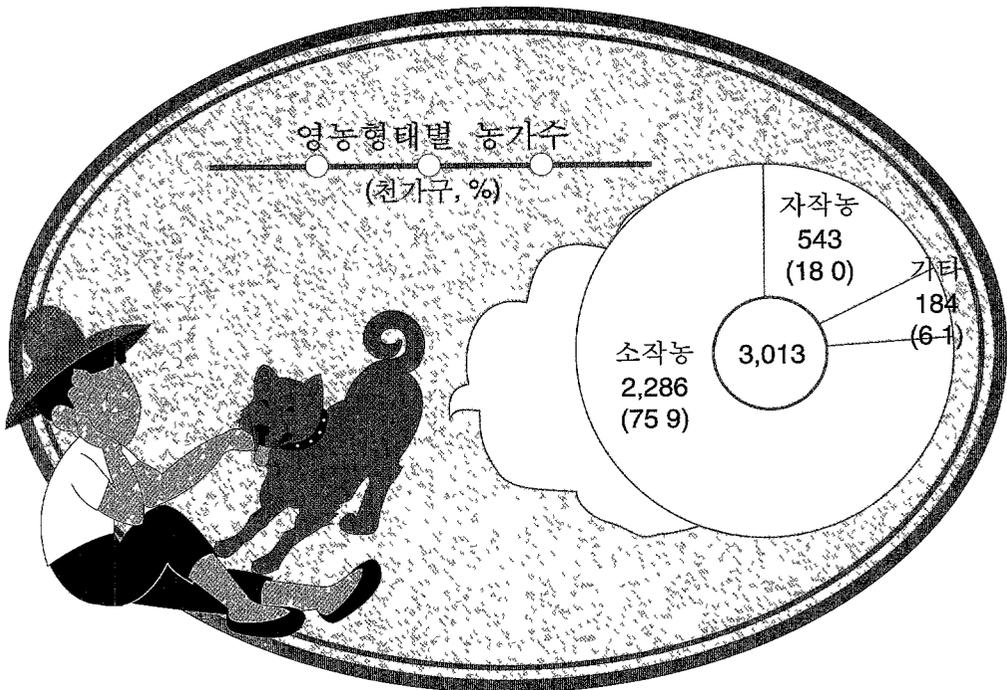
	행정구역변천				해외동포(천명)			현행법령 3)			
	구 1)	시	군	읍면동	계	일본	미국	법령계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1961	9	26	140	2,650	---	---	---				
1971	15	30	140	2,821	---	---	---				
1981	36	46	139	3,191	1,591	671	639	3,057	733	1,309	1,015
1986	40	57	139	3,390	2,006 2)	693 2)	1,026 2)	2,958	748	1,267	943
1991	56	68	136	3,614	4,832	731	1,452	3,144	861	1,261	1,022

1) 특별시·직할시의 구임.      2) 중국·(구)소련 동포수가 '91년 자료에만 포함됨.      3) 헌법 제외

	공무원 1인당 대국민수				민원 사무 처리(천건)			집단 민원 발생		호적사건처리(건)	
	경찰	소방	체신	읍면동	계	인·허가 면허· 승인	증명 발급	계 (건)	건축·도 시계획등 건설(%)	이혼 재판	개명
1971	756	33,761	1,863	--	48,335 1)	2,599 1)	36,167 1)	---	---	1,325 1)	4,132 1)
1981	687	6,117	2,105	639	159,836 2)	4,817 2)	118,932 2)	---	--	7,969	6,158
1986	649	4,595	1,552	613	161,047	6,915	119,729	4,547	43.4	16,460	6,335
1991	509	3,224	1,329	538	218,389	16,991	156,863	8,047	55.1	20,194	8,188

1) 1973년 자료임      2) 1987년 자료임

# 1930년대의 사회상



「1935년 우리나라 농가수는 약 301만호로 전국 가구 (401만호)의 75% 수준이며, 이 중 99.6%인 약 300만 호가 조선인 농가였다」

- 자료중에서 -

우리나라 최초의 통계지 『조선통계시보』를 통해 본

# 1930년대의 사회상

1992. 11

통계조사국 통계분석과

## 『조선통계협회』와 협회지 『조선통계시보』

『조선통계협회』는 1935년 국세조사(현재의 인구주택총조사)를 계기로 통계의 대중화를 위해 조선총독부 관방문서과내에 설치되었던 통계단체임

- 최초의 통계단체는 1924년에 설치된 『조선통계연구회』였으나 1925년 국세 조사후 폐지

조선통계협회 회칙에 나타난 동 협회의 목적과 활동은 다음과 같음.

- 통계사무의 쇄신 개선 및 통계지식의 보급
- 통계에 관한 연구 및 기관지 간행
- 통계공로자 및 우량 읍 면 등에 대한 표창 등

조선통계협회의 회원은

- 조선총독부 및 도 부·군·읍 면의 통계 담당직원(정회원)과 관련 유지급 인사(찬조회원)로 구성되었으며, 회장은 총독부 관방문서과장이 담당
- 설립초기 목표회원을 3천여명정도 예상하였으나 참여도가 높아 회원수가 6천 여명(대부분이 정회원)에 달했음.

조선통계협회는 통계발전과 보급을 위한 활동의 일환으로 1936년 3월 1일 경기 간행 통계잡지의 효시라 할 수 있는 『조선통계시보』(계간)를 창간하였는 바 주요 수록내용은 다음과 같음.

- 각종 조사예규, 조사개요, 조사결과표 등 통계조사 실무지침
- 통계학이론 강좌 및 각종 통계해설 자료
- 통계개선방안 및 통계담당직원 우대방안 등

## 「조선통계시보」를 통해 본 1930년대의 사회상

통계청에서는 최근 고서 소장가로부터 『조선통계시보』 창간호(1936. 3)부터 제13호(1939. 5)중 총 11권을 입수하게 되었으며 동 자료의 내용을 분석한 바

- 집필진이 주로 총독부 관리들이었기 때문에 각종 격려사, 회고록 등을 통한 일본의 침략행위를 정당화하는 내용도 게재되었으나,
- 조사예규, 조사개요, 조사결과표 작성 등 각종 통계조사 실무지침 및 이의 개선방안과 수준높은 통계학강좌, 통계담당직원에 대한 우대방안 등을 제시하고 있어 당시의 통계발전에 기여한 바 크다 하겠으며,
- 특히 경제·사회 각 분야별 통계를 해설자료와 함께 수록하고 있어 당시의 현황을 짐작할 수 있는 자료로서도 그 가치가 크다고 판단되었음.

따라서 『조선통계시보』에 수록된 통계자료를 통해 그 당시의 경제·사회상을 살펴보는 것도 매우 흥미로운 일이라 생각되어 상기 자료중 일부 분야를 발췌 분석하여 본 자료를 작성하게 된 것임

- 인 구 : 인구수, 혼인, 사망
- 산 업 : 농가수 및 영농형태, 공산품 생산
- 교 육 : 교육기관 및 학생수, 교직원 및 급여현황
- 고용, 물가 : 근로시간 및 임금, 실업률, 소비자물가
- 무 역 : 수출입개황

1 서울인구(당시의 경성부)는 현재의 4%에 지나지 않는 44만명에 불과  
(참간호 : 1935년 조선 국세조사 인구수)

- 1935년 일제하의 국세조사에 의하면 당시 총인구는 22,898천명(일본인 619천명 포함)이었음.
- o 1990년 남북한 인구 65,241천명의 1/2 수준
- 지역별로는 경상북도가 2,563천명으로 가장 많고 함경북도가 853천명(경북의 1/3수준)으로 가장 적은 지역이었음.
- o 인구 200만 이상인 지역 : 경북, 전남(제주포함), 경남, 경기
- o 인구 100만 이하인 지역 : 함북, 충북
- 당시 경성부(현재 서울) 인구는 444천명으로 1990년 서울인구의 4% 수준에 불과
- o 현재의 서울인구는 남한인구의 1/4 수준이나 당시 경성부 인구는 총인구의 2%(남한인구의 2.9%)에도 미치지 못했을 뿐아니라 그 중에는 국내 거주 일본인이 약 30%를 차지

우리나라의 인구수 변화

(단위 : 천명)

지역	1935년 국세조사 (A)	1990년 인구총조사 (B)	비율 (%) A/B	비고
서울	경성부: 444	10,628	4.2	· 서울면적(17배) [ 35년: 36.2km <sup>2</sup> 90년: 605.3km <sup>2</sup> · 제주포함
경기도	2,008 <sup>1</sup>	7,972	25.2	
충청북도	959	1,414	67.8	
충청남도	1,527	3,090	49.4	
전라북도	1,607	2,070	77.6	
전라남도	2,508	4,182	60.0	
경상북도	2,563	5,095	50.3	
경상남도	2,248	7,477	30.1	
강원도	1,605 <sup>1</sup>	1,593	100.8	
(남한)	15,469	43,521	35.5	
황해도	1,674	-	-	
평안남도	1,470	-	-	
평안북도	1,710	-	-	
함경남도	1,722	-	-	
함경북도	853	-	-	
(북한)	7,429	21,720 <sup>2</sup>	34.2	
계	22,898	65,241	35.1	

주: 1) 휴전선 이북지역인구 포함.  
2) 1990년 북한인구(국토통일원자료)

2 1935년 우리나라 여자의 81%가 19세 이하에 결혼, 15세 미만이 8.8%  
(제4호 : 1935년 인구동태)

- 1935년 당시 우리나라 사람의 혼인연령은 국내거주 일본인에 비해 5 ~ 6세 앞섰으며, 법정혼인연령(남자 17세, 여자 15세) 이전 결혼이 10%가 넘었음.
  - o 남 자 : 17세미만 11.6%, 17 ~ 19세 32.4%, 20 ~ 24세 35.9%
  - o 여 자 : 15세미만 8.8%, 15 ~ 19세 72.2%
- 이와같은 현상은 당시까지 조혼풍습이 남아있었으며, 일본의 중국본토침략에 대한 전운이 감돌던 1931년을 고비로 크게 증가
  - o 19세이하(여자) 결혼비율
 

	1931년 이전	1935년
	60%	81%

연령별 혼인상태 비교

(단위:구성비, %)

연 령	1935년				1990년 <sup>1</sup>	
	남 자		여 자		남 자	여 자
	조선인	일본인	조선인	일본인		
15세 미만 (17세 미만)	11.6	0.2	8.8	0.4	0.0	0.0
15세 - 19세 (17세 - 19세)	32.4	1.3	72.2	13.1	0.3	2.6
20세 - 24세	35.9	16.8	14.0	64.3	12.8	49.5
25세 - 29세	13.3	56.0	3.0	17.5	62.2	39.5
30세 - 34세	3.6	16.4	1.0	2.5	18.9	5.3
35세 이상	3.2	9.3	1.0	2.2	5.8	3.1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1) 1990년 인구동태통계연보(잠정) 자료, 남한기준

3 영유아 사망율이 높아 총사망자중 5세미만이 40.9% 차지  
(제4호 : 1935년 인구동태)

- 1935년 사망자 총수는 430,698명으로 인구 천명에 대한 조사사망율이 19.7로 오늘날과 비교시 상당히 높은 수준임.
  - o 이는 영양부족과 당시 의술의 미발달로 5세미만 영유아의 사망자비율이 40.9%를 차지하였기 때문임.
 

	1935	1990
· 조사사망율	19.7	5.8
· 5세미만 사망자 비율(%)	40.9	1.9
- 총사망자중 60세이상 노령인구가 21.2%에 불과해 평균수명이 매우 짧았음을 알 수 있음.
 

	1931~1935(평균) <sup>1</sup>	1990
o 평균수명(세)	남 36.3, 여 38.5	남 66.9, 여 75.0
o 60세이상 노령인구(%)	21.2	60.0

연령별 사망자수

연령	1935년		1990년 <sup>3</sup>	
	실수(명)	비율(%)	실수(명)	비율(%)
총수	430,698	100.0	235,380	100.0
0 - 4세	176,339	40.9	4,533	1.9
5 - 9세	29,108	6.8	2,295	1.0
10 - 29세	54,904	12.8	15,961	6.8
(30세미만)	(260,351)	(60.4)	(22,789)	(9.7)
-----	-----	-----	-----	-----
30 - 39세	27,654	6.4	14,371	6.1
40 - 49세	24,197	5.6	22,170	9.4
50 - 59세	27,240	6.3	34,750	14.8
60세이상	91,256	21.2	141,300	60.0
조사사망율 <sup>2</sup>		19.7		5.8

주: 1) 일본인학자 石南國의 『한국의 장래인구추계(1970년)』 자료 인용  
 2) 조사사망율 = 총사망자수/총인구×1000  
 3) 1990년 인구동태통계연보(잠정) 자료, 남한기준

4 농가수 전체가구의 75%, 이중 순수자작농은 18.0%에 불과  
(참간호 : 1935년 농가호수 3백만)

- 1935년 우리나라 농가수는 약 301만호로 전국 가구(401만호)의 75% 수준이며, 이중 99.6%인 약 300만호가 조선인 농가였음.
  - o 영농형태는 소작농이 75.9%를 차지하고 순수자작농은 18%에 불과
- 지역별로 농토가 비옥한 중·남부지방은 순수자작농 비율이 매우 낮은 반면 기온이 낮고 밭농사가 많은 북부지방은 비교적 높은 농지소유형태를 보였음
  - o 순수자작농 비율이 10% 미만인 지역 : 전북, 경기, 충남
  - o 순수자작농 비율이 30% 이상인 지역 : 함북, 함남

1935년 영농형태별 농가수

(단위:가구, %)

지역	총 수	자작농	소작농	기타
총 수	3,013,104 (100.0)	542,637 (18.0)	2,285,955 (75.9)	184,512 (6.1)
경기도	239,605 (100.0)	18,746 (7.8)	215,760 (90.1)	5,099 (2.1)
충청북도	143,252 (100.0)	17,707 (12.4)	118,936 (83.0)	6,609 (4.6)
충청남도	213,248 (100.0)	17,828 (8.4)	187,457 (87.9)	7,963 (3.7)
전라북도	232,814 (100.0)	10,832 (4.7)	203,872 (87.5)	18,110 (7.8)
전라남도	382,146 (100.0)	73,960 (19.4)	284,962 (74.5)	23,224 (6.1)
경상북도	356,066 (100.0)	73,738 (20.7)	269,912 (75.8)	12,416 (3.5)
경상남도	291,505 (100.0)	40,772 (14.0)	237,696 (81.5)	13,037 (4.5)
황해도	239,872 (100.0)	35,336 (14.7)	193,922 (80.9)	10,614 (4.4)
평안남도	179,925 (100.0)	43,009 (23.9)	129,205 (71.8)	7,711 (4.3)
평안북도	213,581 (100.0)	50,648 (23.7)	144,856 (67.8)	18,077 (8.5)
강원도	243,590 (100.0)	50,007 (20.5)	163,336 (67.1)	30,247 (12.4)
함경남도	196,095 (100.0)	65,831 (33.6)	102,675 (52.3)	27,589 (14.1)
함경북도	81,405 (100.0)	44,223 (54.3)	33,366 (41.0)	3,816 (4.7)

주 · 소작농은 자작겸소작농을 포함하며, 기타는 화전민과 피고용인가구로 구성됨.

5 공산품 생산, 농림어업생산액의 40%에 불과, 가내공업 비중이 35.3%  
(제4호 : 1935년 공산액)

- 1935년 우리나라의 공산품 생산액은 568백만원 정도로 당시 주산업인 농림어업 생산액(1934년 1,232백만원)의 40% 정도에 불과
- 업종별로는 식료품공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컸음.
  - o 식료품공업 29.8%, 화학공업 26.0%, 방직공업 14.5%
- 제조업 형태별로는 가내공업이 35.3%나 차지해 당시 사업규모가 매우 영세하였던 것을 알 수 있음.
  - o 공장공업 56.1%, 관영공업 8.6%, 가내공업 35.3%
  - o 특히 곡물가공, 두부 등 단순제조공정에 의존했던 식료품 공업은 54.8%가 가내공업에 의해 생산

1935년 업태별 공산품 생산액

(단위:천원)

	공 산 품 생 산 액			
	공장공업	가내공업 <sup>1</sup>	관영공업	계
총 생산액 (구성비)	318,546 (56.1)	200,136 (35.3)	48,991 (8.6)	567,673 (100.0)
식료품 공업	76,507	92,913	-	169,420 (29.8)
방 직 공 업	56,033	25,813	483	82,328 (14.5)
목 제 품	2,740	4,973	529	8,243 (1.5)
인쇄 및 제본	12,167	-	575	12,744 (2.2)
화 학 공 업	117,983	28,445	1,406	147,834 (26.0)
요 업	14,977	2,386	181	17,563 (3.1)
금 속 공 업	21,338	5,449	202	26,989 (4.8)
기계기구공업	6,619	3,180	1,726	11,525 (2.0)
기 타	10,162	36,975	43,890	91,027 (16.1)

주: 1) 직공 5인미만 공장포함. (1988년 산업총조사 5인미만 제조업체 생산액비중 2.2%)

**6** 신식교육기관에 밀리기 시작한 전통교육기관 서당 (제3호 : 1935년 서당)

- 1920년대 초반까지 우리 고유의 초등교육기관인 서당이 지속적으로 증가
  - o 1910년 한일합방과 함께 일본이 『조선 교육령』을 제정하여 조선인의 초등교육기관은 보통학교에 의한다는 원칙을 제정하였으나
  - o 일제초기인 1912년 서당학생수는 141천여명으로 보통학교학생수의 3.17배에 달했고, 그 수는 계속 증가하여 1922년에는 298천명에 이르렀음.
- 1923년을 고비로 서당은 점차 감소하고 보통학교는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임.
  - o 보통학교의 급속한 보급과 현대적 교육내용 등으로 교육열이 강한 부모들의 향학열이 신식학교로 쏠리는데 기인
  - o 1935년의 경우 서당학생수는 153천여명으로 1912년과 비슷한 수준(서당 수 자체는 58.7% 감소)이었으나 보통학교 학생수는 720천여명으로 16배 증가

일제하의 서당과 보통학교 (연도별)

연 도	서 당		보 통 학 교	비 교
	서 당 수	학생수 (A)	학생수 (B)	A / B
1912년	16,540	141,604	44,639	3.17
1915년	21,358	204,161	63,854	3.20
1920년	24,030	275,920	107,201	2.57
1922년	24,193	298,067	236,031	1.26
1925년	18,510	231,754	407,292	0.57
1930년	11,469	162,247	489,934	0.33
1935년	6,834	153,634	720,073	0.21

7 조선인 교사 급여액, 일본인 교사의 50% ~ 60% 수준  
(제9호 : 1936년 공립학교 교직원)

- 당시 일본은 초중등 공립교육기관을 이원화하여 운용
  - o 일본인자녀 교육기관 : 소학교 (초등), 중학교 (중등)
  - o 조선인자녀 교육기관 : 보통학교(초등), 고등보통학교(중등)
- 1936년 공립학교 교직원 구성은 보통학교의 경우 조선인 교사가 64.6%를 차지하였으나 중등학교는 8.1%에 불과
- 조선인 교사의 급여액은 일본인 교사의 50~60% 수준에 불과하였으나 타직종에 종사하는 조선인 근로자에 비해 높은 수준
  - o 보통학교기준 조선인교사 월 급여액은 51원으로 당시 쌀 3가마수준(조선 백미 1가마 17.6원)에 해당되며, 공장근로자의 경우는 22원정도(월 25일 기준)였음.
- 남녀간에는 조선인, 일본인 공히 차등을 두었으며, 여교사의 남교사에 대한 급여액은 일본인이 75%, 조선인이 85% 수준

1936년 공립학교 교직원수<sup>1</sup> 및 1인당 평균급여

(단위:인, 원)

	소 학교			보 통 학 교			중 등 학 교 <sup>2</sup>		
	계	조선인	일본인	계	조선인	일본인	계	조선인	일본인
교직원수 (구성비)	2,400 (100.0)	4 (0.2)	2,396 (99.8)	11,825 (100.0)	7,643 (64.6)	4,182 (35.4)	1,785 (100.0)	145 (8.1)	1,640 (91.9)
남 자	1,666	4	1,662	10,298	6,517	3,781	1,583	121	1,462
여 자	734	-	734	1,527	1,126	401	202	24	178
1인당 평균급여	90	-	90	-	51 (55.4)	92 (100.0)	-	75 (56.8)	132 (100.0)
남 자	101	-	101	-	55 (52.4)	105 (100.0)	-	81 (53.3)	152 (100.0)
여 자	78	-	78	-	48 (60.7)	79 (100.0)	-	70 (62.5)	112 (100.0)

주 : 1) 고용원, 사무직을 제외한 교직원수임.  
2) 중등학교에는 일본인을 위한 중학교와 조선인을 위한 고등보통학교 등이 포함됨.

8 전이하의 물자부족으로 공산품가격 큰 폭 상승(제13호 : 1938년 소매물가조사)

- 1938년 소매물가조사에 의하면 전년대비 18.2%의 높은 상승세를 보였음.
  - o 조사대상지역(9대도시) : 경성, 대전, 목포, 대구, 부산, 평양, 신의주, 원산, 청진
  - o 조사대상품목(94개) : 81개품목 상승, 2개품목 하락, 11개품목 보합
- 품목별로는 주로 식료품이외의 공산품류 가격이 크게 상승
  - o 식료품 10.9%, 의류·장신품 31.6%, 연료 23.9%, 잡품 27.1%
  - o 94개품목중 기준년(1936년)대비 최고 상승품목은 성냥(150%), 최저상승 품목은 감자(△20%)
- 이와 같은 공산품가격의 큰 폭 상승은 당시 국내산업이 발달하지 못하였을 뿐아니라 1938년 일제의 중국본토침략개시로 인한 전시체제 아래서의 물자 부족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소매물가 상승률

(단위 : %)

	1937	1938	기준년(1936년)대비 물가상승율
총 지 수	8.0	18.2	
- 식료품	3.9	10.9	- 식료품 (15.2) ·최고 : 식염 66.7 ·최저 : 감자 △20.0
· 곡 류	3.7	6.7	
· 육 류	6.9	15.2	
· 음료·조미료	6.5	10.4	- 식료품이외
· 채소·과실류	0.4	10.4	o 의류·장신품(49.5) ·최고: 목면 89.0 ·최저: 견직 11.6
· 생선·해조류	4.1	13.2	o 연료 (37.9) ·최고: 목탄 58.2 ·최저: 전기 9.4
- 식료품 이외	-	-	o 잡품 (52.8) ·최고: 성냥 150.0 ·최저: 비누 0.0
· 의류·장신품	13.6	31.6	
· 연 료	11.3	23.9	
· 잡 품	20.2	27.1	

9 조선인, 일본인에 비해 일은 더하고, 임금은 절반이하 수준  
(제8호 : 1937년 2/4분기 공장임금조사)

- 1937년 ¼분기 공장임금조사(종사자 50인이상 46개 업종)에 의하면 조선인 숙련공은 일본인에 비해 1일평균 근로시간이 남자가 1시간, 여자가 1시간반 정도 많았음.
  - 조선인 : 남자 9.55시간, 여자 10.40시간
  - 일본인 : 남자 8.55시간, 여자 9.10시간
- 이에 비하여 조선인 근로자의 1일 평균임금은 일본인에 비해 절반이하 수준이었으며 만주 및 중국인에 비해서는 조금 나은 수준이었음.
  - 조선인 : 남자 0.87원, 여자 0.44원
  - 일본인 : 남자 1.84원, 여자 1.01원

공정근로자 임금 및 근로시간

구 분	성 별	숙련공			견습공		
		조선인	일본인	기타 <sup>1)</sup>	조선인	일본인	기타 <sup>1)</sup>
총업원수 (인)	남	58,908	11,271	2,354	1,613	437	53
	여	32,767	606	-	4,959	-	-
1일평균 근로 시간 (시간)	남	9.55 (111.7)	8.55 (100.0)	10.20 (119.3)	10.30 (113.2)	9.10 (100.0)	9.10 (100.0)
	여	10.40 (114.3)	9.10 (100.0)	-	10.35 (-)	-	-
1일평균 임금 (원)	남	0.87 (47.3)	1.84 (100.0)	0.83 (45.1)	0.39 (48.8)	0.80 (100.0)	0.37 (46.3)
	여	0.44 (43.6)	1.01 (100.0)	-	0.33 (-)	-	-

주 : 1) 기타는 만주인과 중국인임.

**10** 조선인 근로자 실업을 5.4%, 일본인 1.0% (제11호 : 1937년 실업조사)

- 1937. 10. 1 실시한 총독부 내무국의 실업조사에 의하면 실업율은 4.9% 수준
  - o 총실업자 57,673명중 97.9%가 조선인 실업자
  - o 조선인 실업율은 5.4%, 일본인 실업율은 1.0%로 조선인 실업율이 일본인에 비해 5배 정도 높았던 것은 당시 일본인에 비해 조선인의 취업이 어려웠음을 알 수 있음.
- 조선인 실업자는 임금노동자가 많았고 일본인 실업자는 도시빈급생활자가 많았음.

	<u>임금노동자</u>	<u>빈급생활자</u>
o 조선인 실업자	85.6%	14.4%
o 일본인 실업자	13.5%	76.5%

고용형태별 실업자 및 실업율

	전 국						시 부						
	계		조선인		일본인		계		조선인		일본인		
	실 수	율	실 수	율	실 수	율	실 수	율	실 수	율	실 수	율	
총실업자수 <sup>1</sup>	57,673 (100 0)	4.9	56,440 (100 0)	5.4	1,233 (100 0)	1.0	16,352 (100 0)	6.2	15,329 (100 0)	7.5	1,023 (100 0)	1.7	
빈급생활자	9,066 (15.7)	3.5	8,122 (14.4)	5.1	944 (76.5)	1.0	4,402 (26.9)	4.4	3,588 (23.4)	6.9	814 (78.6)	1.7	
임금노동자	일고노동자	29,053 (50.4)	3.1	28,887 (51.2)	5.2	166 (13.5)	1.2	7,373 (45.1)	7.3	7,256 (47.3)	7.6	117 (11.4)	2.0
	기타노동자	19,554 (33.9)	4.9	19,431 (34.4)	5.8	123 (10.0)	1.3	4,577 (28.0)	7.4	4,485 (29.3)	8.1	92 (9.0)	1.4
총조사대상자 <sup>2</sup>	1,170,476		1,051,100		119,376		-		-		-		

주: 1) 취업능력과 의지가 있는자로서 조사당시 취업기회를 얻을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자  
 2) 고용주, 자영업자, 고소득근로자, 여자, 학생, 외국인 등 제외

<참고> 현재의 경제활동인구조사는 조사대상을 조사대상주간 기준 만 15세 이상자(현역군인, 방위병, 형확정 교도소 수감자, 전투경찰, 외국인 제외)로서 1시간이상 일한 자로 하고 있으므로 당시의 개념과는 상이함

11

일본으로의 총수출액중 쌀이 차지하는 비중이 50%  
(제3호 : 1935년 조선무역개황)

- 1935년 전체교역액은 1,210백만원이었으며 이중 일본과의 교역액이 86.3%를 차지
  - o 당시 무역수지는 1억원이 넘는 적자를 시현하였으며, 일본과의 교역에서 67.1%가 발생

1935년 무역개황

(단위:천원)

	수 입	수 출	계	무역수지
일본 (구성비)	558,814 (84.7)	485,894 (88.2)	1,044,708 (86.3)	-72,920 (67.1)
일본이외의 국가	100,590	64,902	165,492	-35,688
계	659,404	550,790	1,210,200	-108,608

- 무역거래품목에 있어서는 수출의 경우는 쌀이, 수입의 경우는 직물류가 차지하는 비중이 컸음.
  - o 주요수출품목은 쌀, 비료, 동, 대두 등이며 특히 쌀의 경우 총수출액에서 44.3%, 일본으로의 수출액의 50%를 차지
  - o 주요수입품목은 일본에서는 직물류(면직물, 견직물, 모직물 등)와 철, 기계유를, 일본이외의 국가에서는 특히 밤을 많이 수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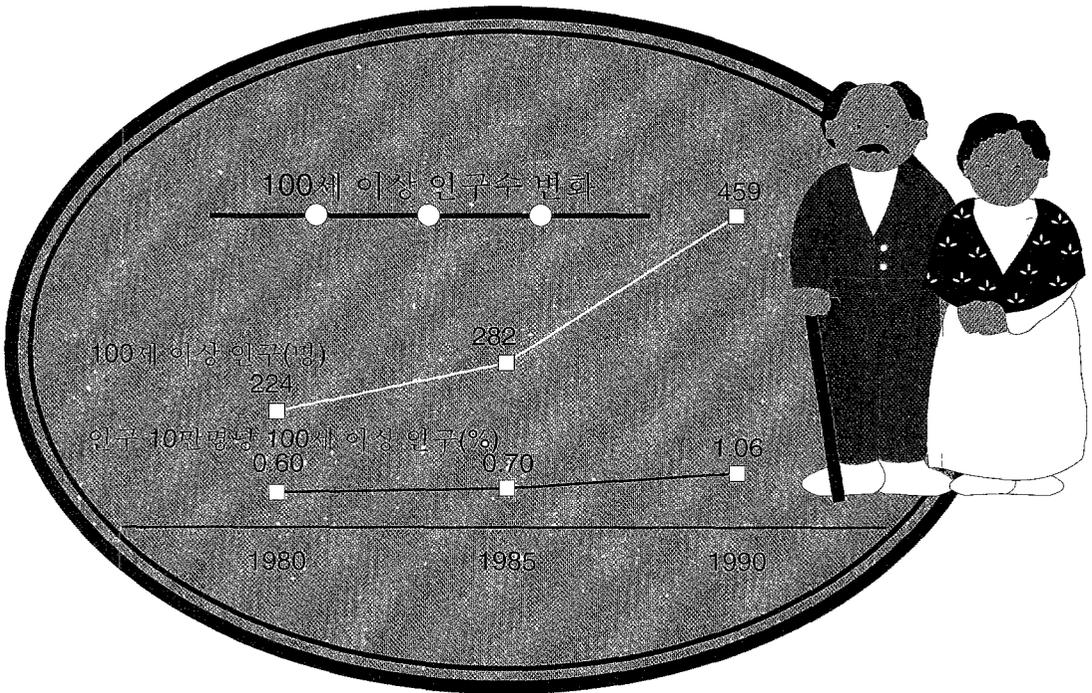
주요품목별 수출입액

(단위:천원)

일본				일본이외의 국가			
수 출		수 입		수 출		수 입	
품 목	금 액	품 목	금 액	품 목	금 액	품 목	금 액
쌀	240,434	면직물(사)	45,944	철	5,939	밤	19,623
비료	32,004	철	39,562	목탄	5,616	원유, 석유류	9,902
동	21,608	견직물	31,994	쌀	3,649	두박	8,154
대두	17,401	기계유	31,369	면직물	3,531	석탄	6,587
철	17,352	비료	17,226	사탕	3,146	초잠생사	6,564
생사	14,189	모직물	10,235	견직물	1,133	엽연초	4,564
금광	6,482	소맥분	10,950	홍삼	1,056	기계유	4,234
석탄	6,460	종이	9,465				

**여 백**

# 100세 이상 고령인구 현황



「국민보건수준 및 의료기술의 발달 등으로 인한 인구의 노령화에 따라 100세 이상 고령인구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 자료중에서 -

1990 인구주택 총조사

# 100세 이상 고령인구 현황

1992. 12

통계조사국 인구통계과

o '90. 11 1일 기준으로 실시한 1990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 100세이상 고령자는 459명이었음.

o 이들에 대한 생활습관, 건강상태 및 생존여부를 파악한 결과를 분석한 것임

'92 9 1현재 생존여부

            
459명

            
223명

            
236명

# I. 100세이상 고령인구 현황

## 1 100세이상 고령인구 규모 및 추이

- 1990 11 1현재 100세이상 고령인구는 459명임.  
1985~90년간 62.8%(177명)이 증가, 1980~85년간 증가율 25.9%보다 높게 나타나 국민보건수준 및 의료기술의 발달등으로 인한 인구의 노령화에 따라 100세이상 고령인구가 빠른속도로 증가하고 있음  
인구 10만명당 100세이상 고령인구도 '90년에 1.06명으로 '80년 0.60명, '85년 0.70명보다 증가함.
- 100세이상 고령인구중 여자가 90.2% 그리고 남자는 9.8%로, 성비(여자 100명당 남자수)가 10.9로 나타남
- 1980년 및 1985년에 비해 성비가 다소 낮게 나타나, 100세이상 여자 고령인구가 남자보다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함

(단위 명, %)

년도	100세이상 고령인구			증감(율)	인구10만명당 100세이상 고령인구
	남자	여자	성비		
1980	224	196	14.3	58(25.9%) 177(62.8%)	0.60
1985	282	253	11.5		0.70
1990	459	414	10.9		1.06

※ 日本의 100세이상 고령인구 추이

(단위 : 명, %)

년도	총인구(천명)	100세이상 인구	증감(율)	인구10만명당 100세이상 고령인구
1980	117,060	989	769(77.8%) 1,465(83.3%)	0.84
1985	121,049	1,758		1.45
1990	123,611	3,223		2.61

2. 100세이상 고령인구의 연령별 분포

o 100세이상 고령인구의 각세별 분포

- 100~104세 연령인구가 88.3%, 105~109세 연령인구가 10.0% 그리고 110세이상인 1.7%로 각각 나타남.

(단위 : 명, %)

	계	남 자	여 자
<u>100세이상</u>	459(100.0)	45(100.0)	414(100.0)
100~104	405 (88.3)	44 (97.8)	361 (87.2)
100	128 (27.9)	16 (35.6)	112 (27.0)
101	105 (22.9)	11 (24.4)	94 (22.7)
102	82 (17.9)	8 (17.8)	74 (17.9)
103	58 (12.6)	6 (13.3)	52 (12.6)
104	32 (7.0)	3 (6.7)	29 (7.0)
105~109	46 (10.0)	1 (2.2)	45 (10.9)
105	23 (5.0)	1 (2.2)	22 (5.3)
106	9 (2.0)	0 (-)	9 (2.2)
107	6 (1.3)	0 (-)	6 (1.5)
108	5 (1.1)	0 (-)	5 (1.2)
109	3 (0.6)	0 (-)	3 (0.7)
110~114	8 (1.7)	0 (-)	8 (1.9)
110	3 (0.6)	0 (-)	3 (0.7)
111	2 (0.4)	0 (-)	2 (0.5)
112	1 (0.2)	0 (-)	1 (0.2)
113	1 (0.2)	0 (-)	1 (0.2)
114	1 (0.2)	0 (-)	1 (0.2)

o 100세이상 고령인구의 연령별 추이

- 100~104세 고령인구는 '85~'90년간 74.6%가 증가하여, '80~'85년의 증가율 27.5%의 3배수준으로 나타남.
- 105~109세 고령인구도 다소 증가추세인 반면, 110세이상 인구는 '80년 12명에서 '85년 9명, '90년 8명으로 감소함

(단위 명, %)

	1980			1985			1990		
	계	남자	여자	계	남자	여자	계	남자	여자
계	224 (100.0)	28 (100.0)	196 (100.0)	282 (100.0)	29 (100.0)	253 (100.0)	459 (100.0)	45 (100.0)	414 (100.0)
100~104	182 (81.3)	26 (92.9)	156 (79.6)	232 (82.3)	23 (79.3)	209 (82.6)	405 (88.3)	44 (97.8)	361 (87.2)
105~109	30 (13.4)	2 (7.1)	28 (14.3)	41 (14.5)	4 (13.8)	37 (14.6)	46 (10.0)	1 (2.2)	45 (10.9)
110세이상	12 (5.3)	0 (-)	12 (6.1)	9 (3.2)	2 (6.9)	7 (2.8)	8 (1.7)	0 (-)	8 (1.9)

3. 시도별 100세이상 고령인구 분포

- o 100세이상 고령인구의 시도별 분포를 살펴보면 서울 17.4%, 전남 14.6%, 경기 13.5%순으로 거주하고 있음
- 인구 10만명당 100세이상 고령인구수는 제주가 4.09로 가장 높고, 전남 2.67 전북 1.55순임

(단위 - 명, %)

시 도	100세이상 고령인구		인구 10만명당 100세이상 고령인구
		구성비(%)	
전 국	459	100.0	1.06
서울	80	17.4	0.75
부산	21	4.6	0.55
대구	8	1.7	0.36
인천	8	1.7	0.44
광주	14	3.1	1.23
대전	6	1.3	0.57
경기	62	13.5	1.01
강원	18	3.9	1.14
충북	17	3.7	1.22
충남	29	6.3	1.44
전북	32	7.0	1.55
전남	67	14.6	2.67
경북	38	8.3	1.33
경남	38	8.3	1.03
제주	21	4.6	4.09

4 100세이상 고령인구가 많은지역

o 100세이상 고령인구가 많은 구 시 군

순 위	구시군명	100세이상 고령인구수
1	전남 무안군	9
1	제주 북제주군	9
3	서울 서대문구	8
3	전남 고흥군	8
5	서울 강남구	7
5	광주 서구	7
5	전남 광양군	7
8	서울 성동구	6
8	서울 중랑구	6
8	충남 논산군	6
8	전남 여천군	6
8	제주 제주시	6
13	광주 북구	5
13	경기 용인군	5
13	경기 안양시 만안출장소	5
13	충남 천원군	5

o 100세이상 고령인구가 많은 동 읍 면

순 위	동읍면명	100세이상 고령인구수
1	제주 북제주군 애월읍	5
2	경기 파주군 문산읍	3
2	전남 광양군 광양읍	3
2	전남 광양군 옥룡면	3
2	전남 여천군 화양면	3
2	전남 무안군 삼향면	3

5. 최고령 순위별 고령자(107세이상)

최고령 순 위	성 명	만 나이	생년월일	주 소	비 고
1	조 옥 이	114	1876 10 27	전남 영광군 영광읍	'91.7.3 사망
2	윤 광	113	1877 7 21	충남 논산군 강경읍	'91 7 14 사망
3	조 파 월	112	1878 9 11	경기 시흥시 미산동	'91.4.6 사망
4	박 월 년	111	1878 11 28	전남 장성군 황룡면	'91 7 2 사망
5	박 씨	111	1879 10 31	서울 마포구 상암동	
6	이 춘 근	110	1880 2 11	제주 북제주군 구좌읍	'91.4.4 사망
7	임 복 순	110	1880 5.17	경기 성남 수정구 수진2동	
8	박 방 춘	110	1880 8 11	경기 화성군 송산면	'92 3.5 사망
9	조 옥 순	109	1881 3.4	경기 성남 중원구 은행1동	'91 7 27 사망
10	하 사 래	109	1881 10 2	광주 서구 화정3동	'91 8 18 사망
11	엄 대 신	109	1881 10 23	경기 용인군 구성면	'91.9.2 사망
12	이 윤 임	108	1881 12 28	인천 남구 주안1동	'91 8 11 사망
13	이 삼 숙	108	1882 1 26	전남 승주군 해룡면	
14	배 공 례	108	1882 4 24	전남 강진군 성전면	
15	서 옥 인	108	1882 4 30	서울 성북구 정릉3동	'91 7 3 사망
16	김 봉 순	108	1882 9 11	서울 중랑구 면목5동	'91 3.27 사망
17	박 씨	107	1883 2 10	전북 무주군 실천면	
18	김 분 지	107	1883 4.10	경북 울진군 죽변면	'91 6 2 사망
19	이 광 병	107	1883.4.13	경기 안양시 박달동	'91 4 사망
20	이 능 백	107	1883 5.9	제주 북제주군 애월읍	
21	이 순 옥	107	1883.8.11	충남 논산군 강경읍	'90.12.5 사망
22	송 양 심	107	1883.10.15	서울 영등포구 양정동	

※ 생존여부는 '92. 9 1일 현재 기준임

o 최고령 순위별 고령자('92 9 1현재 생존자 기준)

최고령 순 위	성 명	'90 11 1일 현재연령	생년월일	주 소
1	박 씨	111	1879 10.31	서울 마포구 상암동
2	임 복 순	110	1880 5.17	경기 성남 수정구 수진2동
3	이 삼 숙	108	1882 1 26	전남 승주군 해룡면
4	배 공 례	108	1882 4.24	전남 강진군 성전면
5	박 씨	107	1883 2 10	전북 무주군 설천면
6	이 능 백	107	1883 5 9	제주 북제주군 애월읍
7	송 양 심	107	1883 10 15	서울 영등포구 양경동
8	윤 최 판	106	1883 11 28	충남 당진군 송산면
9	김 최 남	106	1884 1.14	경남 사천군 사남면
1 0	최 남 이	106	1884 3 29	서울 도봉구 쌍문1동

## II. 생활습관

### o 음주여부별 100세이상 고령인구

- 100세이상 고령인구중 음주여부가 조사된 332명의 60.8%가 음주를 전혀 하지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39.2%는 음주를 하는것으로 나타남.

음주횟수를 살펴보면, 매일 음주자가 5.7%가 되었으며, 주2~4회 음주자도 5.1%로 나타남

- 남녀별로 보면, 남자의 경우 57.1%가 음주를 하며, 여자의 경우에는 37.0%가 음주를 하는것으로 나타남

(단위 명, %)

	계	전혀않함	음주함	매 일	자 주(주 2~4회)	가 끄(월 2~4회)	거 의안함 (월1회이상)
계	332 (100.0)	202 (60.8)	130 (39.2)	19 (5.7)	17 (5.1)	34 (10.2)	60 (18.1)
남자	35 (100.0)	15 (42.9)	20 (57.1)	7 (20.0)	4 (11.4)	3 (8.6)	6 (17.1)
여자	297 (100.0)	187 (63.0)	110 (37.0)	12 (4.0)	13 (4.4)	31 (10.4)	54 (18.2)

### o 흡연여부별 100세이상 고령인구

- 100세이상 고령인구중 흡연여부가 조사된 331명의 30.5%가 흡연을 하고 있었으며, 14.8%는 과거에는 피웠으나 끊은 것으로 그리고 54.7%는 전혀 흡연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남

- 남녀별로 보면, 남자의 경우 54.3%가 흡연을 하고있는 반면, 여자는 27.7%가 흡연을 하는 것으로 나타남

(단위 : 명, %)

	계	전혀 않피움	끊었음	피 음	반 갑 미 만	반갑~ 한갑미만	한갑~ 두갑미만	두갑이상
계	331 (100.0)	181 (54.7)	49 (14.8)	101 (30.5)	36 (10.9)	38 (11.5)	24 (7.3)	3 (0.9)
남자	35 (100.0)	9 (25.7)	7 (20.0)	19 (54.3)	4 (11.4)	10 (28.6)	5 (14.3)	- (-)
여자	296 (100.0)	172 (58.1)	42 (14.2)	82 (27.7)	32 (10.8)	28 (9.5)	19 (6.4)	3 (1.0)

○ 식사형태별 100세이상 고령인구

- 100세이상 고령인구중 식사형태가 조사된 332명의 86.4%가 하루에 세번 식사를 하는것으로 나타남.

(단위 . 명, %)

	계	식 사 횟 수					
		1 회	2 회	3 회	4 회	5 회	불규칙
계	332 (100.0)	2 (0.6)	17 (5.1)	287 (86.4)	11 (3.3)	7 (2.1)	8 (2.4)
남자	36 (100.0)	- (-)	2 (5.6)	31 (86.1)	2 (5.6)	- (-)	1 (2.8)
여자	296 (100.0)	2 (0.7)	15 (5.1)	256 (86.5)	9 (3.0)	7 (2.4)	7 (2.4)

○ 건강관리형태별 100세이상 고령인구

- 100세이상 고령인구중 건강관리형태가 조사된 332명의 57.2%가 건강을 위해 별도의 방법을 취하지 않고 있으며 24.7%가 규칙적인 생활을 그리고 6.3%가 식사조절로 건강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남녀별로 보면 남자의 경우 건강관리를 위해 별도의 방법을 이용하지 않은 비율이 38.9%인데 반하여 여자의 경우에는 59.5%로 남자가 여자보다 건강관리를 위해 일정한 방법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단위 . 명, %)

	계	건 강 관 리 방 법							
		운동	식사 조절	금연 금주	보약 (영양제)	목욕 (사우나)	규칙 생활	특별방법 없음	기타 음
계	332 (100.0)	5 (1.5)	21 (6.3)	6 (1.8)	6 (1.8)	4 (1.2)	82 (24.7)	190 (57.2)	18 (5.4)
남자	36 (100.0)	1 (2.8)	2 (5.6)	2 (5.6)	- (-)	1 (2.8)	12 (33.3)	14 (38.9)	4 (11.1)
여자	296 (100.0)	4 (1.4)	19 (6.4)	4 (1.4)	6 (2.0)	3 (1.0)	70 (23.6)	176 (59.5)	14 (4.7)

### Ⅲ. 건강상태

○ 의료기관 및 약국이용상태별 100세이상 고령인구

- 100세이상 고령인구중 의료기관 약국 이용실태가 조사된 328명의 89.0%가 아플경우만 의료기관 또는 약국을 이용하고 있으며, 매일 또는 비교적 자주 이용하는 고령자는 2.4% 수준으로 아주 낮게 나타남

(단위 - 명, %)

	계	거의매일	주2~4회	월2~4회	월1회이상	불규칙
계	328 (100.0)	5 (1.5)	3 (0.9)	8 (2.4)	20 (6.1)	292 (89.0)
남자	35 (100.0)	- (-)	- (-)	- (-)	3 (8.6)	32 (91.4)
여자	293 (100.0)	5 (1.7)	3 (1.0)	8 (2.7)	17 (5.8)	260 (88.7)

### Ⅳ. 장수비결

- 100세이상 고령인구중 장수비결이 조사된 329명의 장수비결트는 규칙적인 생활이 35.9%로, 채식이 21.3% 소식 14.9%로 각각 나타남
- 장수집안이기에 때문에 장수한 경우는 조사된 고령자의 7.6%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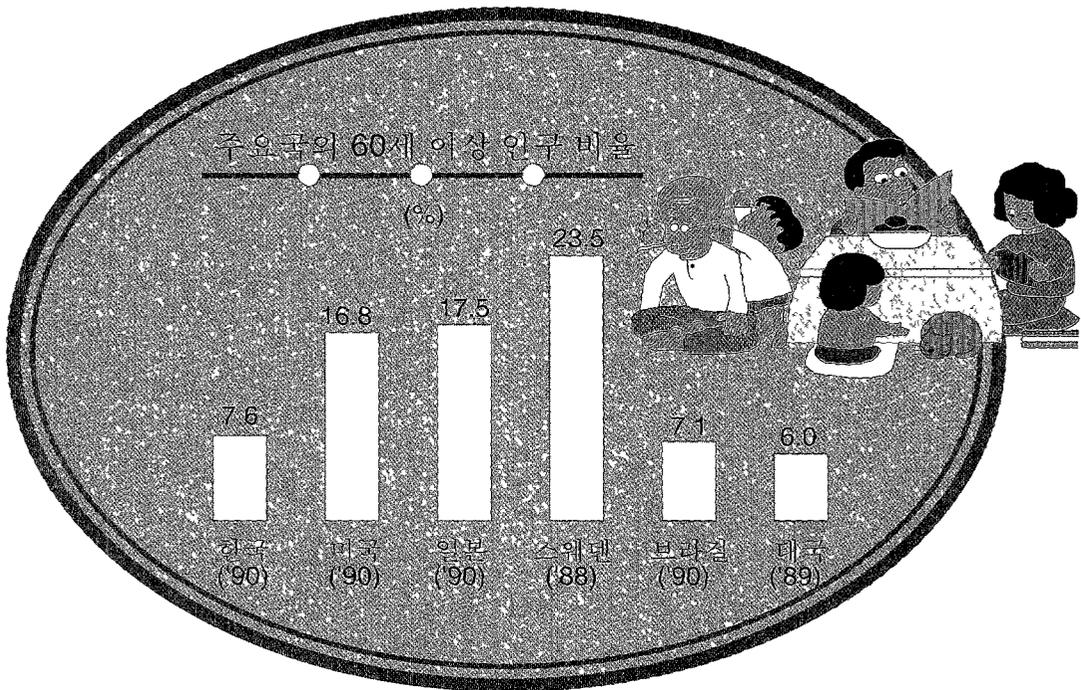
(단위 명, %)

	장수집안	채식	육식	소식	규칙생활	냉수마찰	식후반주	기타
계	25 (7.6)	70 (21.3)	32 (9.7)	49 (14.9)	118 (35.9)	3 (0.9)	2 (0.6)	61 (18.5)
남자	2 (5.7)	6 (17.1)	3 (8.6)	7 (20.0)	11 (31.4)	- (-)	1 (2.9)	8 (22.9)
여자	23 (7.8)	64 (21.8)	29 (9.9)	42 (14.3)	107 (36.4)	3 (1.0)	1 (0.3)	53 (18.0)

주 조사대상 인구는 329명(남자 35명, 여자 294명)임

**여 백**

## 한국의 고령자 실태 분석



「60세 이상 고령자 3,319천명 중 83%(277천명)는 혼자 살고 있으며, 72.4%는 직계가족과 함께 살고 있다」

- 자료중에서 -

# 韓國의 高齡者 實態分析

1993. 6

統計調查局 人口統計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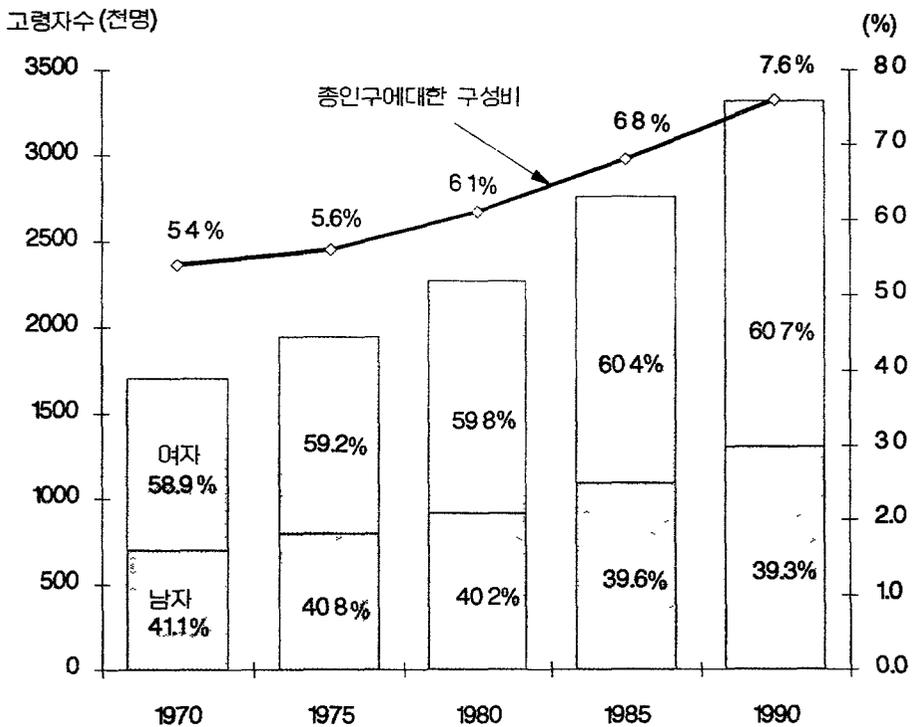
## □ 分析背景

- 우리나라는 低出生率·低死亡率 現象의 持續으로 人口의 高齡化 現象이 急速히 進展, 高齡化 社會로의 進入을 目前에 두고 있으며, 이에따른 高齡化 社會의 諸般問題點 把握 및 對策마련에 必要한 基礎資料로서 高齡者 統計의 要求가 急增하고 있음.
- 따라서 急增하는 同統計의 需要에 副應하기 위하여, 全國 高齡者の 社會·人口學的 및 經濟學的 特性이 把握될 수 있는 唯一한 資料源인 『1990 人口住宅 總調查』結果를 利用하여 高齡者の 實態를 分析하게 되었음.
- 高齡者の 年齡基準은 研究目的에 따라 60歲以上 또는 65歲以上을 使用할 수 있으나, 同 分析에서는 우리社會에서 60歲를 前後로 停年을 맞이하는 職業이 많은 관계로, 보다 擴張된 基準인 60歲以上 人口를 對象으로 分析하였음

## 1 고령자 규모 및 변동추이

- 우리나라의 60세이상 고령자는 '70년 170만명에서 '80년 227만명, '90년 332만명으로 '70~'80년간 56만명이 증가하였으나, '80~'90년간에는 105만명이 증가함
- 총인구에 대한 구성비도 '70년 5.4%에서 '80년 6.1% 그리고 '90년 7.6%로 증가하여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음.
- 고령자의 증가는 사망율 저하에 따른 평균수명의 연장에 기인하며, 총인구에 대한 고령자의 구성비 증가는 사망률 감소로 인하여 고령자는 증가한데 반하여 출산력의 감소로 저연령층 인구는 감소하였기 때문임.

### 고령자 추이



## 고령자 규모 및 변동추이

(단위 명, %)

		총인구 (A)	60세 이상 (B)	65세 이상 (C)	총인구대비율	
					60세 이상 (B)/(A)	65세 이상 (C)/(A)
계	1970	31 435 252	1 704 636	1 039 378	5.4	3.3
	1975	34 678 972	1 944 151	1 206 599	5.6	3.5
	1980	37 406 815	2 268 171	1 446 114	6.1	3.9
	1985	40 419 652	2 756 425	1 749 547	6.8	4.3
	1990	43 390 374	3 319 298	2 162 239	7.6	5.0
남 자	1970	15 779 615	700 440	398 078	4.4	2.5
	1975	17 445 246	792 866	458 387	4.5	2.6
	1980	18 749 306	912 703	539 481	4.9	2.9
	1985	20 227 564	1 092 466	652 079	5.4	3.2
	1990	21 770 919	1 305 501	810 656	6.0	3.7
여 자	1970	15 655 637	1 004 196	641 300	6.4	4.1
	1975	17 233 726	1 151 285	748 212	6.7	4.3
	1980	18 657 509	1 355 468	906 633	7.3	4.9
	1985	20 192 088	1 663 959	1 097 470	8.2	5.4
	1990	21 619 455	2 013 797	1 351 583	9.3	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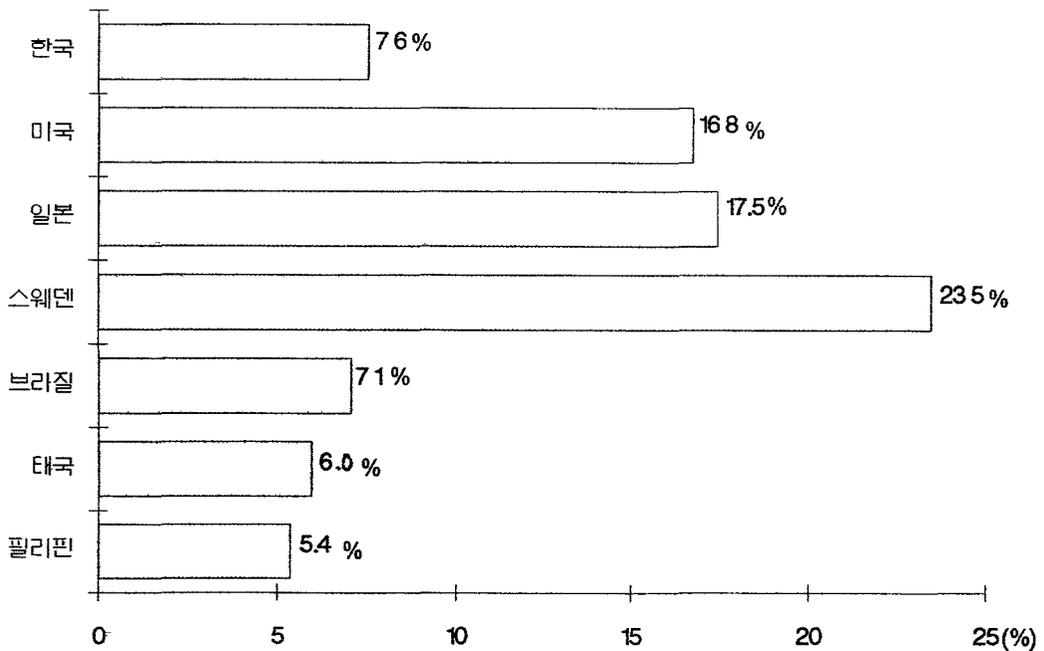
- 우리나라의 60세이상 및 65세이상 인구비율은 스웨덴, 프랑스, 일본, 미국, 호주등 이미 고령화 사회가된 선진국들 보다 낮으나, 브라질, 인도,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등 개발도상국 보다는 높은 수준임

(단위 %)

국명	년도	60세이상	65세이상	국명	년도	60세이상	65세이상
한국	1990	7.6	5.0	이집트	1988	5.3	2.9
미국	1990	16.8	12.5	브라질	1990	7.1	4.7
일본	1990	17.5	12.0	태국	1989	6.0	3.7
프랑스	1990	19.1	14.0	인도	1990	6.5	4.1
스웨덴	1988	23.5	18.3	필리핀	1990	5.4	3.5
호주	1990	15.5	11.2	말레이시아	1990	5.8	3.7

자료 1) 한국, 일본 1990 인구센서스  
 2) 미국 1990 인구센서스 잠정결과  
 3) 이외국가 1990 유엔 인구통계연감

### 주요국의 60세이상 인구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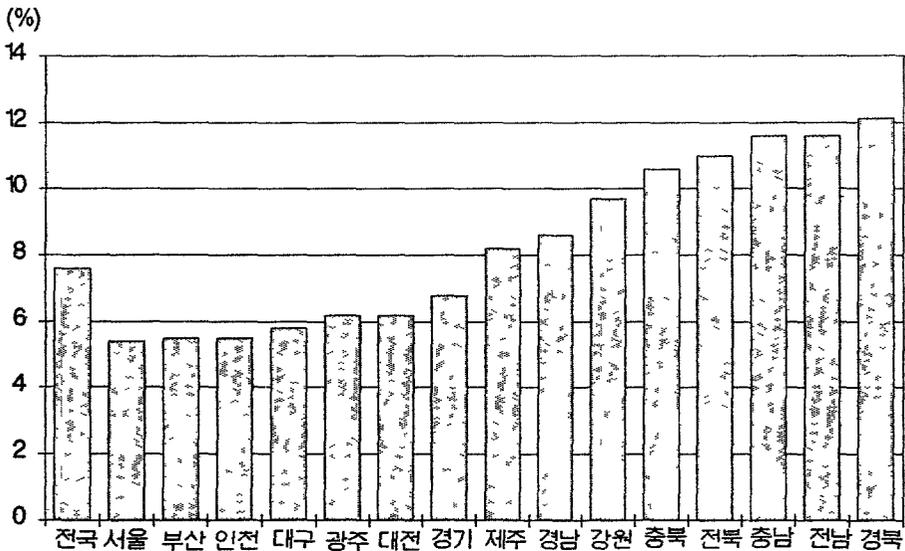


## 2 고령자의 지역별 분포

### 가 시·도별 분포

- '90년 총인구에 대한 60세이상 고령자 비율을 시·도별로 보면, 경북이 인구 100명당 12.1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전남·충남(11.6), 전북(11.0), 충북(10.6), 강원(9.7)순임 서울(5.4), 부산·인천(5.5), 대구(5.8)등 대도시는 낮게 나타남
- 총인구중 80세이상 인구비율은 제주가 인구 100명당 1.26명꼴로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전남(1.24), 충남·경북(1.11), 전북(1.06)순으로 나타남 인천(0.38), 부산(0.39), 서울(0.43), 대구(0.45)등은 비교적 낮은 수준임
- 전남, 전북, 충남, 충북, 경북등에서 높은 고령자 인구비율은 주로 이들지역의 청·장년층 인구가 서울, 부산등 대도시로 이동한 결과임

시도별 60세이상인구 비율(총인구 대비율)



## 고령자의 지역별 분포

(단위 · 명, %)

	총 인 구	60세 이상 인 구			80세 이상 인 구	구 성 비	총 인 구 대 비 율
			구 성 비	총 인 구 대 비 율			
전 국	43 390 374	3 319 298	100 0	7 6	289 638	100 0	0.66
서울	10 603 250	568 693	17 1	5 4	45 240	15.6	0 43
부산	3 795 892	209 037	6 3	5.5	14 624	5.0	0 39
대구	2 227 979	129 270	3 9	5.8	10 015	3 5	0.45
인천	1 816 328	100 773	3 0	5.5	6 890	2.4	0.38
광주	1 138 717	70 357	2 1	6 2	7 011	2 4	0.62
대전	1 049 122	64 929	2 0	6.2	5 561	1.9	0.53
경기	6 154 359	419 449	12 6	6 8	33 023	11.4	0.54
강원	1 579 859	153 858	4 6	9.7	12 829	4 4	0 81
충북	1 389 222	147 349	4 4	10.6	13 345	4 6	0 96
충남	2 013 270	233 533	7 0	11 6	22 381	7 7	1 11
전북	2 069 378	227 339	6 8	11 0	21 833	7 5	1 06
전남	2 506 944	291 983	8 8	11 6	31 146	10 8	1 24
경북	2 860 109	345 444	10.4	12.1	31 648	10 9	1 11
경남	3 671 509	315 046	9 5	8 6	27 590	9 5	0.75
제주	514 436	42 238	1 3	8 2	6 502	2 2	1 26

나 시부·군부별 분포

- 60세이상 총고령자중 시부에서 거주하는 고령자의 비율은 '70년 27.2%에서 '90년 54.7%로 크게 높아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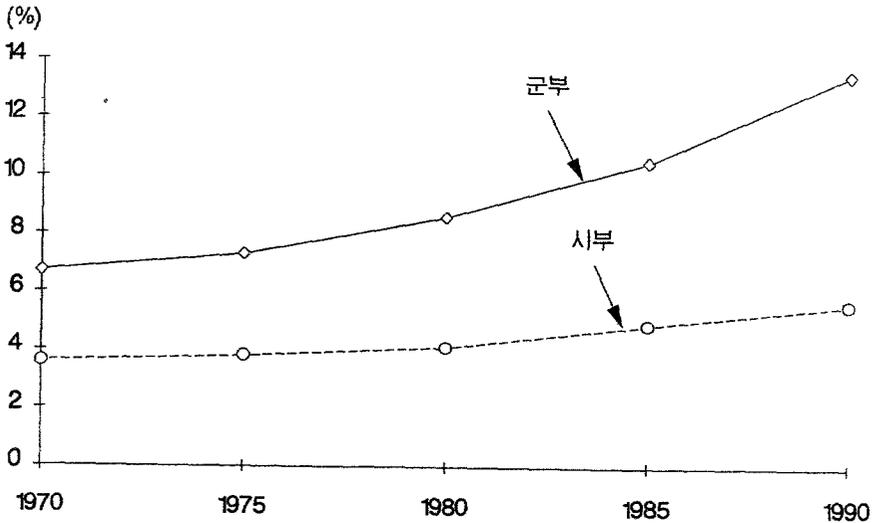
· 이는 급속한 도시화로 도시에 거주하는 총인구뿐만아니라 고령자수도 증가하였기 때문임

	1970	1980	1985	1990
시부 인구비율	41.2%	57.3%	65.4%	74.4%
시부 고령자비율	27.2%	39.1%	46.5%	54.7%

- '90년 군부는 인구 100명당 13.5명이 60세이상 고령자이며, 이중 80세이상 인구는 약 1명꼴로 나타난 반면, 시부는 인구 100명당 60세이상 고령자는 5.6명 그리고 80세이상 인구는 약 0.5명으로 나타나, 총인구에 대한 고령자 비율은 시부보다 군부가 높음.

· 총인구 대비 고령자 비율이 시부보다 군부에서 더 급속히 높아지는 것은 농촌의 젊은 연령층인구가 도시로 이동한 결과로서, 농촌에서 생산성이 높은 청장년층 노동력 부족이 점차 심화되어 감을 의미함.

### 시부 군부별 60세이상 인구 비율



## 시부·군부별 고령자

(단위 명, %)

	고령자			구성비			총인구 대비율		
	전국	시부	군부	전국	시부	군부	전국	시부	군부
<u>60세 이상</u>									
1970	1 704 636	462 909	1 241 727	100 0	27.2	72.8	5 4	3.6	6.7
1975	1 944 151	644 277	1 299 874	100 0	33 1	66 9	5 6	3 8	7 3
1980	2 268 171	886 530	1 381 641	100.0	39 1	60.9	6 1	4.1	8 6
1985	2 756 425	1 282 112	1 474 313	100 0	46 5	53 5	6 8	4 9	10 5
1990	3 319 298	1 815 601	1 503 697	100 0	54 7	45 3	7 6	5 6	13.5
<u>80세 이상</u>									
1970	113 803	25 000	88 803	100 0	22 0	78 0	0 36	0 19	0 48
1975	134 269	35 931	98 338	100 0	26 8	73 2	0 39	0 21	0.55
1980	171 449	54 587	116 862	100 0	31 8	68 2	0 46	0 25	0 73
1985	213 388	85 624	127 764	100 0	40 1	59 9	0 53	0 32	0.91
1990	289 638	144 110	145 528	100 0	49 8	50 2	0 66	0 45	0.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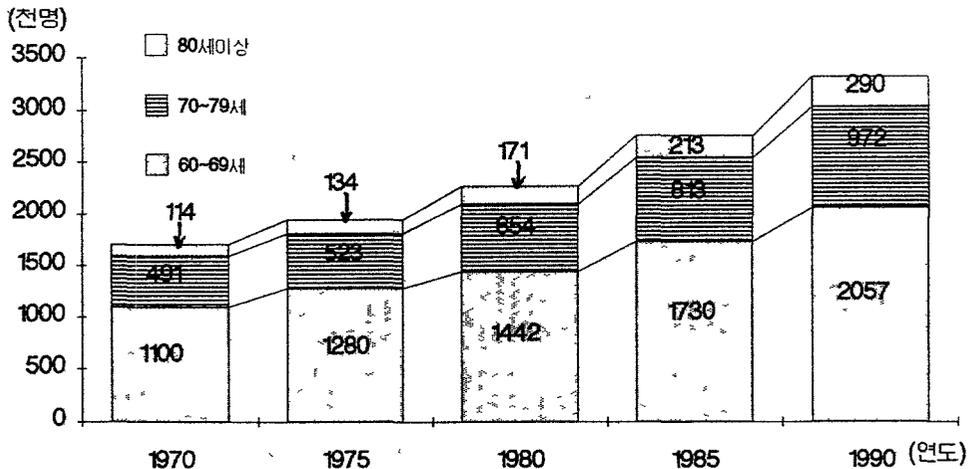
### 3 고령자의 연령구조

#### 가 연령계층별 고령인구

- '90년 60~64세 인구는 1 157천명으로 총인구의 2.7%, 65~69세 인구는 900천명으로 총인구의 2.1%임 80세 이상 장수인구는 289천명으로 총인구의 0.8%임
- 60세이상 모든 연령층에서 고령인구가 늘었으며 총인구에 대한 구성비 역시 증가하였음
- '80~'90년간 60~64세 인구는 40.8% 증가한 반면, 80~84세 인구는 65.2%, 그리고 85세 이상 인구는 77.2% 증가하여 고령일수록 증가폭이 큼

	1970		1980		1990		'80~'90간 증가	
	인구	%	인구	%	인구	%	인구	%
60세 이상 (65세 이상)	1 704 636	5.4	2 268 171	6.1	3 319 298	7.6	1 051 127	46.3
60~64	1 039 378	3.3	1 446 114	3.9	2 162 239	5.0	716 125	49.5
65~69	665 258	2.1	822 057	2.2	1 157 059	2.7	335 002	40.8
70~74	434 715	1.4	620 283	1.7	900 314	2.1	280 031	45.1
75~79	315 444	1.0	425 096	1.1	595 116	1.4	170 020	40.0
80~84	175 416	0.6	229 286	0.6	377 171	0.9	147 885	64.5
85+	83 836	0.3	118 207	0.3	195 312	0.5	77 105	65.2
85+	29 967	0.1	53 242	0.1	94 326	0.3	41 084	77.2

#### 연령계층별 고령자 추이



나 노령화 지수

- 인구의 노령화 정도를 나타내는 노년인구지수(0~14세 저연령층 인구에 대한 60세 이상 인구의 비율)은 '70년 12.9%에서 '80년 17.9%, '90년 29.8%로 급속히 높아짐
- 시부보다 군부의 노년인구지수가 높으며, 증가속도도 더 빨라 도시보다 농촌이 인구의 노령화 정도가 심함을 나타내고 있음
- 15~59세의 생산 가능 인구에 대한 노년인구의 비율(노년부양비)은 '70년 10.3%에서 '90년 11.5%로 증가하여, 향후 생산연령층인구의 노년층인구에 대한 부담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됨
- '90년 시부의 노년 부양비는 8.3%인데 반하여, 군부에서는 21.6%로 높게 나타나, 농촌경제의 압박요인이 되고 있음.

(단위 · %)

	노년인구지수 <sup>1)</sup>			노년부양비 <sup>2)</sup>		
	전 국	시 부	군 부	전 국	시 부	군 부
1970	12.9	9.4	14.9	10.3	6.1	13.9
1975	14.7	10.9	17.8	10.0	6.3	14.0
1980	17.9	12.8	24.2	10.1	6.5	15.5
1985	22.8	16.4	34.6	10.8	7.4	17.8
1990	29.8	21.3	57.3	11.5	8.3	21.6

주 1) 노년인구지수 = 60세이상 인구 ÷ 0~14세 인구 × 100(비율이 높을수록 노령화)  
 2) 노년부양비 = 60세이상 인구 ÷ 15~59세 인구 × 100(비율이 높을수록 부양 부담이 큼)

- 우리나라의 노령화지수는 미국, 일본, 스웨덴, 호주, 프랑스등 선진국보다 낮으나, 이집트,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등 개발도상국 보다는 높음.

(단위 %)

국 명	년도	노년 인구지수	노년 부양비	국 명	년도	노년 인구지수	노년 부양비
한 국	1990	29.8	11.5	이 집 트	1988	13.1	9.8
미 국	1990	77.4	27.2	브 라 질	1990	20.9	12.2
일 본	1990	96.2	27.2	태 국	1989	17.5	9.9
프 랑 스	1990	95.3	31.5	인 도	1990	18.2	11.3
스 웨 덴	1988	136.8	39.7	필 리 핀	1990	14.0	9.6
호 주	1990	70.6	24.7	말 레 이 시 아	1990	15.7	10.2

자료 1) 한국, 일본 1990 인구센서스  
 2) 미국 1990 인구센서스 잠정결과  
 3) 이외국가 1990 유엔 인구통계연감

#### 4 고령자의 성비

- '90년 고령자 성비(60세이상 여자 100명당 남자수)는 64.8로 여자 고령자가 남자 고령자 보다 약 1.5배가 많음
- 이는 남자에 비해 여자의 평균수명이 높기 때문임
- 고령자 성비는 '70년 69.8에서 '90년 64.8로 다소 낮아지고 있는데, 이는 남자의 평균수명 보다 여자의 평균수명 상승폭이 커 남자노인보다 여자노인이 더 증가하였기 때문임
- 고연령층일수록 성비가 급속히 낮아져 85세 이상인구의 성비는 24.9에 불과함
- 이는 장수인구는 주로 여자이기 때문임

(단위 · 명, 여자 100명당 남자수)

	1970			1980			1990		
	남 자	여 자	성비	남 자	여 자	성비	남 자	여 자	성비
60세이상	700 440	1004 196	69.8	912 703	1355 468	67.3	1305 501	2013 797	64.8
60~64	302 362	362 896	83.3	373 222	448 835	83.2	494 845	662 214	74.7
65~69	181 431	253 284	71.6	260 597	359 686	72.5	375 752	524 562	71.6
70~74	120 835	194 609	62.1	161 867	263 229	61.5	233 308	361 808	64.5
75~79	60 931	114 485	53.2	74 175	155 111	47.8	127 905	249 266	51.3
80~84	26 355	57 481	45.9	31 546	86 661	36.4	54 861	140 451	39.1
85+	8 526	21 441	39.8	11 296	41 946	26.9	18 826	75 500	24.9

주 성비는 여자 100명당 남자수임

- 우리나라 고령자의 성비는 미국, 일본, 프랑스, 스웨덴, 호주등 선진국뿐만 아니라, 이집트, 인도, 말레이시아등 개발도상국보다 낮게 나타나 우리나라 남녀간 평균 수명 차이가 큰것을 보여주고 있음

(단위 · 여자 100명당 남자수)

국 명	년도	성 비	국 명	년도	성 비
한 국	1990	64.8	이 집 트	1988	97.6
미 국	1990	71.9	브 라 질	1990	91.5
일 본	1990	74.3	태 국	1989	83.9
프 랑 스	1990	70.1	인 도	1990	102.9
스 웨 덴	1988	78.9	필 리 핀	1990	87.5
호 주	1990	80.5	말레이시아	1990	86.2

- 자료 1) 한국, 일본 1990 인구센서스  
 2) 미국 1990 인구센서스 잠정결과  
 3) 이외국가 1990 유엔 인구통계연감

## 5. 고령자의 혼인상태

### 가 고령자의 혼인상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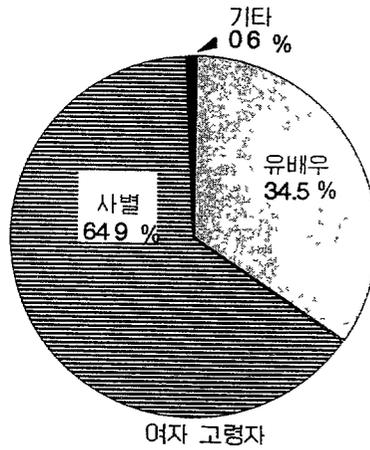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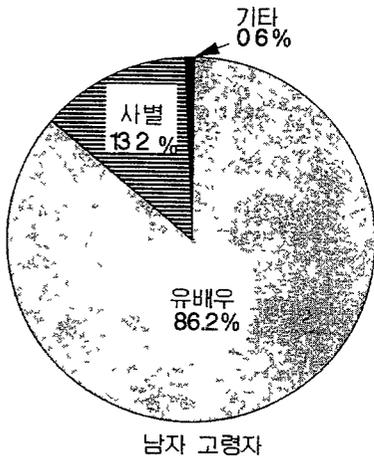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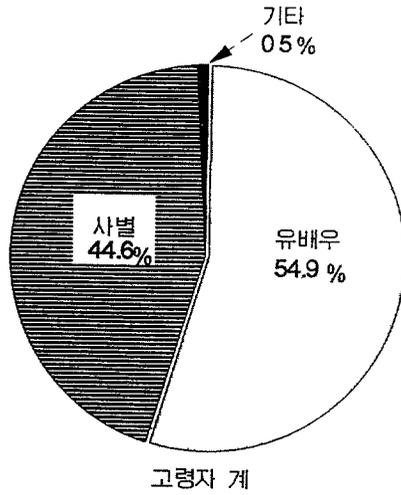
- '90년 총고령자중 54.9%가 배우자가 생존(유배우)하여 있으며, 44.6%는 사별한 것으로 나타남 이혼과 미혼 고령자 비율은 각각 0.3%와 0.2%로 나타남
- 년도별 추이를 보면, 유배우비율은 증가하고 있는 반면, 사별 비율은 감소추세임
- 남·녀별로 보면, 남자의 경우 유배우 고령자가 86.2%를 차지하는 반면, 사별 고령자는 13.2%에 불과함 여자의 경우에는 유배우 비율은 34.5%로 낮은 반면, 사별 비율은 64.9%로 높음
- 여자의 평균수명이 남자보다 높기 때문에, 남자는 배우자가 거의 생존하여 있으나, 여자노인의 경우에는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가 많기 때문임
- 시부·군부별로는, 유배우 비율은 시부보다 군부가 높은 반면(시부 51.6%, 군부 58.8%), 사별비율은 군부보다 시부가 높음(시부 47.7%, 군부 40.8%)
- 이는 고령자들이 배우자가 생존하고 있는 경우에는 농촌에 함께 거주하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경제적·정신적 의지를 위하여 도시의 자녀들에게로 이동하는 경향 때문으로 풀이됨

## 60세 이상 인구의 혼인상태별 비율

(단위 명, %)

	계	유배우	사 별	이 혼	미 혼
<u>전 국</u>					
1970	1 704 636	50.3	49.3	0.3	0.1
1975	1 944 151	52.9	46.8	0.2	0.1
1980	2 268 171	53.0	46.6	0.2	0.1
1985	2 756 425	55.5	44.0	0.3	0.2
1990	3 319 298	54.9	44.6	0.3	0.2
<u>남 자</u>					
1970	700 440	80.3	19.2	0.4	0.1
1975	792 866	83.3	16.3	0.3	0.1
1980	912 703	84.7	14.8	0.2	0.2
1985	1 092 466	86.5	13.0	0.3	0.2
1990	1 305 501	86.2	13.2	0.4	0.2
<u>여 자</u>					
1970	1 004 196	29.4	70.2	0.3	0.1
1975	1 151 285	31.9	67.7	0.2	0.1
1980	1 355 468	31.6	68.0	0.2	0.1
1985	1 663 959	35.2	64.3	0.3	0.1
1990	2 013 797	34.5	64.9	0.4	0.2
<u>시 부</u>					
1970	462 909	45.1	54.3	0.4	0.1
1975	644 277	48.1	51.4	0.3	0.2
1980	886 530	48.1	51.4	0.3	0.2
1985	1 282 112	51.8	47.6	0.4	0.1
1990	1 815 601	51.6	47.7	0.4	0.2
<u>군 부</u>					
1970	1 241 727	52.2	47.4	0.3	0.1
1975	1 299 874	55.2	44.5	0.2	0.1
1980	1 381 641	56.2	43.5	0.2	0.1
1985	1 474 313	58.8	40.8	0.2	0.2
1990	1 503 697	58.8	40.8	0.3	0.2

# 고령자의 혼인상태별 구성비(1990)



나 고령자의 연령별 혼인상태

- 고연령증일수록 유배우 비율이 낮아지며 사별 비율이 높아짐  
고연령증일수록 남자의 사망율이 여자에 비해 높기 때문임
- 모든 연령층에서 유배우 비율이 다소 높아지는 추세를 나타냄  
· 이는 남자, 여자 모두 평균수명이 연장되고 있기 때문임

(단위 %) )

	유 배 우			사 별		
	1970	1980	1990	1970	1980	1990
<u>계</u>						
60~64	63.9	67.0	69.2	35.6	32.5	30.0
65~69	52.8	57.0	59.3	46.7	42.7	40.2
70~79	36.9	40.6	43.9	62.7	59.1	55.8
80+	18.5	19.0	20.8	81.3	80.8	79.0
<u>남자</u>						
60~64	89.1	91.7	92.3	10.3	7.8	7.0
65~69	82.9	87.3	89.0	16.6	12.3	10.5
70~79	69.6	76.7	80.7	30.0	23.0	19.0
80+	45.6	52.5	59.4	54.2	46.9	40.2
<u>여자</u>						
60~64	42.9	46.5	52.0	56.6	53.1	47.2
65~69	31.3	35.0	38.0	68.3	64.7	61.5
70~79	17.8	20.2	22.1	82.0	79.5	77.5
80+	6.5	7.7	7.6	93.2	92.1	92.2

## 6 고령자의 교육정도

### 가 고령자의 교육정도 추이

- '90년 고령자의 불취학율은 54.2%로 '70년 84.6%, '80년 72.2%에서 크게 감소함  
한편, 초대·전문대이상 학력 비율은 3.3%로 '70년 0.9%, '80년 1.4%에서 크게  
증가함
- 남녀별로 보면, 여자가 남자에 비해 불취학 인구비율이 높은 반면, 국민학교 이  
상 학력비율은 낮음
- 남녀 모두 불취학 비율이 크게 낮아진 반면, 국민학교 이상의 학력비율은 높아짐.  
그러나, 여자보다 남자의 경우에 불취학율의 저하폭과 중·고교이상의 고학력 비  
율의 상승폭이 더 크게 나타남

(단위 . 명, %)

	계	불취학	국민학교	중·고등학교	초대·전문대이상
<u>계</u>					
1970	1 704 636	84.6	11.4	3.2	0.9
1975	1 944 151	76.6	18.1	4.3	1.0
1980	2 268 171	72.2	20.8	5.6	1.4
1985	2 756 425	63.5	25.8	8.4	2.2
1990	3 319 298	54.2	30.9	11.6	3.3
<u>남자</u>					
1970	700 440	74.5	17.3	6.4	1.9
1975	792 866	64.5	25.2	8.1	2.1
1980	912 703	57.5	28.7	10.8	3.0
1985	1 092 466	45.3	34.0	15.8	5.0
1990	1 305 501	34.9	37.1	20.6	7.4
<u>여자</u>					
1970	1 004 196	91.6	7.3	1.0	0.2
1975	1 151 285	84.9	13.3	1.6	0.2
1980	1 355 468	82.0	15.5	2.1	0.3
1985	1 663 959	75.5	20.4	3.6	0.5
1990	2 013 797	66.7	26.9	5.7	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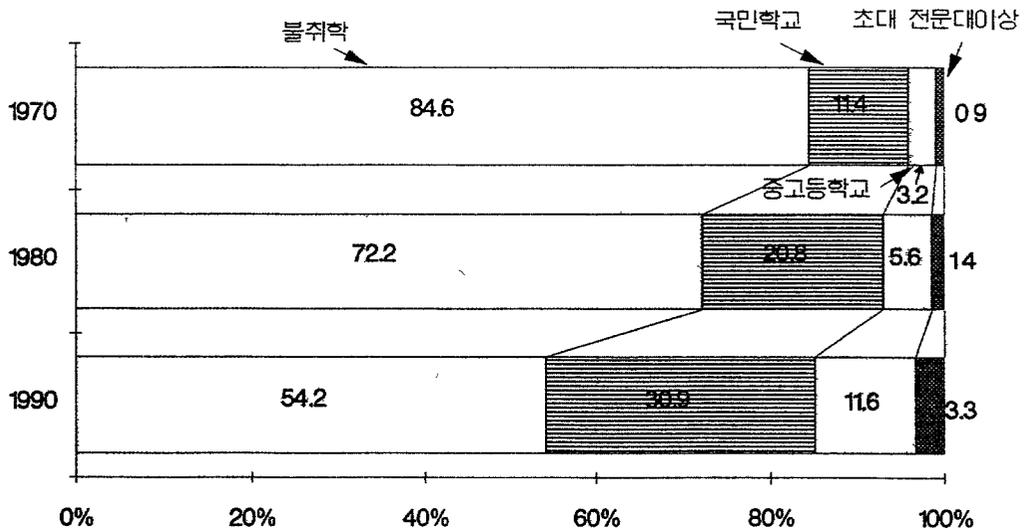
나 시부·군부별 고령자의 교육정도

- '90년 농촌거주 고령자의 불취학 비율은 67.6%로 도시의 43.1%보다 높음
- 반면, 국민학교 이상 학력(특히 고학력) 비율은 농촌보다 도시의 고령자가 높음.
- 이는 고학력자가 평생동안 직업·교육등의 이유로 시부로 이동하는 율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임

(단위 : 천명, %)

	전국	시부	군부
계	3 319(100.0)	1 816(100.0)	1 504(100.0)
불취학	54.2	43.1	67.6
국민학교	30.9	34.4	26.7
중·고등학교	11.6	17.1	4.8
초대·전문대이상	3.3	5.3	0.8

고령자의 교육정도별 구성비



7 고령자의 가족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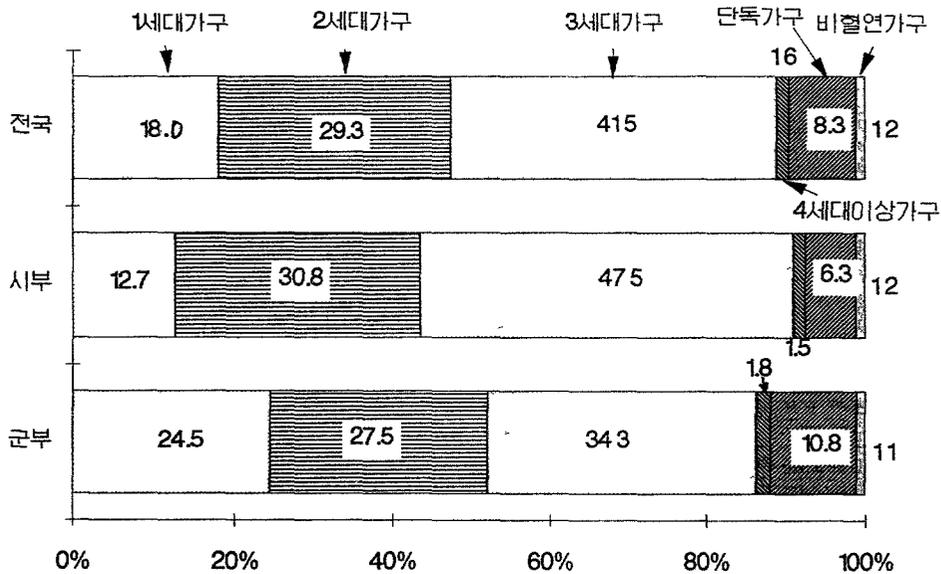
가 가족형태별 고령자

- 고령자를 고령자가 살고있는 가구의 가족형태(세대구성)별로 보면, 60세이상 고령자 3 319천명중 8.3%(277천명)은 혼자 살고 있으며, 17.2%(570천명)는 부부모두가 고령자 또는 부부중 어느 한쪽이 고령자인 부부가구에 살고 있으며, 72.4%는 직계가족과 함께 살고 있음
- 시부·군부별로 보면, 직계가족(2세대이상 가구)과 함께 살고 있는 고령자 비율은 시부(79.8%)가 군부(63.6%)보다 높으나 고령자 단독 또는 부부가구(부부 모두 고령자 또는 어느 한쪽이 고령자)에 살고 있는 고령자 비율은 시부(18.1%)보다 군부(34.5%)가 높음

(단위 : 명, %)

	전 국	시 부	군 부
계	3 319 298(100.0)	1 815 601(100.0)	1 503 697(100.0)
1세대 가구	597 871 (18.0)	229 972 (12.7)	367 899 (24.5)
부 부	570 275 (17.2)	213 944 (11.8)	356 331 (23.7)
기 타	27 596 (0.8)	16 028 (0.9)	11 568 (0.8)
2세대 가구	973 798 (29.3)	559 798 (30.8)	414 000 (27.5)
부부+미혼자녀	442 962 (13.3)	261 007 (14.4)	181 955 (12.1)
편부모+미혼자녀	151 913 (4.6)	101 197 (5.6)	50 716 (3.4)
부부+양친	29 347 (0.9)	13 919 (0.8)	15 428 (1.0)
부부+편부모	85 769 (2.6)	30 985 (1.7)	54 784 (3.6)
부부+부부의 형제자매	1 054 (0.0)	734 (0.0)	320 (0.0)
기 타	262 753 (7.9)	151 956 (8.4)	110 797 (7.4)
3세대 가구	1 378 087 (41.5)	862 073 (47.5)	516 014 (34.3)
부부+미혼자녀 +양친	296 288 (8.9)	164 060 (9.0)	132 228 (8.8)
부부+미혼자녀 +편부모	722 907 (21.8)	464 103 (25.6)	258 804 (17.2)
기 타	358 892 (10.8)	233 910 (12.9)	124 982 (8.3)
4세대 가구이상	54 693 (1.6)	27 662 (1.5)	27 031 (1.8)
단 독 가 구	276 653 (8.3)	113 939 (6.3)	162 714 (10.8)
비혈연가구 및 기 타	38 196 (1.2)	22 157 (1.2)	16 039 (1.1)

## 세대구성별 고령자 분포



### 나 고령자 거주가구의 세대구성

- 60세이상 고령자가 1명이상 거주하고 있는 가구는 2 607천가구로 총가구의 23.0%를 차지함 시부와 군부를 비교하여 보면, 군부가 39.3%로 시부의 17.4%보다 두 배이상 높게 나타남.

	전 국	시 부	군 부
총가구(A)	11 355천가구	8 463천가구	2 892천가구
고령자거주가구(B)	2 607천가구	1 470천가구	1 137천가구
B/A	23.0 %	17.4 %	39.3 %

- 세대(世代)수별로 보면 3세대가구에 고령자가 가장많아 고령자의 44.0%가 거주하고 있으며, 2세대가구 29.4%, 1세대가구 13.9%, 단독가구 10.6%순으로 나타남.
- 고령자와 직계가족이 함께 거주하는(2세대이상) 가구는 총고령자 거주가구의 74.7%로 나타남.
- 고령자 단독가구는 10.6%이며, 부부가구(부부 모두 또는 어느 한쪽이 고령자인 가구)는 13.2% 임

- 시부에서는 고령자 거주가구의 81.8%가 2세대이상 가구이며, 부부 또는 단독 가구는 16.6% ( 부부가구 8.9%, 단독가구 7.7% )인 반면, 군부에서는 2세대 이상 가구가 65.7% 그리고 부부 또는 단독가구가 33.1% (부부가구 18.8%, 단독 가구 14.3%)로 나타남
- 경로사상등 전통적 유교관이 농촌지역에 '더 강하게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령자 부부·단독가구의 비율이 농촌에서 더높은 이유는 농촌 청장년층의 도시로의 이동 결과임

(단위 가구, %)

	전 국	시 부	군 부
<u>계</u>	2 607 184(100 0)	1 470 185(100 0)	1 136 999(100 0)
<u>1세 대 가 구</u>	361 996 (13 9)	141 736 (9 6)	220 260 (19 4)
부 부	345 020 (13 2)	131 497 (8 9)	213 523 (18.8)
기 타	16 976 (0 7)	10 239 (0 7)	6 737 (0.6)
<u>2세 대 가 구</u>	767 765 (29 4)	453 265 (30 8)	314 500 (27 7)
부부+미혼자녀	330 511 (12 7)	197 336 (13 4)	133 175 (11 7)
편부모+미혼자녀	151 724 (5 8)	101 059 (6 9)	50 665 (4 5)
부부+양친	16 515 (0.6)	8 337 (0 6)	8 178 (0 7)
부부+편부모	62 299 (2 4)	23 196 (1 6)	39 103 (3 4)
부부+부부의 형제자매	838 (0 0)	597 (0 0)	241 (0 0)
기 타	205 878 (7 9)	122 740 (8 3)	83 138 (7.3)
<u>3세 대 가 구</u>	1 146 757 (44 0)	732 154 (49 8)	414 603 (36 5)
부부+미혼자녀 +양친	165 372 (6 3)	92 521 (6 3)	72 851 (6 4)
부부+미혼자녀 +편부모	681 154 (26 1)	441 272 (30.0)	239 882 (21 1)
기 타	300 231 (11 5)	198 361 (13 5)	101 870 (9 0)
<u>4세대 가구이상</u>	34 705 (1 3)	17 813 (1 2)	16 892 (1.5)
<u>단 독 가 구</u>	276 653 (10 6)	113 939 (7 7)	162 714 (14.3)
<u>비 혈 연 가 구</u>	19 308 (0 8)	11 278 (0 8)	8 030 (0.7)

주 고령자 거주가구는 60세이상 노인을 적어도 1명을 포함하는 가구임

다 고령자가구(가구주가 60세이상인 가구) 추이

- 60세이상 고령자가 혼자살거나(고령자 단독가구), 부부만이 사는 가구에서 가구주의 연령이 60세이상인 가구(고령자 가구주 부부가구)는 '85년 395천가구에서 '90년 619천가구로 5년동안 56.7%가 증가하여 총가구 증가율(18.6%)의 3배 수준의 높은 증가율을 나타냄. 총가구에 대한 고령자 가구의 비율도 '85년 4.1%에서 '90년 5.4%로 높아짐
- 이는 핵가족화와 군부지역의 젊은 연령층인구의 도시 전출로 노인만 거주하는 가구가 증가하였기 때문임
- '90년 고령자 단독가구는 277천가구로 총가구의 2.4%, 그리고 가구주가 60세이상인 부부가구는 342천가구로 총가구의 3.0%를 차지함
- 특히, 고령자 단독가구의 높은 증가율(61.0%)은 노인의 경제적 부양문제와 함께 심리적·정서적 문제의 야기를 시사함
- '90년 군부지역 고령자가구는 총가구의 12.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젊은연령층의 유출로 인한 농촌 노동력의 노령화 문제를 나타내고 있음
- 한편 시부지역의 고령자가구는 총가구의 2.9%에 불과하나 '85년에 비해 고령자가구가 96.8%가 증가하여 시부에서도 고령자가구 문제가 대두되고 있음을 시사함

(단위 천가구, %)

	1985	1990	증감(율)
<u>전 국</u>	9 571(100.0)	11 355(100.0)	1 784 (18.6)
고 령 자 가 구	395 (4.1)	619 (5.4)	224 (56.7)
고 령 자 단 독 가 구	172 (1.8)	277 (2.4)	105 (61.0)
고 령 자 가 구 주 부 부 가 구	223 (2.3)	342 (3.0)	119 (53.4)
<u>시 부</u>	6 331(100.0)	8 462(100.0)	2 131 (33.7)
고 령 자 가 구	124 (2.0)	244 (2.9)	120 (96.8)
고 령 자 단 독 가 구	59 (0.9)	114 (1.3)	55 (93.2)
고 령 자 가 구 주 부 부 가 구	65 (1.0)	130 (1.5)	65 (100.0)
<u>군 부</u>	3 241(100.0)	2 892(100.0)	349 (10.8)
고 령 자 가 구	270 (8.3)	374 (12.9)	104 (38.5)
고 령 자 단 독 가 구	113 (3.5)	163 (5.6)	50 (44.2)
고 령 자 가 구 주 부 부 가 구	157 (4.8)	212 (7.3)	55 (35.0)

고령자가구 가구주의 연령이 60세이상이며, 혼자살거나 또는 배우자(연령과 관계없이)의 다른 동거가구원이 없는 가구

## 8 고령자의 주거실태

### 가 주택유형별 고령자

- '90년 총고령자중 83.3%는 단독주택에 거주하며, 다음으로 아파트(9.5%), 연립주택·다세대주택(4.4%)순으로 거주함. 기숙사·특수사회시설등 주택이외의거처에 거주하는 고령자는 25천명으로 0.7%임
- 총인구의 주택유형별 분포와 비교하여 보면, 총고령자중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고령자 비율은 총인구중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인구비율보다 높은 반면, 그밖의 주택 유형에서는 고령자 비율이 총인구 비율보다 낮음
- 시부에서 고령자의 거처는 단독(71.9%), 아파트(16.8%), 연립·다세대주택(7.3%)순이나, 군부에서는 대부분 단독주택(97.1%)에 거주함

(단위 천명, %)

	총 인 구			고 령 자		
	전 국	시 부	군 부	전 국	시 부	군 부
총 계	42,709	31,866	10,843	3,319	1,815	1,504
<u>주 택 계</u>	98.4	98.4	98.3	99.3	99.1	99.5
단 독 주 택	73.5	67.6	90.7	83.3	71.9	97.1
아 파 트	14.9	19.0	2.9	9.5	16.8	0.6
연 립·다 세 대	6.6	7.9	2.6	4.4	7.3	0.9
비거주용 건물	3.4	3.8	2.0	2.1	3.1	0.8
<u>주택이외의거처</u>	1.6	1.6	1.7	0.7	0.9	0.5

나 주택 유형별 고령자 거주가구

- 주택 유형별로 고령자 거주가구를 보면, 60세이상 고령자가 거주하는 총 2 607천 가구중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의 비율은 83.1%로 가장 높게 나타남. 그밖에 아파트(9.8%), 연립·다세대주택(4.6%), 비거주용건물내(2.1%), 주택이외의 거처(0.4%)순임
- 총가구의 주택유형별 분포와 비교하여 보면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가구 비율은 고령자 가구가 총가구보다 더 높으나, 아파트, 연립·다세대주택등에 거주하는 비율은 총가구 비율보다 낮음  
이는 단독주택이 대가족의 거주가 용이하며 또한 고령자의 심리·정서적 안정감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됨
- 시부·군부 공히 고령자는 단독주택에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음.  
·그러나 아파트, 연립·다세대주택등 공동주택이 급증하는 추세를 감안하여 볼때, 향후 이들 공동주택 건설시 대가족 주거 가능모형과 고령자 정서·심리적 측면을 감안한 노인형 주택건설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음

(단위 천가구, %)

	총 가 구			고 령 자 가 구		
	전 국	시 부	군 부	전 국	시 부	군 부
총 계	11 355	8 462	2 893	2 607	1 470	1 137
주 택 계	99.5	99.5	99.7	99.6	99.5	99.8
단 독 주 택	74.9	69.0	92.1	83.1	72.1	97.3
아 파 트	14.8	18.8	3.0	9.8	16.9	0.7
연 립·다 세 대	6.4	7.7	2.6	4.6	7.4	0.9
비거주용 건물	3.4	3.9	2.0	2.1	3.1	0.9
주택이외의거처	0.5	0.5	0.3	0.4	0.5	0.2

고령자 거주가구 60세이상 고령자는 적어도 1명을 포함하는 가구

9 고령자의 유업활동

가 고령자의 유업활동여부

- '90년 60세이상 총고령자(3 319천명)중 평상시에 수입있는 일을하고 있는 고령유업자는 941천명 (28.3%)으로 나타남
- 남자는 전체의 45.6%(1 305천명중 595천명)가, 여자는 17.2%(2 014천명중 346천명)가 유업활동을 하여, 남자 유업율이 여자보다 2배이상 높게 나타남
- 시부에서는 14.9%가 그리고 군부에서는 44.5%가 수입있는 일을하고 있어, 군부 고령자 유업율이 시부보다 높음.
- 이는 시부보다 군부에서 고령자가 할 수 있는 일(농사등)이 비교적 많기 때문임

(단위 천명, %)

	계	수입있는 일을함 <sup>1)</sup>		수입있는일을하지않음	
	고령자	고령자	%	고령자	%
전 국	3 319	941	28.3	2 378	71.7
남 자	1 305	595	45.6	710	54.4
여 자	2 014	346	17.2	1 668	82.8
시 부	1 815	271	14.9	1 544	85.1
남 자	687	200	29.1	487	70.9
여 자	1 128	71	6.3	1 057	93.7
군 부	1 504	670	44.5	834	55.5
남 자	619	396	64.0	223	36.0
여 자	885	274	31.0	611	69.0

주 1) 지난 1년간('89 11.1일~'90 10.31일) 30일이상 수입이 있는 일에 종사함을 나타냄

- 15세이상 총유업자중 60세이상인 고령유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6.0%로 나타남
- 고령유업자 비율은 시부(2.5%)보다 군부(14.2%)가 높게 나타나, 농촌에서 고령노동력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음을 알수있음

(단위 천명, %)

	총 유업자	고령유업자	구 성 비
전 국	15 751	941	6.0
시 부	11 046	271	2.5
군 부	4 705	670	14.2

나 연령별 유업율

- 유업율은 고연령층일수록 낮게 나타남
- 60~64세의 유업율은 42.9%이나 70~79세에서는 15.9%, 그리고 80세이상에서는 5.4%만 정상시에 수입있는 일을 하고 있음
- 모든 연령층에서 남자 유업율이 여자 유업율보다 높게 나타남

(단위 천명, %)

	전 국	남 자	여 자
계	941 (28.3)	595 (45.6)	346 (17.2)
60~64	496 (42.9)	303 (61.3)	193 (29.1)
65~69	279 (31.0)	179 (47.6)	100 (19.1)
70~79	155 (15.9)	106 (29.4)	49 (7.9)
80+	11 (5.4)	7 (18.3)	4 (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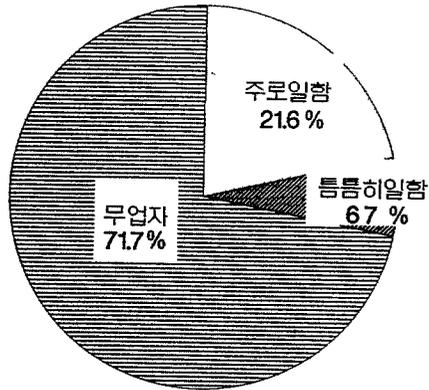
다 고령 유업자의 유업형태

- 고령 유업자의 유업상태를 살펴보면, 76.4%가 주로 일을하고 있으며, 나머지 23.6%는 틈틈히 일을 하고 있음
- 주로 일을 하고 있는 고령자의 비율은 시부(83.4%)가 군부(73.6%)보다 높게 나타난 반면, 틈틈히 일을하고 있는 노인의 비율은 군부(26.4%)가 시부(16.6%)보다 높음
- 시부의 고령 유업자는 대부분이 규칙적·정형적인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됨
- 남자는 대부분(90.1%)이 주로 일을 하고 있으나, 여자는 52.9%만이 주로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여자보다 남자가 보다 규칙적·정형적인 직업을 갖고 있는 것을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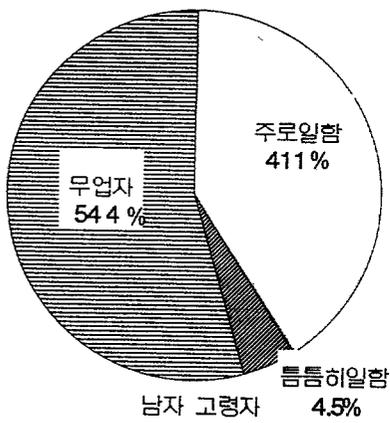
(단위 · 천명, %)

	계	주로일함	틈틈히 일함	집안일을 돌보면서
전 국	941(100.0)	719(76.4)	222(23.6)	215(22.8)
시 부	271(100.0)	226(83.4)	45(16.6)	41(15.1)
군 부	670(100.0)	493(73.6)	177(26.4)	174(26.0)
남 자	595(100.0)	536(90.1)	59 (9.9)	55 (9.2)
여 자	346(100.0)	183(52.9)	163(47.1)	160(4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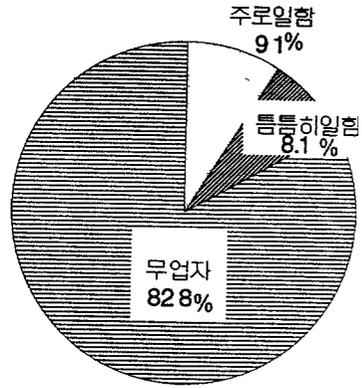
## 고령자의 유업활동여부(1990)



고령자 계



남자 고령자



여자 고령자

라 고령 유업자의 종사상 지위

- 총 고령 유업자의 63.1%가 자영자로 나타났으며, 18.8%는 무급가족종사자 그리고 14.2%가 임금·봉급근로자 임
- 자영자 비율이 높은 이유는 자영자는 정년의 한계가 없을 뿐만아니라, 비교적 고도의 기술, 고학력 및 재 직업훈련등을 필요로하지 않기 때문임
- 시부에서는 자영자가 44.6%, 그리고 임금·봉급근로자 38.0% 순이나, 군부에서는 자영자 70.6%, 무급가족종사자 23.9% 순으로 시부보다 자영자 및 무급가족종사자 비율이 높게 나타남
- 군부에서는 농업 종사자가 많기 때문임
- 남자의 경우에 76.1%가 자영자이며, 16.3%가 임금·봉급근로자 그리고 5.6%가 고용주인 반면, 여자는 무급가족종사자 47.7%, 자영자 40.8%, 임금·봉급근로자 10.4%임

(단위 천명, %)

	계	고용주	자영자	무급가족종사자	임금·봉급근로자
전 국	941(100.0)	37 (3.9)	594(63.1)	177(18.8)	133(14.2)
시 부	271(100.0)	30(11.1)	121(44.6)	17 (6.3)	103(38.0)
군 부	670(100.0)	7 (1.0)	473(70.6)	160(23.9)	30 (4.5)
남 자	595(100.0)	33 (5.6)	453(76.1)	12 (2.0)	97(16.3)
여 자	346(100.0)	4 (1.1)	141(40.8)	165(47.7)	36(10.4)

마 고령 유업자의 산업

- 60세이상 고령 유업자의 72.6%가 농림어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9.4%가 도소매·음식·숙박업 그리고 5.3%가 광공업에 종사함
- 시부에서는 농림어업과 도소매·음식·숙박업 종사가 각각 24.4%, 사회·개인서비스업 종사가 15.5%, 광공업 종사가 14.4%등 비교적 많은 산업에서 종사하고 있으나, 군부에서는 92.1%가 농림어업에 종사함
- 남자는 68.1%가 농림어업에 그리고 8.9%가 도소매·음식·숙박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여자는 80.3%가 농림어업, 10.1%가 도소매·음식·숙박업에 종사함.

(단위 . 천명, %)

	계	농림어업	광공업	건설업	도소매 음식 숙박업	운수 창고 통신업	금융보험 부동산및 서비스업	사회 및 개인 서비스업
전 국	941 (100.0)	683 (72.6)	50 (5.3)	27 (2.9)	88 (9.4)	9 (1.0)	31 (3.3)	52 (5.5)
시 부	271 (100.0)	66 (24.4)	39 (14.4)	21 (7.7)	66 (24.4)	8 (3.0)	29 (10.7)	42 (15.5)
군 부	670 (100.0)	617 (92.1)	11 (1.7)	6 (0.9)	22 (3.3)	1 (0.1)	2 (0.3)	10 (1.5)
남 자	595 (100.0)	405 (68.1)	35 (5.9)	25 (4.2)	53 (8.9)	8 (1.3)	28 (4.7)	40 (6.7)
여 자	346 (100.0)	278 (80.3)	15 (4.3)	2 (0.6)	35 (10.1)	1 (0.3)	3 (0.9)	12 (3.5)

바 고령 유업자의 직업

- 60세이상 고령 유업자의 72.6%가 농림어업직이며, 8.5%는 판매직 그리고 6.8%가 생산직임
- 시부에서는 농림어업직이 24.0%, 판매직 22.9%, 생산직 18.1%로 나타남  
군부에서는 92.2%가 농림어업직임.
- 남자는 농림어업직이 68.1%로 가장 많으며, 이외 판매직(8.9%), 생산직(7.9%) 순임  
여자는 80.3%가 농림어업직이며 다음으로 판매직(7.8%), 생산직(4.9%)순임.

(단위 천명, %)

	계	전문· 기술직	행정· 관리직	사무직	판매직	서비스직	농림 어업직	생산관련 운수장비 운전사및 단순노무자
전 국	941 (100.0)	33 (3.5)	17 (1.8)	17 (1.8)	80 (8.5)	47 (5.0)	683 (72.6)	64 (6.8)
시 부	271 (100.0)	26 (9.6)	15 (5.5)	15 (5.5)	62 (22.9)	39 (14.4)	65 (24.0)	49 (18.1)
군 부	670 (100.0)	7 (1.0)	2 (0.3)	2 (0.3)	18 (2.7)	8 (1.2)	618 (92.2)	15 (2.2)
남 자	595 (100.0)	29 (4.9)	16 (2.7)	16 (2.7)	53 (8.9)	28 (4.7)	405 (68.1)	47 (7.9)
여 자	346 (100.0)	4 (1.1)	1 (0.3)	1 (0.3)	27 (7.8)	19 (5.5)	278 (80.3)	17 (4.9)

사 가족형태별 고령자의 유업활동여부

- 고령자 거주가구의 세대구성별로 고령자의 유업여부를 살펴보면, 부부가구(부부모 두 또는 어느 한쪽이 고령자)의 고령자중 49.5%가 유업자로 부부가구의 고령자는 2명중 1명은 수입이 있는 일을하고 있음. 부부와 미혼자녀로 이루어진 가구에 사는 고령자는 48.2%가 유업자이며 혼자사는 고령자(단독가구)는 31.0%만이 유업자임
- 그리고 3세대가구에 거주하는 고령자의 13.6% 및 4세대이상가구 거주 고령자의 15.0%가 평상시에 수입있는 일을하고 있음

(단위 %)

	유업활동(%)		무업상태(%)
		주요일함(%) <sup>1)</sup>	
계	28.3	76.4	71.7
1세대가구	49.0	75.9	51.9
부부	49.5	75.6	50.5
기타	39.1	87.5	63.8
2세대가구	36.1	80.5	63.9
부부+미혼자녀	48.2	83.9	51.8
편부모+미혼자녀	25.9	76.9	74.1
부부+양친	25.6	71.4	74.6
부부+편부모	22.1	75.0	77.9
기타	27.2	74.2	72.8
3세대가구	13.6	68.5	86.5
부부+미혼자녀+양친	21.4	68.3	78.7
부부+미혼자녀+편부모	8.3	63.3	91.7
기타	17.7	78.3	82.3
4세대가구이상	15.0	75.0	81.0
단독가구	31.0	79.3	69.0
비혈연가구	20.6	14.7	79.4

주 1) '주요일함' 구성비는 총유업 고령인구 대비율임.

10 고령자의 통근실태

가 고령자의 통근율

- '90년 60세이상 총 고령자 3 319천명중 4 6%가 통근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들 통근 고령자는 총 통근자(12세이상 인구중 통근·통학자)의 0 9%수준임
- 시부의 고령자 통근 비율은 7 5%로 군부의 1 1%보다 높게 나타남

(단위 명, %)

	60세이상 인 구	통 근 고 령 자	고 령자 통근율	총통근학자 (12세이상)	총통근 (학)율
전 국	3 319 298	153 354	4.6	17 031 168	49.3
시 부	1 815 601	136 507	7.5	14 242 897	64.0
군 부	1 503 697	16 847	1.1	2 788 271	34.7

나 시·도별 고령자의 통근율

- 시·도별 고령자의 통근율은 서울이 9 8%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부산(8 3%), 인천(8 2%), 대구(6.9%)순으로 나타나, 대도시에서 고령자의 통근율이 높음
- 경기(5.1%)를 제외한 모든 도에서 고령자 통근율은 3%이하로 낮게 나타남

(단위 명, %)

	총 고령자	고령통근자	통 근 율
전 국	3 319 298	153 354	4.6
서울	568 693	55 603	9.8
부산	209 037	17 321	8.3
대구	129 270	8 859	6.9
인천	100 773	8 293	8.2
광주	70 357	3 481	4.9
대전	64 929	3 807	5.9
경기	419 449	21 594	5.1
강원	153 858	4 753	3.1
충북	147 349	2 949	2.0
충남	233 533	3 339	1.4
전북	227 339	4 430	1.9
전남	291 983	4 048	1.4
경북	345 444	5 963	1.7
경서	315 046	8 017	2.5
제주	42 238	897	2.1

다 고령통근자의 이용교통수단

- 고령통근자의 30.5%가 도보로 통근하고 있으며, 시내버스(29.0%), 승용차(14.1%) 순으로 교통수단을 이용하고 있음
- 시부에서는 시내버스 30.6%, 도보(28.5%), 승용차(15.0%)순이며, 군부에서는 도보(46.8%), 시내버스(16.2%), 자전거(8.5%)순임
- 수도권은 시내버스(28.5%), 도보(26.5%), 승용차(16.0%), 전철·지하철·기차(8.1%)순이며, 6대도시는 시내버스(32.6%), 도보(25.4%), 승용차(17.0%)순임

(단위 명, %)

	전국			수도권				6대 도시
	전국	시부	군부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이용교통수단	153 354 (100.0)	136 507 (100.0)	16 847 (100.0)	85 490 (100.0)	55 603 (100.0)	21 594 (100.0)	8 293 (100.0)	97 364 (100.0)
시내버스	44 450 (29.0)	41 726 (30.6)	2 724 (16.2)	24 389 (28.5)	16 017 (28.8)	5 386 (24.9)	2 986 (36.0)	31 718 (32.6)
좌석버스	2 024 (1.3)	1 893 (1.4)	131 (0.8)	1 613 (1.9)	1 257 (2.3)	337 (1.6)	19 (0.2)	1 484 (1.5)
시외버스	4 335 (2.8)	3 229 (2.4)	1 106 (6.6)	1 937 (2.3)	587 (1.1)	1 165 (5.4)	185 (2.2)	1 641 (1.7)
통근학버스	5 650 (3.7)	4 674 (3.4)	976 (5.8)	2 094 (2.4)	724 (1.3)	1 028 (4.8)	342 (4.1)	2 948 (3.0)
전철·지하철·기차	7 735 (5.0)	7 586 (5.6)	149 (0.9)	6 921 (8.1)	5 157 (9.3)	1 244 (5.8)	520 (6.3)	6 391 (6.6)
승용차·지프	21 559 (14.1)	20 524 (15.0)	1 035 (6.1)	13 689 (16.0)	11 128 (20.0)	1 799 (8.3)	762 (9.2)	16 535 (17.0)
자전거	6 264 (4.1)	4 838 (3.5)	1 426 (8.5)	2 007 (2.3)	823 (1.5)	857 (4.0)	327 (3.9)	2 232 (2.3)
도보	46 725 (30.5)	38 842 (28.5)	7 883 (46.8)	22 646 (26.5)	13 370 (24.0)	7 019 (32.5)	2 257 (27.2)	24 779 (25.4)
전철·지하철·기차 + 시내버스	4 881 (3.2)	4 748 (3.5)	133 (0.8)	4 584 (5.4)	3 037 (5.5)	1 160 (5.4)	387 (4.7)	3 700 (3.8)
기타	9 731 (6.3)	8 447 (6.2)	1 284 (7.6)	5 610 (6.6)	3 503 (6.3)	1 599 (7.4)	508 (6.1)	5 936 (6.1)

11 고령자의 이동실태

가 고령자의 이동유형

- 60세이상 총 고령자의 12.8%인 424천명이 '85~'90년간 이동(동·읍·면 경계)을 한것으로 나타남
- 이들 이동고령자를 이동유형별로 살펴보면,
  - 총이동자의 64.6%가 시부간에 이동하였으며, 22.6%는 군부에서 시부로 이동하였음
  - 한편 시부에서 군부로 이동은 8.6%를 차지함
  - 이동율도 시부간 이동율(15.1%)이 가장높고, 다음으로 군부에서 시부로의 이동율(5.3%)이 높음
- 한편 군부로부터 시부로의 순유출 고령자는 '85~'90간 59천명으로 나타남

(단위 명, %)

	이동 고령자			이동율					
	계	남자	여자	고령자			총인구		
				계	남자	여자	계	남자	여자
계	423 726 (100 0)	146 686 (100 0)	277 040 (100 0)	12.8	11.2	13.8	22.7	22.1	23.4
시부→시부	273 883 (64.6)	98 067 (66.9)	175 816 (63.5)	15.1	14.3	15.6	19.7	19.2	20.3
시부→군부	36 295 (8.6)	13 956 (9.5)	22 339 (8.1)	2.4	2.3	2.5	6.7	6.5	6.9
군부→시부	95 590 (22.6)	27 356 (18.6)	68 234 (24.6)	5.3	4.0	6.0	7.2	7.0	7.5
군부→군부	15 939 (3.8)	6 287 (4.3)	9 652 (3.5)	1.1	1.0	1.1	3.3	3.2	3.4

주 해외이동등 기타는 '계'에만 포함

나 이동거리별 이동고령자

- 총 이동고령자의 48.1%는 '90년 당시 살고있던 시도내에서 이동하였으며, 시도를 달리하는 시도간 이동은 51.9%로 원거리 이동이 보다 활발하였던 것으로 나타남
- 남자는 시도내 이동(54.2%)이 시도간 이동(45.8%)보다 많은 반면, 여자는 시도간 이동(55.2%)이 시도내 이동(44.8%)보다 많음
- 이는 남자보다 오래사는(평균적으로) 여자가 남편의 사별시 자녀에게로 이동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임.

(단위 명, %)

	이동			비이동	고령자계
	총이동	시도내이동	시도간이동		
총 계	423 726 (100.0)	203 647 (48.1)	220 079 (51.9)	2 895 572	3 319 298
남 자	146 686 (100.0)	79 507 (54.2)	67 179 (45.8)	1 158 815	1 305 501
여 자	277 040 (100.0)	124 140 (44.8)	152 900 (55.2)	1 736 757	2 013 7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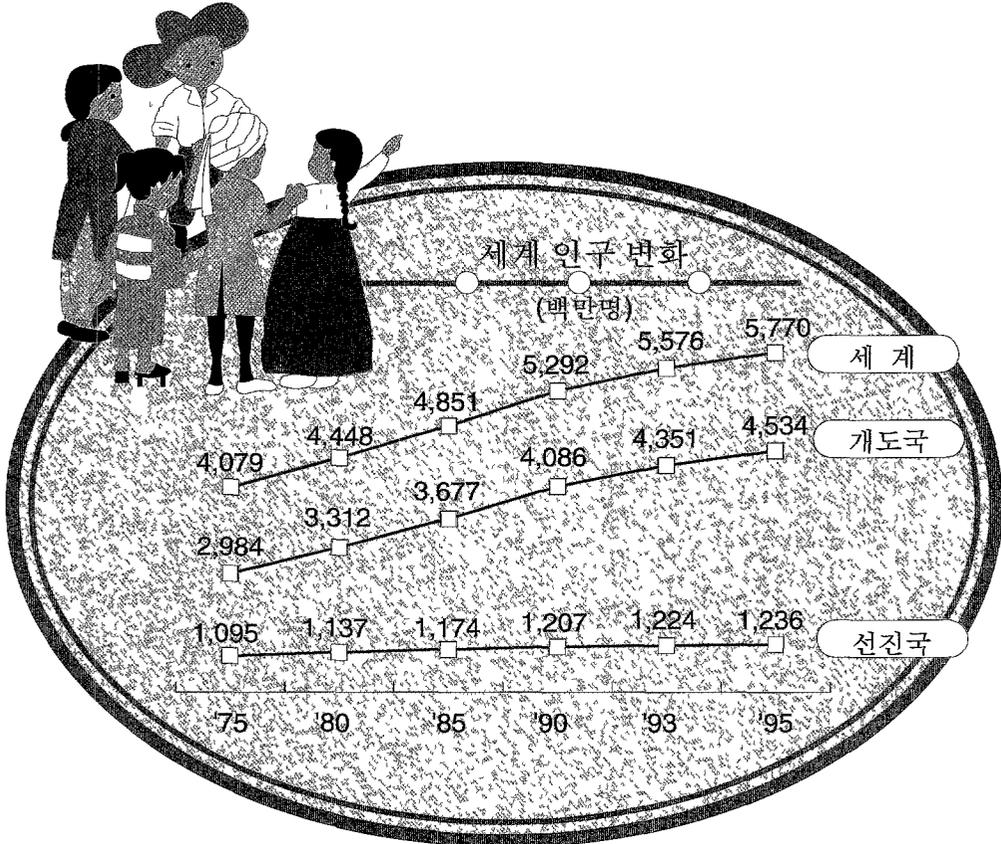
### 한국과 일본의 고령자 실태비교(1990년)

	60세 이상		65세 이상	
	한 국	일 본	한 국	일 본
1 고령자규모 (총인구대비율)				
1970	170만명 (5.4%)	1,112만명 (10.9%)	104만명 (3.3%)	739만명 (7.1%)
1980	227만명 (6.1%)	1,512만명 (12.9%)	145만명 (3.9%)	1,065만명 (9.1%)
1985	276만명 (6.8%)	1,788만명 (14.8%)	175만명 (4.3%)	1,247만명 (10.3%)
1990	332만명 (7.6%)	2,164만명 (17.5%)	216만명 (5.0%)	1,489만명 (12.0%)
2 노령화 지수 <sup>1)</sup>				
노년인구지수	29.8%	96.2%	19.4%	66.2%
노년부양비 <sup>2)</sup>	11.5%	27.2%	7.2%	17.3%
3 고령자 성비 <sup>3)</sup>	64.8	74.3	60.0	67.2
4 고령자 분포 (총인구대비율)				
시 부	54.7%(5.6%)	71.2%(16.1%)	53.6%(3.6%)	70.5%(11.0%)
군 부	45.3%(13.5%)	28.8%(22.3%)	46.4%(9.0%)	29.5%(15.7%)
5 고령자 혼인상태				
유배우	54.9%	65.1%	47.2%	57.4%
사별	44.6%	29.4%	52.4%	37.6%
이혼	0.3%	3.3%	0.2%	3.2%
미혼	0.2%	2.2%	0.2%	1.8%
6 고령자 교육정도				
불취학	54.2%	0.6%	63.6%	0.8%
국민학교	30.9%	91.4%	25.9%	92.3%
중·고등학교	11.6%		8.3%	
초대·전문대 이상	3.3%	8.0%	2.2%	6.9%
7 고령자가구수 <sup>4)</sup> (총가구대비율)				
계	619천 (5.4%)	-	422천 (3.7%)	3,835천 (9.4%)
단독가구	277천 (2.4%)	2,165천 (5.3%)	229천 (2.0%)	1,623천 (4.0%)
부부가구	342천 (3.0%)	-	193천 (1.7%)	2,212천 (5.4%)

자료 각국 인구센서스 자료



# 한국 및 세계 인구 현황



「세계 인구는 1993.7.1 현재 55.8억명으로, 이중 22.0%(12억명)가 선진국, 78.0%(44억명)가 개도국에 살고 있다」

- 자료중에서 -

7월 11일은 세계 인구의 날

# 한국 및 세계 인구 현황

1993. 7

— < 세계 인구의 날 > —

- 인류가 인구에 관련된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노력을 전개할 것을 촉구하고자 유엔은 지난 1987년 7월 11일자로 세계인구가 50억명을 돌파한 날을 기하여 7월 11일을 “세계 인구의 날(World Population Day)”로 선포한 바 있습니다
- 따라서 이 자료는 세계 인구의 날을 앞두고 인구문제의 중요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우리나라와 세계 인구현황에 관한 자료를 작성한 것입니다
- 이 자료의 많은 활용을 바랍니다. 내용에 관한 문의사항은 통계청 인구통계과(전화 222-1862, 222-1863)로 하시기 바랍니다.

통계조사국 인구통계과

## □ 개 관

- 인구는 모든 사회 경제생활의 주체로서 인구규모 또는 속성의 변화는 사회, 경제를 비롯한 정치, 환경, 문화등 인간생활 전영역에 중요한 영향을 미침
- 인구변화에서 비롯되는 문제점은 시대와 장소에 따라 달라,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에서는 인구의 양적문제가, 선진국과 일부 개발도상국에서는 교육, 환경, 보건등 인구의 질적 문제가 주요 관심사로 대두됨.
- 우리나라는 과거 전통적 대가족 제도하에서 다자녀 선호 및 남아선호에 의한 과출산 경향과 6 25동란후 『베이비붐(baby-boom)』 영향으로 인구의 양적성장이 경제성장을 압도하여 빈곤의 악순환의 직접적 원인이 되었음
- 그러나 1960년이래 경제개발과 가족계획의 성공으로 저출산 경향이 확산, 1980년 중엽에는 두자녀 이하의 출산수준에 도달하였음 이와 더불어 사망율도 꾸준히 감소하여 이른바 저출생·저사망의 『인구학적 후기 균형상태』에 도달하는 인구변천을 경험함
- 인구변천결과 인구정책도 종래 양적문제에서 인구분포, 교육, 고령화, 후생, 보건등 질적문제로의 전환이 당면과제임
- 동 자료는 세계 및 우리나라의 인구현황과 우리나라의 당면 인구정책과제로 대두되는 인구현상을 요약한 것임

# I 인구현황

## 가. 인구규모

- 세계인구는 1993.7.1 현재 55.8억명으로, 이중 22.0%(12억명)이 선진국, 78.0%(44억명)이 개도국에 살고있음
- 대륙별로 보면, 아시아가 59.0%인 33억명으로 가장 많고, 그밖에 아프리카(12.6%) 유럽(9.0%), 남미(8.5%), 북미(5.1%), 오세아니아(0.5%)순임
- 우리나라 인구는 44백만명으로 전세계 인구의 0.8%로 나타남.
- 세계인구에 대한 우리나라 인구의 구성비 감소추세는 우리나라 인구증가율이 세계인구증가율 보다 낮기 때문임

(단위: 백만명, %)

	1975	1980	1985	1990	1993	1995
<b>세 계</b>	4 079 (100.0)	4 448 (100.0)	4 851 (100.0)	5 292 (100.0)	5 576 (100.0)	5 770 (100.0)
<b>선진국</b>	1 095 (26.8)	1 137 (25.6)	1 174 (24.2)	1 207 (22.8)	1 224 (22.0)	1 236 (21.4)
<b>개도국</b>	2 984 (73.2)	3 312 (74.5)	3 677 (75.8)	4 086 (77.2)	4 351 (78.0)	4 534 (78.6)
<b>아 시 아</b>	2 354 (57.7)	2 583 (58.1)	2 853 (58.4)	3 113 (58.8)	3 292 (59.0)	3 413 (59.2)
<b>아프리카</b>	403 (9.9)	477 (10.7)	553 (11.4)	642 (12.1)	703 (12.6)	747 (13.0)
<b>남 미</b>	323 (7.9)	363 (8.2)	404 (8.3)	448 (8.5)	475 (8.5)	493 (8.5)
<b>북 미</b>	239 (5.9)	252 (5.7)	265 (5.5)	276 (5.0)	282 (5.1)	286 (5.0)
<b>유 럽</b>	474 (11.6)	484 (10.9)	492 (10.1)	498 (9.4)	502 (9.0)	504 (8.7)
<b>오세아니아</b>	21 (0.5)	23 (0.5)	25 (0.5)	26 (0.5)	28 (0.5)	28 (0.5)
<b>구 소 련</b>	254 (6.2)	265 (6.0)	277 (5.7)	288 (5.4)	295 (5.3)	298 (5.2)
<b>한 국</b>	35 (0.86)	38 (0.83)	41 (0.85)	43 (0.81)	44 (0.79)	45 (0.78)

자료 · 1990 세계인구전망, UN 1991  
 · 장래인구추계, 통계청 1991

나 인구규모 변동

- 세계인구의 연간증가 규모는 '75~80간 연평균 7380만명에서 '85~90간 8820만명 '90~93년간 9470만명으로 증가추세임
- 선진국의 연평균 인구증가는 '75~80간 830만에서 '90~93간 570만명으로 감소세이나, 개도국은 6550만명에서 8900만명으로 증가추세임 '90~93간 개도국 인구증가가 전세계 인구증가의 94.0%로 절대적으로 기여함.
- 대륙별로는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는 증가세이며, 북미 및 유럽은 감소세임 '90~93년간 전세계 연평균 인구증가의 63.0%가 아시아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이외 아프리카(21.4%), 남미(9.5%), 유럽(1.4%), 오세아니아주 (0.7%) 순임
- 한국은 '90~93년간 연평균 40만명정도가 증가, 전세계 인구증가의 0.4% 그리고 아시아의 0.5%를 기여함.

(단위 백만명, %)

	1975~80		1980~85		1985~90		1990~93	
	연평균	%	연평균	%	연평균	%	연평균	%
세 계	73.8	100.0	80.6	100.0	88.2	100.0	94.7	100.0
선진국	8.3	11.4	7.5	9.2	6.5	7.4	5.7	6.0
개도국	65.5	88.6	73.1	90.7	81.7	92.6	89.0	94.0
아 시 아	45.8	62.1	50.4	62.5	55.6	63.0	59.7	63.0
아프리카	14.8	20.1	15.2	18.9	17.8	20.2	20.3	21.4
남 미	8.0	10.8	8.2	10.2	8.8	10.0	9.0	9.5
북 미	2.6	3.5	2.6	3.2	2.2	2.5	2.0	2.1
유 럽	2.0	2.7	1.6	2.0	1.2	1.4	1.3	1.4
오세아니아	0.4	0.5	0.4	0.5	0.2	0.2	0.7	0.7
구 소 련	2.2	3.0	2.4	3.0	2.2	2.5	2.3	2.5
한 국	0.6	0.5	0.6	0.7	0.4	0.7	0.4	0.4

자료 · 1990 세계인구전망, UN 1991

· 장래인구추계, 통계청 1991

다 인구밀도

- 1990년 세계인구밀도는 39명/㎢임
  - 개도국은 52명/㎢로 선진국(21명/㎢)보다 밀집되어 있음
  - 대륙별로 보면 아시아(113), 유럽(96), 남미(22), 아프리카(21)등 순임
- 면적과 인구분포를 비교하여 보면 아시아 면적이 세계의 20.3%인 반면, 인구는 58.8%로 면적에 비해 인구가 2.9배임.
- 우리나라는 세계면적의 0.07%, 세계인구의 0.8%로 면적에 비해 11.4배의 인구가 과밀집되어 있음

	인 구		면 적		인구밀도 (명/㎢)	상대비율 (A/B)
	백만명	% (A)	백만㎢	% (B)		
세 계	5 292	100 0	135 697	100 0	39	1 00
선진국	1 207	22 8	57 455	42 2	21	0 54
개도국	4 086	77 2	78 570	57. 8	52	1 34
아 시 아	3 113	58 8	27 546	20 3	113	2 90
동아시아	(1 336)	(25 2)	(11 716)	(8 6)	(114)	(2 93)
아프리카	642	12 1	30 577	22 5	21	0 54
유 럽	498	9 4	5 191	3 8	96	2 47
남 미	448	8 5	20 367	15 0	22	0.57
오세아니아	26	0 5	8 827	6 5	3	0 08
북 미	276	5 2	21 220	15 6	13	0 33
한 국	43	0 8	99	0.07	437	11 43

자료 · 1990 세계인구전망, UN 1991

· 장래인구추계, 통계청 1991

라. 도시화

- 도시화율

- 세계 인구중 도시에 거주하는 인구비율인 도시화율은 '75년 37.8%에서 '90년 45.2%로 증가세임.
- 선진국의 도시화율은 72.6%로 개도국의 37.1%보다 약 두배가 높음
  - 그러나 개도국의 도시인구 증가율(연평균) 및 도시화율이 선진국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
- 대륙별로는 북미가 75.2%로 가장 높고, 이외 유럽(73.4%), 남미(71.5%)순임  
일본(77.0%)를 제외한 아시아주는 32.6%임.
  - 반면 도시인구증가율(연평균)은 아프리카, 아시아가 다른 대륙보다 빠름.
- 우리나라 도시화율은 74.4%로 선진국 평균수준보다 높고, 도시인구 증가율(연평균)도 세계평균수준보다 빠른 반면 농촌인구는 급속히 감소함

(단위 :%)

	1975	1980	1985	1990	85~90년평균증가율 <sup>2</sup>	
					도 시 <sup>1</sup>	농 촌
세 계	37.8	39.5	42.2	45.2	3.34	0.71
선진국	68.8	70.3	71.6	72.6	0.81	△0.15
개도국	26.4	28.9	32.8	37.1	4.53	0.81
아 시 아 <sup>3</sup>	21.6	23.9	28.0	32.6	4.98	0.60
동아시아 <sup>3</sup>	19.5	22.0	28.2	35.6	6.12	(△0.74)
(일본)	(75.7)	(76.2)	(76.7)	(77.0)	(0.51)	(0.17)
아프리카	25.2	27.8	30.6	33.9	5.01	2.03
남 미	61.2	65.0	68.5	71.5	2.93	0.02
유 럽	68.9	70.4	71.9	73.4	0.68	
오세아니아 <sup>4</sup>	19.9	20.6	21.5	23.1	3.57	1.75
(호주+ 뉴질랜드)	(85.3)	(85.3)	(85.1)	(85.2)	(1.30)	(1.20)
북 미	73.8	73.9	74.6	75.2	0.99	0.32
한 국	48.4	57.3	65.4	74.4	4.44	△4.15

자료 : · 1990 세계인구전망, UN 1991

· 1990 인구주택 총조사, 통계청 1992

주 : 1) 도시정의는 각국마다 다르나 유엔은 그대로 수용함

2) 단순 산술평균치임      3) 일본 제외

4) 호주 및 뉴질랜드 제외

마. 성 비

- 1990년 세계인구 성비(여자인구 100명당 남자수)는 101.4임
  - 선진국은 94.3으로 개도국 103.6보다 낮음. 이는 선진국에서는 고령화로 여자 노인인구가 남자노인인구보다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임
  - 대륙별로는 남아선호사상이 강한 유교영향권인 아시아가 104.8로 가장 높음
- 0~4세 인구성비는 아시아(105.6)와 유럽(105.3)이 타지역보다 다소 높음
- 우리나라는 0~4세 인구성비는 112.0으로 남아선호사상 영향으로 아주 높은 반면 중년층 이상에서 남녀간 사망률 차이로 여자가 남자보다 많은 관계로 총인구 성비는 101.3으로 다소 낮음

(단위 여자인구 100명당 남자인구수)

	세 계 선진국 개도국			아프 리카	남미	북미	아시아	유럽	오 세 아니아	한 국	
	1990	1993	1993							1990	1993
총인구	101.4	94.3	103.6	99.0	99.5	95.5	104.8	95.4	101.0	101.3	101.4
0~4세	104.6	104.8	104.5	101.7	103.2	104.8	105.6	105.3	105.2	112.0	112.5

- 자료
- 1990 세계인구전망, UN 1991
  - 장래인구추계, 통계청 1991

바. 연령구조

- 연령분포

○ 1990년 세계인구의 61.5%가 생산가능연령(15~64세)이며, 저연령층 인구(0~14세)는 32.3%, 그리고 노인인구(65세이상)는 6.2%임

· 선진국은 노령화된 반면, 개도국은 저연령층 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음

· 대륙별로는 고출산·고사망을 지역인 아프리카, 남미, 아시아가 저연령층 인구구성비가 높은반면, 저출산·저사망을 지역인 북미, 유럽은 고령화 됨.

○ 우리나라는 저연령층 인구비율이 개도국보다 낮으나 고연령층 인구비율은 선진국과 개도국의 중간수준을 나타냄

(단위 · %)

	세 계 선진국 개도국			아프 리카	남미	북미	아시아	유럽	오 세 아니아	한 국	
	100.0	100.0	100.0							1990	199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0~14	32.3	21.4	35.6	45.0	35.8	21.4	32.9	19.5	26.6	25.8	24.3
15~64	61.5	66.5	59.9	52.2	59.4	66.1	62.1	67.1	64.4	69.2	70.3
65+	6.2	12.1	4.5	3.0	4.8	12.5	5.0	13.4	9.0	5.0	5.4

자료 · 1990 세계인구전망, UN 1991

· 장래인구추계, 통계청 1991

- 부양비

- 세계인구의 유년부양비는 52.6, 노년부양비는 10.1로 총부양비가 62.6임
  - 고령화가 된 선진국은 노년부양비가 높은 반면, 출산력이 높은 개도국은 유년부양비가 높음 총부양비는 개도국(66.7)이 선진국(50.1)보다 높음
  - 대륙별로는 아프리카, 남미, 아시아에서는 유년부양비가, 북미, 유럽, 오세아니아는 노년부양비가 높음. 총부양비는 아프리카(92.5)가 가장 높으며 유럽(49.2)이 가장 낮음.
- 우리나라는 유년부양비가 선진국 수준이나 노년부양비는 개도국 수준으로, 총부양비가 44 수준임.

(단위 %)

	세 계	선진국	개도국	아프리카	남미	북미	아시아	유럽	오세아니아	한 국 1990	국 1993
계	62.6	50.1	66.7	92.5	68.5	51.2	61.0	49.2	55.1	44.5	42.2
유년	52.6	32.0	59.3	86.7	60.4	32.4	52.9	29.2	41.1	37.3	34.6
노년	10.1	18.1	7.4	5.8	8.1	18.8	8.0	20.0	14.0	7.2	7.6

자료 · 1990 세계인구전망, UN 1991

· 장래인구추계, 통계청 1991

주 부양비는 0~14세 및 65세이상 인구를 15~64세 인구로 나눈 수치로 생산가능연령인구가 부양하여야 할 유년 또는 노년인구를 나타냄(비율이 높을수록 부담이 큼)

## II 우리나라의 당면 인구문제

### 가. 인구의 지역별 불균형 분포

#### □ 인구의 도시집중 문제

우리나라 도시거주 인구는 60년 총인구의 28%에서 90년 74.4%로 도시인구가 크게 증가하여, 도시의 인구과밀집과 농촌의 인구과소분포로 지역간 인구분포 불균형이 심화됨

#### □ 수도권 및 대도시 인구집중

수도권 인구는 60년 총인구의 20.8%에서 90년 42.8%로 증가하여 총인구의 과반수 정도가 수도권에 밀집됨 그리고 6대도시 인구비중도 동기간중 20.9%에서 47.6%로 급격히 높아짐

□ 도시지역 특히 수도권 및 대도시로의 인구과집적은 60년 및 70년대에 값싼 노동력 제공등 경제발전에 순기능을 함 그러나 지나친 인구집적은 도시과밀문제(주택부족, 환경오염, 교통장애, 실업 및 범죄발생등)와 농촌과소문제(농촌 노동력 부족, 혼인연령층 여성 부족등)의 사회·경제적 병리현상을 발생케하여 향후 균형적 국가 발전에 역기능을 초래

□ 과밀집지역의 인구분산책과 과유출지역의 인구 재흡입을 위한 대책이 동시에 마련 되어야 함

(단위 천명, %)

	1960	1970	1980	1990	1960~90
전 국	24 989(100.0)	31 466(100.0)	37 436(100.0)	43 411(100.0)	18 422 (73.7)
시 부	6 997 (28.0)	12 954 (41.2)	21 434 (57.3)	32 309 (74.4)	25 312(361.8)
군 부	17 992 (72.0)	18 512 (58.8)	16 002 (42.7)	11 102 (25.6)	-6 890(-38.3)
6대도시	5 231 (20.9)	10 062 (32.0)	15 592 (41.6)	20 646 (47.6)	15 415(294.7)
수도권	5 194 (20.8)	8 894 (28.3)	13 298 (35.5)	18 586 (42.8)	13 392(257.8)

자료 인구주택 총조사, 통계청 각년도

1990년 시도별 인구밀도

	인 구		면 적		인구밀도 (명/㎢)	인 구 1000명당 면적(㎢)	인구·면적 상대비율 (A/B)
	수(천명)	% (A)	㎢	% (B)			
전 국	43 411	100 0	99 274	100.0	437	2 29	1 0
서 울	10 613	24 4	605	0 6	17 532	0 06	40 7
부 산	3 798	8 8	529	0.5	7 175	0 14	17 6
대 구	2 229	5 1	456	0 5	4 892	0 20	10 2
인 천	1 818	4 2	317	0 3	5 731	0 17	14.0
광 주	1 139	2.6	501	0 5	2 274	0.44	5.2
대 전	1 050	2 4	537	0 5	1 954	0 51	4 8
경 기	6 156	14.2	10 773	10 9	571	1 75	1 3
강 원	1 580	3.6	16 898	17.0	94	10.69	0 2
충 북	1 390	3 2	7 436	7 5	187	5 35	0 4
충 남	2 014	4 6	8 318	8 4	242	4 13	0 5
전 북	2 070	4 8	8 043	8 1	257	3 89	0 6
전 남	2 507	5 8	11 814	11 9	212	4 71	0 5
경 북	2 861	6 6	19 447	19 6	147	6 80	0 3
경 남	3 672	8 5	11 774	11 9	312	3 21	0 7
제 주	515	1.2	1 826	1 8	282	3 55	0 7

자료 1990 인구주택 총조사 보고서, 통계청

나. 성비 불균형 문제

□ 0세인구 성비 불균형

- 자연적인 인구 출생성비는 105수준이나 우리나라는 110대로 높음
- 이는 강한 남아선호사상으로 인한 여아 출산 기피현상에 기인함
- 이로인하여 남녀간 인구구조 특히 남녀 결혼적령인구의 불균형 문제를 초래함

□ 결혼적령인구 성비 불균형

- 저출산 및 남아선호사상영향으로 결혼적령 남녀의 성비가 불균형해짐
- 여자 결혼연령 확대 및 여성의 조기결혼등에 인한 여성교육 및 경제활동의 저해 및 성범죄등 문제발생이 우려됨

□ 남아선호사상 불식을 위한 대책마련

- 남아선호사상의 불식을 위해 남녀차별 사회관행에 대한 제도적 보완, 여성의 고용기회 확대 및 평등 대우, 여성 전문인력 양성등의 개선책등이 확충·강화 되어야 함

(단위 여자 100명당 남자수)

	1970	1980	1990	1993	1995	2000
결혼적령인구	96.2	78.6	104.7	105.4	101.3	119.4
0세	111.6	107.2	114.7	108.7	107.0	107.0

자료 장래인구추계, 통계청 1991

주 결혼적령인구성비 = 남자(25~29세) ÷ 여자(20~24세) × 100

다. 연령구조 변동

□ 저연령층 인구감소와 고연령층 인구증가

- 출산력의 지속적인 감소로 저연령층인구(0~14세)는 줄어드는 반면 저사망율로 노인인구(65세이상)는 증가세임

· 노년부양비 증가등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노인형 주택개발, 노인후생시설 확충, 노인 산업개발, 정년연장 및 재훈련등 노인 복지정책 강화가 필요함

(단위 %)

	1970	1980	1990	1993	1995	2000
0~14세	42.5	34.0	25.8	24.3	23.2	21.2
15~64세	54.4	62.2	69.2	70.3	71.1	72.0
65세이상	3.1	3.8	5.0	5.4	5.7	6.8
총부양비	83.9	60.7	44.5	42.2	40.6	38.8
유년부양비	78.2	54.6	37.3	34.6	32.6	29.4
노년부양비	5.7	6.1	7.2	7.6	8.0	9.4

자료 장래인구추계, 통계청 1991

주 부양비는 0~14세 인구와 65세이상 인구를 15~64세 인구로 나눈 수치임

□ 신규 노동인력 공급감소

- 지속적인 저출산력 경향으로 절대적 신규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여 향후 노동인력공급에 애로가 발생할 것임

노동인력의 고급·전문화, 인력의 효율적 배치 및 업무의 자동화등 노동공급 감소에 따른 대책마련이 필요

(단위 천명)

	1970	1980	1990	1993	1995	2000
총인구	32,241	38,124	42,869	44,056	44,851	46,789
15세+	18,352	25,173	31,792	33,328	34,451	36,872
15~19	3,269	4,520	4,464 <sup>1</sup>	4,016	3,942	3,802
20~24	2,569	4,093	4,289	4,537	4,436	3,919
25~29	2,336	3,073	4,276	4,092	4,255	4,406 <sup>2</sup>
30~34	2,238	2,525	4,096	4,346	4,240	4,224
35~39	1,869	2,280	3,018	3,723	4,055	4,205 <sup>3</sup>
40~44	1,467	2,179	2,504	2,650	2,972	4,006
45~49	1,272	1,756	2,202	2,265	2,444	2,915

자료 장래인구추계, 통계청 1991

주 1) '88 4,598천명 2) '97 4,293천명 3) '98 4,308천명

□ 학령인구감소

- 저출산력으로 학령인구가 감소

- 양적 교육정책(교실수, 교사수 확보등)에서 질적 정책방향(교사사기진작, 교사당 평균학생수 감소, 교과목 개선등)으로 전환이 필요함

(단위 천명)

	1970	1980	1990	1993	1995	2000
총인구	32 241	38 124	42 869	44 056	44 851	46 789
학령인구계	12 604	14 401	13 419	33 328	12 077	11 325
초등(6~11)	5 711 <sup>1</sup>	5 499	4 835	4 273	3 956	3 947
중등(12~14)	2 574	2 599 <sup>2</sup>	2 306	2 505	2 467	1 937
고등(15~17)	2 101	2 671 <sup>3</sup>	2 627	2 300	2 401	2 121
대학(18~21)	2 218	3 632	3 651	3 532	3 253	3 320

자료 장래인구추계, 통계청 1991

주 1) '69 5,720천명 2) '84 2,806천명 3) '87 2,783천명

라 남녀간 평균수명 차이 심화

□ 40대이후 연령층에서 남자사망율이 여자보다 높아 남녀간 평균수명차이가 심화됨

- 사회적 스트레스(Social stress) 증가, 음주·흡연등으로 40대이후 중년층 남자 사망율이 여자 사망율보다 아주 높음

남자의 스트레스 제거 및 음주·흡연등 생활행태 변경을 위한 적극적인 사회 정책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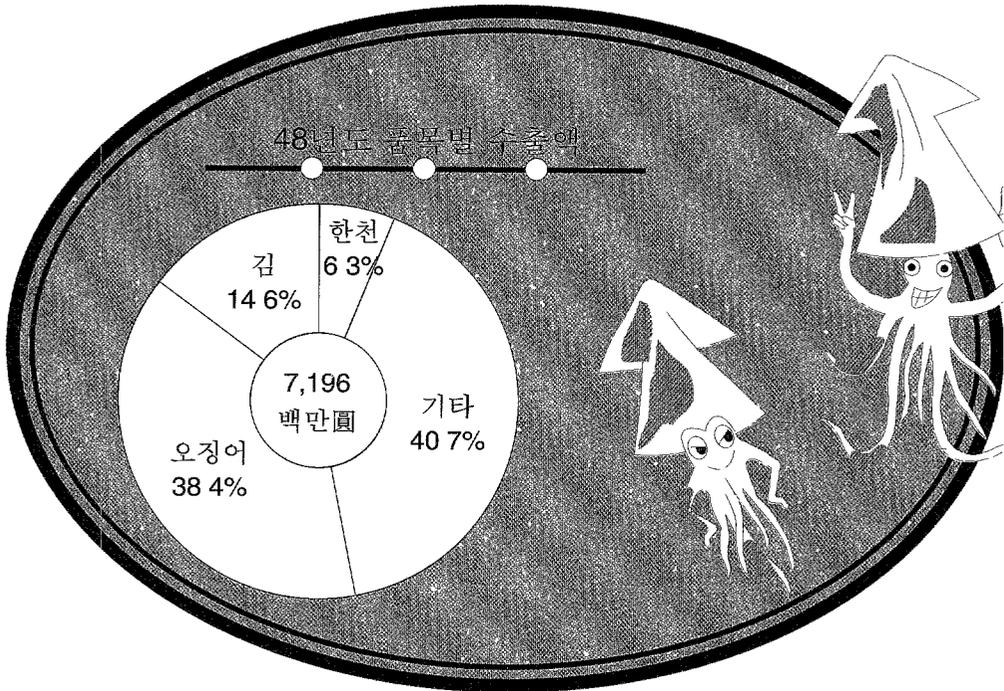
(단위 . 세)

	계	남자	여자	차이(여자-남자)
1970	63.2	59.8	66.7	6.9
1978~79	65.8	62.7	69.1	6.4
1985	69.0	64.9	73.3	8.4
1989	70.8	66.9	75.0	8.1

자료 한국인의 표준생명표, 통계청 19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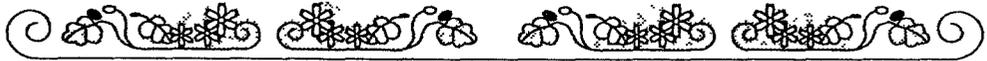
**여 백**

## 광복 전후의 경제 · 사회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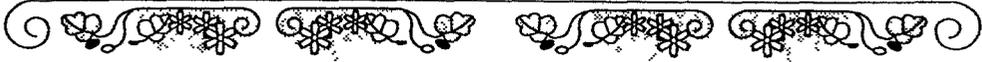
「48년의 경우 총수출액 7,196백만圓중 마른 오징어 (38.4%)와 김(14.6%) 2개 품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53.0%에 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자료중에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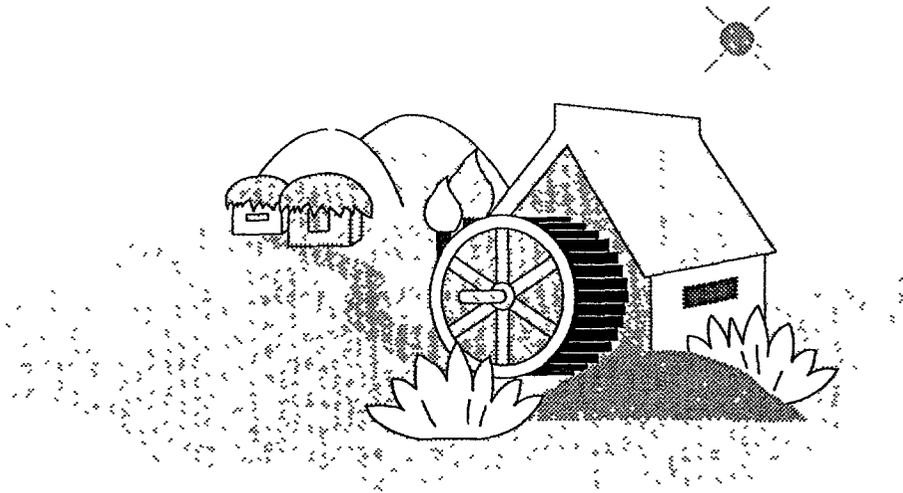


통계로 본

# 光復前後의 經濟·社會相(要約)



1993. 8



統計企劃局 企劃課

# I. 人口規模 및 水準

## < 光復되던 해 南韓人口 現在の 38% 水準 >

- 광복전해 南北韓의 3개 도의 總人口는 25,918千명(朝鮮總督部 인구조사 잠정결과 '44 5 1 기준)이었고, 당시 南韓人口는 15,879千명(美軍政廳 추정인구) (명, %)

총 인 구	한 국 인	일 본 인	기타외국인	(남한인구)	(북한인구)
25,917,881	25,133,352	712,583	71,946	15,879,110	10,038,771
(100 0)	(97 0)	(2 7)	(0 3)	(61.3)	(38 7)

- 광복되던해 南韓의 年末人口는 16,873千명(미군정청 추계)으로 光復前해에 비해 994千명이 증가하였으나, 광복이듬해인 '46.8월 현재 인구는 19,369千명으로 전해에 비해 무려 2,496千명이 증가 (명, %)

	'44 5.1 현재	'45년말	'46 8 25 현재
총 인 구	15,879,110	16,873,277	19,369,270
전 년 대 비 증가	...	(994,167)	(2,495,993)
(전년대비증가율)	(...)	(6 3)	(14 8)

○ 光復되던 해의 연말인구는 '93 7 1現在 연앙인구(44,056,087명)에 비하면 38 3%에 不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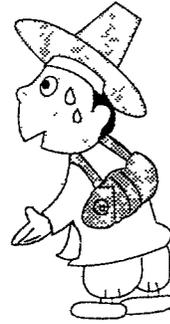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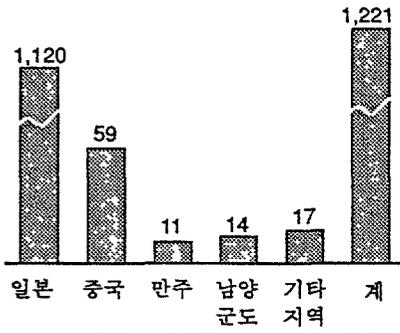
## < 海外歸還 · 越南同胞 急增 >

- 南韓人口가 당시 이처럼 크게 늘어난 것은 日帝에 의해 해외로 배출당한 同胞들의 歸還과 38선을 넘어서 越南同胞의 급증 등에 따른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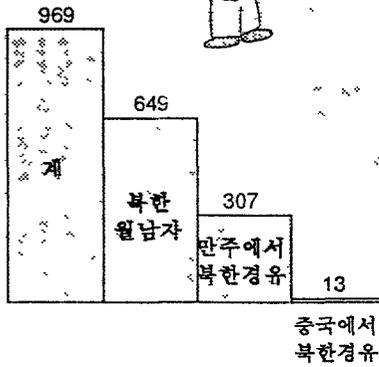
○ 海外歸還同胞('45 8.15~'48 12.31 정식 수속자) (명, %)

總歸還者	日本(류큐열도포함)	中國(만주포함)	필리핀 · 南洋群島	기타지역
1,220,627	1,119,574	69,944	14,162	16,947
(100 0)	(91 7)	(5 7)	(1 2)	(1 4)

해의귀 환동포 (천명)  
('45. 8.15 ~ '48. 12.31)



38이북 월남동포 (천명)  
('45. 8. 15 ~ '48. 12. 31)



- 당시 귀환하지 않고 外國에 殘留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同胞數만도 濟州 100만명, 日本 80만명 등이라는 기록들을 볼때, 日帝下에 얼마나 많은 동포가 海外로 排出 당하였던가를 짐작케하고 있음.

○ 越南同胞('45.8.15~'48.12.31 북한 경유자) (명, %)

總 越 南 者	北韓거주자	中國거주자	滿州거주자
969,015	648,784	13,476	306,755
(100.0)	(67.0)	(1.4)	(31.6)

< 光復 前해 서울人口 現在의 9% 水準 >

244.5.5.1945년 8월 15일 南北韓 9개 道 (총인구 25,917,881명)중 人口가 가장 많았던 道는 京畿道 (서울 포함)로써 3,092천명이었고, 다음으로는 全南(2,750천명 제주도 포함), 慶北(2,605천명), 慶南(2,417천명), 咸南(2,015천명) 등이었으며, 人口가 가장 적은 道는 忠北으로써 980천명이었음

○ 각 도별 인구수 및 총인구 구성비 (명, %)

경기도 3,092,234 (11.9)	(서울) 988,537 (3.8)	(인천) 213,833 (0.8)
강원도 1,858,230 (7.2)	충청북도 980,488 (3.8)	충청남도 1,675,479 (6.5)
(대전) 76,675 (0.3)	전라북도 1,674,692 (6.5)	전라남도 2,749,969 (10.6)
(광주) 82,431 (0.3)	(제주도) 221,366 (0.9)	경상북도 2,605,461 (10.0)
(대구) 206,638 (0.8)	경상남도 2,417,384 (9.3)	(부산) 329,215 (1.3)
황해도 2,014,931 (7.8)	평안남도 1,826,441 (7.0)	평안북도 1,882,799 (7.3)
함경남도 2,015,352 (7.8)	함경북도 1,124,421 (4.3)	

주) · ( )내 市·道의 인구는 당시 해당 市·道에도 포함되어 있음

- 당시 在留北京城市民의 수는 989천명으로 南北韓 全體人口의 3.8%, 38度線 以南인구의 6.2%에 불과하였고, 당시 7개區중 西大門區 人口가 250천명으로 가장 많았음

- 당시 서울 인구는 '92.12.31 현재 住民登錄人口 10,970천명의 9.0%에 不過

光復 당시 (1945.8) 당시 서울인구는 日本人의 출국 등 영향으로 85萬명 수준이었다고 함

정부수립후 최초로 실시된 제1회 총인구조사('49.5.1기준)결과에 의하면 慶北의 인구가 3,206千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慶南(3,135千명), 全南(3,042千명 濟州道 제외), 京畿(2,741千명) 등 順이었음.

○ 당시 서울시 인구는 1,446千명으로 남한인구의 7.2%에 해당하였고, 西大門區(161千명) 인구가 마포구(163千명)와의 분구 영향으로 줄어든 대신 東大門區(226千명)의 인구가 가장 많았음.

○ 서울지역인구현황

	'44. 5. 1	'49. 5. 1	'92. 12. 31 (명, %)
총 인 구	988,537 (100)	1,446,019 (100)	10,969,862 (100)
남 자	485,671 (49.4)	742,506 (51.3)	5,519,096 (50.3)
여 자	502,866 (50.6)	703,513 (48.7)	5,450,766 (49.7)
남한인구에 대한구성비	6.2	7.2	25.1

### < 光復當時 15歲以上中 77%가 不就學者 >

광복전해인 '44.5.1현재 人口調査資料에 따르면 당시 南北韓의 15세이상 인구 13,710千명 중, 國民學校는 물론 簡易書堂 수업조차 받지 못한 不就學人口는 11,098千명으로 전체의 81.0%에 달한다고 하였고, '47년말 현재의 南韓 不就學人口는 77.1%라 하였음

○ '44년 당시 大學校以上(대학재외포함)중학교(중외포함)의 在學者는 7,374명(남 7,272명, 여 102명) 이었고, 대학교이상 학력자를 포함한 專門大以上の 교육을 받은 인구는 29,438명으로 15세이상 인구의 0.2%에 불과하였고, '47년말 현재(남한)로는 0.6%에 不過

○ 최근 '90년 人口住宅總調査 자료에 따르면 中學校 在學以上の 학력자는 15세이상 인구의 75.8%에 이르고 있으나, '44년 당시는 1.7%, '47년에는 5.0%에 不過

	'44 5 1현재(남북한)	'47년말현재(남한)	'90 11 1 현재 (명, %)
15세 이상 인구	13,709,530 (100 0)	10,800,888 (100 0)	32,256,159 (100 0)
대학 · 전문대	29,438 (0 2)	62,426 (0 6)	5,560,696 (17 2)
중 학	198,644 (1.5)	474,297 (4.4)	18,915,498 (58 6)
국 민 학 교	1,291,883 (9 4)	1,932,481 (17.9)	4,999,614 (15.5)
국민학교 중퇴	210,965 (1.5)	- (-)	180,211 (0 6)
간이 서당 수업	880,651 (6.4)	- (-)	- (-)
불 취 학	11,097,949 (81.0)	8,331,684 (77.1)	2,596,951 (8 1)

주) · 재학·졸업·중퇴(국민학교 제외)를 모두 포함 하였음.

· '90년 자료에는 미상자(3,189명)가 표기되지 않았으며, 중학은 중학교 및 고등학교를 합한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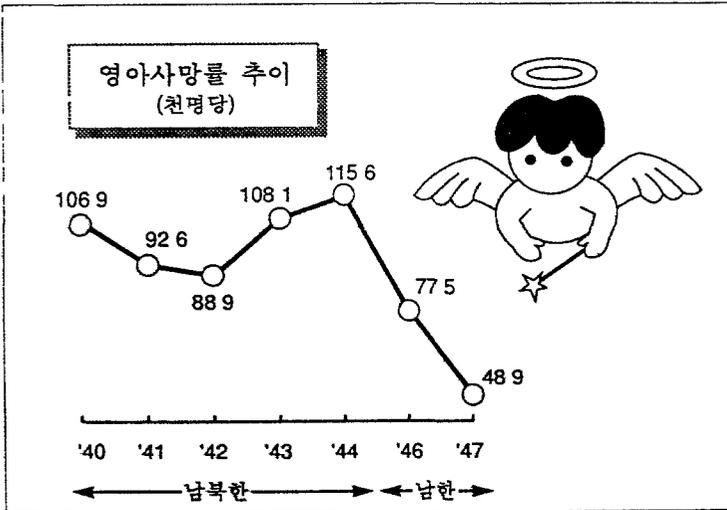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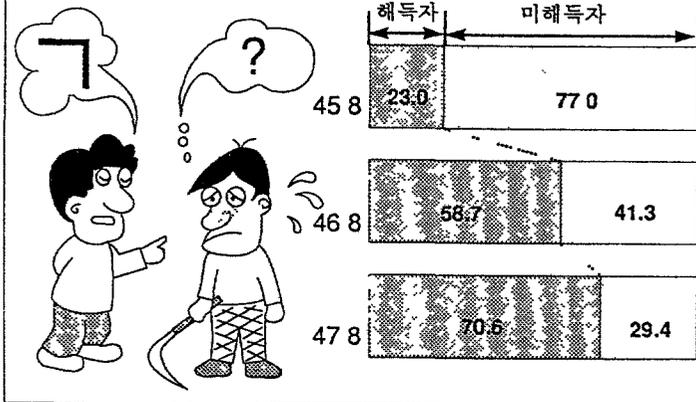
### < 13歲以上中 77%가 한글 몰라 >

광복후 政府資料에 의하면 南韓의 13세이상 인구중 ~~한글을 이해 못하는 사람~~(半解得者 제외)는 '45 8월 현재 77 0%에 이른다 하였고, '47 8월 현재로는 29 4%로 낮아진 것으로 되어 있음

	13세이상 인구	한글해득자	한글 미해득자 (천명, %)
'45 8	10,365 (100 0)	2,384 (23 0)	7,981 (77.0)
'46. 8	13,088 (100.0)	7,677 (58 7)	5,411 (41.3)
'47. 8	13,321 (100.0)	9,399 (70 6)	3,924 (29.4)

주) · 한글 해득자에는 반해득자가 포함되었음

한글해독 · 미해독자 비율 (13세이상)



## < 영아 死亡率 世界 2위 >

光復前 5개년간('40~'44) ~~南北韓國自然人口自然增加率~~은 인구千名當 16.8명(1.68%)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출생률은 35.7명, 사망률은 18.9명 이었음

- 人口 千名當 婚姻率은 5개년평균 12.0명, 離婚率은 0.4명으로 나타나고 있어 혼인율은 현재보다 다소 높은 반면, 이혼율은 현재의 1/3수준이었음.

	(천명당)	
	'40~'44년 평균	1991
인구자연증가률	16.8 (1.68%)	10.9 (1.09%)
출 생 률	35.7	16.9
사 망 률	18.9	5.9
영 아 사 망 률	102.4	12.8
혼 인 율	12.0	9.7
이 혼 율	0.4	1.2

- 특히 ~~영아사망률~~(출생아 천명중 1세미만 사망비율)은 5개년 평균 102.4명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44년의 경우는 무려 115.6명으로 이는 당시 印度(162명)에 이어 세계 2위수준 이었다고 함.

## < 대부분 집에서 분만 >

- 당시의 열악한 所得水準과 醫療施惠不足 등으로 출산중 死産率도 천명당 5.0명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 특히 '47년 자료에 의하면 出産場所로 病院이나 助産院을 이용한 경우는 총출생아의 0.4%에 불과하여 대부분이 집에서 출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출산시 醫師나 産婆의 도움을 받은 경우도 3.6%에 그쳐, 대부분이 가족·친지 등의 도움으로 출산하였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47		1988 (명, %)	
· 총출생아수	438,032	(100 0)	628,073	(100 0)
· <del>출생아수</del>				
- 병원·조산원	1,664	(0 4)	475,451	(75 7)
- 집·기타	436,368	(99.6)	152,622	(24 3)
· <del>출생아수</del>				
- 의사·산파	15,764	(3.6)	...	(...)
- 기타	422,268	(96.4)	...	(...)

### < 肺炎, 傳染病 극성 >

광복전후에 ~~간장염은 가장 높은 사망률의 原因~~은 肺炎으로서 '47년의 경우 總死亡者의 12.6%였고, 다음으로는 幼兒病(현재는 이러한 분류를 하지 않음) 12.0%, 胃·十二指腸病(암 제외) 9.9%, 老衰 7.8%, 氣管支炎 및 喘息 7.7%, 流行性感氣 6.2% 등이었음

○ 당시에는 ~~法定傳染病은 1919년 12월 1일 공포된 1919년 12월 1일 공포된 1919년 12월 1일 공포된~~도 매우 높았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46년에는 콜레라가 극성을 부려 '46.1~7월까지의 통계에 의하면 총 7,079명의 환자가 발생하여 이중 4,310명이 사망, 60.9%의 致死率을 보였고, '47년 자료에 의하면 총사망자중 紅疫이 3.8%, 百日咳가 1.7%, 장티푸스가 0.8%를 차지하고 있음

	1947		1991 (명, %)	
총 사 망 자 수	178,506	(100 0)	199,673	(100 0)
· 폐 렴	22,471	(12 6)	1,846	(0 9)
· 유 아 병	21,403	(12 0)	...	(...)
· 위·십이지장 병	16,234	(9 9)	1,151	(0.6)
· 노 쇠	13,913	(7 8)	20,585	(10 3)
· 기관지염 및 천식	13,649	(7.7)	3,234	(1.6)
· 유행성 감기	10,197	(6 2)	89	(0.0)
· 각종 결핵	9,322	(5 2)	4,002	(2 0)
· 뇌막염	7,775	(4.4)	306	(2.0)
· 홍역	6,701	(3 8)	38	(0 0)
· 백일해	2,941	(1 6)	1	(0 0)
· 각종 암	2,391	(1 3)	38,351	(19 2)
· 장티푸스	1,371	(0 8)	-	(-)
· 교통사고	389	(0 2)	13,936	(7.0)

### < 醫療施設, 水準 등 貧弱 >

오늘날에 보면 별반 대수롭지 않은 병으로도 사망률이 높게 나타났던 것은 당시의 가난이 주 원인이라 할 수도 있으나, 의료시설 및 인력부족, 의료수준의 빈약 등도 주요한 요인이었다 할 것임.

- '91년 현재에 비해 '49년 당시의 病·醫院數(綜合病院 포함)는 22.6%, 醫師數는 9.5%, 看護人力數는 0.6%에 불과하였고, 醫師 1人當 人口數는 현재의 4.9배에 이르렀음

#### ○ 醫療시설 및 인력 현황

	1949	1991
종합 병원 (개소)	53	231
병·의 원 (개소)	2,722	12,072
의 사 수 (명)	4,322	45,496
(의사1인당인구수(명))	(4,671)	(951)
간 호 인 력 수 (명)	1,343	239,095
치 과 의 사 수 (명)	702	10,137
(의사1인당인구수(명))	(28,759)	(4,268)
산 파 (명)	1,458	7,862
약 제 사 (명)	849	38,396
제 약 사(개소)	152	420
약 중 상 (명)	6,481	25,771

### < 平均壽命 44歲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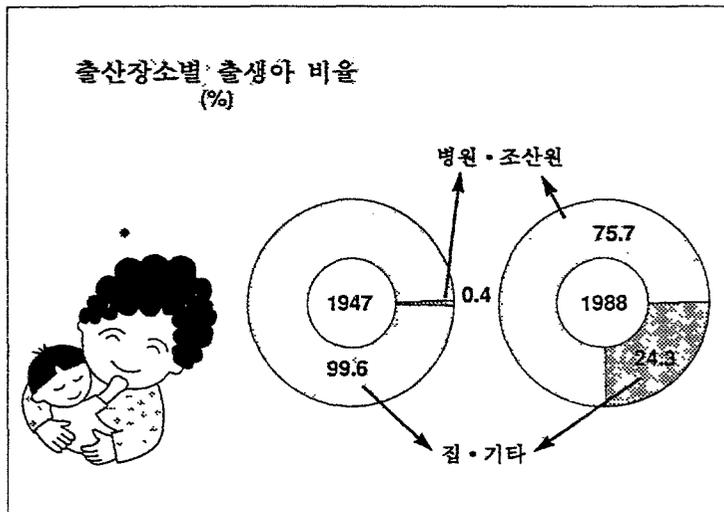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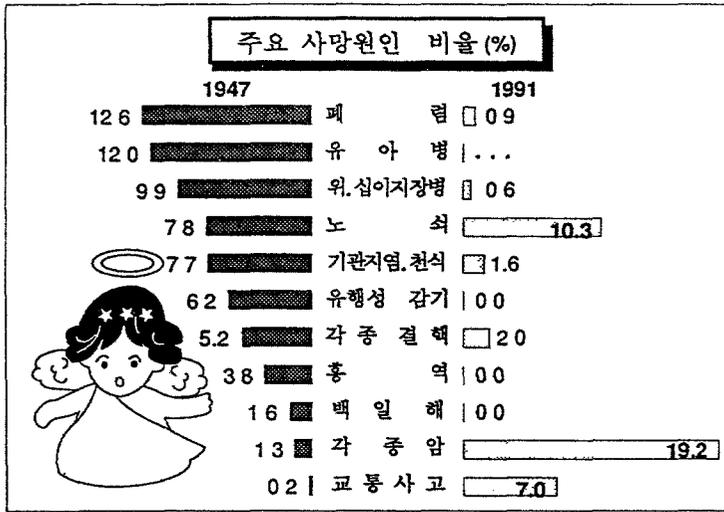
'40년대초 우리나라 사람들의 平均壽命은 43.8歲로 알려지고 있는데, 최근에 비하여 불때 27세이상의 차이가 나고 있음. 당시의 낮은 생활수준, 의료혜택의 빈약성을 잘 나타내어 주고 있음

#### ○ 平均壽命

(單位 · 歲)

	1938~42	1990
평 균	43.8	71.3
남 자	42.5	67.4
여 자	45.0	75.4

주) · 38~42년 자료는 朴在彬 작성자료, '90년 자료는 統計廳 將來人口推計(91.4)자료임



## II. 雇傭 · 賃金 · 物價事情

### < 失業者 150만명 推算 >

- '47년말 기준으로 작성된 職業別 人口資料에 의하면 15세이상 인구 10,801千명중 소위 經濟活動人口는 7,087千명(참가율 65.6%), 非經濟活動人口는 2,822千명, 확인미상자 892千명으로 나타나고 있음
- 경제활동인구중 就業者는 6,289千명, 失業者는 798千명(失業率 11.3%)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확인미상자의 상당수가 失業者였을 것으로 보여짐으로, 實際失業者數는 150萬명 수준에 이를 것으로 推算하고 있음
- 당시 社會部 勞動局 資料에 의하면 '46년에는 失業者가 1,051千명, '49년에는 895千명 등으로 나타나고 있음
- 취업자중 農林漁業종사자는 79.4%(4,995천명), 鑛工業종사자 3.3%(205千명), 社會間接資本 및 其他産業종사자 10.4%(654천명) 등이었고, 일정한 직장없이 막노동 등에 종사하는 日傭勞務者도 전체의 6.9%(435천명)를 차지

	(천명, %)	
	1947	1992
· 15세이상인구	10,801	31,851
· 경제활동인구	7,087	19,384
- 취업자	6,289	18,921
- 실업자	798	464
(실업률)	(11.3)	(2.4)
· 비경제활동인구	2,822	12,467
· 미상자	892	-
· 취업자구성	6,289 (100.0)	18,921 (100.0)
- 농림어업	4,995 (79.4)	3,025 (16.0)
- 광공업	205 (3.3)	4,828 (25.5)
- 기타산업	654 (10.4)	11,068 (58.5)
- 일용노무자	435 (6.9)	- (-)

주) · 당시 분류와 현재의 분류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음

< 物價는 暴騰하고 賃金은 낮아 >

'48년 당시 ~~최종별 임금수준~~은 木手(大木)賃을 비롯하여 토목건축업종의 임금수준이 비교적 높은 반면 섬유공업 등의 임금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았음 (日當, 圓)

면방직 女工	비누제조공	구두제조공	목수(대목)	토목일반인부
142 36	145 83	427 49	482.49	316 66

○ 綿紡織 女工의 일당을 월급여로 환산하면(日當 142원36전, 週 48시간, 25日 근무가정) 3,559圓 정도이며, 이는 당시의 物價사정상 보리쌀 1말(1,304圓)과 밀가루 1포대(2,246圓)를 사고나면 당시 왕복전차료(10圓)에 못미치는 9圓이 남았던 셈임

※ '46 11 7 공포된 「법령 제121호 最高勞動時間」 제2조에 의하면 피용인을 每作業週間 48시간이상 상공업 또는 공무에 종사시키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예외로 60시간을 한도로 超過作業을 허용하고 있음

'48 12월 당시 公務員 월급여액(專門大卒業 정도, 근무경력 3년, 부양가족 3인 남자기준)은 4,380圓(현물지급 제외)이었고, 회사원(조사기준은 공무원과 동일)의 경우는 9,250圓이었음

공무원	교 사	회사원	백화점원	(월액, 圓) 은행원
4,380	9,040	9,250	6,090	8,390

~~1948년 월급수준과 당시 최저생활필요의 최소가격~~을 비교(일당은 25일 근무로 가정하여 환산하였고, 가격은 연평균임)하면 다음과 같음

○ 綿紡織 女工의 경우 쌀 1 9말 또는 보리쌀 2 7말, 公務員의 경우는 쌀 2 4말 또는 보리쌀 3 4말을 살 수 있을 정도에 불과한 급여를 받은 셈임

월 급 여 (圓)	면방직女工	목수(대목)	공무원	회사원
	3,559	12,062	4,380	9,250
쌀(1,840圓)(1등1말20ℓ)	1 9말	6.6말	2 4말	5 0말
보리쌀(1,304圓)(1등1말20ℓ)	2 7말	9 3말	3 4말	7 1말
밀가루(2,246圓)(1등1포대22kg)	1.6포대	5.4포대	2 0포대	4.1포대
쇠고기(307圓)(1근600g)	11.6근	39 3근	14 3근	30 1근
돼지고기(285圓)(1근600g)	12.5근	42 3근	15 4근	32 5근
달걀(248圓)(1꾸러미10개)	14.4꾸러미	48 6꾸러미	17 7꾸러미	37 3꾸러미
양말(228圓)(유색1켤레)	15.6켤레	52 9켤레	19 2켤레	40 6켤레
여자고무신(240圓)(흑색1켤레)	14 8켤레	50 3켤레	18 3켤레	38 5켤레
빨래비누(221圓)(1급1개)	16 1개	54 6개	19 8개	41 9개

이를 '48 12월 당시 서울시내 ~~金鎊銀鎊~~ 1돈 중당 都賣가 결과 1:1로 비교하면 다음과 같음

	면방직여공	목수(대목)	공무원	회사원
금 (5,750圓)	0 6돈	2 1돈	0 8돈	1 6돈
은 (64 5圓)	55 2돈	187.0돈	67 9돈	143 4돈

'44년 당시 평균서울勞賃指數('36년 = 100)는 224 51이었으나 '48년에는 20,334에 달하여 약 4년동안 명목 노임수준은 90 6배가 상승하였으나 같은기간중 서울小賣物價指數('36년=100)는 225 95에서 62,900으로 변하여 무려 278 4배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에따라 근로자의 생계는 크게 꺾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남

○ 小賣物價指數와 勞賃指數의 對照

	('36년 = 100)	
	서울소매물가지수	서울노임지수
1944	225.95	224 51
1945 8~12	5,746	2,725
1946	22,300	7,119
1947	40,900	14,843
1948	62,900	20,334
('44년대비 상승배수)	(278 4배)	(90 6배)

광복되던 해 하반기('45 8~12)의 物價가 광복전해평균에 비해 무려 25 4배나 오르는 등 광복당시의 시대적 혼란상은 물가에 그대로 반영되었음 생필품 가격자료가 나타나고 있는 '45 8~12이후의 品目別 價格變化(서울생필품가격)를 보면 '48년 현재 빨래비누가 광복당시에 비해 44배, 양말이 33배 오른 것을 비롯, 3년여동안 대부분의 생필품이 큰폭 상승하였음

## ○ 저울생필품가격변화

(圓)

	'45 8~12	'46	'47	'48('45 8~12대비상승배율)
쌀 (1등1말)	124	695	1,203	1,840 (13.4배)
보리쌀(1등1말)	96	524	736	995 (9.3배)
밀가루(1등1포대)	208	1,235	1,444	2,246 (10.8배)
콩 (황두, 1말)	65	368	787	1,381 (19.1배)
쇠고기(1근, 600g)	19	71	188	307 (16.2배)
돼지고기(1근, 600g)	26	75	188	285 (11.0배)
달걀(10개)	21	50	138	248 (11.8배)
참기름(상품, 1되)	84	272	1,079	2,104 (25.0배)
소주(25도, 1되)	52	175	301	415 (8.0배)
양말(유색, 1켤레)	7	31	115	228 (32.6배)
운동화(아동용, 1켤레)	48	114	331	376 (7.8배)
빨래비누(1급, 1개)	5	26	137	221 (44.2배)

주) · 쌀, 보리쌀, 콩의 1말가격은 '47년까지는 18ℓ 당, '48년은 20ℓ 당 가격임으로, 상승배율은 18ℓ 기준으로 환산한 것임

광복이후 서비스料金 상승률은 생필품 가격 상승률을 훨씬 앞질러 물가를 더욱 부채질 하였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서울시내 沐浴料가 '48년 평균으로 따져 52圓50錢으로 '45년평균 50錢에 비해 105배 오르는 등, 전체적으로 20배~100배이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 저울저택스요금변화

(圓)

	'45	'46	'47	'48('45년대비상승배율)
목욕료(성인 1회)	0.50	4.75	20.83	52.50 (105.0배)
이발료(성인 1회)	2.88	22.50	52.50	101.25 (35.2배)
신문구독료(1개월)	2.50	22.30	83.33	175.00 (70.0배)
라디오청취료(1개월)	1.00	4.75	32.50	70.83 (70.8배)
영화관람료(1회)	1.79	11.60	23.33	106.66 (59.6배)
크리닝료(양복 1벌)	5.50	29.91	203.33	450.00 (81.8배)
전등사용료(40W, 1개)	1.15	6.50	12.00	73.20 (63.7배)
수도료(10m³)	2.70	13.50	81.00	147.50 (54.6배)
우편료(1장)	0.05	0.11	0.56	1.50 (30.0배)
전보료(국내, 7자)	2.00	4.67	20.00	40.00 (20.0배)
전차료(시내, 편도)	0.15	0.54	1.58	4.50 (30.0배)
버스료(시내, 1구역)	0.19	0.54	1.58	4.50 (23.7배)

- '45 8월당시 서울시내 금 1돈중(3.75g)당 都賣가격은 최고 500圓, 최저 270圓으로 平均 353圓 이었으며 '48 12월에는 최고 5,800원, 최저 5,700원으로 平均 5,750원 이었음
- '45 8월대비 平均 16.3배 상승한셈임

○ ~~金 1돈중과 서울 주요 상품 都賣가격의 상승률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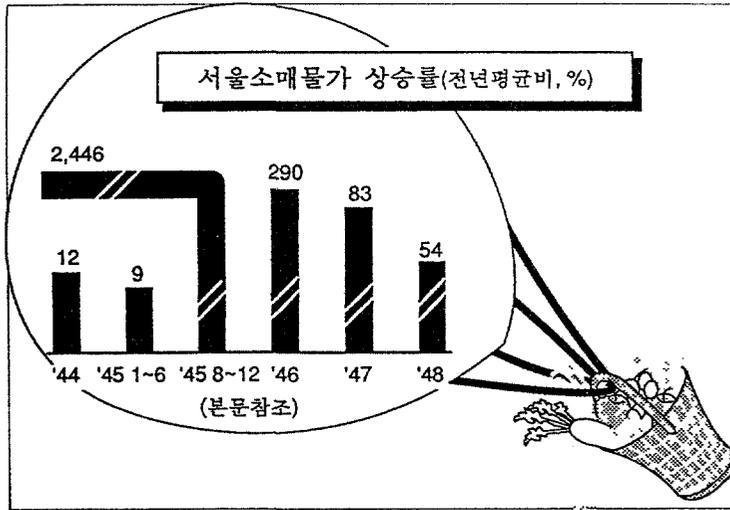
'48 12 金(1돈중 5,750圓)		'93. 5 金(1돈중 38,300원)	
쌀(1등품1말20ℓ 1,450圓)	약4 0말	쌀(일반미중품 1말16kg 20,624원)	약1 9말
쇠고기(1근 340圓)	약16 9근	쇠고기(1근600g 4,332원)	약8 8근
돼지고기(1근·300圓)	약19 2근	돼지고기(1근600g: 1,256원)	약30.5근
달걀(10개 220圓)	약26.1꾸러미	달걀(10개·440원)	약87 0꾸러미
빨래비누(1개 160圓)	약35 9개		...
여자고무신(흑색 210圓)	약27.4켤레		...
담배(10개피1갑 23圓)	약 250갑		...

주) · '48년 金 및 商品都賣價格은 '48.12월 平均價格임

※ 참고 최근의 직종별 임금수준과 물가와의 비교

	방직·제직· 편직공 여자	목공 (남)	사무및관련직 종사자(남)
○ 월 급 여 (원)	408,635	892,509	924,265
○ 소비자물가			
· 쌀(재래일반미16kg, 중품1말 23,806원)	17 2 말	37 5	38 8
· 보리쌀(정부방출16kg 8,556원)	47 8 말	104 3	108 0
· 쇠고기(한우, 정육, 중등육 600g 8,423원)	48 5 근	106 0	109 7
· 돼지고기(정육, 중등육 600g 2,536원)	161 1 근	351 9	364 5
· 달걀(白大卵 1꾸러미 10개 680원)	600 9 꾸러미	1,312 5	1,359 2
○ 도매물가			
· 금 1돈중(38,300원)	10.7돈	23 3	24 1
· 은 1돈중(497원)	822.2돈	1,795.8	1,859.7

- 주) · 월급여는 '91년자료로서 연간특별급여액을 12개월 평균하여 포함하였음
- 소비자 및 도매물가는 '93 5월현재 평균가격임
- 쌀(일반미, 재래中品, 8kg가격 11,903원), 보리쌀(정부방출, 8kg· 4,278원), 쇠고기(한우, 정육, 중등육 500g 7,019원), 돼지고기(정육, 중등육 500g 2,113원), 달걀(흰색, 大卵, 개당 55g 정도 10개· 680원) 가격을 '48년 당시와 비교 가능 하도록 환산한 것임



**금 1돈종의 주요상품 상대가격 (도매)**  
( '48 12 현재 5,750圓 )

쌀 (1등급 1말·20리터)	⇒ 4말
식 고 기	⇒ 17근
돼 지 고 기	⇒ 19근
달 갈 (10개 1꾸러미)	⇒ 26꾸러미
빨래비누 (국산품1급)	⇒ 36장
흑 색 여자고무신	⇒ 27켤레

## 〈 生必需品供給 絶對不足 〉

이와 같은 物價暴騰의 주 원인은 生活物資가 絶對적으로 不足하였기 때문이었음 日本의 식민정책에 의해 조정되어왔던 우리나라 産業은 광복을 맞아 일대 轉換期에 처함에 따라 일본으로부터의 설비보수품의 공급단절, 원료의 부족, 기술자 부족, 심각한 전력난 등으로 공장조업률이 크게 떨어지고, 많은 공장들이 폐쇄되게 되었으므로 주요 생활물자의 필박은 극에 달하게 되었음

광복이후 實質 工業生産額 규모는 각 부문별로 日帝時보다 20~80%이상 오히려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 주요공업생산위축상황(남한)

	'39	'46		(천圓, %)
	실생산액	실생산액	물가수정액	'39년대비감소율
방 직 공 업	170,985	1,635,453	67,855	60.3
기계 기구 공업	38,405	2,156,173	15,154	60.5
화 학 공 업	91,171	3,089,697	21,714	76.2
제재·목제품공업	13,746	1,566,826	11,012	19.9
식 료 품 공 업	213,628	5,186,549	36,457	82.9

주) · 물가수정액은 都賣物價에 의거 '48년 당시에 推算된 것임

주요 공업의 생산위축에 따라 극심한 물자공급부족을 나타내었는데, '46 7~'47 12월까지 약 18개월 동안의 工產品 供給現況 자료에 의하면, 면포는 인구 1인당 1碼, 양말, 고무신은 각각 8인에 1켤레, 運動靴는 25명에 1켤레, 비누(세탁, 화장용 포함)는 3명에 1개꼴로 공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 주요공산품공급현황('46 7~'47 12)

	총 공급 량	공급량 규모
綿 布	22,000,000 碼	인구 1인당 1碼
絞 織	1,000,000 碼	20인당 1碼
人 絹	600,000 碼	33인당 1碼
양 말	2,500,000 켤레	8인당 1켤레
고 무 신(남녀, 아동용)	2,500,000 켤레	8인당 1켤레
운 동 화	800,000 켤레	25인당 1켤레
비 누(세탁, 화장용)	7,300,000 개	3인당 1개

< 1人1日 2홉5작 糧穀配給도 차질 >

- 光復前에는 매년 평균 800萬石의 쌀(최고 1,100萬石)과 150萬石의 大豆를 供出로 수탈 당하였으나, 滿州粟(조) 약100萬石, 安南米 100萬石 정도를 보충 輸入하고, 農民의 副食物 自家充當·都市民의 節食으로 근근히 食糧破綻을 모면
- 光復以後에도 原始的 營農으로 인해 자연현상에 대한 극복력이 낮은데다, 주로 北韓에 있었던 비료공장에서의 化學肥料供給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등의 악조건으로 인해 쌀, 잡곡 등의 段步當 收穫高가 크게 減少하는 등 食糧事情이 더욱 惡化

○ 穀物生産量(千石) 및 段步當 生産量(石)

	쌀 (단보당)	보리 (단보당)	밀 (단보당)	조 (단보당)	옥수수(단보당)
40~44평균	13,718 (1 326)	… (1 662)	… (0.528)	… (0 555)	… (0 542)
45	12,836 (1 217)	4,954 (0 814)	323 (0 434)	578 (0.339)	150 (0 334)
46	12,050 (1 088)	5,219 (1 671)	451 (0 543)	679 (0 474)	83 (0 393)
47	13,850 (1 233)	4,598 (1 473)	448 (0 507)	478 (0 390)	82 (0 380)
1992	37,023 (3 200)	2,282 (2 209)	3 (1 829)	12 (0 965)	683 (3 262)

주) · 40~'44 평균자료중 쌀은 남한, 기타 곡물은 남북한 평균임

○ '47년 당시 쌀생산량은 '92년 현재 생산량에 비해 37 4%에 불과하였고, 단보당 생산량 역시 34 0%에 불과

- 광복이후 3개년간 糧穀配給平均生産高는 쌀 1,291萬石, 잡곡 약 668萬石으로 인구 1인 당으로 따져 年 0 98石 정도였다고 하며, 식량부족이 심한관계로 1人 1日當 2홉5작의 配給量 유지를 위해 46 5~48 12까지 약 473만石(669千톤)의 양곡을 輸入

○ 외국양곡 수입실적('46 5~'48 1)

	M/T	石數 換算		M/T	石數 換算
밀	314,803	2,331,870	밀 가루	89,127	825,254
옥수수	30,775	227,993	보리	151,532	861,034
완두	1,100	7,639	귀리	510	6,594
大豆	1,400	10,370	大豆粉	1,800	18,000
牛乳粉	1,800	18,000	설탕	16,955	152,748
쌀	59,362	273,348	計	669,164	4,732,850

'47 11월말 현재 食糧配給을 받은 人口數는 약 9,340천명(총인구의 47.0%)으로 이중 태반이 도시에 거주하였고, 식량배급을 타기위한 유령인구도 상당수 있었다고 함.

○ '46 12~'47 11까지의 配給實績 (精穀, 石)

米 穀			雜 穀			總 計	配給人口 1人當
國產	輸入	計	國產	輸入	計		
3,512,369	184,460	3,696,829	580,904	3,041,786	3,622,690	7,319,519	0.78(1인 1일당 2홉1작)

○ 食糧配給人口

	'47 4	'47 8	'47. 11
配給人口(명)	7,718,526	8,720,198	9,339,824
增加(명)	...	1,001,672	619,626

· 市·道別 配給人口(47 11 현재) (천명)

總數	서울	京畿	忠北	忠南	全北
9,340	1,789	1,014	295	745	670
(100.0)	(19.1)	(10.8)	(3.2)	(8.0)	(7.2)
全南	慶南	慶北	江原	濟州	
1,147	1,300	1,400	906	74	
(12.3)	(13.9)	(15.0)	(9.7)	(0.8)	

## < 米穀收買 반발 심해 >

- 광복후 한때 철폐되었던 食糧統制政策은 식량사정이 급속 악화됨에 따라 다시 강화되어 白米 最高價格 결정, 米穀收集令 공포, 米穀自由搬入賣買 단속, 米穀供出制 강행 등의 조치가 잇따랐으나, 크게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으며 특히 정부의 미곡 수매계획은 많은 마찰과 차질을 빚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 米穀수매계획량(남한)

(천石, %)

	생 산 량	수매계획량	실수매량	수매량/생산량	수매량/수매계획량
44	10,772	6,654	6,274	70.2	94.2
45	12,836	5,511	681	5.3	12.4
46	12,050	4,295	3,562	29.5	82.9
47	13,850	5,156	5,068	36.5	90.3
48	15,485	7,500	3,900	27.2	51.4

- 정부의 米穀收買價格이 일반유통가격에 비해 매우 낮아, 농민들의 反撥이 매우 심하였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47.5.1현재로 조사된 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의 米穀收集事業에 不應한 관계로 징역, 구류, 벌금 등의 형을 언도 받은 사람이 8,631명에 이른다 하였음

- '49년도의 수매자료에 의하면 白米 1등급 60kg 1가마당 수매가격은 1,960圓 이었으나, 당시 서울 생필품 소매가격으로 본 쌀 1등급 1말(20℔)가격('48년 평균)이 1,840圓 이었음을 감안하면, 이는 당시 時勢의 1/3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정부에서도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1,960圓의 현금지급 외에 매 1가마당 액면 1,000원의 肥料 購入券과, 廣木 2碼(1급 1마에 약 500圓 정도)를 교부하여 보상

	등 급	중량 (kg)	가격 (圓)
현 미	1	60	2,130
백 미	1	60	1,960
잡 쌀	1	60	2,150
조	1	54	1,400

공산품 공급량 규모  
('46. 7 ~ '47. 12)

綿 布 : 1사람당 1碼  
 양 말 : 8사람당 1켤레  
 고무신 : 8사람당 1켤레  
 운동화 : 25사람당 1켤레  
 비 누 : 3사람당 1개



추곡수매가 ('49년)

• 현미(1등급 60Kg) 2,130 圓 •  
 백미(1등급 60Kg) 1,960 圓  
 찹쌀(1등급 60Kg) 2,150 圓  
 • 조 (1등급 54Kg) 1,400 圓 •



## < 光復以後 2年間 通貨量 7배 膨脹 >

생활물자의 부족과 함께 財政支出擴大·季節性 資金 放出 등으로 通貨量이 급속히 膨脹되어 인플레이션을 더욱 가속시켰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45 8 15일 현재 당시 朝鮮銀行券의 發行高는 4,975백만圓 이었으나 '47년말에는 33,388백만圓으로, 약 2년4개월 동안에 무려 28,413백만圓(광복당시대비 6 7배) 이라는 통화 팽창고를 가져왔음

### ○ 조선은행권 발행고

	연말발행고(千圓)	비전년말증가율(%)	국민1인당발행액(圓)
45	8,763,341	179.5	519.37
46	17,710,623	102.1	914.37
47	33,388,164	88.5	1,694.96
48	43,444,111	30.1	2,169.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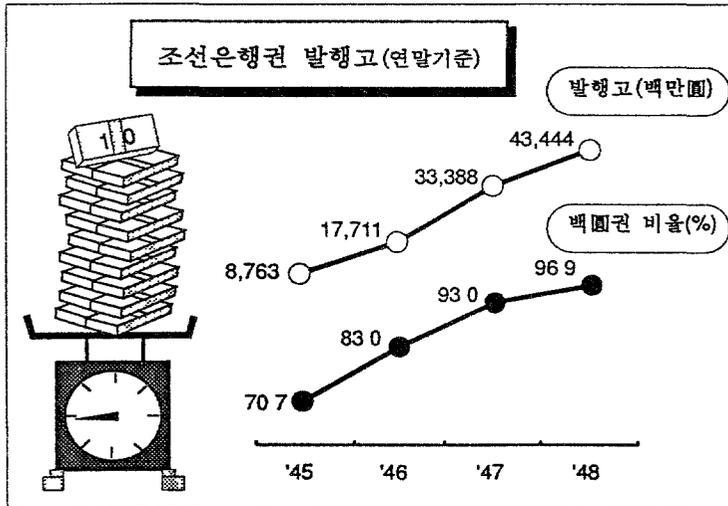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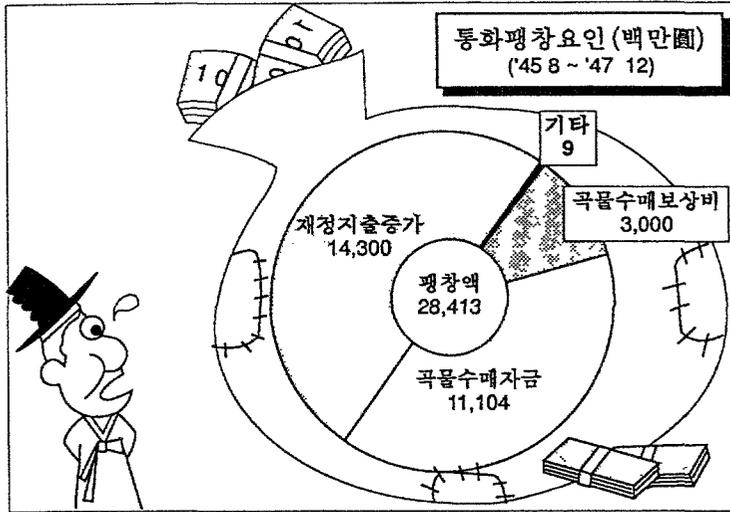
### ○ '45.8 14~'47 12월말까지의 通貨팽창률

통화팽창액	계절적곡물수매자금	곡물수매보상비	재정지출증가	(백만圓, %) 기 타
28,413	11,104	3,000	14,300	9
(100)	(39.1)	(10.6)	(50.3)	(0.0)

극심한 인플레이션을 반영하여 화폐발행액중 고액권의 발행비율이 급속 증가

	백圓권	십圓권	오圓권	일圓권 (%)
43	18.8	71.5	4.0	5.7
44	34.1	60.1	2.9	2.9
45	70.7	26.7	1.4	1.1
46	83.0	15.9	0.6	0.5
47	93.0	6.4	0.3	0.3
48	96.9	2.7	0.2	0.2

※ '92년말 현재 화폐발행액(9,807,735백만원)중 만원권(84.9%), 오천원권(3.5%), 천원권(5.7%), 오백원권(0.1%), 백원권이하(0.0%), 주화(5.8%)임





'46년 현재 남한의 임야면적 6,814千町步중 立木地가 약 52%를 차지하고 있으나, 成林地가 극히 빈약하여, 木材生産量은 2,886千石에 비해 실 생산량은 불과 57% 수준인 1,642千石에 그쳤고, 부족량을 日本 등지에서 수입에 의존하였으나, 공급이 극히 원활치 못하여 노후된 鐵道枕木の 改替方途 조차 없어 철도수송에도 큰 영향을 주었음

### < 光復前에 비해 공장수 반으로 줄어 >

鑛業 역시 日人에 의한 난굴, 파괴, 도굴, 관리태만과 광복이후 광업정책의 결여 등으로 비참한 상태에 있었다 함 '47년 현재 남한의 鑛區數는 총 4,582개소에 이르렀으나, 실제 稼動鑛區는 불과 2.6%에 해당하는 119광구에 불과한 실정이었다 하며, 수송, 공업부문 등의 극심한 연료난으로 인해 '45.10~'47.12월 사이에 총 1,407千톤의 有煙炭을 해외로부터 輸入

광복전해만 하여도 南韓内 9,323개 공장이 있었으나 '46.11월 현재 남한의 工場數는 광복 전해보다 오히려 43.7%가 줄어들었고, 從業員數도 40.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 남한공장상황

(개소, 명)

	공 장 수	종 업 원 수
44	9,323	300,520
46.11	5,249	122,159
(44년대비)	(-4,074 · -43.7%)	(-178,361 · -59.4%)
48.1	4,385	157,047
(44년대비)	(-4,938 · -53.0%)	(-143,473 · -47.7%)

- '46.11월 당시 공장수는 '91년말 현재 제조업체수(종업원 5인이상) 72,213개소의 7.3%에 불과하였고, 종업원수는 '91년의 2,918,015명의 4.2%에 불과
- '46.11월 현재 總工場數 5,249개소중 機械器具工業分野 工場이 878개소(16.7%)로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窯業 및 土石工業(731개소), 食料品工業(726개소), 紡織工業(615개소) 등 順이었음.

- 勤勞者 基準으로 보면 총 122,159명중 紡織工業이 36,269명(29.7%)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化學工業(19,171명), 機械·器具工業(17,394명) 등 順이었음 總勤勞者中 男子가 70.6%, 女子가 29.4%였으며, 특히 女子勤勞者의 73.3%가 紡織工業에 就業 하였음 (개소, 명, %)

	工場數	勤勞者 計	男	女
計	5,249 (100)	122,159 (100)	86,291 (100)	35,868 (100)
機械·器具工業	878 (16.7)	17,394 (14.2)	16,761 (19.4)	633 (1.8)
窯業·土石工業	731 (13.9)	9,693 (7.9)	8,768 (10.2)	925 (2.6)
食料品工業	726 (13.8)	8,383 (6.9)	7,707 (8.9)	676 (1.9)
紡織工業	615 (11.7)	36,269 (29.7)	9,972 (11.6)	26,297 (73.3)
化學工業	574 (11.0)	19,171 (15.7)	13,924 (16.1)	5,247 (14.6)
其他	1,725 (32.9)	31,249 (25.6)	29,159 (33.8)	2,090 (5.8)

### < 電力은 北韓에 크게 依存 >

'46년중 남한의 總發電量은 224백만KWH에 불과하였고, 北韓으로부터 465백만KWH를 受電 하여 총 689백만KWH를 供給하였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48.5.14일 정오를 기해 북한으로부터의 送電이 斷絶됨에 따라 電力難이 급속히 악화
- 전력부족정황은 원천적으로 공급이 부족한데 연유한 것이지만, 낙후된 설비, 관리 태만, 운영미숙 등으로 송전, 변전, 배전에 따른 손실과 도용손실이 매우 컸던데에도 기인하였다 하는 바, '48년의 경우 전력 총공급량중 損失率이 36.8%(이중 盜電이 15% 정도)에 이른다 하였음 (백만KWH)

	총발전량	(수력)	(화력)	북한수전량	총공급량
43	5,692	5,335	356	...	...
46	224	216	8	465	689
47	265	195	70	542	807
48	479	242	237	205	684
1992	130,963	4,863	69,569	-	130,963

※ '43년은 남북한 합계이며, '46년이후는 남한자료

- '48년 당시 총발전량은 '92년 현재의 0.4%에 불과한 실정이었음

< 保有電車の 76%가 故障 >

광복전후 주요도시 서민의 발이었던 電車는 광복전해에 서울에서만도 252대가 있었고, 그중 234대가 運行되면서 하루평균 534千名, 年間 195百萬名의 인원을 실어날랐으나, 광복되던해인 '45년에는 總電車數 255대중 일제의 차량혹사와 수리기술 및 장비 부족으로 76%에 이르는 194대가 故障車였고, 고작 61대가 運行되면서 승차인원도 하루평균 322千名, 年間 118百萬名으로 감소하였으며, 이에 따라 심한 교통난을 유발

○ ~~서울전차운행상황~~

	전 차 수 (대)			승차 인원 (천명)		
	계	운행차	고장차	하루평균	연 간	1차1km당(명)
44	252	234	18	534	194,997	16 6
45	255	61	194	322	117,832	20 9
46	274	77	197	292	106,741	32 2
47	268	118	150	305	109,206	27 5

○ 電車요금도 그간의 인플레이와 수송사정의 악화 등으로 인상이 거듭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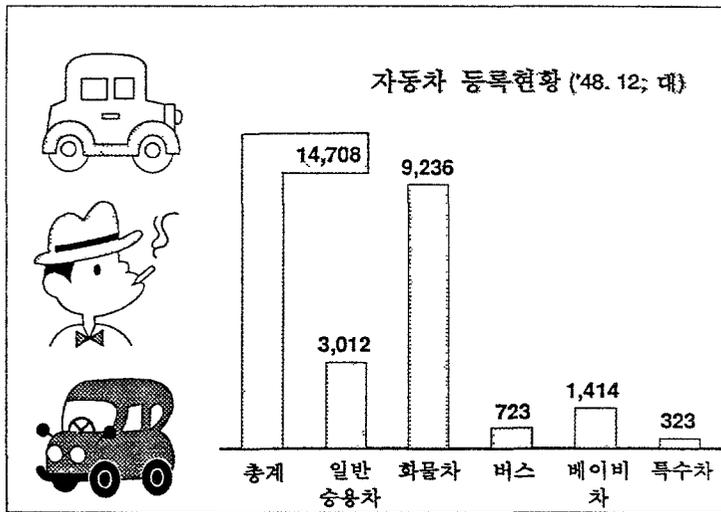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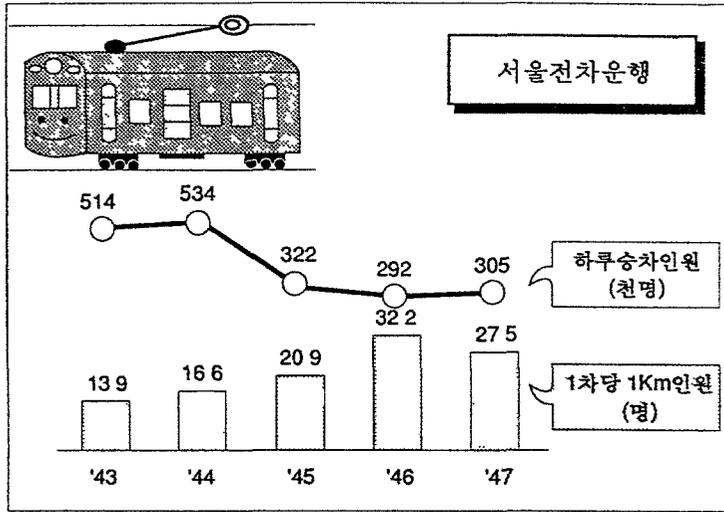
'43이전	44	45 5	45 11	46 12	47 6	48 3	49.10
5 錢	6 錢	10 錢	50 錢	1 圓	2 圓	5 圓	10 圓

< 登録自動車 14,000여대 >

'45 4월 현재 7,326대(이중 반수는 폐차나 다름없었다 함)에 불과하던 남한의 登録自動車數는 철도의 일시혼란 등 여건변화로 크게 늘어나, '48년말 현재 14,708대(소형차 및 특수차 포함)에 이르렀음

	일반자동차	(승용차)	(화물차)	(버 스)	베이비차	특수용차	총 계
'48 12(대)	12,791	(3,012)	(9,236)	(723)	1,414	323	14,708
1993 4(천대)	5,539 2	(3,713 4)	(1,327.3)	(498 5)	-	25 3	5,564.5

○ 電車, 自動車 이외에도 서울에는 ~~聯合電車(의외)회사~~가 旅客 小運送業으로서 정식 허가를 받아 영업중이었는데, '48년말 현재 143대가 있었고, 요금은 동대문↔서울역 50圓, 서울역↔노량진 70圓 등이었음



國內民間航路 신설은 당시 대한국민항공사가 「스팀슨」기 3대를 도입하면서 '49 11월 부터 시작되었음

○ 항로 및 항공요금

- 매일1회운항 서울- 부산(11,000圓), 서울 - 광주(8,300圓)
- 1주3회운항 서울-광주-제주(15,100圓), 서울-강릉(7,300圓), 서울-웅진(5,900圓)
- 서울-부산간 1회 항공요금은 '49.3월 당시 金 평균도매가격(1돈중 6,550圓)으로 따져 1 7돈에 해당하였고, 서울-제주간은 2 3돈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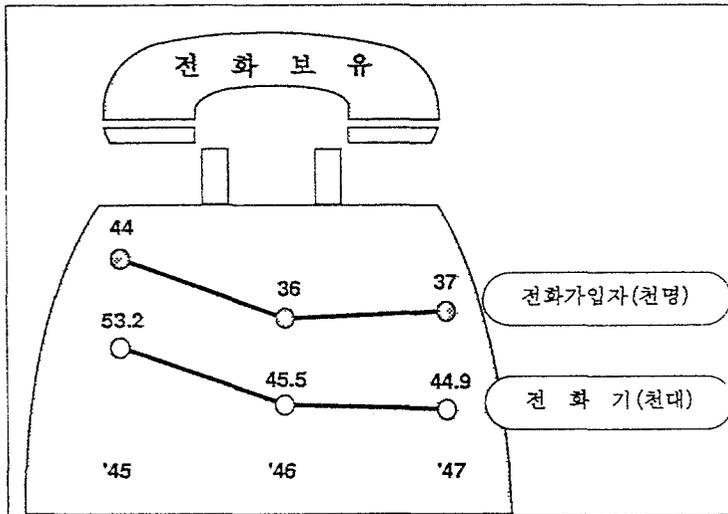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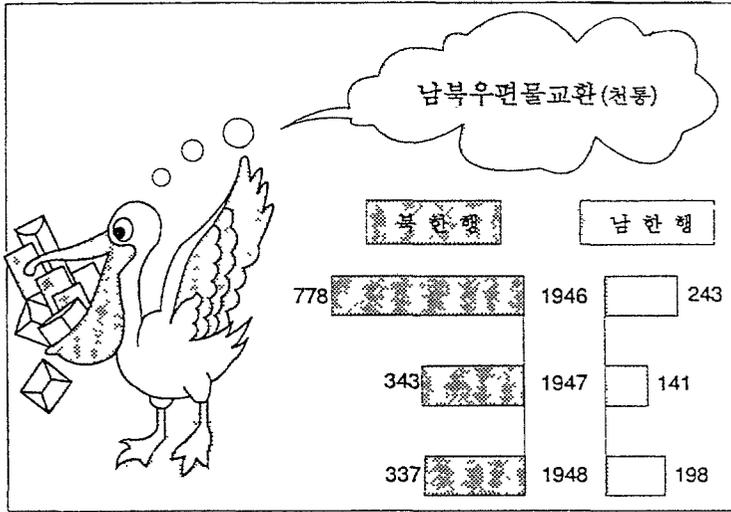
< 電話加入者 人口千名에 2명꼴 >

광복이 되면서 日人들의 의식적인 통신시설파괴, 기술자 부족, 재정난 등으로 通信業 분야도 혼란상태를 면하지 못하였음

○ 재정난으로 인해 66개 특수우편국이 폐쇄되고, 교통수단의 어려움 등으로 국내우편물 배달통수가 현저히 감소한 것을 비롯, 전보, 전화사정 역시 매우 어려웠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47년 당시 國內우편물발달통수율은 '92년 현재에 비해 2 1%에 불과하였고, 國內전화가입자수는 0 2%에 불과

	44(남북한)	45	46	47	1992
우편물 총배달통수(천통)	468,069	89,518	76,142	59,882	2,807,260
인 구 1 인 당 (통)	18.2	5 3	3 9	3.0	64 3
전 보 발 신 통 수(천통)	13,985	4,587	1,914	1,686	12,907
인 구 천 명 당 (통)	540	272	99	85	296
전 화 가 입 자 수(천명)	69	44	36	37	15,593
인 구 천 명 당 (명)	2 7	2.6	1 9	1.9	357 1



### < 南北間 郵便物 交換 2백만통 >

'46 3 15부터 ~~南北韓間 郵便物 交換~~이 실시되면서 '46~'48년 3년간 89회에 걸쳐 총2,041千통(이 중 北韓行 71 4%, 南韓行 28 6%)의 우편물이 교환됨

	교환횟수(회)	총우편물(통)	(북한행)	(남한행)
46	19	1,021,481	778,171	243,310
47	26	484,068	342,655	141,413
48	44	535,469	337,207	198,262
계	89	2,041,018 (100)	1,458,033(71 4)	582,985(28 6)

### < '48년 당시 오징어·김이 輸出主宗 이뤘 >

광복이후 主 輸出商品은 食料粗製品(해조류, 어개류, 농산물 등)이었고, 主 輸入商品은 用紙, 생고무, 가성소다 등 工産完製品이었음

- '48년의 경우 總輸出額 7,196百萬圓 중 마른오징어(38.4%)와 김(14.6%) 2개 품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53.0%에 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48년당시 수출액(달러화기준)은 '92년 현재의 만분의 1.9, 수입액은 만분의 2.2 수준
- 通貨규표

	수출액		수입액	
	千圓	千弗	千圓	千弗
46	47,737	95.5	168,406	336.8
47	1,111,133	2,222.3	2,088,125	4,176.3
48	7,195,747	14,391.5	8,857,457	17,714.9
1992	59,836,952,173	76,631,515	63,853,391,676	81,775,257

주) · '46~'48년 달러화 표시는 당시 추정환율 달러당 500圓을 적용하여 '48년 당시 환산된 것임

· '92년 원화표시는 평균환율(780.84원/1弗)을 적용하여 환산한 것임.

○ 상품류별 수출입('47년)

(千圓, %)

	수 출		수 입	
총 액	1,111,133	(100)	2,088,125	(100)
· 식료 조제품	487,809	(43.9)	21,253	(1.0)
· 식료 정제품	14,367	(1.3)	184,447	(8.8)
· 원 료 품	201,061	(18.1)	444,482	(21.3)
· 원료용반제품	329,987	(29.7)	373,857	(17.9)
· 완 제 품	77,907	(7.0)	1,064,084	(51.0)

○ ~~중요 품목별 수출입~~('48년)

(千圓,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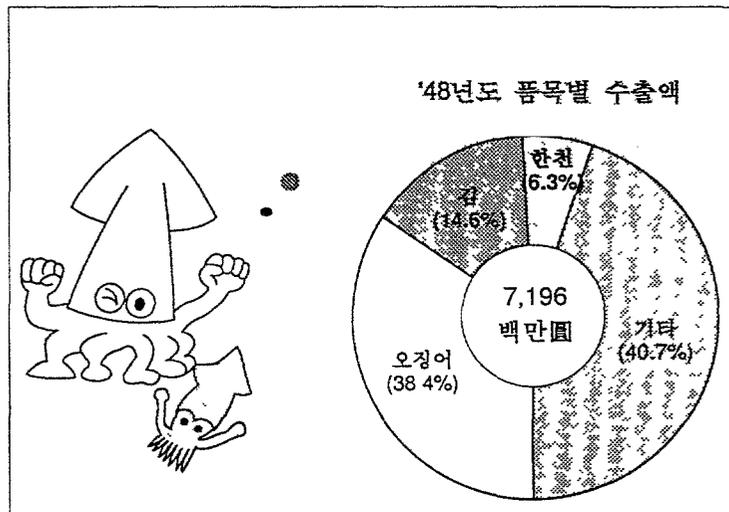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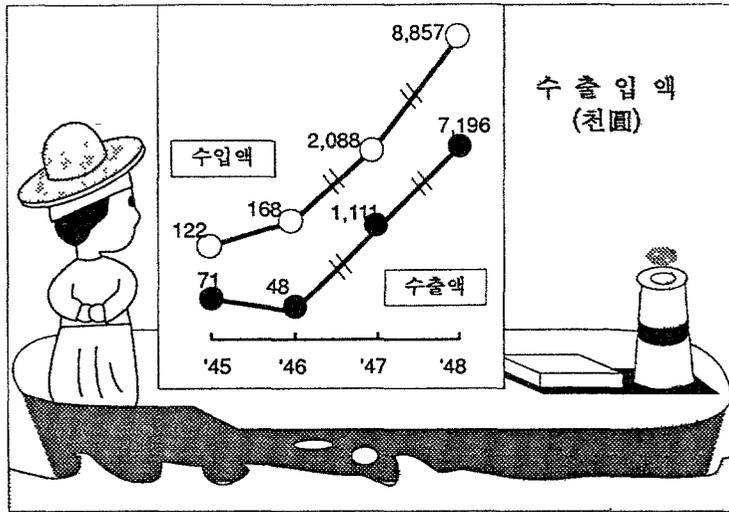
	수 출 액			수 입 액	
총 액	7,195,747	(100)	총 액	8,857,457	(100)
· 마른오징어	2,764,655	(38.4)	· 신문 용지	1,582,677	(17.9)
· 김	1,050,889	(14.6)	· 생 고 무	1,240,557	(14.0)
· 한 천	453,424	(6.3)	· 가성 소다	480,505	(5.4)
· 약 재	272,037	(3.8)	· 인쇄 용지	445,826	(5.0)

仁川, 群山, 木浦, 麗水, 馬山, 釜山, 三陟 등지를 중심으로 對中國 對日本 密輸船이 활개를 쳐 가뜰이나 어려운 經濟를 크게 위협하고 있었음

○ 密輸出을 이유로 선박 76척을 沒收하였고, 그중 13척이 米穀密輸船이라고 당시 軍政長官 발표(46.11.13)

○ 46년 하반기중 對日 密輸出 적발건수는 91건이라고 당시 후쿠오카 駐在 外務處 連絡事務所 발표(47.2.4)

○ 반년만에 나포된 密輸出船은 46척이라고 釜山海洋警備隊 발표(47.9.18)



## IV. 教育 · 文化事情

< 高級學歷者 2萬餘名, 女學生 比率 매우 낮아 >

- '47년말 현재 1,715개의 學校가 남아 있었고, 학생수는 22,887명

○ 서울시에 없는 없고, 전북·전남 각 423, 경기 304, 충남 264, 강원 120, 충북 89, 경남 48, 경북 34, 제주도 10개소가 있었음.

- '47년말 현재 幼稚園은 111개소가 있었고 원아수는 7,043명

○ 유치원수는 '92년 현재의 1 3%, 원아수는 1 6% 수준

	유치원수(개)	교사수(명)	원아수(명)	교사1인당원아수(명)
47	111	316	7,043	22.3
1992	8,498	21,107	450,882	21.4

- '47년말 현재 國民學校數는 3,429개교, 학생수는 2,231,788명 이었으며, 이중 남학생은 65.1%, 여학생은 34.9%

○ 국민학교수는 '92년 현재의 56.0%, 학생수는 48.9% 수준에 불과

	학교수(개)	교사수(명)	학생수(명)	여학생비율(%)	교사1인당학생수(명)
47	3,429	34,235	2,231,788	34.9	65.2
1992	6,122	138,880	4,560,128	48.3	32.8

- '47년말 현재 인문, 실업, 사범학교를 망라한 中等교육기관(中等學校)수는 419개교로 학생수는 216,891명 이었고, 특히 女學生比率은 25.8%에 불과

○ 중등학교수는 '92년 현재의 9.4%, 학생수는 4.8% 수준에 불과

○ 중등교육기관 현황

	중등교육기관수	교사수(명)	학생수(명)	여학생비율(%)	교사1인당학생수(명)
47	419	7,386	216,891	25.8	29.4
1992	4,460	195,739	4,533,107	48.1	23.2

주) · 공민학교 및 기술학교 제외

· '92년 자료는 중학교, 고등학교를 합한 것임.

'47년말 현재 ~~高等教育機關~~으로는 大學院 1개교, 大學校 24개교, 大學館(현 전문대 수준) 3개교, 각종학교 4개교 등 32개 학교가 있었고, 총 학생수는 20,729명에 女學生比率은 16.4%에 불과하였음

○ 고등교육기관수는 '92년 현재의 5.1%, 학생수는 1.0%에 불과한 수준이었음.

○ 고등교육기관 현황

	학교수(개)	교사수(명)	학생수(명)	여학생수(명)
47	32	2,014	20,729	3,402 (16.4%)
1992	626	48,265	1,982,510	687,290 (3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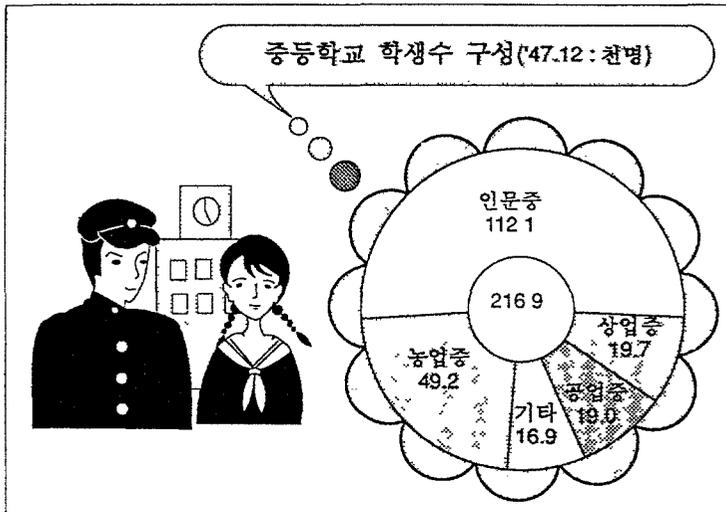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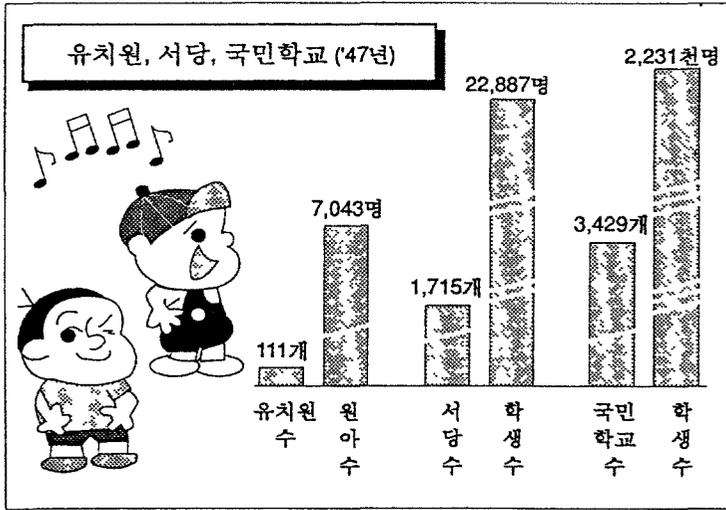
정규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하여 정규교육기관 이외에 ~~公民學校及私設學堂及技術講習所~~ 등이 상당수 있었음

○ 정규교육 이외의 교육기관수는 '92년 현재의 453배, 학생수는 42배에 이르렀음

○ 공민학교, 훈련강습소 등 현황

	학교수(개)	교사수(명)	학생수(명)
47	16,766	22,643	918,361
1992	37	692	22,043

주) · '92년 자료는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기술학교, 기술고등학교 자료임.



## < 라디오 聽取者 불과 15만 >

일제하 폐간·정간 되었던 新聞들이 복간되고 새로운 신문들이 창간되기 시작하였으나, 자금난, 시설·자재부족 등으로 월간 간행물 등은 일제하보다 종류가 줄어들었다.

○ '48년 당시 정기간행물수는 '92년 현재에 비해 3 5%에 불과

○ ~~정기간행물~~ 현황 (종)

	총간행물	일간신문	주간	월간	기타
41	497	40	28	367	62
44	340	25	1	232	82
48	248	54	59	123	12
1992	6,995	100	1,847	2,910	2,098

주) · '41, '44년은 남북한 합계임.

日帝時代 검열탄압 등으로 크게 위축되었던 圖書出版物이 광복이후 크게 증가하였는데, 1940년에 60종에 불과하였던 도서출판물은 '46~'48년 3年間 총 2,685종이 새로 출판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 중 文學(시·수필·소설·평론·희곡 등)도서가 470종 (17 5%)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教科書 358종(13 3%), 參考書 338종(12 6%), 兒童圖書 250종(9 3%)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 '48년 당시 도서출판총수는 '92년 현재에 비해 4 7% 수준에 불과

○ ~~도서출판~~ 현황 (종)

	40	46	47	48	'46~'48 計	1992
총 도서 출판	60	552	957	1,176	2,685 (100)	24,783 (100)
· 문 학	6	77	148	245	470 (17 5)	4,654 (18 8)
· 교 과 서	2	26	123	209	358 (13 3)	...
· 참 고 서	-	-	111	227	338 (12 6)	3,925 (15 8)
· 아 동 도 서	3	77	75	98	250 (9.3)	4,149 (16 7)
· 정 치·법 률	12	48	90	73	211 (7 9)	...
· 경 제·산 업	3	30	36	35	101 (3.8)	...

주) · '40년은 남북한 합계임.

'48 3월 현재 公共圖書館數는 21개소에 藏書數는 546,392권

- '92년 현재에 비해 공공도서관수는 7.6%, 장서수는 5.7%, 인구 천명당 장서수는 12.4%에 불과한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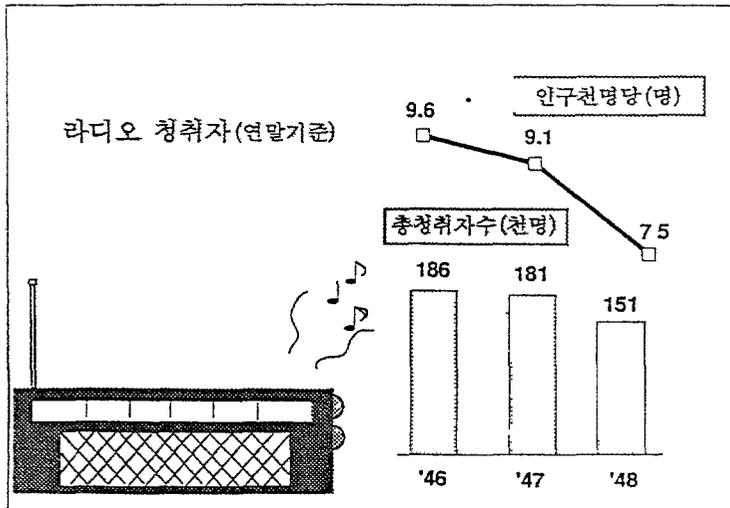
	공공도서관수(개소)	장서수(권)	인구천명당장서수(권)
48.3	21	546,392	27.3
1992	275	9,598,867	219.8

'48년말 현재 放送局數는 11개소였고 당시 가입된 라디오 聽取者數는 총인구수의 0.7% 정도에 불과한 150,901명(한국인 144,412명)이었으며, 1개월간 라디오 聽取料는 100圓 이었음

- ~~라디오청취현황~~ (연말기준)

	45	46	47	48
· 라디오청취자수(명)	325,572	186,225	180,839	150,901
( 한국인 )	(238,722)	(178,026)	(170,877)	(144,412)
· 1개월 청취료(圓)	1	10	40	100

주) · '45년은 남북한 합계임



## V. 政治·社會現象

### < 暴動·爭議·犯罪로 政治·社會混亂 심각 >

- '47 5월 당시 미·소 공동위원회에 제출된 **政治·社會團體數**는 118개, 會員數는 무려 3,845만명(당시 남한 총인구가 1,989만명으로 추정됨으로 이는 당시 인구의 2배 가까운 인원)이라 하였음

#### ○ 정치단체('47 5 현재)

	합 계	右側	中右	中間	中左	(개, 천명) 民戰
정치단체수	118	44	18	9	6	41
회 원 수	38,454	12,484	4,029	2,882	4,609	14,450

- 정치·경제·사회적 혼란속에 집단적이고 다분히 정치성을 띤 범죄, 즉 **暴動事件**이 빈발하였으며, '45 9.5~'47 4 15까지(약 1년 8개월간)의 자료에 따르면 총 311건의 테러사건이 발생하여 사망 28명, 부상 731명의 人名被害와 기타 물질 피해를 발생케 하였다 함

광복이후 政府樹立以前까지 **勞動運動**이 급속적으로 擴散되었는데, 주로 左翼勢力的 前衛隊로서 政治運動과 직결된 정치투쟁의 성격을 띠게됨에 따라 破壞的·革命的이었다 하며, 右翼陣營의 大韓勞總發足時까지 극히 무질서한 상태가 지속되었다함

- 광복이후 '47 3월까지 總勞動爭議 件數는 2,388件에 參加人員 약60萬명으로 이로 인해 死亡者 26명, 檢舉된 者 8千여명, 解雇된 者가 16萬여명에 이른다 하였음.
- '48년 현재 전국 4,385개 사업장, 157천명 근로자중 391개 勞動組合이 설립되고 47천 명이 組合員으로 가입하여 평균 勞組加入率은 29.7%를 나타냄.

	조직대상근로자	노조가입자	노조가입률
48	157	47	29.7
1991	9,088	1,803	19.8

○ '46~'48년간 勞動問題에 대한 實質的 勞動爭議 건수는 341건으로 114천명이 쟁의에 참가하였고, 이에 따라 勞動損失 延日數도 273千日 정도라 하였음 쟁의 원인으로는 賃金引上이 128건(37.5%), 解雇反對 77건(22.6%), 監督者 排斥 22건(6.5%), 休日賃金 支給 13건(3.8%) 등이었음.

	쟁의건수 (건)	참가인원 (명)	노동손실연일수(千日)
46	170	57,434	235
47	134	35,210	36
48	37	21,389	2
(3년간 계)	(341)	(114,033)	(273)
1991	234	175,089	3,2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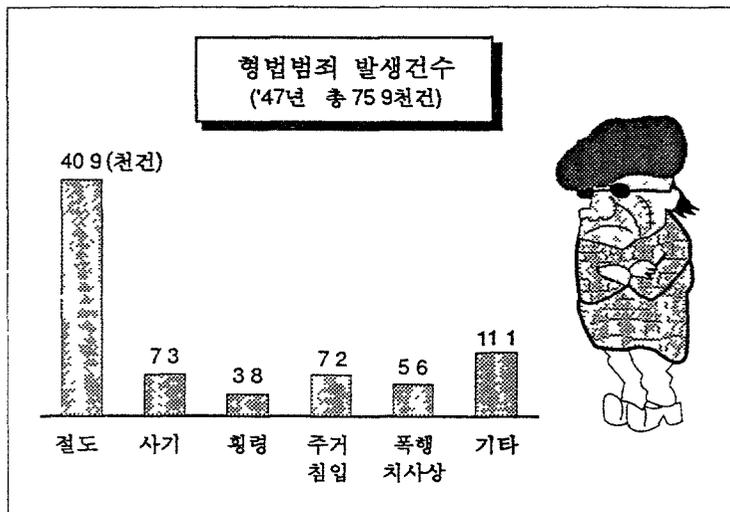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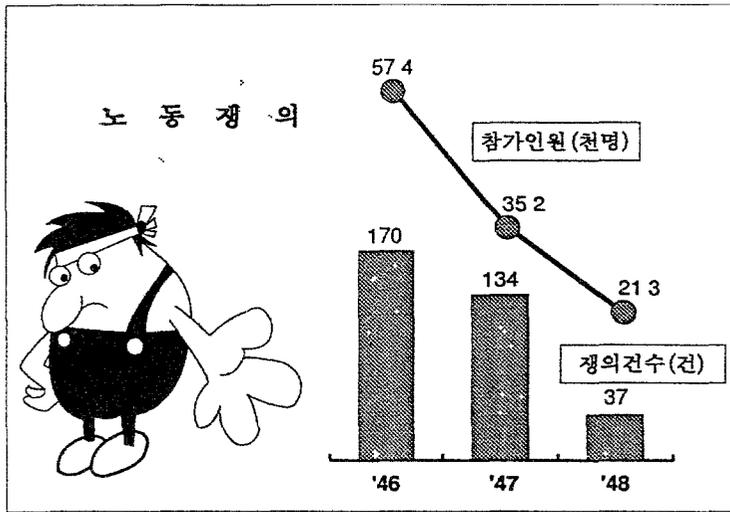
사회혼란과 생활고에 따라 절도, 강도, 사기, 횡령 등 財産犯罪 비율이 매우 높았음 '46년의 경우 總刑法犯罪 발생건수의 97.5%, '47년의 경우는 74.2%가 재산범죄였음

○ 범죄발생건수

	형법범죄 총계	재 산 범 죄	재산범죄중 절도죄
46	115,936 (100)	113,028 (97.5)	68,460 (59.1)
47	75,874 (100)	56,266 (74.2)	40,942 (54.0)
1991	241,667 (100)	158,846 (65.7)	87,124 (54.8)

광복전에 비해 20% 내외에 불과한 실질임금으로 생활의 중압에 시달리는 定額所得階層이 있는 반면에, 1할 5푼(도매)~3할(산매)의 이윤에 만족치 않고 暴利를 탐하다 단속된 업자도 '46.7.15~'47.3.13(약 8개월간)까지 28,430명에 이르렀다는 색다른 기록도 나타나고 있음

政治·社會混亂, 治安不在속에 퇴폐적 행태 만연 등으로, 마약에 빠져든 사람도 매우 많았던 것으로 기록되고 있는데, '47.12월 현재 남한내의 麻藥患者가 10餘萬名으로 推算된다고 당시 保健厚生部에서 발표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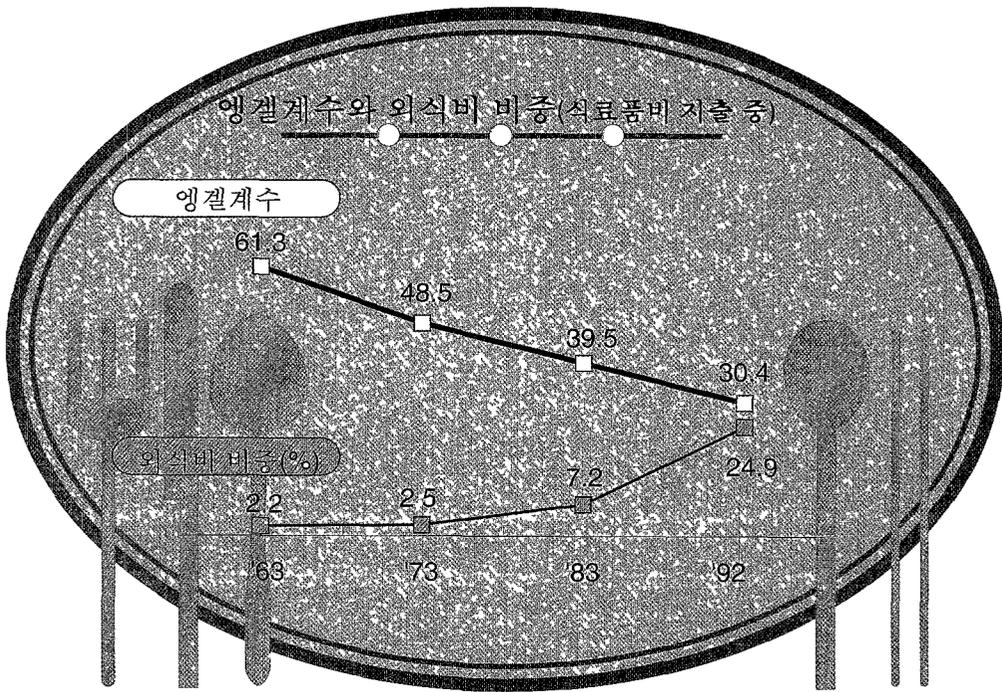
## 40년대와 최근의 주요지표 비교

	40 년 대		최 근		40년대의 수준
	기준시점	통 계 치	기준시점	통 계 치	
○ 남 한 총 인 구 (명)	45년말	16,873,277	93 7 1	44,056,087	· 최근의 38.3% 수준
○ 서 울 인 구 (명)	44 5. 1	988,537	92 12 31	10,969,862	· 최근의 9.0% 수준
○ 15세이상 인구에 대한 학력별 인구비율 (%)	47년말		90 11 1		
· 전문대 이상 학력자	"	0.6	"	17.2	· 최근의 3.5% 수준
· 중 등 교 육 학력자	"	4.4	"	58.6	· 최근의 8% 수준
· 국 민 학 교 학력자	"	17.9	"	15.5	· 최근의 1.15배 수준
· 불 취 학 자	"	77.1	"	8.7	· 최근의 8.86배 수준
○ 인구자연 증가율 (%)	40~44평균	16.8	91 년	10.9	· 최근의 1.5배 수준
· 출 생 률 (%)	"	35.7	"	16.9	· 최근의 2.1배 수준
· 사 망 률 (%)	"	18.9	"	5.9	· 최근의 3.2배 수준
· 영 아 사 망 률 (%)	"	102.4	"	12.8	· 최근의 8배 수준
· 혼 인 율 (%)	"	12.0	"	9.7	· 최근의 1.2배 수준
· 이 혼 율 (%)	"	0.4	"	1.2	· 최근의 1/3 수준
○ 출생아 출산장소 (%)	47 년		88 년		
· 병 원 · 조 산 원	"	0.4	"	75.7	· 최근의 1/20 수준
· 집 · 기 타	"	99.6	"	24.3	· 최근의 4.1배 수준
○ 주요사망원인비율 (%)	"		91 년		
· 폐 렴	"	12.6	"	0.9	· 최근의 14배 수준
· 위 십 이 지 장 병	"	9.9	"	0.6	· 최근의 16.5배 수준
· 기 관 지 염 · 천 식	"	7.7	"	1.6	· 최근의 4.8배 수준
· 유 행 성 감 기	"	6.2	"	0.0	· 최근의 62배 수준
· 각 종 결 핵	"	5.2	"	2.0	· 최근의 2.6배 수준
· 홍 역	"	3.8	"	0.0	· 최근의 38배 수준
· 백 일 해	"	1.6	"	0.0	· 최근의 16배 수준
· 각 종 암	"	1.3	"	19.2	· 최근의 6.8% 수준
· 교 통 사 고	"	0.2	"	7.0	· 최근의 2.9% 수준

	40 년 대		최 근		40년대의 수준
	기준시점	통 계 치	기준시점	통 계 치	
○ 의 료 시 설 및 인 력	49년말		91년말		
· 병 · 의 원 (개소)	"	2,775	"	12,303	· 최근의 22.6% 수준
· 의 사 수 (명)	"	4,322	"	45,496	· 최근의 9.5% 수준
· 의사 1인당인구 (명)	"	4,671	"	951	· 최근의 4.9배 수준
· 간 호 인 력 수 (명)	"	1,343	"	239,095	· 최근의 0.6% 수준
○ 경 제 활 동	47년말		92평균		
· 참 가 율 (%)	"	65.6	"	60.9	· 최근보다 다소 상회
· 실 업 자 (천명)	"	798	"	464	· 최근의 1.7배 수준
· 실 업 률 (%)	"	11.3	"	2.4	· 최근의 4.7배 수준
○ 4년간소비자물가상승률(%)	44~48	27,738	88~92	33.3	· 최근의 833배 수준
○ 4년간임금지수상승률(%)	"	8,957	87~91	95.2	· 최근의 94배 수준
○ 3년간 금1돈종도매가격 상승률 (%)	45.8-48.12	1,529	90~92	-1.1	· 최근의 ...배 수준
○ 쌀 생 산 량 (千石)	47 년	13,850	92 년	37,023	· 최근의 37.4% 수준
· 단보당 생산량 (石)	"	1.2	"	3.2	· 최근의 37.5% 수준
○ 통 화 팽 창 률 (%)	45.8-47.12	571	89~91	34.0	· 최근의 16.8배 수준
○ 농 가 수 (千戶)	45.12	2,065	91 년	1,702	· 최근의 1.2배 수준
○ 동 력 어 선 수 (척)	46 년	2,003	"	84,024	· 최근의 2.4% 수준
○ 공장수(5인이상 개소)	46.11	5,249	91.12	72,213	· 최근의 7.3% 수준
· 공장 종업원 수 (명)	"	122,159	"	2,918,015	· 최근의 4.2% 수준
○ 발 전 량 (백만KWH)	48 년	479	92 년	130,963	· 최근의 0.4% 수준
○ 등록 자동차수 (천대)	48.12	14.7	93.4	5,564.5	· 최근의 0.3% 수준
· 승 용 차 (천대)	"	3.6	"	3,713.4	· 최근의 0.1% 수준
○ 국내우편물통수(천통)	47 년	59,882	92 년	2,807,260	· 최근의 2.1% 수준
· 인 구 1 인 당 (통)	"	3.0	"	64.3	· 최근의 4.7% 수준

	40 년 대		최 근		40년대의 수준
	기준시점	통 계 치	기준시점	통 계 치	
○ 전화 가입자수 (천명)	"	3 7	92 년	15,593	· 최근의 0.2% 수준
· 인 구 천 명 당 (명)	"	1 9	"	357.1	· 최근의 0.5% 수준
○ 총 교 역 액 (천弗)	48 년	32,107	92 년	158,406,772	· 최근의 0.02% 수준
· 수 출 액 (천弗)	"	14,392	"	76,631,515	· 최근의 0.02% 수준
· 수 입 액 (천弗)	"	17,715	"	81,775,257	· 최근의 0.02% 수준
○ 유 치 원 수(개교)	47 년	111	92 년	8,498	· 최근의 1.3% 수준
· 원 아 수 (명)	"	7,043	"	450,882	· 최근의 1.6% 수준
○ 국 민 학 교 수(개교)	"	3,429	92 년	6,122	· 최근의 56.0% 수준
· 학 생 수 (명)	"	2,231,788	"	4,560,128	· 최근의 48.9% 수준
· 여 학 생 비 율 (%)	"	34.9	"	48.3	· 최근의 72.3% 수준
○ 중 등 학 교 수(개교)	"	419	92 년	4,460	· 최근의 9.4% 수준
· 학 생 수 (명)	"	216,891	"	4,533,107	· 최근의 4.8% 수준
· 여 학 생 비 율 (%)	"	25.8	"	48.1	· 최근의 53.6% 수준
○ 고등교육기관수(개교)	"	32	92 년	626	· 최근의 5.1% 수준
· 학 생 수 (명)	"	20,729	"	1,982,510	· 최근의 1.0% 수준
· 여 학 생 비 율 (%)	"	16.4	"	34.7	· 최근의 47.3% 수준
○ 비정규교육기관수(개교)	"	16,766	92 년	37	· 최근의 453배 수준
· 학 생 수 (명)	"	918,361	"	22,043	· 최근의 41.7배 수준
○ 정기간행물발간총수(종)	48 년	248	92 년	6,995	· 최근의 3.5% 수준
○ 도서 출판 총 수 (종)	"	1,176	92 년	24,783	· 최근의 4.7% 수준
· 문 학 (종)	"	245	"	4,654	· 최근의 5.3% 수준
· 아 동 도 서 (종)	"	98	"	4,149	· 최근의 2.4% 수준
○ 공 공 도 서 관 수	48 3	21	92 12	275	· 최근의 7.6% 수준
· 장 서 수 (권)	"	546,392	"	9,598,867	· 최근의 5.7% 수준
· 인 구 천 명 당 장 서 수 (권)	"	27.3	"	219.8	· 최근의 12.4% 수준
○ 형법범죄발생건수(건)	46 년	115,936	91 년	241,667	· 최근의 48.0% 수준
· 재 산 범 죄 비 율 (%)	"	97.5	"	65.7	· 최근의 1.5배 수준

# 도시근로자 가구의 가계수지 변화



「'92년 우리나라의 엔겔계수는 일본의 '70년대 중반 수준이고, 전체 식료품비중에서 외식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63년 2.2%에서 '92년 24.9%로 급격히 증가하였다」

- 자료중에서 -

지난 30년간  
도시근로자가구의 가계수지변화  
(도시가계조사 30주년)

1993. 9

통계조사국 사회통계과

## <조사개요 및 용어해설>

### - 조사개요

- 1963- 통계청에서 도시가계조사 시작
- 1963-68 면접조사로 소득과 지출 파악(가계부 미사용)
- 1969-74 식료품비만 가계부기장방식으로 조사
- 1975- 전비목에 대해 가계부기장방식을 채택
- 1982- 소비지출을 식료품, 주거, 광열수도, 가구, 피복, 보건, 교육, 교통, 기타 등 9대 비목으로 확대개편하여 조사함  
(1963-'81년 기간중에는 소비지출을 식료품비, 주거비, 광열비, 피복비 및 잡비등 5대비목으로 조사)

### <근로자가구의 인적구성요소>

구 분	1963년	1973년	1983년	1992년	증 감 ('63년비)
표 본 가 구 수(가구)					
전 가 구	1,702	1,750	3,751	4,575	2.7배
근로자 가 구	955	978	2,312	2,913	3.1배
근로자가구 비율	56.1	55.9	61.6	63.7	-
가구당 인 원 수(명)	5.56	5.25	4.34	3.90	△1.66명
봉 급 자 가 구	5.95	5.26	4.37	3.94	△2.01
노 무 자 가 구	5.27	5.24	4.32	3.87	△1.40
가구당 취 업 인 수(명)	1.19	1.36	1.28	1.43	0.24명
봉 급 자 가 구	1.19	1.37	1.19	1.34	0.15
노 무 자 가 구	1.19	1.35	1.33	1.50	0.31

### - 용어해설

- 소 득 = 근로소득(가구주소득 + 가구원소득) + 사업 및 부업소득과 재산 및 이전소득등 기타소득
- 지 출 = 소비지출 + 조세등 비소비지출
- 가 처 분 소 득 = 소득 - 비소비지출
- 흑 자 = 가처분소득 - 소비지출
- 흑 자 율 = (흑자 - 가처분소득) × 100
- 평 균 소 비 성 향 = (소비지출 - 가처분소득) × 100 = 1 - 흑자율
- 가 구 구 분 은 봉 급 자(공무원과 공무원외 사무종사자)와 노 무 자(기능공, 상용노무자, 임시 및 일용 노무자)로 나뉨

### - 자료이용시 유의사항

- 소비지출 비목은 1982년부터 종래의 5대 비목에서 9대비목으로 확대 개편되었기 때문에 자료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비목별로 재구성하였으나 세부사항에서는 분류가 안되는 것도 있어 자료의 이용시 이점을 유의
- 농어촌과 근로자와가구, 1인가구가 조사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전체가구에 대한 가계수지 자료로서는 제약이 있음

- '63년부터 통계청에서는 도시가구의 생활수준실태와 변동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도시근로자가계조사를 실시하여 왔음
- 본자료는 30년간('63~'92년) 도시근로자가구의 가계수지 변화를 분석한 결과임

## 〈 지난 30년간 가계수지의 변화 요약 〉

### 1. 가계소득

- '63~'92년 기간중 도시근로자가구의 실질 가계소득은 9.4배 상승하였으며, 특히 물가가 안정되었던 '80년대에 실질소득 증가율이 높았음
- 전기간중 실질가계소득의 년평균 증가율은 8.0%임(연평균 경제성장률 8.7%)
- 노무자가구(11.4배)의 소득증가 속도가 봉급자가구(6.7배)를 앞지름
- 50대이상 가구의 실질 소득이 11.1배 증가하여 다른 연령계층보다 빠른 속도로 증가
- 소득원천별로 보면 근로소득의 비중이 감소하고 상대적으로 그동안 축적된 재산소득과 사업소득 등 기타소득의 비중이 증가

	<u>1963</u>	<u>1992</u>
근로소득비중(%)	92.5	85.3
기타소득비중(%)	7.5	14.7

- 특히 봉급자가구보다는 노무자의 가구가, 타연령계층 가구보다는 20대와 50대 가구가 기타소득의 비중이 더욱 커짐

	<u>1963</u>	<u>1992</u>
기타소득비중(%)		
봉급자가구	8.5	14.7
노무자가구	6.0	14.7
20대 가구	7.0	18.5
50대이상가구	7.2	17.3

- 가구취업인원수 및 여성경제활동 참가율 증가로 근로소득중 가구의 소득 비중은 감소하고 가구의 소득 비중은 증가

	<u>1963</u>	<u>1992</u>
가구주소득비중(%)	90.6	85.3
가구원소득비중(%)	9.4	14.7

- 가구원 소득에 대한 의존비율은 타연령계층보다 50대이상 가구에서 가장 높았음

	<u>1963</u>	<u>1992</u>
가구원소득비중(%)		
50대이상가구	16.8	27.4

## 2. 가계지출

- 지난 30년간 가계 총지출은 실질금액으로 6.6배 증가하였으며 이중 비소비지출은 16.8배, 소비지출은 6.1배 증가

- 특히 물가가 안정되었던 80년대에 실질소비지출 규모가 2.2배 증가
- 조세등 비소비성지출이 크게 증가하여 '92년 가계지출의 10.4%를 차지

- 소비지출규모는 노무자가구와 50대이상가구에서 크게 증가

- 실질 소비지출은 생산직 건설인부 등 노임상승으로 노무자가구(7.0배)가 봉급자가구(5.3배) 보다 많이 증가하였고
- 부양가족이 많은 50대이상 가구에서 실질 소비지출이 7.4배로 많이 증가

- 소비지출을 기본적 경비와 문화 생활 관련 비용으로 구분하여 보면

- 기본생활비 성격인 식료품비와 광열수도비는 증가폭이 작고 비중은 상대적으로 감소

'63~'92년 기간동안 소비지출중 식료품비는 명목금액으로는 7.4배, 실질금액으로는 2.5배로 소폭 증가했으나 구성비(영겉계수)는 61.3%에서 30.4%로 감소

광열수도비는 명목금액으로는 8.3배, 실질금액으로는 4배 증가했으나, 소비지출중 차지하는 구성비는 '63년 7.4%에서 '92년 4.1%로 감소

- 한편, 문화생활 관련 비용은 크게 증가
  - 교육교양오락비는 명목금액으로는 363배, 실질금액으로는 15배로 크게 증가했으며, 소비지출중 구성비 역시 '63년 5.4%에서 '92년 13.3%로 크게 증가하였는데 이는 각종 교양오락비 지출의 증가와 과외비 지출증가에 기인
    - 높은 자녀교육열에 의한 각종 학원등 과외비 지출 증가('92년 비중 3.6%)로 소비지출에 대한 교육비의 지출 비중이 크게 증가('63년 4.8%→'92년 8.3%)
  - 교통통신비는 명목금액으로는 518배, 실질금액으로는 22배로 크게 증가했고, 소비지출중 구성비 역시 '63년 2.6%에서 '92년 9.2%로 크게 증가
    - 교통통신비중 구성비를 보면 공공교통비는 74.3%에서 33.8%로 절반이하로 줄어든 반면 개인교통비는 3.0%에서 48.5%로 급증
  - 교제비나 용돈 등 기타소비지출은 명목금액으로 317배, 실질금액으로는 13배로 크게 증가했으며, 소비지출중 차지하는 비중은 '63년 9.4%에서 '92년 20.0%로 크게 증가
- 또한 동기간중 식료품비내에서도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주식은 명목금액으로는 17배 증가했으나, 실질금액으로는 0.7배 감소했으며 식료품비중 구성비 역시 감소(62.9%→14.8%)하였음
  - 부식은 명목금액으로 94배, 실질금액으로 4배 증가했고, 기호식품 역시 명목으로 562배, 실질로 23배 증가
  - 외식비는 명목금액으로는 860배, 실질금액으로는 35배로 크게 증가하였고, 식료품비중 차지하는 비중은 '63년 2.2%에서 '92년 24.9%로 급격히 증가

### 3. 가 계 수 지

- 지난 30년간 도시근로자가구의 가계수지는 크게 개선
  - 동기간중 실질소득은 9.4배, 실질지출은 6.6배, 실질가처분소득은 9.0배 증가
  - 살림살이의 넉넉함을 나타내는 흑자율은 '63년  $\Delta 5.9\%$ 에서 '92년 27.9%로 증가

- 특성별로 가계수지를 보면,

- 증전에는 노무자가구에 있어서 흑자율이 봉급자가구에 비해 낮았으나, '88년 이후 급격한 노임상승으로 '92년에는 노무자가구의 흑자율(29.6%)이 봉급자가구(26.1%) 보다 높아짐
- 연령별로는 자녀가 여러 교육부담이 적고 주택자금마련을 위해 저축을 많이 하는 30대가구의 흑자율이 높고 자녀교육과 혼수장만 등 가족부양부담이 큰 50대가구는 흑자율이 낮음

30대가구의 흑자율은 '63년 5.7% 적자에서 '92년 31.4% 흑자

50대가구의 흑자율은 '63년 9.4% 적자에서 '92년 22.7% 흑자

#### 4. 소득분포의 변화('79~'92)

- '79~'92년 기간중 소득 5분위 계층별로 보아 소득분배구조가 개선되고 있음

- 소득 구성비는 최상위계층이 1.7%p 감소, 최하위계층은 0.6%p 증가

< 소득 5분위별 소득점유율(%) >

	<u>I</u>	<u>II</u>	<u>III</u>	<u>IV</u>	<u>V</u>	<u>V / I</u>
1979	7.9	12.9	17.1	22.7	39.3	4.97
1982	7.8	13.0	17.0	22.5	39.8	5.10
1985	8.1	13.3	17.0	22.6	39.7	4.83
1988	8.2	13.1	17.0	22.5	39.3	4.79
1992	8.5	13.6	17.5	22.8	37.6	4.42

- 지니계수는 '80년대 전반에 상승추세를 보이다가 '85년을 정점으로하여 하락함으로써 소득불평등이 완화되고 있음

	<u>1979</u>	<u>1982</u>	<u>1985</u>	<u>1988</u>	<u>1992</u>
지니계수	0.3065	0.3098	0.3115	0.3006	0.2800

# 지난 30년간의 가계수지 변화

## I. 소득의 변화

### 1. 소득규모의 변화

지난 30년간 가계소득 226배(실질 9.4배) 상승

- 도시근로자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63년 6.0천원에서 '92년 1,356.1천원으로 명목금액은 226배(실질금액으로는 9.4배) 증가

○ 물가가 안정되었던 '80년대에 실질가계소득이 2.4배 증가하여 '60년대와 '70년대에 비해 비교적 높은 성장을 보임

- 전기간중 실질 가계소득의 년평균 증가율은 8.0%(년평균 경제성장을 8.7%)

< 소득규모의 변화 및 주요경제지표 >

	1963	1973	1983	1992	'63-'92
가계소득 (명목)	5.99	40.4	359.0	1,356.1	
(천원) (실질) <sup>1</sup>	124.8	255.7	489.8	1,168.0	
증가배율 (명목)	6.7	8.9	3.8		226
(실질)	2.0	1.9	2.4		9.4
물가배율 (실질)	3.3	4.6	1.6		24.2
연평균 가계소득 증가율(%) (실질)	7.4	6.7	10.1		8.0
1인당 GNP(US\$)	100	396	2,002	6,749	
연평균 경제성장률(%)	9.0	7.0	9.3		8.7
연평균 물가상승률(%)	12.7	16.6	4.7		11.6
연평균 임금상승률(%)	-	27.8	13.7		20.1 <sup>2</sup>

※ 1) 실질금액은 '90년도 기준으로 환산한 것임

2) '73~'92 기간중 연평균임

### 가 가구구분별 소득 규모

노무자가구의 소득증가 속도가 봉급자가구 앞질러

- '63~'92년 기간중 봉급자가구의 소득은 8.8천원에서 1,462.9천원으로 명목 금액으로는 167배, 실질금액으로는 6.7배 증가한 반면 노무자가구는 4.2천원에서 1,149.0천원으로 명목금액으로는 277배, 실질금액으로는 11.4배 증가

○ 노무자가구의 소득규모는 봉급자가구보다 작으나 증가속도는 보다 빠름

- 봉급자가구 소득에 대한 노무자가구 소득의 비율을 보면, '63년 노무자가구의 소득은 47.3%에 불과하였으나, '73년 66.2%로 개선되었다가 '83년 57.8%로 하락

○ 이는 '70년대 중반 우리나라 경제의 급격한 신장으로 사무직을 중심으로 한 스카우트 열풍으로 봉급자의 임금이 급격히 상승했기 때문.

- 그러나, 노임상승과 가구원의 취업기회 확대로 노무자가구 소득의 상대적 비중은 점진적으로 증가하여 '92년에는 69.9%로 상승

< 가구구분별 소득규모의 변화 >

	(명목금액 · 천원)				(배율 · 배)	
	1963	1973	1983	1992	명목	실질
봉급자(A)	8.78	47.1	493.9	1,642.9	167	6.7
노무자(B)	4.15	31.2	285.5	1,149.0	277	11.4
(B/A) × 100(%)	47.3	66.2	57.8	69.9		

나. 연령계층별 소득규모

50대 이상가구의 소득 급격히 증가

- '63~'92년 기간중 50대이상가구의 소득은 실질로 11.1배 증가하여 가장 높았고 다음이 40대(9.9배), 20대(9.2배)이며 30대가구의 소득증가율(8.5배)이 가장 낮았음

○ 이처럼 50대이상가구의 소득이 최근 급격히 증가한 것은 근속년수가 많을 뿐만 아니라 나이가 들어도 계속 일을 하려는 경향이 있고 고용기회의 확대로 가구원의 취업이 많아 이들 소득이 가구소득에 많이 기여하기 때문

< 연령계층별 소득 추이 >

	(명목금액 · 천원)				(배율 · 배)	
	1963	1973	1983	1992	명목	실질
29세이하	5.00	31.9	297.9	1,107.4	221.5	9.2
30~39세	6.30	40.3	372.9	1,299.4	206.3	8.5
40~49세	6.33	47.2	397.0	1,519.4	240.0	9.9
50세이상	5.72	41.0	389.8	1,534.7	268.3	11.1

(배율 · 배)

	1963	1973	1983	1992
29세이하	1.00	6.4	59.6	221.5
30~39세	1.00	6.4	59.2	206.3
40~49세	1.00	7.5	62.7	240.0
50세이상	1.00	7.2	68.1	268.3

2. 소득 원천의 변화

근로소득의 비중은 줄고 기타소득의 비중 늘어나

- 지난 30년간 근로소득의 비중은 감소하고 기타소득의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  
이나 경기변동에 따라 연도별로 기록이 있음

- 근로소득의 비중은 '63년 92.5%에서 '92년 85.3%로 감소
- 기타소득의 비중은 '92년 14.7%에 이르러 '63년의 7.5%에 비해 2배정도 높아짐

이는 가구의 소득이 봉급이나 노임등 근로소득에 주로 의존하던 것이 경제 활동이 다양해져서 부업이나 사업소득이 증가하고, 그동안 축적된 재산소득으로 기타소득의 비중이 증가하였기 때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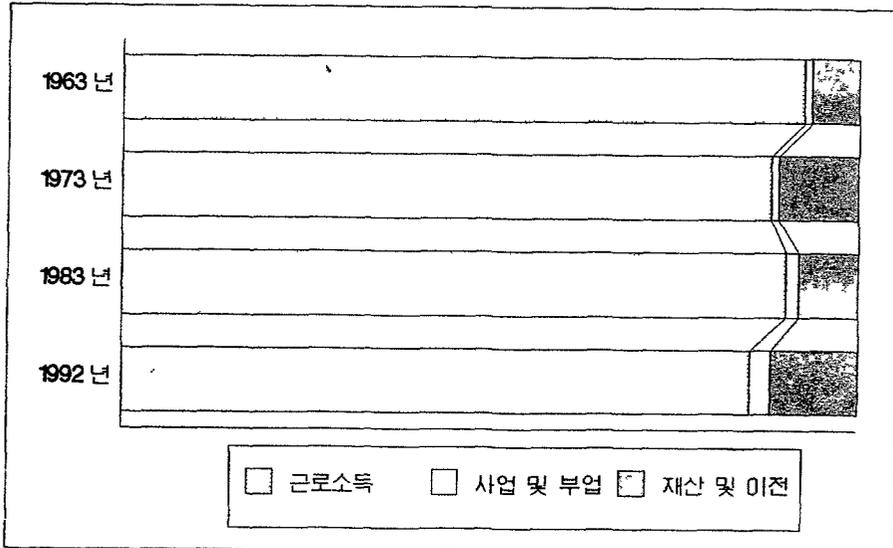
< 소득원천별 구성비 추이 >

(단위 %)

	1963	1973	1983	1992
소 득	100.0	100.0	100.0	100.0
근로소득	92.5	88.1	90.2	85.3
기타소득	7.5	11.9	9.7	14.7
사업 및 부업	2.2	1.0	1.7	2.9
재산 및 이전	5.3	10.9	8.0	11.8

< 소득원천의 변화 >

(단위 : %)



가구원의 소득비중 늘어나

- 가구주의 소득비중은 감소하고 가구원의 소득비중은 증가 추세

○ 가구주의 소득은 '63년 90.6%에서 '92년에는 85.3%로 비중이 감소

○ 반면, 가구원의 소득은 '63년 9.4%에서 '92는 14.7%로 증가

이는 가구당 취업인원수의 증가('63년 1.19명에서 '92년 1.43명)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의 증가('63년 37.0%에서 '92년 47.3%)에 기인함.

< 근로소득원별 구성비 추이 >

	<u>1963</u>	<u>1973</u>	<u>1983</u>	<u>1992</u>
	(단위 : %)			
근 로 소 득	100.0	100.0	100.0	100.0
가 구 주 소 득	90.6	89.3	90.7	85.3
가 구 원 소 득	9.4	10.7	9.3	14.7

가. 가구구분별 소득원천

노무자가구에서 기타소득 비중 커져

- 소득중 기타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봉급자가구가 노무자가구보다 높은 추세였으나 최근에는 노무자가구도 봉급자가구와 같은 수준인 14.7%임

○ 노무자가구에 있어서도 소득원천이 근로소득 중심에서 사업 부업을 하거나 재산소득이 늘어나는 등 기타소득의 비중이 커지는 쪽으로 변화

< 기타소득/소득비율 >

	<u>1963</u>	<u>1973</u>	<u>1983</u>	<u>1992</u>
	(단위 : %)			
봉 급 자	8.5	11.3	8.7	14.7
노 무 자	6.0	9.0	10.9	14.7

나. 연령계층별 소득원천

**20대와 50대에서 기타소득의 비중 높아**

- 20대가구의 소득원천을 보면 '63년 기타소득 비중이 7.0%에 불과하나 계속 증가하여 '92년에는 18.5%임

○ 이는 부모, 친지로부터 증여 및 보조를 많이 받는데 기인

- 50대이상의 가구에 있어서 기타소득의 비중이 '63년 7.2%에서 '92년 17.3%로 크게 늘어나는 것은

○ 기 축적된 재산으로 임대료 수입과 이자 및 배당소득이 많을 뿐 아니라

○ 퇴직연령에 도달한 50대 가구주는 타 가구(특히 자녀)로부터 가계 보조를 많이 받고 각종 연금등 사회보장 급부의 혜택이 큰데 기인함

<연령별 기타소득(사업 부업포함) / 소득 비율>

	( 단위 % )			
	1963	1973	1983	1992
29세 미만	7.0	11.0	11.4	18.5
30 ~ 39세	7.8	10.7	8.0	13.0
40 ~ 49세	7.0	14.0	9.8	14.1
50세 이상	7.2	12.2	12.8	17.3

**50대이상가구에서 가구원 소득의 비중 크게 높아져**

- 근로소득중 가구원소득 구성비는 50대가구의 경우 '92년 27.4%로서 '63년 16.8%에 비해 크게 높아짐

○ 이는 연령이 많아짐에 따라 자녀들의 취업기회 증가와 퇴직에 따른 가구주의 수입 감소에 기인

<근로소득중 가구원소득의 구성비 >

	( 단위 % )			
	1963	1973	1983	1992
29세미만	12.7	11.3	10.6	17.2
30 - 39세	6.7	9.7	5.0	10.6
40 - 49세	8.5	10.8	10.7	13.2
50세이상	16.8	13.6	18.4	27.4

## II. 지출의 변화

### 1. 지출 규모 및 구조의 변화

30년전에 비해 가계 총지출은 6.6배 증가

- 가계지출은 '63년 6.3천원에서 '92년 1007.7천원으로, 명목금액으로는 159배, 실질 금액으로는 6.6배 증가

30년전에 비해 소비지출은 6.1배 증가, 비소비성 지출은 16.8배 증가

- 가계지출중 소비생활 수준을 나타내는 소비지출은 '63년 6.1천원에서 '92년 902.5천원으로 명목금액으로는 149배, 실질 금액으로는 6.1배 증가
- 이를 10년 간격으로 보면 물가가 안정되었던 '80년대에는 실질 소비지출 규모가 2.2배 증가하여 '60년대(1.65배)와 '70년대(1.70배)에 비해 크게 증가
- 비소비지출은 지난 30년간 명목금액으로는 405배, 실질금액으로는 16.8배 증가하여 소비지출보다 크게 늘어남
- 이에따라 소비지출의 비중은 '63년 95.9%에서 '92년 89.6%로 감소한 반면 조세, 사회보장분담금, 이자 등 비소비성지출은 '92년 가계지출의 10.4% 차지

#### < 지출규모 및 구조의 변화 >

	1963	1973	1983	1992	(배율:배)
가 계 지출(명목금액 천원)	6.33	35.6	280.5	1,007.7	159
(실질배율: 배)		1.77	1.70	2.27	6.6
소 비 지출(명목금액 천원)	6.07	32.9	259.5	902.5	149
(실질배율: 배)		1.65	1.70	2.20	6.1
비소비지출(명목금액 천원)	0.26	2.7	21.0	105.2	404.6
(실질배율: 배)		3.17	1.67	3.17	16.8
구 성 비(%)	100.0	100.0	100.0	100.0	
소 비 지 출	95.9	92.4	92.5	89.6	
비소비 지출	4.1	7.6	7.5	10.4	

가. 가구구분별 소비지출

소비생활수준은 노무자가구에서 더 크게 향상

- 가구구분별로 보면 봉급자가구의 소비성 지출은 지난 30년간 128배, 실질 5.3배 증가 하였으나, 노무자가구는 명목금액으로는 170배, 실질금액으로는 7.0배 증가하여 노무자가구의 소비수준이 크게 향상

< 가구구분별 소비지출추이 >

	(명목금액 천원)				(배율 배)	
	1963	1973	1983	1992	명목	실질
봉급자가구	8 58	38.9	339.3	1,096.0	128	5.3
노무자가구	4 5	26.3	215.9	762.6	170	7.0

나. 연령계층별 소비지출

50대 이상 가구의 소비생활 수준 많이 향상

- 근로자가구 소비지출의 평균 증가배율(6.1배)과 비교하여 보면
- 40대(6.8배)와 50대(7.4배)가구는 평균 이상으로 증가하였고, 30대는 평균 이하(5.4배)로 증가

50대 및 40대가구에서 소비지출이 많이 늘어난 것은 자녀 고등교육, 혼수장만 등 부양가족 비용이 많을 뿐 아니라 생활의 안정으로 건강, 여가 문화생활비에 대한 지출이 많은데 기인

< 연령계층별 소비지출 추이 >

	(단위 · 천원, 배)			
	1963	1973	1983	1992
29세미만 (명목)	5 03	26.0	214 0	726.3
(실질)	(1.0)	(1.6)	(2.8)	(6.0)
30- 39세 (명목)	6 28	32.2	252 3	823.5
(실질)	(1.0)	(1.6)	(2.6)	(5.4)
40- 49세 (명목)	6.40	39.4	304.4	1,058.7
(실질)	(1.0)	(1.9)	(3.1)	(6.8)
50세이상 (명목)	6.03	34.3	305.5	1,082.3
(실질)	(1.0)	(1.7)	(3.3)	(7.4)

## 2 소비지출의 9대비목별 변화

※ 소비지출비의 분류방법은 '82년부터 종래의 5대비목에서 9대비목으로 확대 개편하였기 때문에 자료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5대비목을 9대비목으로 재구성하였음(붙임 7 참고)

기본적경비에 대한 지출비중 감소, 문화생활 관련비용 큰폭 증가

- 소비지출을 기본적 경비와 문화 생활 관련 비용으로 구분하여 보면

○ 기본생활비 성격인 식료품비와 광열수도비는 증가폭에서 낮으며 비중은 상대적으로 감소

'63~'92년 기간동안 소비지출중 식료품비는 명목금액으로는 74배, 실질금액으로는 2.5배로 소폭 증가했으나 구성비(영겔계수)는 61.3%에서 30.4%로 감소

광열수도비는 명목금액으로는 83배, 실질금액으로는 4.1배 증가했으나, 소비지출중 차지하는 구성비는 '63년 7.4%에서 '92년 4.1%로 감소

○ 한편, 문화생활 관련 비용은 크게 증가

교육교양오락비는 명목금액으로는 363배, 실질금액으로는 15배로 크게 증가 했으며, 소비지출중 구성비 역시 '63년 5.4%에서 '92년 13.3%로 크게 증가하였는데 이는 각종 교양오락비 지출의 증가와 과외비 지출증가에 기인

교통통신비는 명목금액으로는 518배, 실질금액으로는 21.6배로 크게 증가 했고, 소비지출중 구성비 역시 '63년 2.6%에서 '92년 9.2%로 크게 증가

교제비나 용돈 등 기타소비지출은 명목금액으로 317배, 실질금액으로는 13.2배로 크게 증가했으며, 소비지출중 차지하는 비중은 '63년 9.4%에서 '92년 20.0%로 크게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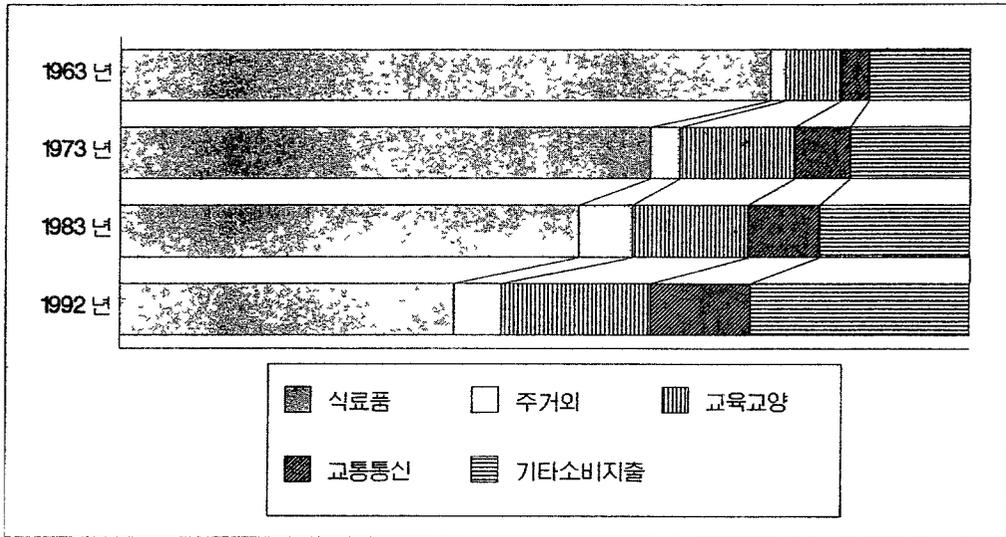
< 소비지출 비목별 금액 및 1963년기준 배율 >

(단위 천원, %)

구분		1963년	1973년	1983년	1992년	배율(배)
소비지출	명목	6.07	33.0	259.5	902.5	148.7
	실질배율	126.5	208.2	354.0	777.3	6.1
	구상비	100.0	100.0	100.0	100.0	
식료품	명목	3.72	16.0	102.5	274.0	73.7
	실질배율	90.7	113.5	147.7	229.7	2.5
	구상비	61.3	48.5	39.5	30.4	
주거	명목	0.09	0.9	12.0	37.9	421.1
	실질배율	1.6	6.0	18.1	31.6	19.8
	구상비	1.5	2.7	4.6	4.2	
광업	명목	0.45	2.1	19.3	37.2	82.7
	실질배율	8.0	12.8	19.8	32.4	4.1
	구상비	7.4	6.4	7.4	4.1	
가구가사용품	명목	0.15	0.7	12.6	49.2	328.0
	실질배율	3.1	2.6	16.8	44.8	14.5
	구상비	2.5	2.1	4.8	5.5	
피복·신발	명목	0.41	3.4	21.9	71.8	175.1
	실질배율	7.7	19.7	31.2	64.5	8.4
	구상비	6.8	10.3	8.4	8.0	
보건	명목	0.19	1.0	14.8	49.2	258.9
	실질배율	9.0	4.9	18.8	44.2	4.9
	구상비	3.1	3.0	5.7	5.4	
교육·교양· 오락	명목	0.33	3.6	26.2	119.7	362.7
	실질배율	6.9	27.4	37.1	103.7	15.0
	구상비	5.4	10.9	10.1	13.3	
교통	명목	0.16	1.7	16.7	82.9	518.1
	실질배율	3.3	9.6	19.8	71.3	21.6
	구상비	2.6	5.2	6.4	9.2	
기타소비지출	명목	0.57	3.6	33.5	180.8	317.2
	실질배율	11.9	17.5	38.1	156.9	13.2
	구상비	9.4	10.9	12.9	20.0	

< 소비지출 비목별 추이 >

(단위 %)



(1) 식료품

영겔계수는 크게 감소

- 식료품비 지출은 지난 30년간 73.6배(실질 2.5배) 증가하였으나, 소비지출에 대한 식료품비의 비율인 영겔계수는 절반 이하로 감소(61.3% → 30.4%)

○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식료품비의 비중이 감소한다는 영겔 법칙을 따르고 있으며

'92년 우리나라의 영겔계수는 일본의 '70년대 중반수준이며 현재의 대만 수준과 비슷(붙임 참조)

< 영겔계수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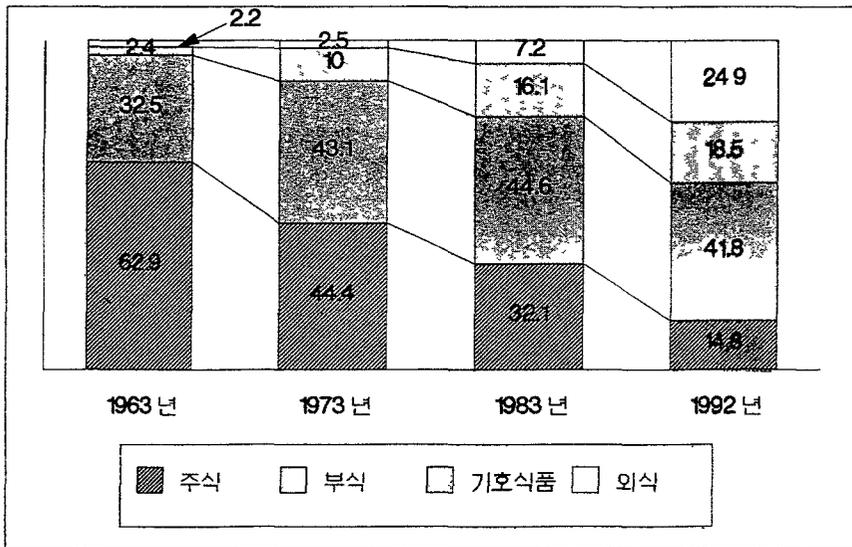
	(명목금액·천원)				(배율 배)	
	1963	1973	1983	1992	명목	실질
소비지출	6.07	33.0	259.5	902.5	149	6.1
식료품	3.72	16.0	102.5	274.0	73.6	2.5
영겔계수	61.3	48.5	39.5	30.4	-	-

주식비중은 감소, 외식비는 급증

- 주 부식의 전체 식료품비에서의 비중은 점점 감소하는 추세이며 외식과 기호식품의 비중은 크게 증가
- '63년 주식의 비중은 62.9%, 부식비는 32.5%로서 식품비의 95.4%를 주식과 부식에 지출  
이는 곡류 중심의 식생활을 의미하며 기호식품이나 외식의 비중은 5% 이내의 미미한 정도
- 소득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주식비의 비중은 꾸준히 감소하여 '92년 14.8%에 불과한 반면, 육류, 계란, 어개류 등 부식비는 41.8%에 이르러 주식보다 부식에 많이 지출
- 또한 '92년 기호식품(18.5%)과 외식(24.9%)에 대한 지출은 '63년 4.6%에서 '92년 43.4%나 되어 식생활에 큰 변화를 보여줌  
특히, 외식비의 비중은 가족단위 또는 교제를 위한 외식의 증가로 '63년 2.2%에서 '92년 24.9%로 급격히 증가하여 전체 식료품비 지출의 1/4수준

< 식료품 종류별 추이 >

( 단위 · % )



※ 주식은 곡류, 부식은 육류, 유란, 어개류, 채소, 해초, 유지 및 조미료, 기호식품은 과일, 빵 및 과자류, 음료, 주류, 외식은 외식비를 나타냄

(2) 주 거

주택설비수리비등 주거비는 미미하게 증가

- 주택설비수리비의 비중도 자가 소유가구가 많아지고 최근 생활편의를 위한 주거환경의 개선(예, 입식 부엌으로의 전환, 기름 및 가스보일러 설치 등)으로 꾸준히 증가('73년 0.9% → '92년 1.9%)

< 주거비/소비지출 비율 >

(단위 %)

	<u>1963</u>	<u>1973</u>	<u>1983</u>	<u>1992</u>
주거비(명목·천원)	(0.09)	(0.9)	(12.0)	(37.9)
주 거 비(%)	1.5	2.7	4.6	4.2
주택설비수리	-	0.9	1.4	1.9

(3) 광 열 수도

연료비 지출 비중이 큰 폭 감소

- 소비지출에 대한 광열수도비의 지출비중은 '63년 7.4%에서 '92년 4.1%로 3.3%p 감소

○ 2차에 걸친 유류파동이후 에너지가격의 안정으로 광열수도에 대한 지출 비중이 줄어듦

<광열수도비/소비지출 비율>

	<u>1963</u>	<u>1973</u>	<u>1983</u>	<u>1992</u>
광 열 수 도 (명목 천원)	(0.45)	(2.1)	(19.3)	(37.2)
광열수도(%)	7.4	6.4	7.4	4.1
수 도 료	0.7	0.6	0.6	0.5
전 기 료	1.2	1.5	1.8	1.3
연 료	5.3	4.3	5.0	2.3

(4) 가구집기 가사용품

지난 30년간 가구구입비의 비중은 2배이상 증가

- 소비지출에 대한 비중은 '63년 2.5%에서 '92년 5.5%로 3.0%p 증가하여 2배 이상 증가

<가구집기가사용품/소비지출 비율>

	<u>1963</u>	<u>1973</u>	<u>1983</u>	<u>1992</u>
가구집기가사용품 (명목 - 전원)	(0.15)	(0.7)	(12.6)	(49.2)
가구집기가사용품( % )	2.5	2.1	4.9	5.5
일    반    가    구	-	-	1.0	1.3
가    정    용    기    구	-	-	1.0	1.4

(5) 피복 신발

피복 신발비 지출비중은 소폭 감소

- 소비지출에 대한 비중은 '63년 6.8%에서 '73년 10.3%로 증가했으나 그후 감소 추세이며 '92년에는 8.0%임

○ '73년 이후 외의에 대한 지출 비중은 감소하다가 최근에 소폭증가 하고 있으며 신발의 비중은 계속해서 감소하는 경향

	<u>1963</u>	<u>1973</u>	<u>1983</u>	<u>1992</u>
피복 신발 (명목 전원)	(0.41)	(3.4)	(21.9)	(71.8)
피복신발( % )	6.8	10.3	8.4	8.0
외    의	4.4	6.7	4.4	4.7
신    발	1.2	1.8	1.3	1.0

(6) 보건 의료

보건의료비는 증가 추세

- 보건의료비는 '92년에 49.2천원으로 '63년의 0.19천원에 비해 많이 증가했으나 소비지출에 대한 비중은 '63년의 3.1%에서 '92년 5.4%로 증가

〈보건의료비/소비지출 비율〉

	1963	1973	1983	1992
보건의료비 (명목 천원)	(0.19)	(1.0)	(14.8)	(49.2)
보건의료비(%)	3.1	3.0	5.7	5.4

(7) 교육 교양 오락

교육비와 교양오락에 대한 지출 크게 증가

- 교육교양오락비의 소비지출에 대한 비중은 '63년 5.4%에서 13.3%로 7.9%p 늘어남
  - 높은 자녀교육열에 의한 각종 학원등 과외비 지출 증가('92년 비중 3.6%)로 소비지출에 대한 교육비의 지출 비중이 크게 증가 ('63년 4.8% → '92년 8.3%) 하고
- 취미, 오락 등 레저활동이 늘어나면서 소비지출중 교양오락에 대한 비중도 많이 증가('63년 0.7% → '92년 4.7%)
  - 벌어들이는 돈보다 지출비용이 많아 살림살이에 주름살이 많았던 '63년 교양오락에 대한 지출은 미미하였으나, 소득이 증가하고 생활에 여유가 생김에 따라 교양오락에 대한 지출비중이 높아짐

〈교육교양오락/소비지출 비율〉

	1963	1973	1983	1992
교육교양오락 (명목 천원)	(0.33)	(3.6)	(26.2)	(119.7)
교육교양오락(%)	5.4	10.9	10.1	13.3
· 교육비 (과외비)	4.8 (0.5)	8.5 (1.5)	6.0 (0.8)	8.3 (3.6)
교양오락비	0.7	1.8	3.7	4.7

(8) 교통 통신

개인교통비 크게 늘어

- 교통통신비는 '92년 82.9천원으로 '63년의 0.16천원에 비해 명목 518배, 실질 21.6배로 크게 증가
- 소비지출에 대한 비중을 보면 '63년의 2.6%에서 9.2%로 6.6%p 증가  
 공공교통비의 지출비중은 감소('83년 4.8%→'92년 3.1%)  
 '80년대 중반이후 자가용 승용차의 구입 증가와 이에 대한 유지비의 증가로 개인교통비의 비중이 크게 증가('83년 0.2%→'92년 4.5%)
- 교통통신비중 구성비를 보면 공공교통비는 74.3%에서 33.8%로 줄어든 반면 개인교통비는 동기간중 3.0%에서 48.5%로 급증

<교통통신/소비지출 비율>

	1963	1973	1983	1992
교통통신 (명목:천원)	(0.16)	(1.7)	(16.7)	(82.9)
교통통신(%)	2.6	5.2	6.4(100.0)	9.2(100.0)
공공요금	-	-	4.8(74.3)	3.1(33.8)
개인교통	-	-	0.2(3.0)	4.5(48.5)

(9) 기타소비지출

회비 및 교제비와 종교관계비에 대한 지출비중 커져

- '63년 기타소비지출의 대부분을 담배(40.4%)와 이미용(38.6%)에 지출 하였으나, 소득의 증가로 담배(3.9%)와 이미용(11.7%)에 대한 지출비중은 감소하고 각종 회비 및 교제비('83년 12.2%→'92년 37.6%)와 종교관계비(6.3%→7.0%)에 대한 지출비중은 크게 증가
- 한편, 경조비의 비중은 동기간중 소폭 감소하였으나 기타소비지출중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높음

<기타소비지출/소비지출 비율 및 구성비>

	1963	1973	1983	1992
기타소비지출 (명목:천원)	(0.57)	(3.6)	(33.5)	(180.8)
기타소비지출 (%)	100.0	100.0	100.0	100.0
담배	40.4	33.3	9.3	3.9
· 이미용	38.6	41.7	12.8	11.7
장신구	-	5.6	6.9	4.2
잡비	21.1	19.4	71.0	80.0
경조비	-	-	13.4	11.6
종교관계비	-	-	6.3	7.0
회비및교제비	-	-	12.2	37.6

### Ⅲ. 가계수지의 변화

#### 1. 수지 규모의 변화

소득증가로 흑자율은 늘어

- 지난 30년간 가계소득, 지출, 가처분 소득, 흑자를 보면

○ 가구당 월평균소득은 '63년 60천원에서 '92년 1,356.1천원으로 명목금액으로는 226배, 실질금액으로는 9.4배 증가

소득원천별로 볼때 근로소득은 명목금액으로는 209배, 실질금액으로는 8.6배 증가한 반면 사업 및 재산 등 기타소득은 명목금액으로 443배, 실질금액으로 18.3배 증가하여 지난 30년간 소득원천이 다양해 짐  
봉급이나 노임이외에 부동산임대료, 이자수입등 기타소득은 크게 증가

○ 가구당 월평균지출은 '63년 63천원에서 '92년 1,007.7천원으로 명목금액으로는 159배, 실질금액으로는 6.6배 증가

가계지출중 소비지출은 지난 30년간 명목금액으로는 149배, 실질금액으로는 6.1배 증가에 그친 반면 조세, 사회보장분담금 등 비소비지출은 명목금액으로는 405배, 실질금액으로는 16.8배 증가

○ 가처분소득은 '63년 5.7천원에서 '92년 1,250.9천원으로 명목금액으로는 218배, 실질금액으로는 9.0배 증가

○ 가처분소득에서 소비지출을 공제한 흑자액은 '63년의 0.34천원 적자에서 '92년 348.4천원 흑자 기록

- 이에따라 도시 근로자 가계수지는 지난 30년간 크게 개선

○ '63년 소득보다 가계지출이 더 많아 5.9%의 적자를 기록하여 당시의 가계 주름살을 반영

○ 그후 적자폭은 계속 감소하여 '66년 이후 가계수지가 흑자로 돌아 섰음

○ '73년의 흑자율은 12.7%, '83년에는 23.2%로 계속 증가 추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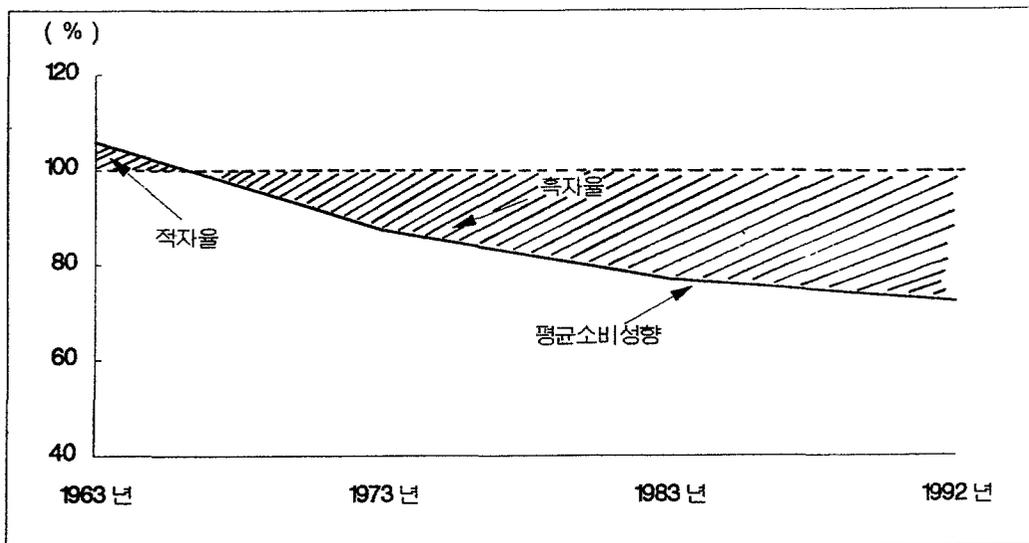
○ '92년에는 27.9%의 흑자율을 기록하여 비교적 넉넉한 가계 사정을 반영함

- 이러한 추세를 평균소비성향으로 보면 '63년 105.9%에서 '73년 87.3%, '83년 76.8%, '92년 72.1%로 감소 추세

○ 즉, 100원 벌었을때 '63년에는 106원을 썼으나, '92년에는 72원 쓰고 28원은 남김을 의미

< 가계수지 추이 >

(단위 %)



(단위 명목금액, 천원)

구분	1963년	1973년	1983년	1992년	배율	
					명목	실질
- 소득(A)	5.99	40.4	359.0	1,356.1	226	9.4
○ 근로소득	5.54	35.6	323.9	1,156.6	209	8.6
○ 사업 및 재산 등 기타소득	0.45	4.8	35.1	199.5	443	18.3
- 가계지출(B)	6.33	35.7	280.5	1,007.7	159	6.6
○ 소비지출(C)	6.07	33.0	259.5	902.5	149	6.1
○ 비소비지출(D)	0.26	2.7	21.0	105.2	405	16.8
- 가처분소득 (E=A-D)	5.73	37.7	338.0	1,250.9	218	9.0
- 흑자액 (F=E-C)	-0.34	4.8	78.5	348.4	-	-
흑자율(*) (G=F/E×100)	-5.9	12.7	23.2	27.9		
평균소비성향 (H=1-G)	105.9	87.3	76.8	72.1		

2 가구구분 및 연령계층별 가계수지

가. 가구구분별 가계수지

노무자가구의 흑자율이 봉급자가구를 앞질러

- 가구구분별로 보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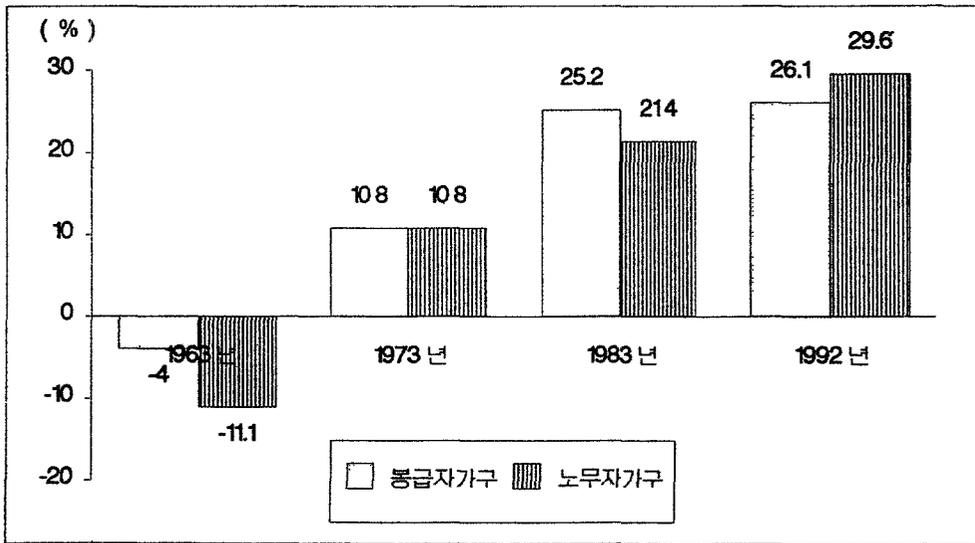
- '63, '73, '83년에는 노무자가구보다 봉급자가구의 흑자율이 높았으나,
- '92년 노무자가구의 흑자율(29.6%)이 봉급자가구(26.1%)보다 높아짐

'88년 이후 건설인부, 생산직 등 노무자의 노임이 급격히 상승하였고 취업기회의 확대로 흑자율이 봉급자가구 상회

		1963	1973	1983	1992
흑자율	봉급자가구	-4.0	10.8	25.2	26.1
	노무자가구	-11.0	10.8	21.4	29.6

< 가구구분별 가계수지 >

(단위 : %)



나. 연령계층별 가계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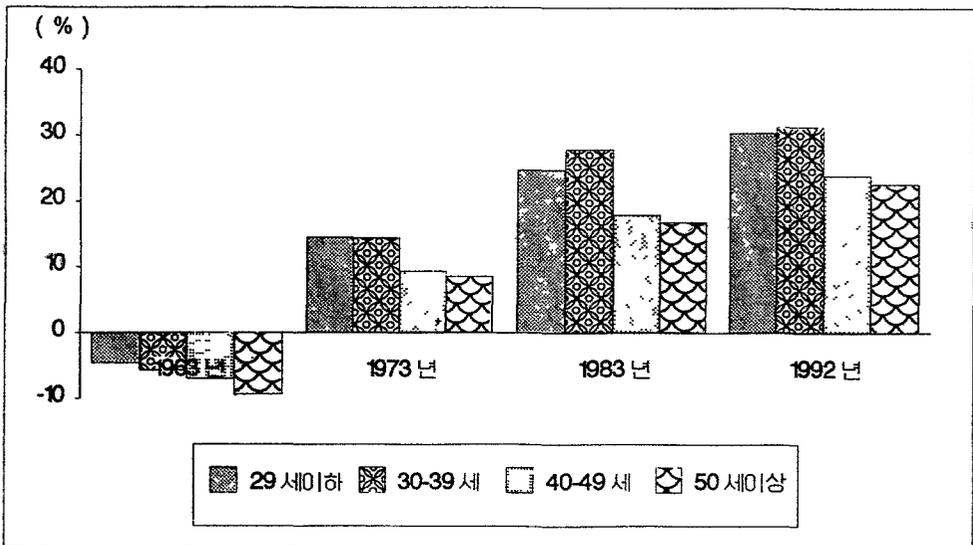
흑자율은 30대 가구에서 높고 50대 가구는 낮아

- 흑자율은 30대 가구에서 가장 높고 50대 가구에서 가장 낮음
- '63년 모든 연령계층에서 적자를 기록하였으나
- '73년 20대가구와 30대가구의 흑자율은 각각 14.5%와 14.4%로 비슷
- 그후 30대가구의 흑자율이 높아져 '83년 27.9%, '92년 31.4%로 가장 높은 수준 유지
- 한편, 50대이상 가구의 흑자율은 '63년 이후 계속해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임

30대 가구의 흑자율이 높은 것은 자녀가 어린관계로 자녀교육등 부양부담이 적고 주택자금 마련을 위해 저축을 많이 하기 때문  
 50대이상 가구의 흑자율이 낮은 것은 자녀교육과 혼수장만 등 가족부양비 부담이 크기 때문

< 가구주 연령계층별 흑자율 >

	(단위 . %)			
	<u>1963</u>	<u>1973</u>	<u>1983</u>	<u>1992</u>
29세미만	- 4.6	14.5	24.8	30.4
30~39세	- 5.7	14.4	27.9	31.4
40~49세	- 7.0	9.4	17.9	23.9
50세이상	- 9.4	8.6	16.8	2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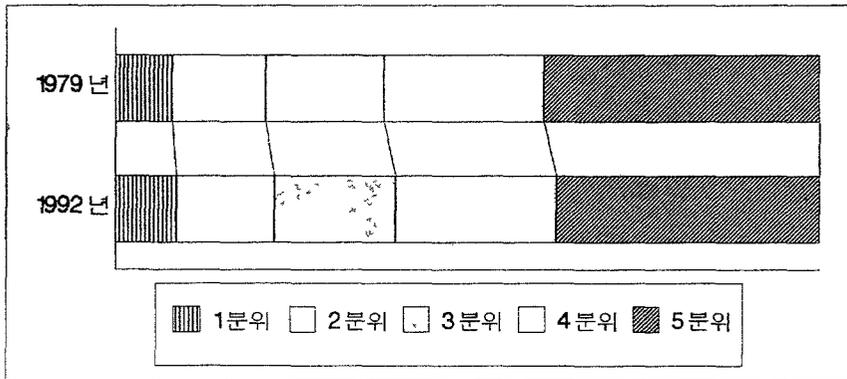
N 소득분도의 변화('79~'92)

소득분배구조는 점차 개선

- 상위계층의 소득점유율은 줄고 하위계층의 점유율은 늘어나 소득분배구조가 개선되고 있음을 보여줌
- '79~'92년기간중 최상위계층의 소득점유율은 1.7%p 줄어든 반면, 최하위 계층의 소득점유율은 0.6%p 늘어남
- 최상위계층이 차지하는 소득은 최하위계층의 소득에 비해 '79년 4.97배에서 '92년 4.42배로 줄어들어 소득계층간 상대적 격차가 축소되고 있음

< 소득 5분위별 소득점유율(%) >

	I	II	III	IV	V	V / I
1979	7.9	12.9	17.1	22.7	39.3	4.97
1982	7.8	13.0	17.0	22.5	39.8	5.10
1985	8.1	13.3	17.0	22.6	39.7	4.83
1988	8.2	13.1	17.0	22.5	39.3	4.79
1992	8.5	13.6	17.5	22.8	37.6	4.42



- 소득집중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를 보면, '80년대 전반 상승추세를 보이다가 '85년 정점으로 하여 하락함으로써 소득불평등이 완화되고 있음

< 지니계수 추이 >

	<u>1979</u>	<u>1982</u>	<u>1985</u>	<u>1988</u>	<u>1992</u>
지니 계수	0.3065	0.3098	0.3115	0.3006	0.2800

< 주요국의 지니계수 >

대만('89년, 0.303)	일본('88년, 0.268)	홍콩('86년, 0.433)
태국('81년, 0.436)	미국('78년, 0.364)	캐나다('81년, 0.374)

<붙임 1>  
 근로자가구의 가계수지 (명목금액)  
 (단위:천원)

구분	1963년		1973년		1983년		1992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조사가구수	955		978		2,312		2,913	
가구당인원수	5.56		5.25		4.34		3.90	
가구당취업인원수	1.19		1.36		1.28		1.43	
<b>소득</b>	<b>5.99</b>	<b>100.0</b>	<b>40.4</b>	<b>100.0</b>	<b>359.0</b>	<b>100.0</b>	<b>1,356.1</b>	<b>100.0</b>
근로소득	5.54	92.5	35.6	88.1	323.9	90.2	1,156.6	85.3
가구주소득	5.02	83.8	31.8	78.7	293.9	81.9	986.1	72.7
기타가구소득	0.52	8.7	3.8	9.4	30.0	8.4	170.5	12.6
사업및부업소득	0.06	1.0	0.4	1.0	6.2	1.7	39.1	2.9
재산및이전소득	0.39	6.5	4.4	10.9	28.9	8.0	160.4	11.8
이자및배당금	0.03	0.5	0.7	1.7	4.5	1.3	13.4	1.0
임대료	0.09	1.5	0.6	1.5	5.7	1.6	21.3	1.6
사회보장수혜	-	-	-	-	1.3	0.4	6.2	0.5
수증및보조	0.20	3.3	1.0	2.5	9.6	2.7	34.7	2.6
기타	0.07	1.2	2.1	5.2	7.8	2.2	84.8	6.3
<b>가계지출</b>	<b>6.33</b>		<b>35.7</b>		<b>280.5</b>		<b>1,007.7</b>	
<b>소비지출</b>	<b>6.07</b>	<b>100.0</b>	<b>33.0</b>	<b>100.0</b>	<b>259.5</b>	<b>100.0</b>	<b>902.5</b>	<b>100.0</b>
식료품	3.72	61.3	16.0	48.5	102.5	39.5	274.0	30.4
곡류	2.34	38.6	7.1	21.5	32.9	12.7	40.6	4.5
육류	0.37	6.1	2.6	7.9	12.2	4.7	32.4	3.6
어개류	-	-	-	-	8.2	3.2	25.9	2.9
유채	0.06	1.0	0.5	1.5	4.9	1.9	12.6	1.4
소해조식	0.45	7.4	2.0	6.1	12.8	4.9	29.0	3.2
과실	-	-	0.7	2.1	6.7	2.6	21.4	2.4
유지및조미료	0.28	4.6	1.1	3.3	7.3	2.8	14.0	1.6
빵및과자	0.06	1.0	0.6	1.8	5.6	2.2	16.0	1.8
음료	-	-	-	-	2.5	1.0	9.4	1.0
가공식품	0.05	0.8	0.7	2.1	-	-	-	-
주류	0.03	0.5	0.3	0.9	1.8	0.7	3.8	0.4
외식	0.08	1.3	0.4	1.2	7.4	2.9	68.3	7.6
식료품관련서비스	-	-	-	-	0.3	0.1	0.5	0.1
주거	0.09	1.5	0.9	2.7	12.0	4.6	37.9	4.2
월세	0.09	1.5	0.6	1.8	7.2	2.8	16.7	1.8
주택설비	-	-	0.3	0.9	3.7	1.4	16.9	1.9
기타	-	-	-	-	1.1	0.4	4.3	0.5
광열수도	0.45	7.4	2.1	6.4	19.3	7.4	37.2	4.1
수도	0.04	0.7	0.2	0.6	1.6	0.6	4.8	0.5
전기	0.07	1.2	0.5	1.5	4.8	1.9	11.6	1.3
연기	0.32	5.3	1.4	4.2	12.9	5.0	20.7	2.3
기타	0.02	0.3	0.01	0.03	-	-	-	-

구 분	1963년		1973년		1983년		1992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가구 집기 가사용품	0.15	2.5	0.7	2.1	12.6	4.8	49.2	5.5
일 반 가 구	-	-	-	-	2.7	1.1	11.5	1.3
가 정 용 기 구	-	-	-	-	2.7	1.0	12.5	1.4
식기 주방 용품	-	-	-	-	1.9	0.7	6.2	0.7
가사잡화소모품	-	-	-	-	2.2	0.8	7.1	0.8
침구및직물제품	-	-	-	-	1.5	0.6	6.9	0.8
가 사 서 비 스	-	-	-	-	1.5	0.6	5.1	0.6
피 복 및 신 발	0.41	6.8	3.4	10.3	21.9	8.4	71.8	8.0
외 스웨터 의	0.27	4.4	2.2	6.7	11.5	4.4	42.3	4.7
셔츠	-	-	-	-	2.6	1.0	9.6	1.1
내 의	-	-	-	-	1.6	0.6	4.2	0.5
직 물 실	-	-	0.2	0.6	0.9	0.3	0.8	0.1
가 타 피 복	0.07	1.2	0.4	1.2	1.2	0.4	3.3	0.4
신 발	0.07	1.2	0.6	1.8	3.4	1.3	9.1	1.0
피복및신발서비스	-	-	-	-	0.7	0.3	2.5	0.3
보 건 의 료	0.19	3.1	1.0	3.0	14.8	5.7	49.2	5.4
의 약 품	-	-	-	-	7.1	2.7	23.2	2.6
보건의료용품기구	-	-	-	-	0.5	0.2	2.4	0.3
보건의료 서비스	-	-	-	-	7.2	2.8	23.6	2.6
교 육 교 양 오 략	0.33	5.4	3.6	10.9	26.2	10.1	119.7	13.3
교 문 방 육	0.29	4.8	2.8	8.5	15.5	6.0	74.7	8.3
교 양 오 략	-	-	0.2	0.6	1.0	0.4	2.6	0.3
교 양 오 략	0.04	0.7	0.6	1.8	9.6	3.7	42.4	4.7
교 통 통 신	0.16	2.6	1.7	5.2	16.7	6.4	82.9	9.2
공 개 통	-	-	-	-	12.4	4.8	28.0	3.1
공 인 교 통	-	-	-	-	0.5	0.2	40.2	4.5
공 인 교 통	-	-	-	-	3.7	1.4	14.6	1.6
가 타 소 비 지 출	0.57	9.4	3.6	10.9	33.5	12.9	180.8	20.0
담 배	0.23	3.8	1.2	3.6	3.1	1.2	7.0	0.8
미 용	0.22	3.6	1.5	4.5	4.3	1.7	21.2	2.4
장 신 구	-	-	0.2	0.6	2.3	0.9	7.6	0.8
잡 비	0.12	2.0	0.7	2.1	23.8	9.2	144.9	16.1
비 소 비 지 출	0.26		2.7		21.0		105.2	
조 세 (공과금 포함)	0.22		2.5		6.9		35.9	
사회 보장 부담금	-		-		5.2		26.2	
지 급 이 자	0.03		0.2		2.6		11.8	
기타 비소비지출	0.01		0.02		6.3		31.3	

근로자가구의 가계수지(실질금액)

(단위: 천원)

구분	1963년	1973년	1983년	1992년
조사가구수	955	978	2,312	2,913
가구당인원수	5.56	5.25	4.34	3.90
가구당취업인원수	1.19	1.36	1.28	1.43
소득	124.8	255.7	489.8	1,168.0
근로소득	115.4	225.3	441.9	996.2
가구주소득	104.6	201.3	401.0	849.4
기타가구원소득	10.8	24.1	40.9	146.9
사업및부업소득	1.3	2.5	8.5	33.7
재산및이전소득	8.1	27.8	39.4	138.2
이자및배당금	0.6	4.4	6.1	11.5
임대료	1.9	3.8	7.8	18.3
사회보장수혜	-	-	1.8	5.3
수증및보조	4.2	6.3	13.1	29.9
기타	1.5	13.3	10.6	73.0
가계지출	127.1	225.3	382.7	868.0
소비지출	121.7	208.2	354.0	777.3
식료품	85.9	113.5	147.7	229.7
곡류	57.1	44.4	46.5	37.3
유제품	9.0	22.0	16.5	29.1
육류	-	-	15.1	20.9
유채	1.5	2.3	6.2	11.0
채소	11.0	14.2	20.3	25.3
과실	-	5.1	11.1	15.0
유지및조미료	6.8	6.5	8.4	11.4
빵및과자	1.5	2.7	6.6	14.2
음료	-	-	2.4	8.2
가공식품	1.2	4.4	-	-
주류	0.7	1.4	2.4	3.3
외식	2.0	4.3	13.1	51.7
식료품관련서비스	-	-	0.4	0.4
주거	1.6	6.0	18.1	31.6
월세	1.6	3.7	10.8	13.9
주택설비	-	2.0	5.9	14.7
기타	-	-	1.7	3.3
광열수도	8.0	12.8	19.8	32.4
수도	0.7	0.9	2.0	4.2
전기	1.3	1.0	4.4	9.8
연료	5.7	10.8	13.4	18.3
기타	0.4	0.1	-	-

구 분	1963년	1973년	1983년	1992년
가구 집기 가사용품	3.1	2.6	16.8	44.8
일 반 가 구	-	-	3.4	10.8
가 정 용 기 구	-	-	2.8	12.4
식기 주방 용품	-	-	2.7	5.6
가시잡화소모품	-	-	2.6	6.8
침구및직물제품	-	-	2.2	6.5
가 사 서 비 스	-	-	2.9	3.5
피 복 및 신 발	7.7	19.7	31.2	64.5
외 스웨터 의	5.1	12.0	17.4	37.6
내 셔츠			3.5	8.4
직 물 실			2.1	4.0
기 타 피 복	1.3	2.3	1.5	3.2
신 발	1.3	2.8	4.2	8.6
피복및신발서비스	-	-	1.3	1.9
보 건 의 료	4.0	4.9	18.8	44.2
의 약 품	-	-	7.3	21.1
보건의료용품기구	-	-	0.6	2.1
보건의료 서비스	-	-	10.0	21.0
교 육 교 양 오 략	6.9	27.4	37.1	103.7
교 문 육 구	6.0	23.7	24.4	62.2
교 방 구	-	0.9	1.3	2.3
교 양 오 략	0.8	2.8	10.4	38.2
교 통 통 신	3.3	9.6	19.8	71.3
공 개 공 교 통	-	-	15.4	21.1
개 인 교 통 신	-	-	0.6	35.5
통 신	-	-	3.8	15.2
기 타 소 비 지 출	11.9	17.5	38.1	156.9
담 배	4.8	3.3	3.4	6.9
이 미 용	4.6	10.2	4.4	23.1
장 신 구	-	1.0	2.4	7.4
잡 비	2.5	3.0	27.1	132.4
비 소 비 지 출				
조 세 (공과금 포함)				
사회 보장 부담금				
지 급 이 자				
기타 비소비지출				

< 붙임 2 >

농 급 자 가 구 의 가 계 수 지 ( 명 목 금 액 )

( 단 위 전 원 )

구 분	1963년		1973년		1983년		1992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조 사 가 구 수	379		525		614		1,196	
가 구 당 인 원 수	5.95		5.26		4.37		3.94	
가 구 당 취 업 인 원 수	1.19		1.37		1.19		1.34	
소 득	8.78	100.0	47.1	100.0	493.9	100.0	1642.9	100.0
근 로 소 득	8.03	91.5	41.8	88.7	451.1	91.3	1400.6	85.3
가 구 주 소 득	7.37	83.9	37.6	79.8	419.8	85.0	1239.0	75.4
기 타 가 구 원 소 득	0.66	7.5	4.2	8.9	31.4	6.4	161.6	9.8
사 업 및 부 업 소 득	0.12	1.4	0.5	1.1	5.4	1.1	44.5	2.7
재 산 및 이 전 소 득	0.63	7.1	4.8	10.2	37.4	7.6	197.9	12.0
이 자 및 배 당 금	0.05	0.5	1.2	2.5	6.7	1.4	19.7	1.2
임 대 료	0.13	1.5	0.7	1.5	7.8	1.6	28.6	1.7
사 회 보 장 수 혜	-	-	-	-	1.9	0.4	6.5	0.4
수 증 및 보 조	0.34	3.9	-	-	11.5	2.3	45.1	2.7
기 타	0.11	1.2	2.9	6.2	9.5	1.9	98.0	6.0
가 계 지 출	9.11		41.7		379.3		1255.4	
소 비 지 출	8.58	100.0	38.9	100.0	339.3	100.0	1096.0	100.0
식 료 품	4.94	57.6	18.1	46.5	124.6	36.7	310.8	28.4
곡 육 류	2.71	31.6	7.2	18.5	32.4	9.5	39.3	3.6
어 개 류	0.64	7.5	3.4	8.7	17.2	5.1	37.6	3.4
유 채 소 과	-	-	0.7	1.8	7.2	2.1	15.3	1.4
해 조 실	0.71	8.3	2.3	5.9	15.1	4.5	31.1	2.8
유 지 및 조 미 료	0.41	4.8	1.3	3.3	8.3	2.4	14.4	1.3
빵 및 과 자 료	-	-	0.8	2.1	7.3	2.2	19.2	1.8
음 기 공 식 품	-	-	0.7	1.8	3.6	1.1	11.3	1.0
주 외 식 류	-	-	0.3	0.8	1.7	0.5	3.3	0.3
식 료 품 관 련 서 비 스	0.47	5.5	0.5	1.3	11.2	3.3	84.0	7.7
주 거	0.10	1.2	0.9	2.3	12.0	3.5	40.8	3.7
월 주 택 설 비	0.10	1.2	0.5	1.3	3.2	0.9	11.6	1.1
기 타	-	-	0.4	1.0	6.1	1.8	21.0	1.9
광 열 수 도	-	-	-	-	2.8	0.8	8.3	0.8
광 열 수 도	0.59	6.9	2.5	6.5	24.6	7.3	42.1	3.8
수 전 연 기	0.06	0.7	0.3	0.8	2.0	0.6	5.4	0.5
기 타	0.11	1.3	0.6	1.5	6.7	2.0	13.5	1.2
기 타	0.41	4.8	1.6	4.1	15.9	4.7	23.2	2.1
기 타	0.01	0.1	0.02	0.1	-	-	-	-

구분	1963년		1973년		1983년		1992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가구 집기 가사용품	0.26	3.0	0.9	2.3	18.3	5.4	61.1	5.6
일 반 가 구	-	-	-	-	4.4	1.3	14.9	1.4
가 정 용 기 구	-	-	-	-	3.3	1.0	13.4	1.2
식기 주방 용품	-	-	-	-	2.7	0.8	7.7	0.7
가사잡화소모품	-	-	-	-	2.9	0.9	8.2	0.7
침구및직물제품	-	-	-	-	2.2	0.6	9.1	0.8
가사서비스	-	-	-	-	2.8	0.8	7.9	0.7
피복 및 신발	0.67	7.8	4.1	10.5	29.7	8.8	89.3	8.1
외 스웨터 의	0.48	5.6	2.7	6.9	15.9	4.7	52.5	4.8
내 셔츠 의					3.8	1.1	12.4	1.1
직 물 실	-	-	0.3	0.8	2.0	0.6	4.9	0.4
기 타 피 복	0.09	1.0	0.5	1.3	1.5	0.4	4.0	0.4
신 발	0.10	1.2	0.6	1.5	4.0	1.2	10.5	1.0
피복및신발서비스	-	-	-	-	1.2	0.4	3.7	0.3
보 건 의 료	0.30	3.5	1.2	3.1	18.2	5.4	54.6	5.0
의 약 품	-	-	-	-	8.9	2.6	25.4	2.3
보건의료용품기구	-	-	-	-	0.7	0.2	3.1	0.3
보건의료서비스	-	-	-	-	8.5	2.5	26.2	2.4
교 육 교 양 오 략	0.58	6.7	4.6	11.8	39.2	11.6	156.2	14.3
교 문 방 육 구	0.50	5.8	3.5	9.0	22.9	6.7	97.9	8.9
교 양 오 략	-	-	0.3	0.8	1.1	0.3	2.7	0.2
교 양 오 략	0.08	0.9	0.8	2.0	15.2	4.5	55.6	5.1
교 통 통 신	0.28	3.3	2.2	5.7	22.2	6.5	113.2	10.3
공 개 공 교 통 신	-	-	-	-	15.2	4.5	30.4	2.8
공 개 공 교 통 신	-	-	-	-	0.5	0.1	66.5	6.1
공 개 공 교 통 신	-	-	-	-	6.4	1.9	16.3	1.5
기 타 소 비 지 출	0.86	10.0	4.4	11.3	50.5	14.9	220.8	20.8
담 배	0.33	3.8	1.3	3.3	2.5	0.7	6.2	0.6
이 미 배	0.33	3.8	1.8	4.6	5.6	1.7	25.0	2.3
장 신 구	-	-	0.3	0.8	3.0	0.9	8.8	0.8
잡 비	0.20	2.4	1.0	2.6	39.4	11.6	187.8	17.1
비 소 비 지 출	0.53	6.2	3.53		40.0		159.4	
조 세 (공과금 포함)	0.47	5.5	3.3		15.1		64.9	
사회 보장 부담금	-	-	-		11.8		40.9	
지 급 이 자	0.04	0.5	0.2		3.1		16.4	
기타 비소비지출	0.02	0.2	0.03		10.0		37.2	

봉급자가구의 가계수지(실질금액)

(단위:천원)

구분	1963년	1973년	1983년	1992년
조사가구수	379	525	614	1,196
가구당인원수	5.95	5.26	4.37	3.94
가구당취업인원수	1.19	1.37	1.19	1.34
소득	182.9	298.1	673.8	1,415.1
근로소득	167.3	264.6	615.4	1,206.4
가구주소득	153.5	238.0	572.7	1,067.2
기타가구원소득	13.8	26.6	42.8	139.2
사업및부업소득	2.5	3.2	7.4	38.3
재산및이전소득	13.1	30.4	51.0	170.0
이자및배당금	1.0	7.6	9.1	17.0
임대료	2.7	4.4	10.6	24.6
사회보장수혜	-	-	2.6	5.6
수증및보조	7.1	-	15.7	38.8
기타	2.3	18.6	13.0	84.4
가계지출	189.8	263.9	517.5	1,081.3
소비지출	178.8	246.3	462.9	944.0

< 표임 3 >

노무자가구의 가계수지 (명목금액)

(단위: 천원)

구분	1963년		1973년		1983년		1992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조사가구수	576		453		1,120		1,717	
가구당인원수	5.27		5.24		4.32		3.87	
가구당취업인원수	1.19		1.35		1.33		1.50	
소득	4.15	100.0	31.2	100.0	285.5	100.0	1149.0	100.0
근로소득	3.90	94.0	28.4	91.0	254.5	89.1	980.3	85.3
가구주소득	3.48	83.9	25.0	80.1	225.3	78.9	803.2	69.9
기타가구원소득	0.42	10.1	3.4	10.9	29.2	10.2	177.1	15.4
사업및부업소득	0.02	0.5	0.2	0.6	6.7	2.3	35.3	3.1
재산및이전소득	0.23	5.5	2.6	8.3	24.3	8.5	133.3	11.6
이자및배당금	0.01	0.2	0.2	0.6	3.3	1.2	8.9	0.8
임대료	0.06	1.4	0.5	1.6	4.6	1.6	16.0	1.4
사회보장수혜	-	-	-	-	0.9	0.3	5.9	0.5
수증및보조	0.11	2.7	0.7	2.2	8.5	3.0	27.1	2.4
기타	0.05	1.2	1.2	3.8	6.9	2.4	75.4	6.6
가계지출	4.6		28.0		226.5		828.6	
소비지출	4.5	100.0	26.3	100.0	215.9	100.0	762.6	100.0
식료품	2.92	64.9	13.6	51.7	90.4	41.9	247.4	32.4
곡류	2.10	46.7	7.1	27.0	33.2	15.4	41.5	5.4
유제품	0.20	4.4	1.8	6.8	9.5	4.4	28.7	3.8
육류	-	-	0.3	1.1	6.7	3.1	23.6	3.1
유채	-	-	0.3	1.1	3.6	1.7	10.7	1.4
채소	0.28	6.2	1.6	6.1	11.6	5.4	27.5	3.6
과일	-	-	0.4	1.5	5.3	2.5	18.3	2.4
유지및조미료	0.19	4.2	0.9	3.4	6.8	3.1	13.7	1.8
빵및과자	-	-	0.4	1.5	4.6	2.1	13.6	1.8
음료	-	-	0.6	2.3	1.9	0.9	8.1	1.1
음주	-	-	0.2	0.8	-	-	-	-
외식	-	-	0.2	0.8	1.8	0.8	4.2	0.6
외식	0.15	3.3	0.3	1.1	5.3	2.5	57.0	7.5
식품관련서비스	-	-	-	-	0.3	0.1	0.5	0.1
주거	0.09	2.0	1.0	3.8	12.0	5.6	35.8	4.7
월세	0.09	2.0	0.8	3.0	9.4	4.4	20.4	2.7
주택선택	-	-	0.2	0.8	2.4	1.1	14.0	1.8
기타	-	X	-	-	0.2	0.1	1.4	0.2
광열수도	0.37	8.2	1.7	6.5	16.5	7.6	33.6	4.4
수도	0.02	0.4	0.2	0.8	1.4	0.6	4.4	0.6
연료	0.04	0.9	0.3	1.1	3.8	1.8	10.3	1.4
연료	0.28	6.2	1.2	4.6	11.3	5.2	18.9	2.5
기타	0.03	0.7	0.02	0.1	-	-	-	-

구분	1963년		1973년		1983년		1992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가구 집기 가사용품	0.08	1.8	0.5	1.9	9.4	4.4	40.6	5.3
일 반 가 구	-	-	-	-	1.8	0.8	9.0	1.2
가 정 용 기 구	-	-	-	-	2.4	1.1	11.9	1.6
식기 주방 용품	-	-	-	-	1.5	0.7	5.0	0.7
가사잡화소모품	-	-	-	-	1.8	0.8	6.3	0.8
침구및직물제품	-	-	-	-	1.1	0.5	5.3	0.7
가 사 서 비 스	-	-	-	-	0.8	0.4	3.1	0.4
피 복 및 신 발	0.25	5.6	2.6	9.9	17.7	8.2	59.2	7.8
외 스웨터 의 셔츠	0.15	3.3	1.7	6.5	9.1	4.2	35.0	4.6
내 셔츠 의 의 실	-	-	0.1	0.4	2.0	0.9	7.5	1.0
직 물 의 실	-	-	-	-	1.4	0.6	3.7	0.5
기 타 피 복	0.05	1.1	0.3	1.1	0.9	0.4	2.8	0.4
신 발	0.05	1.1	0.5	1.9	3.0	1.4	8.1	1.1
피복및신발서비스	-	-	-	-	0.5	0.2	1.6	0.2
보 건 의 료	0.15	3.3	0.7	2.7	12.9	6.0	45.2	5.9
의 약 품	-	-	-	-	6.1	2.8	21.7	2.8
보건의료용품기구	-	-	-	-	0.3	0.1	1.9	0.2
보건의료 서비스	-	-	-	-	6.5	3.0	21.6	2.8
교 육 교 양 오 략	0.17	3.8	2.4	9.1	19.1	8.8	93.4	12.2
교 문 방 육 구	0.15	3.3	1.9	7.2	11.5	5.3	57.9	7.6
교 양 오 략	-	-	0.2	0.8	0.9	0.4	2.5	0.3
교 양 오 략	0.02	0.5	0.3	1.1	6.6	3.1	32.9	4.3
교 통 통 신	0.09	2.0	2.1	4.2	13.7	6.3	60.8	8.0
공 개 인 교 통 신	-	-	-	-	10.9	5.0	26.3	3.4
개 인 교 통 신	-	-	-	-	0.6	0.3	21.1	2.8
통 신	-	-	-	-	2.3	1.1	13.4	1.8
기 타 소 비 지 출	0.38	8.4	2.7	10.3	24.1	11.2	146.8	19.2
담 배	0.17	3.8	1.1	4.2	3.4	1.6	7.5	1.0
이 미 배 용	0.15	3.3	1.2	4.6	3.6	1.7	18.5	2.4
장 신 구	-	-	0.1	0.4	1.9	0.9	6.8	0.9
잡 비	0.06	1.3	0.3	1.1	15.2	7.0	114.0	14.9
비 소 비 지 출	0.10		1.7		10.7		66.0	
조 세 (공과금 포함)	0.06		1.5		2.4		14.9	
사회 보장 분담금	-		-		1.6		15.6	
지 금 이 자	0.03		0.2		2.4		8.4	
기타 비소비지출	0.01		0.01		4.3		27.1	

노무자가구의 가계수지(실질금액)

(단위 : 천원)

구 분	1963년	1973년	1983년	1992년
조 사 가 구 수	576	453	1,120	1,717
가 구 당 인 원 수	5.27	5.24	4.32	3.87
가 구 당 취 업 인 원 수	1.19	1.35	1.33	1.50
소 득	86.5	197.5	389.5	989.7
근 로 소 득	81.3	179.7	347.2	845.1
가 구 주 소 득	72.5	158.2	307.4	692.4
기 타 가 구 원 소 득	8.8	21.5	39.8	152.7
사 업 및 부 업 소 득	0.4	1.3	9.1	30.4
재 산 및 이 전 소 득	4.8	16.5	33.2	114.9
이 자 및 배 당 금	0.2	1.3	4.5	7.7
임 대 료	1.3	3.2	6.3	13.8
사 회 보 장 수 혜	-	-	1.2	5.1
수 증 및 보 조	2.3	4.4	11.6	23.4
기 타	1.0	7.6	9.4	65.0
가 계 지 출	95.8	177.2	309.0	713.7
소 비 지 출	93.8	166.5	294.5	656.8

연령계층별 근로자가구의 가계수지

( 1963년 )

( 단위 : 천원 )

구 분	29세이하		30~39세		40~49세		50세이상	
	명 목	실 질	명 목	실 질	명 목	실 질	명 목	실 질
조 사 가구수	127		368		310		113	
가 구 당 인원수	4.69		5.6		6.5		6.1	
가 구 당 취 업 인원 수	1.20		1.15		1.2		1.36	
소 득	5.00	104.2	6.30	131.3	6.33	131.9	5.72	119.2
근 로 소 득	4.65	96.9	5.81	121.0	5.89	122.7	5.31	110.6
가 구 주 소 득	4.06	84.6	5.42	112.9	5.39	112.3	4.42	92.1
가 구 원 소 득	0.59	12.3	0.39	8.1	0.50	10.4	0.88	18.3
기 타 소 득	0.35	7.3	0.49	10.2	0.44	9.2	0.41	8.5
사 업 소 득	0.03	0.6	0.06	1.3	0.06	1.3	0.09	1.9
재 산 및 이 전	0.32	6.7	0.43	9.0	0.38	7.9	0.32	6.7
가 계 지 출	5.22	108.8	6.64	138.3	6.75	140.6	6.24	130.0
소 비 지 출	5.03	104.8	6.28	130.8	6.40	133.3	6.03	125.6
비 소 비 지 출	0.19	4.0	0.36	7.5	0.35	7.3	0.21	4.4
가 처 분 소 득	4.81	100.2	5.94	123.8	5.98	124.6	5.51	114.8
특 자 액	-0.22		-0.34		-0.42		-0.52	
특 자 율 (%)	-4.6		-5.7		-7.0		-9.4	
평균 소비 성향	104.6		105.7		107.0		109.4	

( 1973년 )

( 단위 · 천원 )

구 분	29세이하		30~39세		40~49세		50세이상	
	명 목	실 질	명 목	실 질	명 목	실 질	명 목	실 질
조 사 가구수	199		451		247		81	
가 구 당 인원수	4.11		5.04		6.46		5.66	
가 구 당 취 업 인 원 수	1.33		1.31		1.45		1.47	
소 득	31.9	201.9	40.3	255.1	47.2	298.7	41.0	259.5
근 로 소 득	28.4	179.7	35.9	227.2	40.6	257.0	36.0	227.8
가 구 주 소 득	25.2	159.5	32.4	205.1	36.2	229.1	31.1	196.8
가 구 원 소 득	3.3	20.9	3.5	22.2	4.4	27.8	4.9	31.0
· 기 타 소 득	3.5	22.2	4.3	27.2	6.6	41.8	5.0	31.6
사 업 소 득	0.2	1.3	0.3	1.9	0.6	3.8	0.5	3.2
재 산 및 이 전	3.3	20.9	4.0	25.3	5.9	37.3	4.5	28.5
가 계 지 출	27.5	174.1	34.9	220.9	43.1	272.8	37.0	234.2
소 비 지 출	26.0	164.6	32.2	203.8	39.4	249.4	34.4	217.7
비 소 비 지 출	1.5	9.5	2.7	17.1	3.7	23.4	2.5	15.8
가 처 분 소 득	30.4	192.4	37.6	238.0	43.4	274.7	38.5	243.7
특 자 액	4.4		5.4		4.1		3.3	
특 자 율 (%)	14.5		14.4		9.4		8.6	
평균 소비 성향	85.5		85.6		90.6		89.4	

( 1983년 )

( 단위 천원 )

구 분	29세이하		30~39세		40~49세		50세이상	
	명 목	실 질	명 목	실 질	명 목	실 질	명 목	실 질
조 사 가구수	659		853		572		228	
가 구 당 인원수	3.59		4.36		5.06		4.62	
가 구 당 취 업 인 원 수	1.28		1.15		1.38		1.53	
소 득	297.9	406.4	372.9	508.7	397.0	541.6	389.8	531.8
· 근 로 소 득	263.9	360.0	343.3	468.3	358.1	488.5	339.9	463.7
· 가 구 주 소 득	235.9	321.8	326.1	444.9	319.7	436.2	277.4	378.4
· 가 구 원 소 득	28.0	38.2	17.1	23.3	38.4	52.4	62.5	85.3
· 기 타 소 득	34.0	46.4	29.7	40.5	38.8	52.9	49.9	68.1
· 사 업 소 득	4.8	6.5	5.7	7.8	8.2	11.2	7.5	10.2
· 재 산 및 이 전	29.2	39.8	24.0	32.7	30.7	41.9	42.4	57.8
가 계 지 출	227.5	310.4	275.3	375.6	330.6	451.0	328.2	447.7
· 소 비 지 출	214.0	292.0	252.3	344.2	304.4	415.3	305.5	416.8
· 비 소 비 지 출	13.5	18.4	23.0	31.4	26.2	35.7	22.7	31.0
가 처 분 소 득	284.4	388.0	349.9	477.4	370.8	505.9	367.1	500.8
· 흑 자 액	70.4		97.6		66.4		61.6	
· 흑 자 율 (%)	24.8		27.9		17.9		16.8	
· 평 균 소 비 성 향	75.2		72.1		82.1		83.2	

( 1992년 )

( 단위 : 천원 )

구 분	29세이하		30~39세		40~49세		50세이상	
	명 목	실 질	명 목	실 질	명 목	실 질	명 목	실 질
조 사 가구수	474		1,296		724		422	
가 구 당 인원수	3.13		3.93		4.34		3.93	
가 구 당 취업인원수	1.37		1.30		1.47		1.86	
소 득	1107.4	953.8	1299.4	1119.1	1519.4	1308.7	1534.7	1321.9
· 근 로 소 득	902.2	777.1	1130.8	974.0	1304.9	1123.9	1269.4	1093.4
· 가 구 주 소 득	747.0	643.4	1011.0	870.8	1132.5	975.5	922.0	794.1
· 가 구 원 소 득	155.2	133.7	119.8	103.2	172.4	148.5	347.4	299.2
· 기 타 소 득	205.2	176.7	168.7	145.3	214.5	184.8	265.2	228.4
· 사 업 소 득	23.2	20.2	40.4	34.8	42.7	36.8	47.5	40.9
· 재 산 및 이 전	182.0	156.8	128.3	110.5	171.8	148.0	217.8	187.6
가 계 지 출	790.2	680.6	921.7	793.9	1186.9	1022.3	1216.7	1048.0
· 소 비 지 출	726.3	625.6	823.5	709.3	1058.7	911.9	1082.3	932.2
· 비 소 비 지 출	63.9	55.0	98.2	84.6	128.2	110.4	134.4	115.8
가 처 분 소 득	1043.5	898.8	1201.2	1034.6	1391.2	1198.3	1400.3	1206.1
· 흑 자 액	317.2		377.7		332.5		318.0	
· 흑 자 율 (%)	30.4		31.4		23.9		22.7	
· 평 균 소 비 성 향	69.6		68.6		76.1		77.3	

주요 경제 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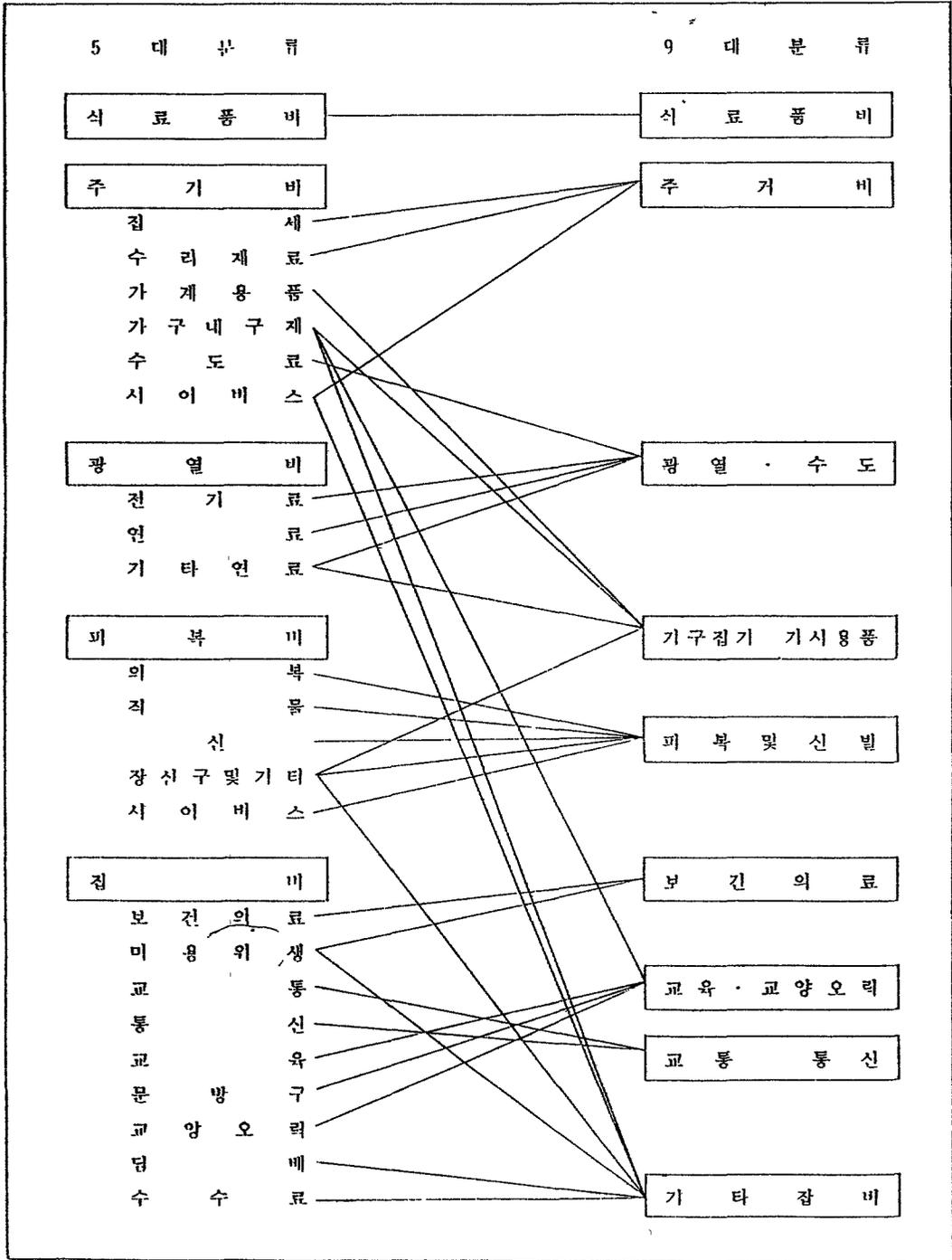
연 도	1인당 GNP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실 업*율	임금상승률	
	(US \$)	(실 질)	(1990=100)		(명목)	(실질)
1963	100	9.1	20.2	8.1	-	-
64	103	9.6	29.6	7.7	-	-
65	105	5.8	8.3	7.3	-	-
66	125	12.7	11.8	7.1	-	-
67	142	6.6	10.5	6.1	-	-
68	169	11.3	10.7	5.0	-	-
69	210	13.8	11.8	4.7	-	-
1970	252	7.6	16.3	4.4	-	-
71	289	8.6	13.2	4.4	15.4	1.2
72	319	5.1	11.7	4.5	17.5	5.1
73	396	13.2	3.3	3.9	11.5	8.2
74	542	8.1	24.7	4.0	31.9	6.1
75	594	6.4	24.9	4.1	29.5	3.3
76	803	13.1	15.4	3.9	35.5	17.6
77	1,012	9.8	10.2	3.8	32.1	20.1
78	1,396	9.8	14.4	3.2	35.0	17.9
79	1,644	7.2	18.2	3.8	28.3	8.5
1980	1,592	△ 3.7	28.8	5.2	23.4	△ 4.1
81	1,734	5.9	21.5	4.5	20.7	△ 0.7
82	1,824	7.2	7.1	4.4	15.8	8.1
83	2,002	12.6	3.4	4.1	11.0	7.4
84	2,158	9.3	2.3	3.8	8.7	6.3
85	2,194	7.0	2.4	4.0	9.2	6.6
86	2,505	12.9	2.7	3.8	8.2	5.3
87	3,110	13.0	3.0	3.1	10.1	6.9
88	4,127	12.4	7.1	2.5	15.5	7.8
89	4,994	6.7	5.7	2.6	21.1	14.5
1990	5,659	9.0	8.6	2.4	18.8	9.4
91	6,518	8.4	9.3	2.3	17.5	7.5
92	6,749	4.7	6.2	2.4	15.2	8.5

각국의 앵겔계수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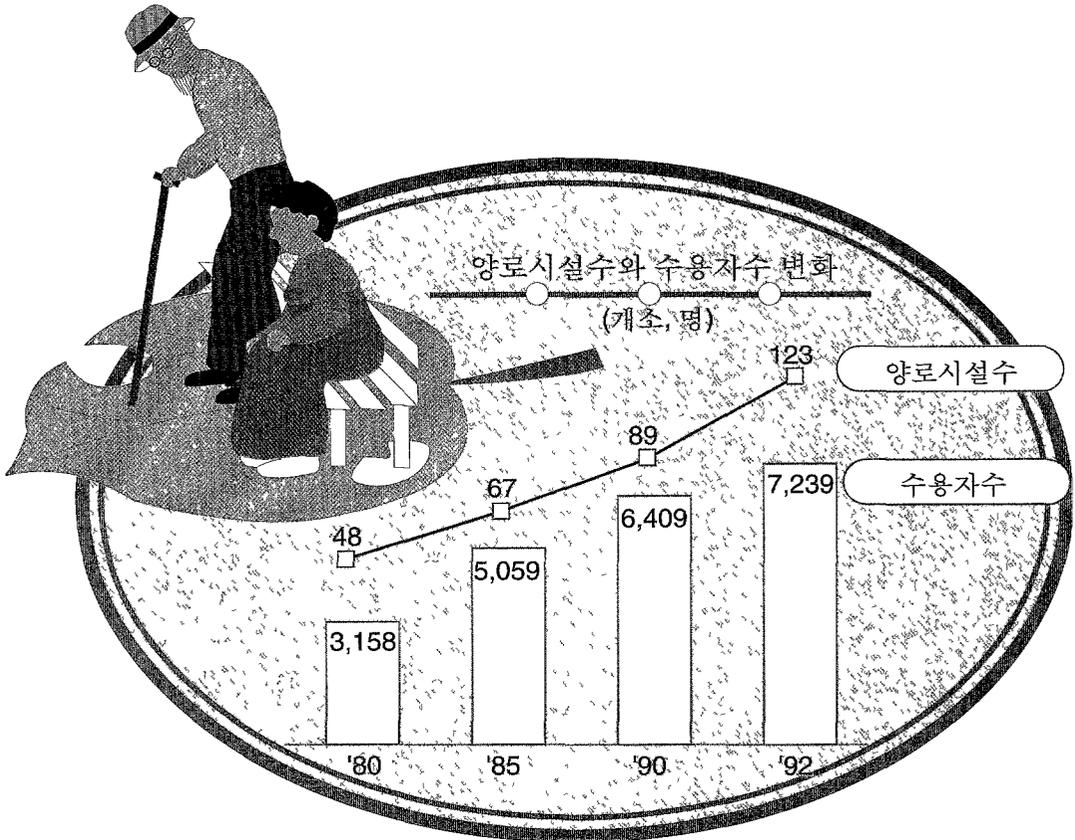
구 분	한 국	일 본	대 만	미 국
1970	46.5	32.2	52.5	-
1971	47.7	31.4	-	-
1972	47.9	31.0	47.8	-
1973	48.7	30.1	-	-
1974	50.5	30.8	49.4	-
1975	48.9	30.0	-	17.8
1976	47.6	30.1	46.4	-
1977	46.9	29.3	43.9	-
1978	45.1	28.9	42.9	-
1979	42.3	27.9	41.0	-
1980	42.6	27.8	40.4	15.7
1981	42.3	27.5	39.4	-
1982	41.3	26.7	38.7	-
1983	39.5	26.5	38.9	-
1984	38.5	26.1	38.8	-
1985	37.7	25.7	38.2	13.9
1986	36.4	25.5	37.5	-
1987	35.5	24.8	36.5	13.4
1988	34.9	24.4	35.0	-
1989	32.4	24.3	33.7	-
1990	32.5	24.1	32.3	-
1991	31.8	24.0	30.9	-
1992	30.4	22.4	-	-

- 주 : 1. 도시가계연보. 통계청  
 2. Report on the Survey of Personal Income Distribution in Taiwan Area of the Republic of China  
 3. 세계속의 한국경제. 한국은행  
 4. 가계조사연보. 총무청 통계국

[ 5 대 및 9 대 분류 대비표 ]



# '93년 한국의 사회지표



「양로시설은 '80년에 비해 2.6배, 수용자수는 2.3배 증가하여 노령화 및 핵가족화 추세에 따라 점차 노인 복지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 자료중에서 -

1993년도  
한국의 사회지표

1994. 1

통계조사국 사회통계과

# I. 한국의 사회지표 개요

## 1. 작성 목적

사회지표는 우리가 처해 있는 사회적 상태를 총체적이고도 집약적으로 나타내어 생활의 양적인 측면은 물론 질적인 측면까지도 측정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전반적인 복지정도를 파악가능하게 하여 주는 척도임

## 2. 연 력

사회통계 체계화에 관한 UN의 권고에 의거 1975년부터 한국개발연구원과 공동으로 사회지표에 관한 연구조사 사업을 수행하여 1978년에 350개 지표를 최초로 체계화 하였고, 이것을 토대로 1979년에 128개 지표를 작성하여 최초로 공표하였음 1987년에는 전반적인 사회여건의 변화를 반영하여 지표체계를 개선, 기존의 8개 부문 350개 개별지표를 9개 부문 468개로 확대개편하여 이를 기초로 1988년에 243개 지표를 작성하였고 1993년에는 285개 지표를 작성하였음.

## 3. 지표 체계

한국의 사회지표는 인구, 소득·소비, 고용·노사, 교육, 보건, 주택·환경, 사회, 문화·여가, 공안의 9개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음

<'93 사회지표의 부문별 지표체계>

	총 지표 수		사회통계
	총 계	기존통계	
총 계	285	194	91
1 인 구	17	17	-
2. 소득·소비	14	10	4
3 고용·노사	49	36	13
4 교 육	40	31	9
5 보 건	33	21	12
6 주택·환경	53	34	19
7. 사 회	24	15	9
8 문화·여가	26	7	19
9 공 안	29	23	6

#### 4 작성방법

- 사회지표는 크게 두가지 방법으로 작성되고 있는데 각 통계기관에서 작성한 기존통계가 있는 경우는 이를 통계적으로 재분류하거나 가공하여 이용하고 있고 기존통계로 작성할수 없는 주관적 지표 및 주요 관심부문 지표는 통계청에서 매년 "사회통계조사"를 실시하여 작성함
- 사회통계조사는 3~5년 주기로 조사항목을 바꾸어 가면서 매년조사함
  - '84년까지는 평균 5개정도의 조사항목을 대상으로 4~5개 부문을 선정조사
  - '85년이후 깊이있는 조사를 위해 2~3개 부문을 선정하고 조사항목을 평균 15개 정도로 확대함.

< 사회지표 부문별 사회통계조사부문 >

	인구	소득·소비	고용·노사	교육	보건	주택·환경	사회	문화·여가	공안
1979					○	○	○	○	
1980		○	○		○	○		○	
1981		○				○			
1982			○	○	○	○			
1983			○		○	○	○	○	
1984			○	○		○	○	○	
1985			○					○	
1986		○			○				
1987				○		○			
1988			○				○		○
1989		○			○				
1990				○				○	
1991			○				○		○
1992					○	○			
1993				○				○	

※ 인구부문은 인구주택 총조사 자료이용

## II. '93년 한국의 사회지표 요약

### 인 구

- '93년 7월 1일 우리나라의 총인구는 44,056천명이며 가족계획사업등 인구증가 억제 정책 및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출생률 및 사망률은 모두 감소함
- 인구구조는 출산을 감소로 인해 14세이하 유년인구의 감소폭이 큰 반면 주된 생산가능연령인구인 15세이상 ~ 65세미만의 비중이 커짐에 따라 노령화 추세에도 불구하고 부양비는 '80년 60.7%에서 '93년 42.3%로 감소함

### 소득·소비

- '92년 1인당 GNP는 6,749달러로 '80년(1,592\$)에 비해 4배의 증가를 보였으며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조세부담률 및 국민저축률도 증가하는 추세임
- '92년 도시근로자의 가계소득은 월평균 1,356천원으로 '80년(234천원)에 비해 6배 증가하였으며, 도시근로자 가계소득이 농가소득(1,209천원)보다 많아, 농가에 대한 도시근로자 소득비율이 112.2로 높아졌음.
- 월평균 소비지출은 도시가구가 942천원, 농가 837천원으로 '80년에 비해 각각 5.2배, 4.7배로 늘어났음.
  - o 앵겔계수는 '92년에 도시가구 30.0%, 농가 23.3%로 나타났음

### 고용·노사

- 공업화의 진전으로 농림어업 취업자 비중이 '80년 34.0%에서 '92년 16.0%로 낮아진 반면 사회활동자본 및 기타서비스업은 43.5%에서 58.5%로 높아졌음
- 여성의 출산을 감소와 사회활동기회의 확대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80년 42.8%에서 '92년 47.3%로 증가하였으나 미국(56.0%), 일본(50.7%)에 비해서는 아직도 낮은편임
  - o 특히 전문직과 사무직 종사자의 비중이 두드러짐
- 평균수명의 연장에 따라 55세이상 고령취업자의 비중이 14.9%로 점차 높아지는 추세임
- 소득수준의 향상과 노사분규의 영향 등으로 평균 근로시간은 제조업기준 '80년 53.1시간에서 '92년 48.7시간으로 감소했으나 이는 일본(38.8시간), 미국(41.0시간)에 비해서는 아직도 많은편임

## 교육

- 초·중·고교의 학령기인구 감소로 전체 학생인구의 비율은 '80년 27.7%에서 '93년 24.0%로 감소추세이나, 졸업정원제의 영향으로 인구만명당 대학생 수는 '80년 157명에서 '93년 379명으로 많아졌음
- 학급당 학생수는 국민학교 38.8명, 중학교 48.6명으로 지난 '80년(각각 51.5명, 65.5명)보다 크게 감소했으며 교원 1인당학생수는 국민학교 31.2명, 중학교 24.8명으로 '80년의 각각 47.5명, 45.1명에 비해 감소함으로써 학교교육 여건이 개선되었음
  - o 여교사비율은 국민학교 53.7%, 중학교 48.5%, 고등학교는 인문 21.6%, 실업 25.4%로 점차 높아지는 추세임
- '93년 국민학교 졸업생의 중학진학률은 99.9%, 중학생의 고교진학률은 98.2%로 고교까지 진학이 일반화되고 있으며, 대학진학률도 '80년 27.2%에서 '93년 38.4%로 높아졌음.
  - o 특히, 유치원 취원율은 35.4%로 '80년 4.1%에 비해 8배이상 높아졌음
- 졸업생의 취업률은 '85년까지는 대학교 졸업생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그 이후에는 전문대학 졸업생이 가장 높게 나타났음

## 보건

- 식생활의 변화로 쌀소비량은 계속 줄어드는 반면 쇠고기, 돼지고기의 소비량은 대폭 늘어났음
  - o 국민의 영양섭취가 늘어나 국민 1인당 평균열량 공급이 '80년 2,485Kcal에서 '91년 2,883Kcal로 늘어났음
- 영양섭취의 증가로 청소년의 신장, 체중등 체격이 크게 향상되었음
  - o 10세 남아의 경우 신장은 '80년 134.4cm에서 '92년 139.5cm로, 체중은 29.3kg에서 34.4kg으로 늘어났음
- '92년 의사 1인당인구는 902명이었으며 한의사와 약사 1인당인구도 각각 6,384명과 1,104명으로 점차 줄어드는 추세이며 병상당인구도 '80년 1,001명에서 379명으로 감소하였음

## 주택·환경

- '92년에 건설된 주택은 575천호로 '80년의 212천호에 비해 3배가량 늘어났으며 GNP에서 차지하는 주택투자율도 '80년 5.9%에서 '92년 8.2%로 높아졌음
- 상수도보급률은 '80년의 54.6%에서 '92년 81.6%로, 도로포장률은 33.2%에서 80.8%로, 전화보급률은 7.1%에서 35.7%로 높아졌음
  - o 자동차 보급에 있어서는 '80년의 249천대에서 '92년 3,461천대로, 인구 100명당 대수는 '80년 0.7명에서 '92년 7.9명으로 크게 증가하였음

## 사회복지

- 근로능력은 있으나 자활을 조성하기 위한 자활보호대상자는 '85년 이후 계속 줄어든 반면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능력이 없는 거택보호 및 시설보호 대상자는 증가추세에 있음
- 양로시설은 '80년 48개소에 비해 123개소로 2.6배, 수용자수는 3,158명에서 7,239명으로 2.3배 증가하여 노령화 및 핵가족화 추세에 따라 점차 노인복지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고 있음
  - o 장애인 수용시설은 '80년의 90개소에 비해 199개소로 2.2배 증가하였음.

## 문화·여가

- 공공 도서관수는 '80년 277개에서 '92년 662개로 늘어났으며 좌석수도 10.3에서 41.1로 증가하였음
  - o 이용자수는 인구만명당 '80년 2,842명에서 '92년 7,430명으로 증가하였음
-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은 '85년 21.4㎡에서 '92년 17.9㎡로 감소함
  - o 그러나 1인당 근린공원 면적은 '85년 5.1㎡에서 '92년 6.2㎡로 약간 증가하였음.

## 공안

- 주요범죄중 절도는 '80년 97,007건에서 '92년 77,094건으로 줄었으며 살인, 강간, 폭행·상해등 흉악범죄는 증가하였음
  - o 살인, 강간, 폭행·상해의 강력범죄 재범률이 계속 증가추세를 보여 '92년 50%를 상회하였음
  - o 소년범죄비율은 '80년 33.1%에서 '92년 31.1%로 줄어들었으며, 다만 절도에 있어서 소년범죄는 증가하는 추세임
- 자동차의 급격한 보급확대로 자동차사고 발생이 257천건으로 '80년 84천건에 비해 3.1배, 사망자수도 인구 10만명당 14.7명에서 26.7명으로 증가하였으며 교통사고 뺑소니 검거율은 '80년 34.3%에서 '92년 50.8%로 크게 증가하였음

### Ⅲ. '93년 한국의 사회지표 세부내용

#### 1 인 구

- 1993년 7월 1일 우리나라 총인구는 44,056천명임
- 출생률은 가족계획사업등 인구증가억제 정책과 사회경제적 변화의 영향으로 '80년 23.4에서 '92년 15.4로 감소하였으며 사망률은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80년 6.7에서 '92년 5.8로 감소하였음

<인 구 동 태 >

단위 천명당

	총 인 구 (천명)	출 생 률	사 망 률	자연증가율
1980	38,124	23.4	6.7	16.7
1985	40,806	16.4	6.3	10.1
1990	42,869	15.5	6.0	9.5
1992	43,663	15.4	5.8	9.6
1993	44,056	-	-	-

산식 · 출생률 = (년간 출생아수/추계인구) × 1,000  
 사망률 = (년간 사망자수/추계인구) × 1,000

자료 통계청, 『추계인구』

- 우리나라의 1985~1991년 동안 연평균 인구증가율은 1.0%로 싱가포르, 필리핀 보다는 낮으나, 일본 및 서구선진국에 비하여 높은 편임 인구밀도는 km<sup>2</sup>당 437명으로 비교적 높은 나라에 속함

<인구 및 인구증가율>

	연앙추계인구(100만명) 1992	연평균인구증가율(%) 1985~1991	인구밀도(km <sup>2</sup> 당명) 1991
한 국	43.66	1.0	437
일 본	124.34	0.4	328
미 국	255.02	1.0	26
프 랑 스	57.37	0.6	103
싱가포르	2.81	1.3	4,471
필 리 핀	64.26	2.3	210

자료 UN, 『인구통계연감』, 『통계월보각호』

인구구조는 출산을 감소로 인해 14세이하 유년인구의 감소폭이 큰 반면 주된 생산가능연령인구인 15세이상~65세미만의 비중이 커짐에 따라 노령화 추세에도 불구하고 부양비율은 크게 감소하고 있음

<부양비 및 노령화지수>

	단위 %			
	총부양비	유년부양비	노년부양비	노령화지수
1980	60.7	54.6	6.1	11.2
1985	52.5	46.0	6.5	14.2
1990	44.6	37.4	7.2	19.4
1993	42.3	34.6	7.6	22.0

산식 총 부양비 =  $(0\sim 14\text{세인구} + 65\text{세인구이상} / 15\sim 64\text{세인구}) \times 100$   
 유년부양비 =  $(0\sim 14\text{세인구} / 15\sim 64\text{세인구}) \times 100$   
 노년부양비 =  $(65\text{세이상인구} / 15\sim 64\text{세인구}) \times 100$   
 노령화지수 =  $(65\text{세이상인구} / 0\sim 14\text{세인구}) \times 100$

자료 통계청, 『추계인구』

우리나라의 부양비율은 미국, 프랑스등 선진국에 비해서 낮음

o 특히, 노년부양비의 비중이 낮아서 경제성장 잠재력은 큼

<부 양 비>

	단위 %			
	연 도	총부양비	유년부양비	노년부양비
한 국	1990	44.6	37.4	7.2
일 본	1990	43.4	26.1	17.3
미 국	1990	51.9	32.9	19.0
프 랑 스	1991	52.1	30.4	21.6
싱가포르	1990	41.4	32.9	8.5
타 이	1991	56.1	49.9	12.4

자료 UN, 『통계월보각호』

## 2. 소득·소비

- 1992년 국민총생산은 230조원(경상가격)으로 1980년 37조에 비해 약 6배로증가  
 o 1인당 GNP도 6,749달러로 '80년 1,592달러에 비해 높은성장을 보였고, 조세 부담률 및 저축률도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

<국민총생산, 조세부담률 및 국민저축률>

	G N P		1인당 G N P		조세부담률 (%)	국민저축률 (%)
	(10억원)	10억 \$	천 원	\$		
1980	36,750	61	968	1,592	17.9	23.1
1985	78,088	90	1,910	2,194	17.3	29.1
1990	171,488	242	4,007	5,659	19.4	36.0
1992 <sup>P)</sup>	229,939	295	5,270	6,749	19.4	34.9

산식 · 조세부담률 = (조세부담액/GNP) × 100  
 국민저축률 = (국민저축/개인가처분소득) × 100

자료 재무부, 『재정금융통계』  
 한국은행, 『국민계정』

- 우리나라의 1인당 GNP는 '92년 6,749달러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 홍콩, 싱가포르보다는 낮은 수준임

<1인당 국민총생산>

		단위 \$			
		1989	1990	1991	1992
한	국	4,994	5,659	6,518	6,749
일	본	23,493	23,898	27,196	29,794
미	국	21,219	22,105	22,537	
영	국	14,879	17,186	17,612	
홍	콩 <sup>1)</sup>	11,254	12,578	14,336	16,507
싱	가포르	11,003	11,774	14,782	16,582

1) 1인당 GDP

자료 국제통화기금, 『IMF월보 각호』

1992년 도시근로자 가계소득은 월평균 1,356천원으로 1980년 234천원에 비해 약 6배로 증가하였음.

- 도시근로자 가계소득이 농가보다 많아, '92년의 농가에 대한 도시근로자 소득비율은 112.2로 나타났음

〈도시·농촌가구의 소득〉

단위 천원, %

	도시근로자가구 (A)	농가 (B)	A / B
1980	234	224	104.3
1985	424	478	88.7
1990	943	919	102.7
1992	1,356	1,209	112.2

자료 : 통계청, 『도시가계연보』  
농림수산부, 『농가경제통계』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소비지출도 크게 늘어나 1980년에 비해 도시가구는 5.2배, 농가는 4.7배로 증가하였음

- 또한 소득수준이 늘어남에 따라 식료품 비율인 엔겔계수는 도시가구는 '80년 42.9%에서 '92년 30.0%, 농가는 36.8%에서 23.3%으로 모두 크게 낮아짐

〈도시·농촌가구의 소비지출〉

단위 천원, %

	도시가구		농가	
	월평균 소비지출	식료품 비율	월평균 소비지출	식료품 비율
1980	181	42.9	178	36.8
1985	317	37.5	391	28.4
1990	686	32.0	686	23.5
1992	942	30.0	837	23.3

자료 : 통계청, 『도시가계연보』  
농림수산부, 『농가경제통계』

### 3 고용·노사

#### 가 노동력 수급 및 실업률

- 경제활동인구는 '80년 14,431천명에서 '92년 19,384천명으로 34.3% 증가함
- 실업률은 '80년의 5.2%에서 '92년에 2.4%로 낮아졌음

〈노동력 수급 및 실업률〉

	15세이상 인구	경제활동 인구	취업자	실업자	단위 천명, %	
					실업률	비경제활동 인구
1980	24,463	14,431	13,683	748	5.2	10,032
1985	27,553	15,592	14,970	622	4.0	11,961
1990	30,801	18,487	18,036	451	2.4	12,314
1992	31,851	19,384	18,921	463	2.4	12,467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나 경제활동 참가율

- 여성의 출산을 감소와 사회활동 기회 확대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가 증대됨

〈경제활동 참가율〉

	경제활동 참가율	단위 %		성별경제활동 참가율비
		남	여	
1980	59.0	76.4	42.8	56.0
1985	56.6	72.3	41.9	57.9
1990	60.0	73.9	47.0	63.6
1992	60.9	75.3	47.3	62.7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 그러나 아직 미국, 일본등에 비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낮은 편임

〈주요국의 경제활동 참가율〉

단위 %

	연 도	경 제 활 동 참 가 율		
		계	남	여
한 국	1992	60.9	75.3	47.3
일 본	1992	64.0	78.0	50.7
미 국	1992	63.8	72.2	56.0
필리핀	1992	65.0	82.6	47.8

자료 ILO, 『노동통계연감』

다. 취업구조

- 경제 개발에 따른 공업화의 진전으로 농림어업 취업자 비중이 1980년의 34.0%에서 1992년에는 16.0%로 계속 낮아지는 추세에 있으며, 제조업은 21.6%에서 25.2%로 높아졌고,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분야 종사자도 43.5%에서 58.5%로 증가하였음

〈산업별 취업자 구성비〉

단위 %

	계	농림·어업	광공업	제조업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
1980	100.0	34.0	22.5	21.6	43.5
1985	100.0	24.9	24.4	23.4	50.6
1990	100.0	18.3	27.3	26.9	54.4
1992	100.0	16.0	25.5	25.2	58.5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외국의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 볼때 우리나라의 취업구조는 농림·어업의 비중이 높고, 그중 독일은 광공업의 비중이 큰 편임

<주요국의 취업구조>

		단위 %		
	연 도	농림·어업	광 공 업	SOC 및 기타
한 국	1992	16 0	25 5	58 5
일 본	1992	6 4	24 5	69 2
미 국	1992	2 9	17 5	79 6
독 일	1991	3.5	32 4	64 1

자료 ILO, 『노동통계연감』

여성의 교육기회 확대 및 사회인식의 변화로 인하여 여성취업자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임 특히 전문직과 사무직 종사자의 비중이 두드러짐

<직업별 여성취업자 비율>

		단위 %					
	계	전문, 기술, 행정, 관리 직종사자	사무 관련 직종사자	판매 종사자	서비스직 종사자	농림, 수산업 종사자	생산, 운수, 장비 운전자 단순 노무자
1980	38 2	25 4	32 7	43 7	58 1	43 8	27 6
1985	39 0	29 1	34 5	46 3	61 2	43 7	27 5
1990	40 7	36 0	40 1	47 5	60 9	45 7	30 2
1992	40 2	38 5	40 4	47 3	61 8	46 0	27 3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평균 수명의 연장에 따라 고령취업자의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임

<고령 취업자 비율>

단위 . 천명, %

	총취업자수	55세 이상 취업자 비율	성별	
			남	여
1980	13,683	10.8	6.7	4.1
1985	14,970	11.3	6.6	4.7
1990	18,036	13.7	7.9	5.9
1992	18,921	14.9	8.7	6.2

산식 : 고령근로자 비율 = (55세이상 취업자/총취업자) × 100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고령인구의 경제활동 참가는 미국, 필리핀보다는 높으나 일본에 비해서는 적은 편임.

<주요국의 고령취업자 비율>

단위 . 천명, %

국	연 도	총취업자수	55세 이상 취업자 비율	성별	
				남	여
한 국	1992	18,921	14.9	8.7	6.2
일 본	1991	63,670	21.0	12.9	8.1
미 국	1991	125,296	12.5	7.1	5.4
필리핀	1990	22,530	14.2	9.1	5.1

자료 : ILO, 『노동통계연감』

라. 근로시간

- 소득수준의 향상과 노사분규의 영향등으로 평균근로시간이 '80년 51.6시간에서 '92년 47.5시간으로 감소함

<주당 평균 근로시간>

	평 균	광 업	제조업	전기·가스 수도사업	건설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1980	51.6	42.0	53.1	48.6	50.4	47.2
1985	51.9	41.4	53.8	50.0	49.0	46.6
1990	48.2	36.2	49.8	47.8	45.8	44.5
1992	47.5	39.5	48.7	49.2	46.0	44.8

자료.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

- 근로시간이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으나 외국과 비교해 볼때 아직은 근로시간이 비교적 긴 나라에 속함.

<외국의 주당평균 근로시간>

(1992년, 제조업)

한 국	일 본	미 국	독 일	홍 콩	싱가포르	멕시코
48.7	38.8	41.0	38.9	43.0	48.7	45.7

자료 · ILO, 『노동통계연감』

마. 임금

- '80년대 하반기 임금수준의 향상으로 평균임금이 '80년 176,058원에서 '92년 869,284원으로 증가함.

<임금수준>

	평균	광공업	단위 원	
			제조업	사회 및 개인 서비스업
1980	176,058	150,328	146,684	275,280
1985	324,283	275,082	269,652	484,407
1990	642,309	595,850	590,760	826,907
1992	869,284	805,786	798,548	1,079,363

자료 .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

4 교육

가 학생현황 및 주요지표

- 초·중·고등학교 학령기 인구의 감소로 학생수와 학생비율은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졸업정원제의 영향으로 인구만명당 대학생수는 '80년의 157명에서 '93년 379명으로 크게 증가함

<학생현황>

	총학생수	단위 명, %		대학생수	대학생수 (인구만명당)
		학생비율	여학생비율		
1980	10,568,247	27.7	45.9	597,936	157
1985	11,151,871	27.2	45.7	1,260,350	309
1990	11,007,043	25.7	45.7	1,466,862	342
1993	10,561,409	24.0	45.6	1,669,823	379

산식 . 학생비율 = (총학생수/추계인구) × 100

자료 . 교육부, 『교육통계연보』

학교 교육의 여건도 크게 향상되어, 교원1인당학생수 및 학급당 학생수가 '80년에 비해 크게 감소함

<교원 1인당 학생수>

	국민학교	중학교	인문고	실업고
1980	47.5	45.1	33.9	32.6
1985	38.3	40.0	31.6	30.0
1990	35.6	25.4	25.4	23.4
1993	31.2	24.8	21.4	20.5

자료 : 교육부, 『교육통계연보』

<학급당 학생수>

	국민학교	중학교	인문고	실업고
1980	51.5	65.5	59.9	59.6
1985	44.7	61.7	58.0	55.5
1990	41.4	50.2	53.6	51.5
1993	38.8	48.6	48.1	47.1

자료 : 교육부, 『교육통계연보』

그러나 아직 교원1인당 학생수는 일본, 미국등 선진국에 비하여 많은 편임

<주요국의 교원1인당 학생수>

단위 : 명

	연 도	초 등	중 등	고 등
한 국	1991	34	24	23
일 본	1990	21	17 <sup>1)</sup>	10 <sup>1)</sup>
프 랑 스	1990	17	12 <sup>1)</sup>	24 <sup>1)</sup>
영 국	1989	20	13	14
싱가포르	1989	26	22	11

1)1989

자료 : 유네스코, 『통계연감』

교사중에서 여교사의 비율이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프랑스, 영국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임.

<여교사 비율>

단위 : %

	국민학교	중학교	인문고	실업고	대학교
1980	36.8	32.8	17.2	17.0	15.7
1985	43.1	38.5	19.6	21.4	16.5
1990	50.1	46.5	22.1	24.3	17.6
1993	53.7	48.5	21.6	25.4	19.5

자료 : 교육부, 『교육통계연보』

<주요국의 여교사 비율>

	연 도	단 위 명		
		초 등	중 등	고 등
한 국	1991	52	35	31
일 본	1990	58	29 <sup>1)</sup>	16 <sup>1)</sup>
프 랑 스	1989	71	57	27
영 국	1989	78	55	20
싱가포르	1989	71	63	21

1) 1989

자료 · 유네스코, 『통계연감』

나 진학 및 취업률

- 중학교 진학률은 99.9%, 고등학교 진학률은 98.2%로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거의 대부분이 고등학교에 진학하며, 대학진학률도 38.4%임

<졸업생의 진학률>

	단 위 %		
	국민학교의 중학 진학률	중학교의 고교 진학률	고등학교의 대학 진학률
1980	95.8	84.5	27.2
1985	99.2	90.7	36.4
1990	99.8	95.7	33.2
1993	99.9	98.2	38.4

산식 · 진학률 = (상급학교 진학자수/졸업자수) × 100

자료 · 교육부, 『교육통계연보』

특히 유치원 취원율은 '80년 4.1%에서 '93년 35.4%로 8배이상 높아져 우리나라 4~5세 인구의 3명중 1명정도가 유치원에 다니고 있음  
 ○ 그러나 교원 1인당 아동수는 20명을 약간 상회하고 있음

<유치원 취원율>

	유치원수 (개소)	유치원아동수 (명)	유치원취원율	교원수 (명)	1인당 아동수
			(%)		(명)
1980	901	66,433	4.1	3,339	19.9
1985	6,242	314,692	18.9	9,281	33.9
1990	8,354	414,532	31.4	18,511	22.4
1993	8,515	469,380	35.4	22,207	21.1

산식 유치원 취원율 = (유치원아동수/4~5세인구)

자료 교육부, 『교육통계연보』

졸업생의 취업률을 볼때 '85년까지는 대학교 졸업생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그 이후에는 전문대학 졸업생이 가장 높게 나타났음

<졸업생의 취업률>

	단위 %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교
1980	37.7	40.8	65.0
1985	41.7	44.2	45.7
1990	50.7	58.6	52.2
1993	57.5	63.5	51.8

자료 교육부, 『교육통계연보』

## 5. 보 건

### 가. 기대여명

- 평균수명은 '91년 남자 67.7세, 여자 75.7세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 <기 대 여 명>

	단 위 년			
	남		여	
	0세	65세	0세	65세
1970	59.8	9.6	66.7	13.8
1979	62.7	9.9	69.1	14.1
1989	66.7	11.9	74.9	16.0
1991	67.7	12.3	75.7	16.1

자료 통계청

- 우리나라의 평균수명은 보건·의료, 사회보장제도 등이 발달된 일본, 미국 영국등에 비해 낮게 나타났으며, 특히 일본에 비해 남자 8.7세, 여자 7.1세 낮음

#### <주요국의 기대여명>

	연 도	단 위 년			
		남		여	
		0세	65세	0세	65세
한 국	1991	67.7	12.3	75.7	16.1
일 본	1991	76.4	16.6	82.8	21.0
미 국	1989	71.9	15.3	78.9	19.2
영 국	1991	73.3	14.3	78.8	18.0
싱가포르	1990	72.3	14.4	77.5	17.2

자료 WHO, 『통계연감』

나. 영양섭취

- 국민의 영양섭취가 늘어나 국민 1인당 평균열량 공급이 크게 늘어났으며, 단백질 섭취량도 증가추세에 있음

<영양공급(1일 1인당)>

	평균열량 (Kcal)	단백질 (g)	식물성(g)	동물성(g)
1980	2,485	73.6	53.5	20.1
1985	2,687	86.6	58.1	28.5
1990	2,853	89.3	56.1	33.2
1991	2,883	89.7	56.9	32.8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식품수급표』

- 평균열량 및 단백질 섭취량을 국제비교 하면 미국, 영국등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임

<외국의 평균열량 및 단백질 공급량(1일 1인당)>

		연 도	평균열량(Kcal)	단백질(g)
한	국	1990	2,853	89.3
일	본	1989	2,956	96.2
미	국	1989	3,671	110.8
영	국	1989	3,149	89.0
태	국	1989	2,316	49.1
말레이시아		1989	2,774	58.0

자료 UN, 『통계연감』

우리나라의 주식인 쌀의 소비량이 계속 줄어드는 반면 쇠고기, 돼지고기 등 육류소비량은 계속 늘어남

<쌀 및 육류소비량 (1일 1인당)>

	쌀 소비량		쇠고기 소비량	돼지고기 소비량	단위 g 달걀 소비량
	농가	비농가			
1980	412.5	343.7	7.1	17.3	17.9
1985	449.8	323.3	7.9	23.0	19.7
1990	439.3	307.1	11.3	32.3	25.2
1992	423.7	290.9	14.2	36.7	26.6

자료 농림수산부, 『양곡소비량조사』  
 축협중앙회, 『축산물가격 및 수급자료』

영양섭취의 증가로 청소년의 신장, 체중 등 체격이 크게 향상되었음

- 신장은 10세 남아의 경우 '80년의 134.4cm에서 '92년 139.5cm로 커지고
- 체중은 '80년의 29.3kg에서 '92년 34.4kg으로 늘어났음

<청소년의 신장, 체중>

	단위 cm, kg							
	신장				체중			
	10세		15세		10세		15세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1980	134.4	134.8	162.2	155.7	29.3	29.4	51.9	49.4
1985	136.6	136.8	164.8	156.7	30.8	30.5	53.9	50.2
1990	138.6	139.3	166.8	157.6	33.7	33.2	56.3	51.5
1992	139.5	140.7	167.5	158.1	34.4	34.6	57.5	52.1

자료 교육부, 『교육통계연보』

다 의 료

- 환자수는 '92년 103,759천명으로 '80년의 30,296천명에 비해 3.4배 증가함
- o 입원환자비율은 31.3%로 '80년의 27.9%에 비해 다소 증가하였음

<입원환자비율>

	총환자수	단위 천명		입원환자비율 (%)
		입원환자 연인원	외래환자 연인원	
1980	30,296	8,446	21,850	27.9
1985	60,188	16,358	43,830	27.2
1990	91,161	29,387	61,774	32.2
1992	103,759	32,482	71,276	31.3

산식 입원환자비율 = (입원환자 연인원수/총환자수) × 100

자료 보건사회부, 『보건사회통계연보』

- 의료복지정책에 의한 의료인력 및 병상수의 증가등으로 의사 1인당인구가 감소 추세에 있고 병상당 인구도 크게 줄어드는 경향을 보임

<보건의료인구>

	단위 명			병상당 <sup>1)</sup> 인구
	의사 1인당 인구	한 의사 1인당 인구	약사 1인당 인구	
1980	1,690	12,645	1,565	1,001
1985	1,379	10,770	1,366	549
1990	1,007	7,401	1,155	429
1992	902	6,384	1,104	379

주 1)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에 한함

자료 보건사회부, 『보건사회통계연보』

6 주택·환경

- 주택건설은 '92년 575천호, 주택투자율은 8.2%임

<주택건설 및 투자>

	주택건설수 (천호)	공공	민간	건축물건축허가 연면적(1,000㎡)	주택투자율 (%)
1980	212	106	105	25,727	5.9
1985	227	132	95	38,217	4.4
1990	750	269	481	116,419	8.7
1992	575	195	380	94,647	8.2

산식 주택투자율 = (주택건설투자액/GNP) × 100

자료 : 건설부, 『건설통계편람』  
한국은행, 『국민계정』

- '80년대말 이후 지속적인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해 1992년 도시주택 전세 가격 지수는 '90년 12월말을 기준으로 했을때 '89년 81.6에서 '92년에는 108.3으로 증가하였음

<도시주택 전세가격 지수>

1990. 12 = 100

	계	단독	연립	아파트
1989	81.6	84.3	77.2	77.9
1990	99.8	101.1	98.1	98.2
1992	108.3	105.4	112.6	111.6

자료 : 한국주택은행, 『도시주택가격동향조사』

상수도 보급률은 '80년의 54.6%에서 '92년 81.6%로, 도로포장률은 33.2%에서 80.0%로, 전화보급률은 7.1%에서 35.7%로 크게 높아짐

○ 승용차 보급은 '80년의 249천대에서 '92년 3,461천대로 13.9배 증가함.

<사회간접시설 및 승용차 보급>

	상수도 보급률 (%)	도 로 포 장률 (%)	국 도		전화보급률 (인구100명 당)	승용차 보 급 (천대)	인구100 명당대수
			국 도	지방도			
1980	54.6	33.2	71.6	23.5	7.1	249	0.7
1985	66.6	49.9	76.4	40.5	16.0	557	1.4
1990	78.5	71.5	90.4	65.5	31.0	2,075	4.8
1992	81.6	80.8	96.2	76.2	35.7	3,461	7.9

산식 상수도보급률 = (상수도 급수인구/추계인구) × 100  
 도로 포장률 = (총포장도로/총도로) × 100  
 전화 보급률 = (총전화 가입자수/추계인구) × 100

자료 건 설 부, 『건설통계편람』, 『도로현황조서』  
 한국통신, 『전기통신통계연보』  
 교 통 부, 『교통통계연보』

총에너지소비량은 '80년에 비해 2.5배, 1인당 에너지소비량은 2배로 늘어났으며 전력소비량은 3.5배, 1인당 전력소비량은 858KWH에서 2,639KWH로 3.1배 증가하였음

<최종에너지 및 전력소비량>

	총에너지 소 비 량 (1,000 TOE)	1인당 에너지 소비량 (TOE)	전력소비량	
			(GWH)	1인당 소비량 (KWH)
1980	37,597	1.01	32,724	858
1985	46,998	1.15	50,732	1,243
1990	75,107	1.75	94,383	2,202
1992	94,623	2.17	115,244	2,639

주 . 1TOE = 10<sup>7</sup>kcal, 1GWH = 10<sup>6</sup>KWH

자료 동력자원부, 『에너지통계연보』

7 사회복지

- 근로능력은 있으나 저소득자의 자활을 조성하기 위한 자활보호 대상자는 '85년 이후 계속 늘어감

o 반면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는 사람을 위한 거택보호 및 시설보호대상자는 고령화 추세와 이에대한 정부시책으로 증가함

<공적부조인구>

	생활보호 대상자			의료보호수혜자	
	자활보호	거택보호	시설보호	수혜율(%)	
1980	1,500	282	47	2,142	5.6
1985	1,928	282	63	3,259	7.9
1990	1,835	339	81	3,930	9.2
1992	1,755	338	83	2,687	6.2

산식 의료보호수혜율 = (의료보호수혜자/추계인구) × 100

자료 보건사회부, 『보건사회통계연보』

- 양로시설은 '80년에 비해 2.6배, 수용자수는 2.3배 증가하여 노령화 및 핵가족화 추세에 따라 점차 노인복지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고 있음

o 장애인에 대한 꾸준한 정부시책과 '88년 장애인 올림픽 개최 이후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장애인 수용시설은 '80년에 비해 2.2배 증가하였음

o 가출여성, 윤락여성 및 청소년등에 대한 보호시설은 제자리 걸음을 보였음

<사회복지시설 및 수용자수>

	양로시설		장애인 수용시설		모자보호	부녀직업보	아동복지시설
	시설	수용자	수용시설	수용자			
1980	48	3,158	90	11,281	33	24	314
1985	67	5,059	92	9,326	34	23	290
1990	89	6,409	150	12,759	37	22	287
1992	123	7,239	199	13,382	39	21	287

자료 보건사회부, 『보건사회통계연보』

8 문화·여가

- '92년에 우리나라는 24,783종, 136,746천권의 책을 발행하여 '80년에 비해 종수와 부수에 있어 각각 1.9배, 2.7배씩 증가함. 이는 소득증가와 사회구조의 다원화로 인한 서적수요의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도서 발행 실적>

단위 종, 천권

	1980		1985		1990		1992	
	종 수	부 수	종 수	부 수	종 수	부 수	종 수	부 수
계	13,062	50,407	19,756	78,469	20,903	129,611	24,783	136,746
총	288	469	295	465	197	400	232	752
출	327	572	337	837	621	3,080	608	2,874
판	1,014	2,317	1,438	2,902	1,563	3,860	2,044	4,806
종	1,466	1,968	2,962	3,996	3,142	5,289	2,874	4,662
사	202	310	352	625	328	502	328	537
회	1,272	1,272	1,607	1,512	1,761	1,999	2,948	4,586
학	798	1,682	1,275	3,175	983	3,006	1,130	2,620
예	566	1,480	997	2,933	882	3,185	938	2,033
어	2,389	4,149	4,478	7,441	3,646	7,278	4,654	10,810
문	314	506	878	1,048	657	1,206	953	2,432
역								
사								

자료 대한출판문화협회, 『한국출판연감』

- 공공도서관수는 '80년의 277개에서 '92년 662개로 늘어났으며 좌석수는 인구만명당 10.3좌석에서 41.1좌석으로 증가하였고 이용자수도 인구만명당 2,842명에서 7,430명으로 증가하였음

<공공 도서관 보급률>

	도서관 수	좌석수	장서수		이용자수	
			인구만명당	(천권)	인구만명당	(천명)
1980	277	39,146	10.3	4,265	1,119	10,836
1985	388	83,782	20.5	9,040	2,215	15,981
1990	591	150,615	35.2	13,773	3,219	31,824
1992	662	179,444	41.1	16,428	3,762	32,443

자료 도서관협회, 『한국도서관통계』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은 '85년 21.4㎡에서 '92년 17.9㎡로 감소함 그러나 근린  
공원 면적은 '85년 5.1㎡에서 '92년 6.2㎡로 약간 증가하는 추세임

<1인당 도시공원 면적>

	계	단위 m <sup>2</sup>								
		1인당 면적	자연 공원 수	1인당 면적	근린 공원 수	1인당 면적	어린이 공원 수	1인당 면적	묘지 공원 수	1인당 면적
1985	2,558	21.4	173	15.6	547	5.1	1,816	0.1	22	0.6
1990	4,305	22.1	181	15.2	990	6.0	3,105	0.2	29	0.7
1992	5,486	17.9	178	10.8	1,165	6.2	4,117	0.2	26	0.7

자료 : 건설부, 『건설통계편람』

가구의 소비지출중 여가활용비(교양오락비)에 있어 도시가구는 증가하고 있는  
반면 농가는 감소추세임

<여가활용비 지출률>

	도시가구		농가		B/A (%)
	교양 오락비 (A)	교양 오락비 비율 (%)	교양 오락비 (B)	교양 오락비 비율 (%)	
1980	55,800	2.2	35,755	1.7	64.1
1985	126,468	2.6	41,222	0.9	32.6
1990	364,572	4.4	54,515	0.7	15.0
1992	528,324	4.7	70,165	0.7	13.3

자료 통 계 청, 『도시가계조사』  
농림수산부, 『농가경제통계』

9 공 안

- 주요범죄 발생건수는 '92년 110,522건으로 '80년보다 다소 줄었으나, 이는 절도의 감소에 기인함
  - o 살인, 강간, 폭행·상해등 흉악범은 증가하였음

<주요범죄 발생건수>

단위 건

	주요범죄					
		절 도	살 인	강 도	강 간	폭 행·상 해
1980	125,732	97,007	536	2,374	3,977	21,838
1985	138,102	103,179	600	3,135	5,453	25,735
1990	130,935	95,031	666	4,195	5,519	25,524
1992	110,522	77,094	615	2,549	5,465	24,799

자료 : 대검찰청, 『범죄분석』

- 주요범죄에 있어서 재범률은 전반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으며 특히, 살인, 강간 및 폭행·상해의 강력범죄 재범률이 50%를 넘었음

<주요범죄 재범률>

단위 %

	절 도	살 인	강 도	강 간	폭행·상해
1980	21.3	21.9	23.3	20.5	30.5
1985	32.4	41.1	40.2	35.0	42.6
1990	34.0	44.8	41.2	41.6	49.8
1992	35.1	53.9	46.5	53.0	54.1

자료 : 대검찰청, 『범죄분석』

그러나 살인, 강간등 강력범죄에 있어서 전체 범죄자중 소년이 차지하는 범죄 비율은 계속 줄어드는 추세임

○ 다만, 절도에 있어서는 유흥비, 사행심등으로 인한 소년범죄가 심각함

<소년범죄 비율>

	주요범죄 비율	단위 %				
		절 도	살 인	강 도	강 간	폭행·상해
1980	33.1	42.5	15.1	53.3	40.1	7.3
1985	35.7	45.2	13.0	49.5	42.3	11.2
1990	31.9	47.4	18.2	51.9	35.9	4.5
1992	31.1	50.1	11.8	46.2	19.8	3.5

자료 대검찰청, 『범죄분석』

범죄자의 평균연령이 높아지고 있으며, 폭행·상해는 '80년 33.8세에서 '92년 37.6세로 3.8세 증가하였음

○ 특히 강간은 '80년에 24.5세였던 것이 '92년에는 29.5세로 평균 5세가 늘어났음

<평균연령>

	단위 세				
	절 도	살 인	강 도	강 간	폭행·상해
1980	24.1	29.6	21.1	24.5	33.8
1985	24.1	31.2	21.6	24.4	34.8
1990	24.2	30.8	21.8	26.2	36.5
1992	23.9	31.6	22.5	29.5	37.6

자료 대검찰청, 『범죄분석』

경찰관 1인당 인구수는 '80년 681명에서 '92년 490명으로, 교도관 1인당 1일 평균 수용인원은 '80년 6.8명에서 '92년 5.2명으로 줄어들었음

<경찰관 및 교도관수>

	경찰관수		교도관수	
	경찰관 1인당 인구수	1인당 1일평균 수용인원		
1980	56,003	681	7,185	6.8
1985	59,907	681	8,092	6.4
1990	76,559	560	10,175	5.3
1992	89,092	490	10,515	5.2

자료 : 경찰청, 법무부

폭발적인 자동차 증대에 따라 자동차 사고로 인한 발생건수는 '92년에 257천건 사망자수는 12천명으로서 '80년에 비해 각각 3.1배, 2.1배의 증가를 보였으며, 교통사고 뺑소니 검거율은 '80년 34.3%에서 '92년 50.8%로 크게 증가하였음

<자동차 사고>

	발생건수	사망자수	단위 건, 명, %		
			인구 10만명당 사망자수	부상자수	야기도주 검거율
1980	83,711	5,608	14.7	111,641	34.3
1985	146,836	7,522	18.4	184,420	32.3
1990	255,303	12,325	28.8	324,229	31.7
1992	257,194	11,640	26.7	325,943	50.8

자료 : 경찰청, 『교통사고통계』

우리나라의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률은 34.5로 외국에 비하여 높은 수준이며 일본의 2.7배, 영국의 3.6배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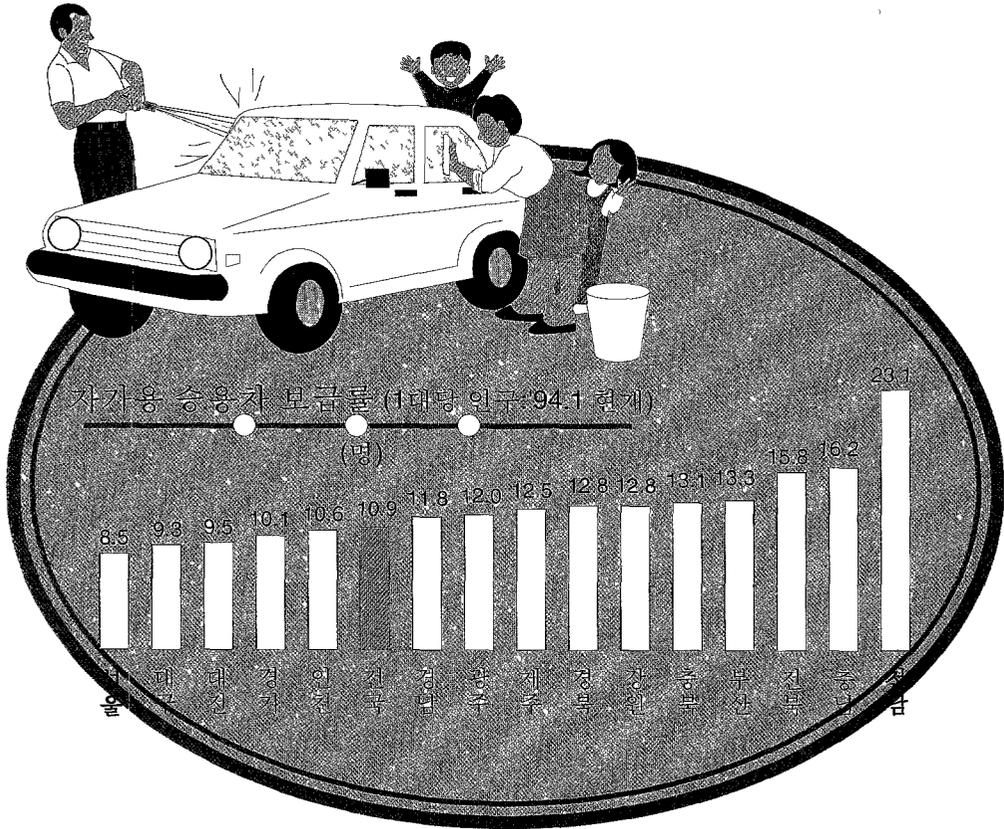
<교통사고 사망률>

	연 도	교통사고 사망자수(명)	사망률(인구 10만명당)
한 국	1992	13,539	34.5
일 본	1991	15,754	12.7
미 국	1989	50,436	20.4
영 국	1991	5,443	9.5
싱가포르	1990	261	9.6

주 한국은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자료임

자료 WHO, 『통계연감』

# 한국통계월보('94년 2월호)에서 본 통계 특징



「전국의 자가용 승용차는 '93. 12월에 400만대를 넘어서 '94 1월 현재로는 412만대를 나타내고 있으며, 33세대당 1대꼴, 인구 11명당 1대꼴로 보급된 것으로 추산된다.」

- 자료중에서 -

한국통계월보('94년 2월호)에서 본

# 통계특징 ( 발 취 )

1994. 3

자료처리국 자료관리과

## 외국인 입국자에 비해 국민출국자 크게 증가

- ☞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수가 '89년도에 200만을 넘어선 이후 '93년말에는 250만을 또다시 넘어섰다. (본문 통계표 p12참조)
- ✱ '92년에 비해 '93년에는 외국인 입국자가 72천명 늘어났으나, 국적별로 보면 대만 국적자가 144천명 크게 줄어든 대신 일본(96천명), 홍콩(49천명), 태국(22천명), 미국(17천명) 국적자등이 다소 늘어났다.
- ✱ '94. 1월중 외국인 입국자를 전년동월과 비교하여 볼 때 일본(21천명), 미국(3천명) 등에서는 늘어났으나, 홍콩(9천명), 싱가포르(1천명) 등에서는 줄어들었다.

### < 외국인 입국자 >

(단위: 천명)

	총 수	일 본	미 국	홍 콩	태 국	대 만	싱가포르
1993	2,571	1,469	341	114	55	162	20
1992	2,499	1,373	324	65	33	306	20
증감인원	72	96	17	49	22	-144	0
1994. 1	178	99	27	4	2	16	1
1993. 1	162	78	24	13	3	15	2
증감인원	16	21	3	-9	-1	1	-1

- ☞ 우리나라 국민 출국자수(재외국민 포함)는 '88년도에 100만을 넘어선 이후 '91년도에 200만을 넘어섰고, '93년말에는 274만명에 이르러, 외국인 입국자수에 비해 증가세가 크게 확대 되고 있다. (본문 통계표 p13 참조)
- ✱ '92년에 비해 '93년의 출국자수는 389천명(재외국민 2천명 증가 포함)이 늘어났는데, 미국(79천명), 일본(53천명), 홍콩(32천명), 필리핀(14천명)등지가 늘어난 대신, 대만(38천명)등지는 줄어들었다.
- ✱ '94. 1월중 내국인 출국자수는 전년동월에 비하여 미국(20천명), 일본(10천명), 홍콩(9천명), 대만(7천명)등을 중심으로 크게 늘어나고 있다.

### < 행선지별 내국인 출국자 >

(단위: 천명)

	총 수	일 본	홍 콩	인도네시아	필리핀	미 국	프랑스	대 만
1993	2,743	1,145	176	37	60	524	38	90
1992	2,354	1,092	144	29	46	445	35	128
증감인원	389	53	32	8	14	79	3	-38
1994. 1	327	107	24	4	11	72	5	12
1993. 1	246	97	15	4	9	52	4	5
증감인원	81	10	9	0	2	20	1	7

☞ 이러한 추이와 관련하여 '93년의 경상수지 전체로는 450백만불 흑자를 보였으나, 이중 무역외수지는 오히려 2,340백만불 적자를 보였다 특히 여행수지는 589백만불 지급 초과를 나타내었다 (본문 통계표 P172~173 참조)

< 경상수지 추이 >

(단위 100만불)

	경상수지	무역수지			무역외수지			여 행		
		계	수출	수입	계	수입	지급	계	수입	지급
1993	450	2,078	81,024	78,946	-2,340	17,858	20,198	-589	2,920	3,509
1992	-4,529	-2,146	75,169	77,316	-2,614	16,010	18,625	-523	2,690	3,213
증감차	.	.	5,855	1,630	..	1,848	1,573		230	296

**산업활동 회복세, 부문별로는 명암 엇갈려**

☞ 경기가 되살아 나면서 산업활동관련 지표들의 증가추이가 두드러지고 있다  
 산업생산지수가 '94 1월들어 '90년기준개편(1990=100) 이후 처음으로 130선을 넘어 선 130.1을 보였고(계절조정 '90년을 기준으로 할 때 산업생산이 30.1%증가), 생산자출하지수도 131.9를 나타내었으며, 제조업 평균가동률도 '91 1월 이후 가장 높은 84.0을 기록하였다 (본문 통계표 p3, p18~19, p26~27 참조)  
 그러나, 산업활동동향을 업종별, 지역별, 생산제품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호조와 부진이 엇갈려 나타나고 있다

- ♣ '90년 신지수 개편 이후 산업생산이 비교적 활발한 업종은 자동차 및 트레일러(계절조정 지수 201.2), 코크스 및 석유정제품(지수172.8), 화합물 및 화학제품(지수 161.6), 사무·계산 및 회계용기기 제조업(지수153.5)등 중공업 분야이며
- ♣ 반면에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업종은 석탄광업(계절조정지수 42.4), 금속광업(지수 51.0)을 비롯하여 가죽·가방·신발(지수 57.3), 의복및 모피제품(지수 73.5), 섬유제품(지수73.5), 가구제조업(지수 86.6)등 경공업 분야이다.
- ♣ 지역별로는 충북(원지수 162.9), 전남(162.1), 경남(153.2)등이 비교적 활발하고, 대구(96.0), 강원(97.6), 부산(97.8), 서울(103.3)등은 부진하다

☞ '93년중 품목별생산동향을 '92년과 비교하여 보면 펄프(36.1%), 신문용지(23.3%), 휘발유(30.5%), 등유(21.4%), 프로필렌(22.0%), 부타디엔(29.3%), 위생도기(21.6%), 봉강(20.7%), 빌렛(25.5%), 철근(21.9%), 냉연대강(27.5%), 연괴(33.1%), 물품취급용 크레인(37.9%), 수치제어선반(63.6%), 디스크 드라이버(37.3%), CRT모니터(29.5%), 승용차(36.4%), 버스(24.1%)등이 큰폭 증가한 반면, 무연탄(-20.6%), 아연광석(-36.8%)을 비롯, 생사(-23.0%), 단화(-34.9%), 운동화(-29.5%), 지게차(-27.6%), 콤팩트어콘(-20.3%), 콤팩트인(-20.3%), 건설용 크레인(-45.6%), 전자계산기(-31.5%), 콘테이너(-53.9%)등은 크게 감소하였다 (본문 통계표 p 39~58 참조)

## 투자도 점차 활기

- ☞ 경기회복에 따라 투자관련지표의 증가세도 두드러지고 있다
  - ♣ '93년중 건축허가 총면적은 '92년에 비해 연면적기준 24.5% 늘어나, '91년 이후의 침체를 벗어나고 있다. 이중 주거용은 26.7%, 상업용은 31.2%, 공업용은 15.2%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본문 통계표 p59 참조)
  - ♣ '93년 건설공사 수주액 역시 '92년에 비해 19.3% 늘어났으며, 이중 민간부문 발주액은 42.3% 나 늘어났다. 특히 제조업은 기계공업(29.4% 증가)을 중심으로, 비제조업은 건설업 및 부동산업(51.8%)을 중심으로 하여 증가하였으며, 이러한 증가추세는 '94.1월에 들어서도 지속되고 있다. (본문 통계표 p 60~61참조)
  - ♣ '93년 기계수주 총액도 '92년에 비해 36.2% 늘어났으며, 이중 민간수요도 24.4% 늘어났다. 특히 제조업부문은 28.3% 늘어났는데, 석유제품공업(208.2%), 요업(59.4%), 기계공업(37.8%)을 중심으로 대부분의 업종에서 높은 증가를 보였다. '94.1월에 들어서도 이러한 증가세는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본문 통계표 p62~63참조)

## 소비자물가 상승수준 비목별, 지역별, 품목별로 큰차이

- ☞ '90년 기준으로 소비자 물가지수를 개편한 이래 470개 상품 및 서비스 품목을 종합한 소비자 물가지수 수준은 '94년 2월 현재 127.0('90년 당시의 물가수준에 비해 27.0% 상승)을 보이고 있으나, 부문별로는 지수수준이 큰 차이를 보여 등락폭이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본문 통계표 p110~p111 참조)
  - ♣ 식료품중에서는 채소 및 해조류(지수 155.4), 과일(147.0), 외식(146.9), 어계류(140.1)등이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육류(112.2), 곡류(120.1)등은 상승폭이 낮았다
  - ♣ 주거비 중에서는 기타 주거비(아파트 관리비, 이삿짐 운송료 162.4), 집세(130.6)가 높고, 가구집기·가사용품비 중에서는 가사서비스(파출부임, 오물수거비등. 158.7)가 가장 높으며, 피복 및 신발비 중에서는 피복서비스(세탁, 재봉, 수선료 163.5), 교육·교양 오락비에서는 교육비(납입금, 학원비:136.0), 교통·통신비에서는 교통비(136.1)등이 전체 평균보다 높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외의 비목은 전체 평균과 비슷하거나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 ☞ 서울을 비롯한 전국 주요 11개 도시별로 '90년 당시의 물가수준과 현재의 물가수준을 비교하여 보면 서울(식료품지수 133.2), 대구(135.8), 인천(133.6), 대전(141.7), 광주(135.9), 전주(137.3), 춘천(133.7), 청주(133.0), 마산(134.8)은 식료품비의 지수 수준이 가장 높은 반면, 부산은 교통·통신비(137.0), 수원(주거비(137.3)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본문 통계표 p112~115 참조)
  - ♣ 한편, 가장 상승폭이 낮아 지수 수준이 낮은 비목을 보면 서울(보건의료비:115.1) 대구(115.0), 인천(117.7), 대전(114.7), 청주(113.8)에서는 보건의료비목이고, 부산은 피복 및 신발(117.1), 광주는 가구집기 및 가사용품(113.1), 전주는 주거비(118.6), 춘천은 피복 및 신발(115.7), 수원은 가구집기 및 가사용품(114.9), 마산 역시 가구집기 및 가사용품(115.5)으로 나타나고 있다

- ☞ 주요 품목별 소비자물가 상승수준도 11개 도시별로 큰 차이가 있는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본문 통계표 p116~128 참조)
- ♣ 일반미(재래 정미 중품)의 경우 춘천과 서울이 가장 높고, 부산이 가장 낮은 수준에 있다.
- ♣ 두부(300g정도)는 대구, 대전이 가장 높고, 부산, 전주가 가장 낮으며
- ♣ 한우쇠고기(정육 500g)는 청주, 전주가 가장 높고, 춘천, 인천이 가장 낮고,
- ♣ 돼지고기(정육 500g)는 마산, 부산이 가장 높고, 서울, 대구가 가장 낮고,
- ♣ 달걀(흰색, 대란 10개)은 부산, 서울이 가장 높고, 춘천, 청주가 가장 낮으며
- ♣ 고등어(30cm정도, 1마리)는 인천, 청주가 가장 높고, 마산, 부산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주요 품목별 소비자 물가지수 수준 비교('94.2월 현재) >

(1990=100 0)

	상 위 수준	하 위 수준
· 일 반 미	춘천(129.5), 서울(122.0)	전주(114.3), 부산(114.5)
· 두 부	대구(182.3), 대전(179.4)	부산(103.6), 전주(120.0)
· 한우쇠고기	청주(148.9), 전주(138.2)	춘천(118.6), 인천(127.9)
· 돼지 고기	마산(126.6), 부산(123.7)	서울(87.6), 대구(89.8)
· 달걀 고기	부산(115.1), 서울(114.8)	춘천(93.9), 청주(102.1)
· 닭 고기	광주(153.5), 인천(138.3)	대구(94.6), 서울(107.6)
· 고 등 어	인천(183.4), 청주(182.9)	마산(106.9), 부산(121.5)
· 콩 나 물	대전(172.4), 수원(157.4)	광주(104.9), 부산(107.3)
· 파	대전(542.7), 대구(518.1)	청주(387.8), 인천(388.1)
· 고 참 기	부산(193.7), 광주(184.4)	대전(155.9), 대구(164.1)
· 설 탕	광주(164.0), 마산(142.1)	대구(102.9), 춘천(104.3)
· 연 기	대전(180.0), 춘천(159.5)	마산(115.6), 수원(119.4)
· 양 복 세	서울(128.2), 전주(126.9)	광주(115.1), 부산(115.3)
· 탁 료	대전(171.4), 광주(158.6)	마산(124.1), 수원(130.0)
· 목 육 료	수원(185.4), 서울(183.3)	청주(157.4), 전주(157.7)

### 농가구입가격은 노임, 외식, 교통비가 크게 상승

- ☞ '90년의 농가구입가격과 '94. 1월 현재의 농가구입가격 수준을 비교하여 볼 때, 전체 평균(지수 121.7)으로는 21.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농업노임(165.0), 기타 임금(173.7), 외식비(161.4), 교통통신비(147.1), 해조 및 어류비(146.3), 의복비(145.6), 종자비(145.5)등이 '90년 당시에 비해 크게 상승한 수준에 있고, 반면에 농기구(지수 77.8), 채소(88.9), 비료(105.3), 사료(104.0), 문화용품(104.5)등은 오히려 낮거나, 상승수준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본문 통계표 p140~141 참조)

## 자가용 승용차 보급률 3세대당 1대, 인구 11명당 1대꼴

- ▣ 전국 자동차 총등록대수는 '93. 9월에 600만대를 넘어 '94. 1월 현재 635만대를 나타내고 있으며, 최근 6개월간 월평균 89천대씩 늘고있다.  
이중 자가용은 '93. 3월에 500만대를 넘어 '94. 1월 현재 592만대를 나타내고 있으며, 3월중에는 600만대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본문 통계표 p10, 70~71 참조)
- ▣ 한편 전국의 승용차 총등록대수는 '93. 9월에 400만대를 넘어 '94. 1월 현재 433만대를 나타내고 있으며, 최근 6개월간 월평균 71천대씩 늘고있다  
특히 자가용 승용차는 '93 12월에 400만대를 넘어서 '94. 1월 현재로는 412만대를 나타냄으로써 3. 3세대당 1대꼴, 인구 11명당 1대꼴로 보급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 서울의 자가용 승용차수는 '92. 4월에 100만대를 넘어 '94 1월 현재 129만대에 이르고 있으며, 2. 7세대당 1대, 인구 8. 5명당 1대꼴로 보급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서울을 다음으로 자가용 승용차수가 많은 지역은 경기도로서 현재 70만대에 이르고 있으며, 3. 2세대당 1대, 10. 1명당 1대꼴로 보급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자가용 승용차 보급률이 가장 낮은 지역은 전라남도로서 6. 7세대당 1대, 인구 23. 1명당 1대꼴이며, 그 다음은 충청남도로서 4. 6세대당 1대, 인구 16. 2명당 1대꼴로 나타나고 있다.

< 자동차, 승용차 보급률 >

(단위·천대, 세대, 명)

	자동차 총수				승용차 수			
	계	자가용			계	자가용		
			대당세대수	대당인구수			대당세대수	대당인구수
전국	6,354	5,915	2.3	7.6	4,334	4,123	3.3	10.9
서울	1,764	1,650	2.1	6.6	1,358	1,290	2.7	8.5
부산	474	426	2.6	9.1	313	290	3.8	13.3
대구	380	356	1.9	6.5	265	250	2.7	9.3
인천	307	286	2.3	7.5	212	203	3.2	10.6
광주	164	151	2.4	8.3	111	104	3.5	12.0
대전	188	174	2.0	6.8	134	126	2.8	9.5
경기도	1,056	1,002	2.2	7.0	717	697	3.2	10.1
강원	204	187	2.4	8.2	127	120	3.7	12.8
충북	185	170	2.4	8.4	114	108	3.8	13.1
충남	209	195	2.7	9.5	120	115	4.6	16.2
전북	227	209	2.7	9.7	136	128	4.4	15.8
전남	197	176	3.7	12.7	104	97	6.7	23.1
경북	385	362	2.4	8.0	232	224	3.8	12.8
경제	531	496	2.3	7.9	345	330	3.4	11.8
제주	82	75	2.0	6.8	46	42	3.7	12.5

주 '94 1월 현재 등록대수와 '93 12월말 주민등록인구 및 세대를 비교한 것임

## 농촌 노동력 급속 감소, 여성취업자 비율도 줄어

- ▣ 도시화, 공업화, 농산물 수입개방등으로 이농현상이 심화되어 농촌의 노동력이 급속히 줄어들고 있다. '86년 당시만해도 농촌의 노동가능인구는 전국의 노동가능인구중 20.9%를 차지하고 있었으나, '93년 현재로는 13.2%에 불과한 실정이다
- ▣ 한편 최근의 경기 불황 여파로 '90년도 전국 총취업자중 40.7%까지 차지하였던 여성취업자 비율도 '93년 현재로는 40.1%로 줄어들고 있다. (본문 통계표 p73, 78 참조)

< 농촌 노동력, 여성 취업자 추이 >

(단위: 천명, %)

	15세이상 인구(노동가능인구)			취업자		
	총 수	농 가	농가비율	총 수	여 성	여성비율
1986	28,225	5,910	20.9	15,505	6,165	39.8
1987	28,955	5,743	19.8	16,354	6,613	40.4
1988	29,602	5,571	18.8	16,869	6,771	40.1
1989	30,217	5,405	17.9	17,511	7,121	40.7
1990	30,801	5,197	16.9	18,036	7,341	40.7
1991	31,367	4,941	15.8	18,576	7,507	40.4
1992	31,851	4,702	14.8	18,921	7,609	40.2
1993	32,361	4,268	13.2	19,203	7,710	40.1

- ▣ 농림어업 취업자 비중이 '88년 당시만해도 20.6%를 차지하고 있었으나, '93년에는 14.8%로 낮아졌고, 광공업 부문 취업자 비중도 '88년 이후 계속 떨어져 '93년 현재 24.1%로 낮아져있다. 반면에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 서비스업 부문의 취업자 비중은 '93년 현재 61.0%대로 높아져 있다 (본문 통계표 p80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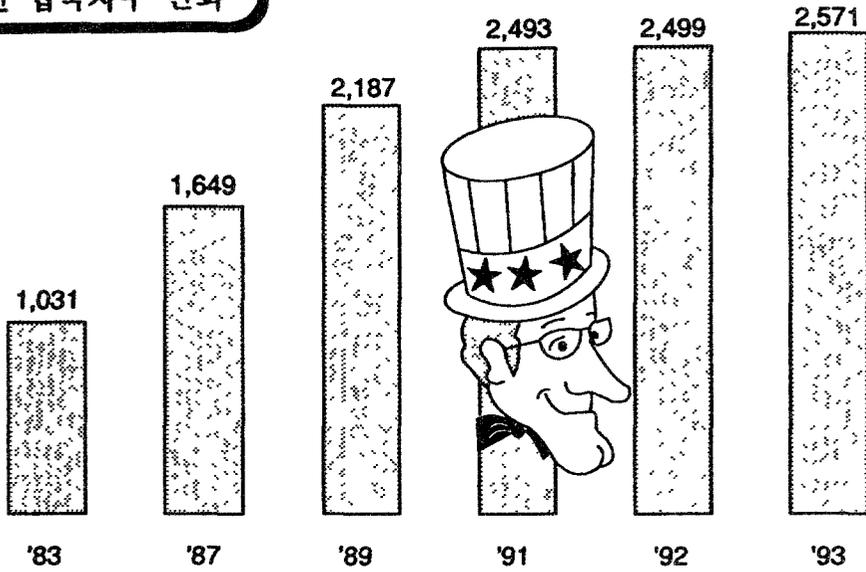
< 산업별 취업자 비중 >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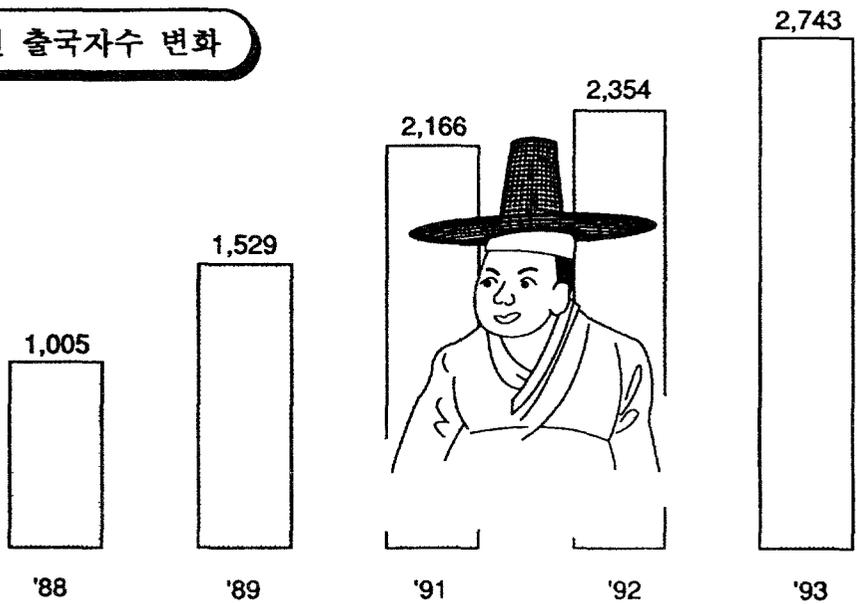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농림어업	21.9	20.6	19.5	18.3	16.7	16.0	14.8
광 공 업	28.1	28.5	28.2	27.3	26.9	25.5	24.1
(제조업)	(27.0)	(27.7)	(27.6)	(26.9)	(26.6)	(25.2)	(23.9)
SOC. 기타	50.0	50.9	52.3	54.4	56.4	58.5	61.0

(천명)

외국인 입국자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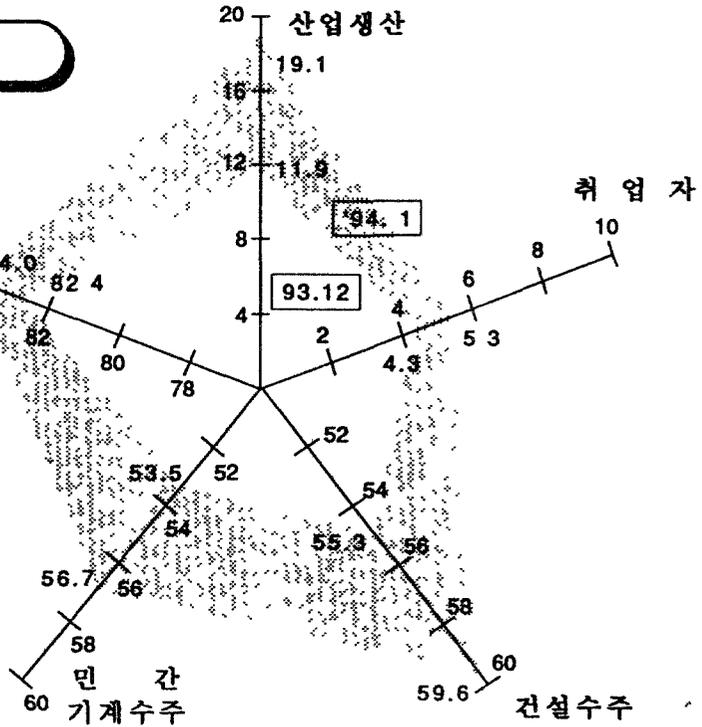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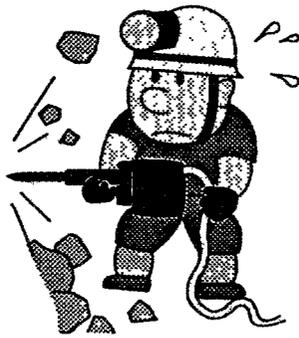


내국인 출국자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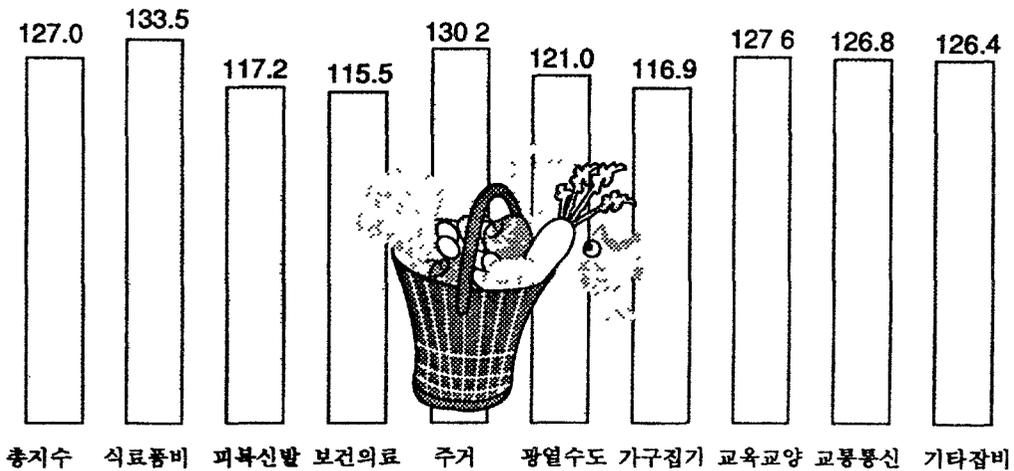
### 산업활동동향

(전년동월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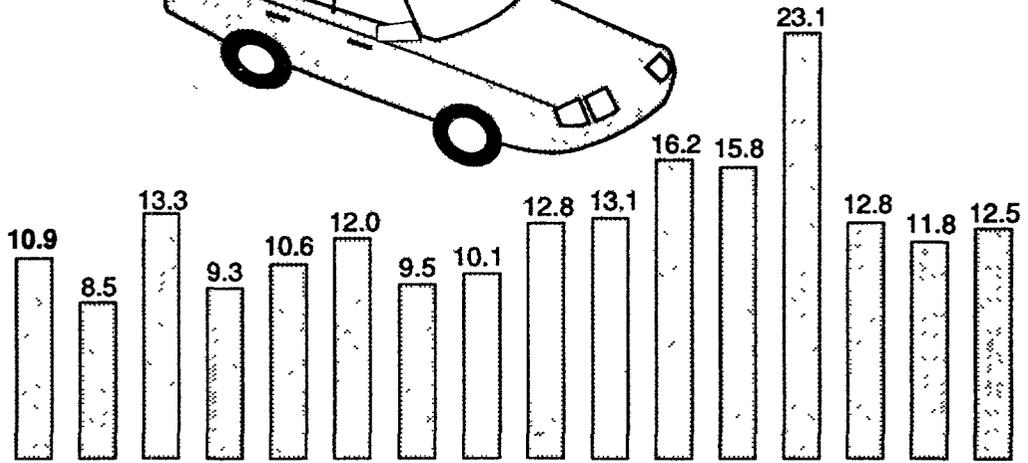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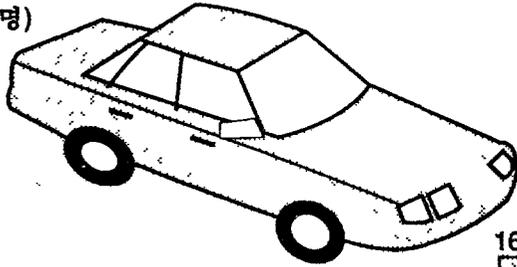
### 90년대비 소비자 물가지수 수준 (94 2 현재)

(90=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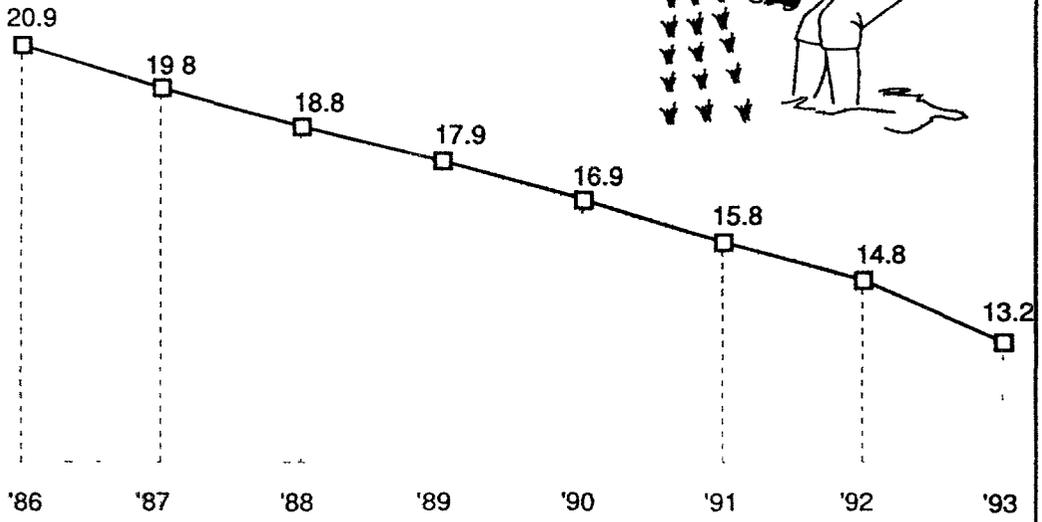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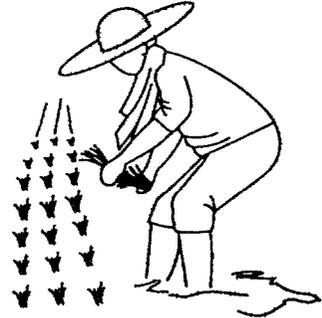
### 자가용승용차 보급률

(1대당 인구,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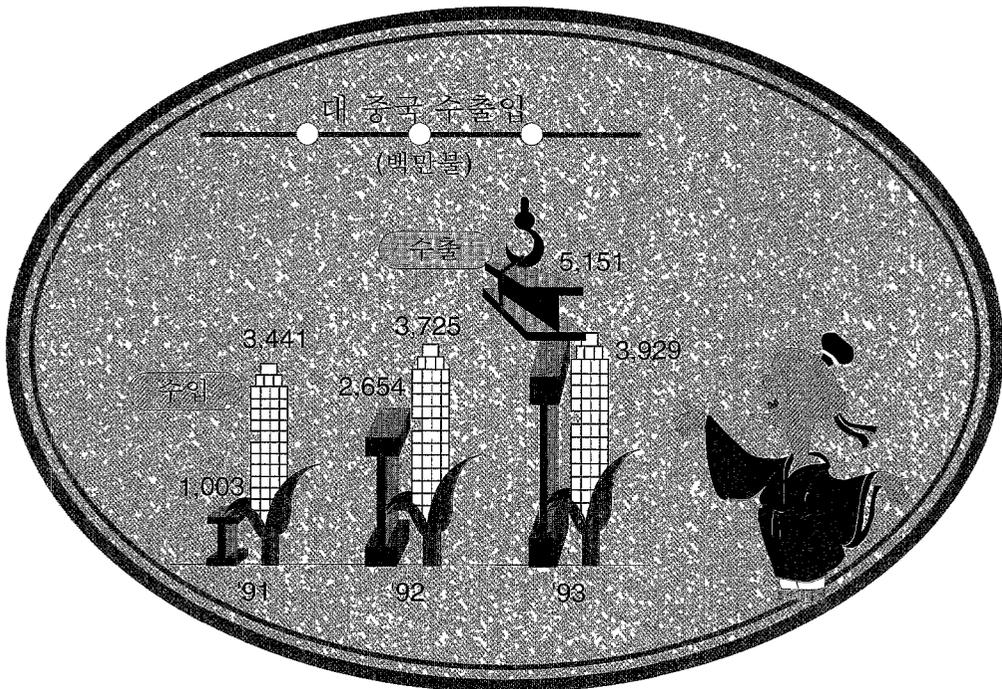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 농촌 노동력 변화 추이 (15세이상 농촌인구) (%)



**여 백**

# 북방 교역의 변화



「93년 대 중국 수출 실적 1위는 철강류로서 998백만 불이며, 수입 실적 1위는 곡물로서 630만불이고, 그 대부분이 옥수수였다」

- 자료중에서 -

한국통계월보('94년 3월호)에서 본 통계특징

# 북방 교역의 변화

1994. 4

자료처리국 자료관리과

1 최근의 국가별 수출입 규모 변화

○ 對중국 교역 '93년중 첫 흑자기록, 러시아 교역은 적자  
○ 베트남 수출 크게 확대

- 對中國 輸出은 '93년중 5,151백만불을 나타내어 전년대비 94.1% 크게 증가한 반면, 輸入은 3,929백만불로 전년대비 5.5% 증가에 그쳤다 이에따라 처음으로 1,222백만불 輸出超過를 기록하였다
- 對 베트남 輸出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93년중 728백만불의 수출 실적을 나타내어 전년대비 67.0% 증가하였고, 輸入은 91백만불로 전년대비 58.1% 증가하였으며, 이에따라 輸出超過額은 637백만불을 나타내었다
- 러시아에 대한 輸出도 '93년중 601백만불로 '92년에 비해 5.1배(409.1% 증가) 규모로 늘어났으나, 輸入은 975백만불로 13.0배 규모로 크게 확대되어 374백만불 輸入超過를 보였다 우크라이나 역시 수입이 크게 늘어나 32백만불 輸入超過를 나타내었다 '93년중 폴란드(102.2%), 헝가리(33.6%), 루마니아(109.3%)에 대한 輸出도 전년에 비해 크게 늘어났으나, 輸入은 폴란드(-45.0%), 헝가리(-32.8%), 루마니아(-14.2%) 모두 줄어들었다.

< 연도별 수출입액 >

(단위 천\$,%)

	관 계 수 립 일	연도	수 출		수 입		무역수지 (수출초과)
				비전년		비전년	
중 국	92 8 24	91	1 002 511	...	3 440 548	...	-2 438 037
		92	2 653 638	164.7	3 724 941	8.3	-1 071 303
		93	5 150 992	94.1	3 928 741	5.5	1 222 251
폴란드	89 11 1	91	290 117	...	152 691	...	137 426
		92	119 554	-58.5	80 990	-47.0	38 564
		93	240 536	101.2	44 562	-45.0	195 974
헝가리	89 2 1	91	84 178	...	37 682	...	46 992
		92	62 178	-26.6	28 822	-23.5	33 356
		93	83 046	33.6	19 357	-32.8	63 689
루마니아	90 3 30	91	25 550	...	10 338	...	15 212
		92	38 191	49.5	6 505	-37.1	31 686
		93	79 929	109.3	5 580	-14.2	74 349
베트남	92 12 21	91	198 948	...	41 153	...	157 795
		92	436 181	119.2	57 332	39.3	378 849
		93	728 268	67.0	90 628	58.1	637 640
러시아	90 9 30	91	...	...	...	...	...
		92	118 084	...	74 830	...	43 254
		93	601 170	409.1	974 820	1,202.7	-373 650
우크라이나	91 2 10	91	...	...	...	...	...
		92	5 312	...	7 045	...	-1 733
		93	22 733	328.0	54 267	670.3	-31 534

o '94 1~2월중 중국, 러시아, 폴란드 교역 繼續 擴大

- 금년 1~2월 중에도 중국, 러시아, 폴란드, 헝가리, 우크라이나등에 대한 교역이 계속 확대되고 있다

對 베트남 貿易收支가 93백만불 黑字를 나타낸것을 비롯, 中國 25백만불, 폴란드 25백만불, 헝가리 12백만불, 루마니아 6백만불 등의 黑字를 나타낸 반면, 對 러시아, 우크라이나 貿易收支는 각각 8백만불, 10백만불의 赤字를 나타내고 있다

< 1~2월중 수출입 동향 >

(단위 천\$,%)

	'93 1 ~ 2		'94 1 ~ 2				무역수지 (수출초과)
	수출	수입	수출	증가율	수입	증가율	
중 국	596 072	496 010	745 288	25.0	720 097	45 2	25 191
폴란드	20 270	3 424	48 276	138 2	23 689	591 9	24 587
헝가리	11 876	3 216	15 130	27 4	2 907	-9 6	12 223
루마니아	8 492	1 366	7 019	-17 3	1 316	-3 7	5 703
베트남	105 380	13 173	109 067	3.5	15 656	18 8	93 411
러시아	58 401	98 638	130 613	123.6	138 429	40 3	-7 816
우크라이나	6 937	-	9 928	43.1	19 480	...	-9 552

## 2 국가별 수출입 세부 동향

### 가 對 중국 수출입

- 鐵鋼, 自動車 輸出比重 31% 차지
- 乘用自動車 輸出은, '93년중 전년대비 약 52배 증가(금액기준)

- '93년 對중국 수출실적 1위는 「국제 통일상품분류(H·S분류)」상의 유별분류(중분류)를 기준으로 할 때 鐵鋼類로서 998백만불(전년대비 36.7% 증가)이며, 2위는 自動車 및 그 附屬品등(철도 또는 궤도차량제외)으로 582백만불(전년대비 3,413.5% 증가)이고, 3위는 플라스틱과 그 제품으로서 442백만불(전년대비 36.0% 증가), 4위는 電氣電子器機와 그 部分品 408백만불(전년대비 115.5% 증가), 5위는 각종 機械類 및 그 部分品 407백만불(전년대비 157.1% 증가)순이다
- H·S분류상의 4단위 분류(소분류)를 기준으로 볼때, 輸出實績 1위는 乘用 自動車類(버스, 트럭, 특수차등 제외)로서 519백만불로 전년대비 무려 5,062.8% 증가 하였으며, 2위는 철 또는 비합금강의 熱間壓延製品(폭 600mm이상)으로 328백만불(전년대비 142.6% 증가), 3위는 정유, 방카C유, 윤활기유등의 기름류로서 328백만불(전년대비 331.2% 증가), 4위는 소, 말등의 동물가죽으로 196백만불(전년대비 83.6% 증가), 5위는 철 또는 비합금강의 冷間壓延製品(폭600mm이상)으로 188백만불(전년대비 96.4% 증가) 순이다
- 가장 크게 신장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乘用自動車의 경우 '92년도에는 對중국 總輸出額에서 차지하는 比重이 불과 0.3%에도 미치지 못하였으나, '93년도에는 총 수출액의 10.1%를 차지하였다

#### < 對 중국 승용자동차 수출비교 >

	'92		'93		
	대	천\$	대	천\$	비전년(%)
계	3 096	10 053	56 663	519 018	5 062.8
세 단	680	6 959	51 506	473 147	6 699.1
집	185	1 967	589	3 543	80.1
스테이션 웨곤형	7	70	748	8 162	11 560.0
구급차, 기타	2 224	1 057	3 820	34 166	3 132.4

- 穀物, 燃料 수입비중 31% 차지
- 단일 품목으로는 옥수수가 16%로 단연 首位

- '93년 對중국 輸入實績 1位는 H·S 유별분류(중분류)를 기준으로 할때 穀物로서 630백만불이며, 그중 대부분이 옥수수(611백만불)였다  
2位는 석탄, 원유, 석유조제품등의 礦物性 燃料 및 礦物類로서 579백만불이며, 그중 石炭은 222백만불, 原油는 206백만불, 石油調製品은 128백만불등이었다.  
3位는 人造纖維로 328백만불이었고, 4位는 견(絹)관련 제품으로 234백만불, 5位는 변압기, 건전지, 아답터, 녹음기, TV튜너등 電氣·電子器機와 그 部分品으로서 209백만불이었다
- 특히 93년들어 경유, 등유등 석유조제품과 재생섬유직물, 섬수사 및 조수사(동물털)등의 수입이 크게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 채소·과실·곡물·약재, 어류등 中國 農水産物 쏟아져
- 고사리, 파, 참깨, 냉동삼치등 輸入分 全量이 중국에서 입하

- '93년중 중국으로부터의 어류·갑각류등(H·S분류 03) 수입액은 35백만불로 전년에 비해 17% 늘어났다. '93년중 냉동삼치 수입(7백만불)의 전량이 중국으로부터 들어온것을 비롯, 미꾸라지, 조기, 북어, 게, 문어, 새우, 바지락, 해파리등 다양한 품목이 수입되었다
- 채소·과실·향신료·곡물등 농산물(H·S분류 07~13)도 '92년에 비해 다소 줄어들긴 하였으나 767백만불(92년은 794백만불)이 수입되었다  
우리나라 수입옥수수(사료용 및 기타용) 총액('93년중 700백만불)의 87%에 해당하는 611백만불어치가 중국으로부터 들어온것을 비롯, 수입고사리, 파, 버섯, 마늘, 낙화생, 참깨, 유채씨, 메밀, 감등이 중국으로부터 전량수입되었고, 그외에도 저장오이류, 당근, 고추, 수수, 조, 들깨, 죽순, 생강 등등 많은 품목들이 수입된것으로 나타나고있다
- 약재 역시 감초 8백만불어치를 비롯, 두충, 사향, 녹각, 호랑이뼈 및 골소등 상당부분이 중국으로부터 수입되고 있다

< 對 중국 주요 수출 품목(류별분류기준) >

(단위 천 \$)

분류 번호	품 목  명 칭	수 출			'93 중국 총수출액 에 대한 구성비(%)
		'93	'92	'93/'92 (%)	
72	· 철강	997 704	730 090	36.7	19.4
87	· 철도 또는 궤도용 이외의 차량 및 그 부분품	582 052	16 566	3 413.5	11.3
39	· 플라스틱과 그 제품	442 216	325 068	36.0	8.6
85	· 전기기기와 그 부분품, 녹음기, 텔레비전, VTR등	408 375	189 531	115.5	7.9
84	· 기계류 및 부분품	406 736	158 184	157.1	7.9
27	· 광물성 연료 및 광물유와 이들의 중류물	341 655	85 394	300.1	6.6
55	· 인조 스테이플 섬유(단섬유)	285 104	175 534	62.4	5.5
41	· 원피와 가죽	271 308	141 404	91.9	5.3
29	· 유기화학품	247 213	151 701	63.0	4.8
54	· 인조 필라멘트(장섬유)	194 679	118 116	64.8	3.8

< 對 중국 주요 수출 품목(4단위 소분류 기준) >

(단위 천 \$)

분류 번호	품 목  명 칭	수 출			'93 중국 총수출액 에 대한 구성비(%)
		'93	'92	'93/'92 (%)	
8703	· 승용자동차(버스, 트럭, 특수차제외)	519 018	10 053	5 062.8	10.1
7208	· 열간 압연 제품	328 483	135 414	142.6	6.4
2710	· 석유와 역청유(원유제외)	328 060	76 089	331.2	6.4
4104	· 소 또는 마속 동물의 가죽	195 693	106 578	83.6	3.8
7209	· 냉간 압연제품	188 353	95 890	96.4	3.7
5503	· 합성 스테이플 섬유	186 891	98 684	89.4	3.6
3901	· 에틸렌의 중합체(1차제품)	169 941	185 698	-8.5	3.3
5407	· 합성필라멘트사의 직물	134 708	92 386	45.8	2.6
2902	· 환식탄화수소	126 308	78 729	60.4	2.5
8540	· TV브라운관등 열전자관, 냉음극관	113 446	59 987	89.1	2.2

< 對 중국 주요 수입 품목(유별분류기준) >

(단위 천 \$)

분류 번호	품 목  명 칭	수 입			'93 중국 총 수입액 에 대한 구성비(%)
		'93	'92	'93/'92 (%)	
10	· 곡물	629 640	648 323	-2.9	16.0
27	· 광물성연료, 광물유와 이들의 중류물	578 978	530 467	9.1	14.7
55	· 인조스테인플 섬유	328 407	281 267	16.8	8.4
50	· 전기기기	234 291	265 553	-11.8	6.0
85	· 전기기기와 그 부분품, 녹음기, TV튜너 등	209 494	107 078	95.6	5.3
52	· 면	199 942	173 377	15.3	5.1
72	· 철강	152 255	183 960	-17.2	3.9
29	· 유기화학품	106 477	87 722	21.4	2.7
23	· 식품공업 잔유물 및 조제사료	90 947	39 028	133.0	2.3
12	· 각종 종자 및 과일, 의약품 식물등	82 358	84 907	-3.0	2.1

< 對 중국 주요 수입 품목(4단위 소분류기준) >

(단위 천 \$)

분류 번호	품 목  명 칭	수 입			'93 중국 총 수입액 에 대한 구성비(%)
		'93	'92	'93/'92 (%)	
1005	· 옥수수	610 802	624 700	-2.2	15.5
2701	· 석탄 및 코크스용탄	221 603	205 450	7.9	5.6
2709	· 석유 및 역청유(원유)	205 814	223 033	-7.7	5.2
5007	· 전직물	164 410	177 691	-7.5	4.2
2710	· 경유, 등유, 윤활기유등 석유 조제품(원유제외)	127 605	84 662	50.7	3.2
5513	· 면 혼방 합성스테인플 섬유직물	124 467	127 901	-2.7	3.2
5516	· 재생 및 반합성스테인플 섬유직물	118 193	81 034	45.9	3.0
7202	· 합금철(ferro-alloys)	88 041	55 058	59.9	2.2
5208	· 면직물	79 881	88 707	-9.9	2.0
5102	· 동물탈(양모제외)	69 082	40 878	69.0	1.8

< '93년도 중국 관련 농수산물 수입 추이 >

(단위 천\$)

	총수입액	1 위		2 위		3 위	
		국가	금액	국가	금액	국가	금액
<신선·냉장물고기>							
미꾸라지	1 242	중국	1 242	-	-	-	-
실장어	650	중국	455	미국	113	독일	31
아귀	6 235	미국	5 917	캐나다	250	중국	61
<냉동물고기>							
가자미	750	미국	544	러시아	124	중국	78
농어	30	중국	30	-	-	-	-
갈치	544	인도	269	중국	158	인도	110
등어	123	홍콩	69	중국	21	네시아	15
붕장어	528	대만	368	일본	88	중국	55
조	6 190	인도	3 114	중국	2 471	인도	391
꽂이	61	네시아	60	푸에르토리코	1	-	-
삼치	7 354	중국	7 354	-	-	-	-
북어	796	중국	741	인도	55	-	-
네시아							
<염장물고기>							
조기	128	중국	103	대만	25	-	-
<갑각류>							
냉동 새우살	39	중국	29	대만	9	미국	1
건조 새우	93	중국	65	말레이시아	28	-	-
계(산것, 신선, 냉장)	476	미국	289	중국	125	필리핀	51
냉동 홍합	36	중국	36	-	-	-	-
문어(산것, 신선, 냉장)	207	중국	207	-	-	-	-
달팽이	41	인도	25	중국	16	-	-
네시아							
피조개	283	중국	283	-	-	-	-
(산것, 신선, 냉장)							
피조개(냉동)	14 104	베트남	6 408	중국	6 067	일본	1 342
냉동 바지락	421	중국	387	일본	34	-	-
냉동 소라	38	중국	38	-	-	-	-
염장 해파리	18 027	중국	7 744	태국	4 218	인도	2 895
네시아							
<농산물>							
마늘(냉동포함)	579	중국	579	-	-	-	-
송이버섯(신선, 냉장)	31	중국	31	-	-	-	-
오이류(저장처리)	494	중국	486	미국	8	-	-
버섯(저장처리)	2 480	중국	2 480	-	-	-	-
죽순(저장처리)	57	태국	32	중국	25	-	-
감자(건조)	571	미국	296	중국	194	네덜란드	81
표고버섯(건조)	832	중국	832	-	-	-	-
영지버섯	1 755	중국	1 698	대만	26	필리핀	15
(건조, 신선포함)							

< '93년도 중국 관련 농수산물 수입 추이(계속) >

(단위 · 천\$)

	총수입액						
		국가	금액	국가	금액	국가	금액
고사리(신선, 건조, 냉동포함)	11 317	중국	11 317	-	-	-	-
파(신선, 냉장)	1 922	중국	1 922	-	-	-	-
당근(신선, 냉장)	633	중국	569	스위스	64	-	-
호박(신선, 냉장)	275	미국	166	중국	97	필리핀	8
고구마줄기	326	중국	326	-	-	-	-
흰뿌리(신선, 건조)	279	중국	279	-	-	-	-
초본류말기(냉동)	1 207	멕시코	544	중국	381	미국	172
감(건조)	550	중국	550	-	-	-	-
녹차	59	일본	47	중국	11	스위스	1
고추(미분쇄)	805	중국	796	미국	6	독일	4
고추(분쇄)	203	중국	198	미국	5	-	-
계피(미분쇄)	3 898	베트남	2 284	중국	1 482	인도네시아	133
계피(분쇄)	19	싱가폴	6	미국	6	중국	4
생강	80	중국	80	-	-	-	-
옥수수(사료용)	517 924	중국	497 491	미국	20 041	대만	299
옥수수(기타)	182 480	중국	113 311	미국	69 170	-	-
수수	5 065	중국	4 987	미국	59	캐나다	19
매밀	484	중국	484	-	-	-	-
조	786	중국	777	호주	9	-	-
고구마 전분	1 781	중국	1 756	일본	25	-	-
낙화생(미탈각)	113	중국	113	-	-	-	-
낙화생(탈각)	8 182	중국	8 182	-	-	-	-
유채씨	1 058	중국	1 058	-	-	-	-
해바라기씨	1 162	미국	945	중국	202	일본	9
면실	2 197	중국	1 219	호주	565	태국	205
피마자	60	중국	60	-	-	-	-
참깨	28 891	중국	28 891	-	-	-	-
들깨	3 734	중국	3 724	미얀마	10	-	-
<식물 약재류>							
감초	8 427	중국	8 133	러시아	215	일본	44
두충	494	중국	494	-	-	-	-
박하	14	중국	12	캐나다	2	-	-
사인	3 978	태국	1 516	중국	818	베트남	497
산조인	1 634	태국	909	중국	584	미얀마	135
<동물 약재류>							
호랑이뼈 및 골소	243	중국	196	말레이시아	47	-	-
녹각	9 107	러시아	2 040	미국	1 771	중국	1 331
사향	4 863	중국	4 377	네팔	486	-	-

## 나 對 베트남 수출입

- 石油類와 電氣電子器機類 輸出比重 27% 차지
- TV 수출 '92년에 비해 3배 증가

- '93년 對 베트남 輸出實績 1위는 石油類製品(경유, 방카C유등)으로 104백만불을 기록해 전년에 비해 2.8배 늘어났으며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比重도 14.3%('92년 8.6%)로 높아졌다  
수출실적 2위는 TV 수상기, 전화 교환기, 전화기등을 중심으로한 電氣電子器機類로 89백만불이며 특히 TV 수상기 수출은 전년에 비해 2.5배이상 늘었다.('92년 197.8천대, 17,631천불, '93년 386.0천대; 45,077천불)  
수출실적 3위는 基礎 人造纖維類, 4위는 鐵鋼, 5위는 機械類였다  
한편 증가율 크기로는 모터사이클이 109배 신장을 보여 가장 두드러졌다.

- 輸入 1위는 無煙炭으로 총수입액의 22% 차지
- 피조개 수입액 6,480천불로 2위

- '93년 對 베트남 輸入實績 1위는 無煙炭으로 20백만불에 이르러 총수입액의 21.8%를 차지하였다. 수입실적 2위는 갑각류 및 연체동물로 7백만불에 육박하였으며, 그중에서도 피조개가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특히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냉동피조개('93년 14,104천불)는 베트남(6,408천불)으로부터 들어오는 것이 가장 많고, 다음이 중국(6,067천불), 일본(1,342천불) 대만(287천불) 순이었다.

< 對 베트남 주요 수출 품목(류별분류기준) >

(단위 천 \$)

분류 번호	품 목  명 칭	수 출			'93 베트남 총 수출액 에 대한 구성비(%)
		'93	'92	'93/'92 (%)	
27	· 광물성 연료, 광물유	104 474	37 307	180 0	14 3
85	· 전기기기와 부분품, 녹음기, TV등	89 258	50 103	78 1	12 3
54	· 인조 필라멘트	66 456	39 900	66.6	9 1
72	· 철강	53 989	30 652	76 1	7 4
84	· 기계류와 부분품	47 203	35 951	31 3	6 5
39	· 플라스틱과 그 제품	45 909	32 034	43 3	6 3
87	· 철도·궤도용 이외의 차량 및 부분품	43 446	8 366	419.3	6 0
55	· 인조스테이플 섬유	34 876	32 457	7.5	4 8
59	· 방직용 섬유직물	28 730	11 888	141.7	3 9
73	· 철강제품(철타, 관, 파일등)	24 187	7 565	219 7	3 3

< 對 베트남 주요 수출 품목(4단위소분류기준) >

(단위 천 \$)

분류 번호	품 목  명 칭	수 출			'93 베트남 총 수출액 에 대한 구성비(%)
		'93	'92	'93/'92 (%)	
2710	· 석유조제품(경유, 방카C유등)	104 359	37 307	179.7	14 3
5407	· 합성필라멘트사의 직물	60 642	36 988	64.0	8 3
8528	· TV수상기	45 077	17 631	155.7	6 2
8711	· 모터사이클 및 사이드카, 보조 모터자전거	28 917	266	10 771 1	4 0
5903	· 플라스틱을 칩투·도포·피복 · 적층한 방직섬유직물	28 466	11 847	140.3	3 9
7209	· 냉간압연제품	22 646	8 686	160.7	3.1
8517	· 유선전화 및 전산기기(교환기, 전화기등)	20 527	16 359	25 5	2 8
3105	· 광물성 또는 화학비료	19 295	35 360	- 45 4	2 6
3901	· 에틸렌 중합체(1차제품)	18 831	9 361	101 2	2 6
3902	· 프로필렌 중합체(1차제품)	17 162	16 181	6 1	2 4

< 對 베트남 주요 수입 품목(류별 분류기준) >

(단위: 천 \$)

분류 번호	품 목  명 칭	수 입			'93 베트남 총 수입액 에 대한 구성비(%)
		'93	'92	'93/'92 (%)	
27	· 광물성 연료, 광물유	19 732	16 020	23.2	21.8
55	· 인조스테인폴 섬유	11 326	2 436	364.9	12.5
03	· 어류 · 갑각류 · 연체동물	6 829	4 168	63.8	7.5
17	· 당류	6 437	371	1 635.0	7.1
61	· 메리야스 편물 의류와 부속품	5 156	3 848	34.0	5.7
80	· 주석과 그 제품	5 087	3 854	32.0	5.6
62	· 일반의류와 그부속품	4 335	3 612	20.0	4.8
46	· 직제품, 농세공품	3 105	3 849	-19.3	3.4
50	· 전	2 809	1 607	74.8	3.1
09	· 커피 · 차 · 향신료	2 795	2 126	31.5	3.1

< 對 베트남 주요 수입 품목(4단위 소분류기준) >

(단위: 천 \$)

분류 번호	품 목  명 칭	수 입			'93 베트남 총 수입액 에 대한 구성비(%)
		'93	'92	'93/'92 (%)	
2701	· 무연탄	19 732	16 020	23.2	21.8
0307	· 연체동물(피조개, 갑오징어등)	6 634	3 982	66.6	7.3
5513	· 면혼방 합성스테인폴 섬유직물	5 695	2 145	165.5	6.3
8001	· 주석괴	5 087	3 854	32.0	5.6
5514	· 면혼방 합성스테인폴 섬유직물 (m <sup>2</sup> 당 170g 초과)	3 879	124	3028.2	4.3
1701	· 사탕수수당	3 406	-	...	3.8
1703	· 당밀	3 030	371	716.7	3.3
1211	· 향료, 의료, 살충용도 식물(용안육-자양제)	2 596	989	162.5	2.9
5002	· 생사(生絲)	2 366	1 552	52.4	2.6
0505	· 새깃털과 솜털	2 359	307	668.4	2.6

## 다 對 러시아 수출입

### ○ TV, VTR, 승용자동차등 수출 호조

- '93년 對 러시아 輸出實績 1位는 TV수상기, VTR, 마그네틱 테이프를 비롯한 電氣電子器機類로서 211백만불을 나타내어 전년에 비해 약 9배 가까이 늘어났으며, 러시아 총 수출액에 대한 비중도 35.0%('92년 20.4%)로 높아졌다  
수출실적 2位는 냉장고·냉동고, 컴퓨터등을 중심으로한 機械類로 82백만불 이었고, 3位는 승용차를 중심으로한 道路走行車輛으로 47백만불 이었다  
특히 乘用車의 경우 '92년에 비해 무려 347배나 늘어났다  
( '92년 41대, 125천불, '93년 9,418대, 43,626천불)  
한편 '92년에는 없었던 선박수출도 36백만불 실적을 나타내었다

### ○ 철강, 어류, 먼, 원목 수입도 크게 증가

- '93년 對 러시아 輸入實績 1位는 철강 반제품, 선철을 중심으로 한 鐵鋼類로서 356백만불에 이르러 전년대비 12배이상 늘어났고, 러시아 총수입액에 대한 점유 비중도 36.5%('92년 38.8%)를 차지하였다  
輸入實績 2位는 냉동어류를 중심으로한 어류·갑각류·연체동물 이었다.  
특히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냉동대구('93년 총수입액 33,363천불) 중 러시아로부터의 수입품이 56%(18,548천불)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미국산은 13,829천불로 2위, 3위는 호주산으로 526천불), 냉동명태의 경우('93년 총수입액 11,601천불) 러시아산이 86%(9,987천불)에 이르렀다  
(미국산은 13.5%차지: 1,516천불)

< 對 러시아 주요 수출 품목(류별분류기준) >

(단위 천 \$)

분류 번호	품 목  명 칭	수 출			'93 러시아 총 수출액 에 대한 구성비(%)
		'93	'92	'93/'92 (%)	
85	· 전기기기와 부분품, 녹음기, TV등	210 534	24 142	772.1	35.0
84	· 기계류와 부분품	82 364	27 822	196.0	13.7
87	· 철도· 궤도용 이외의 차량 및 부분품	46 899	178	26 247.8	7.8
89	· 선박과 수상구조물	35 704	-	...	5.9
62	· 일반의류와 부속품	28 621	5 989	377.9	4.8
61	· 메리야스편물의류와 부속품	23 142	4 495	414.8	3.8
42	· 가죽제품, 여행용구, 핸드백등	16 862	10 194	65.4	2.8
17	· 당류와 설탕과자	13 757	10 664	29.0	2.3
27	· 광물성 연료 및 광물유	13 184	1 022	1 190.0	2.2
64	· 신발류와 부분품	11 958	1 252	855.1	2.0

< 對 러시아 주요 수출 품목(4단위소분류기준) >

(단위 천 \$)

분류 번호	품 목  명 칭	수 출			'93 러시아 총 수출액 에 대한 구성비(%)
		'93	'92	'93/'92 (%)	
8528	· TV수상기	82 871	8 844	837.0	14.2
8703	· 승용자동차	43 626	125	34 800.8	7.3
8521	· VTR	41 279	3 018	1 267.8	6.9
8523	· 마그네틱 테이프	30 972	922	3 022.2	5.2
8418	· 냉장고· 냉동고	30 791	7 471	312.1	5.1
8901	· 여객· 화물용 선박	26 469	-	...	4.4
8517	· 유선전화· 전신용기기(교환기, 전화기등)	15 589	6 289	147.9	2.6
8471	· 자동 자료처리장치기계와 주변기기	15 055	8 212	83.3	2.5
6110	· 메리야스편물로된 저지· 폴오버· 카디건등의 의복	14 698	3 680	299.4	2.4
4203	· 가죽제 의류 및 부속품	14 469	9 860	47.0	2.4

< 對 러시아 주요 수입 품목(류별분류기준) >

(단위 천 \$)

분류 번호	품 목  명 칭	수 입			'93 러시아 총 수입액 에 대한 구성비(%)
		'93	'92	'93/'92 (%)	
72	철강	355 611	29 025	1 125.2	36.5
03	어류·갑각류·연체동물	125 952	985	12 687.0	12.9
52	면(綿)	70 020	7 045	893.9	7.2
27	광물성연료, 광물유	67 895	-	...	7.0
44	목재와 그 제품	47 021	3 344	13 061.3	4.8
76	알루미늄과 그 제품	45 486	5 004	809.0	4.7
28	무기화합물, 회토류	33 962	-	...	3.5
40	고무와 그 제품	28 293	1 658	1 606.5	2.9
47	목재펠프	23 633	2 972	695.2	2.4
74	동과 그 제품	17 858	12 327	44.9	1.8

< 對 러시아 주요 수입 품목(4단위소분류기준) >

(단위 천 \$)

분류 번호	품 목  명 칭	수 입			'93 러시아 총 수입액 에 대한 구성비(%)
		'93	'92	'93/'92 (%)	
7207	철 및 비합금강의 반제품	185 895	20 563	804.0	19.1
7201	선철	135 095	4 029	3 253.1	13.9
0303	냉동어류	104 550	949	10 916.9	10.7
5201	면(綿)	68 577	7 022	876.6	7.0
4403	원목	44 009	3 322	1 224.8	4.5
7601	알루미늄과 괴	43 061	4 502	856.5	4.4
2709	석유 및 역청유(원유)	32 807	-	...	3.4
2701	기타 석탄	28 705	-	...	2.9
4002	합성고무 제조품	25 628	1 658	1 445.7	2.6
4703	화학목재펠프	23 633	2 972	695.2	2.4

라 對 폴란드, 헝가리, 루마니아, 우크라이나 수출입

○ 폴란드, 헝가리	: VTR, 칼라TV수상기를 비롯 電氣電子器機 수출 1位
○ 루마니아	유선전화·전신용 交換機, 칼라TV수상기등 電氣電子器機 수출이 66% 차지
○ 우크라이나	· 船舶수출이 55% 비중 차지

- '93년중 對 폴란드 輸出實績 1位는 칼라TV수상기, VTR, 마이크로웨이브오븐 등을 중심으로 한 電氣電子器機가 87백만불을 나타내어, 對 폴란드 총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6%에 이르렀다
- 對 헝가리 輸出實績 1位 역시 VTR, 칼라TV수상기, 마이크로웨이브오븐, 라디오 방송용 수신기기등을 중심으로 한 電氣電子器機로서 39백만불을 나타내어 對 헝가리 수출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7%에 이르렀다.
- 對 루마니아 수출 역시 유선전화·전신용 교환기, 칼라TV수상기, VTR등을 중심으로한 電氣電子器機類가 53백만불로서 1位를 나타내었으며 총수출액에서 66%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 하였다
- 對 우크라이나 수출은 貨物船舶 수출이 13백만불로서 총수출액의 55% 비중을 차지 하였다

○ 폴란드	有機化學品 수입이 36% 차지
○ 헝가리, 루마니아	알루미늄제품이 수입 1位 품목
○ 우크라이나	· 鐵鋼이 총수입액의 69% 차지

- '93년중 對 폴란드 輸入實績 1位는 6-헥산락탐(에프시론-카프로락탐)을 비롯한 有機化學品으로서 16백만불이며, 對 폴란드 총수입액중 36%를 차지 하였다
- 對 헝가리 輸入實績 1位는 알루미늄빌레트를 비롯한 알루미늄 제품으로서 약 8백만불을 나타내어 對 헝가리 총수입액의 41%를 차지하였다
- 對 루마니아 輸入實績 1位 역시 알루미늄 제품으로 2백만불로 對 루마니아 총수입액의 34%를 차지하였다
- 對 우크라이나 輸入은 슬랩, 빌레트등 鐵鋼製品이 38백만불로 1位를 나타내었으며 對 우크라이나 총수입액중 69%를 차지하였다

< 對 폴란드 주요 수출 품목(류별분류기준) >

(단위 천 \$)

분류 번호	품 목  명 칭	수 출			'93 폴란드 총수출액 에 대한 구성비(%)
		'93	'92	'93/'92 (%)	
85	전기기기와 부분품, 녹음기, TV등	87 381	39 831	119.4	36.3
84	기계류와 부분품	34 119	5 245	550.5	14.2
54	인조필라멘트	32 036	18 837	70.1	13.3
61	메리야스편물의류와 부속품	27 804	10 607	162.1	11.6
64	신발류와 부분품	16 170	10 223	58.2	6.7
87	철도·궤도용 이외의 차량 및 부분품	13 497	12 840	5.1	5.6
62	일반의류와 부속품	9 324	4 988	86.9	3.9
96	잡품(볼펜, 마크펜, 볼펜심, 머리핀등)	2 683	2 796	- 4.0	1.1
90	광학·사진·측정·검사· 의료용기기	2 333	1 579	47.8	1.0
65	모자류와 부분품	2 307	320	620.9	1.0

< 對 폴란드 주요 수입 품목(류별분류기준) >

(단위 천 \$)

분류 번호	품 목  명 칭	수 입			'93 폴란드 총수입액 에 대한 구성비(%)
		'93	'92	'93/'92 (%)	
29	유기화학품	15 952	9 004	77.2	35.8
72	철강자동차	8 057	55 938	- 85.6	18.1
55	인조스테이플 섬유	6 579	316	1 982.0	14.8
71	진주·귀석 또는 반귀석· 귀금속·모조장신구	3 069	2 048	49.9	6.9
39	플라스틱과 그 제품	2 453	1 383	77.4	5.5
84	기계류와 부분품	1 682	2 254	- 25.4	3.8
85	전기기기와 부분품, 녹음기, TV등	1 435	269	433.5	3.2
54	인조필라멘트	1 077	1 632	- 34.0	2.4
51	양모·수모·양모사등 및 이들 의 직물	784	834	- 6.0	1.8
35	단백질계물질, 전분, 효소등	516	-	...	1.2

< 對 헝가리 주요 수출 품목(류별분류기준) >

(단위 천 \$)

분류 번호	품 목  명 칭	수 출			'93 헝가리 총 수출액 에 대한 구성비(%)
		'93	'92	'93/'92 (%)	
85	· 전기기기와 부분품, 녹음기, TV등	39 220	37 991	3 2	47.2
87	· 철도· 궤도용 이외의 차량 및 부분품	8 994	3 294	173 0	10.8
84	· 기계류와 부분품	8 566	3 638	135 5	10 3
54	· 인조필라멘트	5 915	2 786	112.3	7.1
74	· 동과 그 제품	5 254	1 515	246 8	6 3
40	· 고무와 그 제품	3 877	1 606	141 4	4.7
64	· 신발류와 부분품	1 729	1 992	- 13.2	2.1
29	· 유기화학품	1 669	1 309	27.5	2 0
52	· 면(繙)	1 610	414	288.9	1.9
55	· 인조스테이플 섬유	1 044	1 695	- 38.4	1.3

< 對 헝가리 주요 수입 품목(류별분류기준) >

(단위: 천 \$)

분류 번호	품 목  명 칭	수 입			'93 헝가리 총 수입액 에 대한 구성비(%)
		'93	'92	'93/'92 (%)	
76	· 알루미늄과 그 제품	7 845	5 378	45 9	40.5
29	· 유기화학품	2 553	6 325	- 59.6	13 2
39	· 플라스틱과 그 제품	1 409	260	441.9	7 3
72	· 철강	1 245	6 698	- 81 4	6 4
05	· 기타 동물성 생산품(녹각)	1 082	1 617	- 33.1	5 6
43	· 모피, 인조모피 및 그 제품	1 020	61	1 572.1	5.3
56	· 펄프 및 부직포, 특수사, 끈, 로프 등	981	870	12 8	5 1
85	· 전기기기와 부분품, 녹음기, TV등	837	856	- 2 2	4.3
84	· 기계류와 부분품	547	4 484	- 87.8	2.8
90	· 광학· 사진· 측정· 검사· 의료용기기	216	336	- 35.7	1.1

< 對 루마니아 주요 수출 품목(류별분류기준) >

(단위: 천 \$)

분류 번호	품 목  명 칭	수 출			93루마니아 총 수출액 에 대한 구성비(%)
		'93	'92	'93/'92 (%)	
85	· 전기기기와 부분품, 녹음기, TV등	52 513	23 291	125.5	65.7
40	· 고무와 그 제품	8 808	-	...	11.0
84	· 기계류와 부분품	6 410	1 184	441.4	8.0
87	· 철도· 궤도용 이외의 차량 및 부분품	3 746	26	14 307.7	4.7
55	· 인조스테인폴 섬유	1 823	3 777	- 51.7	2.3
63	· 방직용 섬유로 만든 모포, 커튼, 포대, 천막등	1 537	1 312	17.1	1.9
54	· 인조필라멘트	1 458	2 465	- 40.9	1.8
89	· 선박과 수상구조물	1 161	2 500	- 53.6	1.5
74	· 동과 그 제품	255	82	211.0	0.3
53	· 아마사, 아마직물등 기타 방직용 섬유직물	227	-	...	0.3

< 對 루마니아 주요 수입 품목(류별분류기준) >

(단위 천 \$)

분류 번호	품 목  명 칭	수 입			93루마니아 총 수입액 에 대한 구성비(%)
		'93	'92	'93/'92 (%)	
76	· 알루미늄과 그 제품	1 913	1 535	24.6	34.3
84	· 기계류 및 부분품	1 285	419	206.7	23.0
31	· 비료	1 118	4 127	- 72.9	20.0
29	· 유기화학품	593	158	275.3	10.6
62	· 일반의류와 부속품	188	15	1 153.3	3.4
44	· 목재와 그 제품 및 목탄	179	-	...	3.2
61	· 메리야스편물의류와 부속품	90	-	...	1.6
70	· 유리와 유리제품	78	-	...	1.4
49	· 인쇄물	48	-	...	0.9
85	· 전기기기와 부분품, 녹음기, TV등	38	2	1 800.0	0.7

< 對 우크라이나 주요 수출 품목(류별분류기준) >

(단위 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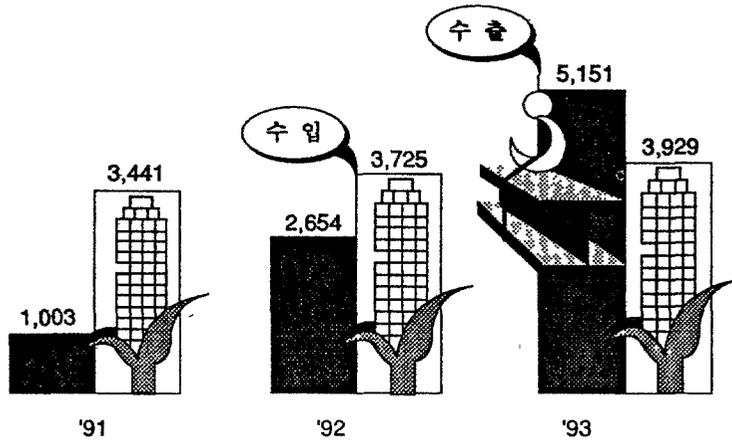
분류 번호	품 목  명 칭	수 출			'93 우크라이나 총수출 액에 대한 구성비(%)
		'93	'92	'93/'92 (%)	
89	· 선박과 수상 구조물	12 567	2 406	422.3	55.3
87	· 철도· 궤도용 이외의 차량 및 부분품	4 251	1 124	278.2	18.7
85	· 전기기기와 부분품, 녹음기, TV등	1 914	497	285.1	8.4
55	· 인조스테이플 섬유	847	1	...	3.7
90	· 광학· 사진· 측정· 검사· 의료용기기	724	48	1 408.3	3.2
60	· 메리야스 편물과 뜨개질 편물	523	37	1 313.5	2.3
54	· 인조필라멘트	483	-	...	2.1
56	· 펠트 및 부직포, 특수사, 끈, 로프등	322	-	...	1.4
17	· 당류와 설탕과자	273	-	...	1.2
84	· 기계류와 부분품	251	346	-27.5	1.1

< 對 우크라이나 주요 수입 품목(류별분류기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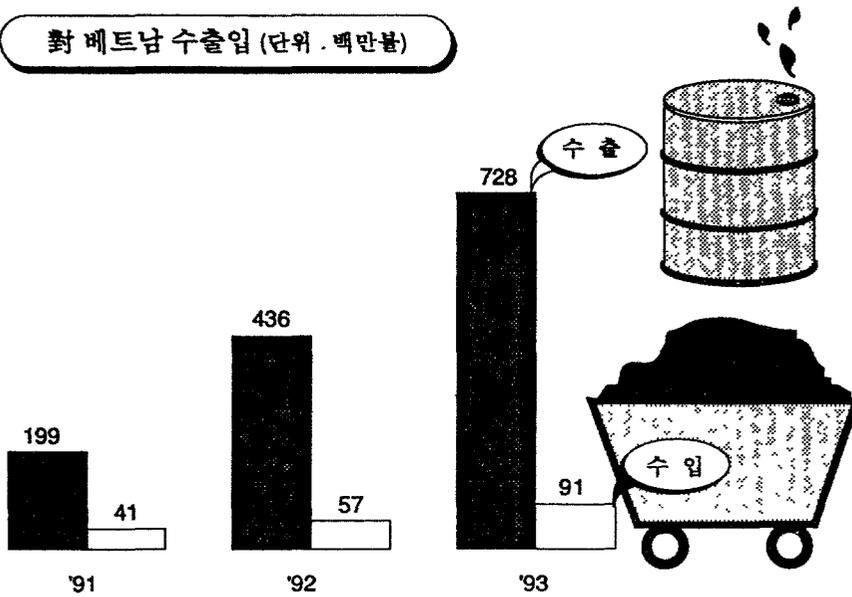
(단위 천 \$)

분류 번호	품 목  명 칭	수 입			'93 우크라이나 총수입 액에 대한 구성비(%)
		'93	'92	'93/'92 (%)	
72	· 철강	37 697	1 170	3 120.4	69.4
28	· 무기화학품· 회토류 금속	10 952	-	...	20.2
31	· 비료	2 823	-	...	5.2
29	· 유기화학품	2 200	-	...	4.1
84	· 기계류와 부분품	309	110	180.9	0.6
85	· 전기기기와 부분품, 녹음기, TV등	190	-	...	0.3
52	· 면(縮)	115	404	-71.5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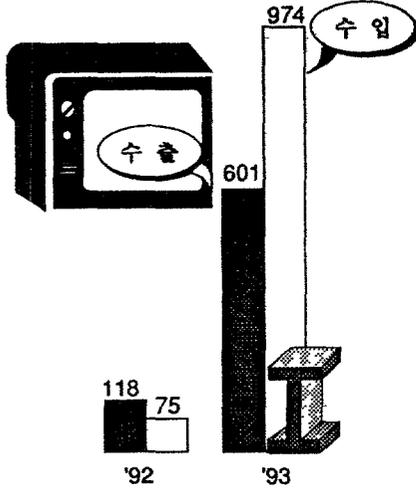
對 중국 수출입 (단위: 백만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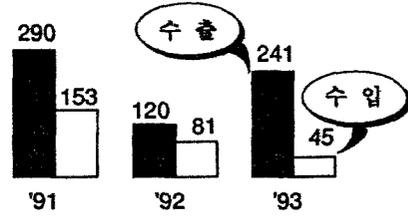
對 베트남 수출입 (단위: 백만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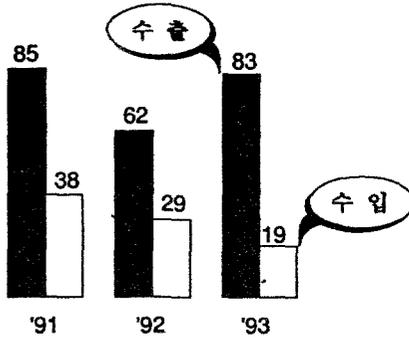
對 러시아 수출입 (단위: 백만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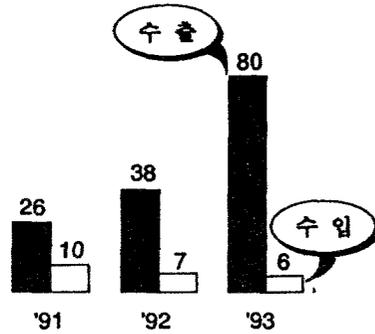
對 폴란드 수출입 (단위: 백만불)



對 헝가리 수출입 (단위: 백만불)



對 루마니아 수출입 (단위: 백만불)



### 〈對 中 國 稅 務 輸 入 輸 出 比 較〉

(단위 \$)

유별분류 (H S 중분류)	수 출		수 입	
	'92	'93	'92	'93
01	-	26 950	759 466	811 601
02	-	51 537	3 858 657	2 237 240
03	428 940	9 177 991	30 193 726	35 364 974
04	674 096	9 626	1 236 335	1 635 693
05	-	3 884 373	46 637 379	35 791 962
06	134 386	284 983	226 106	454 342
07	32 429	1 641	40 671 267	43 435 756
08	-	398 289	4 666 521	3 448 625
09	96 619	15 344	11 294 987	3 510 474
10	-	-	648 322 833	629 639 714
11	50 043	89 645	2 324 718	1 923 279
12	89 132	186 674	84 906 828	82 358 290
13	-	548 713	2 207 709	2 979 538
14	16 411	-	3 054 564	4 196 140
15	665 550	285 867	8 307 707	6 100 110
16	153 197	169 942	9 538 461	9 591 902
17	2 664 858	3 086 332	759 182	922 114
18	1 446	2 334	53 892	580 131
19	117 440	368 140	19 220 125	13 011 409
20	-	20 416	11 325 674	11 123 741
21	1 011 702	1 685 471	6 416 443	5 662 659
22	243 720	178 689	16 749 806	17 999 264
23	52 631	213 568	39 028 473	90 946 829
24	-	5 615	7 017 255	1 427 353
25	397 060	1 087 856	270 101 176	65 865 642
26	3 379	1 851	12 320 823	11 281 614
27	85 393 720	341 655 215	530 466 970	578 977 635
28	5 566 186	10 920 584	62 545 461	79 167 192
29	151 701 436	247 213 049	87 721 562	106 477 129
30	6 293 252	5 057 544	15 912 642	20 919 328
31	1 722 136	2 560 000	850 402	1 247 703
32	24 506 597	33 878 718	17 129 554	24 771 074
33	147 954	483 873	194 739	484 735
34	2 161 300	3 793 758	566 344	430 093
35	1 334 821	3 067 307	2 149 518	1 561 995
36	-	78 033	175 565	494 701
37	159 643	55 077	855 104	2 512 634
38	18 570 773	22 009 099	13 385 231	16 861 880
39	325 068 383	442 215 757	17 656 080	23 971 857
40	8 254 770	14 826 641	11 764 482	12 220 705
41	141 403 655	271 308 050	6 217 141	7 573 775
42	3 060 878	7 190 484	4 278 500	9 971 254
43	1 626 524	5 195 384	5 352 604	6 249 215
44	7 517 563	17 797 253	28 953 993	48 245 332
45	-	4 134	20 812	28 724
46	9 727	-	16 362 527	11 515 350
47	11 250	-	2 257 393	275 151
48	91 934 254	124 727 415	841 316	1 494 605

(단위 . \$)

유별분류 (H. S 중분류)	수 출		수 입	
	'92	'93	'92	'93
49	357 361	4 393 058	357 596	794 381
50	9 122 881	12 912 783	265 553 164	234 291 130
51	9 787 400	21 710 132	46 250 194	81 803 956
52	21 145 426	36 620 326	173 376 848	199 942 403
53	5 610 372	11 242 251	63 983 122	68 918 579
54	118 115 750	194 678 983	32 874 618	59 821 583
55	175 533 982	285 104 409	281 266 710	328 407 162
56	13 279 548	27 213 525	1 647 276	2 980 087
57	155 614	132 024	4 970 876	8 108 540
58	15 270 370	37 662 296	6 626 590	12 579 071
59	38 779 962	71 827 664	90 011	388 014
60	44 039 037	85 005 052	392 657	1 180 366
61	1 172 803	4 339 305	33 695 110	60 827 526
62	7 187 615	17 185 520	39 851 493	67 557 295
63	1 514 265	2 309 777	15 144 088	19 667 691
64	14 117 811	31 474 759	17 613 119	58 217 679
65	22 025	79 099	1 635 908	2 810 637
66	-	-	2 570 385	245 283
67	2 034 989	5 207 662	25 016 493	19 995 221
68	395 155	1 123 855	2 987 201	3 477 328
69	82 095	1 181 717	10 275 301	8 116 242
70	8 416 224	5 790 042	17 490 265	13 466 171
71	1 383 782	2 155 849	2 499 129	6 525 862
72	730 089 563	997 704 084	183 960 017	152 255 362
73	72 565 670	84 705 214	29 341 685	27 581 715
74	34 072 599	11 003 415	3 658 983	1 147 042
75	174 848	211 561	-	2 268
76	18 868 310	30 983 754	23 098 478	20 023 824
78	76 417	278 577	5 710 230	4 313 492
79	74 574	947 825	12 960 446	16 254 398
80	10 688	491 668	3 804 249	2 994 131
81	7 129	153 154	7 644 925	12 599 857
82	3 999 156	5 066 389	9 019 815	8 875 485
83	4 783 661	12 196 925	3 517 836	2 989 914
84	158 183 992	406 736 042	60 254 034	65 691 679
85	189 531 461	408 374 901	107 077 786	209 493 780
86	2 441 888	1 888 028	154 592	168 908
87	16 565 873	582 052 232	6 144 123	3 554 462
88	-	-	350 557	-
89	18 621 169	94 964 777	588 036	6 263 802
90	4 247 753	21 000 970	10 090 064	15 752 778
91	856 192	3 509 172	7 544 282	12 212 096
92	89 206	772 157	3 351 655	5 312 555
93	-	62 020	290 486	549 372
94	1 453 172	2 161 001	6 836 910	7 363 924
95	9 424 809	21 956 614	28 003 323	41 200 460
96	16 546 638	28 504 488	7 584 635	13 213 973
97	-	1 100	399 497	571 082

## 對 베트남 세부 수출입 비교

(단위 : \$)

유별분류 (H. S 중분류)	수 출		수 입	
	'92	'93	'92	'93
01	-	27 177	-	93 000
02	-	-	3 706 456	1 525 298
03	-	1 422	4 168 094	6 828 620
05	-	483 032	369 643	2 683 239
06	-	-	-	26 903
07	-	-	11 576	14 041
08	-	446 619	626 375	320 738
09	-	2 402	2 126 308	2 795 139
11	551 286	-	-	-
12	-	12 137	1 957 200	2 773 702
14	-	-	172 323	143 806
16	-	18 502	727 076	1 876 375
17	-	293 650	370 545	6 436 641
18	-	13 036	-	-
19	14 378	69 120	15 480	231 783
20	-	-	40 747	121 167
21	114 140	363 201	7 635	-
22	46 942	79 686	-	-
25	42 029	10 321 097	724 349	1 006 419
26	-	-	242 159	-
27	37 306 705	104 473 708	16 019 835	19 731 643
28	423 999	1 244 277	30 633	-
29	13 154 311	15 973 549	-	-
30	354 214	2 224 884	-	-
31	42 204 798	23 133 547	-	-
32	1 210 463	1 664 381	-	-
33	-	145 792	-	-
34	5 856 830	2 424 195	-	-
35	40 088	359 970	-	-
37	2 804	-	-	-
38	374 861	1 618 200	-	-
39	32 033 529	45 908 602	6 498	173 344
40	7 071 276	9 206 006	1 096 638	1 792 809
41	766 106	2 694 860	329 903	636 086
42	-	47 178	174 512	556 984
43	525 023	3 413 568	-	96 639
44	6 430	15 656	2 619 204	2 530 652
46	-	-	3 846 805	3 104 971
48	3 751 957	8 555 804	-	3 272
49	163 721	43 431	-	-
50	-	386 896	1 607 355	2 809 352
51	2 569 261	2 073 209	-	-
52	11 635 665	11 069 939	542 583	2 696 254
53	1 393 276	1 290 152	-	-
54	39 899 667	66 456 027	-	120 031
55	32 456 565	34 875 709	2 435 601	11 325 596
56	9 047 473	8 848 752	-	91 790
57	82 930	103 780	11 426	27 983

(단위 . \$)

유별분류 (H.S 중분류)	수 출		수 입	
	'92	'93	'92	'93
58	7 557 189	14 220 864	-	1 644
59	11 888 015	28 730 327	-	7 765
60	8 381 629	18 245 566	-	-
61	280 528	206 692	3 847 699	5 156 283
62	1 337 234	1 377 451	3 611 927	4 334 659
63	158 183	231 008	631 358	331 422
64	414 812	2 809 529	175 819	351 732
65	9 119	9 458	211 573	310 098
66	-	10 759	-	-
67	182 259	3 119	-	52 525
68	72 861	84 167	-	66 260
69	33 655	930 656	186 425	178 069
70	405 365	49 777	-	10 031
71	2 268 643	67 729	16 846	35 621
72	30 651 716	53 988 578	-	-
73	7 565 227	24 187 245	20 731	143 666
74	1 655 004	9 202 494	-	-
76	16 196 275	13 767 992	-	-
78	45 984	169 065	-	-
79	229 621	223 035	-	-
80	-	-	3 853 756	5 087 227
81	-	2 721	-	-
82	252 145	506 889	-	-
83	798 729	4 250 159	-	-
84	35 950 704	47 203 374	1 698	37 804
85	50 103 073	89 257 892	483 966	1 018 262
86	-	6 250	-	-
87	8 366 074	43 445 637	-	18 283
89	-	1 410 427	-	-
90	358 535	1 442 195	38 524	1 748
91	1 095	3 865	-	-
92	1 585	41 694	-	-
93	4 864	4 864	-	-
94	58 957	882 428	55 734	474 311
95	163 004	775 537	99 836	153 817
96	7 649 165	10 083 670	87 137	252 614

〈對 러시아 세부 수출입 비교〉

(단위 \$)

유별분류 (H. S 중분류)	수 출		수 입	
	'92	'93	'92	'93
02	62 452	110 819	-	-
03	-	122 586	985 363	125 952 003
04	-	9 075	-	298 070
05	-	-	4 527 017	12 666 916
07	-	211 714	-	-
08	-	545 493	-	-
09	-	210 080	-	-
10	-	31 847	-	-
11	2 790	65 024	-	-
12	-	7 280	-	214 716
15	-	1 053 979	498 430	1 807 815
16	-	642 706	-	9 267 971
17	10 664 026	13 757 424	-	-
18	-	1 836 442	-	-
19	58 457	8 883 487	-	-
20	276 594	983 907	-	-
21	459 999	2 020 045	427 344	3 804 686
22	119 731	5 915 152	-	37 130
23	-	-	143 067	6 866 448
24	43 005	1 463 221	-	-
25	54 076	19 407	251 836	5 041 267
26	-	-	-	24 840
27	1 021 802	13 184 418	-	67 895 227
28	-	88 560	-	33 962 278
29	3 767 594	980 368	515 767	15 472 044
30	-	40 219	-	336 782
31	-	-	289 870	17 208 767
32	-	808 354	190 202	2 593 240
33	16 607	918 563	-	-
34	3 420	532 177	-	6 223
35	-	72 147	-	-
36	-	9 500	-	-
37	1 500	36 928	22 144	18 538
38	-	275 397	-	121 075
39	1 822 797	11 225 063	15 800	4 274 448
40	184 627	1 633 468	1 657 856	28 293 303
41	5 211	1 847 502	-	824 853
42	10 194 409	16 862 316	-	-
43	1 009 604	808 704	766 299	71 807
44	-	889 760	3 343 747	47 020 516
47	-	-	2 971 620	23 633 446
48	161 667	2 231 487	-	689 301
49	58 841	855 656	-	79 084
50	28 479	19 000	-	718 085
51	38 562	846 187	-	1 661 359
52	12 203	962 186	7 045 353	70 020 337
53	-	214 742	25 601	217 327
54	4 130 869	9 626 683	-	7 618 754

(단위 · \$)

유별분류 (H S 중분류)	수 출		수 입	
	'92	'93	'92	'93
55	793 058	5 655 152	99 120	2 145 037
56	950 384	7 074 105	-	-
57	35 831	207 262	-	-
58	746 185	3 851 945	-	4 259
59	-	408 705	-	-
60	1 365 245	2 485 364	-	9 780
61	4 494 595	23 142 472	-	-
62	5 988 866	28 620 726	-	547 893
63	927 128	1 211 638	-	-
64	1 251 901	11 958 488	-	-
65	29 491	891 480	-	8 474
66	-	26 650	-	-
67	-	12 836	-	-
68	11 060	64 838	4 534	43 869
69	-	234 442	-	-
70	-	228 296	2 803	14 864
71	20 920	1 222 640	334 060	16 843 725
72	2 048	2 115 354	29 025 357	355 610 564
73	12 102 882	7 148 148	-	207 328
74	-	38 094	12 327 193	17 857 530
75	-	-	637 190	15 453 238
76	19 950	708 851	5 003 769	45 486 040
78	-	-	179 548	1 441 493
79	-	45 000	1 476 253	7 299 504
80	-	-	-	240 109
81	-	-	1 451 299	8 939 276
82	153 301	630 867	8 233	278 453
83	182 667	730 801	-	9 112
84	27 822 041	82 364 188	326 773	6 575 786
85	24 142 438	210 534 205	26 217	3 657 221
86	-	33 875	-	-
87	177 510	46 899 155	-	117 630
89	-	35 704 416	-	68 912
90	1 621 100	11 380 785	228 185	2 084 023
91	72 330	117 549	12 706	-
92	-	64 352	-	17 679
93	-	52 569	-	-
94	623 294	7 943 071	-	43 933
95	168 011	1 715 737	-	142 437
96	170 582	2 732 345	-	12 493
97	-	-	-	876 786

〈 對 폴란드 세부 수출입 비교 〉

(단위 : \$)

유별분류 (H S 중분류)	수 출		수 입	
	'92	'93	'92	'93
03	-	-	1 292 510	343 933
04	-	-	4 556 265	229 131
05	-	-	-	71 238
12	-	-	-	1 108
15	-	-	-	260 194
17	4 870	134 058	-	422 509
18	-	-	-	10 780
19	770 100	822 403	-	-
20	-	-	51 559	2 073
24	-	454 500	-	-
25	-	-	73 300	123 628
28	-	1 054	-	24 050
29	260 103	334 134	9 004 167	15 952 183
30	-	1 194	-	-
31	-	-	70 266	17 031
32	136 341	6 857	40 837	13 101
35	18 030	-	-	515 853
37	-	27 086	-	19 320
38	-	4 319	1 620	-
39	1 069 052	2 121 170	1 383 416	2 452 621
40	2 163 644	1 794 428	17 582	36 480
41	16 960	28 000	-	-
42	175 840	260 715	18 948	-
43	-	-	-	31 477
44	-	2 830	-	2 869
48	247 691	288 966	-	3 846
49	133 527	92 519	-	31 672
51	36 715	598 116	834 150	784 220
52	622 573	329 582	-	-
53	-	-	335 263	434 154
54	18 836 653	32 035 600	1 632 121	1 076 737
55	2 428 775	1 387 937	312 503	6 579 308
56	3 033	71 625	-	-
58	187 887	217 015	-	-
59	286 304	575 261	-	111 734
60	1 007 936	497 614	5 169	-
61	10 607 041	27 804 332	-	226 542
62	4 987 857	9 323 562	15 366	79 622
63	18 616	49 377	26 386	-
64	10 221 778	16 169 592	5 370	-
65	319 915	2 307 365	-	-
67	26 664	1 732	-	-
68	-	-	41 836	-
69	-	1 300	53 225	-
70	1 500	-	153 427	103 768
71	52 770	125 231	2 047 633	3 069 183
72	-	-	55 937 551	8 057 380
73	103 273	178 773	123 895	2 208

(단위 . \$)

유별분류 (H. S 중분류)	수 출		수 입	
	'92	'93	'92	'93
74	-	-	297 639	-
76	-	9 397	-	-
82	125 747	115 952	19 952	15 030
83	268 423	316 204	-	-
84	5 244 822	34 118 583	2 254 233	1 682 024
85	39 831 343	87 380 888	269 012	1 434 730
87	12 840 300	13 497 045	-	2 785
88	-	16 666	-	-
89	1 344 047	1 357 416	-	-
90	1 579 148	2 333 426	81 286	143 733
91	118 701	104 509	2 900	14 703
92	24 104	145 814	-	-
94	150 404	11 723	-	20 469
95	470 070	384 909	-	21 716
96	2 796 310	2 683 116	11 381	113 480

〈 對 헝가리 세부 수출입 비교 〉

(단위 \$)

유별분류 (H.S 중분류)	수 출		수 입	
	'92	'93	'92	'93
01	-	-	5 715	50 967
02	-	-	-	1 154
05	-	-	1 616 710	1 082 216
07	-	-	-	1 240
09	-	-	-	1 224
12	-	-	24 982	48 999
16	-	-	47 406	31 184
19	49 396	13 386	-	-
20	3 386	-	192 561	72 327
21	6 550	5 656	-	-
22	639 446	205 591	5 882	11 870
28	-	30 900	263 183	11 584
29	1 308 844	1 668 786	6 325 048	2 552 937
30	-	-	21 750	-
32	-	-	67 159	190 827
33	-	28 449	82 498	119 099
34	-	26 013	-	30 963
35	-	1 462	15 800	-
37	-	1 496	30 748	-
38	10 446	65 344	-	7 779
39	506 061	676 842	260 240	1 408 888
40	1 605 819	3 877 189	122 870	50 060
41	-	16 038	149 076	102 754
42	228 316	81 070	4 135	27 182
43	-	-	60 520	1 019 967
48	44 141	116 366	-	-
49	13 058	9 454	1 823	7 875
50	-	1 891	-	-
51	168 901	-	-	-
52	413 864	1 609 613	-	-
53	-	-	-	171 122
54	2 785 553	5 915 330	8 490	-
55	1 695 141	1 044 285	-	-
56	-	-	870 314	980 524
57	-	-	349 919	103 538
58	110 363	433 718	-	-
59	8 681	105 469	-	-
60	205 814	344 393	-	-
61	672 370	449 969	32 820	29 179
62	1 397 488	203 155	41 979	43 440
63	208 560	94 710	-	1 910
64	1 992 192	1 728 635	-	-
65	10 951	12 037	-	-
67	-	1 086	-	-
69	-	-	56 994	139 073
70	-	-	157 215	5 850
71	93 700	129 790	-	1 420
72	-	-	6 698 466	1 245 416

(단위 : \$)

유별분류 (H.S 중분류)	수 출		수 입	
	'92	'93	'92	'93
73	96 888	170 062	-	-
74	1 514 627	5 254 434	-	137 735
76	12 670	3 204	5 377 829	7 844 602
81	-	-	159 360	40 226
82	157 984	220 304	-	61 856
83	76 666	49 426	-	-
84	3 638 352	8 566 077	4 483 895	546 643
85	37 990 605	39 219 633	855 727	837 068
87	3 293 507	8 994 479	-	-
89	-	-	63 430	45 482
90	449 763	859 694	335 905	215 608
91	7 889	8 450	-	-
92	37 176	33 630	-	-
93	-	2 727	-	-
94	1 754	9 155	-	30 025
95	314 311	392 591	4 067	9 682
96	395 425	353 445	-	-
97	-	1 111	6 840	12 324

〈對 루마니아 세부 수출입 비교〉

(단위 \$)

유별분류 (H S 중분류)	수 출		수 입	
	'92	'93	'92	'93
04	-	-	85 703	-
20	-	7 185	-	-
21	-	3 733	-	-
22	-	-	12 229	35 109
28	245 000	66 841	10 537	-
29	-	-	158 352	592 758
31	-	-	4 126 597	1 118 017
32	35 674	-	-	-
37	-	-	2 336	-
38	-	1 578	-	-
39	1 137 902	320 472	34 278	-
40	-	8 807 840	-	-
41	158 886	-	-	-
42	-	6 806	-	-
44	-	2 660	-	178 814
48	3 953	5 015	-	-
49	254 517	-	-	47 958
52	603 901	198 211	11 581	-
53	-	226 520	67 330	-
54	2 464 638	1 458 132	-	-
55	3 776 711	1 823 041	-	-
56	52 910	23 100	-	-
58	73 009	73 271	-	-
59	-	4 040	-	-
61	67 233	204 510	-	89 742
62	56 530	220 384	14 912	187 600
63	1 312 004	1 537 406	-	-
64	116 134	120 492	-	-
65	-	11 885	-	-
69	-	2 999	-	1 142
70	-	-	-	78 420
71	2 000	158 277	-	-
72	-	2 861	-	-
73	-	6 953	17 552	-
74	82 253	255 181	-	-
76	-	-	1 534 831	1 912 884
82	24 021	1 641	-	-
83	31 559	-	-	-
84	1 183 953	6 409 780	419 489	1 285 092
85	23 290 813	52 512 515	1 557	38 264
87	25 565	3 746 250	-	-
88	342 076	-	-	-
89	2 499 744	1 161 360	-	-
90	95 349	139 904	1 228	-
91	1 100	1 250	-	-
92	124 340	180 050	4 242	-
94	-	36 529	-	5 015
96	124 944	176 641	-	-

〈對 우크라이나 세부 수출입 비교〉

(단위 \$)

유별분류 (H S 중분류)	수 출		수 입	
	'92	'93	'92	'93
17	-	272 567	-	-
19	1 279	-	-	-
22	23 712	-	-	-
27	-	-	4 622 373	-
28	-	-	-	10 951 678
29	265 740	-	-	2 200 393
30	-	44 922	-	-
31	-	-	-	2 823 458
34	13 246	-	-	-
41	-	56 898	114 227	-
42	36 163	19 481	-	-
48	5 090	2 288	-	-
49	-	75 420	-	-
52	-	-	404 452	114 884
53	-	-	10 961	-
54	-	483 344	87 562	-
55	1 413	847 321	-	-
56	-	321 993	-	-
58	-	32 828	-	-
59	-	49 005	-	-
60	36 745	523 340	-	-
61	256 283	15 329	-	-
62	2 550	155 721	-	-
63	-	16 214	-	-
64	2 385	79 797	-	-
69	-	4 679	-	-
71	9 195	-	-	-
72	-	-	1 169 912	37 678 617
73	4 109	-	-	-
74	-	-	475 702	-
76	5 654	-	50 113	-
82	2 400	-	-	-
83	-	9 900	-	-
84	345 523	251 454	110 280	308 579
85	497 200	1 914 431	-	190 000
87	1 124 372	4 251 132	-	-
89	2 405 966	12 567 001	-	-
90	48 097	724 451	-	-
91	21 500	-	-	-
92	-	3 792	-	-
94	24 014	-	-	-
96	14 822	7 565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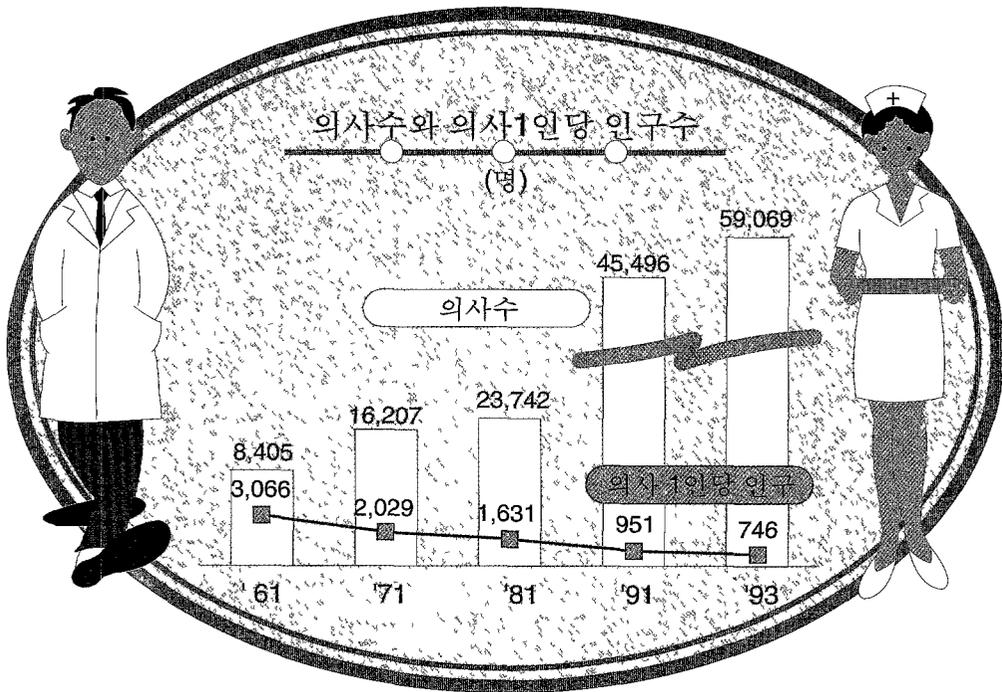
# H S 분 류

HS중분류	명	칭
01	0	산 동물
02	0	육과 식용설육
03	0	어류·갑각류·연체동물 및 기타 수생무척추동물
04	0	낙농품·조란·천연꿀 및 다른 류에 분류되지 아니한 식용의 동물성 생산품
05	0	다른 류에 분류되지 아니한 동물성 생산품
06	0	산 수목과 기타의 식물 및 인경·뿌리 및 이와 유사한 물품과 절화 및 장식용의 잎
07	0	식용의 채소·뿌리 및 괴경
08	0	식용의 과실 및 견과류와 감귤류 또는 멜론의 껍질
09	0	커피 차·마태 및 향신료
10	0	곡물
11	0	제분공업의 생산품과 맥아, 전분, 이눌린 및 밀의 글루텐
12	0	채유용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 각종의 종자와 과실, 공업용 또는 의약용의 식물, 짚과 사료용 식물
13	0	탁·검 수지 및 기타의 식물성 액즙과 엑스
14	0	식물성 편조물용 재료와 다른 류에 분류되지 아니한 식물성 생산품
15	0	동식물성 유지 및 이들의 분해생산물, 조제식용지와 동식물성의 납
16	0	육류 어류·갑각류·연체동물 또는 기타 수생 무척추동물의 조제품
17	0	당류와 설탕과자
18	0	코코아와 그 조제품
19	0	곡물·분·전분 또는 밀크의 조제품과 베이커리 제품
20	0	채소·과실·견과류 또는 식물의 기타 부분의 조제품
21	0	각종 조제식료품
22	0	음료·알콜 및 식초
23	0	식품공업에서 생기는 잔유물 및 웨이스트와 조제사료
24	0	담배와 제조한 담배대용물
25	0	소금, 황, 토석류 및 석고·석회와 시멘트
26	0	광·슬래 및 회
27	0	광물성 연료, 광물유와 이들의 증류물, 역청물질 및 광물성 왁스
28	0	무기화합품 및 귀금속·희토류금속·방사성 원소 또는 동위원소의 유기 또는 무기화합물
29	0	유기화합품
30	0	의약품
31	0	비료
32	0	유연 또는 염색엑스, 탄닌과 그들의 유도체, 염료·안료와 기타 착색제, 페인트와 바니쉬, 퍼티와 기타 매스틱 및 잉크
33	0	정유와 레지노이드 및 조제향료와 화장품류 또는 화장용품류
34	0	비누·유기계면활성제·조제세제·조제윤활제·인조왁스·조제왁스·광택 또는 연마조제품·양초와 이와 유사한 물품·조형용 페이스트·치과용왁스와 플라스틱을 기제로 한 치과용 조제품
35	0	단백질계 물질, 변성전분, 글루 및 효소
36	0	화약류·화공품·성냥·발화성 합금 및 특정 가연성 조제품
37	0	사진용 또는 영화용의 재료
38	0	각종 화학공업 생산품
39	0	플라스틱과 그 제품
40	0	고무와 그 제품
41	0	원피(모피를 제외한다)와 가죽
42	0	가죽제품·마구·여행용구·핸드백 및 이와 유사한 용기와 동물의 커트(누에의 거크를 제외한다)의 제품

HS중분류	명	칭
43	0	모피, 인조모피 및 이들의 제품
44	0	목재와 그 제품 및 목탄
45	0	코르크와 그 제품
46	0	짚·에스파르토 또는 기타 조물재료의 제품과 농세공물 및 지조세공물
47	0	목재펄프 또는 기타 섬유질 셀룰로스재료의 펄프 및 지 또는 판지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48	0	지와 판지, 제지용 펄프, 지 또는 판지의 제품
49	0	인쇄서적·신문·회화 및 기타의 인쇄물, 수제문서·타이프문서 및 도면
50	0	견
51	0	양모·섬수모 또는 조수모·마모사 및 이들의 직물
52	0	면
53	0	기타 식물성 방직용 섬유와 지사 및 지사의 직물
54	0	인조필라멘트
55	0	인조스테이플섬유
56	0	워딩·펠트 및 부직포·특수사·끈·코디지·로프 및 케이블과 이들의 제품
57	0	양탄자류와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바닥갈래
58	0	특수직물, 터후트한 섬유직물, 레이스, 태피스트리, 트리밍과 자수포
59	0	침투·도포·피복 또는 적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공업용의 방직용 섬유제품
60	0	메리야스 편물과 뜨개질 편물
61	0	의류와 그 부속품(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에 한한다)
62	0	의류와 그 부속품(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을 제외한다)
63	0	제품으로 된 방직용 섬유의 기타 물품, 세트, 사용하던 의류·사용하던 방직용 섬유제품 및 냅마
64	0	신발류·각반 및 이와 유사한 것과 이들의 부분품
65	0	모자류와 그 부분품
66	0	산류·지팡이·시트스틱·채찍 및 이들의 부분품
67	0	조계우모와 솜털 및 그 제품, 조화, 인모제품
68	0	석·플라스터·시멘트·석면·운모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의 제품
69	0	도자제품
70	0	유리와 유리제품
71	0	천연 또는 양식진주·귀석 또는 반귀석·귀금속·귀금속을 입힌 금속 및 이들의 제품, 모조신변장식용품과 주화
72	0	철강
73	0	철강의 제품
74	0	동과 그 제품
75	0	니켈과 그 제품
76	0	알루미늄과 그 제품
77	0	(유보)
78	0	연과 그 제품
79	0	아연과 그 제품
80	0	주석과 그 제품
81	0	기타 비금속, 서메트, 이들의 제품
82	0	비금속제의 공구·도구·칼블이·스폰과 포크 및 이들의 부분품
83	0	비금속제의 각종 제품

HS중분류	명 칭
84	○ 원자로·보일러와 기계류 및 이들의 부분품
85	○ 전기기기와 그 부분품, 녹음기와 음성재생기·텔레비전의 영상 및 음성의 기록기와 재생기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86	○ 철도 또는 궤도용의 기관차·차량과 이들의 부분품, 철도 또는 궤도용의 장비품과 그 부분품 및 기계식(전기 기계식을 포함한다)의 각종 교통신호용 기기
87	○ 철도 또는 궤도용 이외의 차량 및 그 부분품과 부속품
88	○ 항공기와 우주선 및 이들의 부분품
89	○ 선박과 수상 구조물
90	○ 광학기기·사진용 기기·영화용 기기·측정기기·검사기기·정밀기기와 의료용 기기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91	○ 시계와 그 부분품
92	○ 악기 및 그 부분품과 부속품
93	○ 무기·총포탄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94	○ 가구와 침구·매트리스·매트리스서포트·쿠션과 이와 유사한 물품, 다른 류에 분류되지 아니한 램프와 조명기구, 조명용 사인·조명용 네임플레이트와 이와 유사한 물품 및 조립식 건축물
95	○ 완구·유희용구·운동용구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96	○ 잡품
97	○ 예술품·수집품과 골동품
98	○ (유보)
99	○ (유보)

# 국민 건강 수준 얼마나 향상 되었나?



「지난 30여년간 의사수는 약 7배 증가하였고,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는 약 42배 증가하였으며, 의사 1인당 인구수는 '61년 3,066명에서 '93년에는 746명으로 크게 줄어들었다」

- 자료중에서 -

# 國民健康水準 얼마나 向上되었나

— 지난 30年間 保健醫療水準變化 —

이 資料는 보건외 날(4月 7日)을 맞이하여  
關聯統計指標를 통해 우리의 保健醫療水準이  
얼마나 向上되었는가를 分析한 것임

1994. 4

統計企劃局 企劃課

# 1. 死亡率 크게 低下

## 嬰兒死亡率 및 母性死亡率

- 醫療水準의 向上과 더불어 出生後 1年以內에 死亡한 嬰兒死亡率(出生千名當)이 '62년에 69.0에서 90년에 12.8로 急激히 低下되었음
- 母性死亡率(出生십萬名當)은 '80년에 42에서 '92년에 30으로 떨어졌음

〈表〉 嬰兒死亡率 및 母性死亡率

	單位	'62	'70	'80	'90	'92
嬰兒死亡率	出生千名當	69.0	53.0	17.3 <sup>1)</sup>	12.8	—
母性死亡率	出生십萬名當	—	—	42	30	30

註：'81年 基準

資料：統計廳. 保健社會部 「保社統計年報」

- 嬰兒死亡率의 水準을 先進國과 比較하여 보면 美國이 9.1, 英國이 7.9, 獨逸이 7.0 등으로 先進國보다는 높으나 先進國 水準에 크게 接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表〉 嬰兒死亡率 國際比較

(單位：出生千名當)

韓國('90)	美國('90)	英國('90)	獨逸(西獨, '90)
12.8	9.1	7.9	7.0
日本('90)	프랑스('90)	이라크('85~90)	방글라데시('85~90)
4.6	7.3	68.6	119.0

- 母性死亡率의 水準을 先進國과 比較하여 보면 美國은 8.4, 英國은 5.9, 프랑스는 8.5, 日本은 10.8로 先進國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表〉 母性死亡率 國際比較

(單位：出生十萬名當)

<u>韓國('92)</u>	<u>美國('88)</u>	<u>英國('88)</u>	<u>獨逸(西獨, '89)</u>
30.0	8.4	5.9	5.3
<u>프랑스('89)</u>	<u>日本('89)</u>	<u>헝가리('89)</u>	<u>유고슬라비아('89)</u>
8.5	10.8	15.4	15.5

總死亡率

- 總死亡率(人口千名當)은 30年前에 비해 折半水準以下로 떨어졌음

〈表〉 總死亡率(人口千名當)

<u>'60</u>	<u>'70</u>	<u>'80</u>	<u>'90</u>	<u>'92</u>
12.1 <sup>1)</sup>	9.4 <sup>1)</sup>	6.7 <sup>1)</sup>	5.5 <sup>2)</sup>	5.3 <sup>2)</sup>

註：1) 保健社會部, 保健社會年報

2) 統計廳, 死亡原因統計調查 結果

- 死亡率 水準을 外國과 比較하여 보면, 美國, 日本보다 낮은 水準을 보이고 있으나, 臺灣, 싱가포르, 멕시코보다는 높은 水準임

〈表〉 總死亡率 國際比較

(單位：人口千名當)

<u>韓國('92)</u>	<u>美國('89)</u>	<u>日本('91)</u>	<u>프랑스('90)</u>
5.3	8.7	6.8	9.3
<u>英國('89)</u>	<u>상가포르('90)</u>	<u>臺灣('89)</u>	<u>멕시코('90)</u>
11.5	5.1	5.2	5.0

○ 死亡率을 年齡別로 보면 30代와 50代 死亡率은 꾸준히 減少해 오고 있으나, 40代 男子死亡率은 '83년까지 增加하다가 減少(女子死亡率은 繼續 減少)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單位：千名當, 名)

	30代 死亡率		40代 死亡率		50代 死亡率	
	男	女	男	女	男	女
1966	3.59	3.45	5.42	4.31	22.94	9.47
1970	3.33	2.90	8.44	4.81	18.48	9.92
1983	3.58	1.80	8.94	3.65	18.54	7.65
1985	3.37	1.54	8.36	3.36	16.76	6.95
1987	3.01	1.40	7.67	3.07	15.77	6.49
1989	2.77	1.23	7.04	2.80	14.69	6.00
1990	2.63	1.16	6.75	2.65	14.24	5.78
1991	2.77	1.03	6.37	2.28	13.20	5.19

資料：統計廳 「簡易生命表('66)」, 「標準生命表('90)」, 「將來人口推計('91)」, 「'91年 生命表」

死因別 死亡率

- 主要死因別 死亡率(人口 十萬名當)을 보면 지난 10餘年間 結核 등 後進性疾患에 의한 死亡은 크게 減少한 반면, 糖尿 등 成人病에 의한 死亡과 交通事故에 따른 死亡이 크게 增加하였음
- 특히 交通事故에 의한 死亡은 지난 10餘年間 두배 가까이 增加

<表> 主要 死因別 死亡率

(單位：人口十萬名當)

	總死亡	結核	胃癌	肝癌	肺癌	高血壓 性疾患	腦血管 疾患	慢性肝 疾患 및 硬變症	交通 事故	糖尿
'81	559.2	21.4	25.3	—	7.5	58.8	54.0	24.4	20.5 <sup>1)</sup>	5.7
'85	564.5	17.7	32.7	18.6	8.2	47.9	76.1	28.1	18.3	6.8
'90	549.1	11.7	31.5	24.1	14.5	35.6	75.7	29.6	39.7	11.8
'91	548.1	11.0	29.5	23.7	15.2	29.9	72.6	28.8	38.2	12.4
'92	530.2	10.4	30.6	23.9	17.0	27.5	80.4	28.6	34.5	13.5

註：1) '81年은 自動車 交通事故만의 資料임

資料：統計廳 「死亡原因統計年報」, 1993

○ 主要死因別 死亡率을 外國과 비교하여 보면 交通事故死亡率 및 肝  
 癌死亡率은 우리나라가 제일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表〉 主要死亡原因別 死亡率 國際比較

(人口십萬名當)

	結 核	胃 癌	肝 癌	肺 癌	糖尿病	高血壓 性疾患	交 通 事 故
韓 國('92)	10.4	30.6	23.7	17.0	13.5	27.5	34.5
日 本('91)	2.7	39.9	14.9	31.0	7.9	7.4	12.8
싱가폴('90)	4.2	13.5	—	27.2	12.4	7.8	9.6
美 國('89)	0.8	5.7	1.5	55.2	18.8	12.9	20.3
프랑스('90)	1.7	12.0	5.3	38.1	11.4	10.9	18.2
英 國('89)	0.9	17.9	1.4	70.0	—	6.8	10.5
蘇 聯('90)	7.8	29.7	—	35.7	6.3	7.8	27.0

資料: W.H.O 1992 世界保健統計年報, 1993  
 統計廳 死亡原因統計, 1993

## 2. 平均壽命의 增加

- 우리나라 國民의 平均壽命은 지난 30여년전의 平均壽命에 비해 약 19세 높아졌음
  - '50年代末의 52.4세에서 '91년에 71.6세로 19.2세 增加
  - 男子보다 女子의 平均壽命이 크게 增加하여 男女間 平均壽命 隔差 擴大 ('50年代末 2.6歲 → '91年 8.0歲)
  
- 平均壽命이 크게 增加한 理由는 急速한 經濟成長과 더불어 所得水準向上에 따른 國民保健意識 向上, 醫療技術의 發達, 醫療保險制度의 導入에 따른 醫療接近度 增加, 母子保健 改善에 따른 영아사망의 減少등에 基因

〈表〉 平均壽命 推移

(單位：歲)

年度	'55~'60	'66	'70	'78~'79	'83	'85	'87	'89	'91
計	52.4	61.9	63.2	65.8	67.9	69.0	70.0	70.7	71.6
男	51.1	59.7	59.8	62.7	63.8	64.9	66.0	66.7	67.7
女	53.7	64.1	66.7	69.1	72.2	73.3	74.1	74.9	75.7
差異 (女-男)	2.6	4.3	6.9	6.4	8.4	8.4	8.2	8.2	8.0

資料：統計廳「生命表」, ('91)

○ 平均壽命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는 日本으로 男子 76.1歲, 女子 82.1歲('91年)이며, 다음으로 스웨덴이 男子 74.8歲, 女子 80.4歲('90年)임.

- 우리나라는 日本에 비해 男子 8.4歲, 女子 6.4歲가 낮은 水準임.
- 男·女間 平均壽命의 差異를 보면 에스토니아, 헝가리, 프랑스, 우리나라 등이 8歲 이상으로 우리나라는 男·女間 平均壽命 差異가 큰 國家에 속함.

〈表〉 平均壽命의 國際比較

(單位：歲)

國 家	韓 國 ( '91)	日 本 ( '91)	스웨덴 ( '90)	프랑스 ( '90)	美 國 ( '89)	臺 灣 ( '90)	헝가리 ( '90)	에스토니아 ( '90)	필리핀 ( '89)
男	67.7	76.1	74.8	72.8	71.8	71.3	65.1	64.7	62.5
女	75.7	82.1	80.4	80.9	78.6	76.8	73.7	74.9	66.1
差 異 (女-男)	8.0	6.0	5.6	8.1	6.8	5.5	8.6	10.2	3.6

資料：日本은 簡易生命表('91), 臺灣은 臺灣統計年鑑('92), 其他는 UN 人口統計年鑑('91)

### 3. 老齡人口의 持續的 增加

- 死亡率의 低下 및 平均壽命의 增加와 더불어 老齡人口(60세이상 기준)가 계속 增加趨勢에 있음
  - 30여년전만해도 老齡人口가 總人口에서 차지하는 比率('60년 기준)이 6.0%(150만명)이었으나 '90년에는 7.6%(332만명)로 增加하였음.
- 男女別 老齡人口 構成을 보면 남자가 60세이상 老齡人口의 39.3%, 여자가 60.7%로 여자 老齡人口가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表〉 老齡人口構成의 變化

(單位：千名, %)

		總 人 口	60歲以上	總人口對比比率
1960	합계	24,989	1,502	6.0
	남자	12,544	642	5.1
	여자	12,455	860	6.9
1970	합계	31,435	1,704	5.4
	남자	15,780	700	4.4
	여자	15,655	1,004	6.4
1980	합계	37,406	2,268	6.1
	남자	18,749	913	4.9
	여자	18,657	1,355	7.3
1990	합계	43,390 (100.0)	3,319 (100.0)	7.6
	남자	21,771 (50.2)	1,306 (39.3)	6.0
	여자	21,619 (49.8)	2,103 (60.7)	9.3

資料：統計廳, 人口總調查報告書

○ 市·道別 老齡者 人口分布를 보면 慶北이 人口 100名當 12.1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全南·忠南(11.6), 全北(11.0), 忠北(10.6), 江原(9.7)순으로 나타났음.

－ 서울(5.4), 釜山·仁川(5.5), 大邱(5.8)등 大都市는 낮게 나타남

○ 老齡者人口를 主要國과 比較하여 보면 브라질, 태국 등에 비해서는 높으나 美國, 日本 등 先進國에 비해서는 낮은 水準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表〉 老齡者 人口比重의 國際比較

(單位：%)

國 名	年 度	60歲以上	65歲以上
韓 國	1990	7.6	5.0
美 國	1990	16.8	12.5
日 本	1990	17.5	12.0
프 랑 스	1990	19.1	14.0
스 웨 덴	1988	23.5	18.3
호 주	1990	15.5	11.2
이 집 트	1988	5.3	2.9
브 라 질	1990	7.1	4.7
태 국	1989	6.0	3.7
인 도	1990	6.5	4.1
필 리 핀	1990	5.4	3.5
말 레 이 시 아	1990	5.8	3.7

資料：1) 韓國, 日本：1990 人口센서스  
 2) 美國：1990 人口센서스 暫定結果  
 3) 이외國家：1990 유엔 人口統計年鑑

#### 4. 身長 및 體重의 增加

○ 學生의 平均身長을 보면 6세(國民學校 1學年 學齡)의 身長이 지난 30여년동안 7cm이상 增加되었으며, 11세(國民學校 6學年 學齡)의 경우는 15~18cm나 增加되었음

— 11歲의 경우 특히 女子의 身長增加勢가 뚜렷함

〈表〉 學生身長 推移

(cm)

	6歲(國1 學齡)		11歲(國6 學齡)		14歲(中3 學齡)		17歲(高3 學齡)	
	男	女	男	女	男	女	男	女
1962	111.1	110.4	130.4	128.4	...	...	...	...
1966	111.8	110.5	131.9	132.2	150.3	147.4	164.1	158.6
1971	113.3	112.2	135.3	134.2	152.5	151.4	166.4	157.9
1976	113.7	112.7	137.2	137.5	154.7	152.8	167.0	157.0
1981	115.4	114.5	139.9	141.9	157.7	154.1	167.7	157.2
1986	116.7	116.0	141.9	143.7	160.7	155.6	169.2	157.8
1990	118.3	117.2	144.1	145.8	162.5	156.6	170.1	158.6
1991	118.4	117.3	144.4	145.9	163.2	156.6	170.3	158.6
1992	118.7	117.2	145.3	146.6	164.0	157.4	170.6	158.6

資料：教育部「教育統計年報」

- 學生의 體重을 보면 6歲의 경우 지난 30여년간 平均的으로 4kg이상 增加되었으며, 11歲의 경우는 10~11kg 增加되었음.

〈表〉 學生體重推移

(kg)

	6歲(國1 學齡)		11歲(國6 學齡)		14歲(中3 學齡)		17歲(高3 學齡)	
	男	女	男	女	男	女	男	女
1962	18.5	18.2	27.8	27.0	...	...	...	...
1966	18.6	18.3	28.0	28.0	40.8	42.0	55.2	51.3
1971	19.5	18.8	30.1	29.6	43.9	44.3	56.7	52.4
1981	20.3	19.4	32.5	33.8	46.4	46.4	58.3	52.3
1990	21.6	20.9	37.3	37.9	51.9	49.6	61.3	53.5
1991	22.1	21.2	37.6	38.3	52.7	50.1	61.4	54.0
1992	22.2	21.4	38.4	39.1	53.2	50.6	62.0	54.0

資料：教育部「教育統計年報」

## 5. 醫療施設 및 人力의 擴充과 醫療機關利用 增加

### 醫療人力의 急增

- 지난 30여년간 醫師, 齒科醫師, 看護師, 藥師 등 醫療人力이 크게 증가
  - 醫師數가 '61년에 8,405명에서 '93년에 59,069명으로 약 7배 증가
  - 看護師 및 看護助務師는 '61년에 6,360명에서 '93년에 269,925명으로 약 42배 증가
- 醫師 1人當 人口는 '61년에 3,066명에서 '93년에 746명으로 크게 減少되었음

〈表〉 醫療人力現況

(名)

	'61	'71	'81	'90	'91	'92	'93
1. 醫 師 (1人當人口)	8,405 (3,066)	16,207 (2,029)	23,742 (1,631)	42,554 (1,007)	45,496 (951)	48,390 (902)	59,069 (746)
2. 齒 科 醫 師 (1人當人口)	1,510 (17,064)	2,452 (13,411)	3,947 (9,811)	9,619 (4,457)	10,137 (4,268)	11,285 (3,869)	12,169 (3,620)
3. 看 護 師 및 看 護 助 務 師 (1人當人口)	6,360 (4,051)	25,117 (1,309)	112,182 (345)	224,746 (191)	239,095 (181)	254,106 (172)	269,925 (163)
4. 韓 醫 師 (1人當人口)	3,101 (8,309)	3,357 (9,795)	3,133 (12,360)	5,792 (7,401)	6,120 (7,070)	6,839 (6,384)	7,479 (5,891)
5. 藥 師 (1人當人口)	5,025 (5,128)	15,519 (2,119)	25,311 (1,530)	37,118 (1,155)	38,396 (1,127)	39,564 (1,104)	40,791 (1,080)

資料：保健社會部

- 醫師 1人當 人口를 外國과 比較하여 보면 日本이 609명, 美國이 473명, 캐나다가 514명 등으로 先進國 水準에 接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表〉 醫師 1人當 人口 國際比較

(名)

<u>韓國('93)</u>	<u>日本('88)</u>	<u>臺灣('89)</u>	<u>싱가포르('81)</u>
746	609	964	1,101
<u>美國('84)</u>	<u>캐나다('84)</u>	<u>英國('82)</u>	<u>프랑스('86)</u>
473	514	539	320

資料：UN統計年鑑

### 醫療設施의 擴充

- 지난 30년간 病醫院數가 약 3배 증가
  - 綜合病院은 '61년에 27개에서 '92년에 236개로 증가
  - 病院은 '61년에 183개에서 '92년에 374개로 증가
  - 醫院은 '61년에 4,622개에서 '92년에 12,355개로 증가

○ 病床數는 '61년에 9,951개에서 '92년에 115,188개로 약 12배 증가하여 病床當 人口가 2,514명에서 379명으로 크게 감소

〈表〉 醫療施設 增加推移

(個所, 個, 名)

	病·					齒科病 ·醫院	韓方病 ·醫院	病床數 <sup>2)</sup>	
	醫院數	綜合 病院	病院 <sup>1)</sup>	醫 院	1個所當 人 口			病床數 <sup>2)</sup>	病床當 人 口
1961	4,832	27	183	4,622	5,332	926	2,046	9,951	2,514
1971	5,990	14	276	5,700	5,490	1,426	2,443	17,506	1,878
1981	6,961	89	268	6,604	5,563	2,158	2,356	40,255	962
1990	11,523	228	360	10,935	3,720	5,292	4,294	99,843	429
1991	12,338	231	361	11,746	3,507	5,958	4,538	107,223	404
1992	12,965	236	374	12,355	3,368	6,639	4,901	115,188	379

註：1) 特殊病院(정신병원, 나병원, 결핵병원) 포함

2) 綜合病院, 病院(특수병원 포함), 齒科病院 및 韓方病院의 病床數

資料：保健社會部(保社統計年報)

- 病床當 人口를 主要國과 비교하여 보면 美國이 171, 日本이 76, 英國이 89명 등으로 先進國보다 높은 수준에 있어 지속적인 病床의 擴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表〉 病床當 人口의 國際比較

(名)

<u>韓國('92)</u>	<u>美國('80)</u>	<u>日本('88)</u>	<u>英國('81)</u>
379	171	76	89
<u>프랑스('82)</u>	<u>臺灣('89)</u>	<u>싱가포르('81)</u>	<u>中國('83)</u>
170	232	247	493

資料：UN統計年鑑

- 한편 醫療施設 및 人力이 地域間 不均衡現象을 보이고 있음
  - 6大都市 人口比重(48.1%)에 비하여 醫療施設 및 人力의 比重(약 60%)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表〉 醫療施設 및 人力集中現況('92年 基準)

(%)

	人 口	醫療施設 및 人力		
		醫療人力 <sup>1)</sup>	醫療機關 <sup>2)</sup>	病 床 數
6 大 都 市	48.1	61.6	61.4	52.0
其 他	51.9	38.4	38.6	48.0

註：1) 醫師, 齒科醫師, 看護師, 藥師 등 醫療機關 從事醫療人力 全體

2) 病·醫院, 조산소 등 모든 醫療機關

## 國民등의 醫療機關利用 增加

- 醫療保險制度의 定着과 全國民醫療保險制의 導入등으로 國民의 醫療機關利用이 크게 증가
  - － 醫療保險制度 導入初期에는 醫療保險受惠對象者(初期에는 公務員 및 職場保險對象者)의 1人當 年間 診療件數(受診率)가 1.7('80년)에 불과하였으나 최근에는 受惠對象인 全國民의 1人當 年間 診療件數가 4.1('93년)로 증가
    - 즉 10여년전에는 醫療保險受惠國民이 1년에 1.7회 정도 病·醫院을 이용했으나 최근에는 4.1회 이용한다는 것을 의미
- 醫療機關利用이 크게 늘고 있는 이유는 醫療保險實施에 따른 治療費 본인부담의 경감, 所得水準의 向上에 따른 健康意識提高 등에 주로 기인함

〈表〉 醫療保險受惠者의 醫療機關 利用(受診率 基準) 增加推移

	'80	'85	'90	'91	'92	'93
受 診 率 <sup>1)</sup>	1.7	2.9	3.5	3.6	3.8	4.1
醫療保障受惠率 <sup>2)</sup>	29.8	52.1	100.0	100.0	100.0	100.0

註：1) 1人當 年間 診療件數(年間 總診療件數/醫療保險 受惠者)

2) 醫療保護 및 扶助對象者 포함

資料：保健社會部, 「保健社會統計年報」

## 6. 營養素 攝取構造의 改善

○ 칼슘, 철분, 비타민, 단백질, 지방 등 國民健康水準의 向上을 가져 오는 營養素의 攝取量이 크게 增加

－ 당질섭취량은 계속 減少하고 있으며, 穀類 열량비는 영양소의 多樣化로 계속 減少趨勢에 있음

〈表〉 營養素別 攝取量 推移(全國 1人 1日)

年 度 營 養 素	'71	'76	'81	'86	'90	'91
단 백 질 ( g )	67.0	60.4	67.2	74.2	78.9	73
지 방 ( g )	13.1	20	21.8	28.1	28.9	35.6
당 질 ( g )	422	380	394	343	316	325
칼슘 ( mg )	404	402	559	593	517	518
철 분 ( mg )	13.1	12.0	15.8	17.0	22.7	23.1
비 타 민 A ( I.U. )	962	1,293	1,804	2,226	1,662	1,815
비 타 민 C ( mg )	83.7	75	67.2	84.2	81.2	92.2
動物性蛋白質 ( % )	11.6	20.2	32.2	41.2	39.8	42.7
穀類熱量比 ( % )	84.0	82.3	75.5	69.5	65.8	65.8

資料：保健社會部, 「國民營養調查報告書」

- 쌀 및 肉類 消費量(1日 1人當)을 보면 非農家의 쌀 消費量은 계속 減少되고있는 반면 쇠고기, 돼지고기, 달걀消費量은 크게 增加되고 있음

〈表〉 쌀 및 肉類 消費量(1日 1人當)

(單位：g)

	쌀 消費量		쇠고기消費量	돼지고기消費量	달걀消費量
	農 家	非農家			
'63	300.0	275.2	2.2	5.5	—
'70	337.0	404.4	3.3	7.2	11.6
'80	412.5	343.7	7.1	17.3	17.9
'90	439.3	307.1	11.3	32.3	25.2
'91	433.6	298.1	14.1	32.3	26.7
'92	423.7	290.9	14.2	36.7	26.6
'93	417.0	285.0	14.5	38.1	27.7

資料：農林水産部, 「糧穀消費量調査」,  
畜協中央會 「畜産物價格 및 需給資料」

## 7. 健康에 대한 意識水準의 向上과 關心高潮

### 健康管理에 대한 關心高潮

- 健康管理을 하고 있는 人口比率이 '89년에는 29.7%이었으나 '92년에는 44.2%로 크게 늘어나 健康管理에 대한 關心이 높아지고 있음을 反映
  - － 健康管理方法으로는 주로 運動, 食事調節 등을 활용하며 담배, 술 절제는 미미함
- 年齡別로 보면 30代와 40代가 健康管理에 가장 깊은 關心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表〉 健康管理方法

(單位 %)

		運 動	食事調節	담배, 술 절제	補藥, 營養劑 服用	其 他	아무것도 하지않음
〈1989〉							
전	국	9.1	7.0	3.5	6.5	3.6	70.3
	남	14.5	4.9	7.0	6.5	3.9	63.2
	여	4.3	8.9	0.3	6.6	3.3	76.6
시	부	10.9	8.7	4.1	6.8	4.6	64.9
군	부	4.6	2.6	2.1	5.8	0.9	84.0
〈1992〉							
전	국	14.3	11.8	2.8	7.8	7.4	55.8
	남	20.3	8.4	5.5	8.2	8.2	49.4
	여	8.6	15.0	0.2	7.5	6.7	62.0
시	부	16.6	13.3	2.9	7.9	8.9	50.5
군	부	7.3	7.2	2.6	7.7	3.0	72.2
	15 ~ 19	18.1	10.7	0.6	2.6	3.2	64.8
	20 ~ 29	16.5	13.9	3.2	3.8	8.3	54.4
	30 ~ 39	13.9	12.3	3.3	7.8	10.8	51.9
	40 ~ 49	14.7	11.5	2.9	9.3	10.0	51.7
	50 ~ 59	11.9	11.0	3.5	11.6	6.0	56.0
	60+	8.6	9.2	2.6	15.1	2.6	61.8

資料 統計廳, 「社會統計調查」

## 吸煙 人口는 減少 趨勢

- 우리나라의 吸煙人口는 20세 이상 人口의 38.5%로서 최근의 禁煙運動 등의 影響으로 '89년에 比하여 조금 減少하였으나 吸煙人口중에서는 하루에 「한갑반」이상 피운 사람의 比率은 오히려 增加
- 시부인구의 37.2%와 군부인구의 42.1%가 吸煙을 하고 있어 高齡者가 많은 郡부지역에서의 吸煙率이 조금 높음
- 吸煙은 性別 차이가 뚜렷하며, 남자의 73.2%, 여자의 6.1%가 평소에 吸煙을 하고 있음

〈表〉 吸煙人口 變化

(單位 : %)

		계	안피움		피운다				
				끊었음		반갑이하	한갑	한갑반	두갑이상
'89	전 국	100.0	60.7	5.9	39.3	29.8	58.1	9.4	2.7
	시 부	100.0	61.8	6.1	38.2	32.0	56.4	8.7	2.9
	군 부	100.0	58.1	5.5	41.9	24.8	61.7	11.0	2.5
	남	100.0	24.6	27.2	75.4	25.9	61.0	10.1	3.0
	여	100.0	92.4	1.0	7.6	63.3	32.9	3.0	0.8
'92	전 국	100.0	61.5	6.5	38.5	28.2	57.0	11.9	2.9
	시 부	100.0	62.8	6.7	37.2	29.6	55.7	11.8	2.9
	군 부	100.0	57.9	5.9	42.1	24.6	60.3	12.0	3.1
	남	100.0	26.8	28.0	73.2	25.3	59.0	12.5	3.1
	여	100.0	93.9	0.8	6.1	61.1	34.0	4.2	0.6

資料 : 統計廳, 「社會統計調查」

## 飲酒頻度 減少趨勢

- 飲酒人口는 늘어나는 추세이나 飲酒頻度는 줄어들고 있음
  - － 飲酒人口는 '86년 48.3%, '89년의 57.0%, '92년에는 57.9%로 높아지는 趨勢
  - － 飲酒횟수를 보면 「월 1회 이하」 및 「월 2~4회」등 가끔 마시는 人口의 比率은 늘어났으나 「주 2~4회」 또는 「거의 매일」 마시는 人口의 比率은 減少하였음
- 性別로는 남자는 飲酒人口 比率이 84.7%로 거의 大多數가 飲酒를 하고 있으며 여자의 경우 33.0%로서 약 1/3이 飲酒를 하고 있는데 여자 飲酒比率이 '89년에 비해 높아지고 있음
  - － 남자 飲酒人口의 약 40% 정도와 여자 飲酒人口의 7.7%는 「주 2~4회」 또는 「거의 매일」 마시고 있음
- 年齡別로는 20대에서 飲酒人口 比率이 가장 높은 반면 음주빈도는 줄어들고 있는데 이는 젊은 女性飲酒人口의 增加가 주요인이며, 年齡이 증가할수록 飲酒人口 比率은 낮아져 65세 이상의 노년층에서는 39.3%만이 음주를 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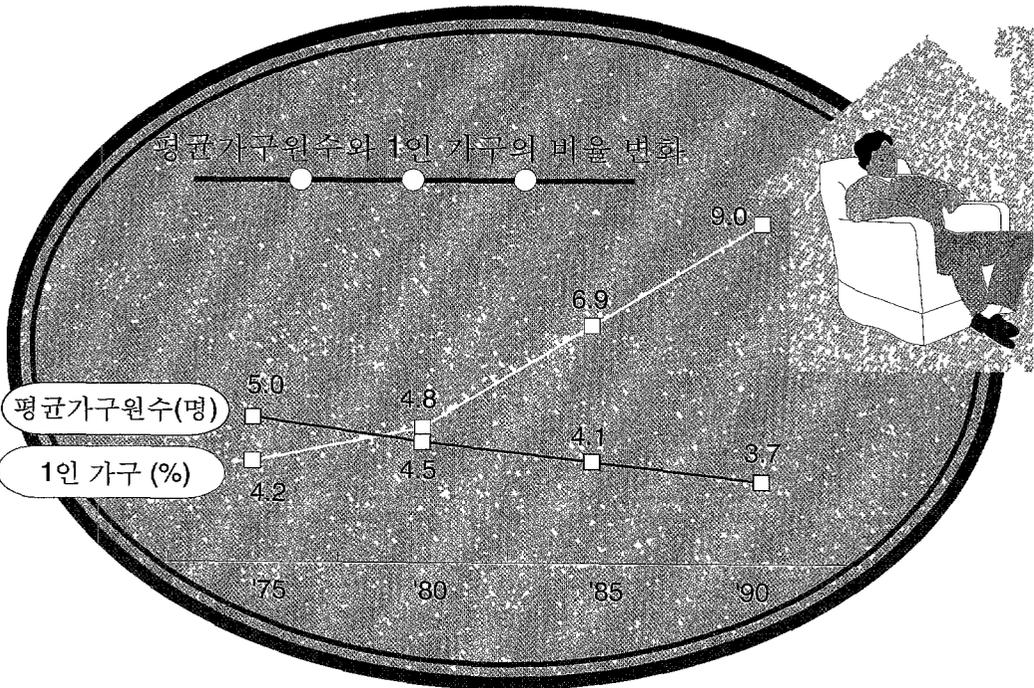
〈表〉 飲酒人口 및 飲酒頻度

(單位：%)

		計	飲酒 人口	飲 酒 頻 度				過 飲 頻 度				
				월1회 이하	월2~ 4회	주2~ 4회	거의 매일	1년3회 이내	3개월 1~2회	1개월 1~3회	주1회 이상	없음
				'86	全 國	100.0	48.3	28.1	37.9	22.0	12.0	22.4
'89	全 國	100.0	57.0	29.1	38.9	21.8	10.1	20.5	14.2	10.4	3.9	51.0
	시 부	100.0	58.5	32.1	39.4	20.2	8.4	21.0	14.1	9.8	3.8	51.3
	군 부	100.0	53.2	21.0	37.8	26.4	14.8	19.1	14.7	11.9	4.1	50.2
	남	100.0	85.3	14.3	43.5	28.8	13.4	26.2	19.4	14.3	5.3	34.8
	여	100.0	32.1	63.5	28.4	5.7	2.5	7.3	2.3	1.1	0.6	88.7
'92	全 國	100.0	57.9	30.1	39.7	21.4	8.9	22.9	15.0	10.3	4.3	47.4
	시 부	100.0	59.7	32.5	40.1	20.2	7.2	23.6	15.1	9.7	4.2	47.4
	군 부	100.0	52.8	22.1	38.2	25.2	14.5	20.5	14.9	12.3	4.8	47.5
	남	100.0	84.7	16.6	43.7	28.1	11.7	28.0	20.2	14.0	5.8	32.0
	여	100.0	33.0	62.3	30.0	5.4	2.3	10.7	2.7	1.5	0.8	84.3

資料：統計廳, 「社會統計調査」

# 우리나라의 가정 현황



「1인이 혼자사는 가구는 '85년 661천가구에서 '90년 1,022천가구로 5년간 54.6%가 증가하여 전체가구 증가율 18.6%보다 약 3배 정도 더 많이 늘었다.」

- 자료중에서 -

5월 15일은 세계 가정의 날

# 우리나라의 가정현황

1994. 5

— < 세계 가정의 날 > —

- UN은 가정의 역할과 중요성을 강조하고 그 보호노력을 촉구하고자 1993년 9월 20일 총회에서 매년 5월 15일을 가정의 날(International Day of Families)로 제정하였습니다  
특히, 금년 5월 15일은 최초의 가정의 날로써 “사회의 중심에 가장 작은 민주주의 건설(Building the Smallest Democracy at the Heart of Society)”을 주제로 설정하였습니다.
- 이 자료는 ‘세계 가정의 날’을 맞이하여 우리나라의 가정현황 및 당면문제들을 작성한 것입니다. 내용에 관한 문의사항은 통계청 인구통계과(Tel · 222-1863)로 하시기 바랍니다

통계조사국 인구통계과

## □ 개 관

- 가정은 사회의 가장 기초적인 단위로 사회와 국가 더 나아가서 인류의 모든 생활의 원동력입니다. 가정은 인류를 번식시키는 근원으로 작용하며, 정치·경제·사회·문화 생활의 주체이자 객체로서 활동합니다.
- 종래 가정은 종족번식과 노동 및 방어기능에 역점을 두어 대가족형태가 만연되었으나, 경제·사회발전과 함께 행복추구 기능등이 강조되어 소가족 내지 핵가족화 현상이 촉진되어 왔습니다.
- 최근에 들어서서 선진국에서는 이기주의 내지 개인주의 사상만연, 문명의 발달에 따른 인간의 기계화, 마약, 범죄, 도시화, 빈곤 그리고 후진국에서는 빈곤, 실업, 정치적 불안정등으로 가정이 분리·파괴되는 탈가족화 현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 이에따라 UN은 가족의 중요성을 재인식 시키며, 가정을 위한 각종 정치사회, 경제적 활동의 증진과 세계 가정의 복지향상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촉구시키기 위하여 세계 가정의 날(매년 5월 15일)을 제정하였습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가정의 달과 일치하고 있습니다.
- 통계청에서는 제1회 세계 가정의 날을 맞이하여 현재 우리나라 가정(가구)에 관한 제반 현황과 당면 문제점들을 살펴 보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정은 여러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나 여기에서는 UN이 정의하고 있는 가족개념중 하나로서 취사, 취침등 생계를 같이하는 생활단위(가구)로 보았으며, 이는 혈연관계로만 보는 가족의 개념보다 넓은 개념입니다.
- 가족 또는 가정 관련 통계자료는 특성상 작성이 어려울뿐더러 가족·가정을 파악할 수 있는 가구에 관한 통계자료도 전국의 인구, 가구 및 주택에 대해 조사하는 「인구주택 총조사」에 의해서만 파악될 수 있는 관계로, '90년 총조사 자료가 주로 이용되었습니다.

# I. 우리나라 가구 및 가족의 모습

## 1 가구 및 가족의 변화

### 가 가구수의 변화

- 1990년 11월 1일 현재 우리나라의 일반가구수(비혈연 6인이상의 집단가구, 외국인 가구제외)는 1,135만 5천 가구임.
- 우리나라 가구는 '70~'90년간 20년사이에 약 2배(550만 가구)가 증가하였으며, 최근 '85~'90년간에는 18.6%인 178만 가구가 증가함.
  - 최근 가구 증가율이 인구 증가율의 약 3배 정도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과거 유교적·전통적 대가족 형태에서 소가족화, 핵가족화등으로 가구 분화가 심화되었음을 시사하는 것임

(단위 천가구, 천명, %)

	1970	1975	1980	1985	1990	증가율(%)	
						'85-'90	'70-'90
가구수	5,857	6,648	7,969	9,571	11,355	18.6	93.9
인구	31,466	34,707	37,436	40,448	43,411	7.3	38.0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나 가족 변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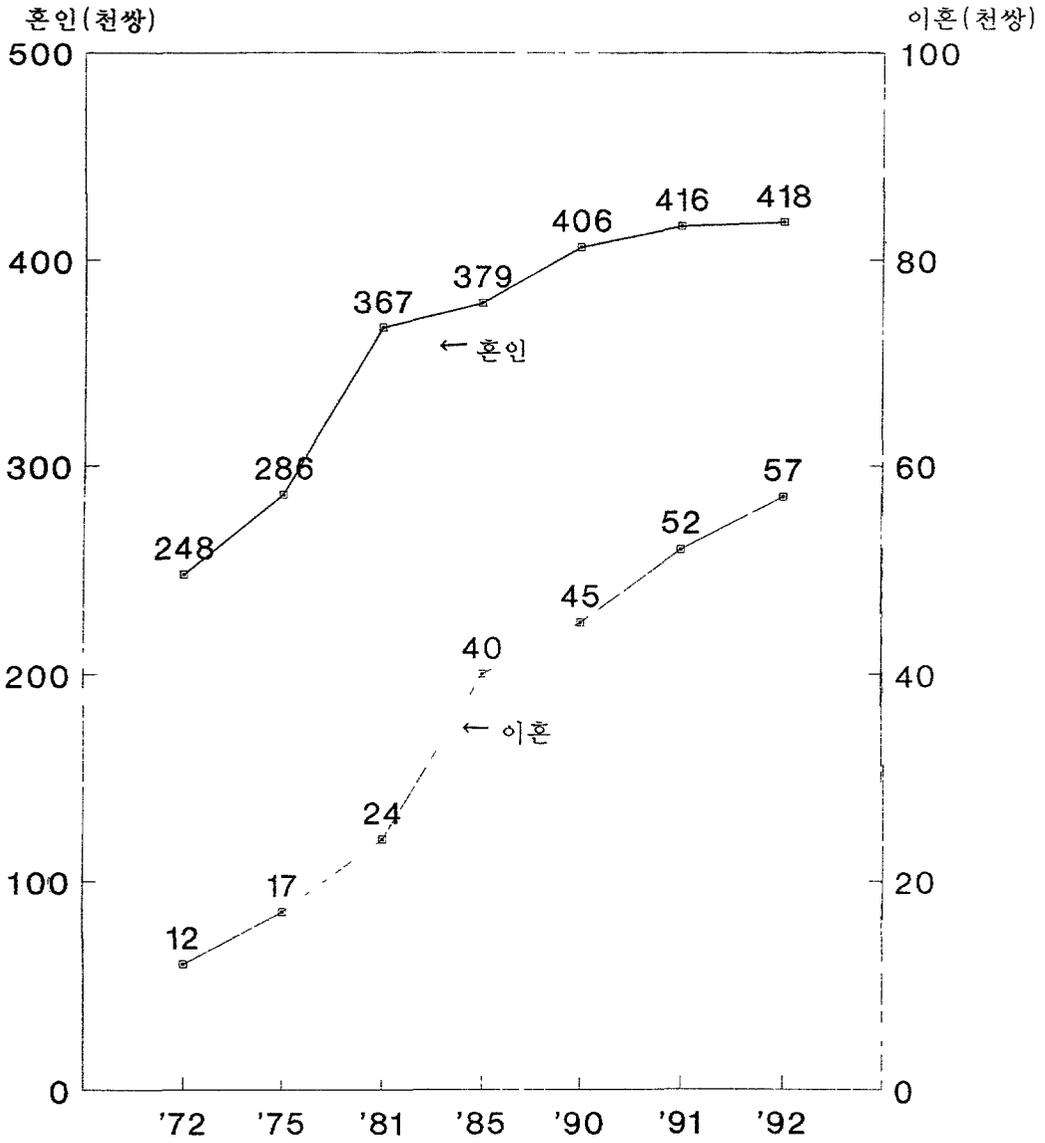
○ 혼인에 의한 가정형성

- '92년 한해동안 41만 8천쌍의 부부가 혼인에 의하여 새롭게 탄생함  
이는 '72년 248천쌍이었던 것에 비하여 17만쌍(68.6%)이 증가한 것임
- 1년에 혼인에 의하여 새로이 형성되는 가족의 비중은 '90년의 경우 전체가구(11,355천가구)의 3.6%에 해당됨
- 혼인의 증가는 결혼적령기 인구의 증가와 이혼의 증가에 따른 재혼증가 및 사별인구의 재혼률 상승에 기인됨
- 혼인에 의한 가정형성시기(초혼연령)는 '72년 남자 26.7세, 여자 22.6세에서 '91년 남자 28.1세, 여자 24.9세로 계속적으로 늦추어지고 있음을 나타냄
- 결합형태는 남·녀 모두 초혼인 경우가 90%이상으로 압도적으로 많으나 남자 또는 여자가 재혼인 경우가 증가하여 전체 혼인의 10%에 육박하고 있음
- 특히, 남녀 모두 재혼인 경우(상호 재결합 가정 형태등)가 급증하여 미국등 서구 선진사회의 결혼 풍속이 늘고 있음을 나타냄

	1972	1975	1981	1985	1990	1991	1992
혼인수(천쌍)	248	286	367	379	406	416	418
초혼인율%	7.4	8.1	9.5	9.3	9.5	9.6	9.6
초혼연령(세)							
남자	26.7	26.8	26.4	27.0	27.9	28.1	-
여자	22.6	22.8	23.2	24.1	24.9	24.9	-
결합형태(%)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남							
여							
초혼-초혼	94.1	92.6	92.7	91.0	90.5	91.1	-
재혼-초혼	3.0	3.6	3.3	3.6	3.3	3.0	-
초혼-재혼	0.5	0.8	1.1	1.6	2.2	2.1	-
재혼-재혼	2.4	3.0	2.9	3.8	4.0	3.7	-

주 1) 인구 1,000명당 혼인(쌍)수임  
자료 통계청, 「인구동태통계연보」

# 혼인 및 이혼수 추이



○ 이혼에 의한 가정해체

- '72년 한해동안 12천쌍이 이혼하였으나 20년이 지난 '92년 한해동안에는 57천쌍이 발생하여 약 4배(375%)가 증가함 '72년에는 혼인 21쌍당 이혼이 1쌍 꼴이었으나 '92년에는 혼인 7쌍마다 1쌍꼴로 이혼이 크게 늘었음
- 산업화에 따른 경제적 자립력 증가, 전통적 도덕관의 쇠퇴, 핵가족화로 인한 갈등 증대자의 부재등으로 인하여 결혼생활의 갈등을 이혼으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임
- 부부불화로 인한 이혼이 압도적이며 계속 늘고 있음
  - 이는 도시화 및 핵가족화에 따라 가정생활의 행복이 고부관계등 보다는 주로 부부관계에 의해 좌우됨을 시사
- 동거기간별로는 결혼후 5년 이내에 이혼하는 비율이 가장 높아, 혼인후 5년간 이 부부생활의 고비임을 나타냄
  - 그러나 결혼 10년후의 이혼이 계속 증가하여 자녀에 대한 책임의식, 부부간 전통적 윤리관이 쇠퇴하고 있음을 시사

	1972	1975	1981	1985	1990	1991	1992
이혼수(천쌍)	12	17	24	40	45	52	57
이혼율(%) <sup>1</sup>	0.37	0.48	0.63	0.98	1.05	1.20	1.31
이혼연령(세)							
남자	36.0	36.2	36.3	36.2	36.6	37.0	-
여자	31.0	31.3	31.1	31.9	32.6	33.0	-
이혼사유(%)							
부부불화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가정간불화	64.5	64.3	74.4	80.0	82.6	83.6	-
건강문제	8.0	8.4	5.3	4.2	3.6	3.3	-
경제문제	5.6	5.1	3.3	1.6	1.4	1.3	-
기타	4.9	5.2	3.6	2.9	1.8	1.7	-
기타	16.9	17.0	13.4	10.3	10.6	10.1	-
동거기간(%)							
0~5년미만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0~2년미만)	40.9	39.2	42.4	46.3	38.2	36.3	-
(16.5)	(16.5)	(14.7)	(15.3)	(21.6)	(16.5)	(15.0)	-
5~10년미만	28.5	31.8	28.2	28.2	28.7	27.7	-
10~15년미만	15.8	15.4	16.8	14.2	19.0	20.2	-
15~20년미만	7.2	7.2	7.2	6.9	8.4	9.4	-
20년이상	7.5	6.4	5.4	4.4	5.7	6.3	-
평균동거기간	8.3	8.1	7.9	7.2	8.0	8.4	-

주<sup>1</sup>) 인구 1,000명당 이혼(쌍)수임  
 자료 통계청, 「인구동태통계연보」

○ 주요국과의 이혼비교

- 우리나라 이혼률은 인구 1,000명당 1.30건으로 미국(4.73건), 영국(2.88건) 등 서구 선진국보다 낮으나 일본(1.37)과 비슷하며, 브라질(0.45)보다 높음
- 그러나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조만간에 선진국 수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됨
- 이혼연령은 다른나라보다 비교적 낮으며 따라서 평균동거기간도 다른나라보다 짧게 나타남
- 이는 우리나라 남녀가 쉽게 만나서 비교적 짧은 기간에 헤어지는 「냄비사랑」 이 만연함을 의미함

	년도	이혼건수 (1000건)	조이혼율 (%)	이혼연령(세)		평균 동거기간 (년)
				남 자	여 자	
한 국	1992	57	1.30	37.0 <sup>1</sup> )	33.0 <sup>1</sup> )	8.4 <sup>1</sup> )
미 국	1991	1,187	4.73	37.1 <sup>3</sup> )	35.3 <sup>3</sup> )	9.1 <sup>3</sup> )
일 본	1991	169	1.37	38.1	35.2	10.8
싱가포르	1991	4	1.60	38.3 <sup>2</sup> )	34.8 <sup>2</sup> )	12.1 <sup>2</sup> )
영 국	1990	166	2.88	38.4 <sup>2</sup> )	35.9 <sup>2</sup> )	11.6 <sup>2</sup> )
프 랑 스	1990	106	1.87	39.4 <sup>3</sup> )	37.0 <sup>3</sup> )	13.4 <sup>3</sup> )
네덜란드	1991	28	1.88	40.0 <sup>4</sup> )	37.2 <sup>4</sup> )	11.1 <sup>4</sup> )
브 라 질	1989	66	0.45	43.1 <sup>3</sup> )	39.5 <sup>3</sup> )	16.9 <sup>3</sup> )
호 주	1990	43	2.49	39.5 <sup>3</sup> )	36.6 <sup>3</sup> )	12.1 <sup>2</sup> )

주 1) 1991년 자료임      3) 1988년 자료임  
 2) 1989년 자료임      4) 1990년 자료임

- 일본은 1991 인구동태통계연보, 다른나라는 1991 유엔 인구통계연감 수록자료

## 2 가족구성

### 가 가구 크기의 변화

#### o 평균 가구원수

- 전체가구(1인가구 포함)의 '75년 가구당 평균 가구원수는 5.0명이었으나, 계속 감소하여 '90년에는 3.7명으로 1.3명이 감소함
- 군부에서 청·장년층의 도시로의 이동에 따른 노인부부 또는 1인가구의 증가로 평균 가구원수가 더 큰 폭으로 감소하여 '90년에는 도·농간에 차이가 없음
- 향후 농촌의 평균 가구원수가 도시보다 더 작아질것으로 추정됨
- 1인가구 및 비혈연 가구를 제외한 친족가구(혈연가구)의 평균 가구원수는 '90년 4명으로 나타남

(단위 명)

	1975	1980	1985	1990
일반가구	5.0	4.5	4.1	3.7
시 부	4.8	4.4	4.0	3.7
군 부	5.3	4.7	4.2	3.7
친족가구 <sup>1</sup>	5.2	4.8	4.4	4.0
시 부	5.0	4.6	4.3	4.0
군 부	5.4	4.9	4.4	4.0

주<sup>1</sup>) 일반가구에서 1인가구 및 비혈연가구를 제외한 친족으로 이루어진 가구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 소자녀관 만연, 만혼경향, 독신비율 상승, 노인가구 및 1인가구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가족의 크기는 더욱 작아질 것으로 추정됨
- 15~49세 기혼부인이 낳은 평균자녀수는 '70년 3.7명에서 '90년 2.1명으로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음

<기혼부인당 평균 출생아수>

(단위 명)

	1970	1975	1980	1985	1990
15~49	3.7	3.4	3.0	2.5	2.1
15~24	1.0	1.0	0.9	0.8	0.7
25~29	2.2	2.0	1.8	1.5	1.3
30~34	3.5	3.2	2.7	2.3	1.9
35~39	4.6	4.1	3.4	2.8	2.4
40~49	5.4	5.0	4.4	3.8	3.1

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나 가구구성의 변화

o 세대(世代)구성

- 1세대(世代)가구, 1인가구, 비혈연가구의 구성비는 점차 높아진 반면, 3세대(世代)이상이 같이사는 가구 구성비는 낮아져 우리나라 가족이 소가족화 되고 있음을 반영함.
- 직계 존·비속등 혈연 또는 친족으로 구성된 혈연가구 비율이 계속 감소한 반면, 비혈연 및 1인가구는 계속 증가하여 '90년에 이미 전가구의 1할을 차지함 · 탈가족화가 가속화 되고 있음을 시사
- 친족 가구(1인가구와 비혈연 관계로만 이루어진 가구를 제외한 모든가구) 중 핵가족의 비율은 '70년 71.5%에서 '90년 76.0%로 계속 높아지고 있음.

(단위 . 천가구, %)

	1970	1975	1980	1985	1990	'85~'90
계	100.0 (5,857)	100.0 (6,754)	100.0 (7,969)	100.0 (9,571)	100.0 (11,355)	1,784(18.6)
1세대	6.5	6.6	8.3	9.6	10.7	305(33.3)
2세대	66.6	67.8	68.5	67.0	66.3	1,117(17.4)
3세대	21.0	18.9	16.5	14.4	12.2	0(0.0)
4세대+	1.0	0.9	0.5	0.4	0.3	Δ5(Δ12.5)
1인가구	] 4.8	4.1	4.8	6.9	9.0	361(54.6)
비혈연		1.6	1.5	1.7	1.5	6(3.8)
친족가구	95.2	94.3	93.7	91.4	89.5	
비친족가구	4.8	5.7	6.3	8.6	10.5	
친족가구계	100.0	100.0	100.0	100.0	100.0	
핵가족 <sup>1)</sup>	71.5	70.5	72.9	75.3	76.0	
직계가족 <sup>2)</sup>	21.9	14.7	14.1	13.7	12.5	
기타친족 <sup>3)</sup>	6.6	14.8	13.0	11.0	11.5	

주 1) 부부, 부부+미혼자녀, 편부모+미혼자녀로 구성된 가구임

2) 핵가족이외 직계 존·비속으로 구성된 가구임

3) 직계 존·비속외 다른 동거인과 함께 사는 가구임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90년 우리나라 가족유형에서 2세대 가구중 '부부+미혼자녀'가 전체 가구의 51.9%로 가장 많음 이외 1인가구가 9.0%, '부부'가족이 8.3% 순임

· 시부 '부부+미혼자녀' (55.1%), 1인가구(8.6%), 부부가구(6.6%)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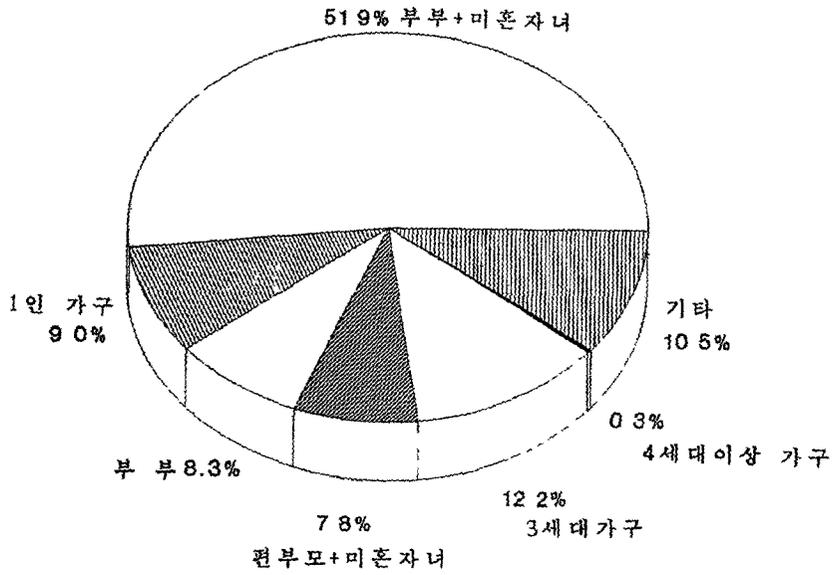
· 군부 '부부+미혼자녀' (42.7%), 부부가구(13.2%), 1인가구(10.3%) 순

(단위 : 천가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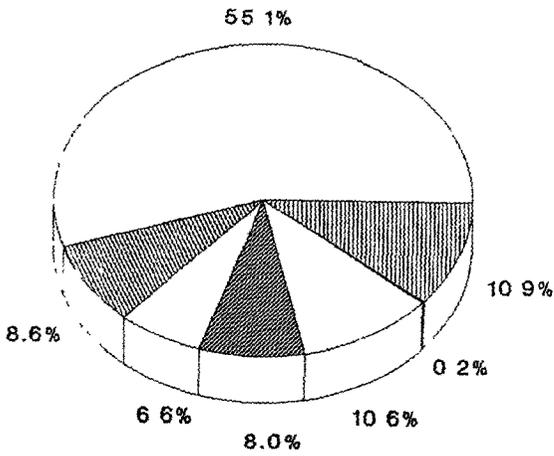
	전 국	시 부	군 부
계	11,355(100.0)	8,463(100.0)	2,892(100.0)
1세대 가구	1,220 (10.7)	814 (9.6)	407 (14.1)
부 부	943 (8.3)	562 (6.6)	381 (13.2)
기 타	277 (2.4)	251 (3.0)	26 (0.9)
2세대 가구	7,529 (66.3)	5,876 (69.4)	1,653 (57.1)
부부+미혼자녀	5,895 (51.9)	4,661 (55.1)	1,234 (42.7)
편부모+미혼자녀	889 (7.8)	673 (8.0)	216 (7.5)
부부+양친	22 (0.2)	12 (0.1)	10 (0.3)
부부+편부모	70 (0.6)	29 (0.3)	41 (1.4)
부부+미혼자녀+ 부부의 형제자매	195 (1.7)	178 (2.1)	17 (0.6)
기 타	458 (4.0)	323 (3.8)	135 (4.6)
3세대 가구	1,383 (12.2)	896 (10.6)	486 (16.8)
부부+미혼자녀 +양친	192 (1.7)	108 (1.3)	84 (2.9)
부부+미혼자녀 +편부모	758 (6.7)	496 (5.9)	262 (9.0)
기 타	433 (3.8)	292 (3.4)	141 (4.9)
4세대이상 가구	35 (0.3)	18 (0.2)	17 (0.6)
1인 단독가구	1,022 (9.0)	724 (8.6)	298 (10.3)
비혈연 가구	166 (1.5)	135 (1.6)	31 (1.1)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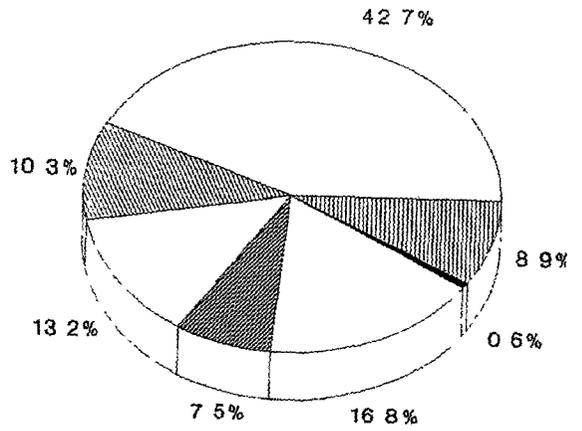
# 가족구성의 유형 ('90년)



전국



시 부



군 부

다 가구주 특성변화

- 총인구중 가구주인 인구의 비율인 가구주율은 '80년 22.0%에서 '90년에 26.2%로 높아짐
  - 이는 가구의 분화로 인한 가구(즉 가구주)의 증가 때문임.
- 가구주중 여성가구주 비율은 '80년 14.7%에서 '90년 15.7%로 다소 높아짐
- 가구주 평균연령은 '80년 42.1세에서 '90년 43.3세로 높아짐
  - 이는 인구의 고령화에 따라 가구주도 고령화 되어가고 있음을 반영.  
가구주의 고령화는 노인가구의 증가로 인하여 특히 군부에서 심하게 나타남
- 가구주의 혼인상태를 보면 유배우상태의 가구주 비율은 점차 감소하나 사별, 이혼 및 미혼 가구주 비율은 증가세임

(단위: %, 세)

	1980	1985	1990
가구주율(%)	22.0	23.7	26.2
성별 가구주(%)	100.0	100.0	100.0
남 자	85.3	84.3	84.3
여 자	14.7	15.7	15.7
평균연령(세)	42.1	42.6	43.3
시 부	39.8	40.5	41.3
군 부	45.4	46.7	49.1
혼인상태(%)	100.0	100.0	100.0
유배우	82.5	81.4	79.7
사 별	10.3	9.5	10.5
이 혼	0.9	1.1	1.5
미 혼	6.3	8.0	8.3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 3 가정생활 및 환경

#### 가 가구경제

##### o 도시근로자 가구의 가계수지 추이

- '93년 도시근로자 가구 연간소득은 '70년에 비해 실질적으로 5배가 증가한 반면 소비지출은 4배가 실질적으로 증가함
- 도시근로자 가구의 가계흑자율은 '70년 5.6%에서 '93년 27.4%로 계속 상승함

(단위 천원, %)

	1970	1975	1980	1985	1990	1992	1993
소득 (실질증가지수)	338 (100.0)	786 (114.7)	2,809 (184.6)	5,085 (237.3)	11,319 (405.7)	16,273 (502.5)	17,734 (522.3)
가계지출 (실질증가지수)	321 (100.0)	714 (109.4)	2,203 (152.5)	3,945 (194.0)	8,676 (327.6)	12,093 (393.2)	13,266 (375.0)
흑자율(%) <sup>1</sup>	5.6	9.6	22.5	23.9	25.3	27.9	27.4

자료: 통계청, 「도시가계조사」

주 1) 흑자액 ÷ 가처분소득

##### o 도시가구의 소비지출내역

- 소득수준의 향상과 함께 도시가구의 소비지출중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70년 총지출의 절반수준(46.5%)이었던 것이 계속 감소하여 '90에는 1/3수준(32.5%)로 낮아졌으며, '93년에는 처음으로 30%미만 수준으로 낮아짐
- 반면 외식비의 비율은 '70년 0.9%에서 '93년 8.2%로 약 9배가 높아짐
- '광열수도'와 '피복 및 신발'의 지출비율을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반면 '가구집기 및 가사용품', '보건의료', '교통통신', '교육', '교양오락'을 위한 지출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단위 %)

	1970	1975	1980	1985	1990	1992	1993
식료품 (외식)	46.5 (0.9)	48.9 (1.0)	43.0 (1.8)	37.7 (3.1)	32.5 (7.0)	30.4 (7.6)	29.3 (8.2)
주거	6.3	2.9	4.7	4.7	4.6	4.2	4.4
광열·수도	4.9	6.3	7.5	7.4	4.5	4.1	4.3
가구집기	1.7	4.5	4.5	4.9	5.8	5.5	5.2
가사용품							
피복·신발	12.1	9.2	9.9	7.8	8.4	8.0	7.7
보건의료	3.6	4.5	6.5	5.4	5.3	5.4	5.4
교육	7.2	6.8	5.8	7.4	8.1	9.0	8.4
교양·오락	1.6	1.7	2.0	2.9	3.8	4.3	5.1
교통·통신	5.4	4.7	5.8	6.5	8.4	9.2	10.2
기타	10.7	10.4	10.4	15.2	18.6	20.0	20.1

자료: 통계청, 「도시가계조사」

나 여성 취업사유

- 여성 취업자의 취업사유를 보면 생계유지나 가계보탬 등이 1988년에는 79.7%, 1991년에는 76.4%로 나타나 대부분의 여성이 생활유지를 위해서 취업하고 있음
- 그러나 자기 적성활용을 위해 취업하는 여성이 지난 3년간에 비해 다소 늘어나 (11.3%→13.8%) 점차 여성들이 자기적성을 살리고 싶어하는 것으로 나타남

< 여성 취업자의 취업 사유 >

(단위 %)

	생계유지	가계보탬	자립기일	적성활용	사회경험	시간활용	사회여	기타
1988	21.4	33.7	24.6	11.3	5.8	2.5	0.5	0.2
1991	20.2	32.2	24.0	13.8	6.2	2.6	0.5	0.4

자료 통계청, 「사회통계조사」

다 자녀 교육

(1) 자녀 교육관

- 가구주의 자녀에 대한 기대교육수준을 보면 대학이상이 1977년에는 아들 56.3%, 딸 33.6%로 아들과 딸사이에 차이를 보였을 뿐만 아니라 그 수준도 낮았으나 1993년에는 아들은 86.5%, 딸은 79.4%를 대학이상 진학시키겠다고 하여 아들과 딸에 대한 차이가 크게 줄어들었을 뿐만아니라 그 수준도 크게 높아짐
- 이는 점차 고학력인 부모들이 늘어나고 자녀들이 하나나 들임에 따라 자녀에 대한 차별 교육도 크게 완화됨

< 가구주의 자녀기대 교육수준 >

(단위 %)

	아들				딸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이상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이상
1977	7.5	36.2	55.5	0.8	23.7	42.7	33.3	0.3
1987	1.6	13.9	60.5	24.0	4.0	25.6	55.1	15.3
1990	1.6	12.1	61.9	24.4	3.9	20.4	61.3	14.4
1993	1.4	12.1	64.6	21.9	3.0	17.6	64.8	14.6

자료 통계청, 「사회통계조사」

- 자녀교육의 목적으로는 아들, 딸 모두 '인격 및 교양을 위하여'가 가장 높는데, 아울러 아들은 '좋은 직장'을 위하여가 높은 반면(36.8%), 딸은 결혼이나 친구 관계 유지가 높게 나타나(25.5%) 아들과 딸에 대한 교육목적이 대조를 이룸

< 자녀의 교육 목적 >

(단위 %)

	아들					딸					
	인격 및 교양	좋은 직장	취소육	미질성	결혼, 친구유	부모가 못받은 교육보상	인격 및 교양	좋은 직장	취소육	미질성	결혼, 친구유
1990	47.6	29.2	7.1	7.8	8.1	43.1	9.3	15.0	26.7	5.7	
1993	34.5	36.8	13.7	8.7	6.0	35.2	12.9	21.0	25.5	5.0	

자료 : 통계청, 「사회통계조사」

(2) 교육비 지출

o 교육비 비중

- 가계지출에서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1970년에 도시가 7.2%, 농촌이 6.8%였으나, 1992년에는 도시가 9.0%, 농촌이 10.4%로 농촌에서 더 많은 교육비가 지출됨
- 이는 농촌에서 자녀를 교육시키기 위해서 도시나 타지역으로 보내는데 따른 하숙비등 간접적 지출때문임

< 가구당 연간 교육비 지출 >

(단위·천원, %)

	도 시		농 촌	
	금 액	비 율	금 액	비 율
1970	22	7.2	14	6.8
1980	126	5.8	165	7.7
1985	280	7.4	555	11.8
1990	665	8.1	862	10.5
1991	808	8.2	975	10.4
1992	1,014	9.0	1,041	10.4

자료 통계청, 「도시가계조사」  
농림수산부, 「농가경제통계」

○ 교육비 지출 부담여부

- 교육비가 부담스럽다고 느끼는 부모가 62.8%, 부담을 느끼지 않는 부모가 13.2%로 대부분의 부모가 교육비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있음
- 교육비 부담요인별로 보면 1990년 학교 납입금이 47.9%로 가장 높았고 각종 과외비가 36.3%로 나타났으나, 1993년에는 각종 과외비가 49.6%로 가장 높게 나타나 최근 대학입시의 본고사 부활에 따른 과외비 지출이 늘어났음을 반영

< 교육비 지출 부담정도 >

(단위 %)

	매우 부담	약간 부담	보통	별로 부담 안됨	전혀 부담 안됨
1990	25.1	41.3	21.1	10.2	2.3
1993	21.9	40.9	24.0	10.7	2.5

자료 : 통계청, 「사회통계조사」

< 교육비 부담요인 >

(단위 %)

	학교 납입금	각종 과외비	교재비	유학비	잡부금	기타
1990	47.9	36.3	8.4	4.2	3.1	0.1
1993	40.0	49.6	4.9	4.7	0.6	0.1

자료 : 통계청, 「사회통계조사」

○ 학생 1인당 월평균 교육비

- 한달 평균 취학전 교육비가 국민학교 교육비보다 높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현상은 입학전부터 유치원 및 영재교육 등 부모들의 지나친 교육열에 기인.
- 특히 교육비 지출액은 농촌보다는 도시가 많은데, 도농간 교육비 차이 이외 도시부모들의 자녀들에 대한 높은 교육열을 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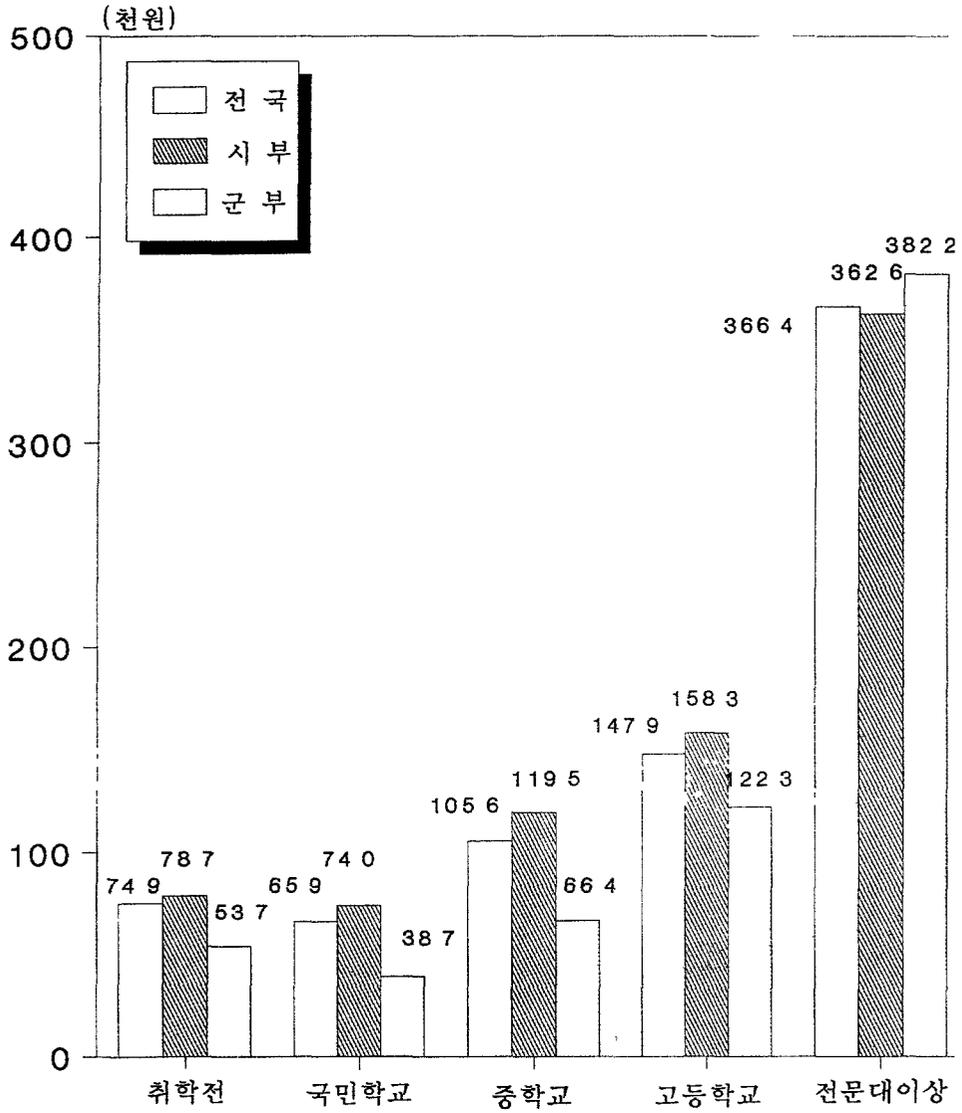
< 학생 1인당 월평균 교육비 지출액('93) >

(단위:천원)

	평균	취학전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 이상	재수생
전국	127.4	74.9	65.9	105.6	147.9	366.4	213.1
시부	135.7	78.7	74.0	119.5	158.3	362.6	214.2
군부	100.3	53.7	38.7	66.4	122.3	382.2	206.3

자료 : 통계청, 「사회통계조사」

# 학생1인당 월평균 교육비 지출액('93년)



라 주거환경

o 가구의 주거공간

- 우리나라의 가구당 평균 사용 건평은 1970년에 10.9평(35.9㎡)에서 1990년에는 15.5평(51.0㎡)으로 커졌으며, 방의 수도 2.2개에서 2.5개로 늘어남
- 도시에서는 단독주택의 증축이나 아파트의 신축 등의 영향으로 가구당 평균 건평 및 사용 방수도 계속 늘어난 반면, 농촌에서는 건평은 커지나 사용 방수는 같은 수준을 보임

< 주 거 공 간 >

	건 평 (㎡)			방 의 수(개)		
	주택당	가구당	1인당	주택당	가구당	방당인원(명)
전국						
1970	47.7	35.9	6.8	3.0	2.2	2.4
1975	58.2	41.4	8.2	3.1	2.2	2.3
1980	68.4	45.8	10.1	3.3	2.2	2.1
1985	72.6	46.4	11.3	3.5	2.2	1.8
1990	80.8	51.0	13.8	4.0	2.5	1.5
시부						
1970	50.4	27.1	5.7	3.3	1.9	2.7
1975	65.6	35.8	7.4	3.5	1.9	2.5
1980	77.3	41.1	9.3	3.8	2.0	2.2
1985	83.9	44.5	11.0	4.0	2.1	1.9
1990	88.0	48.3	13.0	4.4	2.5	1.5
군부						
1970	46.4	41.4	7.6	2.8	2.5	2.2
1975	53.5	47.2	9.0	2.9	2.5	2.1
1980	60.7	52.5	11.1	2.9	2.5	1.9
1985	58.9	50.1	12.0	3.0	2.5	1.7
1990	67.5	58.7	15.9	3.1	2.5	1.3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 총조사」

o 가구의 주택마련

- 상속으로 받은 주택을 제외하고 내집마련방법은 저축이 69.5%로 가장 높음  
한편 주택마련기간은 '87년에는 결혼후 6~9년이 가장 많았으나, '92년에는 10~14년으로 좀더 늘어났음

< 주택 마련 방법 >

(단위: %)

	계	주택 마련 방법						상속
		부모친척보조	저축	융자 및 사채	퇴직금보상금	재산매각	기타	
1987	100.0	18.1	62.6	12.9	1.6	4.3	0.5	32.4
1992	100.0	15.8	69.5	9.2	1.5	3.7	0.3	29.3

자료 통계청, 「사회통계조사」

< 주택 마련 기간 >

(단위: %)

	결혼이전	결혼이후	결혼이후 기간별						
			1년 이내	2~3	4~5	6~9	10~14	15~19	20년 이상
1987	19.9	80.1	10.4	15.7	16.8	20.8	19.8	8.4	8.1
1992	16.8	83.2	11.4	12.8	14.9	19.5	21.8	8.9	10.6

자료 통계청, 「사회통계조사」

○ 선호 주택유형

- 자신이 원하는 주택형태는 단독주택이 1979년에는 92.5%로 거의 대부분으로 나타났으나 1992년에는 63.3%로 크게 낮아진 반면, 아파트의 경우 '79년 6.5%에서 '92년 34.2%로 급격히 높아짐
- 주택규모별로는 아직까지 20~30평이 가장 많으나, 그 비중이 점차 줄고 있는 반면 30평이상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점차 대형 평수를 선호하고 있음을 시사

< 원하는 주택 형태 >

(단위 : %)

	단독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다세대주택 및 기타
1979	92.5	0.8	6.5	0.2
1982	85.0	2.3	12.5	0.2
1987	79.3	1.9	18.3	0.5
1992	63.3	1.8	34.2	0.7

자료 : 통계청, 『사회통계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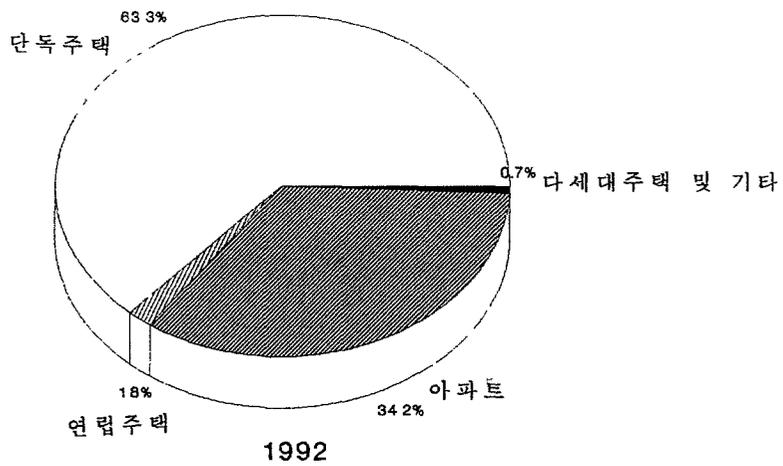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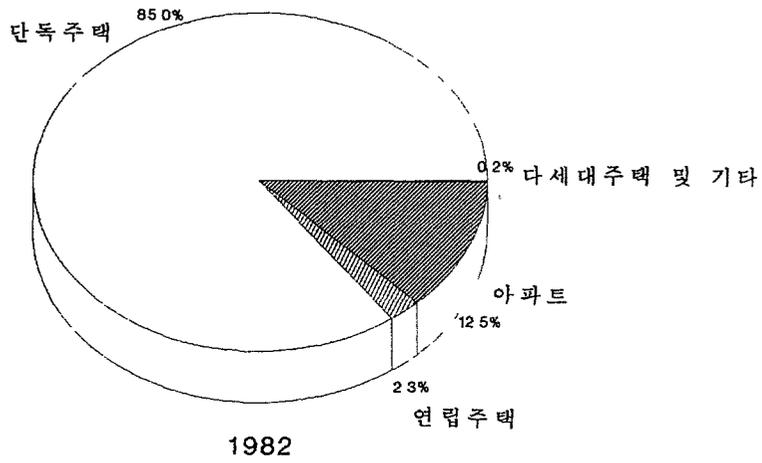
< 원하는 주택 규모 >

(단위 : %)

	33㎡미만 (10평미만)	33~65 (10~20평)	66~98 (20~30평)	99~131 (30~40평)	132~164 (40~50평)	165이상 (50평이상)
1979	1.1	26.4	53.8	14.6	2.7	1.4
1982	1.5	35.0	45.4	11.4	4.3	2.4
1987	0.9	24.9	47.7	19.7	4.1	2.7
1992	0.6	14.9	43.1	30.4	7.7	3.2

자료 : 통계청, 『사회통계조사』

# 선호 주택의 유형



## II. 우리나라의 가족관련 문제

### 1 1인단신 가구의 급증

- 1인이 혼자 사는 가구는 '85년 661천가구에서 '90년 1,022천가구로 5년간 54.6% (361천가구)가 증가하여 전체가구 증가율(18.6%)보다 약 3배정도 더 많이 늘었음  
이에따라 전체가구에 대한 비율도 '85년 6.9%에서 '90년에 9.0%로 높아짐
- 1인 단신가구의 증가는 가족의 해체로 사회의 개인주의적 비인간화 조성과 함께 주택의 수요를 증가시킴
- 노인 1인가구 증가로 인하여 시부보다 군부지역에서 1인가구 비율이 급상승함

(단위 천가구, %)

	1975	1980	1985	1990	'85~'90
전 국	281(4.2)	383(4.8)	661(6.9)	1,022(9.0)	361(54.6)
시 부	151(4.6)	220(4.7)	428(6.8)	724(8.6)	296(69.2)
군 부	131(4.0)	163(4.9)	233(7.2)	298(10.3)	65(27.9)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 혼자사는 사람중 47.4%가 40세이상이며, 저연령층을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혼자사는 가구의 비율이 '85년에 비하여 높아짐
- '90년에 혼자사는 사람중 유배우상태인 사람은 13.3%로 이들은 주로 직장문제 때문에 따로사는 사람임
- 사별인 경우는 34.6% 그리고 이혼인 경우는 5.4%로 '85년에 비해 크게증가

(단위 천가구, %)

	1985	1990	'85~'90
연령분포			
20-	39(5.9)	36(3.5)	Δ3(Δ7.7)
20~24	114(17.2)	138(13.5)	24(21.1)
25~29	116(17.5)	203(19.9)	87(75.0)
30~39	77(11.6)	160(15.7)	83(107.8)
40~49	57(8.6)	86(8.4)	29(50.9)
50~59	86(13.0)	122(11.9)	36(41.9)
60~64	57(8.6)	84(8.2)	27(47.4)
65+	114(17.2)	193(18.9)	79(69.3)
혼인상태			
유배우	102(15.4)	136(13.3)	34(33.3)
사별	225(34.0)	354(34.6)	129(57.3)
이혼	32(4.9)	55(5.4)	23(71.9)
미혼	302(45.7)	477(46.7)	175(57.9)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따라서 총인구중 혼자서 사는 인구비율은 지속적으로 늘고 있음.

· 1975년에 0.8%에 불과하였으나 1990년에는 2.4%로 약 3배 늘었음

· 특히 1980년 이후에는 도시보다도 농촌에서 더 높고, 더 빨리 증가하였음

< 혼자사는 인구 비율 >

(단위 %)

	1975	1980	1985	1990
전국	0.81	1.02	1.64	2.35
시부	0.90	1.03	1.62	2.24
군부	0.73	1.02	1.67	2.68

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 2 여성, 이혼·사별 가구주 가구증가

### 가 여성가구주 가구

- '90년에 여성가구주 가구는 1,787천가구로 6가구중의 1가구(15.7%)가 여성가구주 가구임
- '85~'90년간 여성가구주 가구는 286천가구(19.1%)가 증가, 전체가구 증가율(18.6%)을 상회함
- 여성가구주 가구의 비율은 최근 시부보다 군부에서 더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여자노인 혼자서 사는 가구가 군부에서 증가하고 있기 때문임

(단위 : 천가구, %)

	1975	1980	1985	1990	'85~'90
여성가구주가구 (%)	850 (12.8)	1,169 (14.7)	1,501 (15.7)	1,787 (15.7)	286 (19.1)
시 부 (%)	504 (15.2)	725 (15.5)	1,037 (16.4)	1,297 (15.3)	260 (25.1)
군 부 (%)	346 (10.4)	444 (13.5)	464 (14.3)	490 (16.9)	26 (5.6)

주 ( )은 전체가구에 대한 비율임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나 사별가구주 가구

o 사별 가구주 가구 추이

- '90년에 사별가구주 가구는 전체가구의 10.5%(1,196천가구)로 10가구중 1가구가 사별가구주 가구임.
- '85~'90년간 31.3%(285천가구)가 증가하였음.
- 사별가구주 가구의 증가는 남녀간 평균수명 차이에 기인하며, 또한 아직도 사별여자의 재혼율이 낮은데에 기인함.

(단위 : 천가구, %)

	1975	1980	1985	1990	'85~'90
사별가구주가구 (%)	616 (9.3)	818 (10.3)	911 (9.5)	1,196 (10.5)	285 (31.3)
시 부 (%)	308 (9.2)	414 (8.9)	518 (8.2)	724 (8.6)	206 (39.8)
군 부 (%)	308 (9.3)	404 (12.2)	393 (12.1)	472 (16.3)	79 (20.1)

주 : ( )은 전체가구에 대한 비율임.  
 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o 사별가구주의 특성

- '90년 사별 가구주중 여자가 84.1%로 압도적으로 많음
- 이는 부부중 남자에 비해 여자의 평균수명이 길기 때문임.
- '90년 사별 가구주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40세미만이 여자 6.1%, 남자 5.3%이며 40세~60세미만은 42.6%, 48.5% 그리고 60세이상은 51.6%, 45.3%로 각각 나타남
- 60세미만 가구주 특히 여성 사별 가구주는 여성 가구주자신 및 자녀의 경제적 부양이 문제로 대두됨

(단위 : 천가구, %)

사별가구주연령	1985		1990	
	남 자	여 자	남 자	여 자
전 국	127(100.0)	784(100.0)	190(100.0)	1,006(100.0)
30-	1 (0.8)	4 (0.5)	1 (0.5)	4 (0.4)
30~34	2 (1.6)	16 (2.0)	3 (1.6)	18 (1.8)
35~39	5 (3.9)	37 (4.7)	7 (3.7)	39 (3.9)
40~49	21 (16.5)	169 (21.6)	29 (15.3)	176 (17.5)
50~59	33 (26.0)	262 (33.4)	52 (27.3)	312 (31.0)
60+	84 (66.1)	297 (37.9)	98 (51.6)	456 (45.3)

다 이혼가구주 가구

o 이혼 가구주 가구 추이

- 이혼가구주 가구는 계속 증가세로 '90년에는 174천가구(전체가구의 1.5%수준)로 나타남
- '85~'90년간 이혼가구주 가구의 증가율은 64.2%로 총가구 증가율 18.6%의 3.5배 수준에 이룸.
- 특히 이혼가구주 가구는 도시에서 급증하고 있음
- '85~'90년간 증가율 · 도시(76.8%), 농촌(20.8%)

(단위 : 천가구, %)

	1975	1980	1985	1990	'85~'90
이혼가구주가구 (%)	54 (0.8)	70 (0.9)	106 (1.1)	174 (1.5)	68 (64.2)
시 부 (%)	36 (1.1)	51 (1.1)	82 (1.3)	145 (1.7)	63 (76.8)
군 부 (%)	18 (0.5)	19 (0.6)	24 (0.8)	29 (1.0)	5 (20.8)

주 · ( )은 전체가구에 대한 비율임  
 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o 이혼가구주의 특성

- '90년 이혼가구주중 여자가 57.1%로 많음
- '90년 이혼가구주중 40대 및 50대가 압도적으로 많아 이들 자녀의 정신적·경제적 부양문제 발생

(단위 천가구, %)

이혼가구주연령	1985		1990	
	남 자	여 자	남 자	여 자
전 국	41(100.0)	65(100.0)	74(100.0)	100(100.0)
30-	2 (4.9)	3 (4.6)	2 (2.7)	4 (4.0)
30~34	5 (12.2)	10 (15.4)	9 (12.2)	15 (15.0)
35~39	9 (22.0)	14 (21.5)	15 (20.3)	22 (22.0)
40~49	17 (41.5)	25 (38.5)	32 (43.2)	38 (38.0)
50~59	6 (14.6)	10 (15.4)	13 (17.6)	17 (17.0)
60+	2 (4.9)	3 (4.6)	3 (4.0)	4 (4.0)

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 3 인구의 노령화와 노인가구 문제

#### 가 인구의 노령화

- 우리나라의 65세이상 고령자는 '70년 99만명에서 '80년 146만명, '90년 214만명 그리고 '93년 236만명으로 '70~'80년사이 47만명이 증가하였으나, '80~'90년간에는 68만명이 증가함
- 총인구에 대한 구성비도 '70년 3.1%에서 '93년 5.4%로 증가하여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음
- 고령자의 증가는 사망을 저하에 따른 평균 수명의 연장에 기인하며, 총인구에 대한 고령자의 구성비 증가는 사망률 감소로 인하여 고령자는 증가한데 반하여 출산력의 감소로 저연령층 인구는 감소하였기 때문임.

(단위 천명, %)

	총인구	65세이상	비율
1970	32,241	991	3.1
1980	38,124	1,456	3.8
1985	40,806	1,742	4.3
1990	42,869	2,144	5.0
1991	43,268	2,212	5.1
1992	43,663	2,283	5.2
1993	44,056	2,362	5.4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1991

나 고령자 거주가구 현황

- '90년에 65세이상 노인이 거주하는 가구는 전체가구의 16.0%임  
 이중 노인 혼자 거주하는 가구는 10.6%, 노부부만이 거주하는 가구는 12.7%임  
 노인과 배우자의 가족과 함께사는 가구는 75.3%임
- 시부보다 군부에 노인거주가구 비율이 높으며,  
 특히, 노인단독 및 노인 부부가구 비율이 군부에서 높게 나타남

(단위 천가구, %)

	계	시 부	군 부
총 일반가구	100 0(11,355)	100 0(8,463)	100 0(2,892)
노인거주가구	16.0	11.8	28.4
노인단독	1.7	0.9	4.0
노인부부	2.0	1.0	5.0
노인+친족	12.1	9.7	18.9
노인+기타	0.2	0.2	0.4
비노인거주가구	84.0	88.2	71.6

자료 통계청, 「1990 인구주택총조사」

다 노인가구 증가

- '90년 가구주 연령이 65세이상인 노인가구(단독과 부부)는 전체가구의 3.7%인 422천가구로 나타났는데, 이는 '85년 261천가구(2.7%)보다 161천가구(61.7%)가 증가한 것임.
-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노인수가 증가한데다, 핵가족화 및 인구이동 등으로 노인만 사는 가구가 늘었기 때문임
- 노인부부가구는 '85년 146천가구에서 '90년 229천가구로 56.8%나 증가하였고 특히 노인 단독가구는 동 기간중 115천가구에서 193천가구로 67.8%나 증가함
- 산업화, 도시화에 따라 노인들이 더욱 어렵고 외롭게 되었음을 시사
- 노인 단독·부부가구는 시부 가구의 1.9%를 차지하고 있으나, 군부에서는 9.1%나 차지하고 있음
- 자녀들이 도시로 이동한 후 군부에 아직 남아있는 노인 단독 또는 부부가구가 많기 때문임.

(단위 . 천가구, %)

	1985	1990	증감(율)
전 국	9,571(100.0)	11,355(100.0)	1,784 (18.6)
노인단독·부부가구	261 (2.7)	422 (3.7)	162 (61.7)
노인부부가구	146 (1.5)	229 (2.0)	83 (56.8)
노인단독가구	115 (1.2)	193 (1.7)	78 (67.8)
시 부	6,331(100.0)	8,463(100.0)	2,132 (33.7)
노인단독·부부가구	80 (1.3)	160 (1.9)	80(100.0)
노인부부가구	42 (0.7)	84 (1.0)	42(100.0)
노인단독가구	38 (0.6)	76 (0.9)	38(100.0)
군 부	3,240(100.0)	2,892(100.0)	△ 348(△10.7)
노인단독·부부가구	181 (5.6)	262 (9.1)	81 (44.8)
노인부부가구	104 (3.2)	145 (5.0)	41 (39.4)
노인단독가구	77 (2.4)	117 (4.1)	40 (51.9)

노인가구 가구주의 연령 65세이상이며, 혼자살거나 또는 배우자의 다른 동거가구원이 없는 가구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라 노후대책

o 노후 준비방법

- 경제성장에 따른 제반 여건이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노후에 대비하여 준비를 하는 사람은 39.0%에 불과함
- 노후준비방법이 없는 사람 비율은 농촌이 월등히 높음
- 한편 노후준비를 하고 있는 경우 연금에 의존하는 사람이 1983년에 4.3%로 낮았으나 1991년에는 13.4%로 크게 증가함

< 노 후 준 비 방 법 >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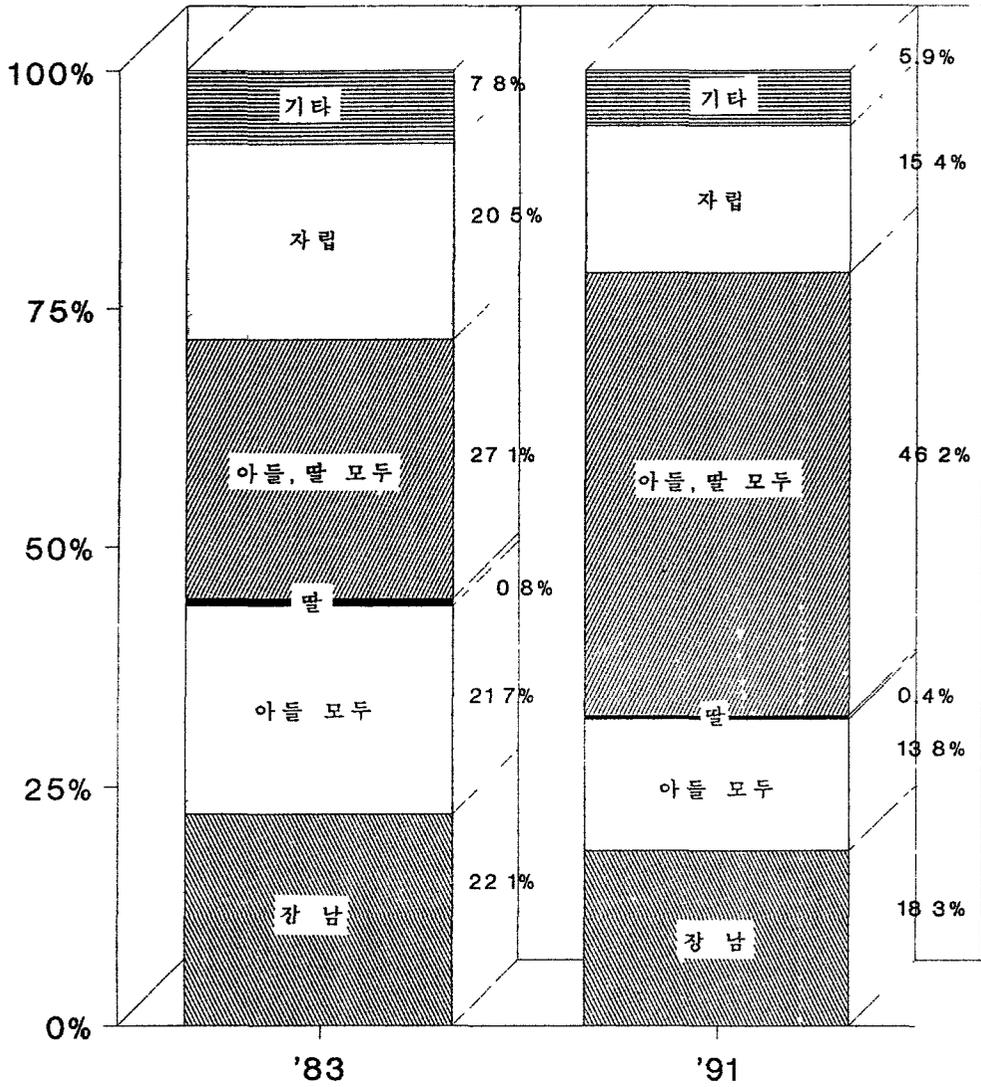
	준비 없음	노 후 준 비 방 법						
		보험	적금	연금	계	부동산	유가증권	기타
1983	61.0	7.6	14.8	4.3	5.5	-	-	6.8
시 부 군 부	58.6	8.8	16.7	5.0	4.7	-	-	6.2
	65.0	5.7	11.6	3.2	6.7	-	-	7.8
1988	64.9	8.6	9.4	11.5	1.3	3.6	0.6	0.2
시 부 군 부	61.3	10.1	10.2	13.3	0.9	3.5	0.7	0.1
	73.5	5.2	7.6	7.2	2.1	3.8	0.3	0.3
1991	61.0	11.2	10.4	13.4	0.7	2.9	0.3	0.1
시 부 군 부	56.8	13.0	10.5	15.5	0.7	3.0	0.4	0.1
	73.2	5.8	10.1	7.2	0.7	2.7	-	0.3

자료 통계청, 「사회통계조사」

o 노부모 부양책임

- 노부모를 장남이 책임져야 한다가 1979년에는 30.6%로 비교적 높았으나, 1991년에는 18.3%로 낮아져 장남에 대한 의존도가 줄어든 반면, 아들·딸 모두가 책임져야 한다가 1991년에 46.2%로 크게 높아져 세태가 많이 변화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음.
- 그러나 자립에 의한 노후대책은 오히려 크게 줄어 그만큼 자녀에게 의존이 늘어남.

# 노부모 부양 책임



(단위 %)

	장남	아들모두	딸	아들딸모두	자립	기타
1979	30.6	22.2	0.6	6.4	36.6	3.6
1983	22.1	21.7	0.8	27.1	20.5	7.8
1988	25.2	17.8	0.5	35.8	15.8	5.0
1991	18.3	13.8	0.4	46.2	15.4	5.9

자료 통계청, 「사회통계조사」

o 노인 복지시설

- 노인 복지시설(양로원, 요양원, 유료시설)은 '75년 45개에서 '92년에 123개로 증가
- 노인 복지시설내 인구는 '75~'92년간 196.6%가 증가하여 전체 노인 증가율 87.6%의 2배 수준임
- 시설당 노인인구비율은 점차 낮아져 시설수의 증가가 노인 증가보다 빠르나 ('75~'92간 노인 증가율은 87.6%, 시설 증가율 173.3%) 아직 300명이상 노인당 1개시설 비율로 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임

	1975	1980	1985	1990	1991	1992
복지시설수(개)	45	48	67	89	106	123
시설내 노인수(명)	2,441	3,158	5,059	6,409	6,822	7,239
65세이상노인(천명)	1,217	1,456	1,742	2,144	2,212	2,283
노인/시설수(명)	499	461	344	335	324	315
시설별노인(%)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양로원	100.0	100.0	100.0	77.4	72.3	67.0
요양원	-	-	-	22.6	21.9	24.9
유료시설	-	-	-	-	5.8	8.1

자료 : 보건사회부, 「보건사회통계연보」

마 고령자의 경제활동

o 60세이상 고령 근로자

- 60세이상 고령 근로자수는 '70년 44만명에서 계속 증가 '93년에는 149만명이  
며, 이들이 전체 취업자중 차지하는 비율도 '70년 4.6%에서 '93년에 7.8%로  
높아짐
- 노령인구 및 노인가구 증가등에 따른 노인 스스로의 부양책 마련을 위하여  
노인 고용 증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단위 : 천명, %)

	1970	1975	1980	1985	1990	1991	1992	1993
60세이상 근로자	438	598	716	879	1,289	1,357	1,492	1,490
총취업자대비(%)	4.6	5.1	5.2	5.9	7.2	7.3	7.9	7.8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o 노인 취업희망 현황

- '85년 1년동안 취업알선기관을 통하여 취업을 희망한 노인수는 5만명이었  
으나 '92년에는 2배인 10만명 수준이었음
- 알선률은 '92년의 경우 88.5%에 이르나, 대부분 일시 고용에 이르며,  
이외 알선기관을 통하지 않은 취업희망 노인이 많은것으로 추정되어,  
노인 재훈련 및 고용대책이 필요함

(단위 : 명)

	1985	1990	1991	1992
희망자수	49,533	93,468	97,706	99,498
알선자수	40,903	81,735	85,282	88,009

자료 : 보건사회부, 「보건사회통계연보」

#### 4 소년·소녀가장의 증가

- 소년·소녀 가장은 '85년 4,901명에서 '93년 7,322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음
- 소년·소녀 가장이 부양하고 있는 사람은 자신을 포함하여 평균 2명으로 나타남
- 소년·소녀 가장 가구의 가구원중 취학증인자는 80%수준으로 이들의 경제적 부양 뿐만아니라 교육비용지원이 절실함

(단위 명, %)

	1985	1990	1991	1992	1993
소년소녀가장(명) <sup>1)</sup>	4,901	6,696	6,902	7,089	7,322
총가구원(명)	11,125	13,778	13,985	14,081	14,293
평균부양인수(명)	2.3	2.1	2.0	2.0	2.0
가구주및가구원 취학상태 (%)	100.0	100.0	100.0	100.0	100.0
미 취 학	3.7	1.0	0.9	1.0	0.8
국민학교	30.2	26.1	26.1	25.0	23.3
중 학 교	28.2	29.1	29.3	31.3	33.0
고등학교	10.2	21.8	22.8	24.0	25.3
기 타	27.8	22.0	20.9	18.8	17.6

주 1) 18세미만 미성년자로서 가구의 가구주로 역할을 함  
자료 : 보건사회부, 「보건사회통계연보」

### 5. 생활보호대상자

- 생활보호대상자는 '92년 2,173천명으로 최근에 감소세이나 전체 인구의 5.0% 수준임
- 이중 자활보호가 80.7%로 압도적으로 많음

	1980	1985	1990	1991	1992
대상자(천명)	1,829	2,273	2,256	2,246	2,173
총인구대비(%)	4.8	5.6	5.3	5.2	5.0
종류(%)	100.0	100.0	100.0	100.0	100.0
거택보호 <sup>1)</sup>	15.4	12.4	15.0	15.0	15.5
시설보호 <sup>2)</sup>	2.6	2.8	3.6	3.7	3.8
자활보호 <sup>3)</sup>	82.0	84.8	81.3	81.3	80.7

주 . 1) 65세이상 노인, 18세미만 아동자, 장애자, 폐질자중 일정한 요건을 구비한자로서 최저생계비가 지원됨

2) 거택보호시설에 해당되는 자로서 주택등 시설이 없는자에 한해서 양로원, 아동복지시설, 불량아시설 등에서 보호함

3) 근로능력이 있으나 생계가 어려우며 부양자가 있는 경우로 생계비가 아닌 직업훈련, 교육비지원, 의료보호(2종)등이 지원됨

자료 보건사회부, 「보건사회통계연보」

6 청소년과 가정문제

o 청소년의 고민

- 이혼가구등 결손가정의 증가로 청소년의 탈선 위험이 높아지고, 맞벌이 가구 증가로 인하여 청소년에 대한 관심을 크게 두지 못함에 따라 청소년 문제가 심각해짐
- 청소년의 고민은 주로 학업이며, 그밖에 가정, 직업에 대한 고민순임

< 청소년의 고민 분포 >

(단위 %)

	1983	1988	1991
계	100 0	100 0	100.0
신체건강·용모	6 1	6 0	4 8
가정	16 2	14 2	17 7
학업	46 7	50 8	58 7
직업	12 2	18 6	11 0
이성교제	13 5	10 1	7.5
기타	5 3	0 3	0 2

자료 통계청, 「사회통계조사」

o 소년범죄

- 청소년 범죄는 최근에 들어 다소 감소하고 있으나 아직도 절도·강간이 전체 범죄의 50%를 차지하고 있으며 살인은 11.8%를 차지하여 흉폭해지고 있음

(단위 명, %)

	주요범죄					
	계	절도	살인	강도	강간	폭행·상해
1980	43,249 (12.3)	26,927 (42.5)	87 (15.1)	1,815 (53.3)	2,274 (40.1)	1,954 (7.3)
1985	44,339 (14.4)	30,522 (45.2)	88 (13.0)	2,285 (49.5)	3,255 (42.3)	3,398 (11.2)
1990	35,050 (12.4)	22,649 (47.4)	160 (18.2)	3,327 (51.9)	2,670 (35.9)	1,462 (4.5)
1991	32,750 (10.6)	22,769 (49.3)	93 (12.2)	2,238 (47.9)	1,163 (21.0)	1,361 (4.1)
1992	32,134 (9.3)	23,459 (50.1)	93 (11.8)	2,069 (46.2)	1,069 (19.8)	1,113 (3.5)

주 · 건수는 소년범죄 건수,  
( )은 전체 범죄건수에 대한 소년범죄 비율임  
자료 · 대검찰청, 「범죄분석」

## 7 가정생활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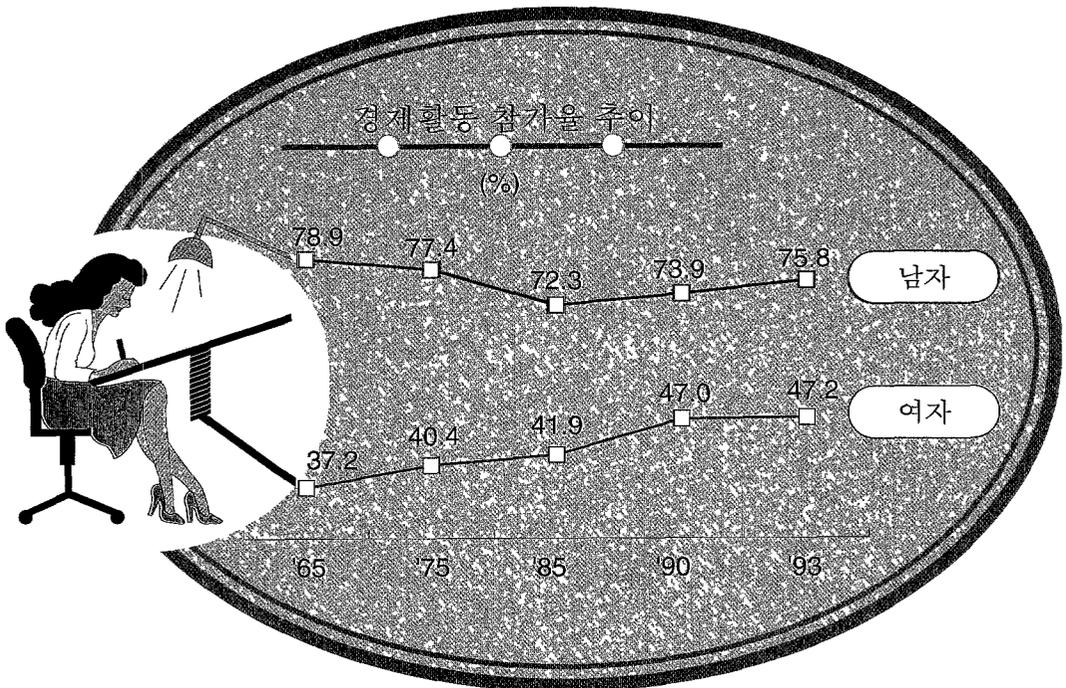
- '91년 가정생활 만족도에서 경제적 생활에 대한 만족은 19.7%에 불과함  
· 이는 가정의 경제적 여건이 충분치 못함을 반영한 것임
- 청소년 문제 발생의 주 원인인 부모와의 관계에서 만족은 42.2%로 비교적 낮게 나타남
- 이혼사유가 될수있는 배우자와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는 58.3%로 비교적 높으나 아직 절반가량이 보통이나 불만족한 상태로 나타남
- 전반적인 가정생활에 대해 36.0%만이 만족하고 있으며 보통이 52.8%, 불만이 11.2%로 나타남

(단위 : %)

	1988			1991		
	만족	보통	불만	만족	보통	불만
경제적 생활	14.5	50.0	35.5	19.7	45.0	35.3
자녀와의 관계	57.3	35.9	6.8	64.8	28.5	6.7
부모와의 관계	41.2	49.9	8.9	42.2	48.3	9.6
배우자와의 관계	54.4	38.1	7.4	58.3	33.4	8.3
전반적인 가정생활	32.3	57.1	10.6	36.0	52.8	11.2

자료 통계청, 「사회통계조사」

## 여성 사회참여 확대의 이모저모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65년 37.2%에서 93년에는 47.2%로 10%「포인트」증가하여 여성의 사회참여가 지난 28년간 크게 확대되었다.」

- 자료중에서 -

# 女性 社會參與擴大의 이모저모

—60年代以後 女性就業構造變化 分析—

1994. 5

統計企劃局 企劃課

# 1. 女性の社會(經濟活動)參與 크게 擴大

## 가.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 추이

### 社會參與可能人口의 增加

- 우리나라 人口中 사회참여가 가능한 인구인 15세이상 여성인구는 65년에 8,075천명에서 93년에 16,697천명으로 지난 28년 동안 2.1배 증가
  - 평균수명연장과 출산력의 저하로 15세이상 女子人口增加率은 총여자인구증가율(66~93년평균 1.5%)을 상회한 연평균 2.6% 시현
  - 이에따라 총여자인구중 15세이상 女子人口比重은 65년 56.7%에서 93년 76.3%로 크게 증가함으로써 社會參與可能人口의 비중이 높아졌음.

### 女性 經濟活動人口가 男子 보다 큰 폭으로 增加

- 일할 意思가 있는 여성경제활동인구는 65년에 3,002천명에서 93년에 7,887천명으로 지난 28년동안 2.6배 증가한 반면 남자는 2.1배 증가에 그쳤음.
- 女子 經濟活動參加率(경제활동인구/15세이상인구)은 65년에 37.2%에서 93년에 47.2%로 10%「포인트」증가하여 여자의 사회참여가 지난28년간 크게 확대되었음

< 表 > 韓·日間 經濟活動參加率 변화 비교

		65	93	증감(%포인트)
한 국	남 자 (%)	78.9	75.8	-3.1
	여 자 (%)	37.2	47.2	10.0
일 본	남 자 (%)	83.2	78.0	-5.2
	여 자 (%)	49.9	50.7 <sup>1</sup>	0.8

주 · 1) 1992년

○ 한편 女子의 經濟活動人口增加率(66-93년평균기준 3.5%)이 男子의 經濟活動人口增加率(2.6%)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앞으로도 여자의 사회참여확대가 상대적으로 커질 것으로 예상됨.

< 表 > 經濟活動參加率 추이

(단위 : 千名, %)

	65	75	85	90	93	배 수 (93/65)	66~93 연평균 증가율
1. 총 인 구 <sup>1</sup>	28,705	35,281	40,806	42,869	44,056	1.5	1.5
가. 남 자	14,453	17,766	20,576	21,568	22,177	1.5	1.5
나. 여 자	14,252	17,515	20,230	21,301	21,879	1.5	1.5
2. 15세이상인구 ( 2 / 1 )	15,368 (53.5)	20,918 (59.3)	27,553 (67.5)	30,801 (71.8)	32,361 (73.5)	2.1	2.7
가. 남 자 (2.가/1.가)	7,293 (50.5)	10,107 (56.9)	13,295 (64.6)	14,903 (69.1)	15,664 (70.6)	2.1	2.8
나. 여 자 (2.나/1.나)	8,075 (56.7)	10,811 (61.7)	14,258 (70.5)	15,897 (74.6)	16,697 (76.3)	2.1	2.6
3. 경제활동인구 (참가율, 3/2)	8,754 (57.0)	12,193 (58.3)	15,592 (56.6)	18,487 (60.0)	19,754 (61.0)	2.3	2.9
가. 남 자 (참 가 율)	5,752 (78.9)	7,822 (77.4)	9,617 (72.3)	11,013 (73.9)	11,867 (75.8)	2.1	2.6
나. 여 자 (참 가 율)	3,002 (37.2)	4,371 (40.4)	5,975 (41.9)	7,474 (47.0)	7,887 (47.2)	2.6	3.5

주 : 1) 총인구는 연앙추계인구, 「한국통계연감」

## 20대초반과 40대의 女性經濟活動參加率이 높음

- 女性의 社會參與程度를 나타내는 經濟活動參加率을 기준으로 어느 연령층에서 社會參與가 높은가를 살펴보면(93년 기준)
  - 20~24세가 64.7%, 40~44세가 62.6%, 45~49세가 60.5%, 35~39세가 59.3% 순으로 나타났음.
  - 社會參與가 가장 낮은 연령층은 15~19세가 16.7%, 60세이상 26.7%, 25~29세가 44.8% 순임.

## 20~30대와 60세이상 老齡層의 社會參與 擴大가 두드러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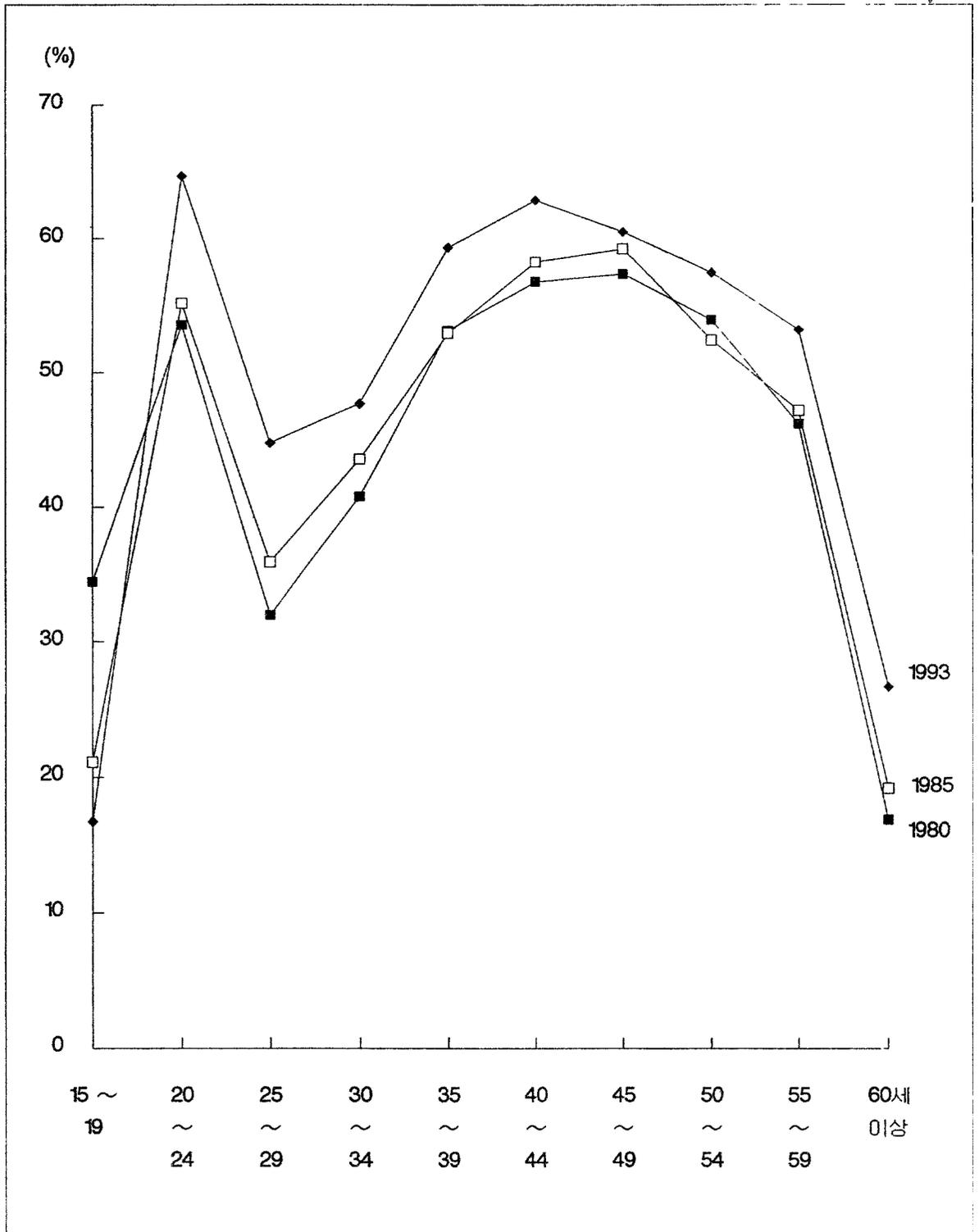
- 최근 社會參與의 變動을 80년과 比較하여 보면
  - 15~19세에서만 감소(80년 34.4% → 93년 16.7%)한 반면 20세이상 모든 연령층에서 증가하였음
  - 經濟活動參加率이 크게 증가한 연령층은 20대로서 20~24세가 같은 기준중 53.5%에서 64.7%, 25~29세가 32.0%에서 44.8%로 증가하였으며
  - 60세이상 老齡人口의 社會參與增加(80년 16.9% → 93년 26.7%)도 두드러졌으며, 經濟活動을 원하는 高齡者는 거의 모두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음.
  - 한편 30대에서도 社會參與가 높아졌음  
(30~34세 : 40.8% → 47.7%, 35~39세 : 53.1% → 59.3%)

< 表 > 年 齡 別 女 性 經 濟 活 動 參 加 率 推 移

(단위 千名, %)

	총 수	15~19	20~24	25~29	30~34	35~39	40~44	45~49	50~54	55~59	60이상
< 1980 >											
A 15세이상인구	12,659	1,847	1,826	1,472	1,256	1,159	1,127	1,029	772	652	1,520
B 경제활동인구	5,412	635	977	471	512	615	639	590	416	301	257
C 경제활동참가율(B/A)	42.8	34.4	53.5	32.0	40.8	53.1	56.7	57.3	53.9	46.2	16.9
D. 취 업 자	5,222	559	906	461	503	606	632	584	413	300	257
( D / B )	(96.5)	(88.0)	(92.7)	(97.9)	(98.2)	(98.5)	(98.9)	(99.0)	(99.3)	(99.7)	(100)
E 실 업 자	190	76	71	10	9	9	6	5	3	2	-
( E / B )	(3.5)	(12.0)	(7.3)	(2.1)	(1.8)	(1.5)	(0.9)	(0.8)	(0.7)	(0.7)	(0.0)
< 1993 >											
A 15세이상인구	16,697	1,860	2,117	1,936	2,067	1,775	1,304	1,143	1,112	965	2,419
B 경제활동인구	7,887	311	1,369	868	985	1,052	816	691	638	513	645
C 경제활동참가율(B/A)	47.2	16.7	64.7	44.8	47.7	59.3	62.6	60.5	57.4	53.2	26.7
D. 취 업 자	7,710	280	1,278	848	975	1,042	811	686	635	511	645
( D / B )	(97.7)	(90.0)	(93.3)	(97.7)	(99.0)	(99.0)	(99.4)	(99.3)	(99.5)	(99.6)	(100)
E 실 업 자	178	31	91	20	10	9	5	5	3	2	1
( E / B )	(2.3)	(10.0)	(6.6)	(2.3)	(1.0)	(0.9)	(0.6)	(0.7)	(0.5)	(0.4)	(0.2)

< 圖 > 年齡別 女性經濟活動參加率 變化



## 나.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요인

### < 要 約 >

- (1) 女性の 학력수준 향상
- (2) 女性 社會參與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 (3) 既婚女性の 취업여건 개선
- (4) 가사에 종사하는 非經濟活動人口 비중 축소
- (5) 國民健康水準向上과 더불어 平均壽命延長에 따른 노령층을 위한 직업 (안내원, 고령자를 위한 공장, 각종 자영업)의 증가로 60세이상 고령인구의 경제활동 참가율 증가

### 女性の 學歷水準 向上

- 女性の 教育水準이 높아짐에 따른 優秀人力의 증가로 10대후반의 社會參與는 줄어들든 반면 20대여성의 社會參與 크게 증가

< 表 > 高卒以上 女子卒業者數

(단위 . 명)

	65	93	배 수
· 고 등 학 교	43,405	354,192	8.2배
· 초급대(전문대)	2,808	60,287	21.5배
· 교 육 대	826	2,499	3.0배
· 대 졸 이 상	3,662	78,996	21.6배

- 優秀潛在勞動力의 增加가 30대이후 여성의 社會參與를 보다 촉진시킨 요인으로 작용

< 表 > 각급 학교 졸업자 수<sup>1</sup> 추이

(단위 · 명)

	65	75	85	90	93
1 중 학교	209,592	568,648	865,627	835,699	743,599
남 자	135,737	337,565	442,973	430,054	382,108
여 자	73,855 (100.0)	231,083 (312.9)	412,654 (558.7)	405,645 (549.2)	361,491 (489.5)
2. 고 등 학 교	129,566	263,369	642,354	761,922	741,976
남 자	86,161	161,311	352,982	407,086	387,784
여 자	43,405 (100.0)	102,058 (235.1)	289,372 (666.7)	354,836 (817.5)	354,192 (816.0)
3. 초급대(전문대)	5,668	1,538	73,927	87,131	111,855
남 자	2,860	380	40,667	41,109	51,568
여 자	2,808 (100.0)	1,158 (41.2)	33,260 (1184.5)	46,022 (1639.0)	60,287 (2147.0)
4. 교 육 대	1,825	5,841	4,331	4,965	3,845
남 자	999	2,700	1,734	1,910	1,346
여 자	826 (100.0)	3,141 (380.3)	2,597 (314.4)	3,055 (369.9)	2,499 (302.5)
5 대 학 교	22,970	33,610	118,584	165,916	184,868
남 자	19,342	23,893	75,813	104,627	113,232
여 자	3,628 (100.0)	9,717 (267.8)	42,771 (1178.9)	61,289 (1689.3)	71,636 (1974.5)
6 대 학 원 <sup>2</sup>	565	3,466	18,037	22,269	28,230
남 자	531	2,892	14,808	17,233	20,870
여 자	34 (100.0)	574 (1688.2)	3,229 (9497.0)	5,036 (14811.8)	7,360 (21647.1)

자료 : 교육부「교육통계연보」

주 : 1) 방송통신고등학교 및 대학, 개방대학(원) 제외

2) 석사학위이상 수여자

## 女性の 社會參與에 대한 社會的 認識 變化

- 男女間 同等한 조건에 의한 職場 就業 및 근로조건 개선 등 性差別 감소로 인한 男女平等化 추세
- 男女間 임금격차의 축소

〈 表 〉 男女間 月平均 賃金隔差 緩化 趨勢

(단위 : 원, %)

	75	80	85	90	93
○ 전 학 령 평 균 <sup>1</sup>	46,654	150,747	268,766	501,992	975,125
A. 남 자	60,319	192,589	328,177	588,320	1,116,682
B. 여 자	25,465	85,674	158,486	323,691	632,665
C. 격차(B/A,%)	(42.2)	(44.5)	(48.3)	(55.0)	(56.7)
○ 대 줄 기 준 <sup>2</sup>					
A. 남 자	123,573	348,513	564,800	833,004	1,034,898 <sup>3</sup>
B. 여 자	77,187	210,981	411,642	593,776	754,029 <sup>3</sup>
C. 격차(B/A,%)	(62.5)	(60.5)	(72.9)	(71.3)	(72.9)

- 주 · 1) 노동부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  
 2) 노동부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3) 1992년 기준

※ 주요국의 임금격차 비교

	단 위	남 자	여 자	임금격차 (여/남, %)
일 본 (1991)	월평균 엔	450,336	193,112	42.9
싱가포르 (1992)	월평균 싱가포르달러	2126.8	1190.7	56.0
영 국 (1992)	시간당 파운드	6.35	4.34	68.3
프 랑 스 (1990)	시간당 프랑	48.33	38.17	79.0

※ 자료 . ILO 「노동통계연감」 1993

## 既婚女性の 就業與件 改善

○ 청소기, 세탁기, 취사용 제품 등 各種 가전제품의 普及擴大 및 주방시설의 現代化 등으로 인한 家事負擔 軽減

○ 놀이방, 어린이집 등 어린이 보육시설과 유아원, 유치원 등의 增加

- 어린이 보육시설 : 82년 691개 → 93년 5,490개(원아수 153,270명)
- 93년중 유아원은 944개로서 59,889명의 영아에 대한 保育 및 유아교육 담당
- 유치원수 : 65년 423개→93년 8,515개(원아수 65년 19,560명→93년 469,380명)

○ 기혼여성의 취업여건 개선으로 여성취업자중 유배우 근로자의 비중이 80년의 59.0%에서 93년에 62.3%로 높아짐에 따라 30대이후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

< 表 > 未婚·既婚 有無에 따른 女性就業者 推移

(단위 : 千名, %)

	合 計		未 婚	有配偶		死 別	離 婚
	指數	指數					
1980	5,222 (100)	100.0	1,464 (28.0)	3,079 (59.0)	100.0	608 (11.6)	72 (1.4)
1985	5,835 (100)	111.7	1,471 (25.2)	3,600 (61.7)	116.9	678 (11.6)	86 (1.5)
1990	7,342 (100)	140.6	1,800 (24.5)	4,605 (62.7)	149.6	807 (11.0)	130 (1.8)
1991	7,508 (100)	143.8	1,893 (25.2)	4,663 (62.1)	151.4	811 (10.8)	141 (1.9)
1992	7,609 (100)	145.7	1,891 (24.8)	4,754 (62.5)	154.4	814 (10.7)	151 (2.0)
1993	7,710 (100)	147.6	1,955 (25.4)	4,807 (62.3)	156.1	805 (10.4)	143 (1.9)

## 家事에 從事하는 非經濟活動人口 比重 減少

○ 女性의 非經濟活動人口는

- 「家事」活動人口가 65년에 80%에서 93년에 68.5%로 크게 감소
- 「年老, 年少」에 의한 非經濟活動人口가 65년 12.4%에서 93년에 8.4%로 감소
- 「학원, 학교 등의 通學」人口가 65년에 4.7%에서 93년에 20.9%로 크게 증가

○ 이처럼 女性의 家事活動比重減少는 經濟活動人口 增加를 유발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지적되었음.

○ 참고로 男子 經濟活動參加率의 小幅 減少(최근의 증가)는 주로 男子非經濟活動人口中 就學 및 進學人口 增加(65년 34.3% → 93년 59.9%)에 주로 기인한 것임.

< 表 > 非經濟活動人口 推移

(단위 : 千名, %)

	經濟活動人口		非經濟 活動人口	家 事			通 學		年老·年少	
		指數		指 數	構成比		構成比		構成比	
1965 男	5,752	100.0	1,541	224	100.0	14.5	528	34.3	367	23.8
女	3,002	100.0	5,073	4,060	100.0	80.0	236	4.7	630	12.4
1975 男	7,822	136.0	2,286	329	146.9	14.4	1,328	58.1	424	18.5
女	4,371	145.6	6,440	4,698	115.7	73.0	841	13.1	788	12.2
1985 男	9,617	167.2	3,678	393	175.4	10.7	2,280	62.0	563	15.3
女	5,975	199.0	8,283	5,715	140.8	69.0	1,645	19.9	783	9.5
1990 男	11,013	191.5	3,891	487	217.4	12.5	2,440	62.7	491	12.6
女	7,474	249.0	8,423	5,632	138.7	66.9	1,917	22.8	689	8.2
1991 男	11,355	197.4	3,839	479	213.8	12.5	2,404	62.6	486	12.7
女	7,657	255.1	8,516	5,735	141.3	67.3	1,942	22.8	662	7.8
1992 男	11,615	201.9	3,800	462	206.3	12.2	2,352	61.9	481	12.7
女	7,770	258.8	8,667	5,877	144.8	67.8	1,917	22.1	661	7.6
1993 男	11,867	206.3	3,797	453	202.2	11.9	2,276	59.9	509	13.4
女	7,887	262.7	8,810	6,031	148.5	68.5	1,842	20.9	738	8.4

## 經濟活動參加率의 國際比較

- 女性の 經濟活動參加率(47.2%)을 外國과 比較하여 보면
  - 日本(50.7%), 美國(56.0%), 캐나다(57.6%), 英國(51.7%) 등 主要 先進國에 비하여는 낮은 水準에 있어
  - 앞으로도 우리나라 女性の 社會參與가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
  
- 다만 스페인(34.2%) 프랑스(46.6%) 등 일부 先進國 보다는 높은 것으로 보아 우리나라 女性の 社會參與가 결코 낮은 것만은 아닌 것으로 풀이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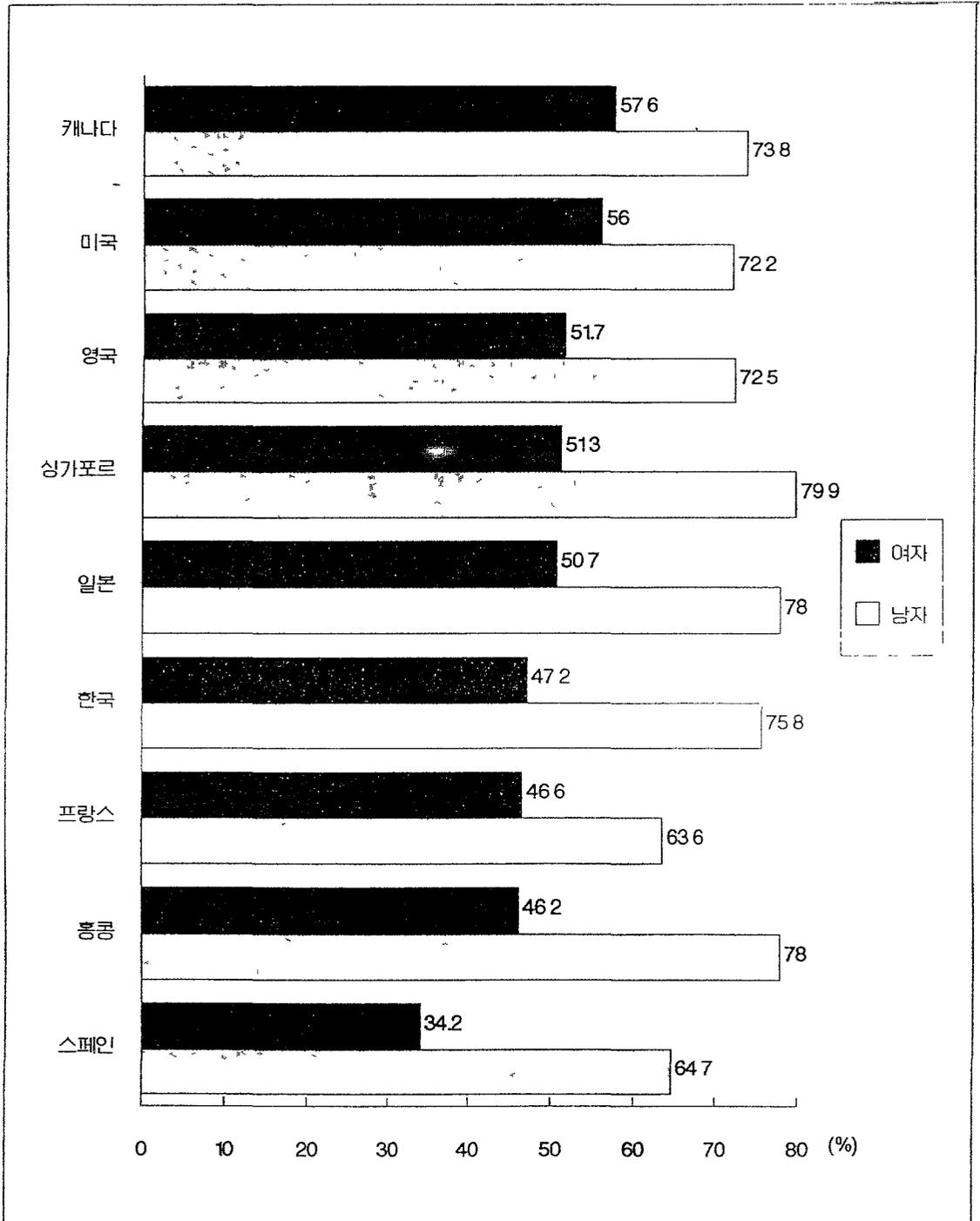
< 表 > 經濟活動增加率 國際比較

國 名	年 度	經濟活動 參加率(15세이상)	
		男 子	女 子
韓 國	1993	75.8	47.2
日 本	1992	78.0	50.7
美 國	1992	72.2	56.0
캐 나 다	1992	73.8	57.6
스 페 인	1992	64.7	34.2
프 랑 스	1991	63.6	46.6
英 國	1991	72.5	51.7
싱 가 포 르	1992	79.9	51.3
홍 콩	1992	78.0	46.2

자료 : ILO「노동통계연감」 1993

주 : 1) 스페인은 16세이상임.

< 圖 > 經濟活動參加率 國際比較



## 2. 性別, 年齡別 就業構造의 變化

### 가. 男子보다 높은 就業率 維持

○ 女性就業率은 남자보다 높은 수준 유지(실업률은 남자보다 낮음)

- 28년간의 女子就業率 變動을 보면 65년에 94.6%에서 93년에 97.7%로 높아졌음.

	65	93	증감(%포인트)
· 남 자 (%)	91.7	96.8	5.1
· 여 자 (%)	94.6	97.7	3.2

○ 女子 失業率은 65년에 5.4%에 93년에 2.3%로 감소

< 表 > 男女就業率 및 失業率 比較

(단위 : 千名, %)

	65	75	85	90	91	92	93
1. 취 업 자 (취업률)	8,112 (92.7)	11,692 (95.9)	14,970 (96.0)	18,036 (97.6)	18,576 (97.7)	18,921 (97.6)	19,203 (97.2)
○ 남 자 (취업률)	5,273 (91.7)	7,431 (95.0)	9,137 (95.0)	10,695 (97.1)	11,068 (97.5)	11,312 (97.4)	11,493 (96.8)
○ 여 자 (취업률)	2,839 (94.6)	4,261 (97.5)	5,833 (97.6)	7,341 (98.2)	7,507 (98.0)	7,609 (97.9)	7,710 (97.7)
2. 실 업 자 (실업률)	642 (7.3)	501 (4.1)	622 (4.0)	451 (2.4)	436 (2.3)	463 (2.4)	551 (2.8)
○ 남 자 (실업률)	479 (8.3)	391 (5.0)	480 (5.0)	318 (2.9)	287 (2.5)	303 (2.6)	374 (3.2)
○ 여 자 (실업률)	163 (5.4)	110 (2.5)	142 (2.4)	133 (1.8)	150 (2.0)	161 (2.1)	178 (2.3)
3. 경제 활동 인구(1+2)	8,754	12,193	15,592	18,487	19,012	19,385	19,754

## 나. 여성취업인구의 증가에 따른 남여 취업구조의 변화

○ 女性の 社會參與가 활발해 지면서 女性就業者數 增加率이 男子就業者 增加率을 上廻

- 지난 28年平均 女子就業者 增加率 : 3.6%

- 지난 28年平均 男子就業者 增加率 : 2.8%

〈 表 〉 就業者 增加率 推移

(단위 : 千名, %)

	就 業 者		66~93年間 年平均 增加率
	65	93	
男 子	5,273	11,493	2.8
女 子	2,839	7,710	3.6
全 體	8,112	19,203	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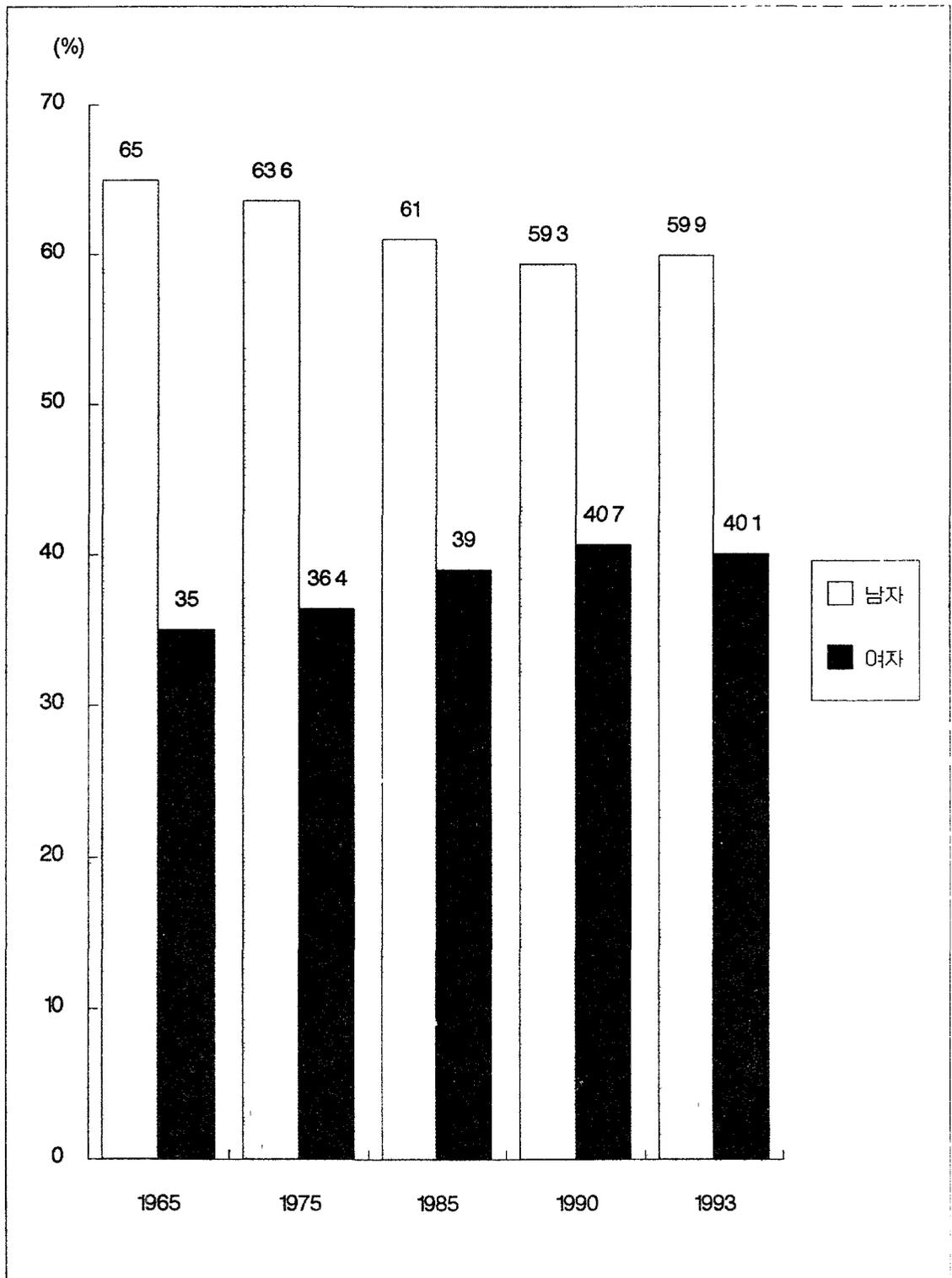
○ 이에따라 女性就業者가 全體 就業者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65년에 35.0%에서 93년에 40.1%로 크게 증가된 반면, 男子는 같은 기간중 65.0%에서 59.9%로 감소되었음

〈 表 〉 男·女 就業者數 推移

(단위 . 千名, %)

	總 數		男 子		女 子	
	就業者數	構成比	就業者數	構成比	就業者數	構成比
1965	8,112	100.0	5,273	65.0	2,839	35.0
1975	11,692	100.0	7,431	63.6	4,261	36.4
1985	14,970	100.0	9,137	61.0	5,833	39.0
1990	18,036	100.0	10,695	59.3	7,341	40.7
1991	18,576	100.0	11,068	61.4	7,507	38.6
1992	18,921	100.0	11,312	59.8	7,609	40.2
1993	19,203	100.0	11,493	59.9	7,710	40.1

< 圖 > 男·女 就業者 構成變化



다. 20~30대 및 60세이상 여성취업 증가

**年齡別 女性就業人口 變化**

○ 女性就業者 增加要因을 年齡別로 分析하여 보면

- 20~24세 女性就業者 構成 : 65년 13.8% → 93년 16.6%
- 30 대 女性就業者 構成 : 65년 23.5% → 93년 26.1%
- 60세이상 女性就業者 構成 : 65년 3.4% → 93년 8.4%

○ 즉 60세이상 女性就業者의 增加가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음.

- 93년 60세이상 女性就業者數는 645천명으로 60세이상 인구의 28.9%를 차지  
(65년 60세이상 여성취업자수 96천명 : 60세이상인구의 11.7%)

< 表 > 年齡別 女性就業者 構成 推移

(단위 : 千名,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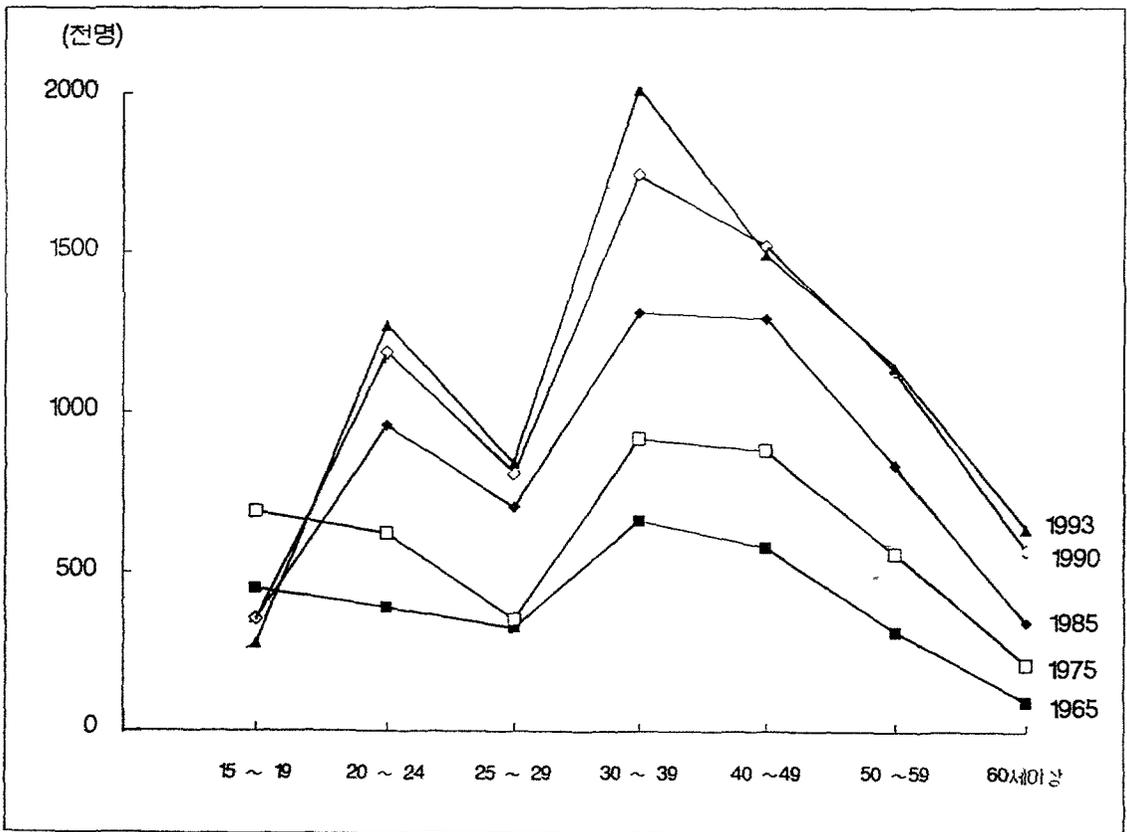
	총 수	15~19	20~24	25~29	30~39	40~49	50~59	60이상
1965	2,839 (100)	453 (16.0)	393 (13.8)	330 (11.6)	667 (23.5)	584 (20.6)	316 (11.1)	96 (3.4)
1975	4,261 (100)	695 (16.3)	628 (14.7)	356 (8.4)	920 (21.6)	885 (20.8)	566 (13.2)	211 (5.0)
1985	5,833 (100)	359 (6.2)	963 (16.5)	710 (12.2)	1,316 (22.6)	1,298 (22.3)	840 (14.3)	347 (5.9)
1990	7,341 (100)	355 (4.8)	1,190 (16.2)	814 (11.1)	1,748 (23.8)	1,523 (20.7)	1,133 (15.4)	577 (8.0)
1991	7,507 (100)	360 (4.8)	1,254 (16.7)	800 (10.7)	1,816 (24.2)	1,507 (20.1)	1,175 (15.7)	596 (8.0)
1992	7,609 (100)	314 (4.1)	1,264 (16.6)	805 (10.6)	1,857 (24.4)	1,502 (19.7)	1,218 (16.0)	651 (8.6)
1993	7,710 (100)	280 (3.6)	1,278 (16.6)	848 (11.0)	2,017 (26.1)	1,497 (19.4)	1,146 (14.9)	645 (8.4)

주 : ( )은 구성비임.

## 20~30대 및 60세이상 女性就業者 增加 要因

- 60歲以上 女性就業者數가 크게 늘고 있는 主要因은 國民健康水準向上(平均壽命 增加), 核家族化, 자녀로부터의 自立 등에 따른 요인으로 풀이됨
- 20대 女性就業人口比率이 늘고 있는 것은 女性 高學歷化에 따른 15~19歲의 就業 人口構成이 크게 준 반면 高등학교 또는 大學校 졸업후 취업이 늘고 있는데 기인
- 한편 25~29세의 就業人口比重이 다소 減少하다가 30대 就業이 늘고 있는 이유는 結婚, 育兒問題로 勤勞를 포기하였다가 家庭生活이 안정됨에 따른 취업자가 늘고 있는데 기인함

< 圖 > 年齡別 女性就業者 推移



### 3. 專門技術・事務・서비스職 女性就業者 増加

#### 單純勞動職種에서 전문기술직 및 서비스업종으로 변화

○ 80년이후의 就業構造를 직업별로 보면

- 農林水産業 従事者數 비중은 80년에 39.0%(2,035천명)에서 93년에 16.9%(1,306천명)로 크게 감소하고 생산·운수직 종사자 비중이 21.0%에서 20.3%로 감소
- 專門・技術・行政・管理職 従事者 비중은 같은 기간중 3.6%에서 9.7%로, 사무관련종사자 비중은 7.9%에서 15.5%로, 판매종사자 비중은 16.5%에서 18.7%로, 서비스업종사자 비중은 12.0%에서 18.8%로 증가

○ 女性の 就業分野가 單純 勞動職種에서 전문·기술직 및 서비스업종으로 크게 변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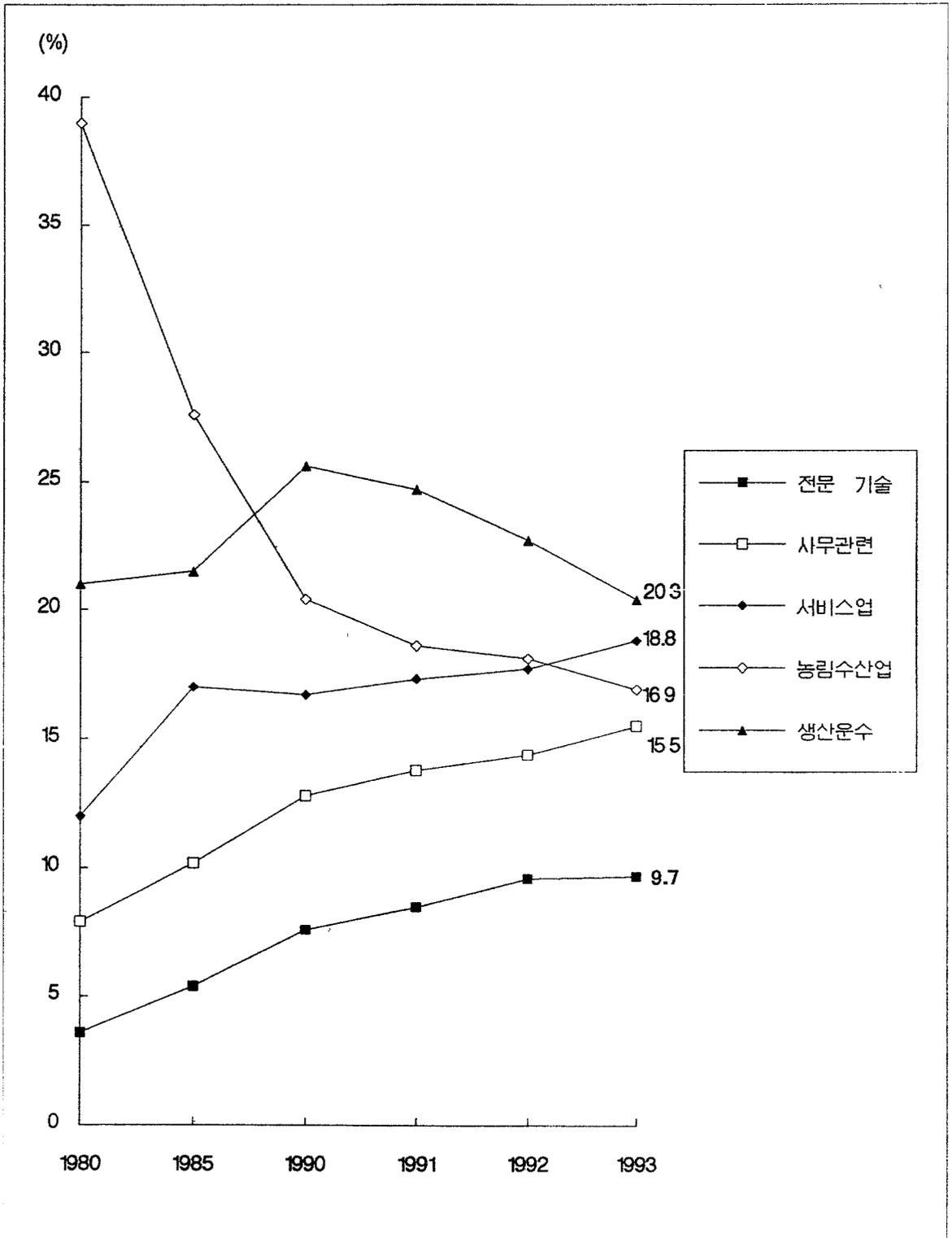
< 表 > 職業別 就業構造變化

(단위 : 千名, %)

	총 수	전문·기술 행정·관리	사무관련 종사자	판 매 종사자	서비스직 종사자	농림수산업 종사자	생산·운수 장비운전사
1980	5,222 (100)	186 (3.6)	415 (7.9)	867 (16.5)	626 (12.0)	2,035 (39.0)	1,095 (21.0)
1985	5,833 (100)	317 (5.4)	597 (10.2)	1,070 (18.3)	992 (17.0)	1,611 (27.6)	1,245 (21.3)
1990	7,341 (100)	564 (7.6)	936 (12.8)	1,243 (16.9)	1,223 (16.7)	1,494 (20.4)	1,882 (25.6)
1991	7,507 (100)	635 (8.5)	1,033 (13.8)	1,287 (17.1)	1,298 (17.3)	1,393 (18.6)	1,861 (24.8)
1992	7,609 (100)	731 (9.6)	1,099 (14.4)	1,330 (17.5)	1,345 (17.7)	1,380 (18.1)	1,724 (22.7)
1993	7,710 (100)	751 (9.7)	1,195 (15.5)	1,440 (18.7)	1,450 (18.8)	1,306 (16.9)	1,568 (20.3)

주· ( )은 구성비임.

< 圖 > 職業別 女性就業者 構成變化



## 女性の 専門職・事務職 就業構造 男子에 접근

- 女性の 職業別 就業構造를 남자와 비교해 보면 80년에는 専門技術職 및 事務職의 여성취업비율이 남자보다 훨씬 낮았으나 93년에는 남자의 취업구조에 크게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판매종사자는 여성이 여전이 높으나 생산관련직 종사자는 남자의 취업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表 > 男女間 職業別 就業構造 比較

(단위 : 千名, %)

	총 수	전문·기술 행정·관리	사무관련 종사자	판 매 종사자	서비스직 종사자	농림수산업 종사자	생산·운수 장비운전사
1980 남	8,462	546	853	1,117	453	2,613	2,880
	(100)	(6.4)	(10.1)	(13.2)	(5.4)	(30.9)	(34.0)
여	5,222	186	415	867	626	2,035	1,095
	(100)	(3.6)	(7.9)	(16.5)	(12.0)	(39.0)	(21.0)
1985 남	9,137	773	1,132	1,242	630	2,075	3,285
	(100)	(8.5)	(12.4)	(13.6)	(6.9)	(22.6)	(36.0)
여	5,833	317	567	1,070	992	1,611	1,245
	(100)	(5.4)	(10.2)	(18.3)	(17.0)	(27.6)	(21.3)
1990 남	10,695	1,005	1,400	1,373	785	1,776	4,356
	(100)	(9.6)	(13.0)	(12.8)	(7.3)	(16.6)	(40.7)
여	7,341	564	936	1,243	1,223	1,494	1,882
	(100)	(7.6)	(12.8)	(16.9)	(16.7)	(20.4)	(25.6)
1993 남	11,493	1,232	1,689	1,613	917	1,512	4,532
	(100)	(10.7)	(14.7)	(14.0)	(8.0)	(13.2)	(39.4)
여	7,710	751	1,195	1,440	1,450	1,306	1,568
	(100)	(9.7)	(15.5)	(18.7)	(18.8)	(16.9)	(20.3)

주 : ( )은 구성비임.

## 專門技術職 및 事務職 比率은 先進國보다 여전히 낮아

○ 職業別 女性就業構造를 外國과 比較하여 보면

- 전문직 및 사무직의 취업구조의 경우 우리나라가 25.2%, 일본이 41.0%, 미국이 58.8%, 캐나다가 63.5%로써 고급직업의 여성취업은 아직도 선진국 수준에는 크게 밀도는 것으로 평가되었음.
- 다만, 싱가포르(23.1%)보다는 높은 수준에 있음.

< 表 > 職業別 女性就業構造 國際比較表

(단위 : %)

	계	전문기술및 행정관리	사무직	판매직	농림직(어 업, 축산업)	생 산 관리직	서비스직 및 기타
한 국(1993)	100	9.7	15.5	18.7	16.9	20.3	18.8
일 본(1992)	100	12.6	28.4	14.1	7.1	25.8	12.0
싱가포르(1992)	100	9.0	14.1	27.1	0.1	35.7	14.0
캐 나 다(1992)	100	34.8	28.7	9.8	2.2	7.2	17.3
미 국(1992)	100	31.3	27.5	12.4	1.0	10.0	17.8
홍 콩(1992)	100	12.6	35.8	11.4	0.5	17.1	22.7

자료 : ILO「노동통계연감」 1993

## 産業別 女性就業構造 變化

○ 女性の 就業構造 變化를 産業別로 보면

- 농림어업 취업자 비중은 65년에 63.8%에서 93년에 17.0%로 대폭 감소되었으나
- 광공업취업자 비중은 같은 기간중 8.2%에서 23.0%,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 서비스업 취업자 비중은 28.0%에서 60.0%로 크게 증가하였음.

○ 한편 광공업취업자 비중이 지난 28년 기간 기준으로 볼 때는 증가하였으나 88년 (29.2%)을 고비로하여 89년부터 그 구성이 점차 감소하고 있음.

- 취업자수를 기준으로 볼때는 89년에 2,067천명에서 93년에 1,776천명으로 지난 4년간 14.1%(291천명) 감소

〈 表 〉 産業別 女性就業構造 推移

(단위 : %)

	65	75	85	88	90	91	92	93 <sup>1</sup>
農 林 漁 業	63.8	51.9	27.8	22.9	20.4	18.6	18.2	17.0
鑛 工 業	8.2	17.3	23.2	29.2	28.0	27.5	25.2	23.0
( 製 造 業 )	( - )	( - )	(23.2)	(29.0)	(27.9)	(27.4)	(25.1)	(23.0)
社 會 間 接 資 本 及 其 他 服 務 業	28.0	30.8	49.0	47.9	51.6	53.9	56.6	60.0
都 小 賣, 飲 食 · 宿 泊 業	-	-	30.0	27.8	28.3	28.8	29.4	31.8
建 設 業	-	-	1.1	1.4	1.8	2.1	2.2	2.1
金 融 · 保 險 · 運 輸 倉 庫	-	-	4.4	4.9	5.9	6.6	7.1	5.9
公 共 行 政 及 服 務 業	-	-	13.5	13.8	15.5	16.5	17.9	20.2
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주 : 1) 개정된 한국표준산업분류('91.9) 적용

## 非賃金勤勞者は 크게 줄고 賃金勤勞者は 크게 증가

○ 女性就業者를 從事上 地位別로 보면 고용주, 자영자 및 가족종사자는 크게 줄어든 반면 상용근로자 및 일용근로자는 큰 폭으로 증가하였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용주및자영업자 비중 : 65년 21.1% → 93년 18.9%</li> <li>· 가족종사자 비중 : 65년 57.9% → 93년 23.6%</li> <li>· 상용근로자 비중 : 65년 13.6% → 93년 47.2%</li> <li>· 일용근로자 비중 : 65년 7.4% → 93년 10.3%</li> </ul>	}	비임금근로자 :
		79.0% → 42.5%
	}	임금근로자 :
		21.0% → 57.5%

○ 특히 상용근로자는 같은 기간중 387천명에서 3,646천명으로 9.4배나 증가  
 - 이러한 현상은 과거 취업기회가 적어 주로 자영업 분야의 근로에 종사하였으나  
 - 고학력 여성의 증가와 더불어 다양한 직종의 취업증가, 사업체수의 급증에 따른 취업기회의 확대 등으로 임금근로자가 크게 증가한데에 기인함.

< 表 > 從事上 地位別 女性就業構造 推移

(단위 : 千名, %)

	1965	1975	1985	1990	1993
고용주 및 자영자	600 (21.1)	967 (22.7)	1,240 (21.3)	1,380 (18.8)	1,454 (18.9)
가족종사자	1,644 (57.9)	2,042 (47.9)	1,784 (30.6)	1,803 (24.6)	1,817 (23.6)
상용근로자	387 (13.6)	964 (22.6)	2,171 (37.2)	3,213 (43.8)	3,646 (47.2)
일용근로자	207 (7.4)	288 (6.8)	638 (10.9)	946 (12.8)	793 (10.3)
합 계	2,839 (100)	4,261 (100)	5,833 (100)	7,341 (100)	7,710 (100)

주 : ( )은 구성비임.

## 4. 高學歷女性 就業 活潑

### 高學歷 女性就業者 急增

○ 중졸이하 여성취업자는 '80년에 4,337천명에서 '93년에 3,973천명으로 지난 13년간 8.4% 감소

- 취업구성비는 같은 기간동안 83.0%에서 51.5%로 크게 감소

○ 고졸이상 고학력 여성취업자는 크게 증가

- 고졸취업자는 '80년에 14.5%에서 '90년에 37.2%로 증가(3.8배)

- 대졸이상취업자는 같은기간중 2.5%에서 11.3%로 증가(6.8배)

< 表 > 學歷別 女性 就業構造 變化

(단위 · 千名, %)

	1980	1985	1990	1991	1992	1993	배 수 (93/80)
중졸이하	4,337 (83.0)	4,169 (71.4)	4,453 (60.6)	4,363 (58.1)	4,226 (55.6)	3,973 (51.5)	0.9배
고 졸	756 (14.5)	1,379 (23.6)	2,282 (31.1)	2,462 (32.8)	2,600 (34.0)	2,865 (37.2)	3.8배
대졸이상	129 (2.5)	287 (4.9)	606 (8.3)	683 (9.1)	784 (10.3)	872 (11.3)	6.8배
합 계	5,222	5,833	7,341	7,507	7,609	7,710	

## 學歷別 女性失業構造

- 학력별 여성 실업구조를 보면 중졸이하의 실업자구성은 감소하였으며 고학력층은 증가하였는 바 이는 고학력여성인구 증가에 기인함.
  - 고졸여성실업자구성 : 80년 47.7%(91천명) → 93년 56.7%(101천명)
  - 대졸이상여성실업자구성 : 80년 6.8%(13천명) → 93년 25.3%(45천명)
  
- 고학력층의 여성실업률('93년기준)은 여성 전체 실업률수준에 비하여는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남자 고학력층보다 다소 높은 수준을 시현하였음
  - 고졸여성실업률 : 3.4% (남자 3.7%)
  - 대졸이상여성실업률 : 4.9% (남자 3.8%)
  - 여성실업률 : 2.3% (남자 3.1%)

< 表 > 學歷別 女性失業構造 推移

(단위 : 千名, %)

	1980	1985	1990	1991	1992	1993
- 중졸이하 (구성비) (실업률)	87 (45.5) (2.0)	38 (26.8) (0.9)	25 (18.8) (0.6)	27 (18.0) (0.6)	28 (17.4) (0.7)	32 (18.0) (0.8)
- 고졸 (구성비) (실업률)	91 (47.7) (10.7)	72 (50.7) (5.0)	74 (55.6) (3.1)	90 (60.0) (3.5)	94 (58.4) (3.5)	101 (56.7) (3.4)
- 대졸이상 (구성비) (실업률)	13 (6.8) (9.2)	32 (22.5) (10.0)	34 (25.6) (5.3)	33 (22.0) (4.6)	39 (24.2) (4.7)	45 (25.3) (4.9)
- 합계 (구성비) (실업률)	191 (100) (3.5)	142 (100) (2.4)	133 (100) (1.8)	150 (100) (2.0)	161 (100) (2.1)	178 (100) (2.3)

주 : ( )은 구성비임.

## 高學歷層 젊은 세대의 失業率 높아

- 여성 고학력층실업률이 전체평균보다 높은 이유는 20대의 젊은 실업률이 높는데 기인함
  - 대졸이상 : 20~24세 11.1%, 25~29세 3.0%
  - 고 졸 : 15~19세 8.6%, 20~24세 5.5%
  
- 젊은세대의 고학력층 실업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고학력자 공급증가에 따른 인력수급 불균형 현상에 기인한 것으로 풀이됨.
  
- 30대이상 실업률은 학력에 관계없이 매우 낮으며, 특히 60세이상 노령자는 취업 의사가 있는 자는 대부분 취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表 > '93年 學歷別·年齡別 女性 失業率

(단위 : 千名, %)

	전 체	중졸이하	고 졸	대졸이상
15~19세	9.9	15.8	8.6	...
20~24세	6.6	4.5	5.5	11.1
25~29세	2.4	1.7	2.1	3.0
30~59세	0.7	0.6	1.1	0.9
60세이상	0.1	0.1	0.0	0.0
합 계	2.3	0.8	3.4	4.9

## 5. 週當 就業時間은 남자보다 적음

○ 지난 13年 동안 女性의 就業時間은 다소 감소

○ 女性의 週當 平均 就業時間은 50.0時間으로 男子의 54.2時間 보다 낮게 나타남.

< 表 > 週當 就業時間 推移

(단위 : 時間)

	80	85	90	91	92	93
男 子	55.0	56.2	55.3	54.9	54.1	54.2
女 子	52.2	53.5	51.4	50.7	49.8	50.0
平 均	53.9	55.1	53.7	53.2	52.3	52.6

○ 주간 취업 시간대별 여성 취업구조를 보면 36~53시간 취업자수 비중이 크게 증가된 반면 54시간 이상 취업자수 비중은 다소 감소하였음.

< 表 > 週當 就業時間別 女性 就業構造

(단위 : 千名, %)

	1980	1985	1990	1991	1992	1993
18시간미만	33 (0.6)	46 (0.8)	109 (1.5)	131 (1.7)	159 (2.1)	149 (1.9)
18 ~ 26	293 (5.6)	222 (3.8)	270 (3.7)	275 (3.7)	301 (4.0)	297 (3.9)
27 ~ 35	407 (7.8)	316 (5.4)	345 (4.7)	358 (4.8)	342 (4.5)	331 (4.3)
36 ~ 44	1,081 (20.7)	1,213 (20.8)	1,519 (20.7)	1,600 (21.3)	1,655 (21.8)	1,673 (21.2)
45 ~ 53	1,044 (20.0)	1,213 (20.8)	1,815 (24.7)	1,927 (25.7)	2,074 (27.3)	2,153 (27.9)
54시간이상	2,355 (45.1)	2,805 (48.1)	3,244 (44.2)	3,169 (42.2)	3,017 (39.6)	3,053 (39.6)
일시휴직자	10 (0.2)	17 (0.3)	40 (0.5)	46 (0.6)	62 (0.8)	55 (0.7)
합 계	5,222 (100.0)	5,833 (100.0)	7,341 (100.0)	7,507 (100.0)	7,609 (100.0)	7,710 (100.0)

주 : ( )은 구성비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503 -

## 外國 女性보다 우리나라 女性の 勤勞時間이 길어

- 제조업 부문에서 종사하고 있는 女性の 適當 勤勞時間을 外國과 比較하여 보면 우리나라가 48.4時間으로 주요선진국보다 많았음.
- 日本이 37.9시간, 英國이 40.2시간, 스페인이 34.5시간, 홍콩이 40.3時間으로 우리나라 女性보다 일을 적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한편 美國은 男·女 平均 41.0時間, 프랑스는 38.8時間 임.

< 表 > 適當 勤勞時間(製造業)의 國際 比較

(單位 : 時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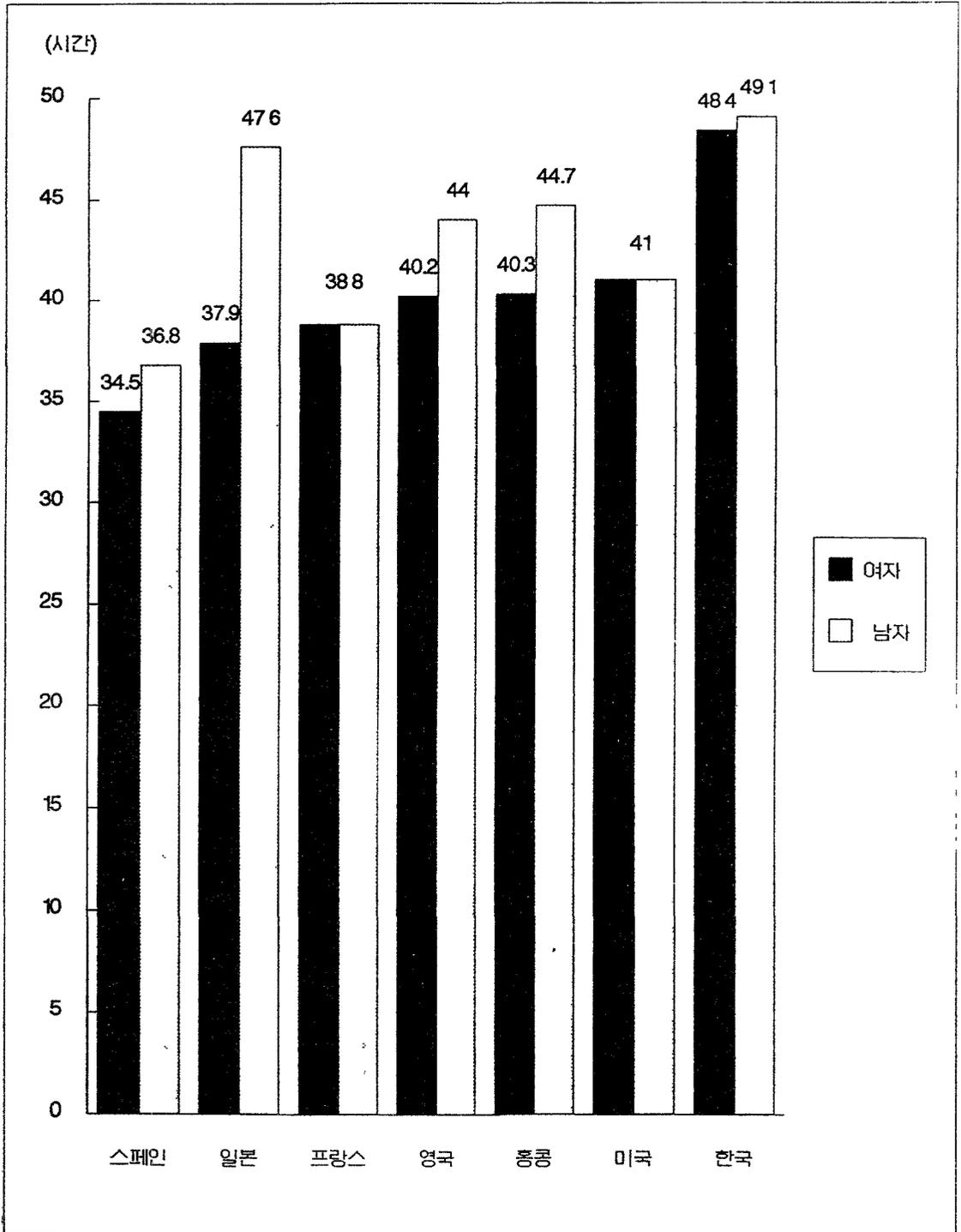
國 名	年 度	男 子	女 子
韓 國 <sup>1</sup>	1993	49.1	48.4
日 本	1992	47.6	37.9
홍 콩	1992	44.7	40.3
美 國 <sup>2</sup>	1992	41.0	41.0
스 페 인	1992	36.8	34.5
英 國	1992	44.0	40.2
프 랑 스 <sup>2</sup>	1992	38.8	38.8

자료 : I·L·O「노동통계연감」 1993

주 : 1) 매월노동통계조사결과(노동부, 1993)

2) 남·여 평균

< 圖 > 女性 週當 勤勞時間(製造業) 國際比較



**여 백**

## 〈 附 錄 〉 主 要 統 計 表

여 백

# 1. 經濟活動人口 現況

(단위 천명, %)

	15세이상 인 구	경제활동 인 구	비 경제 활동인구				
			취업자	취업률	실업자	실업률	
1965 총 수	15,367	8,754	8,112	92.7	642	7.3	6,613
남 자	7,293	5,752	5,273	91.7	479	8.3	1,541
여 자	8,075	3,002	2,839	94.6	163	5.4	5,073
1970 총 수	17,468	10,062	9,617	95.6	445	4.4	7,407
남 자	8,274	6,447	6,104	94.7	343	5.3	1,828
여 자	9,194	3,615	3,513	97.2	102	2.8	5,579
1975 총 수	20,918	12,193	11,692	95.9	501	4.1	8,726
남 자	10,107	7,822	7,431	95.0	391	5.0	2,286
여 자	10,811	4,371	4,261	97.5	110	2.5	6,440
1980 총 수	24,463	14,431	13,683	94.8	748	5.2	10,032
남 자	11,804	9,019	8,462	93.8	558	6.2	2,785
여 자	12,659	5,412	5,222	96.5	190	3.5	7,247
1985 총 수	27,553	15,592	14,970	96.0	622	4.0	11,961
남 자	13,295	9,617	9,137	95.0	480	5.0	3,678
여 자	14,258	5,975	5,833	97.6	141	2.4	8,283
1990 총 수	30,801	18,487	18,036	97.6	451	2.4	12,314
남 자	14,903	11,013	10,695	97.1	318	2.9	3,891
여 자	15,897	7,474	7,341	98.2	133	1.8	8,423
1991 총 수	31,367	19,012	18,576	97.7	436	2.3	12,355
남 자	15,194	11,355	11,068	97.5	287	2.5	3,839
여 자	16,173	7,657	7,508	98.0	150	2.0	8,516
1992 총 수	31,851	19,385	18,921	97.6	463	2.4	12,466
남 자	15,415	11,615	11,312	97.4	303	2.6	3,800
여 자	16,437	7,770	7,609	97.9	161	2.1	8,667
1993 총 수	32,361	19,754	19,203	97.2	551	2.8	12,607
남 자	15,664	11,867	11,493	96.8	373	3.1	3,797
여 자	16,697	7,887	7,710	97.7	178	2.3	8,810

## 2. 男女 經濟活動 參加率 推移

(單位 . 千名)

	男 子			女 子		
	15세이상인구	경제활동인구	참 가 율	15세이상인구	경제활동인구	참 가 율
1965	7,293	5,752	78.9	8,075	3,002	37.2
1970	8,274	6,447	77.9	9,194	3,615	39.3
1975	10,107	7,822	77.4	10,811	4,371	40.4
1980	11,804	9,019	76.4	12,659	5,412	42.8
1985	13,295	9,617	72.3	14,258	5,975	41.9
1990	14,903	11,013	73.9	15,897	7,474	47.0
1991	15,194	11,355	74.7	16,173	7,657	47.3
1992	15,415	11,615	75.3	16,437	7,770	47.3
1993	15,664	11,867	75.8	16,697	7,887	47.2

### 3. 年齡別 女性의 經濟活動 參加率 變化

(단위 千名, %)

	총 수	15~19	20~24	25~29	30~34	35~39	40~44	45~49	50~54	55~59	60이상
<b>&lt; 1980 &gt;</b>											
A 15세이상인구	12,659	1,847	1,826	1,472	1,256	1,159	1,127	1,029	772	652	1,520
B 경제활동인구	5,412	635	977	471	512	615	639	590	416	301	257
C 경제활동참가율(B/A)	42.8	34.4	53.5	32.0	40.8	53.1	56.7	57.3	53.9	46.2	16.9
D 취 업 자	5,222	559	906	461	503	606	632	584	413	300	257
( D / B )	(96.5)	(88.0)	(92.7)	(97.9)	(98.2)	(98.5)	(98.9)	(99.0)	(99.3)	(99.7)	(100.0)
E 실 업 자	190	76	71	10	9	9	6	5	3	2	-
( E / B )	(3.5)	(12.0)	(7.3)	(2.1)	(1.8)	(1.5)	(0.9)	(0.8)	(0.7)	(0.7)	(0.0)
<b>&lt; 1985 &gt;</b>											
A 15세이상인구	14,258	1,891	1,868	2,011	1,480	1,296	1,132	1,094	933	748	1,805
B 경제활동인구	5,975	399	1,029	721	646	685	659	648	489	353	347
C 경제활동참가율(B/A)	41.9	21.1	55.1	35.9	43.6	52.9	58.2	59.2	52.4	47.2	19.2
D 취 업 자	5,833	359	963	710	639	677	653	645	488	352	347
( D / B )	(97.6)	(90.1)	(93.6)	(98.5)	(98.9)	(98.8)	(99.1)	(99.5)	(99.8)	(99.7)	(100.0)
E 실 업 자	141	40	65	11	7	7	6	3	1	1	-
( E / B )	(2.4)	(10.0)	(6.3)	(1.5)	(1.1)	(1.0)	(0.9)	(0.5)	(0.2)	(0.3)	(0.0)
<b>&lt; 1990 &gt;</b>											
A 15세이상인구	15,897	2,091	1,931	1,940	1,867	1,444	1,328	1,139	1,093	882	2,183
B 경제활동인구	7,474	389	1,246	830	926	838	804	728	656	480	578
C 경제활동참가율(B/A)	47.0	18.6	64.5	42.8	49.6	58.0	60.5	63.9	60.0	54.4	26.5
D 취 업 자	7,341	355	1,190	814	917	831	799	724	654	479	577
( D / B )	(98.2)	(91.3)	(95.5)	(98.1)	(99.0)	(99.2)	(99.4)	(99.5)	(99.7)	(99.8)	(99.8)
E 실 업 자	133	34	56	16	9	7	5	3	2	1	1
( E / B )	(1.8)	(8.7)	(4.5)	(1.9)	(1.0)	(0.8)	(0.6)	(0.4)	(0.3)	(0.2)	(0.2)
<b>&lt; 1993 &gt;</b>											
A 15세이상인구	16,697	1,860	2,117	1,936	2,067	1,775	1,304	1,143	1,112	965	2,419
B 경제활동인구	7,887	311	1,369	868	985	1,052	816	691	638	513	645
C 경제활동참가율(B/A)	47.2	16.7	64.7	44.8	47.7	59.3	50.9	60.5	57.4	53.2	26.7
D 취 업 자	7,710	280	1,278	848	975	1,042	811	686	635	511	645
( D / B )	(97.8)	(90.0)	(93.3)	(97.7)	(99.0)	(99.0)	(99.4)	(99.3)	(99.5)	(99.6)	(100.0)
E 실 업 자	178	31	91	20	10	9	5	5	3	2	1
( E / B )	(2.3)	(10.0)	(6.6)	(2.3)	(1.0)	(0.9)	(0.6)	(0.7)	(0.5)	(0.4)	(0.2)

#### 4. 非經濟活動人口 推移

(단위 . 千名, %)

		비경제활동	가 사	통 학	연소연로	심신장애
1965	남	1,541	224	528	367	79
	여	5,073	4,060	236	630	32
1970	남	1,828	373	835	396	67
	여	5,579	4,233	545	705	22
1975	남	2,286	329	1,328	424	84
	여	6,440	4,698	841	788	29
1980	남	2,785	276	1,725	521	143
	여	7,247	5,134	1,148	877	42
1985	남	3,678	393	2,280	563	142
	여	8,283	5,715	1,645	783	42
1990	남	3,891	487	2,440	491	114
	여	8,423	5,632	1,917	689	55
1991	남	3,839	479	2,404	486	106
	여	8,516	5,735	1,942	662	49
1992	남	3,800	462	2,352	481	106
	여	8,667	5,877	1,917	661	55
1993	남	3,797	453	2,276	509	135
	여	8,810	6,031	1,842	738	60

## 5. 男女 就業者 構成變化

(單位 千名, %)

	총 수		남 자		여 자	
	취업자수	구 성 비	취업자수	구 성 비	취업자수	구 성 비
1965	8,112	100.0	5,273	65.0	2,839	35.0
1970	9,617	100.0	6,104	63.5	3,513	36.5
1975	11,692	100.0	7,431	63.6	4,261	36.4
1980	13,683	100.0	8,462	61.8	5,222	38.2
1985	14,970	100.0	9,137	61.0	5,833	39.0
1990	18,036	100.0	10,695	59.3	7,341	40.7
1991	18,576	100.0	11,068	59.6	7,508	40.4
1992	18,921	100.0	11,312	59.8	7,609	40.2
1993	19,203	100.0	11,493	59.9	7,710	40.1

## 6. 年齡別 男女 就業人口 比較

(단위 : 千名)

	15~19	20~24	25~29	30~39	40~49	50~59	60세이상
전 체	1,075	920	1,131	2,032	1,664	969	321
1965 남 자	622	527	801	1,365	1,080	653	225
여 자	453	393	330	667	584	316	96
전 체	1,287	977	1,074	2,645	2,063	1,133	438
1970 남 자	668	492	742	1,813	1,354	745	290
여 자	619	485	332	832	709	388	148
전 체	1,388	1,309	1,407	3,061	2,396	1,533	598
1975 남 자	693	681	1,051	2,141	1,511	967	387
여 자	695	628	356	920	885	566	211
전 체	1,035	1,770	1,742	3,468	3,188	1,766	715
1980 남 자	476	864	1,281	2,359	1,971	1,053	458
여 자	559	906	461	1,109	1,216	713	257
전 체	634	1,688	2,380	3,990	3,366	2,034	879
1985 남 자	276	724	1,670	2,674	2,068	1,194	532
여 자	359	963	710	1,316	1,298	840	347
전 체	575	1,870	2,535	5,031	3,904	2,833	1,289
1990 남 자	220	681	1,720	3,283	2,381	1,700	711
여 자	355	1,190	814	1,748	1,523	1,133	577
전 체	455	1,993	2,552	5,862	3,933	2,917	1,490
1993 남 자	175	716	1,704	3,844	2,436	1,772	846
여 자	280	1,278	848	2,017	1,497	1,146	6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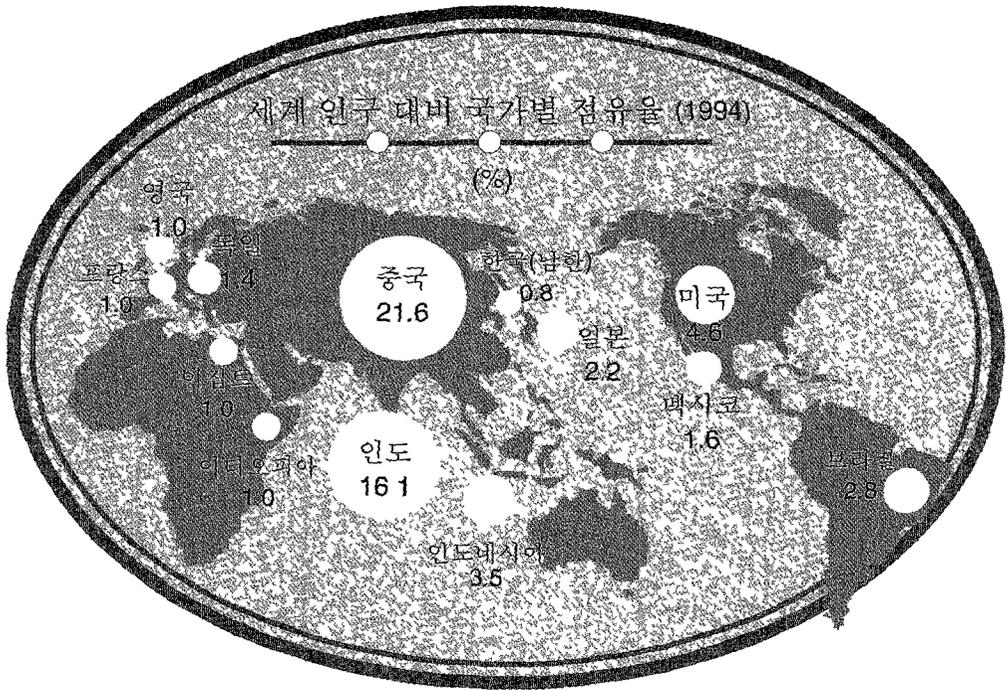
## 7. 婚姻狀態別 女性就業者數

(단위 : 千名, %)

	가 구 주				비 가 구 주			
	미 혼	유배우	사 별	이 혼	미 혼	유배우	사 별	이 혼
1980	206 ( 3.9)	158 ( 3.0)	437 ( 8.4)	54 ( 1.0)	1 258 (24.1)	2 921 (55.9)	171 ( 3.3)	18 ( 0.3)
1985	345 ( 5.9)	253 ( 4.3)	493 ( 8.5)	69 ( 1.2)	1 126 (19.3)	3 347 (57.4)	185 ( 3.2)	17 ( 0.3)
1990	493 ( 6.7)	425 ( 5.8)	594 ( 8.1)	109 ( 1.5)	1 307 (17.8)	4 180 (56.9)	213 ( 2.9)	21 ( 0.3)
1991	496 ( 6.6)	453 ( 6.0)	607 ( 8.1)	122 ( 1.6)	1 397 (18.6)	4 210 (56.1)	204 ( 2.7)	19 ( 0.3)
1992	492 ( 6.5)	478 ( 6.3)	620 ( 8.1)	132 ( 1.7)	1 399 (18.4)	4 276 (56.2)	194 ( 2.6)	19 ( 0.2)
1993	494 ( 6.4)	433 ( 5.6)	583 ( 7.6)	125 ( 1.6)	1 461 (19.0)	4 374 (56.7)	222 ( 2.9)	18 ( 0.2)

**여 백**

# 한국 및 세계 인구 현황



「1994 7.1 현재 중국 인구가 전세계 인구의 21.6%를 차지하고 있고, 우리나라 인구수는 세계 25위이며, 남북한을 합할 경우 세계 15위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자료중에서 -

7월 11일은 세계 인구의 날

# 한국 및 세계 인구 현황

1994. 7

— < 세계 인구의 날 > —

- 인류가 인구에 관련된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노력을 전개할 것을 촉구하고자 유엔은 지난 1987년 7월 11일자로 세계 인구가 50억명을 돌파한 날을 기하여 7월 11일을 “세계 인구의 날(World Population Day)” 로 선포한 바 있습니다.
- 따라서 이 자료는 세계 인구의 날을 앞두고 인구문제의 중요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우리나라와 세계 인구현황에 관한 자료를 작성한 것입니다
- 이 자료의 많은 활용을 바랍니다. 내용에 관한 문의사항은 통계청 인구통계과(전화 222-1862, 222-1863)로 하시기 바랍니다.

통계조사국 인구통계과

## □ 작성의의

- 인구는 모든 사회·경제생활의 주체로서 인구규모 또는 속성의 변화는 사회, 경제를 비롯한 정치, 환경, 문화등 인간생활 전영역에 중요한 영향을 미침
- 인구변화에서 비롯되는 문제점은 시대와 장소에 따라 달라,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에서는 인구의 양적문제가, 선진국과 일부 개발도상국에서는 교육, 환경, 보건등 인구의 질적 문제가 주요 관심사로 대두됨.
- 우리나라는 과거 전통적 대가족 제도하에서 다자녀선호 및 남아선호에 의한 과출산 경향과 6 25동란후 「베이비붐(baby-boom)」 영향으로 인구의 양적성장이 경제성장을 압도하여 빈곤의 원인이 되었음
- 그러나 1960년이래 경제개발과 가족계획의 성공으로 저출산 경향이 확산, 1980년 중엽에는 두자녀 이하의 출산수준에 도달하였음 이와 더불어 사망율도 꾸준히 감소하여 이른바 저출생 저사망의 「인구학적 후기 균형상태」에 도달하는 인구변천을 경험함
- 인구변천결과 인구정책도 종래 양적문제에서 인구분포, 교육, 고령화, 후생, 보건등 질적문제로의 전환이 당면과제임
- 동 자료는 세계 및 우리나라의 인구현황과 우리나라의 당면 인구정책과제로 대두되는 인구현상을 요약한 것임

# I. 우리나라와 세계의 인구현황

## 1. 인구규모

### ○ 인구규모의 추이

- 세계인구는 1994 7 1 현재 56억7천만명으로, 이중 21.8%(12억4천만명)가 선진국 78.2%(44억3천만명)가 개도국에 살고 있음
- 대륙별로 보면, 아시아가 59.1%인 33억5천만명으로 가장 많고, 그밖에 아프리카(12.8%), 유럽(9.1%), 남미(8.4%), 북미(5.1%), 오세아니아(0.5%) 순임
- 우리나라 인구는 4,445만명으로 전세계 인구의 0.8%를 차지함

(단위 백만명, %)

	1955	1965	1975	1985	1990	1993	1994
<b>세 계</b>	2 752 (100.0)	3 336 (100.0)	4 078 (100.0)	4 855 (100.0)	5 295 (100.0)	5 572 (100.0)	5 666 (100.0)
<b>선진국</b>	888 (32.3)	1 003 (30.1)	1 095 (26.9)	1 173 (24.2)	1 211 (22.9)	1 231 (22.1)	1 238 (21.8)
<b>개도국</b>	1 864 (67.7)	2 333 (69.9)	2 983 (73.1)	3 682 (75.8)	4 084 (77.1)	4 341 (77.9)	4 428 (78.2)
<b>아 시 아</b>	1 514 (55.0)	1 861 (55.8)	2 355 (57.7)	2 842 (58.5)	3 118 (58.9)	3 291 (59.1)	3 349 (59.1)
아프리카	249 (9.0)	318 (9.5)	415 (10.2)	555 (11.4)	643 (12.1)	702 (12.6)	723 (12.8)
남 미	189 (6.9)	249 (7.5)	320 (7.8)	400 (8.2)	441 (8.3)	466 (8.4)	474 (8.4)
북 미	182 (6.6)	214 (6.4)	239 (5.9)	264 (5.4)	277 (5.2)	286 (5.1)	289 (5.1)
유 럽	414 (15.0)	452 (13.5)	481 (11.8)	500 (10.3)	509 (9.6)	513 (9.2)	515 (9.1)
오세아니아	14 (0.5)	18 (0.5)	21 (0.5)	25 (0.5)	27 (0.5)	28 (0.5)	28 (0.5)
구 소 련	190 (6.9)	224 (6.7)	247 (6.1)	270 (5.6)	281 (5.3)	286 (5.1)	287 (5.1)
<b>한 국</b>	21.5 (0.78)	28.7 (0.86)	35.2 (0.86)	40.8 (0.84)	42.9 (0.81)	44.1 (0.79)	44.5 (0.79)

자료 · UN, 1992 세계인구전망, 1993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1991

o 인구규모의 국가순위

- 1994 7.1 현재 중국인구가 전세계 인구의 21.6%를 차지함. 중국, 인도, 미국, 인도네시아, 브라질, 러시아등 6개국 인구가 전세계 인구의 절반이상을 차지함
- 인구규모 순위가 높은 30개국 인구가 전세계 인구의 80%를 차지함
-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25번째로 인구가 많은 나라임
- 남·북한인구를 합할경우 15번째(67백만명)로 인구가 많음 (단위 백만명, %)

순위	1994				1985			
	국가	인구	세계인구 대비(%)	세계인구 대비누적비	국가	인구	세계인구 대비(%)	세계인구 대비누적비
1	중국	1 222	21.6	21.6	중국	1 071	22.1	22.1
2	인도	914	16.1	37.7	인도	767	15.8	37.9
3	미국	261	4.6	42.3	미국	238	4.9	42.8
4	인도네시아	198	3.5	45.8	인도네시아	167	3.4	46.2
5	브라질	159	2.8	48.6	러시아	144	3.0	49.2
6	러시아	149	2.6	51.2	브라질	136	2.8	52.0
7	파키스탄	131	2.3	53.5	일본	121	2.5	54.5
8	일본	125	2.2	55.7	방글라데시	101	2.1	56.6
9	방글라데시	125	2.2	57.9	파키스탄	101	2.1	58.7
10	나이지리아	123	2.2	60.1	나이지리아	92	1.9	60.6
11	멕시코	92	1.6	61.7	독일	78	1.6	63.4
12	독일	81	1.4	63.1	멕시코	76	1.6	65.0
13	베트남	72	1.3	64.4	베트남	60	1.2	61.8
14	필리핀	68	1.2	65.6	이태리	57	1.2	66.2
15	이태리	65	1.1	66.7	영국	57	1.2	67.4
16	터키	61	1.1	67.8	필리핀	55	1.1	68.5
17	영국	58	1.0	68.8	프랑스	55	1.1	69.6
18	이태리	58	1.0	69.8	태국	51	1.1	70.8
19	태국	58	1.0	70.8	우크라이나	51	1.1	71.8
20	프랑스	58	1.0	71.8	터키	50	1.0	72.8
21	이집트	57	1.0	72.8	이란	49	1.0	73.8
22	이디오피아	56	1.0	73.8	이집트	47	1.0	74.8
23	우크라이나	52	0.9	74.7	이디오피아	43	0.9	75.7
24	미얀마	46	0.8	75.5	한국	41	0.8	76.5
25	한국	44	0.8	76.3	스페인	38	0.8	77.3
26	자이레	42	0.7	77.0	미얀마	38	0.8	78.1
27	남아공	42	0.7	77.7	폴란드	37	0.8	78.9
28	스페인	39	0.7	78.4	남아공	34	0.7	79.6
29	폴란드	39	0.7	79.1	자이레	32	0.7	80.3
30	콜롬비아	35	0.6	79.7	콜롬비아	29	0.6	80.9

자료 UN, 1992 세계인구전망, 1993

주 · 남·북한인구(1994)는 67백만명으로 세계 15위에 해당됨

## 2 인구규모 변동

### o 연간 증가인구

- 지난 1년간('93-'94) 세계인구는 9 400만명이 증가함
  - 선진국은 700만명이 증가한데 그친 반면, 개도국은 8 700만명이 증가하여 전세계 인구 증가에 절대적(92.6%)으로 기여함.
  - 대륙별로는 아시아 인구가 5 800만명으로 전세계 증가인구의 61.7%를 차지하였으며, 이외 아프리카(22.3%), 남미(8.5%), 북미(3.2%), 유럽(2.1%) 순임
  - 선진국의 인구증가세는 계속 둔화되고 있는 반면, 개도국은 보다 큰폭으로 증가함
- 한국은 지난 1년간 약 40만명이 증가하여, 전세계 증가인구의 0.4%, 그리고 아시아 증가인구의 0.7%를 차지함.

### 연간 증가인구의 추이

(단위 · 백만명, %)

	55-65		65-75		75-85		85-93		93-94	
	연평균	%								
세 계	58.4	100.0	74.2	100.0	77.7	100.0	89.6	100.0	94	100.0
선진국	11.5	19.7	9.2	12.4	7.8	10.0	7.2	8.0	7	7.4
개도국	46.9	80.3	65.0	87.6	69.9	90.0	82.4	92.0	87	92.6
아 시 아	34.7	59.4	49.4	66.6	48.7	62.7	56.1	62.6	58	61.7
아프리카	6.9	11.8	9.7	13.1	14.0	18.0	18.4	20.5	21	22.3
남 미	6.0	10.3	7.1	9.6	8.0	10.3	8.3	9.3	8	8.5
북 미	3.2	5.5	2.5	3.3	2.5	3.2	2.8	3.1	3	3.2
유 럽	3.8	6.5	2.9	3.9	1.9	2.4	1.6	1.8	2	2.1
오세아니아	0.4	0.7	0.3	0.4	0.4	0.5	0.4	0.4	0.4	0.4
구 소 련	3.4	5.8	2.3	3.1	2.3	3.0	2.0	2.2	1	1.1
한 국	0.72	1.2	0.65	0.7	0.56	0.7	0.41	0.5	0.40	0.4

자료 · UN, 1992 세계인구전망, 1993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1991

○ 년, 일, 시간, 분, 초당 증가인구

- 전세계 인구는 지난 1년동안 1일평균 26만명, 1시간당 10 671명, 1분당 178명 그리고 1초당 3.0명이 증가함.

- 우리나라에서는 1일평균 1 088명, 1시간당 45명 그리고 1분당 0 8명이 증가함

(단위 : 명)

	세 계	선진국	개도국	한 국
연간 증가인구	93 475 000	6 436 000	87 038 000	397 092
일간 증가인구	256 096	17 633	238 460	1 088
시간당 증가인구	10 671	735	9 936	45
분당 증가인구	178	12	166	0.8
초당 증가인구	3 0	0.2	2 8	0.01

### 3. 인구밀도

- 1994년 세계인구밀도는 41명/km<sup>2</sup>임.
  - 개도국은 56명/km<sup>2</sup>로 선진국(21명/km<sup>2</sup>)보다 밀집되어 있음
  - 대륙별로 보면 아시아(122명/km<sup>2</sup>), 유럽(95명/km<sup>2</sup>), 아프리카(24명/km<sup>2</sup>), 남미(23명/km<sup>2</sup>)등 순임
- 면적과 인구분포를 비교하여 보면 아시아 면적이 세계의 19.9%인 반면, 인구는 59.1%로 면적에 비해 인구가 3배임
- 우리나라는 세계면적의 0.07%, 세계인구의 0.8%로 면적에 비해 11.4배의 인구가 과밀집되어 있음.

	인 구		면 적		인구밀도 (명/km <sup>2</sup> )	상대비율 (A/B)
	백만명	%(A)	백만km <sup>2</sup>	%(B)		
세 계	5 666	100.0	137.9	100.0	41	1.00
선진국	1 238	21.8	59.0	42.8	21	0.51
개도국	4 428	78.2	78.9	57.2	56	1.35
아 시 아	3 349	59.1	27.5	19.9	122	2.97
아프리카	723	12.8	29.8	21.6	24	0.59
남 미	474	8.4	21.0	15.2	23	0.55
북 미	289	5.1	22.4	16.2	13	0.31
유 럽	515	9.1	5.4	3.9	95	2.33
오세아니아	28	0.5	9.6	7.0	3	0.07
구 소 련	287	5.1	22.2	16.1	13	0.32
한 국	44.5	0.8	0.01	0.07	449	11.43

자료 : · UN, 1992 세계인구전망, 1993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1991

- 인구밀도의 국가순위(1994)

순위	국 가	인구밀도(명/km <sup>2</sup> )	비 고
	홍 콩	5 637	도시국가
	싱 가 폴	4 573	도시국가
1	방글라데시	870	
	바 레 인	830	소규모 국가
	말 디 브	809	소규모 국가
	바바도스	606	소규모 국가
2	대 만	576 <sup>1)</sup> )	1992년 자료
	마루티우스	554	소규모 국가
3	한 국	449	
	푸에르토리코	411	소규모 국가
4	네덜란드	376	
	마티니크	339	소규모 국가
5	일 본	332	
6	벨 지 움	329	
7	르 완 다	306	
	코모로스	292	소규모 국가
8	레 바논	285	
9	인 도	278	
10	스리랑카	277	

자료 : · UN, 1992 세계인구전망, 1993  
 · <sup>1)</sup> 대만 주계청, 1993 대만 통계연보, 1993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1991

주 · · 순위는 도시국가 및 소규모 인구국가(인구 백만명 미만)를 제외한 순위임  
 · 북한의 인구밀도는 194명/km<sup>2</sup>로 세계 19위에 해당됨.  
 · 남·북한의 인구밀도는 309명/km<sup>2</sup>로 세계 6위에 해당됨.

## II. 우리나라의 당면 인구문제

### 1. 수도권 인구집중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인구는 '65년 총인구의 23.2%에서 '94년 45.3%로 증가하여 총인구의 과반수 정도가 수도권에 밀집됨 그리고 6대도시 인구비중도 동기간중 26.0%에서 47.8%로 급격히 높아짐.
- '65~'94년간 전국 증가인구의 85.5%를 수도권이 차지하고 있으며, 6대도시는 87.5%를 차지함 6대도시와 경기도가 전국 증가인구의 118.0%로 나타나 농촌으로부터 인구가 동지역으로 대량유입하였음을 나타냄
- 도시지역 특히 수도권 및 대도시로의 인구과집적은 60년 및 70년대에 값싼 노동력 제공등 경제발전에 순기능을 함 그러나 지나친 인구집적은 도시과밀문제(주택부족등)의 사회·경제적 병리현상을 발생케하여 균형적 국가발전에 역기능 초래
- 과밀집지역의 인구분산책과 과유출지역의 인구 재흡입을 위한 효율적 대책 필요

(단위 천명, %)

	1965		1975		1985		1994		1965~94	
	인구	%	인구	%	인구	%	인구	%	증가	%
전국	28 705	100.0	35 281	100.0	40 806	100.0	44 453	100.0	15 748	100.0
<sup>1)</sup> 수도권	6 652	23.2	11 110	31.5	15 960	39.1	20 124	45.3	13 472	85.5
6대도시	7 470	26.0	13 258	37.6	18 765	46.0	21 254	47.8	13 784	87.5
서울	3 627	12.6	7 004	19.9	9 724	23.8	10 727	24.1	7 100	45.1
부산	1 474	5.1	2 563	7.3	3 565	8.7	3 796	8.5	2 322	14.7
대구	896	3.1	1 453	4.1	2 048	5.0	2 247	5.1	1 351	8.6
인천	536	1.9	838	2.4	1 425	3.5	2 117	4.8	1 581	10.0
광주	515	1.8	750	2.1	1 052	2.6	1 214	2.7	699	4.4
대전	422	1.5	650	1.8	951	2.3	1 153	2.6	731	4.6
경기	2 489	8.7	3 268	9.3	4 811	11.8	7 280	16.4	4 791	30.4
6대도시+경기	9 959	34.7	16 526	46.8	23 576	57.8	28 534	64.2	18 575	118.0

자료 : 통계청, 1960~2000 시도별 인구추계, 1994

주 : <sup>1)</sup> 수도권은 서울, 인천, 경기의 합계임

## 2. 출생성비 불균형

- '82년 우리나라 출생성비는 106.8로 자연적 출생성비(105)수준임 그러나 저출산 현상이 지속되면서, 1명 또는 2명의 자녀중 반드시 남아가 있어야 한다는 강한 남아선호사상으로 출생성비는 계속 높아져 '92년에는 114.0으로 나타남
- 그 결과 '82년 남아가 여아보다 28천명이 더 태어났던것이 '92년에는 47천명이 더 태어났음

(단위 여아 100명당 남아수, 명)

	1982	1983	1985	1989	1991	1992
출생 성비 (남아-여아)	106.8 (27 934)	107.4 (27 355)	109.5 (29 674)	112.0 (35 889)	112.7 (41 875)	114.0 (46 589)

자료 통계청, 인구동태 통계연보, 1992

- 출산순위가 높을수록 성비가 높음 '92년 첫번째 아이의 출생인 경우 출생성비는 106.4수준이나 세번째 아이인 경우 195.7, 네번째 이상인 경우 228.6으로 크게 높아짐
- 최근 자녀를 적게 됨에 따라 이전 출생아들이 여아인 경우 반드시 남아를 낳아야 한다는 강한 남아선호사상의 영향임.

### 출산순위별 출생성비

(단위 여아 100명당 남아수, 명)

	1982	1983	1985	1989	1991	1992
계	106.8	107.4	109.5	112.0	112.7	114.0
1 아	105.4	105.8	106.0	104.2	106.0	106.4
2 아	106.0	106.2	107.8	112.6	112.6	112.8
3 아	109.2	111.8	129.1	183.9	182.8	195.7
4 아+	113.6	120.0	146.9	204.2	204.7	228.6

자료 : 통계청, 인구동태 통계연보, 1992

- 출생성비의 불균형은 남녀간 인구구조 특히 남녀 결혼적령인구의 불균형 문제를 초래하게됨.
- 남아선호사상 불식을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
  - 성감별에 의한 불법낙태 근절등을 위한 조치
  - 남아선호사상의 불식을 위해 남녀차별 사회관행에 대한 제도적 보완, 여성의 고용기회 확대 및 평등 대우, 여성 전문인력 양성등의 개선책 확충·강화

### 3. 연령구조의 변화

#### 가 인구의 고령화

- 저연령층 인구감소와 고연령층 인구증가
  - 출산력의 지속적인 감소로 저연령층인구(0~14세)는 줄어드는 반면, 저사망율로 노인인구(65세이상)는 증가세임.
  - 65세이상 인구는 '65년 881천명에서 '94년 2 450천명으로 30년간 1 569천명 (178.1%)이 증가하여 총인구 증가율 54.9%를 크게 상회함

(단위 천명, %)

	1965	1975	1985	1990	1994	1965~94
총 인 구	28 705	35 281	40 806	42 869	44 453	15 748 (54.9)
65세이상인구	881	1 217	1 742	2 144	2 450	1 569(178.1)
총인구대비	3.1	3.4	4.3	5.0	5.5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1991

- 출산력 감소로 유년부양비는 '65년 82.5에서 '94년 33.7로 감소한 반면, 노년부양비는 동기간중 5.8에서 7.8로 높아짐
  -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노인형 주택개발, 노인후생시설 확충, 노인 산업개발, 정년연장 및 재훈련등 노인 복지정책 강화가 필요함

(단위 %)

	1965	1975	1985	1990	1994	1995		
						세계	선진국	개도국
0~14세	43.8	38.6	30.1	25.8	23.8	31.9	20.9	34.9
15~64세	53.1	58.0	65.6	69.2	70.7	61.6	66.2	60.3
65세이상	3.1	3.4	4.3	5.0	5.5	6.5	12.9	4.8
총부양비	88.3	72.5	52.5	44.5	41.5	62.4	51.1	65.9
유년부양비	82.5	66.6	45.9	37.3	33.7	51.8	31.6	57.9
노년부양비	5.8	5.9	6.6	7.2	7.8	10.6	19.5	8.0

자료 :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1991  
· UN, 1992 세계인구전망, 1993

주 : 부양비는 0~14세 인구나 65세이상 인구를 15~64세 인구나 나눈 수치임

- 우리나라 인구의 평균연령은 '70년 23.6세에서 계속 상승하여 '92년에 처음으로 30세에 진입한 후, '94년은 31세로 상승.

(세)

	1970	1980	1990	1992	1994	1995		
						세계	선진국	개도국
평균연령	23.6	26.0	29.5	30.1	30.9	28.6	36.3	26.5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1991  
· UN, 1992 세계인구전망, 1993

#### 나 신규 노동인력 공급감소

- 지속적인 저출산으로 신규 생산가능인구의 절대수가 감소
  - 15~19세는 '88년, 20~24세는 '93년을 정점으로 감소하여 신규 노동력 공급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 노동인력의 고급·전문화, 인력의 효율적 배치 및 업무의 자동화 등 노동력 공급 감소에 따른 대책마련이 필요

(단위 천명)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5~19세	4,569	4,598	4,565	4,464	4,320	4,167	4,016	3,937
20~24세	4,232	4,242	4,289	4,289	4,391	4,486	4,537	4,516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1991

#### 4. 남녀간 평균수명의 큰 차이

- 40대이후 연령층에서 남자사망율이 여자보다 높아 남녀간 평균수명차이가 큼

#### 우리나라 평균수명 추이

(단위 세)

	1955 ~60	1966	1970	1978 ~79	1983	1985	1987	1989	1991
계	52.4	61.9	63.2	65.8	67.9	69.0	70.0	70.7	71.6
남	51.1	59.7	59.8	62.7	63.8	64.9	66.0	66.7	67.7
여	53.7	64.1	66.7	69.1	72.2	73.3	74.1	74.9	75.7
차이 (여-남)	2.6	4.3	6.9	6.4	8.4	8.4	8.1	8.2	8.0

자료 . 통계청, 1991년 생명표, 1993

- 우리나라 남녀간 평균수명('91)의 차이는 8.0세로 라트비아(9.2세), 리투아니아(9.1세), 에스토니아(9.0세), 폴란드(8.8세) 다음으로 큼.

#### 평균수명 국제비교

(단위 세)

	'90-'95										한국 '91
	세계	선진국	개도국	일본	프랑스	헝가리	폴란드	에스 토니아	리투 아니아	라트 비아	
계	64.7	74.6	62.4	78.7	76.9	70.3	71.7	71.5	73.0	71.3	71.6
남 자	62.7	71.0	61.1	75.9	73.0	66.3	67.3	66.8	68.3	66.5	67.7
여 자	66.7	78.0	63.9	81.6	80.8	74.3	76.1	75.8	77.4	75.7	75.7
(여-남)	4.0	7.0	2.8	5.7	7.8	8.0	8.8	9.0	9.1	9.2	8.0

자료 : . 통계청, 1991년 생명표, 1993  
 . UN, 1992 세계인구전망, 1993

## 통 계 분 석 자 료 모 음

---

발행일 : 1994년 11월 23일

발행인 : 이 강 우

발행처 : 통 계 청

⊕ 135-080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47-15

---

인쇄처 : 문성인쇄(주)